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2000-000017-10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 해설·요약 -

1989(I)

외 교 부

| 일러두기 |

1. 외교사료해제집은 공개된 외교문서의 내용을 요약 수록한 것으로, 본 책자는 2020년에 공개된 1989년도 외교문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 1963~90년도 문서 내용도 일부 포함
2. 각 문서철별 내용을 충실하게 요약·기술하고자 하였으며, 전반적인 흐름과 주요 내용을 집약함으로써 해당 문서철에 대한 최대한의 기본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다.
3. 해제문은 각 외교문서철의 주제순(분류번호순)으로 수록하였으며, 각 해제문 첫머리에 문서철 제목, 생산연도, 생산과와 함께 마이크로필름(MF) 번호 및 면수 등의 정보를 표기하였다.
4. 문서철 제목은 생산 당시 사용했던 국가명, 용어 등을 그대로 표기하였고, 해제문은 현재 시점의 국가명으로 표기하였다.
5. 해제집은 목차, 본문, 부록(1989년 외교일지)으로 구성되었다.

1989년도

0001	법령 질의 및 해석	26
0002	외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검토	27
0003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28
0004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1989.9.28.	29
0005	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 1988.12.31.	30
0006	국내 및 국외여비 규정 개정, 1989.3.17.	31
0007	외무부 본부 및 외교안보연구원 각 기관의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 개정, 1989.2.22.	32
0008	외무부 훈령 및 예규	33
0009	외무공무원의 인사, 복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예규 개정, 1989.11.	34
0010	재외공관 보고규정 개정, 1989.1.1.	35
0011	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 개정, 1989.5.20.	36
0012	주재관(재무관) 업무지침 개정	37
0013	중국담담관 제도 운영	38
0014	Kovacs Jones, Eduardo 주Valparaiso(칠레) 명예영사 해임, 1989.12.31.	39
0015	주Barcelona(스페인)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40
0016	명예영사 해임 - 미국	41
0017	국회공무원 재외공관 파견	42
0018	일본 경제인 서훈	43
0019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44
0020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제123차. Montreal, 1988.2.29.-3.31. 전7권 (V.1 1987.12-88.1)	45
0021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제123차. Montreal, 1988.2.29.-3.31. 전7권 (V.2 1988.2.1.-22.)	46
0022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제123차. Montreal, 1988.2.29.-3.31. 전7권 (V.3 1988.2.23.-29.)	47
0023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제123차. Montreal, 1988.2.29.-3.31. 전7권 (V.4 1988.3.1.-15.)	48
0024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제123차. Montreal, 1988.2.29.-3.31. 전7권 (V.5 1988.3.16.-26.)	49
0025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제123차. Montreal, 1988.2.29.-3.31. 전7권 (V.6 1988.3.26.-1989)	50
0026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제123차. Montreal, 1988.2.29.-3.31. 전7권 (V.7 버마정부의 조사보고서 ICAO 제출)	51
0027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사고 조사 결과. 전3권 (V.1 조사 결과 자료 1)	52
0028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사고 조사 결과. 전3권 (V.2 조사 결과 자료 2)	53
0029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사고 조사 결과. 전3권 (V.3 국가안전기획부 수사 결과(보조자료 포함))	54
0030	한국 인권문제에 대한 구주 의회 반응	55
0031	일본 외무성 공개 외교문서 수집	56
0032	주요 업무계획 및 대통령 지시사항	57
0033	대사파견 - 오스트리아	58
0034	대사파견 - 벨기에	59
0035	대사파견 - 브라질	60
0036	대사파견 - 볼리비아	61
0037	대사파견 - 코스타리카	62

0038	대사파견 - 지부티	63
0039	대사파견 - 덴마크	64
0040	대사파견 - 에콰도르	65
0041	대사파견 - 에티오피아	66
0042	대사파견 - 가봉	67
0043	대사파견 - 헝가리	68
0044	대사파견 - 인도네시아	69
0045	대사파견 - 이란	70
0046	대사파견 - 이탈리아	71
0047	대사파견 - 쿠웨이트	72
0048	대사파견 - 라이베리아	73
0049	대사파견 - 모로코	74
0050	대사파견 - 노르웨이	75
0051	대사파견 - 네덜란드	76
0052	대사파견 - 뉴질랜드	77
0053	대사파견 - 파라과이	78
0054	대사파견 - 필리핀	79
0055	대사파견 - 파푸아뉴기니	80
0056	대사파견 - 사우디아라비아	81
0057	대사파견 - 스웨덴	82
0058	대사파견 - 싱가포르	83
0059	대사파견 - 세네갈	84
0060	대사파견 - 수리남	85
0061	대사파견 - 스와지랜드	86
0062	대사파견 - 스위스	87
0063	대사파견 - 트리니다드토바고	88
0064	대사파견 - 터키	89
0065	대사파견 - 우간다	90
0066	대사파견 - 우루과이	91
0067	대사파견 - 베네수엘라	92
0068	대사파견 - 자이르	93
0069	대사부임 - 오스트리아	94
0070	대사부임 - 방글라데시	95
0071	대사부임 - 카메룬	96
0072	대사부임 - 덴마크	97
0073	대사부임 - 적도기니	98
0074	대사부임 - 피지	99
0075	대사부임 - 헝가리	100
0076	대사부임 - 인도	101
0077	대사부임 - 아일랜드	102
0078	대사부임 - 이라크	103
0079	대사부임 - 이란	104
0080	대사부임 - 리비아	105
0081	대사부임 - 말레이시아	106
0082	대사부임 - 모로코	107
0083	대사부임 - 니제르	108

0084	대사부임 - 스리랑카	109
0085	대사부임 - 수단	110
0086	대사부임 - 튀니지	111
0087	대사부임 - 미국	112
0088	대사부임 - 우루과이	113
0089	영사 위임장 발급	114
0090	주한 카메룬 명예영사 접수(계획)	115
0091	명예영사 접수 - 구주지역	116
0092	각국의 외국인 및 외교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리지침	117
0093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관계	118
0094	Lilley, James 주한 미국대사 활동 동향	119
0095	한국 주재 외국 외교관 등의 신분증 발급 규정 개선	120
0096	주한 중남미국가 대사관의 비자수수료 과다징수에 대한 대응	121
0097	주한공관 부동산 관계	122
0098	주한 미국영사관(부산) 내 불법 건축공사 문제	124
0099	대미국 외교강화 방안	125
0100	한국 외교정책 중장기 구상연구(1989-90년판)	126
0101	한국의 대폴리사리오 정책	127
0102	한국의 대캄보디아 정책	128
0103	한국의 대베트남 정책	129
0104	중남미국가들의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가입 동향	130
0105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131
0106	대통령 특별선언(1988.7.7.) 관련 EC(구주공동체) 회원국의 대한반도 정책검토 및 대응방안	132
0107	중국의 대외정책	133
0108	외무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및 세미나	134
0109	한·UAE(아랍에미리트) 정부일반	135
0110	한·바베이도스 정부일반	136
0111	한·미얀마 정부일반	137
0112	한·벨리즈 관계	138
0113	한·캐나다 정부일반	139
0114	중국 민항기의 한국 영공 진입사건	140
0115	한·코모로 정부일반	141
0116	한·덴마크 정부일반	142
0117	한·EC(구주공동체) 정부일반	143
0118	한·피지 관계	144
0119	한·핀란드 정부일반	145
0120	한·프랑스 정부일반	146
0121	한·독일 정부일반	148
0122	한·헝가리 관계	149
0123	한·인도네시아 정부일반	150
0124	한·이스라엘 관계	151
0125	한·이탈리아 정부일반	152
0126	일본 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 개선문제	153
0127	한·일본 정부일반	154
0128	한·라이베리아 정부일반	156
0129	한·리비아 정부일반	157

0130	한·말레이시아 정무일반	158
0131	한·마카오 관계	159
0132	한·멕시코 정무일반	160
0133	한·네팔 정무일반	161
0134	한·뉴질랜드 관계	163
0135	한·파키스탄 정무일반	164
0136	한·파푸아뉴기니 관계	165
0137	한국의 팔레스타인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공여	166
0138	한·소말리아 정무일반	167
0139	한·태국 정무일반	168
0140	한·우간다 관계	169
0141	한·미국 정무일반	170
0142	한국 관련 미국 의회 의원 서한	172
0143	한반도 관련 미국 의회 동향. 전2권 (V.1 1988-89.8)	173
0144	한반도 관련 미국 의회 동향. 전2권 (V.2 1989.9-12)	174
0145	한·바누아투 정무일반	175
0146	한·구주지역 정무일반	176
0147	한·동구권국가 정무일반	177
0148	한·짐바브웨 정무일반	178
0149	김동호 주카메룬대사 겸임국 적도기니 출장	179
0150	주과테말라대사 겸임국 온두라스 및 엘살바도르 출장	180
0151	민수홍 주바베이도스대사 겸임국 출장	181
0152	중화민국(대만)·중국 관계	182
0153	네덜란드의 중국(대만)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문제, 1980-81	183
0154	Mulroney, Brian 캐나다 수상 소련 방문, 1989.11.20.-25.	184
0155	인도네시아·중국 관계	185
0156	일본·중국 관계	186
0157	중국·소련 관계	187
0158	Bush, George 미국 대통령 중국 방문, 1989.2.25.-27.	189
0159	조자양(趙紫陽) 중공 수상 아프리카 순방, 1982.12.20.-83.1.17.	190
0160	인도·파키스탄 관계	191
0161	다케시다 노보루(竹下登) 일본 수상 아세안 순방, 1989.4.29.-5.7.	192
0162	일본·소련 관계	193
0163	다케시다(竹下) 일본 수상 미국 방문, 1989.2.1.-6.	194
0164	카이후(海部) 일본 수상 미주 순방, 1989.8.30.-9.10.	195
0165	미국·소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문제 협의회	196
0166	미국·소련 관계	197
0167	미국·소련 정상회담. 몰타, 1989.12.2.-3.	198
0168	한·가이아나 관계개선	200
0169	국교수립 - 헝가리, 1989.2.1. 전8권 (V.1 관계 개선추진, 1973-87)	201
0170	국교수립 - 헝가리, 1989.2.1. 전8권 (V.2 수교추진, 1987-88)	203
0171	국교수립 - 헝가리, 1989.2.1. 전8권 (V.3 한·헝가리 상주대표부 개설협정교섭 대표단 헝가리 방문, 1988.8.24.-27.)	204
0172	국교수립 - 헝가리, 1989.2.1. 전8권 (V.4 상주대표부 설치, 1988)	205
0173	국교수립 - 헝가리, 1989.2.1. 전8권 (V.5 신동원 외무부차관 헝가리 방문, 1988.12.27.-29.)	206
0174	국교수립 - 헝가리, 1989.2.1. 전8권 (V.6 신동원 외무부차관 헝가리 방문자료)	207

0175	국교수립 - 헝가리, 1989.2.1. 전8권 (V.7 Horn, Gyula 헝가리 외무담당 국무비서 방한, 1989.1.28.-2.1.)	208
0176	국교수립 - 헝가리, 1989.2.1. 전8권 (V.8 후속조치 및 국내외 반응)	209
0177	국교수립(교섭) - 이라크	210
0178	국교수립(교섭) - 이라크	211
0179	국교수립 - 이라크. 전3권 (V.1 1985-87)	212
0180	국교수립 - 이라크. 전3권 (V.2 1988-89)	214
0181	국교수립 - 이라크. 전3권 (V.3 자료)	215
0182	한·모잠비크 관계 개선	216
0183	국교수립 - 폴란드. 전6권 (V.1 관계개선, 1972-87)	217
0184	국교수립 - 폴란드. 전6권 (V.2 사전교섭, 1988.2-89.3)	218
0185	국교수립 - 폴란드. 전6권 (V.3 사전교섭, 1989.4-12)	219
0186	국교수립 - 폴란드. 전6권 (V.4 수교교섭실무대표단 방한, 1989.9.17.-20.)	220
0187	국교수립 - 폴란드. 전6권 (V.5 폴란드 정부대표단 방한, 1989.10.31.-11.4.)	221
0188	국교수립 - 폴란드. 전6권 (V.6 대외발표 및 국내외 반응)	222
0189	대소련 외교관 접촉	223
0190	국교수립 - 유고슬라비아. 전7권 (V.1 1970-79)	225
0191	국교수립 - 유고슬라비아. 전7권 (V.2 1980-82)	226
0192	국교수립 - 유고슬라비아. 전7권 (V.3 1983-87)	227
0193	국교수립 - 유고슬라비아. 전7권 (V.4 1988)	228
0194	국교수립 - 유고슬라비아. 전7권 (V.5 1989.1-7)	229
0195	국교수립 - 유고슬라비아. 전7권 (V.6 1989.8-12)	230
0196	국교수립 - 유고슬라비아. 전7권 (V.7 국내외 반응 및 참고자료)	232
0197	외교망 재정비 계획(재외공관 철수 및 감축) 추진	233
0198	재외공관 폐쇄 - 바베이도스, 1989.5.31.	234
0199	재외공관 폐쇄 - 중앙아프리카, 1989.5.31.	235
0200	주Amsterdam(네덜란드) 총영사관 재개설 문제 검토	237
0201	재외공관 설치 - Orange County(미국) 출장소	238
0202	주한공관 설치 - 버마(미얀마)	240
0203	주한공관 설치 - EC(구주공동체) 대표부	241
0204	주한 나우루영사관(서울) 설치 추진	242
0205	주한공관 설치 - 싱가포르, 1989.12.11.	243
0206	일본의 아·태지역 경제협력체 구성 제의	244
0207	한·아세안 간 대화 개설문제 검토	245
0208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전8권 (V.1 1988.12-89.4)	246
0209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전8권 (V.2 1989.5-6)	247
0210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전8권 (V.3 1989.7)	248
0211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전8권 (V.4 1989.8.1.-19.)	249
0212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전8권 (V.5 1989.8.21.-25.)	250
0213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전8권 (V.6 1989.8.26.-12월)	251
0214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전8권 (V.7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관련 관계부처 회의)	252
0215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전8권 (V.8 아세안·선진국 간 협력실적 및 협력방향 등 조사)	253
0216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관련 고위실무협의회. 서울, 1989.8.21.-22.	254
0217	제22차 아세안 외상회담 자료	255
0218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정상회의, 제4차. Islamabad(파키스탄), 1988.12.29.-31.	256
0219	SPC(남태평양위원회) 총회, 제29차. Agana(괌), 1989.10.7.-11. 전2권 (V.1 기본문서)	257
0220	SPC(남태평양위원회) 총회, 제29차. Agana(괌), 1989.10.7.-11. 전2권 (V.2 회의자료)	258

0221	SPF(남태평양협의회) 정상회담, 제20차. Tarawa(키리바시), 1989.7.10.-11.	259
0222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 제21차. 서울, 1989.6.26.	260
0223	OAS(미주기구) 기타 회의	261
0224	OAS(미주기구) 총회, 제19차. Washington D.C., 1989.11.13.-18.	262
0225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263
0226	EC(구주공동체) 외상회의	264
0227	EC(구주공동체) 아주국장 회의 및 정무총국장 회의(정치위원회)	265
0228	GCC(걸프협력이사회) 정상회의	266
0229	OIC(이슬람회의기구) 회의	267
0230	아랍연맹 회의	268
0231	OAU(아프리카단결기구) 각료회의, 제49차. Addis Ababa, 1989.2.20.-24.	269
0232	신청부 승인 - 버마(미얀마)	270
0233	신청부 승인 - 수단	271
0234	최은희, 신상옥 납북 사건	272
0235	일본인 오사와 프레스사장 납치 사건	273
0236	다케시다 일본 수상의 침략전쟁 부인 발언	274
0237	대일본 연예인 송출 문제	275
0238	한·미국 간 접촉 통로 및 미국 측 주요 인사 관리	276
0239	Solomon, Richard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임명	277
0240	대미국 주요인사 친서	278
0241	화학무기 금지에 관한 국제회의 참석계기 한·일본 외무장관회담. Paris, 1989.1.8.	279
0242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제4차. 동경, 1989.4.1. 전3권 (V.1 기본문서)	280
0243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제4차. 동경, 1989.4.1. 전3권 (V.2 회담준비사항 및 자료)	281
0244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제4차. 동경, 1989.4.1. 전3권 (V.3 회담결과)	282
0245	화학무기 금지에 관한 국제회의 참석계기 한·미국 외무장관회담. Paris, 1989.1.7.	283
0246	제44차 유엔총회 참석계기 한·미국 외무장관회담. New York, 1989.9.26.	284
0247	한·캐나다 정책협의회, 제5차. 서울, 1989.11.13.-14.	285
0248	한·EC(구주공동체) 정무협의체 회의, 제1차. Paris, 1989.10.23.	286
0249	한·헝가리 정책협의회, 제1차. 서울, 1989.9.27.-28.	287
0250	한·일본 고위정책협의회, 제6차. 서울, 1989.8.4. 전2권 (V.1 기본문서)	288
0251	한·일본 고위정책협의회, 제6차. 서울, 1989.8.4. 전2권 (V.2 자료 및 회의록)	289
0252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 제1차. Wellington, 1989.12.7.-8.	290
0253	멜라네시아 3개국 정상회담	291
0254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ANICs(아시아신흥공업국) 간 대화 및 세미나	293
0255	공관장회의, 1989년도. 서울, 1989.3.9.-17. 전5권 (V.1 기본문서)	294
0256	공관장회의, 1989년도. 서울, 1989.3.9.-17. 전5권 (V.2 지역별 회의)	295
0257	공관장회의, 1989년도. 서울, 1989.3.9.-17. 전5권 (V.3 회의 자료 I (공관))	296
0258	공관장회의, 1989년도. 서울, 1989.3.9.-17. 전5권 (V.4 회의 자료 II)	297
0259	공관장회의, 1989년도. 서울, 1989.3.9.-17. 전5권 (V.5 결과보고 및 건의사항/본부검토)	298
0260	관내 공관장회의 및 상사협의회, 1989년도 - 캐나다. 전2권 (V.1 제1차. Ottawa, 1989.4.27.-28.)	299
0261	관내 공관장회의 및 상사협의회, 1989년도 - 캐나다. 전2권 (V.2 제2차. Vancouver, 1989.11.2.-3.)	300
0262	주일본지역 공관장회의, 1989년도 - 일본. 동경, 1989.6.8.-9.	301
0263	한·일본 간 소련관계 구주국장 협의회, 제4차. 서울, 1989.2.10.-11.	302
0264	한·미국 간 소련관계 실무자 회의, 제6차. Washington D.C., 1989.8.28.-29. 전2권 (V.1 기본문서)	303
0265	한·미국 간 소련관계 실무자 회의, 제6차. Washington D.C., 1989.8.28.-29. 전2권 (V.2 회의자료)	304
0266	동북아 학술회의	305

0267	한·이집트 학술회의, 제2차. 서울, 1989.10.24.	306
0268	한·헝가리 원탁학술회의, 제2차. 서울, 1989.3.5.-12.	307
0269	한·일본 동북아 정세 연구회의, 제4차. 서울, 1989.5.25.-27.	308
0270	한·미국 관계 학술회의. New York, 1989.1.11.-12.	309
0271	미국 Heritage Foundation 주최 한국관계 세미나. Washington D.C., 1989.10.10.	310
0272	한·일본 21세기위원회 공동연구회, 제1-2차	311
0273	한·일본 21세기위원회 운영 및 제2차 본회의. 동경, 1989.5.13.-14.	312
0274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27회. 서울, 1989.12.6.-8.	313
0275	한·미국 관계 대통령 자문위원회 설치 검토	314
0276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계획. 전5권 (V.1 기본문서)	315
0277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계획. 전5권 (V.2 교민 및 홍보)	316
0278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계획. 전5권 (V.3 관계부처 대책회의 I)	317
0279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계획. 전5권 (V.4 관계부처 대책회의 II)	318
0280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계획. 전5권 (V.5 자료)	319
0281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989.10.15.-20. 전17권 (V.3 의전 I(8-9월))	320
0282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989.10.15.-20. 전17권 (V.4 의전 II(10-12월))	321
0283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989.10.15.-20. 전17권 (V.5 의전 III(선발대))	322
0284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989.10.15.-20. 전17권 (V.8 의전 VI(선물 및 의전용품/예산))	323
0285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989.10.15.-20. 전17권 (V.9 홍보)	324
0286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989.10.15.-20. 전17권 (V.10 의회연설 I(교섭문서))	325
0287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989.10.15.-20. 전17권 (V.11 의회연설 II(연설문))	326
0288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989.10.15.-20. 전17권 (V.12 계기별 행사 I(대학/언론))	327
0289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989.10.15.-20. 전17권 (V.13 계기별 행사 II(교민))	328
0290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989.10.15.-20. 전17권 (V.15 자료 II(일자별 말씀 및 참고자료))	329
0291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989.10.15.-20. 전17권 (V.16 자료 III(공관보고))	330
0292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989.10.15.-20. 전17권 (V.17 결과 및 후속조치)	331
0293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1 기본계획 I: 1988.6-7)	333
0294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2 기본계획 II: 1988.8월-9.7.)	334
0295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3 기본계획 III: 1988.9.8.-30.)	336
0296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4 기본계획 IV: 1988.10-11)	337
0297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5 사전준비 I: 말레이시아 (정무 및 자료))	338
0298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6 사전준비 II: 호주(정무 및 자료1))	339
0299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7 사전준비 III: 호주(정무 및 자료2))	340
0300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8 사전준비 IV: 인도네시아 (정무 및 기자회견))	341
0301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9 사전준비 V: 인도네시아(자료))	342
0302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10 사전준비 VI: 브루나이 (정무 및 자료))	343
0303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11 결과)	344
0304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12 후속조치 I: 1988.11)	345
0305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13 후속조치 II: 1988.12-89.12)	347
0306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14 홍보 및 언론보도)	348
0307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1 사전준비 자료 I: 1988.8월-9.16.)	349

0308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2 사전준비 자료 II: 9.20.-10월)	350
0309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3 일정, 숙소 등 의전 I: 말레이시아)	351
0310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4 일정, 숙소 등 의전 II: 브루나이)	352
0311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5 일정, 숙소 등 의전 III: 인도네시아 1(7월-10.18.))	353
0312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6 일정, 숙소 등 의전 IV: 인도네시아 2(10.19.-11.7.))	354
0313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7 일정, 숙소 등 의전 V: 호주, 일본)	355
0314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8 선발대 I: 말레이시아)	356
0315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9 선발대 II: 인도네시아)	357
0316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10 선발대 III: 호주)	358
0317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11 선발대 IV: 브루나이)	359
0318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12 훈장 교환)	360
0319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13 수행원 명단, 숙소 배정)	361
0320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14 인원 지원, 경호 협조)	362
0321	Albert 벨기에 왕제 방한, 1989.6.23.-29.	363
0322	Cerezo Arevalo, Vinicio M. 과테말라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364
0323	교황 요한 바오로(John Paul) 2세 방한, 1989.10.7.-9. 전2권 (V.1 기본문서)	365
0324	교황 요한 바오로(John Paul) 2세 방한, 1989.10.7.-9. 전2권 (V.2 자료 및 언론보도)	366
0325	Aquino, Corazon 필리핀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367
0326	Quayle, Dan 미국 부통령 방한, 1989.9.19.-21.	368
0327	Hawke, Robert J. L. 호주 수상 방한, 1989.1.29.-2.1. 전3권 (V.3 자료수집(부내 및 타부처))	369
0328	Brandt, Willy 전 독일 수상 방한, 1989.10.24.-31.	370
0329	Medgyessy, Peter 헝가리 부수상 방한, 1989.10.22.-25.	371
0330	Lange, David R. 뉴질랜드 수상 방한 초청계획	372
0331	Bhichai Rattakul 태국 부수상 방한, 1989.5.20.-25.	373
0332	최호중 외무장관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 참석 및 인도네시아 방문, 1989.11.1.-7. 전3권 (V.1 사전준비 I (7월-10.24.))	374
0333	최호중 외무장관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 참석 및 인도네시아 방문, 1989.11.1.-7. 전3권 (V.2 사전준비 II (10.25.-11월))	375
0334	최호중 외무장관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 참석 및 인도네시아 방문, 1989.11.1.-7. 전3권 (V.3 결과보고)	376
0335	최호중 외무장관 헝가리 방문, 1989.3.28.-30. 전2권 (V.1 기본문서)	377
0336	최호중 외무장관 헝가리 방문, 1989.3.28.-30. 전2권 (V.2 자료)	378
0337	최호중 외무장관 서구 및 이라크 순방, 1989.6.27.-7.12. 전6권 (V.1 기본문서)	379
0338	최호중 외무장관 서구 및 이라크 순방, 1989.6.27.-7.12. 전6권 (V.2 국별교섭)	380
0339	최호중 외무장관 서구 및 이라크 순방, 1989.6.27.-7.12. 전6권 (V.3 활동사항 및 결과보고)	381
0340	최호중 외무장관 서구 및 이라크 순방, 1989.6.27.-7.12. 전6권 (V.4 자료 I: 영국)	382
0341	최호중 외무장관 서구 및 이라크 순방, 1989.6.27.-7.12. 전6권 (V.5 자료 II: 독일)	383
0342	최호중 외무장관 서구 및 이라크 순방, 1989.6.27.-7.12. 전6권 (V.6 자료 III: 벨기에)	384
0343	최호중 외무장관 태국 방문, 1989.3.23.-27. 전3권 (V.1 기본문서)	385
0344	최호중 외무장관 태국 방문, 1989.3.23.-27. 전3권 (V.2 활동결과)	386
0345	최호중 외무장관 태국 방문, 1989.3.23.-27. 전3권 (V.3 자료)	387

0346	최호중 외무장관 미국 방문, 1989.7.20.-27. 전5권 (V.1 사전교섭(워싱턴))	388
0347	최호중 외무장관 미국 방문, 1989.7.20.-27. 전5권 (V.2 사전교섭(샌프란시스코))	389
0348	최호중 외무장관 미국 방문, 1989.7.20.-27. 전5권 (V.5 자료 II)	390
0349	RASHID Abdullah Al - Noaimi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외무담당국무상 방한, 1980.12.29.-81.1.1.	391
0350	Arnau, Juan Carlos Sanchez 아르헨티나 외무부 양자경제 차관보 방한, 1989.11.20.-27.	392
0351	Mock, Alois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방한, 1989.9.17.-19.	393
0352	Mohamed Bolkiah 브루나이 외무장관 비공식 방한, 1989.5.17.-20.	394
0353	Gbezera - Bria, Michel 중앙아프리카 외무장관 방한, 1989.6.13.-17.	395
0354	Da Luz, Silvino Manuel 카보베르데 외무장관 방한, 1989.5.1.-4.	396
0355	Herrera Cabral, Fabio F. 도미니카공화국 외무차관 방한, 1989.5.21.-25.	397
0356	Bongo, Martin 가봉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398
0357	Martini Herrera, Julio A. 과테말라 외무차관 방한, 1989.4.9.-19.	399
0358	Lopez Contreras, Carlos 온두라스 외무장관 방한, 1989.4.19.-23.	400
0359	무라타 료헤이(村田 良平) 전 일본 외무차관 방한, 1989.11.16.-18.	401
0360	Johnson, J. Rudolph 라이베리아 외무장관 방한, 1989.12.21.-24.	402
0361	Rozental Gutman, Andres 멕시코 외무차관 방한, 1989.11.8.-10.	403
0362	Ike Omar Sanda Nwachukwu 나이지리아 외무장관 방한, 1989.8.16.-19. 전2권 (V.1 기본문서)	404
0363	Ike Omar Sanda Nwachukwu 나이지리아 외무장관 방한, 1989.8.16.-19. 전2권 (V.2 자료)	405
0364	포르투갈 Pinheiro 외무장관 및 Barroso 외무부 부장관 방한 초청 계획	406
0365	Carlos Alberto Monteiro Dias DA GRACA 상토메프린시페 외교장관 방한, 1989.6.20.-23.	407
0366	베네수엘라 외무장관 방한 초청 계획	408
0367	노영찬 특사(본부대사) 아프리카 순방, 1989.6.26.-7.15.	409
0368	조상호 특사(전 체육부장관) 중동 순방, 1989.6.20.-7.2. 전3권 (V.1 사전준비)	410
0369	조상호 특사(전 체육부장관) 중동 순방, 1989.6.20.-7.2. 전3권 (V.2 친서 및 자료)	411
0370	조상호 특사(전 체육부장관) 중동 순방, 1989.6.20.-7.2. 전3권 (V.3 활동결과)	412
0371	최광수 특사(전 외무장관) 아주 순방, 1989.6.25.-7.8. 전3권 (V.1 사전준비)	413
0372	최광수 특사(전 외무장관) 아주 순방, 1989.6.25.-7.8. 전3권 (V.2 활동결과)	414
0373	최광수 특사(전 외무장관) 아주 순방, 1989.6.25.-7.8. 전3권 (V.3 자료)	415
0374	강경식 특사(전 재무부장관) 남미 순방, 1989.6.28.-7.12. 전3권 (V.1 사전준비)	416
0375	강경식 특사(전 재무부장관) 남미 순방, 1989.6.28.-7.12. 전3권 (V.2 활동결과)	417
0376	강경식 특사(전 재무부장관) 남미 순방, 1989.6.28.-7.12. 전3권 (V.3 자료)	418
0377	김창훈 특사(외무부 본부대사) 서아프리카 3개국(토고, 중앙아프리카, 니제르) 순방(참고자료), 1989.9.18.-10.4.	419
0378	Woolcott, Richard 호주 수상 특사(외무무역부차관) 방한, 1989.4.20.-24.	420
0379	아마시다 도쿠오(山下徳夫) 일본 수상 특사 방한, 1989.11.7.-9.	421
0380	Mohamed Sheikh Osman 소말리아 대통령 특사(경제담당 국무장관) 방한, 1989.2.15.-17.	422
0381	일본 야당 동향	423
0382	박준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캐나다 방문, 1989.7.3.-8.	424
0383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캐나다 및 멕시코 방문, 1989.6.7.-15.	425
0384	박준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일본 방문, 1989.7.9.-14.	426
0385	한·멕시코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멕시코 방문, 1981.8.24.-27.	427
0386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미국 및 소련 방문, 1989.6.2.-18.	428
0387	박준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미국 방문계획	429
0388	국회의원 동남아시아 국가 방문	430
0389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구주 순방, 1989.2.1.-15.	431
0390	김재순 국회의장 구주 순방, 1989.6.5.-24.	432
0391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단 구주국가 방문, 1989.11.15.-27.	433

0392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소속 의원단 동구국가 방문, 1989.4.24.-5.6.	434
0393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중남미 순방	435
0394	콜롬비아 국회의원 방한	436
0395	캐나다·한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방한, 1989.10.23.-28.	437
0396	덴마크 국회의원 방한	438
0397	과테말라 국회의원 방한	439
0398	일본 사회당 대표단 방한, 1989.12.21.-23.	440
0399	필리핀 국회의원 방한	441
0400	파푸아뉴기니 국회사절단 방한, 1989.5.13.-19.	442
0401	세네갈 국회사절단 방한, 1988.11.14.-19.	443
0402	Pancha Kesornthong 태국 하원의장 방한, 1989.8.14.-19.	444
0403	Solarz, Stephen J. 미국 하원의원 방한, 1989.8.17.-19.	445
0404	미국 의회의원 및 보좌관 방한	446
0405	미국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 소속 의원단 방한, 1989.8.6.-9.	448
0406	미국 하원 의원단 방한	449
0407	Klepsch, Egon Alfred 구주의회 기민당그룹 의장 방한, 1989.6.22.-24.	450
0408	자이르·한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방한, 1989.7.31.-8.4.	451
0409	한·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	452
0410	한·일본 의원연맹 합동총회, 제17차. 서울, 1989.9.7.-9.	453
0411	한·일본 의원연맹	454
0412	한·라이베리아 의원친선협회	456
0413	덴마크 주요인사 교류	457
0414	주요인사 인도네시아 방문	458
0415	박철언 대통령 정책보좌관 미국 방문, 1989.4.25.-5.6.	459
0416	이흥구 국토통일위원장 서구 및 미국 순방, 1989.6.3.-15.	460
0417	김영정 정무 제2장관 동남아 순방, 1989.5.14.-24.	461
0418	신두병 외무부 미주국장 중남미 순방, 1989.4.23.-5.5.	462
0419	Moustafa Ahmed Kamel Ibrahim 이집트 내무성 제1차관 겸 보안경찰총국장 방한, 1989.5.21.-26.	464
0420	Saathi, Mahinder Singh 인도 Delhi 시장 방한, 1989.4.24.-29.	465
0421	일본 주요인사 방한	466
0422	페루 주요인사 방한	467
0423	영국 Wales담당장관 방한	468
0424	Glenarthur, Simon 영국 외무부 아주지역담당 국무상 방한, 1989.5.22.-26.	469
0425	미국 주요인사 방한	470
0426	Rowny, Edward L. 미국 대통령 군축담당 특별보좌관 방한	471
0427	Sigur, Gaston J.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방한	472
0428	미국 유태인 위원회 대표단 방한, 1989.9.8.-13.	473
0429	김용식 특사(전 외무장관) Menem, Carlos Saul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89.7.6.-9.	474
0430	박춘범 주엘살바도르대사 CRISTIANI Burkard, Licenciado Alfredo Felix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89.6.1.	475
0431	이남기 특사(전 주이탈리아대사) 몰타 독립 25주년 기념식 참석, 1989.9.17.-29.	476
0432	최광수 특사(전 외무장관) Perez, Carlos Andres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남미 순방, 1989.1.31.-2.10.	477
0433	강영훈 국무총리 일본 방문, 1989.2.23.-25. 전2권 (V.1 기본계획)	478
0434	강영훈 국무총리 일본 방문, 1989.2.23.-25. 전2권 (V.2 참고자료)	479
0435	이방자 여사(영친왕 비) 타계, 1989.4.30.	480
0436	북한·베냉 관계	481

0437	북한·캐나다 관계	482
0438	북한·덴마크 관계	483
0439	북한·프랑스 관계	484
0440	북한·가봉 관계	485
0441	북한·가나 관계	486
0442	북한·헝가리 관계	487
0443	북한·아일랜드 관계	488
0444	북한·모리타니아 관계	489
0445	북한·나이지리아 관계	490
0446	북한·필리핀 관계	491
0447	북한·페루 관계	492
0448	북한·르완다 관계	493
0449	북한·스웨덴 관계	494
0450	북한·시에라리온 관계	495
0451	북한·세네갈 관계	496
0452	북한·우간다 관계	497
0453	북한·영국 관계	498
0454	북한·소련 관계	499
0455	미국·북한 관계	500
0456	미국·북한 학술교류. 전2권 (V.1 1-4월)	501
0457	미국·북한 학술교류. 전2권 (V.2 5-12월)	502
0458	북한·아프리카 관계	503
0459	북한·아시아 관계	504
0460	북한·중동 관계	505
0461	북한·중미 관계	507
0462	북한·남미 관계	508
0463	최수현 북한 외교부 부부장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방문, 1989.4.14.-20.	509
0464	북한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일본 방문, 1983.4.3.-6.8.	510
0465	일본·북한 경제 관계	511
0466	북한 정세 동향	513
0467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관련 미국 측 반응	514
0468	북한 적십자사의 수재의연품 제공 제의에 대한 대책. 전3권 (V.1 기본문서(9.5.-17.))	515
0469	북한 적십자사의 수재의연품 제공 제의에 대한 대책. 전3권 (V.2 기본문서(9.18.-10.16.))	516
0470	북한 적십자사의 수재의연품 제공 제의에 대한 대책. 전3권 (V.3 해외반응)	517
0471	남북교류협력 사업	518
0472	남북한 군축	519
0473	대공산권 학술교류	520
0474	북방정책 추진. 전8권 (V.3 북방외교추진본부 설치)	521
0475	북방정책 추진. 전8권 (V.4 북방외교추진협의회 1)	522
0476	북방정책 추진. 전8권 (V.5 북방외교추진협의회 2)	523
0477	북방정책 추진. 전8권 (V.6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524
0478	북방정책 추진. 전8권 (V.7 참고자료)	525
0479	북방정책 추진. 전8권 (V.8 대북방 경제정책 추진)	526
0480	대동구권 관계 개선	527
0481	동구권 교섭창구공관 지정 및 활동강화	528
0482	공산권·특정국가에 대한 여행제도 지침 및 개선 방안. 전3권 (V.1 1988.7-89.4)	529

0483	공산권·특정국가에 대한 여행제도 지침 및 개선 방안. 전3권 (V.2 1989.5-7)	530
0484	공산권·특정국가에 대한 여행제도 지침 및 개선 방안. 전3권 (V.3 1989.8-12)	531
0485	비동맹 정상회의, 제9차. Belgrade(유고), 1989.9.4.-7. 전6권 (V.1 기본대책 및 각국 지지교섭)	532
0486	비동맹 정상회의, 제9차. Belgrade(유고), 1989.9.4.-7. 전6권 (V.2 회의결과)	534
0487	비동맹 정상회의, 제9차. Belgrade(유고), 1989.9.4.-7. 전6권 (V.3 북한 동향)	535
0488	비동맹 정상회의, 제9차. Belgrade(유고), 1989.9.4.-7. 전6권 (V.4 회의록)	536
0489	비동맹 정상회의, 제9차. Belgrade(유고), 1989.9.4.-7. 전6권 (V.5 최종선언문)	537
0490	비동맹 정상회의, 제9차. Belgrade(유고), 1989.9.4.-7. 전6권 (V.6 연설문 및 언론보도)	538
0491	비동맹 외상회의, Nicosia(사이프러스), 1989.1.13.-16.	539
0492	비동맹 외상회의, Hague(네덜란드), 1989.6.26.-30.	540
0493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Harare(짐바브웨), 1989.5.17.-19.	541
0494	비동맹 조정위원회	542
0495	비동맹 정상회의 관련 유고인사 방한	543
0496	비동맹 Africa 기금위원회, 제4차. New Delhi(인도), 1989.2.14.-17.	544
0497	비동맹 Africa 기금위원회, 제5차. New Delhi(인도), 1989.8.1.-4.	545
0498	일본의 안보 및 방위 정책	546
0499	소련의 군사·안보 동향	548
0500	미국 의회의 국방관련 예산 법안심의 동향	549
0501	중국의 군사·안보 동향	550
0502	각국의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문제	551
0503	한·미국 연례안보협의회, 제21차. Washington D.C., 1989.7.17.-19. 전2권 (V.2 자료)	552
0504	FMS(대외군사판매) 차관 상황	553
0505	한국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 KFP(Korean Fighter Program)	554
0506	주요국가의 방위비 부담 현황	555
0507	아시아·태평양 라운드테이블, 제3차. Kuala Lumpur, 1989.6.16.-19.	556
0508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의회 대표회의 한국 옵서버자격 참석 문제	557
0509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전2권 (V.1 1-5월)	558
0510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전2권 (V.2 6-12월)	559
0511	바르샤바(WARSAW) 조약기구 회의	560
0512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후속회의, 제3차. Vienna, 1986.11.4.-89.1.19.	561
0513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 교통분과위원회	562
0514	Chevenement, Jean-Pierre 프랑스 국방장관 방한, 1989.5.29.-31.	563
0515	한·인도 군사관계 인사교류	564
0516	PPNN(핵 비확산 강화계획) 회의. Guernsey(영국), 1989.5.14.-17.	565
0517	한·카메룬 군사협력	566
0518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관 동북아 문제 한·미국 학술회의	567
0519	동북아 안보에 관한 한·미국 학술회의, 제7차. Washington D.C., 1989.12.4.-6.	568
0520	공무원 국제기구 파견 및 훈련	569
0521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 업무협조체계 일원화 문제	570
052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외무부 직원 파견	571
052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재무부 직원 파견	572
052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과학기술처 직원 파견	573
0525	ILO(국제노동기구) 파견 공무원 교체	574
0526	국제기구에의 한국인 진출 강화 방안 검토	575
0527	한국의 유엔 분담금률 상향 조정	576
0528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전3권 (V.1 1-4월)	577

0529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전3권 (V.2 5-9월)	578
0530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전3권 (V.3 10-12월)	579
0531	1989년도 유엔 개발활동 기여금 서약회의. New York, 1989.10.30.-31.	580
0532	한·일본 외무부 유엔국장 정책협의회, 제4-6차	581
0533	유엔 아시아그룹 회의. 전2권 (V.1 1-5월)	582
0534	유엔 아시아그룹 회의. 전2권 (V.2 6-12월)	583
0535	유엔총회, 제44차. New York, 1989.9.19.-12.22. 전14권 (V.1 기본대책)	585
0536	유엔총회, 제44차. New York, 1989.9.19.-12.22. 전14권 (V.2 기조연설 지지교섭 I: 각서(memorandum) 배포)	586
0537	유엔총회, 제44차. New York, 1989.9.19.-12.22. 전14권 (V.6 각국 기조연설 II: 주유엔대표부 및 공관보고) ..	587
0538	유엔총회, 제44차. New York, 1989.9.19.-12.22. 전14권 (V.7 장관 방문: 일정)	589
0539	유엔총회, 제44차. New York, 1989.9.19.-12.22. 전14권 (V.9 장관 방문: 언론보도 및 홍보)	590
0540	유엔총회, 제44차. New York, 1989.9.19.-12.22. 전14권 (V.11 본회의 토의)	591
0541	유엔총회, 제44차. New York, 1989.9.19.-12.22. 전14권 (V.12 위원회별 토의)	592
0542	유엔총회, 제44차. New York, 1989.9.19.-12.22. 전14권 (V.13 결과보고)	594
0543	유엔총회, 제44차. New York, 1989.9.19.-12.22. 전14권 (V.14 각국 대표단 및 북한 동정)	596
0544	제26차 유엔총회에서 중공대표단 활동보고	597
0545	유엔총회에서 남극 문제 토의	598
0546	제4차 유엔개발 10개년을 위한 국제개발전략 준비회의, 제1-2차 회기. New York	599
0547	유엔평화유지군	600
0548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601
0549	UNCHS(유엔인간거주위원회) 총회, 제11차. New Delhi, 1988.4.6.-12.	602
0550	UNCHS(유엔인간거주위원회) 총회, 제12차. Cartagema(콜롬비아), 1989.4.25.-5.3.	603
0551	UNCTC(유엔다국적기업위원회) 회의, 제14-15차. New York	604
0552	유엔직원 연금기금의 한국내 증권투자 문제	605
0553	주유엔한국대표부 대외활동	606
0554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법적지위 문제	607
0555	유엔 주재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대사 방한	608
0556	유엔 주재 미주지역 대사 방한	609
0557	Rosenstock, Robert 주유엔 미국대표부 법률고문 방한, 1989.7.31.-8.5.	610
0558	유엔 한국협회	611
0559	UNMCK(유엔기념묘지위원회)	612
0560	나미비아의 날 기념행사	613
056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경제구조 재조정 전문가회의. Bangkok, 1989.1.11.-13.	614
056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HRD(인적자원개발) 정부간 회의. Bangkok, 1989.1.17.-19.	615
056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KECF(한·ESCAP 협력기금) 운용연례회의, 제2차. Bangkok, 1989.2.16.-17. 전2권 (V.1 기본문서)	616
056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KECF(한·ESCAP 협력기금) 운용연례회의, 제2차. Bangkok, 1989.2.16.-17. 전2권 (V.2 자료)	617
056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농촌 종합개발 검토지역전문가 회의. 수원, 1989.3.14.-17.	618
056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5차. Bangkok, 1989.3.27.-4.5. 전4권 (V.1 기본계획 I (1989.1-2))	619
0567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5차. Bangkok, 1989.3.27.-4.5. 전4권 (V.2 기본계획 II (1989.3))	620
0568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5차. Bangkok, 1989.3.27.-4.5. 전4권 (V.3 결과보고)	621
0569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5차. Bangkok, 1989.3.27.-4.5. 전4권 (V.4 자료)	622

0570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개발계획 및 통계위원회 회의, 제1차. Bangkok, 1989.7.24.-28.	623
057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공업기술 및 인간정주위원회 회의, 제1차. Bangkok, 1989.9.11.-15.	624
057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중국 통상정책 심포지움, 북경, 1989.10.28.-31.	625
057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WMO(세계기상기구) 태풍위원회 회의, 제22차. 동경, 1989.10.30.-11.6.	626
0574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농업·농촌개발 및 환경위원회 회의, 제1차. Bangkok, 1989.11.13.-17.	627
0575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정부간 철도그룹회의, 제6차. Bangkok, 1989.11.27.-12.1.	628
0576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RNAM(농기계지역량사업) 집행위원회 회의, 제12차. Kathmandu(네팔), 1989.12.17.-19.	629
0577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ACPR(상임대표 자문위원회), 제131-139차. Bangkok	630
0578	Nibhon Debavalya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인구국장 방한, 1989.5.28.-6.3.	631
0579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2000년대를 향한 사회개발 전략	632
0580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KECF(한·ESCAP 협력기금) 인력자원개발사업	633
058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KECF(한·ESCAP 협력기금) 표준화 훈련과정 사업	634
0582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중국 순회 세미나. 정주(중국), 1989.5.18.-6.12.	635
058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CGPRT(잡곡류연구개발센터) 운영위원회, 제7차. Bogor(인도네시아), 1989.1.12.-14.	636
0584	네팔 Lumbini(룸비니) 성역화사업 대표단 방한, 1989.7.2.-5.	637
0585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동광석(copper) 회의. Geneva	638
0586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기술이전위원회, 제7차. Geneva, 1989.1.23.-2.2.	639
0587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제7차. Geneva, 1989.2.27.-3.3. ..	640
0588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제35차(제2부). Geneva, 1989.3.6.-22. 및 5.19.	642
0589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수출소득 감소 보상금융 전문가 회의, 제2차(제2부). Geneva, 1989.4.10.-14.	643
0590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 특권 및 저장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제6차. London, 1989.9.25.-29.	644
059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제36차(제1부). Geneva, 1989.10.2.-13.	645
0592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제8차. Geneva, 1989.10.23.-27. ..	646
0593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주최 한국과 동구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증진에 관한 Workshop. 서울, 1989.11.14.-16.	648
0594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중석(Tungsten)위원회, 제21차. Geneva, 1989.12.4.-8.	649
0595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아시아지역 개도국 간 산업협력 Workshop. 서울, 1989.6.12.-16.	651
0596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 제3차. Vienna(오스트리아), 1989.11.20.-24. 전3권 (V.1 기본문서)	652
0597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 제3차. Vienna(오스트리아), 1989.11.20.-24. 전3권 (V.2 타국의 이사회 입후보 지지요청)	653
0598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 제3차. Vienna(오스트리아), 1989.11.20.-24. 전3권 (V.3 참가자료)	654
0599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PS(투자진흥사무소) 서울사무소 설립협정 연장. 전2권 (V.1 제1-2차 연장)	655
0600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PS(투자진흥사무소) 서울사무소 설립협정 연장. 전2권 (V.2 제3차 연장 및 참고자료)	656
0601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중소기업육성에 관한 국제회의, Tallin(소련), 1989.3.14.-16.	657
0602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DB(공업개발이사회), 제5차. Vienna, 1989.6.27.-7.6. 전2권 (V.1 기본문서)	658
0603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DB(공업개발이사회), 제5차. Vienna, 1989.6.27.-7.6. 전2권 (V.2 회의자료)	659
0604	UNCSTD(유엔과학기술개발회의)/ICSTD(개발을위한과학기술정부간위원회) 회의, 제10차. New York, 1989.8.21.-9.1.	660
0605	UNCSTD(유엔과학기술개발회의) 국제기술개발훈련원 한국 설립 검토	661
0606	UNDP(유엔개발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원조조정관회의, 제4차. Jakarta(인도네시아), 1989.3.13.-15.	662
0607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 제36차. New York, 1989.6.5.-30.	663
0608	UNDP(유엔개발계획) 주한 상주대표 임명	664
0609	강석재 UNEP(유엔환경계획) 및 HABITAT(유엔인간거주센터) 상주대표 임명, 1981.3.26.	665

0610	UNEP(유엔환경계획) 이사회, 제15차. Nairobi(케냐), 1989.5.15.-26.	666
0611	UNICEF(유엔아동기금) 집행이사회. New York, 1989.4.17.-18.	667
0612	UNICEF(유엔아동기금) 집행이사회 특별회의, New York, 1989.12.18.	668
0613	UNICEF(유엔아동기금) 일반	669
0614	Jolly, Richard UNICEF(유엔아동기금) 사무차장 방한, 1989.8.20.-29.	670
0615	Doo-Kingue, Michel UNITAR(유엔훈련연구원) 사무처장 방한, 1989.12.8.-11.	671
0616	Giorgio Giacomelli UNRWA(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금) 사무국장 방한, 1989.10.10.-13.	672
0617	WFC(세계식량이사회) 각료회의, 제14-15차	673
0618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7차. Montreal, 1989.9.19.-10.6. 전2권 (V.1 기본문서)	674
0619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7차. Montreal, 1989.9.19.-10.6. 전2권 (V.2 각국의 이사회 입후보 지지요청)	675
0620	IMO(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 London	676
0621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62차. London, 1989.6.5.-9.	677
0622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IMO(국제해사기구)/UNDP(유엔개발계획) 세미나. Leningrad(소련), 1989.7.17.-28.	678
0623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6차. London, 1989.10.9.-20. 전2권 (V.1 기본문서)	679
0624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6차. London, 1989.10.9.-20. 전2권 (V.2 각국의 이사회 입후보 지지요청)	680
0625	IMO(국제해사기구) 항해안전 및 방화 소위원회 회의. London(영국)	681
0626	WMO(세계기상기구) 기후전문위원회 회의, 제10차. Lisbon(포르투갈), 1989.4.3.-14.	682
0627	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술협력사업	683
0628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3차. Vienna, 1989.9.25.-29. 전4권 (V.1 기본문서)	684
0629	IPCC(기상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회의	685
0630	WMO(세계기상기구) 해상기상전문위원회 회의, 제10차. Paris(프랑스), 1989.2.6.-17.	686
0631	WMO(세계기상기구) 기상측기 및 관측법 전문위원회 회의, 제10차. Brussels(벨기에), 1989.9.11.-22.	687
0632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5차. Paris, 1989.10.17.-11.16. 전4권 (V.1 기본문서)	688
0633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5차. Paris, 1989.10.17.-11.16. 전4권 (V.2 각국의 입후보 지지요청 I(집행위원))	689
0634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5차. Paris, 1989.10.17.-11.16. 전4권 (V.3 각국의 입후보 지지요청 II(집행위원))	690
0635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5차. Paris, 1989.10.17.-11.16. 전4권 (V.4 각국의 입후보 지지요청 III)	691
0636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 제131차. Paris, 1989.5.17.-6.22.	692
0637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 제132-133차. Paris	693
0638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IBE(국제교육국) 회의, 제41차. Geneva(스위스), 1989.1.9.-17.	694
0639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 정부간위원회) 회의, 제10차. Paris, 1989.3.7.-13.	695
0640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실�크로드 사업	696
0641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시청각저작물 국제등록 조약 채택 외교회의 및 준비전문가 위원회. Geneva	698
0642	집적회로보호조약 채택을 위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외교회의 준비회의. Geneva	699
0643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특허법 규정조정에 관한 전문가 회의, 제5-7차. Geneva	700
0644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공업소유권에 관한 개발협력 상설위원회, 제13차. Geneva, 1989.5.29.-6.2.	701
0645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상표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조약 의정서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Madrid(스페인), 1989.6.12.-28.	702
0646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회, 제11차. Geneva, 1989.9.25.-10.4.	703
0647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 제91-96차. Rome	704
0648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 제25차. Rome, 1989.11.11.-30. 전2권 (V.1 기본문서)	705
0649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 제25차. Rome, 1989.11.11.-30. 전2권 (V.2 각국의 입후보 지지 요청)	706
0650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미국연구단 회의, 제32차. Rome, 1989.2.28.-3.3.	707

0651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연구단 회의. Rome	708
0652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위원회 회의. Rome	709
0653	FAO(유엔식량농업기구)/TCP(기술협력사업)	711
0654	FAO(유엔식량농업기구)/IOFIC(인도양수산위원회) 회의, 제8-9차	712
0655	FAO(유엔식량농업기구)/INFOFISH(아시아·태평양지역 내 수산물의 시장정보 및 자문역할을 위한 정부간 기구) 이사회, 제1-4차	714
0656	FAO(유엔식량농업기구)/아시아·태평양지역 농업경영위원회 회의, 제10차. Bangkok, 1989.12.6.-9.	715
0657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이사회, 제33-36차. Rome	716
0658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이사회, 제37-38차. Rome	717
0659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회, 제12차. Rome, 1989.1.23.-26.	718
0660	WHO(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 제83차. Geneva(스위스), 1989.1.9.-20.	719
0661	WHO(세계보건기구) 협력사업 - 세미나·워크숍·훈련과정 참가자 추천. 전2권 (V.1 1988-89.4)	720
0662	WHO(세계보건기구) 협력사업 - 세미나·워크숍·훈련과정 참가자 추천. 전2권 (V.2 1989.6-12)	722
0663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42차. Geneva(스위스), 1989.5.8.-19. 전2권 (V.1 기본문서)	723
0664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42차. Geneva(스위스), 1989.5.8.-19. 전2권 (V.2 팔레스타인 가입문제)	724
0665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회의, 제40차. Manila(필리핀), 1989.9.19.-25.	725
0666	WHO(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분류 개정회의, 제10차. Geneva(스위스), 1989.9.26.-10.2.	726
0667	ILO(국제노동기구) 한국가입 검토	727
0668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추진. 전6권 (V.1 기본 문서)	728
0669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추진. 전6권 (V.2 가입지교섭(미주))	729
0670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추진. 전6권 (V.3 가입지교섭(아주/중동))	730
0671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추진. 전6권 (V.4 가입지교섭(구주/미수교국))	731
0672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추진. 전6권 (V.5 가입지교섭(아프리카))	732
0673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추진. 전6권 (V.6 참고자료)	733
0674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제76차. Geneva(스위스), 1989.6.7.-28.	734
0675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장관회의 존속실효성 검토를 위한 ILO(국제노동기구) 아주그룹 회의	735
0676	UPU(만국우편연합) 집행이사회. Bern(스위스), 1989.4.10.-28.	736
0677	WARC(세계무선주관청회의) 최종의정서 승인 검토	737
0678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관리이사회 특별회의, Geneva(스위스), 1989.11.6.-10.	738
0679	정지위성궤도 이용에 관한 제2차 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WARC-ORB-2). Geneva(스위스), 1988.8.29.-10.5.	739
0680	화학무기에 관한 국제회의. Paris, 1989.1.7.-11. 전4권 (V.1 기본문서(1988.10-11))	740
0681	화학무기에 관한 국제회의. Paris, 1989.1.7.-11. 전4권 (V.2 기본문서(1988.12))	741
0682	화학무기에 관한 국제회의. Paris, 1989.1.7.-11. 전4권 (V.3 양자회담 및 결과보고)	742
0683	화학무기에 관한 국제회의. Paris, 1989.1.7.-11. 전4권 (V.4 자료)	743
0684	유엔 제네바 군축 회의. Geneva	744
0685	교토 유엔 군축회의. Kyoto, 1989.4.19.-22.	745
0686	유엔 인권위원회, 제45차. Geneva, 1989.1.30.-3.10.	746
0687	유엔인권위원회 사무국 공한. 전2권 (V.1 1988.12-89.4)	747
0688	유엔인권위원회 사무국 공한. 전2권 (V.2 1989.5-12)	748
0689	유엔인권소위원회, 제41차, Geneva, 1989.8.7.-9.1.	749
0690	Kooijmans, Peter Hendrik 유엔 인권위원회 고문문제 특별보고관 방한, 1988.8.24.-29.	750
0691	IDNDR(자연재해 축소를 위한 국제10년대) 사업	751
0692	CIREFCA(중미난민국제회의). Guatemala(과테말라), 1989.5.29.-31.	752
0693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 제33차. Vienna, 1989.3.29.-4.7.	753
0694	가족관련 유엔 지역세미나 참가	754
0695	유엔마약위원회 회의, 제33차. Vienna, 1989.2.6.-17.	755

0696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관한 한·일본 대책회의, 제5차. 서울, 1989.2.14.	756
0697	지역간 마약법집행기관장 회의, 제2차. Vienna, 1989.9.11.-15.	757
0698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행사	758
0699	BIE(국제박람회기구) 한국가입 및 총회. 전2권 (V.1 1986.1-87.12)	759
0700	BIE(국제박람회기구) 한국가입 및 총회. 전2권 (V.2 1988.1월-1989)	760
0701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 제15차. Paris, 1989.7.4.-19.	761
0702	CCOP(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 지질과학 훈련 조정관 진출	762
0703	CCOP(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 회의	763
0704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북한 지원사업	764
0705	APPU(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 집행이사회. Male(몰디브), 1988.9.13.-19.	765
0706	APPU(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 집행이사회. Manila(필리핀), 1989.8.10.-15.	766
0707	APPU(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 집행이사회. 서울, 1982.10.6.-14.	767
0708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특별총회, 제14차. Washington D.C., 1989.7.11.-13.	769
0709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서명자 회의, 제18-19차	770
0710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총회, 제15차. Amsterdam(네덜란드), 1989.10.2.-5.	771
0711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이사국 진출 검토	772
0712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회의, 제7차. Lisbon(포르투갈), 1989.10.31.-11.2.	773
0713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특별총회, 제6차. 런던, 1989.1.17.-19.	774
0714	WTO(세계관광기구) 총회, 제8차. Paris, 1989.8.25.-9.2. 전2권 (V.1 사전준비)	775
0715	WTO(세계관광기구) 총회, 제8차. Paris, 1989.8.25.-9.2. 전2권 (V.2 결과보고 및 회의자료)	776
0716	ICLM(국제법정계량위원회) 회의, 제24차. Paris, 1989.9.27.-29.	777
0717	APDC(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 사무국장 임후보	778
0718	APDC(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 총회, 제6차.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89.9.25.-26.	779
0719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41차. Sandiego(미국), 1989.6.12.-16.	780
0720	AARRO(아시아·아프리카농촌채건기구) 연락관위원회 회의, 제6차. New Delhi(인도), 1983.4.21.	781
0721	AARRO(아시아·아프리카농촌채건기구) 집행위원회, 제33차. New Delhi(인도), 1989.11.20.-23.	782
0722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동물약품 잔류위원회, 제4차. Washington D.C., 1989.10.24.-27.	783
0723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784
0724	ICSEAF(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 특별회의, 제7-8차	785
0725	ICSEAF(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 정례회의, 제10차. Mallorca(스페인), 1989.12.6.-9.	786
0726	OIE(국제수역사무국) 지역위원회 회의, 제16차. Canberra(호주), 1989.10.10.-13.	787
0727	OIE(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제57차. Paris, 1989.5.22.-26.	788
0728	여성정치참여에 관한 IPU(국제의원연맹) 심포지엄. Geneva(스위스), 1989.11.20.-24.	789
0729	AIPO(아세안의회기구) 총회, 제10차. Manila(필리핀), 1989.8.21.-26.	790
0730	APPU(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 이사회, 제45차. Port Moresby(파푸아뉴기니), 1989.6.26.-29.	791
0731	APPU(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 제24차 총회 및 제46차 이사회. 서울, 1989.10.30.-11.1.	792
0732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81차. Budapest(헝가리), 1989.3.13.-18.	793
0733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82차. London(영국), 1989.9.4.-9.	794
0734	IPU(국제의원연맹)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아시아의원 회의. 북경, 1981.10.27.-30.	795
0735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 제57-58차	796
0736	INTOSAI(세계최고회계검사기관기구) 총회, 제13차. Berlin(독일), 1989.6.12.-21.	797
0737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총회, 제12-13차	798
0738	ICA(국제행정정보기술위원회) 총회, 제23차. Oslo(노르웨이), 1989.10.17.-20.	799
0739	유엔 주관 심포지엄. Helsinki(핀란드), 1989.6.12.-16.	800
0740	UNDTCD(유엔기술개발협력국) 관련 회의	801
0741	AIC(아시아 ISDN 협의회) 회의. 서울, 1989.5.16.-23.	802

0742	국제영양학회 총회, 제14차. 서울, 1989.8.20.-25.	803
0743	IRF(국제도로연맹) 총회, 제11차. 서울, 1989.4.16.-21.	804
0744	한·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전5권. 1987.9.11. Washington D.C.에서 서명: 1989.5.11. 발효(조약 제976호) (V.1 1983-86)	805
0745	한·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전5권. 1987.9.11. Washington D.C.에서 서명: 1989.5.11. 발효(조약 제976호) (V.2 1987(가서명))	806
0746	한·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전5권. 1987.9.11. Washington D.C.에서 서명: 1989.5.11. 발효(조약 제976호) (V.3 1987(후속조치 I))	807
0747	한·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전5권. 1987.9.11. Washington D.C.에서 서명: 1989.5.11. 발효(조약 제976호) (V.4 1987(후속조치 II))	808
0748	한·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전5권. 1987.9.11. Washington D.C.에서 서명: 1989.5.11. 발효(조약 제976호) (V.5 1988-89)	809
0749	한·헝가리 간의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협정, 1988.8.26. Budapest 에서 서명:1988.9.13. 발효 (조약 제958호) ...	810
0750	한·인도네시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전4권. 1988.11.10. Jakarta에서 서명: 1989.5.3.발효(조약 제975호) (V.1 1981-83)	811
0751	한·인도네시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전4권. 1988.11.10. Jakarta에서 서명: 1989.5.3.발효(조약 제975호) (V.2 1984-87)	812
0752	한·인도네시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전4권. 1988.11.10. Jakarta에서 서명: 1989.5.3.발효(조약 제975호) (V.3 1988.1-10)	813
0753	한·인도네시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전4권. 1988.11.10. Jakarta에서 서명: 1989.5.3.발효(조약 제975호) (V.4 1988.11-89.5)	814
0754	한·뉴질랜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 교섭	815
0755	한·스웨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1.5.27. 서울에서 서명: 1982.9.9. 발효(조약 제785호) (V.1 1977-79.3)	816
0756	한·스웨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1.5.27. 서울에서 서명: 1982.9.9. 발효(조약 제785호) (V.2 1979.5월-1982)	818
0757	한·튀니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8.9.27. Tunis에서 서명: 1989.11.25. 발효(조약 제992호) (V.1 1985)	819
0758	한·튀니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8.9.27. Tunis에서 서명: 1989.11.25. 발효(조약 제992호) (V.2 1986)	820
0759	한·튀니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8.9.27. Tunis에서 서명: 1989.11.25. 발효(조약 제992호) (V.3 1987)	821
0760	한·튀니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8.9.27. Tunis에서 서명: 1989.11.25. 발효(조약 제992호) (V.4 1988-89)	822
0761	한·일본 간의 제6차 연도(1987)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1989.6.16. 서울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979호)	823
0762	한·나이지리아 간의 대나이지리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2권. 1988.12.9. Lagos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65호) (V.1 교섭, 1987)	824
0763	한·나이지리아 간의 대나이지리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2권. 1988.12.9. Lagos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65호) (V.2 체결, 1988-89)	825
0764	한·헝가리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1988.12.28. Budapest에서 서명: 1989.1.1. 발효 (조약 제967호)	826
0765	한·말레이시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4.11. 서울에서 서명: 1989.3.31. 발효 (조약 제971호) (V.1 교섭, 1981-87)	827
0766	한·말레이시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4.11. 서울에서 서명: 1989.3.31. 발효 (조약 제971호) (V.2 체결, 1987-89)	828

0767	한·태국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89.3.24. Bangkok에서 서명: 1989.9.30. 발효 (조약 제986호) (V.1 1979-85)	829
0768	한·태국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89.3.24. Bangkok에서 서명: 1989.9.30. 발효 (조약 제986호) (V.2 1986-88)	830
0769	한·태국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89.3.24. Bangkok에서 서명: 1989.9.30. 발효 (조약 제986호) (V.3 1989)	831
0770	한국전기통신공사 관련 기관 간 약정	832
0771	한·캐나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1989.9.20. 서울에서 서명: 발효 (조약 제985호) (V.1 교섭철 I, 1973-85.10)	833
0772	한·캐나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1989.9.20. 서울에서 서명: 발효 (조약 제985호) (V.2 교섭철 II, 1985.11-87.11)	835
0773	한·캐나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1989.9.20. 서울에서 서명: 발효 (조약 제985호) (V.3 교섭철 III, 1987.12)	836
0774	한·캐나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1989.9.20. 서울에서 서명: 발효 (조약 제985호) (V.4 체결철, 1988-89)	837
0775	한·프랑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부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89.3.23. 및 3.30. 서울에서 각서교환: 1989.3.30. 발효(외무부고시 제166호)	838



1989년도

법령 질의 및 해석

생산연도	1980-1989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9-1/1/1-306

1980~89년 중 각종 법령 질의 및 해석에 관한 내용임.

1. 노동청이 1980.5.24. 아프리카지역 건설업체 노무관리 관할공관에 관해 문의한바, 외무부는 주우간다대사관임을 답변함.
2. 주터키대사가 1981.5.14. 마약 및 금수품 취급 단속기관에 관해 문의한바, 재무부는 관세청 이외에 보건사회부,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지사의 관할사항임을 답변함.
3. 연수생 복무의무 관련, 의원면직된 직원이 동일자로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되어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연수비 반납의무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 경우는 연수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함.
4. 연수생 가족동반 규정 관련, 1년 미만 연수생에 대한 가족동반 외교관여권 발급 가능에 관한 1986.11.6. 질의에 대해 가족 동반에 소요되는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반 허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함.
5. 재일거류민단 아이치현 지방분부가 건물 및 대지를 주나고야총영사관에 기증할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위한 국내법상의 절차를 문의한바, 외무부는 국유재산법상의 기부채납 요건 및 내용, 등기 및 등록 등에 관해 안내함.
6. 환경청이 1989.1.25. 케냐 소재 UNEP(유엔환경계획)에서 파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관할 공관장의 지휘 감독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해 외무부는 명문규정이 없으며 국제기구 파견공무원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되는 재외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해 국제기구의 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것으로 해석함.
7. 이외에 여권신청 자격, 여비지급의 범위, 보수지급 문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영사수입금 징수 등에 관해 질의·답변함.

외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검토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9-1/2/1-189

외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검토에 관한 내용임.

1. 해외동포이산가족연합회(1988년)

- 해외동포와 국내이산가족 간의 생사확인 및 서신연락 주선 등을 추진할 등 연합회의 설립 관련 질의에 대해 외무부는 동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여부는 외무부 관련 규칙상의 허가요건 충족에 관한 법적판단에 기초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신

2. 세종연구소(1988~89년)

- 세종연구소 장래 문제 검토(88.12월, 정보문화국)
 - 구 일해재단 재단기금 관련 국회특위 조사활동의 초점 및 평가
 - 구 일해재단의 장래 처리방안
- 세종연구소 장래문제(89.2월, 정보문화국)
 - 바람직한 장래 방향: 순수 민간연구소로 개편
 - 처리 방안: 법인의 발전적 해체를 통한 민간연구소 재탄생 방안 등

3. 아세아의회발전연구소(1989년)

- 대의 민주정치 제도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개발을 통하여 의회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
- 4.22. 외무부장관이 동 법인 설립을 허가

4. 한국·소련문제연구소(1989년)

- 한·소련 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지식보급 및 우호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
- 11.15. 등록 신청
- 12월 설립 허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생산연도 1980-1989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9-1 / 3 / 1-238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된 내용임.

1.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질의 및 해석(1987년)

-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국유청사를 매각하고 동 대금으로 후쿠오카시가 불하하는 해안 매립지를 구입하여 동 대지에 청사 및 관저의 신축을 추진
 - 청사 매각대금으로 신축부지를 매입하고 잔여대금을 신축비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 외무부 법무담당관실은 동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해 규정하면서 매입과 취득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매입을 신축 등을 포함한 취득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난점이 있다고 회신

28

2.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감사원은 1988년도 정기감사 결과 재외공관 재산 취득·관리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
- 개정 추진 경과
 - 1988.10~11월 관계부처 협의
 - 1988.12~89.2월 당정협조 및 법제처 심사완료
 - 1989.3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 1989.5월 국회 외무위 및 본회의 심의
 - 1989.6월 국무회의 심의 및 법률 공포(법률 제4127호)
- 개정 내용
 -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재외공관용 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상환에 직접 사용
 - 재외공관용 부동산 매각대금을 다른 재외공관 부동산 취득에 사용 가능
 - 매각대금의 직접 사용을 당해 연도에 한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익년도 이월 가능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1989.9.28.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9-1/5/1-92

1989년도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내용임.

1. 개정 절차

- 4.29. '남북 및 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5.20.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총리훈령 제232호)
- 5.31.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방침 재가
- 6.19. 법제처에 개정령 심사 의뢰
- 6.28. 법제처 의견 회보
- 9.22. 외무부가 총무처에 공포 의뢰
- 9.28. 발효(외무부령 제143호)

2. 개정 내용

- 미수교 북방사회주의 국가 수시 여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1년 범위의 복수여행 허가 부여
- 해외주재 상사원에 대해 관할 재외공관장의 여행허가 재량 부여
- 거주여권 등 소지자는 신고로 처리

3. 개정안 중 제재조항 삭제 문제 검토

- 문제제기 사항
 - 법제처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미수교 북방사회주의 국가 및 특정 국가를 여행한 자에 대한 제재 조항은 시행규칙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송부
- 검토
 - 위반자에 대한 제재문제는 여권법 위반으로 제재 조치가 가능하므로 법제처 입장 수용

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 1988.12.31.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9-1/4/1-46

외무공무원 임용령 관련 내용임.

1. 외무부 제14차 인사위원회(1988.8.16. 개최)는 5급 공무원에 대한 훈련성적 평정 관련, 외무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3항 규정의 신설을 의결함.

● 신설 규정 내용

- 해외근무 중인 5급 직원의 평정을 위한 교육훈련의 유효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승진교육을 귀국 후 이수하도록 함.

30

2. 외무부는 1988년말 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함.

● 개정 내용

- 5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기본교육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
- 장기 해외근무로 기본교육 이수 후 8년 경과자는 훈련성적의 6할을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으로 평정하되, 귀국 후 소정의 훈련과정 이수 의무

● 개정 절차

- 10.14. 총무처에 의견을 문의
- 12.15. 총무처가 이견없음을 외무부에 통보
- 12.28. 법제처가 심사결과를 외무부에 회보
- 12.28. 외무부가 총무처에 공포 의뢰
- 12.31. 동 개정 발효(외무부령 제140호)

국내 및 국외여비 규정 개정, 1989.3.17.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재외공관담당관실

MF번호 2019-1 / 9 / 1-60

국내 및 국외여비 규정 개정 관련 내용임.

1. 개정 경위

- 외무부는 1987.11.25. 경제기획원 및 총무처에 국외여비 규정상의 이전비 제도의 개정 검토를 요청
 - 1980.9월 개정 이래 재외공관의 확대 및 물가상승 등 여건 변화를 감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1989.3.17. 국내 및 국외여비 규정 후 개정령 공포 및 발효

2. 개정 내용

- 일반,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을 세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
 - 4급의 경우 종전 67~102달러에서 83~151달러로 인상
- 이전비의 지급기준을 세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
 - 4급의 경우 종전 676~1,950달러에서 910~2,530달러로 인상
- 공무원 또는 동반가족이 외국에서 사망 시 유족 중 1인에게 여비 지급

외무부 본부 및 외교안보연구원 각 기관의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 개정, 1989.2.22.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9-1 / 8 / 1-49

외무부 본부 및 외교안보연구원 각 기관의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 개정 관련 내용임.

1. 영어명칭 예규 개정 경위

- 1988.3월 'Security Division'으로 되어 있는 안보과를 미국인들이 경비과로 오인하는 사례가 수시 발생함에 따라 'National Security Division'으로 개정하도록 내부 건의
- 1989.1월 총무처가 외무부에 국제화 추세에 따른 대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영문편람 발간 관련 자료를 요청
- 1989.1월 '외교안보연구원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외교안보연구원 영어명칭 예규 개정안 작성
- 1989.2.22. 외무부 본부 및 외교안보연구원 각 기관의 영어명칭 예규 개정 및 발효

2. 영어명칭 예규 개정 내용

- 외교안보연구원 6개 연구부 영어명칭 개정
- 미주국 안보과 영어명칭을 현행 'Security Division'에서 'National Security Division'으로 개정
- 외교안보연구원 직위 명칭 일부 개정
 - 외교안보연구원장의 영어명칭을 'Dean'에서 'Chancellor'로 변경 등

외무부 훈령 및 예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9-1 / 12 / 1-58

1. 1989.1.31. 외무부는 재일한국인 후손의 법적지위와 처우문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대책반과 자문위원회를 구성함.
 - 2.1. '재일한국인 후손문제에 관한 자문위원회 규정' 제정
2. 1989.6.23. '재외공관용 부동산 취득·관리 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정함.
 -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국유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실시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

외무공무원의 인사, 복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예규 개정, 1989.1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9-1 / 11 / 1-60

외무공무원의 인사, 복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예규 개정 관련 내용임.

1. 개정 경위

- 1989.9.8. '외무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 2(외무공무원 대외직명표) 개정
- 1989.9.19. 외무공무원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 예규 개정안에 관한 부내 의견 요청
- 1989.10.31. 동 예규 개정 건의
- 1989.11.17. 동 예규 개정 시행(외무부예규 제89-7호)

2. 개정 요지

- 외무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외행직 4급 참서관 지정기준 신설
 - 5급 1등서기관 지정기준 신설: 5급 12년 이상 기준, 5급 10년 이상 공관 차석 등
 - 전산관, 사서관 신설
 - 외행직 대외직명에 부기되는 '행정' 삭제
- 기타 대외직명 지정기준 등 개선
 - 부총영사 지정 가능공관 명시: 공관원 10인 이상 기준 등
 - 국제기구 등 파견근무자 대외직명 부여근거 신설

재외공관 보고규정 개정, 1989.1.1.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9-1 / 7 / 1-116

재외공관 보고규정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개정 경위

- 1988.8.19. 외무부 기획관리실이 재외공관 정기보고제도 개선안을 마련, 부내 검토의견 요청
- 1988.11.23. 기획관리실이 부내 의견 취합
- 1988.12.20. 재외공관 보고규정 개정 내부 건의
- 1989.1.1. 재외공관 보고규정 개정 시행(외무부훈령 제184호)

2. 개정 내용

- 목적
 - 재외공관 정기보고제도의 효율화 및 합리적 운용
 - 재외공관 업무부담의 경감
- 개정 골자
 - 통·폐합(5건): 정기정세보고 및 중장기정세보고, 이주업무보고, 사회정화 및 사정업무보고, 비품변동내역보고
 - 보고주기 조정(1건): 사업실천 결과보고
 - 사본제출 감축(2건): 정보사업 심사분석보고, 전도자금 출납계산서

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 개정, 1989.5.20.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9-1 / 10 / 1-57

1. 외무부는 1989.5월 불요불급한 재외공관장의 일시귀국에 따른 공관장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관련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
2. 동 예규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 종전 '외무장관급 이상 인사 방한시' 공관장의 방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원칙을 '수상급 이상 인사 방한시'로 조정
 - 다만, 외무부장관 및 기타 각료급 인사 방한시에도 수행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공관장 또는 공관원 1인 방한 수행이 가능

주재관(재무관) 업무지침 개정

생산연도 1984-1989

생 산 과 총무과

MF번호 2019-1 / 6 / 1-76

주재관(재무관)의 업무지침 개정 관련 내용임.

1. 재무관 업무지침 개정 협의 경위

- 재무부는 재무관 주재 지역 경제여건 및 경제동향의 변화를 감안, 재무관 업무지침의 개정을 희망하면서 외무부의 검토를 요청함.
 - 1988.3월 외무부가 내부 검토의견을 조회
 - 1989.6월 재무부가 업무지침 개정안을 외무부에 송부, 시행 협조를 요청
 - 1989.7월 외무부가 내부 검토 및 협의
 - 1989.8월 외무부가 의견을 재무부에 통보

2. 재무관 업무지침 개정문제에 관한 외무부 의견

- 주재관에 대한 업무분장 및 지침 등은 공관장이 현지 여건을 고려, 공관의 효율적 운영차원에서 시행할 사항으로 판단됨.
- 재무관에 대한 별도의 업무지침 수립은 적절치 않다고 봄.
- 재무부가 요청한 재무관 주재 지역별 중점 추진 업무사항은 재외공관에 통보함.

중국담당관 제도 운영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1 / 13 / 1-44

1. 외무부는 중국(구 중공) 관련 정세 파악과 중국과의 접촉점 모색을 위해 1971.11월 이래 재외공관에 중국담당관을 지정하여 11개 공관에서 운영한바, 1986.3월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대상 공관을 8개로 조정함.
 - 중점공관(4개): 주홍콩, 주미국, 주일본, 주중국대사관
 - 국제기구를 통한 중국과의 접촉경로 유지 및 개발공관(4개): 주제네바대표부, 주유엔대표부, 주프랑스대사관, 주태국대사관
2. 1988.1.26. 시행된 '재외공관 제3국 담당관 운영규정'에 따라, 중국담당관제가 제3국 담당관제로 흡수됨.

Kovacs Jones, Eduardo 주Valparaiso(칠레) 명예영사 해임, 1989.12.3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9-1 / 14 / 1-19

1. 1989.10.5. 주칠레대사관은 1976.10.13. 임명된 Eduardo Kovacs Jones 칠레 발파라이소 명예영사의 해임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 개정된 명예영사 관련 규정상 제한 임기(최대 10년) 초과
 - 76세의 고령으로 명예 영사활동 수행 곤란
 - 비중있는 새로운 인사 필요
2. 외무부는 1989.11월 Kovacs 명예영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고, 12.2. 주칠레대사관에 외무부장관 명의 감사장을 동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함.

주Barcelona(스페인) 명예영사 임명 및 해임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구주1과

MF번호 2019-1 / 15 / 1-104

1. 주스페인대사관은 1986.2.21. Vezques 바르셀로나 명예영사의 소극적인 활동과 품위 문제 등으로 동인을 해임하고 명예부총영사를 명예영사로 임명할 것을 건의해 왔으며, 외무부는 3월 동인에 대한 해임은 적절한 시기로 보류하도록 지시함.
2. 1987.11월 주스페인대사관은 바르셀로나총영사관 개설과 관련하여 Vezques 명예총영사의 해임 및 최원철 명예부영사의 명예영사로의 승격을 재건의함.
3. 1988.10월 Vezques 명예영사가 사의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4월 동인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고 최원철 명예부영사를 명예영사로 승격 조치함.

명예영사 해임 - 미국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북미과/총무과

MF번호 2019-1 / 16 / 1-34

1. 미 국무부는 1988.11.3. 한국의 보스턴 및 마이애미총영사관 개설 관련 공한을 통해 동일 도시 내 2개 영사관 인가 불허 방침을 확인하고 Maloney 보스턴 명예영사를 해임해 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88.11.12.자로 Maloney 보스턴 명예영사 및 Landy 마이애미 명예영사를 해임 조치하고, 외무부장관 명의 감사장을 전달함.

국회공무원 재외공관 파견

생산연도 1976-1989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9-1 / 18 / 1-129

1976~89년 중 국회공무원의 재외공관(미국, 일본, 프랑스) 파견 관련 사항임.

1. 1976.9월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에 필요한 해외자료 수집을 위해 소속 공무원의 주재관 파견을 외무부에 요청한바, 외무부는 10.2. 아래와 같은 검토의견을 회신함.

- 현행법상 국회공무원을 주재관으로 발령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
- 경제협력, 상무, 노무 및 홍보 업무 등 재외공관 전문분야에 속하는 업무에 대한 전문직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바, 자료수집 업무만을 위해서는 재외공관 소속이 아닌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 주재시키되, 이에 필요한 법령이 먼저 정비되어야 함.

2. 1977.6.30. 국회도서관은 미국에 주재관 파견 결정을 통보하면서 공관 사무실 제공을 요청 하였으나, 비외교관 신분인의 공관 상주문제와 사무실 공간의 부족 사유로 주미국대사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3. 1986.7월 국회도서관은 프랑스에 주재관 파견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현재 파견되어 있는 주재관을 포함하여 외교관 신분취득 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해 옴에 따라, 8월 외무부는 아래와 같은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재외공관에 통보함.

- 임시 외교관여권을 발급하고, 주재국 외교관 명부에 대외직명을 Attache로 등재
- 주재관은 아래 사항을 준수함.
 - 복무와 관련 공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일체 경비(사무실 사용, 파우치 이용 등)는 국회 측 부담
 - 대외활동시 국회소속 직원이 아닌 공관소속 직원 명의로 활동

일본 경제인 서훈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2 / 2 / 1-110

1987~89년 중 친한 일본 경제인에 대한 포상 관련 내용임.

1. 1987.2.16. 다케다 일본 통상성 북아시아과장은 주일본대사관 상무관에게 3.15. 방한 예정인 경제사절단 단장 마츠오 다이이치로 일·한 시장협의회장에 대한 포상을 추천한바, 외무부는 광화장 수여를 결정하고 5.30. 주일본대사관에서 전달식을 거행함.
 - 동인은 대규모 수입축진단 파한, 대일본 수출축진단 방일 지원 등을 통해 한·일본 무역역조 해결에 공헌함.
 - 당초 2등급인 흥인장으로 추진하였으나, 일본 통상성의 적극적인 추천 및 주일본대사관의 건의 등을 통해 광화장으로 조정됨.
2. 1988.11.25. 주일본대사관은 가타오카 가츠타로 알프스전기 사장에 대한 서훈을 건의한바, 6.20.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동인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함.
 - 한국에 합작회사 투자 및 기술 이전을 통한 한국 부품산업 육성에 노력함.
 - 주일본대사관의 건의에 의해 관련 기관 협의로 결정함.
3. 1989.11.16. 주일본대사관은 아카자와 쇼이치 일본무역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포상을 외무부에 건의해 온바, 11.28.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동인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함.
 - 동인은 대일본 수출축진과 한·일본 양국간 우호증진에 큰 역할을 함.
 - 동인의 공적활동에 비추어 산업훈장의 최고격인 금탑산업훈장(광화장과 동격)을 수여함.
 - 수여식에 일본 통상성, 외무성의 많은 관리가 참석함.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3/7/1-135

1. 1988.2.10. 발표된 미 국무부의 1987년도 각국 인권보고서의 한국관련 부분은 한국의 인권이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1987년에 극적인 정치적 변화가 있었으며, 그 결과 인권이 현저히 개선됨.
 - 6·29 선언과 대통령 선거
 - 노태우 차기 대통령의 시국사범 대폭 사면 검토
- 경찰은 일반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지만 정치적 구금자에 대한 힘의 남용은 고질적인 문제임.

44

2. 1989.2.8. 발표된 미 국무부의 1988년도 각국 인권보고서의 한국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음.

- 1988년도 한국 내 인권상황은 전반적으로 계속 개선 추세임.
 - 활기에 찬 경제성장으로 정치발전 가속화
- 노태우 대통령 정부의 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민주주의는 아직 완전하지 못함.
 - 유교적 사고방식, 보안요원들의 활동 계속 등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제123차. Montreal, 1988.2.29.-3.31. 전7권 (V.1 1987.12-88.1)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국제법규과
MF번호	2019-2 / 6 / 1-205

1. KAL 858기 폭파사건 수사결과 발표 관련, 외무부는 1988.1.14. 주캐나다대사에게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1988.2.9.~24.)와 제123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1988.2.22.~3.27.)에서 북한 테러리즘을 규탄하는 방안을 ICAO 측과 협의하도록 지시함.
 - 외무부는 동 건 수사결과 KAL 858기 폭파는 북한 김정일의 지령에 따라 자행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동 결과는 1.15. 발표 예정임을 주캐나다대사에게 통보함.
2. 주캐나다대사의 ICAO 측과의 협의 시 Lambert ICAO 사무총장 및 Kotaite ICAO 이사회 의장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 Lambert 사무총장
 -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 전 수사결과를 ICAO 측에 사전 통보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함.
 - (사무총장 자격으로 대북한 경고문을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ICAO는 정치적 발언을 한 적은 없으나, 언론의 문의가 있을 경우 한국 측 자료에 의거 충실히 답변할 계획임.
 - 한국이 항공법 회의 시 동 건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회의 벽두 기조연설에서 발언할 수 있을 것임.
 - 한국의 조사보고서가 1988.2월 중순까지 제출될 경우 사무총장 보고형식으로 제123차 이사회에 제출할 것임.
 - Kotaite 이사회 의장
 - ICAO 항공법 회의 및 이사회는 특정 국가를 지칭하는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수 없음.
 - ICAO가 비정치적인 기구임을 감안, 기술적 측면에서 동 건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임.
 - 한국 측이 제출한 KAL기 사건 보고서를 근거로 사무총장이 보고서를 작성, 이사회에서 심의 할 것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제123차. Montreal, 1988.2.29.-3.31. 전7권 (V.2 1988.2.1.-22.)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국제법규과
MF번호	2019-2 / 7 / 1-290

1. 외무부는 1988.2.4. 주캐나다대사에게 제123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에서 KAL 858기 폭파사건을 별도의제로 상정하는 문제를 이사회 의장과 협의하도록 지시함.
2. 주캐나다대사는 1988.2.8. Kotaite ICAO 이사회 의장 앞 공한으로 제123차 ICAO 이사회에서 KAL기 폭파사건을 토의하고 동 이사회에 한국이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외무부는 1988.2.11. 주몬트리올총영사관을 통해 한국의 KAL기 폭파사건 최종보고서를 ICAO 사무국에 제출함.
4. 외무부는 1988.2.17. KAL기 폭파사건의 별도의제 채택을 위한 ICAO 이사회 심의에 대비, 이사국들의 별도의제 채택 시 지지 확보와 아울러 이사회에서 동 사건 토의 시 한국의 지지발언 및 결의안 채택을 위한 협조를 교섭하도록 28개 ICAO 이사국 주재 공관에 지시함.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제123차. Montreal, 1988.2.29.-3.31. 전7권 (V.3 1988.2.23.-29.)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국제법규과
MF번호	2019-2 / 8 / 1-173

외무부가 1988.2.29. 작성한 'KAL기 폭파사건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토의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사항별 추진현황 및 대책

- 별도 의제 채택
 - ICAO 이사회에서 별도 의제 상정여부 결정
- 남북한 옵서버 참가
 - ICAO 이사회에서 별도 의제 채택이 결정되면 남·북한 초청
 - 북한 대표단 3명은 2.26. 몬트리올 도착
- ICAO 이사회 토의
 - 별도 의제 채택 시 3.14. 이후부터 토의
- 결의안 상정
 - 채택 가능한 결의안을 주캐나다대사에게 송부, 우방국 상주대표와 협의
 - 채택 전망이 있을 경우, 각 이사국 주재 공관을 통해 교섭 시행

2. ICAO 이사국의 한국입장 지지 전망

- 별도 의제 채택 지지
 - 미국, 영국, 일본 등 24개국
- 지지 발언
 - 서방 11개국, 중남미 5개국 및 파키스탄, 케냐 등을 중심으로 교섭 시행
- 결의안 지지
 - 대체로 결의안 내용을 보고 태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제123차. Montreal, 1988.2.29.-3.31. 전7권 (V.4 1988.3.1.-15.)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국제법규과
MF번호	2019-2 / 9 / 1-248

1. 제123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는 1988.2.29. KAL기 폭파사건을 별도의제로 채택할 것을 무투표 결정함.
 - 3.21.부터 남·북한 옵서버 참석하에 토의
2. 외무부는 1988.3월 상기 ICAO 이사회에서 KAL기 사건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28개 이사국 전체 33개 이사국 중 소련, 중국, 체코, 탄자니아, 쿠바를 제외한 주재 공관에 한국 결의안에 대한 주재국의 지지확보 교섭을 시행하도록 지시함.
 - 절대다수 이사국 지지확보를 통한 무투표 채택 또는 압도적인 다수표로 동 결의안이 채택될 것을 목표로 함.
 - 이사국 중 우방국 주재 공관에 대해서는 주재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함.
3. 외무부는 상기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정부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함.
 - 기간 및 장소
 - 1988.3.21.~28., 몬트리올
 - 대표단
 - 수석대표: 노재원 주캐나다대사(교체수석대표: 김세택 국제기구조약국장)
 - 대표: 주몬트리올총영사 등 7명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제123차. Montreal, 1988.2.29.-3.31. 전7권 (V.5 1988.3.16.-26.)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국제법규과
MF번호	2019-2 / 10 / 1-182

1. 제123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는 1988.3.25. KAL기 폭파행위를 규탄하고 재발방지 조치 강구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2. 상기 결의안의 주요 내용 및 채택 경위는 아래와 같음.
 - 결의안 주요내용
 - KAL기 폭파행위 규탄
 - 통과여객 및 폭발물 검색관련 ICAO 규정 보강 강구
 - 각국의 항공기 안전관련 조약 준수 및 안전침해 행위 대응조치 촉구
 - 채택 경위
 - ICAO 이사회 의장은 공산권의 반대를 의식, 결의안 채택에 대해 미온적이었으나, 한국 측이 결의안 관철 방침하에 동 의장을 설득하고 서방측 이사국들이 공동 명의로 결의안을 상정함.
 - 소련의 집요한 결의안 저지 책동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압도적 다수 이사국의 지지확보가 가능해지자, 소련은 전원일치 채택방식에 반대하지는 않음.
 - 33개 ICAO 이사국 중 23개국이 테러 규탄 발언을 하고 중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 하였으나, 소련, 쿠바, 체코, 탄자니아 등 4개국 등은 북한을 비호함.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제123차. Montreal, 1988.2.29.-3.31. 전7권 (V.6 1988.3.26.-1989)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국제법규과

MF번호 2019-2 / 11 / 1-258

1. 외무부가 1988.4월 작성한 제123차 ICAO 이사회의 KAL 858기 사건 토의 결과보고서 및 KAL 858기 사건 토의 의사록(영문)이 수록됨.
2. 외무부는 몬트리올협약 제13조에 따라 김현희 재판결과를 1989.5월 주몬트리올총영사관을 통하여 ICAO 사무국에 전달함.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제123차. Montreal, 1988.2.29.-3.31. 전7권 (V.7 버마정부의 조사보고서 ICAO 제출)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국제법규과

MF번호 2019-2 / 12 / 1-98

1. 주한 인도대사관은 1988.2.11. 인도 민항공국이 작성한 KAL 858기 사건 관련 보고서(영문)를 외무부에 전달함.
2. 미얀마(구 버마) 민항공국은 1988.3.18. KAL 858기 사건과 관련한 미얀마 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영문)를 ICAO 사무국 앞으로 발송함.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사고 조사 결과. 전3권 (V.1 조사 결과 자료 1)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9-2 / 3 / 1-210

1. KAL 858기 폭파사건 수사결과 자료임.

2. 본 문서철에 수록된 자료 목록은 아래와 같음.

- 항공기 사고조사 보고(교통부 항공국, 1987.12월)
 -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KAL, B-707, HL7406)
- A Statement by Kim Hyon-Hui on the Bombing of Korean Air Flight KE-858 (1987.12.28.)
- Briefing on the Findings of Investigation on the Destruction of Korean Air Flight 858(외교단 브리핑 자료, 1988.1.15.)
-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Destruction of Korean Air Flight 858(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88.2.6.)
- KAL 858기 폭파사건 수사결과(서울지방검찰청, 1988.12월)
- 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 등 사건 수사결과(서울지방검찰청, 1989.2.3.)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사고 조사 결과. 전3권 (V.2 조사 결과 자료 2)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9-2 / 4 / 1-88

1. 본 문서철에는 자료1(V.1)에 수록된 아래 자료의 초안이 수록됨.
 -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Destruction of Korean Air Flight 858(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88.2.6.)'
2. 1988.2.1. 작성본과 2.2. 작성본이 수록됨.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사고 조사 결과. 전3권 (V.3 국가안전기획부 수사 결과(보조자료 포함))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9-2 / 5 / 1-188

KAL 858기 폭파사건에 관한 안전기획부 수사결과(1988.1월) 내용임.

1. KAL 858기 폭파사건 수사결과

- 보조자료, 관련사진 첨부

2.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into the Bombing of Korean Air Flight 858(영문자료)

3. KAL 858기 폭파사건 수사결과 보조자료

한국 인권문제에 대한 구주 의회 반응

생산연도 1986-1989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19-3/4/1-74

1. 구주의회는 1986.12.12. 각국의 인권위반 사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한국 관계 결의안도 포함됨.
 - 영국 노동당 출신 Ford 의원과 Hughes 의원이 Socialist Group을 대표하여 제안
2. 구주의회는 1987.7.9. 혁신계 의원들이 발의한 한국 관계 결의안을 채택함.
 - 동 결의안 표결에는 보수계 의원 다수가 하계휴가로 불참한 가운데 재적의원 518명 중 107명만 참석함.
 - 동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직선제 채택 및 김대중 사면·복권 등 한국의 민주화 조치가 신속하고 완전하게 시행될 것을 희망
 - 광주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파악 촉구
 - EC 정치협력 외무장관 회의는 한국 정부에 대해 신속히 민주화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
3. 구주의회는 1988.10.13. 한국 정부에 대해 조속한 정치범 사면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일본 외무성 공개 외교문서 수집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3 / 10 / 1-16

1. 일본 외무성은 1976년부터 1989년 말까지 10회에 걸쳐 외교문서를 공개함.
 - 주일본대사는 1989.10월 상기 외교문서가 1945년 이후의 한·일본 관계 및 일본의 대외관계를 파악·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크다고 하면서 동 자료의 구입을 건의함.
2. 주일본대사관은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상기 일본 외무성의 공개자료 제1~10회분 마이크로 필름 총 210통을 구입하여 1989.11월 외무부에 송부함.

주요 업무계획 및 대통령 지시사항

생산연도	1984-1989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9-3 / 11 / 1-183

외무부는 연두 업무보고 등 주요 계기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취합·점검함.

1. 1984년

- 연두 업무보고(2.3.)
 - 전국민 외교실시, 미국·일본의 대의회 활동 강화 등 21개 과제
- 기타
 - 외교사료 정리, 외교관 자녀교육대책 강구 등 3개 과제

2. 1985년

- 연두 업무보고(1.15.)
 - 중장기 외교정책수립 등 11개 과제
- 기타
 - 방미 후속조치 만전 등 3개 과제

3. 1986년

- 연두 업무보고(1.22.)
 - 국제정세의 정확한 인식, 중장기 외교정책 보완발전 등 13개 과제

4. 1988년

- 대통령 통치업적 등 자료수집(1월)
 - 태평양 정상회담, 남남협력, 정상외교 등 7개 과제

5. 1989년

- 대통령 지시사항
 - 자주·적극외교 전개, 북방외교의 계속 추진 등 9개 과제

대사파견 - 오스트리아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서구2과/총무과(인사)

MF번호 2019-3 / 12 / 1-27

1. 이장춘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89.4.25. 오스트리아에 부임함.
2. 이장춘 대사는 1989.5.8. Mock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을 예방,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 Mock 장관은 한국의 민주화 및 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의 국내정세와 남북한 관계, 중국의 대남북한 관계 및 한·일본 관계 등에 관해 문의함.
3. 이장춘 대사는 1989.5.12. Kurt Waldheim 오스트리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이 대사가 양국간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노태우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한데 대해 Waldheim 대통령은 노 대통령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 주기를 요청하고 양국관계 강화를 희망함.
4. 이장춘 대사는 1989.5.22. M.J. Anstee 유엔 비엔나 본부장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고, 6.22. Domingo Siazon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에게 신임장을 제출함.

대사파견 - 벨기에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서구1과/총무과(인사)

MF번호 2019-3 / 13 / 1-25

1. 주벨기에대사관은 1989.2.13. 정우영 주룩셈부르크대사(벨기에 상주)에 대한 아그레망을 룩셈부르크 외무부에 신청함.
2. 룩셈부르크 외무부는 1989.3.13. 정우영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외무부는 1989.3.31. 정우영 주벨기에대사를 주룩셈부르크대사로 겸임 발령함.
4. 정우영 대사는 1989.6.9. Jean 룩셈부르크 대공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브라질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남미과/총무과(인사)

MF번호 2019-3 / 14 / 1-14

1. 김기수 주브라질대사는 1989.11.20. 브라질 외무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2. 김기수 대사는 1989.11.21. Sarney 브라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김 대사가 노태우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하고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언급한데 대해 Sarney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안부에 감사를 표시하고 양국간 경제관계가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함.

대사파견 - 볼리비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남미과/총무과(인사)
MF번호	2019-3 / 15 / 1-13

1. 명인세 주볼리비아대사는 1989.12.18. 볼리비아 외무성 의전장을 면담, 신임장 제정 일정 및 절차에 관한 설명을 청취함.
2. 명인세 대사는 1989.12.19. Iturralde 볼리비아 외무장관을 예방,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 동 장관은 양국간 우호관계의 증진에 만족을 표시하고 잠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시함.
3. 명인세 대사는 1989.12.20. Jaimepaz 볼리비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명 대사가 노태우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하고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언급한데 대해, Jaimepaz 대통령은 노 대통령에 대한 안부를 부탁하고 양국간의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관계 심화를 희망함.

대사파견 - 코스타리카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중미과/총무과(인사)

MF번호 2019-3 / 16 / 1-14

1. 김창근 주코스타리카대사는 1989.2.28. 코스타리카에 부임함.
2. 김창근 대사는 1989.3.1. Rivera 코스타리카 외무장관대리를 면담, 신임장 사본을 제출
 - Rivera 장관대리는 양국간의 특별한 우호협력관계와 양국관계의 심화 발전을 위한 협력을 언급함.
3. 김창근 대사는 1989.3.6. Arias 코스타리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Arias 대통령은 한국의 모범적인 정치·경제 발전상을 언급하고 기존의 우호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면서 한국업체의 코스타리카 투자진출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투자분야의 다양화를 희망함.

대사파견 - 지부티

생산연도	1978-1985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담당관실/인사계
MF번호	2019-3 / 17 / 1-134

1978~85년 중 주프랑스대사는 신임장 제정을 위하여 겸임국인 지부티공화국을 방문함.

1. 윤석헌 대사 지부티 방문(1978.3.6.~10.)

- 신임장 제정 및 대통령 면담(3.8.)
 - Gouled 대통령은 양국관계가 증진되기를 희망하고, 한국 대통령에 대한 경의와 정중한 인사를 전하여 줄 것을 부탁함.
- 수상 면담
 - Kamil 수상은 1978.6월 중 방한을 희망하고, 양국간 협력사업으로 지부티 항공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문의함.

2. 민병기 대사 지부티 방문(1979.9.23.~26.)

- 신임장 제정 및 대통령 면담(9.23.)
 - Gouled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문제 및 유엔에서의 한국입장 지지를 약속함.
- 수상, 외상 및 통산상 면담

3. 윤석헌 대사 지부티 방문(1982.11.14.~17.)

- 신임장 제정 및 대통령 면담
 - 지부티 대통령은 한국이 지부티 지원국 회의에 참가해줄 것을 희망함.
- 수상 및 외상 면담
 - Farah 외상은 뉴델리 비동맹회의에 자신이 직접 참석하여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겠다고 언급함.
 - 또한, 동 외상은 1983.1월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밝힘.

4. 윤역섭 대사 지부티 방문(1985.11.24.~30.)

- 신임장 제정 및 대통령 면담(11.25.)

대사파견 - 덴마크

생산연도	1989
생산과	의전담당관실/총무과(인사)
MF번호	2019-3 / 18 / 1-13

1. 장선섭 주덴마크대사는 1989.4.24. 덴마크 외무성 의전장을 면담,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2. 장선섭 대사는 1989.5.11. Margrethe 2세 덴마크 여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장 대사가 노태우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한데 대해 Margrethe 2세 여왕은 자신의 안부를 노 대통령에게 전하여 주기를 요망하면서 한국의 정치, 경제분야에서의 큰 발전을 치하하고 양국간의 교역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함.



대사파견 - 에콰도르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총무과(인사)

MF번호 2019-3 / 19 / 1-14

1. 정해용 주에콰도르대사는 1989.7.11. Rodrigo Borja 에콰도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정해용 대사는 신임장 제정 후 Borja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동 대통령 방한 초청을 상기시키고 양국간 관계증진을 위해 진력할 것임을 언급함.

대사파견 - 에티오피아

생산연도	1981-1983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총무과
MF번호	2019-3 / 20 / 1-55

1. 1981.7월 한국 정부는 주에티오피아 신임대사를 내정하고, 주재국에 아그레망을 요청하였으나, 에티오피아 측은 현 대사의 유임을 한·에티오피아 외무장관회담(9.25., 뉴욕)에서 강력히 요구하여 1년간 유임됨.
2. 주에티오피아대사는 1982.12.8. 주재국 Fleke 외상을 면담하고 김득보 후임 대사의 아그레망 조속 부여를 요청하였으며, 주재국 외무성은 12.9.자로 아그레망 부여 통보 공한을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에 송부해 옴.
3. 김득보 신임 주에티오피아대사는 1983.2.18. 주재국 외상 대리인 Tibebe 차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수교함.
4. 김득보 대사는 1983.2.19. Fikre-Selassie 군사위 사무총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가봉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총무과(인사)
MF번호	2019-3 / 21 / 1-31

박창일 신임 주가봉대사는 1989.4~6월간 가봉 대통령 및 겸임국인 상투메프린시페 대통령에게 각각 신임장을 제출함.

1. 박창일 주가봉대사는 1989.4.12. Martin Bongo 가봉 외무장관을 예방하여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의견을 교환함.
 - 박창일 대사는 외무부장관의 안부인사를 전달하고, 비동맹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입장을 지지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함.
 - Bongo 장관은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입장이 정당한 것이므로 지지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음을 언급함.
2. 신임 주가봉대사는 1989.4.25. 봉고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 후 환담하였으며, 봉고 대통령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 봉고 대통령은 자신의 각별한 문안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양국간 협력 증진을 희망함.
3. 정부는 1989.4.29. 박창일 주가봉대사를 주상투메프린시페대사로 겸임 발령함.
4. 박창일 대사는 1989.6.12. Pinto da Costa 상투메프린시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대통령 및 유관부처 장관들과 면담한바, 주요 언급사항은 아래와 같음.
 - Costa 대통령은 선발개도국인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외무부장관 방문 시 협력사업이 발굴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Graca 외무장관은 외무부장관의 방한 초청에 깊은 사의를 표함.
 - Rocha da Costa 수상은 어업분야에서의 협력과 초등학교 건물 및 축구장건설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박 대사는 어로분야 개도국 연수생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건설분야는 한국 정부의 경험사업에 포함되지 않음을 첨언함.

대사파견 - 헝가리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동구과/총무과(인사)

MF번호 2019-3 / 22 / 1-79

1. 외무부는 1988.11.25. 한탁채 대사를 주헝가리 상주대표로 임명함.
 - 주헝가리 상주대표는 현지에 부임하여 12.12. Varkonyi 헝가리 외무장관에게 신임장을 제정
2. 헝가리 외무부는 1989.2.1. 한탁채 주헝가리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한탁채 대사는 1989.3.1. 헝가리 외무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4. 한탁채 대사는 1989.3.2. Bruno Straub 헝가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인도네시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총무과(인사)
MF번호	2019-3 / 23 / 1-36

1. 김재춘 신임 주인도네시아대사는 1989.10.25.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 한바, 동 대통령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 한국경제 발전과 안전은 아태지역 및 국제정세 안정에도 기여함.
 - 한·아세안 대화를 통해 양측 간의 관계가 돈독해 질 것임.
 - 한·인도네시아 간 경제분야 상호보완성을 감안하여 LNG 추가도입, 석탄 공동개발 확대, 투자 증대가 이루어지길 희망함.
2. 김재춘 대사의 신임장 제정사 및 수하르토 대통령 답사(영문본)가 첨부됨.

대사파견 - 이란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근동과/의전담당관실/총무과(인사)
MF번호	2019-3 / 24 / 1-69

1. 외무부는 1989.2.5. 이란 외무부에 정경일 신임 주이란대사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1989.4.12. 주이란대사관은 정경일 대사의 아그레망 수락 공한을 접수하였으나, 6월 호메이니 이란 대통령 서거로 신임장 제정이 지연됨.
 - 7월 Rafsanjani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신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도록 준비함.
3. 정경일 대사는 1989.10.8. Rafsanjani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동 대통령과 환담함.
 - 동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이란국가 재건 참여에 사의를 표하고 이란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한국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함.
 - 주재국 정부 고위인사들은 신임 대통령에게 최초로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인 만큼 앞으로 양국관계의 급속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대사파견 - 이탈리아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의전담당관실/총무과
MF번호	2019-3 / 25 / 1-34

1. 김석규 신임 주이탈리아대사는 1989.7.3. Cossiga 이탈리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Cossiga 대통령은 남북한 관계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불신감을 표출하고, 한국과 주변국(일본, 중국 등) 관계에도 관심을 표명함.
2. 김석규 대사는 1989.8.10. 겸임국인 몰타의 Tabone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Tabone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정중한 안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 방문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면서 양국관계가 실질적으로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대사파견 - 쿠웨이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총무과(인사)

MF번호 2019-3 / 26 / 1-20

1. 소병용 주쿠웨이트대사는 1989.7.3. Al-Osaimi 쿠웨이트 외무담당국무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2. 소병용 대사는 1989.7.5. Jaber 쿠웨이트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소 대사는 양국간의 우호관계 증진, 주한공관 개설 필요성, 경제관계 등을 언급하고, 1984년도에 Jaber 국왕의 방한을 초청하였음을 상기시킴.
 - 동 국왕은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명하고 주한 상주공관 개설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경제관계증진을 희망함.
3. 소병용 대사는 1989.7.11. Sabah 쿠웨이트 수상을 예방함.
 - 소 대사는 주한 상주공관 개설을 희망하고 경제관계발전을 언급하였으며, Sabah 수상은 양국간 경제협력에 만족을 표명함.

대사파견 - 라이베리아

생산연도	1986-1989
생산과	의전담당관실/아프리카1과/총무과(인사)
MF번호	2019-3 / 27 / 1-75

1986~89년 중 주라이베리아대사의 이·부임 관련 내용임.

1. 이현홍 주라이베리아대사 이임(1986)

- 3.24. 라이베리아 외무장관 이임 예방
- 3.27. Doe 라이베리아 대통령 이임 예방

2. 송학원 주라이베리아대사 부임(1986)

- 5.2. 라이베리아 부임
- 5.5. 라이베리아 외무장관에게 신임장 사본 제출
- 5.16. Doe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동 대통령은 1982년 방한에 대한 인상, 특히 새마을운동에 대한 감명, 대우건설의 진출, 한국의 무상원조 등에 관해 언급

3. 김용집 주라이베리아대사 부임(1989)

- 5.10. 라이베리아 외무장관에게 신임장 사본 제출
- 5.23. Doe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동 대통령은 1982년 자신의 방한을 언급하고, 한국 대통령의 방문을 초청하였으며. 한국의 도로건설 관련 차관을 요청

대사파견 - 모로코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마그레브과/총무과(인사)

MF번호 2019-3 / 28 / 1-15

1. 이종업 주모로코대사는 1989.8.1. Skhirat 궁전에서 모로코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국왕은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치하하고 한국 내 회교단체와의 유대관계를 언급
2. 동 제정식에서 한국, 브라질 등 7개국 대사가 차례로 신임장 제정함.

대사파견 - 노르웨이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서구2과/총무과(인사)

MF번호 2019-4 / 1 / 1-53

1989년 중 주노르웨이대사의 이·부임 관련 내용임.

1. 송성한 주노르웨이대사 이임

- 3.6. Olav 5세 노르웨이 국왕 이임 예방
 - 동 국왕은 양국관계의 증진, 특히 경제관계 발전에 만족 표명

2. 김정훈 주노르웨이대사 부임

- 3.15. 노르웨이 부임
- 3.17. 노르웨이 외무성 의전장 면담, 신임장 사본 제출
- 4.6. Olav 5세 국왕에게 신임장 제정
 - 동 국왕은 한국 내 노사분규 등 정세에 관해 문의하고 한국의 올림픽 개최, 경제발전 등에 관해 언급

3. 김정훈 대사 겸임국 아이슬란드 신임장 제정

- 6.22. V. Finnbogadottir 아이슬란드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김 대사는 1989.6.20.~25. 아이슬란드 방문기간 중 외무장관 대리, 정무차관보, 의전장 등 면담

대사파견 - 네덜란드

생산연도 1986-1989

생산과 서구1과/총무과(인사)

MF번호 2019-4 / 2 / 1-57

1986~89년 중 주네덜란드대사 부임 관련 내용임.

1. 윤석섭 주네덜란드대사 부임(1987)

- 4.16. 네덜란드 외무성 의전장을 면담, 신임장 사본 제출
- 4.22. Van Den Broek 네덜란드 외무장관을 부임 인사차 예방
 - Broek 장관은 양국 고위인사의 상호방문 등으로 양국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양국경제관계에 있어 네덜란드의 무역수지 적자 심화를 지적하면서 무역균형 필요성을 언급
- 5.13. Beatrix 네덜란드 여왕에게 신임장 제정
 - 윤 대사가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하고 양국관계의 긴밀화를 설명한데 대해 Beatrix 여왕은 양국관계에 만족을 표명하고 한국의 경제발전을 평가

76

2. 최상섭 주네덜란드대사 부임(1989)

- 10.24. 네덜란드 부임
- 10.26. 네덜란드 외무성 의전장을 면담, 신임장 사본 제출
- 11.8. Beatrix 네덜란드 여왕에게 신임장 제정
 - 최 대사가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고 Beatrix 여왕의 방한을 초청하는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한데 대해 동 여왕은 대통령의 안부 및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시하고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관심을 표명

대사파견 - 뉴질랜드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담당관실/총무과(인사)
MF번호	2019-4 / 3 / 1-62

1. 최필립 주뉴질랜드대사는 1986.4.30. 리브스 뉴질랜드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최필립 대사는 1986.5.30. 겸임국인 서사모아 국가원수 Malie Tanumafili II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3. 주뉴질랜드대사관은 1989.1.30. 서경석 주서사모아대사(뉴질랜드 상주)에 대한 아그레망을 서사모아에 신청함.
 - 서사모아는 1989.3.30.자 공한으로 서경석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을 통보

대사파견 - 파라과이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총무과(인사)

MF번호 2019-4 / 4 / 1-39

1. 김흥수 신임 주파라과이대사는 1989.3.31. 부임하여 4.11. Argana 파라과이 외상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2. 김흥수 대사는 1989.4.12. Rodriguez 파라과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아래 요지로 환담함.
 - Rodriguez 대통령 언급요지
 - 노태우 대통령에게 자신의 문안 인사 전달을 요청함.
 - 1983.10월 방한 시 한국의 발전상에 큰 감명을 받음.
 - 한·파라과이 간 전통적인 우호친선관계가 협력관계로 확대 심화되고 있음을 만족하게 생각함.
 - 김 대사 언급요지
 - 파라과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건설과 경제, 사회발전 노력이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노 대통령의 인사를 전달함.
 - 한·파라과이 간 우호친선관계 및 협력관계 강화를 희망함.
 - 24년 전부터 파라과이에 정착해 온 한국교포들을 잘 보살펴준데 대해 사의 표명함.
 - 남북한 통일문제 관련, 노 대통령의 7·7 특별선언 내용을 설명함.

대사파견 - 필리핀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남아과/총무과(인사)

MF번호 2019-4 / 5 / 1-16

1. 노정기 신임 주필리핀대사는 1989.3.13. Manglapus 필리핀 외무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증진방안을 논의함.

-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방한 초청 문제
 -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아키노 대통령의 방한을 기대한다는 노태우 대통령의 희망을 전달하고 관심을 촉구함.
 - Manglapus 외무장관은 동 대통령의 방한은 1989년 말이나 1990년 중 소련 방문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언급함.
- 물품 기증계획
 - 노정기 대사는 한국 정부가 1989년 중 10만 달러 상당의 한국산 물품을 기증할 계획임을 설명함.
 - 동 장관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필리핀 원조계획에 한국 정부가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한·필리핀 우호관계가 더욱 공고화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2. 노정기 대사는 1989.3.16. 아키노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아래요지로 환담함.

- 노 대사 언급요지
 - 한국을 대표하여 필리핀에 부임한 것은 영광임.
 - 필리핀의 경제회복 및 발전이 가까운 장래에 성공적으로 실현되기를 기원함.
 - 1989년 중 한국 정부의 한국산 물품 증여계획을 설명함.
 - 노태우 대통령이 동 대통령의 조속한 방한을 기대하고 있음을 전언함.
 - 대필리핀 투자와 관광객 증대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아키노 대통령 언급요지
 - 한국산 물품 증여계획에 대해 농업기술 개발 등 농업발전을 위한 품목에 깊은 관심을 표시
 - 빠른 시일 내 방한하고 싶으나 현재로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1990년 중 방한을 검토하고 있음.(90년 소련 방문과 연계하여 방한을 고려하고 있는 듯한 인상)
 - 상호이익을 위해 한국의 대필리핀 투자증대를 희망함.
 - 한국 관광객의 필리핀 방문 증대를 희망함.

대사파견 - 파푸아뉴기니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담당관실/총무과(인사)
MF번호	2019-4 / 6 / 1-37

1. 최남준 신임 주파푸아뉴기니대사는 1989.4.4. Kilage 파푸아뉴기니 총독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아래 요지로 환담함.
 - Kilage 총독은 노태우 대통령 취임 후 88 서울올림픽 개최, 민주화 노력 및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축하함.
 - 최남준 대사는 7·7 대통령선언 및 남북대화 진전상황을 설명한 바, Kilage 총독은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심을 표하고 특히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 동 총독은 양국관계에 관해 언급하면서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Yonki 댐 공사의 순조로운 진척과 한국 정부에 의한 연수생 초청훈련 및 농업, 의료장비 등 무상원조 공여에 대해 사의 표명
2. 최남준 대사는 1989.4.5. Somare 파푸아뉴기니 외무장관을 부임인사차 예방함.
 - Somare 장관은 최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면서, 파푸아뉴기니는 한국에 항상 우호적이며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입장을 지지해 왔다고 언급
 - 최 대사는 1988년 유엔총회 시 파푸아뉴기니의 한국입장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유엔가입 신청 시 지지를 요청
 - 동 장관은 남북한의 유엔가입은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적극 지지를 약속
 - 최 대사는 한국이 1989년 ILO(국제노동기구) 가입을 검토 중임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
 - 동 장관은 지지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서 가입신청 시 공식 요청을 당부
3. 최남준 대사는 1989.4.7. Namaliu 파푸아뉴기니 수상을 부임 인사차 예방함.
 - Namaliu 수상은 양국간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
 - 경제발전을 위한 한국 민간기업의 대파푸아뉴기니 투자확대를 희망하고, 이를 위한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이 조속 체결되기를 희망
 - 88 서울올림픽 시 한국민과 한국 정부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91년 남태평양경기대회를 위한 체육장비 지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을 기대

대사파견 - 사우디아라비아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총무과(인사)

MF번호 2019-4 / 7 / 1-11

주병국 신임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는 1989.9.17. Fahd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환담함.

1. 주병국 대사는 노태우 대통령의 문안인사를 전달하고, 양국 우호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함.
2. Fahd 국왕은 주병국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며, 한·사우디 간의 우호관계 특히 정부차원 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관계가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3. Fahd 국왕은 이란과의 관계, 레바논 사태 및 팔레스타인 문제 등 중동 현안문제에 관해 상세히 언급함.
 - 동 국왕은 자신이 언급한 중동 문제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강조
4. Fahd 국왕은 재차 한국과의 돈독한 우호협력관계를 강조하면서 양국간 우호협력증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언급함.

대사파견 - 스웨덴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서구2과/총무과(인사)

MF번호 2019-4 / 8 / 1-36

1. 최필립 신임 주스웨덴대사는 1989.4.19. Andersson 스웨덴 외상을 예방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 Andersson 외상은 1988.10월 장애인올림픽 참관차 방한 시 한국 측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한·스웨덴 양국관계가 보다 긴밀해지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함.
- 최필립 대사는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한 각별한 지원을 요청함.

82

2. 최필립 대사는 1989.4.28. Gustaf 스웨덴 국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아래 요지로 환담함.

- 최 대사가 노태우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자 Gustaf 국왕은 1988.9월 방한 시 노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문안인사 전달을 요청함.
- Gustaf 국왕은 1989.2월 자신이 뉴질랜드 방문 시 동 대사를 만난 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최근 한국정세에 관해 문의한바, 동 대사는 이를 소상히 설명함.
- 동 대사가 1991년 한국에서 보이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개최됨을 상기시키면, 현재 국제보이 스카우트 재단회장을 맡고 있는 Gustaf 국왕은 동 대회 시 한국 방문 예정임을 밝힘.

대사파견 - 싱가포르

생산연도 1988-89

생산과 동남아과/총무과(인사)

MF번호 2019-4 / 9 / 1-51

1. 김세택 주싱가포르대사는 1989.3.13. Wong Kan Seng 싱가포르 외무장관을 예방하여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 Wong 장관은 한국·대만 관계, 남북한 접촉, 한국인의 대미감정 등에 관심을 표함.
2. 김세택 대사는 1989.3.27. Wee Kim Wee 싱가포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세네갈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아프리카1과/총무과(인사)
MF번호	2019-4 / 10 / 1-111

1. 유종현 주세네갈대사는 1988.1.8. Abdu Juuf 세네갈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유종현 대사는 아래와 같이 겸임국(기니비사우, 감비아, 카보베르데) 국가원수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1988.2.19. Vieira 기니비사우 국가원수에게 신임장 제정
 - 1988.4.29. Jawara 감비아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 1989.5.30. Pereira 카보베르데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대사파견 - 수리남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중미과/총무과(인사)

MF번호 2019-4 / 11 / 1-12

1. 김교식 주수리남대사는 1989.3.7. Van Eer 수리남 외무차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2. 김교식 대사는 1989.3.14. Ramsewak Shankar 수리남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김 대사는 신임장 제정 후 Edwin Sedoc 수리남 외무장관을 예방함.

대사파견 - 스와지랜드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아프리카2과/총무과(인사)
MF번호	2019-4 / 12 / 1-53

1. 외무부는 1987.5.27. 이정남 대사를 주스와질랜드대사로 발령함.
2. 외무부는 1988.12.10. 이정남 주스와질랜드대사를 주보츠와나대사로 겸임 발령함.
3. 이정남 대사는 1989.3.30. 마시레 보츠와나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대사파견 - 스위스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총무과(인사)

MF번호 2019-4 / 13 / 1-14

1. 스위스 외무부는 1987.2월 각국 대사가 제정하는 신임장의 수신인 표기를 Au Conseil Federal Suisse로 작성해 줄 것을 스위스 주재 각국 대사관에 요청함.
 - 스위스 국가원수인 연방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매년 바뀜을 감안하여 수신인 표기를 변경함.
2. 이원호 주스위스대사는 1989.5.25. Jean-Pascal Delamuraz 스위스연방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트리니다드토바고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9-4 / 14 / 1-79



1. 박부열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는 1989.5.3. Hassanali 트리니다드토바고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박부열 대사는 아래와 같이 겸임국 국가원수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그레나다
 - 1989.6.7. 신임장 제정
- 도미니카연방
 - 1989.12.12. 신임장 제정
- 바베이도스
 - 1989.10.17. 신임장 제정
- 세인트루시아
 - 1989.12.5. 신임장 제정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1989.11.27. 신임장 제정
- 세인트키츠네비스
 - 1989.11.14. 신임장 제정
- 앤티가바부다
 - 1989.11.16. 신임장 제정



대사파견 - 터키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총무과(인사)

MF번호 2019-4 / 15 / 1-36

1. 김내성 주터키대사는 1989.3.29. Nuzhet Kandemir 터키 외무차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2. 김내성 대사는 1989.4.17. Evren 터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파견 - 우간다

생산연도	1989
생산과	아프리카2과/의전담당관실/총무과(인사)
MF번호	2019-4 / 16 / 1-33

1. 김재규 주우간다대사는 1989.5.30. Museveni 우간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Museveni 대통령은 한국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문제를 검토 중임을 언급하고 우간다에 차관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함.
2. 김재규 주우간다대사는 1989.6.19. 신임 인사차 Kisseka 우간다 수상을 예방함.
 - Kisseka 수상은 그간의 한국의 원조에 사의를 표명하고 우간다 산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합작투자를 희망함.

대사파견 - 우루과이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총무과(인사)

MF번호 2019-4 / 17 / 1-11

1. 탁나현 주우루과이대사는 1989.12.13. Tassano 우루과이 외무장관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 Tassano 장관은 우루과이 정부가 그동안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중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한국과의 기존 협력관계가 계속 확대 발전될 것으로 본다고 말함.
2. 탁나현 대사는 1989.12.14. 상기네티 우루과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상기네티 대통령은 남북한 관계 현황에 대해 관심을 표명함.

대사파견 - 베네수엘라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남미과/중미과/총무과(인사)

MF번호 2019-4 / 18 / 1-132

1. 조광제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986.6.6. Lushinchi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조광제 대사는 아래와 같이 겸임국 국가원수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아이티
 - 1987.3.26. Namphy 국가평의회장에게 신임장 제정
 - 가이아나
 - 1989.9.20. D. Hoyte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대사파견 - 자이르

생산연도	1987
생 산 과	아프리카2과/의전담당관실/총무과(인사)
MF번호	2019-4 / 19 / 1-80

1. 김현곤 주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대사는 1987.10.15. Mobutu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신임장 제정식은 Mobutu 대통령의 고향인 Gbadolite 소재 대통령 별궁에서 거행됨.
2. 김현곤 대사는 신임장 제정차 1987.11.3.~10. 겸임국인 르완다에 출장함.
 - 동 대사는 11.5. Bizimungu 르완다 외무장관을 예방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 동 장관은 르완다가 한국을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기를 원하며 민간분야에서의 협력강화 필요성을 강조
 - 동 대사는 11.7. Habyarimana 르완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통령은 양국간 경제협력이 구체화되기를 희망하고 양국기업인 간 교류 필요성을 강조

대사부임 - 오스트리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4 / 20 / 1-78

1. Peter Moser 주한 오스트리아대사(초대 상주)가 1989.6.16. 이임함.
 - 6.9. 외무장관 내외 주최 송별 오찬
2. Felix Mikl 주한 오스트리아대사가 1989.6.28. 부임하여 7.13.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방글라데시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서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4 / 21 / 1-199

1. Saiyid Ahmad Mahmood 주한 방글라데시대사(초대 상주)가 1987.4.16. 부임하여 6.5.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Kazi Anwarul Masud 주한 방글라데시대사가 1989.8.9. 부임하여 8.30.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카메룬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4 / 22 / 1-105

1. Ntsama 주한 카메룬대사(초대, 동경 상주)가 1989.2.9.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2.8. 외무부장관 예방 및 신임장 사본 제출
2. Ntsama 대사는 1989.8.29. 이임 인사차 외무부장관을 예방함.



대사부임 - 덴마크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구2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4 / 23 / 1-93

1. Hans Assing 주한 덴마크대사가 1989.8월 이임함.
 - 7.18. 외무부장관 이임 예방
2. Jan Marcussen 주한 덴마크대사가 1989.9.13. 부임하여 9.27.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적도기니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아프리카2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4 / 24 / 1-14

1. 주 적도기니대사관은 1987.3월 Eulogio Oyo Riquesa 대사(북경 상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하는 1986.8.28.자 적도기니 외무부 공한을 접수함.
 - 교통편 미비로 공한 전달이 지연
2. 정부는 1987.7.8. Riquesa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대사부임 - 피지

생산연도	1983-1989
생 산 과	동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4 / 25 / 1-154

1. 피지 정부는 1983.11.8. J.D.Gibson 주뉴질랜드 고등판무관을 주한 피지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3.11.23. Gibson 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Gibson 대사는 1984.5.15.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사는 이임인사차 1987.3.23.~27. 방한함.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외무부장관 예방
4. 피지 정부는 1988.9.14. Charles Walker를 신임 주한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5. 한국 정부는 1988.10.7. Walker 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6. Walker 대사는 1989.7.13.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헝가리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동구과

MF번호 2019-4 / 26 / 1-81



1. Sandor Etre 주한 헝가리대표(초대 상주)가 1988.12.5. 부임함.
2. 헝가리 측은 1989.2.1. Sandor Etre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함.
3. 정부는 1989.2.10. Sandor Etre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4. Sandor Etre 대사는 1989.2.28. 외무부장관을 예방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함.
5. Sandor Etre 대사는 1989.3.16.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인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4 / 27 / 1-106

1. Sudhir Tukaram Devare 주한 인도대사가 1989.6.12. 이임함.
 - 6.5. 외무부장관 이임 예방
2. Lal Thanzaua Pudaite 주한 인도대사가 1989.8.6. 부임하여 8.30.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8.18. 외무부장관 예방 및 신임장 사본 제출

대사부임 - 아일랜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4 / 28 / 1-148

1. Sean G. Ronan 주한 아일랜드대사(동경 상주)가 이임 인사차 1988.11.28.~12.4. 방한한바, 주요 방한일정은 아래와 같음.
 - 국무총리 예방(수교훈장 흥인장 서훈), 외무부장관 예방
 - 동 대사 주최 이임 리셉션 개최
2. 아일랜드 정부는 1989.5.12. Richard Ryan 주영국대사관 참사관을 주한 아일랜드대사(초대 상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3. 한국 정부는 1989.6.8. Ryan 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4. Ryan 대사는 1989.9.27.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이라크

생산연도 1982-1989

생 산 과 중근동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4 / 29 / 1-37

1. Kais Mahmood Mousa 주한 이라크총영사가 1984.8.18. 서울에 부임함.
 - 8.30. Mousa 총영사에 대하여 영사인가장이 발부됨.
2. 한국과 이라크 간 외교관계수립 의정서 서명에 따라, Mousa 총영사는 1989.7.9.자로 주한 이라크대사대리로 임명됨.
3. Mousa 주한 이라크대사대리는 1989.8.17. 이임함.
 - 노태우 대통령은 이임 예방시 동 대사대리에게 수교훈장 흥인장을 수여함.

대사부임 - 이란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중근동과

MF번호 2019-4 / 30 / 1-48

1. 이란 정부는 1989.4.22. Entezari 주한 이란대사대리를 신임 주한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9.5.15. Entezari 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Entezari 대사는 1989.8.30.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리비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4 / 31 / 1-56

1. 리비아 정부는 1989.2.3. Abdalhamid Farhat를 신임 주한 리비아 국민사무소 대표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9.2.20. Farhat 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1989.4월 외무부는 Farhat 대사의 신임장 제정과 관련, 주한 리비아 국민사무소 대표의 지위 변경에 대하여 검토하고, 1989.4.18.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주한 리비아 국민사무소는 1981.11.26. 상주공관 개설 이래 리비아 정치체제의 특수성(국가원수 부재)을 감안, 리비아 외무부에서 발급한 소개장을 한국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신임장 제정을 대신함.
 - Farhat 대표는 한국 대통령 앞 정식 신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려오면서 대통령 앞 신임장 제정을 요청해 옴.
 - 외무부는 리비아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동인을 다른 신임 주한대사와 동일하게 대우할 것을 결정하고, 대통령에 대한 신임장 제정을 거행함.

대사부임 - 말레이시아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동남아과

MF번호 2019-4 / 32 / 1-172

1. Antohiny Yeo Keat Seong 제8대 주한 말레이시아대사 부임

- 말레이시아 정부는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을 통해 1986.1.10. Yeo 신임 주한대사 임명을 위한 아그레망을 요청함.
- 한국 정부는 1986.1.31. Yeo 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Yeo 대사는 1986.5.29.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2. Nik Mohamed bin Nik Hassan 제9대 주한 말레이시아대사 부임

- 말레이시아 정부는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을 통해 1989.2.4. Nik Mohamed 주네덜란드 말레이시아대사를 주한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아그레망을 요청함.
- 한국 정부는 1989.3.10. Nik Mohamed 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Nik Mohamed 대사는 1989.7.13.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모로코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마그레브과

MF번호 2019-4 / 33 / 1-84

1. 모로코 정부는 1988.2.22. 주모로코대사관을 통해 Nouredine Sefiani를 초대 주한 모로코 상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8.3.16. Sefiani 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Sefiani 대사는 1989.2.9.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사는 신임장 제정 이전에 방한하여 주한 상주공관 개설을 준비함.

대사부임 - 니제르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4 / 34 / 1-33

1. 니제르 정부는 1988.9.14 Moumouni Djermakoye Adamou 주미국 니제르대사를 신임 겸임 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정부는 1988.11.19. Djermakoye 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한국 측은 1989.5월 신임장 제정식에 Djermakoye 대사를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 니제르 측은 신임장 제정일자로 1989.5.8.~9. 또는 6월 초순을 제시함.

대사부임 - 스리랑카

생산연도	1984-1989
생 산 과	서남아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5 / 1 / 1-315

1. Arthur Basunayake 대사

- 스리랑카 정부는 1984.2.23. Bansunayake 주일본 스리랑카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 정부는 1984.3.12. Bansunayake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동 대사는 1984.5.16.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동 대사는 이임 인사차 1984.11.10.~17. 방한하여 대통령 및 외무부장관을 예방함.

2. C. Mahendran 대사

- 스리랑카 정부는 1987.1.18. Mahendran 주한 초대 상주대사 임명을 위한 아그레망을 요청함.
- 정부는 Mahendran 1987.1.24. 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 Mahendran 대사는 1987.3.18.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수단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5 / 2 / 1-133

1. Saad 주한 수단대사(동경 상주)가 이임인사차 1987.10.18.~23. 방한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을 예방하고, 외무부장관대리(차관) 주최 환송 오찬을 가짐.
2. 수단 정부는 1988.9.13. Mohamed Abdel Dayim Basheer 주일본 수단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아그레망을 요청함.
3. 정부는 1988.10.14. Basheer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4. Basheer 대사는 1989.3.16.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튀니지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마그레브과

MF번호 2019-5 / 3 / 1-95

1. 튀니지 정부는 1988.10.5. Abdelhamid Ben Messaouda 주일본 튀니지대사를 주한 겸임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8.11.22. Ben Messaouda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Ben Messaouda 대사는 1989.3.16.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미국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북미과

MF번호 2019-5 / 4 / 1-232



1. 부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1989.1.6. 미국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역임한 Donald Gregg를 주한 미국대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함.
2. 한국 정부는 1989.2.8. Gregg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Gregg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 인준 절차가 진행됨.
 - 5.2. 미 상원 제1차 인준청문회 개최
 - 6.29. 미 상원 제2차 인준청문회 개최
 - 9.12. 상원 인준 투표(찬성 66표, 반대 33표)
4. Gregg 대사는 1989.9.27.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대사부임 - 우루과이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남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5 / 5 / 1-81

1. 우루과이 정부는 1988.9.27. Alfredo Cazes Alvares를 주한 우루과이대사로 임명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을 요청함.
2. 한국 정부는 1988.11.16. Cazes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함.
3. Cazes 대사는 1989.2.9. 노태우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영사 위임장 발급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9-5/6/1-114

외무부는 1989년 중 아래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에 대한 영사위임장을 발급함.

- 조성래 주페루대사관 부영사
- 유재현 주홍콩총영사관 영사
- 주철완 주라스팔마스총영사관 부영사
- 조명행 주앵커리지총영사관 총영사
- 김문경 주젯다총영사관 총영사
- 윤해중 주홍콩총영사관 영사 등

주한 카메룬 명예영사 접수(계획)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9-5 / 7 / 1-22

1987~89년 중 주한 카메룬 명예영사 임명 문제가 양국간 협의됨.

1. 외무부는 1987.7.6. 주카메룬대사관에 한·카메룬 간의 민간 협력 및 대카메룬 인력진출 증가에 따라 카메룬 측의 서울 명예영사 임명 의향 문의를 지시함.
 - 카메룬 입국비자 획득이 용이하지 않아 민간기업 진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
2. 1987.7.29. 주카메룬대사는 Etienne Ntsama 주한 카메룬대사(동경 상주) 내정자와 명예영사 임명에 대해 협의함.
 - Ntsama 대사는 명예영사 임명 제의에 동감하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언급
3. 1989.5.21. Ntsama 주한 카메룬대사(동경 상주)는 방한 중 외무부장관 면담 시 카메룬에서 건설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우그룹 인사를 서울 주재 명예총영사로 추천함.

명예영사 접수 - 구주지역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서구1과/서구2과

MF번호 2019-5 / 8 / 1-30

1. 주한 벨기에대사관은 1988.8.5. 공한을 통해 부산 주재 벨기에 명예영사로 최만식 대한스위스 화학주식회사 사장을 임명함을 통보하고 한국 정부의 승인을 요청함.
 - 외무부는 최만식 명예영사 후보자에 대해 내부결재를 마치고, 10.5. 승인에 관한 공한을 주한 벨기에대사관에 통보
2. 주한 터키대사관은 1988.11.27. 공한으로 부산지역 명예총사관 개설 및 구자학 럭키·금성그룹 부회장의 명예총영사 임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승인을 요청함.
 - 외무부는 1988.1.12. 내부결재를 마치고, 동일자로 승인 확인 공한을 주한 터키대사관에 통보

각국의 외국인 및 외교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리지침

생산연도 1986-1989

생산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9-5/9/1-153

1. 한국 언론이 1986.12월 주한 외교단의 교통위반 사례들을 보도함.
 - 관계당국은 주한 외교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적절한 주의와 지도, 과도한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대응해 옴.
2. 외무부는 1989.1월 주한 외교관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외교관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기로 함.
 - 이를 위하여 전 재외공관을 통해 주재국의 처리지침 및 관행을 조사
3. 외무부는 1989.5.15. 주요국의 외교관의 교통법규 위반차량 처리 사례 및 위반통고문 견본을 내부부에 송부함.
 - 대부분의 국가는 외국인의 교통법규 위반을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관례
 - 외교관의 교통위반도 원칙적으로는 일반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추세이나, 외교관의 특수한 지위와 신분을 향유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과 구별하여 적절한 예우를 하고 있음.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관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9-5 / 10 / 1-68



1. 1989년 현재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외교차량 면세구입 허가범위는 아래와 같음.

- 공용차량
 - 공관 인원수 및 활동을 고려한 적정 수
- 개인차량
 - 공관장: 2대 범위 내 수입 또는 국산차 구입
 - 직원: 1대 범위
 - 행정직원: 부임 6개월 내 1대 범위
- 매도 가능 년한
 - 공용 및 사용 공히 구입 후 3년
 - 단, 부임 1년 이내 구입차량은 경과기간 불문 이임 시 매도 가능

2. 1989년 중 재외공관이 각국의 외교관 차량 면세제도에 관해 보고함.

-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오스트리아 등

Lilley, James 주한 미국대사 활동 동향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5 / 11 / 1-176

1987~89년 중 James Lilley 주한 미국대사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임.

1. 1987년

- Lilley 대사 부부는 8월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초청으로 진해 해군기지에서 하계휴가를 보내며, 인근 조선소 등을 방문함.

2. 1988년

- Lilley 대사는 3.15. 외무부장관을 면담함.
 - 한·미국 협력관계, 국내정국, 한·미국 통상현안 등에 관해 협의
- Lilley 대사는 5.31. 민주정의당 박준병 총재를 면담함.
 - 한·미국 안보문제, 한·미국 통상문제 등에 관해 협의
- 미국에 일시 귀국한 Lilley 대사는 9.15. NBC-TV Today에 출연하여 한국 내 반미 감정은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역대 한국정권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고 언급함.
- Lilley 대사는 12.12. 이임 인사차 대통령을 예방함.
 - 남북한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

3. 1989년

- Lilley 대사는 1.3. 김포공항에서 이한성명을 발표함.
 - 주한 미군기지 이전, 한국 내 반미감정, 양국 경제통상관계 등에 관해 언급

한국 주재 외국 외교관 등의 신분증 발급 규정 개선

생산연도 1985-1989

생산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9-5 / 12 / 1-153

한국 주재 외교관에 대한 신분증 발급과 관련된 내용임.

1. 타국의 신분증 발급제도 조사

- 외무부는 주한 공관원 신분증 발급제도 개선을 위해 타국의 사례를 조사하도록 1989.3.22. 주요공관에 지시함.
- 재외공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주요국의 외교관 신분증 발급제도는 아래와 같음.
 - 프랑스: 외교관, 준외교관, 영사단을 특별신분증으로 구분
 - 아르헨티나: 신분증의 형태는 동일하며 Diplomatic, Consular, Administrative, Special, International Organization으로 구분
 - 영국: 외교단, 영사단, 국제기구로 구분(외교공관장은 푸른색 등 색깔로 차별화)

2. 신분증 발급규정 개선

- 현행 제도
 - 외교관, (명예)영사, 특별신분증(A, 국제기구, C) 등 5종 발급
- 개선 필요성
 - 주한공관 및 공관원 수의 증가로 인한 업무량 증대
 - 신분증 발급 및 관련기록의 전산화 필요
 - 신분증, 신청서 양식의 개선 필요
 - 관계규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포괄적 업무지침 제정 필요
- 업무진행 경위
 - 1989.3.22. 미국, 영국, 일본 등 9개국 주재 공관에 관련제도 보고 지시
 - 1989.5.6. 주요국 제도 검토 및 분야별 각국 사례 비교자료 작성
 - 1989.9.16. 신지침 결재
- 개선 내용
 - 신분증 전산발급 및 발급기록의 전산 유지
 - 신분증 양식의 고급화
 - 포괄적인 업무지침 제정
- 신분증 발급 개시
 - 1989.11.1.부터 새로운 신분증 발급

주한 중남미국가 대사관의 비자수수료 과다징수에 대한 대응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남미과

MF번호 2019-5 / 13 / 1-48

주한 중남미국가 대사관의 비자수수료 과다징수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비자수수료 과다징수 문제 제기

- 국내 관계기관은 1989.4.1. 일부 주한 중남미국가 대사관의 한국인에 대한 비자수수료 과다징수 문제를 외무부에 통보
- 외무부는 1989.4.10. 한국인의 해외진출 등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국의 비자수수료 징수규정을 파악하도록 재외공관에 지시

2. 비자수수료 과다징수 대응방안 검토

- 과다징수 원인(추정)
 - 한국인의 중남미 이민희망 악용
 - 대사관 운영경비 현지 조달가능
- 대응방안
 -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종용하는 방안 검토

주한공관 부동산 관계

생산연도 1983-1989

생 산 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9-5 / 14 / 1-130

주한 외국공관의 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된 내용임.

1. 뉴질랜드

-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은 관저용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내무부장관에게 매입허가를 신청하였음을 1987.1.14. 외무부에 통보
- 외무부는 외국공관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및 등기세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면제하는 방침에 따라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의 면제여부를 파악

2. 벨기에

- 주한 벨기에대사관은 신당동 소재 건축물을 공관 및 관저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 건축물 주변의 녹지대 이용 가능성을 1989.5.1. 서울시에 문의
- 서울시는 녹지대는 공공 공원에 속하는 국유지로 모든 시민의 이용에 개방되며 단독 점유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

3. 오스트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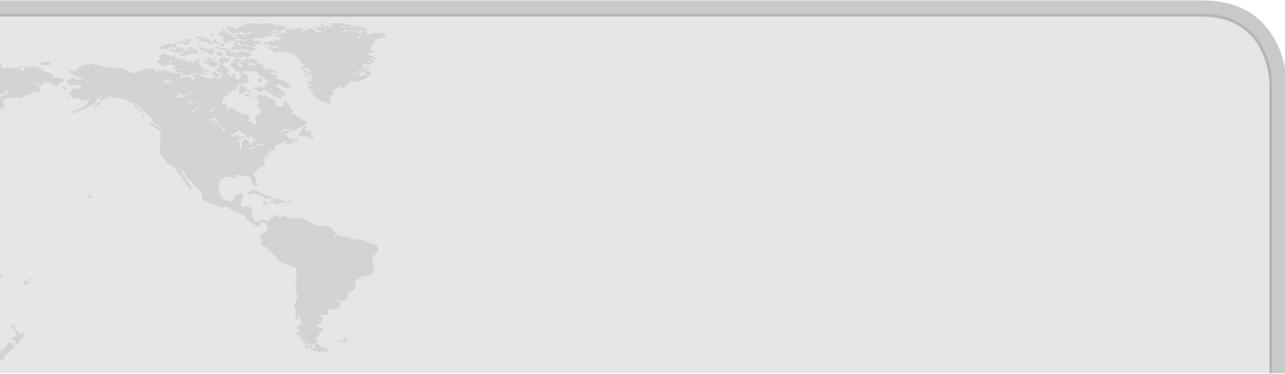
- 주한 오스트리아대사관은 성북동 소재 대사관저 정원조성 등을 위해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동 토지소유자가 외국기관 등 법인체에 매각 시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우려, 매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사 개인명의로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1988.5.26. 외무부에 요청
- 외무부는 외국공관 및 공관원용 토지는 국내법상 공관명의 또는 국가명의로만 취득하도록 제한되어 있다고 6.10. 주한 오스트리아대사관에 통보

4. 인도

- 주한 인도대사관은 대사관저 매입을 1983.11.2.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협조를 요청
- 외무부는 주한 인도대사관이 관저매입의 조속한 허가를 요청하여 왔다고 1984.2.9. 내무부에 통보

5. 캐나다

- 주캐나다대사관은 공사관저 재산세 납부문제 관련 한국 내 캐나다 정부 소유 부동산 유무 및 과세 여부를 1986.3.26. 외무부에 문의
- 외무부는 캐나다 정부의 국내토지 취득사실이 없음을 회신



6. 호주

- 외무부는 주한 호주대사관의 직원 사택용 토지소유권 취득허가 신청과 관련, 상호주의 적용에 이의가 없음을 1987.7.22. 내무부에 회신

주한 미국영사관(부산) 내 불법 건축공사 문제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9-5 / 15 / 1-22

주부산 미국영사관의 불법 건축공사와 관련된 내용임.

1. 경위

- 1988.4월 주부산 미국영사관 영사는 부산 중구청을 방문, 테러 및 보안상의 위험에 대비한 추가시설물 공사 허가를 요청
- 1988.8월 주부산 미국영사관이 부산 중구청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시공
- 1988.11.17. 부산 중구청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 협조를 외무부에 요청
- 1988.11.18. 부산시청이 불법건축공사에 대해 외무부에 건의

2. 건축법 저촉 내용

- 건축물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나, 시공 중인 건축물은 20.32cm 이격거리 유지

3. 통보 조치

- 외무부는 1988.11.23. 국내 건축 관련법규 준수 의무 등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구상서로 통보
- 외무부 특전담당관은 11.28. 주한 미국대사관 행정참사관을 초치, 통보
- 부산 중구청은 주부산 미국영사관에 건축법 준수와 시정을 요청하였음을 1989.2.23. 외무부에 보고함.

대미국 외교강화 방안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5 / 17 / 1-93

미국과의 외교관계 강화 방안 관련 내용임.

1. 북방정책관련 미국 언론 보도(1988.11월)

- Washington Post 보도: "Seoul's Northern Strategy"
 - 한·미국 간의 현안으로 무역마찰과 주한미군 주둔문제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북방정책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시베리아개발 참여 등 대공산권 접근정책은 미의회 내 보수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음.
 -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정치발전, 경제성장 등 여건 속에서 북방정책이 중요하게 등장함.
- Chicago Tribune 사설: "South Korea and Democracy's Price"
 - 최근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은 치러야 할 일들을 하고 있음.
 - 전임 대통령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임.
 - 군사통치의 잔재 처리 및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봄.
- Washington Post 칼럼: "Seoul's Northern Strategy"
 - 한국의 북방정책이 장기적으로는 한·미국 간의 가장 중요한 마찰요인이 될 수 있음.

2. 한·미국 안보관계에 대한 발표

- Karl Jackson 국방부 동아태부차관보는 1988.12.13. 국방연구원과 미 국방대학원이 공동 주최한 학술 회의에서 아래 요지로 발표함.
 - 한국의 민주화 및 경제성장에 따라 한국인들은 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미군기지 이전 등을 요구
 - 양국은 이를 적시에 해결하고 긴장완화, 남북대화 등 주요 문제에 관심을 경주할 필요
 - 미국은 방위분담에서 상호성 및 호혜성을 중시하며 양측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

한국 외교정책 중장기 구상연구(1989-90년판)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기획조사과

MF번호 2019-5 / 18 / 1-230

한국 외교정책 중장기 구상 연구 관련 내용임.

1. 1989년판 '한국 외교정책 중장기 구상 연구'

- 경위
 - 1982년부터 매년 12월 연구서 발간, 신년도 외무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에게 보고
- 일정
 - 1988.9월 외무부 본부 의견 취합
 - 1988.11월 공식 토론회 개최, 담당교수 집필
 - 1988.12월 최종 연구서 작성 및 발간
- 연구서 주요 내용
 - 한국외교의 기본목표: 안보와 평화, 평화통일 기반조성, 경제적 번영, 북방외교, 체육문화 교류증진, 국외이주와 교민보호
 - 정책방향: 한·미국 안보체제, 한·일본 관계, 경제협력과 통상, 북방경제진출 등

2. 1990년판 '중장기 외교정책 방향 연구'

- 일정
 - 1989.9월 작성계획안 확정
 - 1989.9~11월 토론회 개최 및 원고 작성
 - 1989.12월 토론회 완료, 본부 의견 수렴, 원고제출 및 조정작업
 - 1990.1월 인쇄 및 발간
- 연구서 주요 내용
 - 한국외교의 기본목표
 - 한국의 국제적 위상
 - 정책방향: 안보외교, 통일외교, 경제외교, 문화외교 등

한국의 대폴리사리오 정책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9-5 / 19 / 1-14

폴리사리오 책임자 방한 문제와 관련된 내용임.

1. 주인도대사는 1989.9.19. 뉴델리 주재 사하라 아랍 민주공화국(폴리사리오)의 Aliyen Kentaoui 대사의 예방을 받고 서부사하라 문제의 최근 현황 등에 관한 설명을 청취함.
 - Kentaoui 대사는 서부사하라 문제가 모로코의 침략에서 연유하고 있으며 세계의 대다수 국가는 Sahrawi의 입장을 이해하고 모로코의 점령을 인정하지 않음을 언급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민간차원의 원조를 희망함.
2. 외무부는 모로코와 폴리사리오 간의 협상과 주민투표를 통한 사태진전이 있기 전에는 한국의 기본 입장을 견지하며 현 단계에서 난민에 대한 민간차원의 원조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주인도대사에게 통보함.
3. Kentaoui 대사는 1989.10.23. 주인도대사를 면담, 폴리사리오 아·태지역 책임자인 M. Omar가 아주지역을 순방 중이며 한국 정부 인사를 면담하여 서부사하라 현황을 설명하고 서부사하라 연안어업 등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위한 협력을 요청함.
4. 외무부는 알제리 등 후원국의 지원축소 또는 중단으로 폴리사리오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내부소요와 이탈자 증가 상황에서 정치군사적 실체로서의 존재가 위협받고 있으므로 동 책임자의 방한 문제를 현지에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주인도대사에게 지시함.

한국의 대캄보디아 정책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동남아과

MF번호 2019-5 / 20 / 1-115

캄보디아 인민공화국과 대립하고 있는 민주캄보디아 연립정부의 손산 수상의 방한 요청을 계기로 한국의 대캄보디아 정책을 재정립함.

1. 1989.9.7. 손산 수상은 1990년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군을 계기로 신정부 구성에 따른 파벌 간 주도권 싸움에서 필요한 지지 및 지원 확보를 위해 금년 중 방한을 요청해 옴.
2. 1989.3.10. 아태지역 공관장회의에서 '캄보디아 문제해결 전망 및 대라오스·캄보디아 정책 방향'을 협의함.
 - 베트남군 철군과 외국의 캄보디아 각 파벌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문제해결 가능성 증대를 진단함.
 - 파벌 간 대립은 전망을 어둡게 하는 바, 관련국들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3. 외무부는 최근 캄보디아 사태의 해결 추이 및 향후 정권 향방에 대한 전망 등을 고려하여 대캄보디아 정책을 재수립하고 1989.7.13. 장관보고 후 7.24. 관련 공관에 통보함.
 - 캄보디아 문제해결에 관한 기본 입장은 그대로 유지
 - 민주캄보디아 연립정부 지원문제 관련, 베트남군 철수 이후 신정부 수립 시까지 특정 정파에 지원하지 않음.
 - 손산 측에 상기 입장을 통보하고, 계속 방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자격 방한으로 처리

한국의 대베트남 정책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6 / 3 / 1-140

1. 외무부는 1989.2월 아래 요지의 대베트남 정책 수정 검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함.

- 민간차원의 교류는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정치적 관계는 캄보디아 문제와 관련된 미국과 아세안의 입장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최종 외교관계는 베트남군 완전 철수 및 여건 성숙시 단계별 추진안을 마련함.
- 제1단계(즉시): 민간 교류, 민간경제 교류, 정부관리 접촉허용
- 제2단계(미국에 사전통보 후): 통상대표부 같은 정치관계 수립, 합작투자, 투자보호협정 등
- 제3단계(베트남군 철군 완료 등 여건 성숙): 외교관계 수립, 본격적인 경제협력

2. 외무부는 대베트남 정책 추진을 위하여 1989.4.14.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관계부처 간 대베트남 기본정책 방향(외무부 안)에 대한 의견 일치
- 베트남군 캄보디아 철수 이전 단계적 추진 방안 마련
 - 민간차원의 인적교류 개방
 - 민간경제활동 개방
 - 정부관리 접촉의 선별적 허용
 - 베트남과의 공식접촉 유지 및 정치관계 수립을 위한 교섭개시

중남미국가의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가입 동향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태평양특별반

MF번호 2019-6 / 4 / 1-50

1987~89년 중 칠레, 페루, 멕시코 중남미 3국의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가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 요청 동향임.

1. 칠레

- 1987.7.15. Marambio 주한 칠레대사관 서기관과 이량 외무부 태특반 간사와의 면담 시 칠레 측이 PECC 가입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한데 대해, 외무부는 PECC 총회 대비 정부의 입장 정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한바, 태평양협력위원회 회신내용은 아래와 같음.
 - 회원국내 분위기가 PECC 확대보다는 내실화 추세임을 감안
 - 가입문제는 전 회원국의 동의를 필요한 만큼 중남미 국가들의 요청을 호의적으로 검토하되 9월 PECC 상임위에서 검토될 때까지 입장 결정 보류 필요
- 1989.3.24. 리베라 주한 칠레대사는 신동원 외무부차관 면담시 4월 PECC 상임위원회에서 한국이 취할 입장을 문의한데 대해, 동 차관은 칠레 측 입장을 감안하여 여타 회원국들과 협조 지원 하겠다고 언급함.

2. 페루 및 멕시코

- 주한 페루대사관은 1989.1.11.자 외교공한을 통해 제7차 PECC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페루의 정식회원 가입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해 옴.
- Galan 주한 멕시코대사의 1988.2.3. 외무부차관 예방시 PECC 가입 지원 요청에 대해, 외무부 차관은 멕시코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멕시코가 가입하게 되면 동 기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함.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6 / 5 / 1-134

- 1989.8.21. 주일본대사관 서기관은 주재국 소련대사관 직원과 접촉하여 한·소련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바, 동인의 언급요지는 아래와 같음.
 - 소련은 극동 및 태평양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한국과의 경제협력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호이익을 기대하고 있음.
 - 한반도 문제 협의를 위한 주변국가들 간 협의기구 창설이 필요하다고 봄.
- 1989.9.14. 서현섭 주일본대사관 참사관은 Lizun 주일본 소련대사관 참사관을 면담하고, 소련 정부 기관지인 이즈베스티야가 1989.9.1. 한·소련 간 국교수립을 지지하는 논문을 게재한데 대해 소련 측의 입장을 문의한바, Lizun 참사관은 동 기사는 전적으로 개인의 의견임을 강조하면서 페레스트로이카 추진 이래 언론이 활성화되어 개인의 견해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언급함.
- 1989.10.12. 주캐나다대사관은 Canadian Center for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주관 세미나에 참석한 소련 외무부 인사들의 한반도 정세 관련 언급요지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Trifonov 중국 담당 부과장
 - 한반도 정세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은 핵심문제인 군사, 정치문제를 다루고자 대화를 제의하고 있으나 한국 측이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 남북한 간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한바, 한국의 남북한 불가침 선언이나 미국의 CMB(신뢰구축조치) 제의는 긍정적임.
 - 미국·소련 간 한반도의 긴장완화 추구라는 공통인식은 있으나, 이를 실현하는 접근방법에는 차이가 있음.
 - Panov 태평양·동남아 부국장
 - 소련은 한국과의 직접적인 경제적 고리를 수립하고 학술,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나, 미국의 대북한 관계는 부진한바, 미국·일본의 북한에 대한 태도를 주시할 것임.
 -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한을 포함하여 이해 관계국들이 참가하는 다자협의로도 고려 가능

대통령 특별선언(1988.7.7.) 관련 EC(구주공동체) 회원국의 대한반도 정책검토 및 대응방안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19-6/6/1-164

1. 외무부는 1988.7.21. '대통령 특별선언 관련 대서구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EC(구주공동체) 주재 공관에 전달함.

- 주재국의 대북한 관계는 한국과 바르샤바조약 회원국 간의 관계진전에 균형을 맞춤.
 - 바르샤바조약 회원국과의 관계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균형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 교류는 자체 요망
- 주재국의 대북한 관계 진전 문제는 한국과 사전에 협의를 희망함.

2. EC 회원국은 EPC(구주정치협력회의)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한반도 정책에 대해 협의함.

- EPC 정무국장 회의(1988.10.10., 아테네)
 - 최근 한국 정부의 대북한 및 대동구권 관계 발전이 동·서 화해에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
 - 남북한 교차승인, 유엔 동시가입은 당분간 실현성이 없다고 보고 EC 국가의 대북한 관계를 11월 회의 시 중점 토의하기로 합의
- EPC 아주국장 회의(1988.11.4., 브뤼셀)
 -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한국의 제안을 환영하고 노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유연성과 상상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평가하는 EC 12개국 명의 성명서 작성
- EPC 정무국장 회의(1988.11.9., 아테네)
 - EPC 아주국장 회의 시 작성한 성명서 채택 및 발표
- EPC 정무국장 회의(1989.4.5., 마드리드)
 - 경제, 문화, 관광 등 비정치 분야의 교류 등을 통한 점진적인 대북한 관계개선이 바람직
 - 대북한 관계 정상화는 한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관계개선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

3. 영국은 1988.11.10. 영국 외교관과 북한 외교관과의 접촉 금지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11.29. 주베이징 영국대사관을 경유하여 Ning 중국 외교부 아시아부국장에게 전달함.

중국의 대외정책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6 / 7 / 1-122

중국 대외정책 관련한 재외공관의 보고 및 정보 입수 내용임.

1. 중국은 고위직 방문외교를 추진하고 경험 등을 협의함.

- 등소평 국가주석 멕시코 공식 방문(1989.5.30.~6.3.)
- 전기침 외교부장 에과도르, 쿠바, 미국 방문(1989.6.2.~16.)
- 전기침 외교부장 남아프리카 6개국(보츠와나, 레소토, 짐바브웨, 앙골라, 잠비아, 모잠비크) 방문(1989.7.26.~8.12.)
- 이붕 총리 남아시아(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방문(1989.11.17.~19.)
- 양상곤 주석 중동(이집트, UAE, 쿠웨이트, 오만) 방문(1989.12.18.~28.)

2. 1989.10.10. 주노르웨이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1989.10.7. Holvik 주중국 노르웨이대사를 초치하여 노벨평화상위원회가 달라이 라마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한 것은 내정간섭이며, 중국의 분열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고 항의하였음을 보고함.

3.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1989.10.28.~11.2. 중국을 방문하여, 등소평 등 중국 지도부를 면담하고 천안문 사태로 경색된 양국관계 개선을 모색함.

- 중국 측은 양국간 관계 정상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내정간섭을 비난하고, 타협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소극적 자세를 견지함.

4. 1989.12.9.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국교정상화 고위관리회담(1989.12.5~9.) 결과에 대한 합의 각서에 서명하고, 아래 요지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함.

- 외교관계 재개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협의를 위한 고위관리회담을 개최한바, 양측은 동 회담 결과에 만족함.
- 금번 회담 의제는 외교시설, 인도네시아 내 화교 시민권 및 이중국적, 양국간 협정 검토, 미결된 부채 등이며, 부채 문제는 양국 전문가들이 추후 협의하기로 합의함.

외무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및 세미나

생산연도 1989

생산과 기획조사과/정특반

MF번호 2019-6/8/1-260

1989년도 '외무부 정책자문위원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개최 현황임.

1. 제1차 정기총회(1989.2.11.)

- 참석자: 최호중 외무부장관 및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위원장 홍승직 교수)
- 주제: 1989년도 외교정책
- 토론 요지
 - 한·미국 간 긴밀한 유대가 한국의 대중국·소련·북한 외교에도 도움이 되며, 미국의 대북한 접근은 한국과의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함.
 - 북방 외교는 확고한 한·미국 관계의 틀 속에서 외무부를 창구로 일원화하여 추진함이 필요
 - 경제 외교 강화를 통해 북방외교 추진에 동력 확보가 가능함.

2. 정책자문위원회 초청세미나(1989.6.3.~4., 충남)

- 참석자: 최호중 외무부장관 및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주제: 북방 외교와 한·미국 관계
- 토론 요지
 - 정부가 추진 중인 북방 외교는 비록 혼란이 있기는 하나, 시대에 부응한 유익한 정책이며, 종합적인 대응체제의 구축과 대내적인 정비선행을 토대로 탄력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함.
 - 한·미국 관계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 및 주변정세 변화로 새로운 단계로 돌입하여야 하는 중대한 시기임. 한·미국 관계를 강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대미국 관계를 종합적인 차원에서 고정해 주는 정책협의기구가 필요함.

3. 정책자문위원회 초청세미나(1989.9.9.~10., 이천)

- 참석자: 최호중 외무부장관 및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주제: 1989년 한국외교의 현안
- 토론 요지
 - 한·미국 관계는 다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동맹관계라고 평가함.
 - 통합을 앞둔 EC(구주공동체)에 대한 경제·통상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 및 접근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대통령의 미국 및 구주 순방을 대한국 인식제고 기회로 활용 필요

한·UAE(아랍에미리트)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19-6/9/1-167

1987~89년 중 한국·UAE(아랍에미리트) 간의 주요 관계 및 UAE 정세 동향임.

1.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은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동 올림픽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시행 중임을 1988.4월 외무부에 보고함.
 - KAL기 폭파 사건 등 감안하여 북한 측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 주재국 외무부와 협조체제를 구축
 - 주재국의 우방국 공관(미국 및 일본대사관)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체제 강화
 - 주재국의 올림픽위원회 및 서울올림픽 참가 선수단 지원
 - 올림픽 홍보 등 제반지원 강구

2. 1989.1.5.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은 UAE 정부가 동일자로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승격하고 동 대표를 대사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주아랍에미리트대사는 1.5. 개최된 PLO대사관 건물 착공식에 참석함.

한·바베이도스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9-6 / 10 / 1-11

한국·바베이도스 간의 1985~89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민수홍 주바베이도스대사는 1985.8.7. Nigel Barrow 신임 외무장관을 예방하고 유엔 및 비동맹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평화적인 한반도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주재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 하였으며, Barrow 외무장관은 평화적인 해결방안 지지는 바베이도스의 일관된 정책인 만큼 가능한한 협조할 것임을 시사함.
- 136 2. 주바베이도스대사는 1986.6.9. Cameron Tudor 신임 외무장관을 예방하고 이원경 외무부장관 명의 축전을 전달한바, 동 외무장관은 사의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언급함.
 - 과거 한국 정부가 공여한 기술협력사업 등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양국 협력관계가 증대되기를 희망함.
 - 주가이나나 주재 북한대사가 주재국 검임대사로서 각종 교섭을 전개하여 올 것이며, 특히 상주공관 설치교섭이 예상됨.

한·미얀마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서남아과

MF번호 2019-6 / 11 / 1-136

1. 1989.6월 외무부는 미얀마 군사정부의 총선 일정(90.5월) 발표 및 개방 정책 실시 등 정세 변화에 따라 대미얀마 정책을 아래와 같이 검토함.

- 각국의 대미얀마 정책
 - 1989.2월 미얀마 정부가 총선 일정을 발표한 이래 태국, 일본, 중국, 파키스탄 등은 경험 재개, 인사교류 실시
 - 미국, EC(구주공동체), 인도 등은 90.5월 총선 관망자세, 다만 프랑스는 현 군사 정부와 대화재개 움직임.
- 현재까지의 한국의 대미얀마 정책
 - 대미얀마 정부간 고위인사 교류 및 경험 등 자제
 - 민간기업 진출은 허용하되 방산품 수출은 금지
- 향후 한국의 대미얀마 정책
 - 대미얀마 정책을 1990.5월 총선을 전후하여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1990.5월 이전까지는 비정치적분야의 제한된 범위 내 정부 간 협력 실시, 1990.5월 민간정부 수립시에 정부간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협정체결 등)

2. 미얀마 정부는 1989.6.18.자로 국명 및 수도명칭을 변경함.

- 국명: Union of Burma(버마 연방)에서 Union of Myanmar(미얀마 연방)
- 수도: Rangoon(랑군)에서 Yangon(양곤)

한·벨리즈 관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9-6 / 12 / 1-13



한·벨리즈 간의 1989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탁나현 주멕시코대사는 1989.11.26.~28. 겸임국인 벨리즈를 방문하고 벨리즈 총독, 수상 등과 면담한바,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Gordon 총독, Price 수상은 각각 기존 한·벨리즈 우호협력 관계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한국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약속함.
- 또한, 양국 경험분야 논의를 위하여 90.3~4월 중 Musa 외상 또는 Fonesca 재무담당 국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경험사절단 방한을 희망함.

138

2. 12.20. 주멕시코대사관은 상기 벨리즈 출장 관련 상세보고서를 외무부에 송부하면서 경험사절단 방한에 대한 입장 회신을 요청한데 대해, 외무부는 여타 계획된 일정상 방한 초청이 어려우므로 추후 검토 예정임을 12.26. 통보함.

한·캐나다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6 / 14 / 1-89

한·캐나다 간의 1989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캐나다대사는 4.4. Perron 캐나다 외무부 북아·태국장을 면담하고, 노태우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이 내년 중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한바, 동 국장은 금년 중 노대통령의 방문을 기대하였으나 내년 중 방문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2. 주캐나다대사는 6.27. McClokey 캐나다 외무부 아·태차관보를 면담하고, 양국간 관계 강화를 위해 상호 노력해 갈 것을 밝히고, 파리 G-7 경제정상회담 관련 ANICs(아시아신흥공업국) 입장에 대하여 설명함.
3. 조창범 주캐나다대사관 참사관은 1989.10.6. Balloch 캐나다 외무부 북아과장과 면담하고 동인의 중국 방문 결과 등에 대해 의견교환함.
 - Balloch 북아과장은 중국 외무부 관계자들이 한국과의 비정부 차원에서는 접촉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나 너무 많은 것을 빠른 속도로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였음을 전달함.

중국 민항기의 한국 영공 진입사건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6 / 15 / 1-21

1. 1989.12.16. 중국 민항국제부장은 한국 교통부 항공국에 중국 민항기가 납치되어 김포를 향해 가고 있음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함.
2. 한국 국방부는 승객 및 항공기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없는 한 한국 내 공항착륙이 불가함을 통보한바, 동 항공기는 후쿠오카에 착륙함.

한·코모로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1
생 산 과	동부아프리카과
MF번호	2019-6 / 18 / 1-40

한·모로코 간의 1981년 중 관계 동향임.

1. 외무부가 동부아프리카지역 검토회의 참가를 검토함.

- 코모로는 역내 7개 최빈국에 대한 국별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동부아프리카지역 검토회의 (1981.5.4.~15., 아디스아바바)에 한국을 초청함.
- 동 검토회의는 1981.9.1.~14.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엔 최빈국회의를 위한 준비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됨.
 - 유엔 최빈국회의는 제35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개최되며,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회원국(163개국)이 참가함.

2. 외무부는 코모로에 대한 특사파견을 검토함.

- 주프랑스대사(코모로 겸임)는 1980.2월 및 4월 코모로와의 관계증진 및 경험증대 등을 위해 코모로에 대한 특사파견 필요성을 외무부에 보고함.
- 외무부는 당초 1981.11~12월 코모로 등 아프리카 8개국에 특사를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동 계획을 연기, 1982.4월 시행 검토 중임을 주프랑스대사관에 통보함.

한·덴마크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9-6 / 19 / 1-87



1. 박쌍용 외무부차관은 1987.9.17. Assing 주한 덴마크대사를 면담, Jensen 덴마크 외무장관이 유엔총회 에서 중국 외교부장 및 소련 외무장관 면담 시 한반도 관련 사항을 설명하도록 요청함.
 - 9.22. Jensen 장관은 EC(구주공동체) 12개국을 대표하여 한반도 문제에 관한 EC 의사를 중국 외교부장에게 전달함.
 - 동 장관은 남북한 간 직접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
 - 중국 외교부장은 남북한 양측의 노력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하고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답변
 - 소련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는 덴마크·소련 양국간 문제만 협의함.
2. 장선섭 주덴마크대사는 1989.5.12. 신임 인사차 Jensen 덴마크 외무장관을 예방함.
 - Jensen 장관은 한국이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치가 고양되었다고 치하하고 덴마크는 한반도 정세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음을 언급함.
3. Haarder 덴마크 문교장관이 1989.11.20.~23. 문교부의 초청으로 방한함.
 - 문교부장관 예방 및 만찬, 과기처차관 예방, 서울대학교 방문 등

한·EC(구주공동체)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9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19-6 / 20 / 1-42

한·EC(구주공동체) 간의 1989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외무부장관은 주한 EC지역 대사들의 초청으로 1989.4.26. 주한 스페인대사관에서 한국 주재 EC지역 대사들과 오찬을 가짐.
2. 주EC대사는 1989.9~10월 구주의회 의원들을 면담하여 한국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요청함.
 - 구주의회 본회의 기간 중인 1989.9.14.~15. 스트라스부르크 구주의회 의사당을 방문, 신임 구주의회 부의장 3인 및 구주의회·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장 등을 면담함.
 - 10.17. 구주의회 정치위원장을 면담함.
3. 외무부 제1차관보는 1989.9.27. 주한 EC지역 대사들에게 퀘일 미국 부통령의 방한 결과를 보고함.

한·피지 관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6 / 21 / 1-28



한·피지 간의 1989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피지 Kuruisaquila 보건장관과 Varea 보건차관은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참석 후 WHO 후원을 받아 아래 일정으로 방한함.

- 보건장관: 1989.5.16.~19.
- 보건차관: 1989.5.21.~24.

144

2. 피지 외무부가 피지군 장교 약간명의 한국군 훈련과정 초청 연수 가능 여부를 문의한데 대해 외무부는 1989.11월 아래와 같이 주피지대사관에 통보함.

- 1987년 군사쿠데타 이후 피지의 국내외 정치상황을 감안할 때 피지군 연수생 초청 훈련은 적절하지 않음으로 판단됨.
- 피지 측으로부터 동 건에 대해 재차 문의가 있을 경우, 모든 연수과정이 한국어로 진행되어 소기의 교육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요지로 대처함.

한·핀란드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9-6 / 22 / 1-79

한·핀란드 간의 1986~89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Puromies 신임 주한 핀란드대사는 1987.5.27. 김봉규 외무부 구주국장을 면담, 주요 현안에 관해 협의함.

- 북구투자은행의 한국 진출, 외무부장관의 북구지역 순방 일정, 시장개방정책에 대한 차별적용 가능성, 한국의 개헌논의 등 정치정세 전망, 김일성 중국 방문 결과 등에 관해 협의

2. Puromies 대사는 1987.10.2. 박쌍용 외무부차관, 11.20.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를 각각 면담, 양국간 현안문제를 협의함.

- 양국간 교역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 한국의 민주화 추진현황, 북한의 서울올림픽 공동개최 전망, 국군작전권 반환문제, 한반도 정세, 일본의 방위력 증강문제 등에 관해 협의

3. 한국과 핀란드 양국은 국제기구 진출문제 관련 아래와 같이 상대국의 지지를 요청함.

- 한국, ITU(국제통신연합) 이사국 피선 요청(1989.2.28. 주핀란드대사 보고)
- 핀란드, ITU 사무총장 입후보 지지 요청(3.23. 주유엔대사 보고)
- 한국, ILO(국제노동기구) 조기가입 지지 요청(4.7. 주핀란드대사 보고)
- 핀란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1989.9.19.~10.6., Montreal)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 요청(6.9. 주핀란드대사 보고)
- 한국,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의장 입후보 지지 요청(8.3. 주핀란드대사 보고)
- 한국, UPU(만국우편연합) 집행이사국 입후보 지지 요청(11.1. 주핀란드대사 보고)

4. 주핀란드대사는 1989.9.4. 제44차 유엔총회 대책으로 핀란드 외무장관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내용이 언급되도록 교섭했음을 보고함.

- 이순천 주핀란드대사관 서기관이 Ojanen 외무부 유엔국장보를 면담, 한국 지지요청 각서를 수교
 - Ojanen 국장보는 9.20. 한국 또는 남북한의 유엔가입 신청 시 이를 지지할 것이나, 금번 총회에서의 한국가입 지지 또는 최소한 보편성 원칙 지지발언 문제는 향후 반영되도록 검토할 것을 약속함.
- 동 국장보는 11.6. 아래와 같이 추가 언급
 - 핀란드는 한국의 단독 또는 남북한 동시가입에 아무런 반대의견이 없으며, 이를 지지함.
 - 문제는 일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한국의 가입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데 있음.
 - 한국이 유엔 회원국이 되지 못하는 상황은 비정상적임.

한·프랑스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9-6 / 23 / 1-90

한·프랑스 간의 1988~89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Fortelle 주한 프랑스대사는 1988.8.26. 김석규 외무부 제1차관보를 면담하고 프랑스산 연안 작전용 헬기구입에 관한 협조를 요청함.

- 한국 측은 동 무기구입이 정치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Fortelle 대사의 설명 내용과 프랑스 측 관심사항을 국방부에 전달하겠다고 언급함.

146

2. 외무부 구주국은 1988.10.22. 프랑스의 대한민국 정책 동향에 관해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함.

- 주요 동향
 - 1988.5월 총선 승리로 재출범한 미테랑 사회당 정부는 한국의 7·7 대통령 특별선언, 북방외교 추진,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 등 한반도 상황에 변화가 있음에 유의하여 프랑스의 대한민국 정책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대책
 - 프랑스의 대한민국 정책검토 단계에서 7·7 대통령 특별선언에 대한 북한의 호응도 또는 한국의 대소련 및 동구권 관계발전을 고려, 프랑스 등 한국 우방국의 대북한 관계진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함.
 - 프랑스 측이 북한승인 등 대북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기미가 농후할 경우에는 여타 주요 EC(구주공동체) 회원국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 기본적으로 양국간 기본 우호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한국의 강한 불만이 전달되도록 조치함(주한 프랑스대사 초치, 주프랑스대사 일시귀국 조치 등).

3. 주프랑스대사는 1989.12.14. Hennequinne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특보의 언급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 노태우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평가
 - 프랑스 정부는 노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이는 양자관계뿐 아니라 북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국의 국제사회 참여확대를 위해서도 좋은 계기였다고 평가함.
- 프랑스·소련 정상회담 시 한국 측 요청사항(북한의 개방유도) 전달문제
 - 1989.12.6. 프랑스·소련 정상회담 시 아주(亞洲) 문제를 거론하지 못했으나, 최근 주프랑스 소련대사관의 노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결과 문의 시에 프랑스 외무성은 한국 측 요청사항을 소련 측에 전달함.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답방
 - 현재 계획으로는 미테랑 대통령의 방한을 1991년 중으로 예상함.
- 최근의 북한 동향
 - 북한은 대프랑스 접촉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 측은 북한이 대체로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한·독일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9-7 / 1 / 1-26

한·독일 간의 1989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Zeller 독일(구 서독)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9.4.27.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와 구주국장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간 주요현안을 협의함.

- 양국관계 평가
 - 양국관계는 건전하고 건설하며, 특히 경제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보이는 등 실질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데 의견일치
 - 독일 측은 최근 한국의 정치발전에 대해 긍정적 평가
- 북방정책 및 남북관계
 - 한국 측은 북방정책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중국 및 소련과의 무역사무소 설치동향, 대동구권 관계개선 전망 등을 설명
 - 7·7 대통령 특별선언 등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 유도하고자 노력 중임을 언급
- 양국간 주요 외교일정
 - 노태우 대통령(1989년 가을) 및 최호중 외무부장관(1989.7월)의 독일 방문 문제 협의
- 기타 양국 관심사항 협의
 - 정책협의회(1989년 중 독일 본 개최), 한국 측의 중국·소련 및 동구권 관계개선 노력, 한·EC (구주공동체) 정무협의체 구성, Stercken 독일 하원 외무위원장 방북 문제 등 협의

2. Kleiner 주한 독일대사는 1989.6.26. 민형기 외무부 구주국장을 면담, 양국간 주요현안에 관해 협의함.

- 노태우 대통령 독일 방문
 - 독일 측은 금번 노 대통령의 독일 방문 시 BDI(독일산업연합) 행사 참석 및 연설을 희망
 - 최호중 장관의 사전 방문일정 등 협의
- 한·동구권 관계 및 동구권 정세
 - 독일 측은 소련의 동구권 통제력, 루마니아 정세 등에 관해 설명
 - 한국 측은 동독, 폴란드 등 동구권과의 관계개선 전망 등에 관해 설명
- 한·EC 관계
 - 한국 측은 최 장관의 벨기에 방문 시 예정된 일정 등에 관해 언급

한·헝가리 관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7 / 2 / 1-281

1989년 한·헝가리 간 국교 수립 이후 양국간 주요 관계 동향임.

1. 외교관계 수립

- 1988.12.7. 상주대표부 개설
- 1989.2.1.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 합의에 따라 동 상주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승격
- 이후 문화협정 등 8개 협정 체결

2. 주요 인사 상호교류

- 헝가리 농업식품부 장관, 헝가리 우수기업체 방한단 인솔 방한(1989.3.1.~5.)
- 김재순 국회의장, M. Szuros 헝가리 국회의장 선출 축전 발송(3.17.)
- 최호중 외무부장관, G. Horn 헝가리 외무장관 취임축전 발송(5.11)
- 과학기술처장관,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사업 구체화 목적차 헝가리 방문(6.13.~15.)
- Tatai 헝가리 사회주의노동당 정치국원 방한(6.13.~17.)
- Ratkai 헝가리 문화교육부차관 방한(9.20.~25.)
- 노태우 민정당 총재, R. Nyers 헝가리 사회당 총재 앞 축전 발송(10.11.)
- 김상협 대한적십자사 총재, 헝가리 방문(10.15.~18.)
- 외무부 제2차관보, C. Csaki 헝가리 칼 마르크스경제대학 총장 면담(10.16.)
- Pusztai 헝가리 특허청장, 양국 특허청장회의 참가차 방한(11.4.~8.)
- Gabor 헝가리 상공회의소장, 헝가리 주간행사 참가사절단장 자격으로 방한(11.5.~7.)
- Gagyor 한·헝가리 의원친선협회장 방한(12.4.~8.)
- Berend 헝가리 과학원장 방한(12.13.~15.), 한국과학재단과의 협력각서 서명

3. 주요 행사 개최

- 제2차 한·헝가리 원탁학술회의 개최(1989.3.5.~12., 서울)
- 타마스 야안 세계역도연맹 사무총장(전 헝가리 체육성차관)에 대한 체육훈장 맹호장 전수식 (7.31., 서울)
- 올림픽 사진전 및 영사회 개최(11.7.~14., 부다페스트)

한·인도네시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3-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7 / 3 / 1-33



한·인도네시아 간의 1983~89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우병국 국회 사무총장의 인도네시아 방문 추진

- 주인도네시아대사 보고(1983.11.11.)
 - 한·인도네시아 우호친선협회의 활성화 방안으로 각종행사 추진 합의
- 한국 국회사무처 의견회신(11.24.)
 - IPU(국제의원연맹) 총회(1984.4월, 제네바) 또는 APPU(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 이사회(1984.7월, 사이판) 참석 전후 방문 검토

150

2. 1985.3.17.~19.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세미나에 여한중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서기관이 참석함.

- 개최 목적
 - 한국 등 신흥공업국에 대한 비석유류 원자재 수출증대, 기술전수 등 효율적 방안 검토
- 주요 내용
 - 양국간 협력현황, 한국의 경제개발전략, 양국간 구체적 협력분야 검토 등
- 주인도네시아대사 건의사항
 - 자원보유국은 자원의 제한성과 중요성을 감안, 점차 원자재 수출을 줄이고 2차산품 및 공산품 수출증대를 도모
 - 이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원자재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당해 자원국에 대한 직접 또는 합작투자 형태의 자원개발선 확대가 필요
 - 인도네시아의 비석유류 수출증대에 필요한 기자재 수출, 기술자 진출 등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요망

3. 인도네시아의 아태지역 공관장회의가 1985.8.27.~29. 자카르타에서 개최됨.

- 아태지역 주재 각 공관장 보고
 - 주한 인도네시아대사는 한반도 통일문제 및 양국관계 전반에 관해 설명
- 지역정세 토의
 - 동티모르 문제, 아세안, 캄보디아 문제, 동남아 비핵지대 설치 등에 관해 토의
- 주변국과의 관계
 - 일본, 바누아투, 뉴칼레도니아 등과의 관계에 관해 협의
- 기타
 - 비석유류 수출, 투자, 관광진흥 방안 등 협의

한·이스라엘 관계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9-7 / 5 / 1-64

한·이스라엘 간의 1987~89년 중 관계 동향임.

1.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재개 문제

- 1971년 중동전쟁 이래 한국은 주이스라엘대사를 임명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도 1978.2월 주한 대사관 폐쇄 후 일본 주재 이스라엘대사가 한국을 겸임함.
- 주일본 이스라엘대사가 1980.5.9. 한국을 방문하여 이문용 외무부차관에게 상주공관 재설치 용의를 구두로 표명하고 5.16. 외교문서를 통해 상주대사 파견을 위한 아그레망 신청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중동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거부함.
- 주일본 이스라엘대사가 1989.2.17. 최호중 신임 외무부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상주공관 재개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 정부의 승인 필요여부를 문의함.
 - 정부는 이스라엘의 상주공관 설치가 기존 대중동 외교정책의 현상 변경에 해당하므로 불허하기로 하되, 이스라엘 측에 대해서는 검토 용의를 표명하기로 기본 입장을 수립함.

2. 한·이스라엘 교류문제

- 1988.3.23. 이스라엘 개최 세계요트선수권대회에 선수 및 임원 파견을 추진함.
- 1988.4.17. 미국 뉴욕 Jewish Community 주관 이스라엘 건국 40주년 기념 국제 민속퍼레이드 축제 행사에 한국 교민사회단체 주관으로 농악대 등 참여를 추진함.
-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 입장식에서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전광판에 표기한 것에 대하여 아랍국가들이 반발하자, 정부는 1988.9.20. 아랍 주재 재외공관에 실무자의 단순착오였음을 해명하도록 지시함.
- 주일본 이스라엘대사관 공사가 1989.9.20. KBS를 방문하여 KBS와 이스라엘 국영방송사 IBA 간 교류협정체결을 제안한바, 외무부는 준정부 성격의 국영방송사 간 교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문공부에 전달함.

한·이탈리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9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19-7/6/1-17

한·이탈리아 간의 1989년 중 관계 동향임.

1. 한·이탈리아 민간경협위원회 회의 개최

- 이탈리아 전경련 대표단이 1989.6.6.~10. 한국을 방문함.
- 한·이탈리아 민간경협위원회 회의가 1989.6.8. 서울에서 개최됨.
 - 한국 측: 이경훈 한·이탈리아 민간경협위원회 위원장(대우중공업 사장), 한국 기업인 60여명
 - 이탈리아 측: Rosolino Orlando 한·이탈리아 민간경협위원회 위원장과 기업인 20여명
-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방안, 교역·자본·기술협력을 통한 기업 간 협력 강화 등에 관해 논의함.

152

2. 이탈리아 훈련용 항공기 도입문제

- 이탈리아 정부는 이탈리아 Amermacchi사 훈련용항공기의 대한민국 수출을 추진함.
 - 이탈리아 측은 9.15. 김석규 신임 주이탈리아대사의 이탈리아 외무부 경제총국장 예방 시와 11.23.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의 이탈리아 방문 시 동 문제를 제기함.
 - 11.29. 주이탈리아대사관이 이러한 이탈리아의 관심 표명을 북한의 통상대표부 설치 기도와 연결된 것으로 보고한데 대하여, 외무부는 11.30. 훈련기 도입을 북한 통상대표부 설치 저지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 북한 통상대표부 설치 저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함.
- 한편 국방부는 12.6. 이탈리아 훈련기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동 검토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을 외무부에 통보함.

일본 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 개선문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7/8/1-131

1. 주일본대사는 1989년 중 일본 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 관련 동향을 수시로 외무부에 보고함.

- 사회당대회(1.23.)
 - 당분간 한국과의 교류는 조용히, 소극적으로 추진 전망
 - 도이 위원장의 조기방한 가능성 희박
- 사회당의 일한의원 가입문제(5.24. 및 6.15.)
 - 금후 대한민국을 정식 호칭하고 한국과 북한을 같은 레벨로 상대
 - 의원 개인자격으로 가입
- 사회당의 대한국 관계(7.25.)
 - 당내 좌파의 반발을 우려, 가능하면 대한국 정책의 명시적 전환 회피
 - 위원장 등 간부의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선전
- 사회당 도이구상 발표: 대한반도 정책(9.10.)
 - 남북한 양 정부와 균형있는 관계 추진
 - 남북대화와 교류 촉진 및 자주적 평화통일을 전면 지지
- 연합정권하에서의 사회당의 대한국 정책(11.19 및 11.23.)
 -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는 한국을 국제법상 국가로 인지하며, 연합정권하에서는 외교의 계속성을 고려하여 한·일본 기본조약을 유지, 존속시킨다는 방침 확인
 - 이는 연합정권 수립이라는 가정하에서의 정책인 만큼, 사회당이 아직도 조건적인 대한반도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한계는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임.

2. 외무부 아주국은 1989.7월 일본 사회당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

- 사회당과의 교류조건 완화
 - 도이 위원장의 한·일본 기본조약 인정 시사 발언을 사회당의 대한국 정책 수정으로 양해
- 구체적 추진방안
 - 도이 위원장이 방한 의사 표명 시 동인의 입국 허가
 - 단, 동 위원장 방한 전 대한국 정책 수정 적극 유도
 - 상기 정책 수정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 양국 야당 간의 교류로만 인정, 대통령 등 정부 고위인사 접촉 불허

3. 외무부는 1989.9월 사회당 도이구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함.

- 동 구상을 일본 사회당의 대한국 정책 전환노력의 진일보로 평가
 - 현 시점에서 동 구상은 도이 위원장 개인의 견해임을 고려, 금후 동 구상 실현여부를 주시
 - 사회당의 대한국 정책 수정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점진적이고 신축성 있는 대응 전개

한·일본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7 / 7 / 1-189

한·일본간의 1988~89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일본대사는 1988.12.31. 1988년도 한·일본 관계 평가와 1989년 전망을 외무부에 보고함.

- 1988년 한·일본 관계 평가
 - 한국의 국내정치 발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북방외교의 본격화 등으로 대일본 외교 수행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국민차원의 이해증진이라는 금후의 한·일본 관계 대원칙 확인
 - 양국 정상 및 실무자 협조강화, 의원 외교 다변화, 민간교류 확대 등 시현
- 결론 및 전망
 - 1988년 한·일본 관계는 금후 장기적인 양국관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 이러한 유리한 환경조성에 따라 국민적 지지기반 위에서 폭넓은 관계발전 예상

2. 주일본대사는 1989.2.9. 이후 무라타 일본 외무성 외무차관과 정기 업무오찬을 갖고, 대통령 일본 방문시기와 정기각료회의 등 주요 외교일정, 남북한 문제, 북방 외교 추진현황, 일·북한 관계, 양국 정무 및 경제관계, 일본의 대외관계 활동, 일본 정국 전망 등에 관한 협의내용을 수시로 외무부에 보고함.

3. 강영훈 국무총리는 1989.2.25. 일본 도쿄에서 하라다 켄 일한의려 간사장을 접견, 천황 서거에 대한 조의를 표명하고 남북대화 및 북방외교, 청소년 교류확대, 한·일본 간 국민감정 관계 등 관심사를 논의함.

4. 신동원 외무부차관은 1989.6.13. 무라타 외무차관과 한·일본 외무차관회담을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협의함.

- 주요 외교일정
 -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시기는 1989년 가을 또는 1990년에 실현 검토
 - 일본 측의 천황 방한 제의는 여러 의견을 고려, 협의 희망
 - 기타 제15차 한·일 각료회의(1989.10월, 서울), 고위정책협의회(1989.8월, 서울) 등 개최 검토
- 양국간 현안문제
 - 재일한국인 후손문제, 사할린 교포, 원폭 피해자 문제 및 경제통상문제 등에 관해 의견 교환



● 일·북한 관계

- 일본 측은 일·북한 관계 추진에 있어서 한국과의 우호관계 우선 입장과 한국과 중국, 소련과의 관계 및 남북대화 진전사항에 유의하여 대처한다는 기본입장 표명
- 한국 측은 남북한 관계 관련, 북한의 기본적 자세에 하등의 변화가 없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 우방국들의 일치된 대북한 정책 및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

한·라이베리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9-7 / 9 / 1-123

1. 라이베리아·한국 친선협회는 1986.2.28.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에 따라 임원을 선출함.
2. 1987.1.14. 주한 라이베리아대사는 외무부차관을 면담하고 양국간 항공협정에 의거하여 대한항공이 미국 뉴욕-몬로비아 간 항로에 운항 문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함. 동 요청에 대하여 외무부는 아래와 같이 검토함.
 - 그간 동 구간에 미국 팬암 에어웨이가 운항하다가 2월부터 중단 예정임.
 - 동 노선은 한·라이베리아 항공협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한·미국 항공협정상 미국 이원권도 없으며 항공수요 등 제반여건상 라이베리아 제의를 수락하기 곤란함.
3. 1988.5.2.~11. 한·라이베리아 친선협회 회원단(15명)이 라이베리아를 방문함.
4. 1989년 주한 라이베리아대사를 통해 양국간 인적 교류, 경험문제 등이 논의됨.
 - 라이베리아 정부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청년봉사단 라이베리아 파견
 - 라이베리아 농업장관 방한 희망은 특별한 현안이 없어 수용되지 않음.

한·리비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9-7 / 10 / 1-18

한·리비아 간의 1989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Brooks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는 10.30. 외무부 제1차관보를 면담, 미국의 대리비아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의 협조를 요청함.

- 미국을 위시한 서방지역 국가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및 고립화 정책에 따라 리비아는 테러단체 AND의 억류인질 석방, 역내 주변국가와의 관계개선, 차드와의 평화협정 추진 등 온건화 정책을 추진 중임.
- 그러나, 리비아의 확고한 정책전환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까지 현재의 대리비아 제재조치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며, 그 기준은 AND의 축출, IRA(아일랜드공화국군), 적군파,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등 테러단체 지원 중단, 정부기관 및 전위상사의 대외소요활동 지원 중단, 장거리 공격무기 구입 감축, 화학무기 등 비재래식 무기개발 포기 등임.
- 이와 관련, 리비아의 온건화 정책에 대한 주요 증거 유무, 상기 정책전환 판단기준에 대한 한국입장을 문의함.
 - 한국의 리비아 접촉 시 동 판단기준을 리비아 측에 거론해 줄 것을 요망

2. 외무부는 11.1. 주영국, 프랑스, 이집트대사관 등 주요공관에 상기 미국입장을 통보하고, 주재국의 대리비아 정책추이, 상기 미국입장에 대한 대응도를 보고하라고 훈령한 바, 주요 공관의 보고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주카이로총영사
 - 최근 리비아의 정책추이는 온건화 경향으로 관찰됨.
 - 정치적으로는 리비아의 대외노선을 아랍권 주류인 온건현실 노선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이집트 인력의 대리비아 노동시장 진출을 포함한 경제관계 증진노선을 기본으로 함.
 - 이집트는 미국도 리비아의 기본적인 온건화 경향은 인지하고 있으나, 대리비아 정책을 재검토 할 정도가 되기에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봄.
- 주프랑스대사
 - 리비아가 온건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인식함.
 - 최근까지 고위인사 교류 및 첨단무기 수출금지 등 리비아에 대한 정치적 제재조치를 취하였으나, 토목공사 및 건설을 중심으로 한 경제, 통상관계는 지속함.
 - EC(구주공동체) 내에서도 이탈리아 및 스페인은 친리비아 온건파, 영국은 반리비아 강경파, 프랑스는 중도파라고 할 수 있으나, 트리폴리에 근거한 테러단체 축출, 국제 테러단체 지원중단 촉구에는 같은 입장을 가짐.
- 주독일대사
 - 리비아가 대외정책을 변경 중으로 간주함.
 - 1988년 주리비아대사 재파견, 경제통상관계 확대 등 적극적인 대리비아 정책을 추진 중임.

한·말레이시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7 / 11 / 1-22

Rafidah 말레이시아 상공장관이 1989.7.30.~8.3. 방한함.

1. 방한 일정

- 7.31. 태평양화학공장 방문, 투자세미나
- 8.1. 상공회의소, 무역종합전시장, 무역협회 등 방문
- 8.2. 외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 면담, 양국 상공장관회담, 부총리 예방

158

2. 최호중 외무부장관 면담

- 일자 및 장소: 1989.8.2., 외무부장관실
- 면담 요지
 -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시 말레이시아의 지원에 대해 사의표명
 - 아태지역 각료회의 개최 지지 및 참가국 범위 문제 의견교환
 - 양국 통상문제, 투자유치세미나 개최, 월남난민문제 대처방안 등 협의

한·마카오 관계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7 / 12 / 1-29

주홍콩총영사의 마카오 출장 결과보고 중 마카오국제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공사개요

- 총규모는 미화 4억 6천만 달러로, 중국, 포르투갈, 마카오 현지인 및 외국투자자들 간 균등 4등분 부담원칙하에 진행
- 1988.3월까지 기초계획안 작성, 1988년 중 매립공사, 활주로 공사 등 여러사업으로 세분하여 국제입찰 예정이며, 1989년 초 시공 예정
- 1987.10월 Vitorino 정청 장관이 방한하여 대한항공과 협의한바 있음.

2. 관찰

- 중장기적으로 마카오공항의 국제교통에서의 위치 대중국 진출을 위한 총괄적 계획에서 한국업체 참여문제 검토 필요

한·멕시코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9-7 / 13 / 1-29

한·멕시코 간의 1989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멕시코대사는 한·멕시코 간 의원친선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함.

- 1.19. Morales 하원의장을 면담, 양국 의회 간 교류 및 협력증진을 통한 양국관계의 확대 심화를 당부하고 한·멕시코 의원친선협회 구성에 관한 김재순 국회의장의 서한을 전달
 - Morales 의장은 양국 의회 간 친선확대 및 교류증진을 적극 환영하면서 동 의원친선협회가 조속히 구성되도록 협조하겠다고 언급
- 2.14. Avarez 상원 의원과 면담, 한국사절단의 1989.5월 멕시코 방문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
 - Avarez 의원은 한국사절단의 멕시코 방문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
- 2.20. 한·멕시코 의원친선협회 멕시코 측 위원회 구성을 외무부에 보고
 - Maganda 하원 외무위원장 등 36명으로 구성

2. 주멕시코대사는 2.23. 멕시코 상공장관을 예방, 양국간의 경험 및 통상증진 방안에 관해 협의함.

- 동 장관은 멕시코 신정부가 한국 등 태평양 연안국과의 경제교류 확대에 중요성을 두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사절단 파견에 깊은 관심을 표명
 - 아울러 교역증진책의 일환으로 외국 경제인에 대한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을 언급

3. 주멕시코대사는 1989.6.23. Galan 주한 멕시코대사가 작성한 “한·멕시코 관계 고찰” 제하의 보고서 주요 내용 및 공관 의견을 보고함.

- 보고서 주요내용
 - 한·멕시코 관계일반, 정치, 경제, 이민, 문화 등
- 공관의견
 - 기본적으로 양국관계가 정치, 경제 부문에서 발전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한국을 향후 태평양 연안의 주요 경제교류 대상국으로 인식함.
 - 그러나 양국간 관계발전 과정에서 야기된 부문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멕시코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일부 객관성이 결여된 내용이 있음.
 - 통상면에서 수입이 급증한 것은 멕시코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자유화 정책에 의한 일반적인 현상이며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님.
 - 투자면에서 한국기업은 멕시코 정부가 적극 육성하고 있는 보세산업지대에 진출,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에 기여함.
 - 한국인 불법이민 비중은 여타 중미 및 불법이민 규모에 비해 아주 낮음.

한·네팔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9-7 / 14 / 1-153

한·네팔 간의 1989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주네팔대사는 1989.2.3. Upadhyaya 네팔 외상과 주요 현안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주요 인사교류
 - 외무부장관의 네팔방문 시기: 1989.10월 이후가 가장 적절
 - 동 외상의 방한 시기: 1989.4월 이후 3/4분기 고려 가능
 - 네팔 국왕의 방한: 왕실 형편과 한국 측 사정을 참작, 긍정적으로 검토
 - 양국 국회의장의 방문 실현 노력
- 동 외상은 최근 남북한 접촉 진전에 축하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양측 간 상이한 의견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표시

2. Bohara 네팔 도로성장관이 1989.4.17.~21. 국제도로연맹회의 참석차 방한, 외무부장관을 면담함.

- 네팔 측은 최근 인도·네팔 긴장관계 발생 배경과 네팔 측 입장을 설명하면서 한국 정부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
 - 내륙국의 교통로 보장은 국제법상의 권리이며, 무역 및 통과협정을 분리하는 것이 확고한 입장
- 한국 측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을 위해 좋을 것이라고 언급

3. Rajbhandari 네팔 외무성 한국담당관(1989.7.6.~12.)과 Arjal 주한 네팔대사(일본 상주) (1989.10.12.~17.)는 각각 방한하여 외무부차관 및 아주국장 등을 면담하고 인도·네팔 간 긴장관계에 대한 네팔 측 입장을 설명, 한국의 이해를 촉구함.

- 한국 측은 네팔 측 입장을 청취하고 양국간 중립적 태도를 견지

4. 주네팔대사는 1989.12.18. Upadhyaya 외상이 네팔 동서횡단전철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희망해 왔다고 보고함.

- 사업 내용
 - 향후 10년간 네팔 동서횡단 1,000km 전철 부설
 - 상업차관 형태로 네팔 정부 및 민간, 국제원조기구 자금조달(한국 직접투자도 환영)
 - 동 사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한국 기술진의 타당성조사 착수를 희망
- 동 외상은 한국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이유는 네팔의 경제발전도 및 지형 등 여건에 비추어 한국의 기술수준이 가장 적합시 되는데 기인한다고 언급



- 주네팔대사는 한국의 참여를 우선 고려한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기본적으로 한국 민간기업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며,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측면지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건의하겠다고 언급
- 주네팔대사는 동 사업 참여가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본적으로 민간차원으로 추진하되 정부로서도 측면 지원할 것을 적극 건의

한·뉴질랜드 관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7 / 15 / 1-26

한·뉴질랜드 간의 1989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는 1989.4.27. Holborow 주한 뉴질랜드대사를 면담함.

- 뉴질랜드 측 언급요지
 - 최호중 대통령 특사(외무부장관)의 뉴질랜드 방문을 환영하면서 동 특사 파견계획을 문의
 - 한국이 외국산 소고기 수입 시 외국산 소고기 수출 응찰업체를 4~5개로 제한하는 등 한국 측 차별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소고기 수입에 있어서 무차별 원칙에 입각한 개방을 요망하는 문서를 농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
 - 고용 및 청소년담당장관의 방한 시(1989.5.18.~20.) 협조 요망
- 한국 측 언급요지
 - 대통령 특사 파견계획의 목적, 대상, 순방국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
 - 소고기 수입 등 통상문제에 있어서 통상 대상국에 대한 무차별 원칙 및 동등한 대우 원칙의 적용 필요성 인정
 - 뉴질랜드 입장을 이해하고 동 문서를 농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 예정

2. Gamble 뉴질랜드 외무성 경제통상국장은 1989.7.19.~22. 방한하여, 외무부 아주국장 등을 면담하고 아래 양국간 주요현안을 협의함.

- Lange 뉴질랜드 수상의 방한 및 노태우 대통령,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뉴질랜드 방문 문제
-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 및 제16차 양국 통상장관회의 개최 문제
- 뉴질랜드산 소고기 수입 및 양국간 치즈 합작투자 허가문제, 수산협력문제 등

3. 한·뉴질랜드 민간 경제인협의회가 1989.10.12.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됨.

- 동 협의회에는 김상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장), 지방상공회의소장, 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석

한·파키스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9-7 / 16 / 1-35

한·파키스탄 간의 1989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외무부는 4월 주파키스탄대사의 건의에 따라 파키스탄 북서변경주(North West Frontier Province) 수도인 페사와 주재 한국 명예총영사 임명을 추진함.

- 북서변경주의 중요성
 - 동 주 출신 인사들이 파키스탄 군, 정, 관계에 유력인사가 많으며, 편잡주 출신과 함께 파키스탄 내에서 지배적 세력을 형성
 - 아프가니스탄과 접경지역으로 경제적 교류의 중심지
 - 한국 2개 건설업체가 진출, 발전소 및 도로공사 시공 중
- 임명에 따른 기대효과
 - 동 지역과의 우호 및 이해증진을 통한 한·파키스탄 양국관계 발전도모
 - 아프가니스탄 정세 동향 파악 및 진출 연계지로 활용가능
 - 무역 및 건설수주 증진에 기여

2. 주파키스탄대사는 4.16. Rahim 파키스탄 의회담당장관 면담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 Rahim 장관은 파키스탄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유화 정책을 설명
 - 한국진출 유망분야인 수산 및 섬유분야 합작진출협력 용의 표명
- 동 장관은 한국의 발전상 시찰과 한·파키스탄 양국 의회 간 우호증진도모를 위해 의회사절단 방한문제를 제기

3. 주파키스탄대사는 5.17. Lechari 철도장관 면담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 Lechari 장관은 주재국의 철도운영 상황과 부품부족으로 인한 기관차 운행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기관차 및 부품생산을 위한 기술이전과 합작투자를 요청
 - 주파키스탄대사는 동 장관의 방한 초청을 건의

4. Ali 신드주 공업장관이 7월 방한, 상공부장관과 제1차 한·파키스탄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함.

- 동 회담 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하에 11월 한·파키스탄 투자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
 - 구체사항은 상공부와 주한 파키스탄대사관 간 협의
- 동 방문 시 한국업체의 대파키스탄 합작투자 추진방안도 논의

한·파푸아뉴기니 관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7 / 17 / 1-21

한·PNG(파푸아뉴기니)간의 관계 동향임.

1. Samban PNG East Sepik 주 수상이 1989.5.10.~14. 방한함.

- 방한 경위
 - Sepik 주 복합비료공장 건설 협의를 위해 럭키엔지니어링(주) 주선으로 방한함.
 - 건설자금 관련 외국계 은행을 통한 자금 주선이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자금 확보 가능성 등을 협의함.
- 주요 활동
 - 럭키엔지니어링 측과 업무협의
- 특이사항
 - 현지 언론에 보도된 한국 정부의 139백만 달러 공공차관 공여는 허위보도로 판명됨.

2. 1990년도 대사관 업무계획

- 주재국 정세와 대외관계 및 내년도 외교활동계획

한국의 팔레스타인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공여

생산연도 1987-1989

생산과 중근동과

MF번호 2019-7 / 18 / 1-107

1. 팔레스타인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공여 추진 경위 및 지원 현황임.

- 추진 경위
 - 1980.5월 최규하 대통령의 쿠웨이트 공식방문 시 팔레스타인에 대한 한국의 인도주의적 관심표명책의 일환으로 팔레스타인 2세 교육지원 용의 표명
 - 아랍지역 국가 출신 유학생을 위한 비영리 독립장학재단인 국제아랍장학재단(ASAI: Arab Student Aid International, 미국 뉴저지 소재)을 통해 팔레스타인인 해외유학생을 지원
- 지원 현황
 - 1981~84년 총 4회에 걸쳐 ASAI를 통해 100만 달러 지원

2. 외무부는 1988.1.19.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대아랍 외교 강화를 위해 무상원조 예산에서 팔레스타인 장학기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함.

- Qutub ASAI 총재는 1987.11.22. 10개년(1985~95년) 교육계획 수행을 위해 25만 달러 추가지원을 요청
- 기대효과
 - ASAI를 통한 간접지원 방법은 PLO를 포함한 전 아랍지역 국가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전체 팔레스타인이 지원 대상
 - PLO와의 점진적인 관계개선 및 팔레스타인인과의 우호관계 발전에 기여
 -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전 아랍지역 국가에 대한 한국 홍보 및 인식 제고

3. 주유엔대사는 1988.4.11. Qutub 총재에게 팔레스타인 학생 장학기금 25만 달러를 전달함.

- 동 총재는 장학금 제공에 사의를 표명
- ASAI 측은 동 지원사실을 News Letter 형식으로 전아랍권에 배포할 예정

4. 주쿠웨이트대사는 1989.10.30. 팔레스타인 장학기금 지원문제에 관해 외무부에 보고함.

- 10.26. Qutub 총재는 한국 정부의 대ASAI 장학금 추가지원 등을 요청
 - 5개년(1989~94년)간 200만 달러 지원
 - 팔레스타인 국민의 한국대학 수학 및 직업훈련 실시도 제의
- 대ASAI 장학금 현금지원 방안 수정 건의
 - 동 지원의 외교적 성과가 미미하므로 현금지원 대신 직업훈련 및 한국대학 수학으로 대체
 - 현금지원 필요 시 ASAI에 일임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특정 공관이 장학생을 선발, 직접지원 또는 중동지역 유명대학에 장학생 선발을 위임하는 방식 채택
 -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ASAI 담당창구 일원화

한·소말리아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9-7 / 19 / 1-95

한·소말리아 간의 1988~89년 중 관계 동향임.

1. 주소말리아대사는 1988.7.10. 민간차원에서 양국간 이해증진과 친선도모 등을 목적으로 한·소말리아 친선협회 결성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함.
 - 회원: 사회문화계 인사 50명, 실업계 인사 50명(총 100명 목표)
2. 외무부는 1988.9월 주소말리아대사의 건의에 따라 대소말리아 긴급원조계획을 추진함.
 - 1987.9월 한·소말리아 양국 수교이후 긴밀한 유대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할 목적으로 지원결정 - 구호의약품 (약 3만 달러 상당)
3.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1989.4.14. Barre 소말리아 신임 외무장관에게 취임 축전을 발송함.
 - 취임축하 및 양국관계 증진을 희망
4. 주소말리아대사는 각종 국제기구에서 소말리아의 지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함.
 - 비동맹외상회의: 북한의 한국 고립 기도에 대한 중립적 입장 지지 확보(1989.5월)
 - ILO(국제노동기구): 한국의 가입 지지 입장 확보(5.12.)
 - 비동맹정상회의: Barre 외상은 한국입장 지지 표명(8.12.)
 - 제44차 유엔총회: 한국입장 지지 요청(9.12. 및 9.19.)
5. 주소말리아대사는 1989.7.19. 한·소말리아 양국 어업협력 증진방안의 일환으로 Mohamoud 수산청차관을 방한 초청해 줄 것을 건의함.
 - 이동배 수산청장은 8.12. 동 방한 초청장을 발송
6. 한·소말리아 양국은 제44차 유엔총회 계기에 1989.9.26.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함.
 - 소말리아 측은 차관 공여(1천만 달러) 약속이행, 무상원조(25만 달러) 배증, 민간기업 투자촉진 등을 요청
 - 한국 측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을 지속할 의사 표명
 - 민간분야 협력사업 증진을 위해 소말리아 측의 한국기업 참여 유도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

한·태국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7 / 20 / 1-44

1. 주태국대사는 1989.4월 이후 태국 상무장관, 투자청장 등 경제 고위관료를 수시로 면담하고 한·태국 간 교역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관해 협의함.

- 한국 측 주요 언급요지
 - 한국 주요기업의 성공적인 태국진출 협조 요청
 - 양국간 교역의 확대균형 노력 다짐
- 태국 측 주요 언급요지
 - 한국기업의 단기적 성과위주 진출방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 표명
 - 도로, 통신, 인프라 등 사회간접시설에의 진출 및 합작투자 권유

2. 주태국대사는 1989.4.28. 차티차이 태국 수상을 예방함.

- 주태국대사는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합작투자 및 통상확대 등을 통해 실질협력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
- 차티차이 수상은 아세안 회원국인 태국을 한국 경제진출의 발판으로 활용하라고 권유하면서 한국이 첨단과학기술을 가져와 태국과 합작투자를 해 줄 것을 당부
 - 또한 태국으로서는 인도차이나 국가의 평화정착을 지원하고 아세안과 함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

3. 주태국대사는 1989.11.9. 푸미폰 태국 국왕을 예방하고 국왕에 대한 노태우 대통령의 인부를 전달함.

- 주태국대사 발언
 - 1989.3월 한·태국 외무장관회담의 합의사항(유엔에서의 태국 정부의 한국입장 지지, 통상 및 경험 확대, 통상장관회담의 부활 등) 상기
 - 동 외무장관회담 개최 이후 한·태국 관계 발전상의 구체적인 사례 언급
 -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국왕의 관심과 배려를 요망
- 국왕 발언
 - 최근의 양국관계 발전상에 크게 만족
 - 태국의 토지가격 급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의 토지대책 등 한국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대한 관심 표명
 - 시린돈 태국 공주의 적절한 시기 방한을 시사하고 황태자의 방한 문제는 검토 중임을 언급

한·우간다 관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9-7 / 21 / 1-18

1. 주우간다대사는 1989.8.31. 구호품 기증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한국장로교회에서 수집한 의류, 학용품, 완구 등 구호품(약 10만 달러 상당)과 구호금 1만 달러 기증식이 주재국의 고아구호 여성단체인 UWESO(우간다고아구제여성단체)에서 개최됨.
 - 참석자
 - 한국 측: 주우간다대사와 한성수 목사 등
 - UWESO 측: 회장 등 간부
 - 주재국 라디오 및 일간지 등이 동 기증식에 관해 보도함.

2. 주우간다대사는 1989.9.22. 주재국 태권도협회에 대한 장비지원을 아래와 같이 요청함.

- Etima 우간다 태권도협회 사무총장(우간다 형무청장)은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앞 서신을 통해 태권도장비를 요청
 - 태권도 유니폼 300벌, 티셔츠, 보호장구 등
- 한·우간단의 체육, 문화교류증진 및 북한 침투저지를 위해 체육부 및 세계태권도연맹과 협의, 동 체육장비가 지원되도록 조치요망

한·미국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7 / 23 / 1-223

한·미국 간의 1988~89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Miller 주한 미국대사관 서기관은 1988.3.15. 외무부 동북아2과 담당관에게 최근 한·베트남 경제관계 증진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전달함.

- 미국은 캄보디아 문제해결을 위해 베트남의 정치, 경제적 고립화를 공약하고 대베트남 교역금지를 실시
 - 최근 한·베트남 경제관계가 증진되고 있는 조짐에 미국은 깊은 우려를 표명
 - 미국은 한국 정부가 이러한 관계증진을 억제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

2. 솔라즈 미국 하원 아태소위원회 위원장은 1988.5.12. 한국의 국내정국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함.

- 시거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증언(요지)
 - 한국민의 민주화 의지와 커다란 정치적 발전을 찬양
 -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지속적 민주화 추진을 향한 한국민의 확고한 결의를 재확인
 - 한국의 민주화는 장기적으로 한·미국 관계에도 기여 예상
- 외무부 평가
 -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를 통한 한국 민주화의 진전에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 및 지지 표명
 - 한국의 민주화로 인해 통상문제 등 한·미국 현안 타결이 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부 분석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화가 한·미국 관계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 표명

3. 미국 하원 아태소위원회가 1988.5.24. 개최한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청문회에 대한 외무부의 평가는 아래와 같음.

- 동 위원회는 한국의 성공적인 민주화와 올림픽의 박두에 따라 국내외의 관심이 남북한 문제로 전환되고 있는 현재의 분위기를 활용하고자 시도
- 증언자들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지지하였으나, 일부 참석자들은 주한미군 영구주둔과 핵무기 유지정책 포기 등 미국의 대북정책 변경을 주장

4. 한·미국 양국은 미국 올림픽 수영선수 절도사건 관련, 외교적 마찰해소를 위해 노력함.

- 사건발생 경위
 - 1988.9.24. 서울올림픽에 참가한 미국 수영대표(선수 2명, 코치 1명)가 시내 호텔에서 절도혐의로 체포
 - 한국 경찰은 미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동인들의 신병을 미국 측에 인도하고,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및 법무부에 출국 정지 요청



- 미국 측 반응
 - 미국 NBC 등은 애써 축소 보도하는 인상
 - 미국 올림픽조직위는 상기 선수 2명을 선수단에서 축출, 출국허가 시 귀국하도록 지시
 - 양국 외교경로를 통한 해결추진
 - Brooks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는 김석규 외무부 제1차관보를 면담하고 동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희망(9.28.)
 - 한국 검찰은 이들의 반성문을 접수하고 출국허가(9.30.)
5. Brooks 미국 Heritage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은 1989.1.23. 언론기고를 통해 부시 행정부의 대아시아 정책을 건의함.
- 건의 요지
 -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제·전략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수립과 주요 통상국들에 대한 시장개방노력을 요구할 필요성 강조
 - 아시아국가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 준수
 - 아태지역에 관한 주요 정책연설 실시와 미국·아시아국가 정부 간 협의기구 설립
6. Dunlop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1989.2.13. 외무부 구주국장을 면담, 동인의 동구 및 소련 방문 결과를 설명함.
- 동구권 국가 정세 및 한국의 북방정책에 대한 평가 등
7. 미국 국무부는 1989.7.28. 주미국대사에게 한국의 수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위로의사를 전달하고 수해재난 복구를 위해 지원할 용의를 표명함.
- 주한 미국대사관 측이 한국적십자사에 구호금을 전달

한국 관련 미국 의회 의원 서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7 / 26 / 1-85

1. Ackerman 미국 하원 외무위원 등 101명의 의원은 1989.8.7. 국무총리 앞으로 아래 요지의 서한을 발송함.
 -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과 무역거래를 회피하는 국내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
 - 한·이스라엘 관계정상화 조치로서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재개 허용 요청
2. Forlietta 미국 하원의원 등 46명 의원은 1989.9.15.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 내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퀘일 미국 부통령 방한 및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회에 동 문제를 거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함.
3. Baucus 미국 상원 재무위 무역소위원장은 1989.10.17.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소고기 쿼터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양국 정부가 11월 협상에서 이 문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한반도 관련 미국 의회 동향. 전2권 (V.1 1988-89.8)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7 / 24 / 1-173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1988~89.8월 중 미국 의회 동향임.

1. 결의안 채택

- 미국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추진한 서울올림픽 관련 결의안이 1988.8월 및 9월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됨.
 -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 국민의 열성과 자부심을 평가하면서 북한의 참가를 재촉구함.
- 미국 상원은 10.6.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2. 한반도 관련 논의 동향

- 부시 행정부의 세금 인상 동결 공약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해외주둔 미군 주둔비에 대한 우방국의 부담 증대,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소련군 50만 감축 발표에 따른 해외주둔 미군의 단계적 감축문제 등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됨.
-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지역소위는 1989.2월 서부지역인 시애틀, LA, 샌프란시스코에서 “환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 및 안보적 이해관계” 제하의 청문회를 개최함.
 - 태평양지역 협업체 창설을 위한 외교적 시도 필요성을 제기함.
- 하원 및 상원 세출위원회가 4~5월 FY90 아주지역 원조계획에 관한 청문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토의함.
- 하원 외무위원회 아·태지역소위가 7월 상원에 계류 중인 주한미군 감축법안, 한국의 정치상황, 반미감정, 북한의 남북한 상호감축 제의 등을 논의함.
- 주한미군의 감축 타당성 및 5개년계획의 검토, 보고 의무를 부과한 년-워너 수정법안이 8.2. 통과됨.

한반도 관련 미국 의회 동향. 전2권 (V.2 1989.9-12)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북미과

MF번호 2019-7 / 25 / 1-127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1989.9~12월 중 미국 의회 동향임.

1. 법안/결의안 채택

- 범퍼스 상원 의원은 1989.9월 상원 세출위 FY90 국방예산 지출법안 심의 중에 자신이 동료 의원과 공동으로 제출한 주한미군 재조정 법안을 변경하여 수정안(1990~92년 1만 명 감축) 형식으로 제출함.
 - 9.26. 상원 본회의에서 스티븐스 상원의원과 이노우에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범퍼스 법안을 완전 대체하는 제2차 수정안을 제출하여 채택함에 따라 범퍼스안은 폐기
- 상원 세출위에서 통과된 FY90 군사 건설예산 지출법안은 병원진료소 개축 예산을 제외한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 전액이 삭감됨.
- 피언 하원 의원과 폴리에타 의원은 1989.10월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면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노 대통령에게 한국 민주화 및 인권문제를 거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각각 제출함.
 -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의 인권단체와 주요 언론 등이 문제 제기
 - 폴리에타 의원은 결의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도 제출
- 미국 상·하원은 11.15. FY90 국방예산 수권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켜 부시 대통령에게 송부함.
 - 주한미군 관련 년-워너 수정안이 포함되어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하여 한국 측과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그 협의 결과 및 계속 주둔 전략계획 등 5개년계획을 포함한 1차 보고서를 1990.4.1.까지 제출하도록 규정

2. 미국 의회의 관심사항

-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인권문제 외에도 소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 등 통상마찰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짐.

한·바누아투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7 / 27 / 1-49

한국과 바누아투 간의 1988~89년 중 관계 동향임.

1. 월터리니 바누아투 수상은 1988.7.15. 이현재 국무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뉴욕 거주 한국인이 한약재를 이용하여 뇌졸중으로 인한 자신의 반신마비를 치료하여 주었음을 치하함.
2. 노태우 대통령이 1989.3.15. 티마카타 신임 바누아투 대통령에게 축전을 발송한데 대하여 동 대통령은 노 대통령에게 감사 답신을 보내음.
3. 칼포카스 바누아투 외상이 1989.3월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참석차 방한함.
4. 바누아투 어업수산 대표단이 1989.9월 방한을 추진함.

한·구주지역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19-8/1/1-55

한국과 동구권국가 간의 1988~89년 중 관계 동향임.

1. 루마니아

- Whitehead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988.2월 동구 순방 중에 Totu 루마니아 외상에게 한국 정부의 KAL기 폭파사건 조사결과 발표 내용을 전달한데 대하여 동 외상은 북한이 동 사건에 관여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다고 언급함.

176

2. 불가리아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비엔나 무역관장이 1988.5월 박람회 참석차 불가리아 방문 중에 불가리아 상의와 연락사무소 설치문제를 협의함.
- Roussev 불가리아 상의 회장이 9.7. 방한하여 KOTRA와 업무협력합의서 체결 원칙에 합의함.
- 이선기 KOTRA 사장이 11.29.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동 업무협력합의서에 서명함.

3. 체코

- 한국 측이 1988.8월 올림픽과 관련하여 체코 영사단 파견을 제의하여 9월 체코 영사단과 체육장관이 방한함.
- KOTRA는 12월 체코 측과 양국간 무역사무소 개설에 합의함.

4. 폴란드

- KOTRA와 폴란드 대외무역회의소는 1988.11.25. 상호 무역사무소 설치에 관한 업무협력 합의서에 서명함.

한·동구권국가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2과

MF번호 2019-8/2/1-129

한국과 동구권국가 간의 1989년 중 관계 교류임.

1. 문화, 학술 교류

- 창무회는 1989.6~7월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및 소련 순회공연을 추진
- 한국방송공사는 OIRT(동구권방송기구) 준회원 가입을 추진
-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은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 주요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를 추진

2. 동구권 교류 정책 홍보

- 외무부장관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 및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한국과 동구권 국가들과의 교류에 관한 정부 입장을 설명

3. 정부 간 교류

- 한국 국회의원들이 헝가리, 체코, 유고슬라비아, 소련 등을 방문
- 서방 24개국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1989.8~9월 2회에 걸쳐 폴란드 및 헝가리의 개혁 노력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지원을 위한 조정회의를 개최함.
 - 9.25. 한국을 방문한 헝가리 아주국장은 동 조정회의의 참여를 요청
 - 주한 헝가리대사는 10.16. 외무부를 방문하여 동 조정회의에서 헝가리가 서방국가에 전달한 비망록을 수교하면서 한국이 헝가리의 개혁 노력에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
 - Krenzler EC(구주공동체) 집행위 총국장이 11.22. 주EC대사에게 11.24. 개최 예정인 조정 회의에 한국의 참여 여부를 문의한데 대해, 정부는 11.27. 옵서버 참여의사를 통보
 - EC 집행위는 12.14. 권순대 주EC대사관 공사에게 정회원국 참여를 권유

한·짐바브웨 정무일반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동아프리카과

MF번호 2019-8/3/1-60

한·짐바브웨 간의 1987~89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외무부는 1988.2.10. 북한이 짐바브웨 겸임 주케냐대사관에 짐바브웨의 서울올림픽 불참 압력을 계속하고 있어 올림픽 참가를 확정지은 짐바브웨가 무가베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서 올림픽 참가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음을 통보하며, 짐바브웨 NOC(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접촉하여 적의 대처할 것을 지시함.

178

2. 에티오피아 주재 신임 짐바브웨대사는 1989.6.2. 주에티오피아대사를 예방하고 북한의 한반도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며, 주에티오피아대사는 6.14. 짐바브웨대사를 답방하고 외무부 훈령에 따라 관계개선 희망을 전달함.

- 한국은 남북한 간 소모적 외교전 지양 및 조건없는 수교(선수교 후경협)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설명함.
- 짐바브웨대사는 비동맹, 독립과정에서의 북한의 지원 등으로 양국 정치지도자 간의 특별관계를 무시할 수 없으나, 점차 정책변경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김동호 주카메룬대사 겸임국 적도기니 출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9-8 / 4 / 1-45

1. 김동호 주카메룬대사는 1989.5.11.~13. 겸임국인 적도기니에 출장함.

- 주요 결과
 - Obiang 적도기니 대통령의 방한 희망 표명
 - 한국의 ILO(국제노동기구) 가입에 대한 적극 지지 의사 확인
 - 한국의 세종대왕상 제안에 대한 적극 지지 방침 확인
 - 유엔 및 비동맹 등에서의 대한국 지지 입장 확보
 - 북방외교, 남북대화 등 한국정책에 대한 인식도 제고
 - 한국의 경제, 기술협력 제공에 대해 높이 평가

2. 김동호 대사는 1989.8.3. Obiang 대통령 재취임 경축식 및 국경일 행사에 참석함.

3. 김동호 대사는 1989.10.9.~14. 겸임국인 적도기니에 출장함.

- 주요 활동
 - Obiang 대통령 예방 및 Malabo 적도기니 수상 등 주요인사 면담
 - 적도기니 독립기념일(21주년) 행사 참석(10.12.)
- 주요현안 협의
 -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설명에 대해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
 - 한국의 유엔가입에 대한 이해를 촉구한데 대해 적도기니 외상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한 유엔가입 희망문안을 포함시켰다고 반응
 - 한국의 UPU(만국우편연합) 이사국 입후보 및 제21차 UPU 총회 유치 제의에 대해 지지 표명
 - 1990년도 한국의 무상원조 품목 협의

주과테말라대사 겸임국 온두라스 및 엘살바도르 출장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9-8/5/1-181

주과테말라대사의 1987~89년 중 겸임국 온두라스 및 엘살바도르 방문 결과임.

1. 문창화 주과테말라대사 엘살바도르 출장

- 제1차: 1987.1.23.~24.
 - 신년 외교단 행사참석 및 정세파악, 명예총영사, 기업격려
- 제2차: 1987.6.11.~15.
 - 원조물자 전달식(덤프트럭 10대) 및 상주공관 상호 설치 논의, 순회영사 실시
- 제3차: 1987.8.30.~9.2.
 - 제42차 유엔총회 지지 교섭 및 국제기구 입후보 지지 교섭
- 제4차: 1987.12.21.~23.
 - 상주공관개설 관련 창설요원 업무 독려

2. 문창화 대사 온두라스 출장

- 제1차: 1987.3.30.~4.1.
 - 원조물자 전달식(앰블런스 2대)
- 제2차: 1987.7.24.~28.
 - 제42차 유엔총회 지지 교섭 및 국제기구 입후보 지지 교섭
- 제3차: 1987.12.26.~29.
 - 원조물품 전달식(미니버스 2대)

3. 문창화 대사 겸임국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 출장(1988.2.15.~19)

- 이임인사 및 아국 상주공관 창설업무 독려

4. 조기성 주과테말라대사 온두라스 출장

- 제1차: 1988.7.30.~8.1.
 - 대통령 면담, 한국기업 진출문제 협의
- 제2차: 1988.11.5.~8.
 -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통상투자사절단 활동지원 및 주한 온두라스 상주대사관 개설협의
- 제3차: 1989.2.16.~19.
 - 원조물자(승용차 2대, 미니버스 2대) 기증 및 주한 온두라스 상주대사관 개설협의
- 제4차: 1989.7.25.~7.27.
 - 원조물자(컴퓨터 5대, 앰블런스 2대) 기증

민수홍 주바베이도스대사 겸임국 출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9-8/6/1-47

민수홍 주바베이도스대사의 겸임국(5개국) 방문 결과임.

1. 세인트루시아 및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출장

- 기간: 1989.5.3.~5.5.
- 세인트루시아 외상 및 총독을 방문, 이임인사와 함께 양국간 우호협력관계의 지속적 증진 다짐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총독, 수상 및 외무차관을 방문, 유엔에서의 지지, 국제기구에서의 한국후보 지지 요청

2. 앤티가바부다 및 세인트키츠네비스 출장

- 기간: 1989.5.10.~12.
- 앤티가바부다의 외무차관을 방문, 이임인사와 함께 공관철수 배경을 설명하고 양국관계의 지속적 증진 다짐
- 세인트키츠네비스 총독과 수상을 방문, 이임인사와 함께 양국관계 지속적 증진 다짐

3. 도미니카연방 출장

- 도미니카연방 수상의 국내 부재로 동 출장 취소

중화민국(대만)·중국 관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8 / 7 / 1-190

대만(구 중화민국)·중국 간의 1989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대만 정부의 1989.5.4.~6.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22차 ADB 총회 참석을 결정

- 대표단: 재정부 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12명의 대표단
- 국 명: Taipei, China
- 평 가: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와도 실질협력을 증진시키려는 대만 정부의 탄성외교로 평가

182

2. 1989년도 대만 정부의 대중국 개방정책 변화추이

- 1.29. 법무부, 해협양안 국민 관계 잠정조례 초안 완성
- 3.4. 대륙과 직접무역 거래를 한 상인에 무죄판결
- 3.27. 국민당 중앙평의 위원 성운 법사 대륙 방문
- 4.2. 전 대만 국적 국군 대만 영주귀환
- 4.5. 교육부, 대륙 인사 3인 대만 방문 허가
- 4.7. 중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청소년 체조선수권대회에 중화대북 명칭으로 참가
- 4.15. 대만·중국 언론사 간 정보교류협정 체결
- 4.25. 대만인의 중국 방문 시 여행자의 휴대물품을 대만과 베이징, 상하이 간 직송 합의
- 5.23. 대만 행정원, 조건부로 중국 공산당원의 대만 입국을 허용하는 조례 3개항 통과
- 6.28. 대만 전신국, 6.30.부터 대륙과 전보송신이 가능함을 발표

3. 중국의 라이베리아와의 외교관계 단절

- 중국 외교부는 라이베리아 정부가 대만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자 1989.10.10. 라이베리아와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 대만 정부는 라이베리아와는 신중한 고려 후에 복교한 것이기에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변화가 있을 수 없음을 밝힘.

네덜란드의 중국(대만)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문제, 1980-81

생산연도 1980-1981

생산과 서구담당관실

MF번호 2019-8/8/1-89

네덜란드의 대만(구 중화민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문제와 관련된 내용임.

1. 네덜란드의 대만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결정

- 네덜란드 정부는 1980.11.29. 긴급 각의를 개최, 대만에 5억 달러 상당의 전략물자 수출을 결정
- 로테르담 소재 RSV사에 대해 잠수함 2척 건조 판매, 원자력 및 재래식발전소 건설, 압축가스 항만터미널 설비 판매를 인가

2. 중국(구 중공)의 대응

- 한국화 중국 외교부차관은 1980.12.3. 주중국 네덜란드대사를 초치, 잠수함 수출허가 결정에 대해 구두 항의
- 잔찬명 중국 외교부차관은 1981.1.19. 양국간 외교관계를 대리대사급으로 격하시키는 결정을 주중국 네덜란드대사에게 통보하고, 동 대사의 출국을 요구

3. 네덜란드 하원의 결정취소 요구안 가결

- 네덜란드 하원은 1981.2.3. 정부의 대대만 잠수함 수출허가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77:70으로 가결
 - Van Agt 네덜란드 수상은 하원의 결의에 따라 정부입장을 추후 결정, 하원에 통보하겠다고 언급

4. 네덜란드 정부의 대만에 대한 잠수함 판매 결정

- 네덜란드 정부는 1981.2.17.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잠수함 판매를 강행한다고 발표
- 중국은 1981.5.5.부로 양국관계를 대사대리급으로 격하한다고 공표
 - 네덜란드도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5.11.부로 양국관계를 대사대리급으로 격하한다고 발표

Mulroney, Brian 캐나다 수상 소련 방문, 1989.11.20.-25.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8/9/1-146

Brian Mulroney 캐나다 수상이 1989.11.20.~25. 소련을 공식 방문함.

1. 일정

- 11.20. Ryzhkov 소련 총리 면담
- 11.21.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
- 11.22. 캐나다·소련 경제위원회 개최
- 키에프 및 레닌그라드 방문
 - 우크라이나계 캐나다인 80만 명을 고려한 방문

2. 방문 목적

-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 대한 지원을 적극 표명함으로써 그간 부진했던 캐나다·소련 관계 개선 도모
- 과학기술협력, 환경분야 협력협정 서명

3. 정상회담 결과(아래 요지의 정치선언 서명)

- 국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요구되는 양국의 공통적인 시각을 정립
- 국제관계 각 분야에서 캐나다·소련 간 협력
 - 동서관계, 군축, 인권, 환경 및 북극 협력 등
- 양국 관계증진을 위한 협력의 기본방향 제시
 - 통상, 경험, 정무협약, 과학 기술, 농업, 핵에너지, 문화, 우주, 마약퇴치
- Mulroney 수상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캐나다 방문 초청

4. 협정 체결

- Ryzhkov 총리와의 회담에서 투자보장협정, 환경협력협정, 군사교류협정 등 14개 협정 체결

5. 분석 및 평가(주캐나다대사 보고)

- 국제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동구지역 국가의 변화를 배경으로 고르바초프 하의 소련과의 관계증진 노력을 적극 과시함으로써 국제적 정치인으로서의 Mulroney 수상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고 대미편중 외교로부터 탈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인도네시아·중국 관계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8 / 10 / 1-40

인도네시아와 중국 간의 1988~89년 중 국교정상화 과정임.

1. 인도네시아·중국 국교정상화 합의에 관한 인도네시아 외무성 관계관 언급사항(1989.2.25.)

- 이번에 도쿄에서 국교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유엔에서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임.
- 이번 합의는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공개적으로 수락하였음을 의미함.
- 양국 유엔대사 간 공관설치 문제 등 협의가 이어질 것임.

2. 인도네시아·중국 국교정상화 합의에 관한 주홍콩총영사 보고(1989.2.28.)

- 인도네시아 측 입장
 - 과거 중국과 긴밀한 관계로 One China Policy 견지
 - 중국의 공산주의 지원에 대한 불신이 제거되면 관계정상화 못할 이유 없음.
- 중국 측 입장
 - 인도네시아와의 관계정상화 없이는 아세안과의 관계 확대 곤란
 - 경제개혁 추진에 인도네시아의 자원 등이 필요
- 수하르토·전기침 도쿄회담(1989.2월)
 - 인도네시아 측은 중국 측이 타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1965년도와 같은 공산주의 폭동사태 재발우려 등을 전달

일본·중국 관계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동북아1과/동북아2과

MF번호 2019-8 / 11 / 1-67

일본·중국 간의 1989년 중 주요 관계 동향임.

1. 이봉 중국 총리 일본 공식 방문(1989.4.12.~16.)

- 일본 방문 배경
 - 다케시다 일본 총리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
 - 중국의 경제개혁 정책 및 근대화 추진을 위한 일본·중국 간 경제기술협력 필요성 점증
- 주요 일정
 - 다케시다 수상과 회담(수상 주최 만찬)
 - 아키히토 일본 천황 예방(천황 주최 오찬)
 - 일본 경제단체 주최 강연, 내외신 기자회견 등
 - 후쿠오카시 개최 아·태 박람회 시찰
- 방문 결과
 - 일본 측이 일본·북한 관계 발전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요청한바, 중국 측은 중개역할 용의 표명
 - 일본 측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본인 남북대화를 무시하면서 일본·북한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을 것임을 언급
 - 아키히토 천황은 근대의 일본·중국 관계에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언급
 - 1988.8월 체결한 일본·중국 투자협정의 정식 발효에 합의하고 일본·중국 기술교류회의 및 투자촉진 기구설치에 합의

2. 일본·중국 우호의원연맹 의원단 중국 방문(1989.9.17.~19.)

- 의원단 구성
 - 이토 마사요시 회장 외 자민당, 사회당, 공명당, 민사당 의원 4명
- 방문 목적
 - 일본·중국 간 관계정상화를 희망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전달
 - 강택민 중국 공산당 총서기 등 새로운 중국 지도체제와의 우호관계구축
- 방문 평가
 - 천안문 사건 이후 최초의 정당 고위급 인사들의 중국 방문으로서 일본 정부 및 정계의 관계 정상화 희망의사를 중국 측에 전달

중국·소련 관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8 / 12 / 1-115

중국·소련 간의 1989년 중 관계 동향임.

1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상 중국 방문(1989.2.1.~4.)

- 주요 합의내용
 -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이 1989.5.15.~18. 중국 방문
 - 동 방문 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정상화를 달성하고, 양국 공산당 간 관계회복 도모
 - 캄보디아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성명 9개항을 발표하고 베트남군 철수과정을 철저히 감시하며, 가능한 조기에 캄보디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 도모
 - 양국간 국경선 긴장완화 대책으로 군사력 삭감을 위한 전문가 그룹 설치
 - 소련 측 동부국경 20만 명, 남부국경 6만 명 감축 및 몽고 주둔 소련군 감축 합의
- 분석 및 평가
 - 중국·소련 정상회담 개최일정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 중국·소련 대립을 전제로 외교를 수행해온 서방지역 국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2월말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대응이 주목됨.
 - 한국의 북방외교 수행에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됨.

2. 고르바초프 서기장 중국 방문(1989.5.15.~18.)

- 주요일정
 - 5.15. 베이징 도착, 양상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및 만찬
 - 5.16. 등소평 중국 중앙군사위 주석과 회담, 이봉 중국 총리 및 조자양 중국 총서기와 회담
 - 5.17. 인민대회당 연설, 기자회견
 - 5.18. 상하이 방문, 공동성명 발표 및 귀국
- 주요 협의내용
 - 정부 및 당 차원의 관계정상화 합의로 30여년 간의 대립관계 청산
 - 아태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패권주의 불추구
 - 베트남군 철수 후 중립 비동맹의 캄보디아 국가수립에 의견 일치를 보았으나 신정부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견 노정
- 관계 정상화 배경
 - 미국·소련 간의 긴장완화로 야기된 국제정세의 탈이념화 추세와 양국의 최대과제인 개혁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양국간 긴장완화를 필수적 요건으로 인식



- 관계 정상화 이후의 국제정세 전망
 -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변화가 야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중국·소련 3각 관계의 구조 변화 예상
 - 아태지역에 대한 소련의 진출 노력 및 지역에서의 발언권 강화 전망

Bush, George 미국 대통령 중국 방문, 1989.2.25.-27.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8 / 13 / 1-68

1989.2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하여, 주홍콩총영사관과 주미국대사관이 외무부에 보고한 사항임.

1. 방문 일정(잠정 파악)

- 2.25.
 - 베이징 도착
 - 양상군 중국 주석 면담 및 만찬
- 2.26.
 - 예배 참석
 - 이봉 중국 수상 면담
 - 등소평 중국 중앙군사위 주석 주최 오찬
 - 조자양 중국 공산당 서기장 면담
 - 부시 미국 대통령 주최 만찬
- 2.27.
 - 베이징 출발(서울 향발)

2. 극동 3국 방문에 관한 백악관 브리핑 내용

- 일본 방문, 방한 관련 사항이 주요 내용이며 중국 방문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음.
 - 부시 대통령은 베이징 연락사무소장 역임 이후 5번째 중국 방문
 - 이번 중국 방문은 미국·중국 관계가 우호적이며 안정되고 성숙된 것임을 과시하는 기회

조자양(趙紫陽) 중공 수상 아프리카 순방, 1982.12.20.-83.1.17.

생산연도 1982-1983

생 산 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8 / 14 / 1-157

조자양 중국 수상이 1982.12.20.~83.1.17. 아프리카를 순방함.

1. 순방 개요

- 순방국가(11개국)
 -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기니, 가봉,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콩고, 잠비아, 짐바브웨, 탄자니아, 케냐
- 수행원
 - 곡목 국무위원, 오학겸 외무장관 등 63명(기자 21명 포함)

190

2. 주요 합의사항

- 경제 및 군사원조
 - 이 집 트: F-7기 60~80대 조립생산 지원, 국제회의장 건설 참여
 - 콩고민주공화국: 1천만 달러 차관 상환연기
 - 콩 고: 제당공장건설 지원
 - 짐바브웨: 향후 5년 내 3,200만 달러 무이자 차관제공, 국립경기장건설 지원
 - 탄자니아: 철도건설 추가지원, 농기구·직물·미곡경작 프로젝트, 제당·연초 및 제화공장건설 등 지원, 탄자니아 혁명당 중앙당사건설 지원
 - 케 냐: 종합경기장 공사비 증액지원
- 정상 등 주요인사 초청
 - 이집트 및 가봉 대통령, 모로코 국왕, 콩고민주공화국 국회의장 방중 초청

3. 각국 반응

- 아프리카 역내국가
 - 에티오피아 등 순방대상국이 아닌 일부 국가는 중국의 4개 현대화계획 추진상 아프리카에 대한 대규모 경제원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
- 기타 주요국가
 - 영국 및 일본 외무성은 장기적으로 제3세계와의 관계강화 및 영향력 증대, 단기적으로 뉴델리 비동맹정상회의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외교적 포석으로 관측

인도·파키스탄 관계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서남아과

MF번호 2019-8 / 15 / 1-17

인도·파키스탄 간의 1989년 중 관계 동향임.

1. Menon 인도 외무차관이 1989.5.3. 파키스탄을 방문함.

- 인도·파키스탄 양국은 아프가니스탄 장래에 관하여 평화와 안전유지라는 공동 목표를 상호 확인
- 양국의 국경지역에서의 무기 및 마약밀수 문제 협의를 위한 내무차관회의 개최 합의

2. 인도·파키스탄 내무차관회담이 1989.5.14.~16. 뉴델리에서 개최됨.

- 국경지대에서 테러리스트 및 무기이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도 국경보안국과 파키스탄 국경유격대의 합동순찰을 실시하기로 합의

3. 인도·파키스탄 외무차관회담이 1989.6.1. 뉴델리에서 개최됨.

- 양국간 현안 등에 관해 2차에 걸쳐 협의
- 인도 측이 제안한 양국간 평화우호협력조약안과 파키스탄이 제시한 불가침협정안에 대해 협의

4. 인도 정부가 Abassi 주인도 파키스탄대사관 무관 준장을 간첩혐의로 추방함.

- 11.30. 국방관계 비밀문서를 전달하는 현장에서 체포하여 간첩행위 자백을 받고 12.1. 추방
- 이에 대해 파키스탄 정부는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파키스탄 주재 인도 외교관에 대하여 보복 추방조치를 취함.

5. 간디 인도 수상은 1989.12.29. SAARC(남아시아지역국가연합) 정상회의(12.30.) 참석 계기에 파키스탄을 방문함.

- 인도 정부는 동 정상회의에 앞서 동계 군사훈련을 취소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양국간 신뢰구축을 위한 분위기 조성
- 간디 수상은 동 방문이 파키스탄 신정부와 양국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양국간 상호대치 및 긴장상태의 지속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
-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 문화교류협정 등에 서명함.

다케시다 노보루(竹下登) 일본 수상 아세안 순방, 1989.4.29.-5.7.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8 / 16 / 1-56

다케시다 일본 수상이 1989.4.29.~5.7. 아세안 국가들을 순방함.

1. 순방 일정

- 태국(4.29.~5.2.), 말레이시아(5.2.~3.), 싱가포르(5.3.~4.), 인도네시아(5.4.~6.), 필리핀(5.6.~7.)

2. 주태국대사관 보고

- EC 및 미국·캐나다 간의 경제블록화 현상에 대응할 아·태지역 협력체 창설에 공감함.
 - 다케시다 수상은 동 협력체 형성시 미국 및 캐나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언급
- 캄보디아(구 캄푸치아) 문제 관련, 다케시다 수상은 중립·비동맹 캄보디아국가 설립지지
 - 캄보디아 문제 해결 후 태국 체류 캄보디아 난민 송환을 위한 재정지원 의사 표명
- 경제협력 지원 등의 논의는 없었으며, 양국간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 재확인

3. 주말레이시아대사관 보고

- 말레이시아의 대일본 차관 상환문제를 중점 논의함.
 - 연화 차관 이자율을 3.7%에서 2.9%로 하향 조정
- 말레이시아 측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관련, 일본 측이 무역자유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일본 측은 만찬사에서 세계에 기여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국제협력 이니셔티브를 제창함.

4. 주싱가포르대사관 보고

- 현안이 없어 주로 국제정세 및 일본의 대외 정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
- 일본 측은 국제협력 이니셔티브의 3대 골격을 중심으로 일본역할에 대한 구상을 설명함.
- 캄보디아 문제, 중국·소련 관계, 일본·미국 관계, 아·태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

5.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보고

- 일본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요청한 20억 달러의 Soft Loan과 111백만 달러의 기술 및 무상원조를 제공하기로 약속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본이 목제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일본·소련 관계

생산연도	1982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8 / 17 / 1-39

주일본대사관이 1982년 중 일본·소련 관계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 주요 외교활동 보고임.

1. 일본·소련 사할린 공동개발

- 사할린 석유가스 공동개발사업이 미국의 제재로 6월까지 착수되지 못할 경우, 소련은 일본을 제외하고 단독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5.29).
- 사쿠라우치 일본 외상은 미국에 대해 동 문제를 재고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함(6.3).
-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특별취급 요청에 대해 대소련 제재의 대강을 정하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라는 입장이며, 6월 중순까지는 미국으로부터 정식통고가 있을 전망이다(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함(6.8)).
- 파리 정상회담에서 대소련 신용공여제한이 합의되어 대소련 제재로 위기에 처해있던 사할린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업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하다고 일본언론이 보도함(6.8).

2. 일본·소련 외상회담(1982.10.4., 뉴욕)

- 회담 참가자
 - 사쿠라우치 일본 외상
 - 그로미코 소련 외상
- 주요의제
 - 북방영토문제
 - 그로미코 외상의 방일
 - 군축문제
 - 최근의 중국·소련 관계개선 움직임
 - 소련여류 일본어민 송환문제

다케시다(竹下) 일본 수상 미국 방문, 1989.2.1.-6.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8 / 19 / 1-62

다케시다 일본 수상의 미국 공식 방문(1989.2.1.~6.)에 관한 주미국대사관과 주일본대사관의 보고 내용임.

1. 주요 방미 일정

- 2.1. 케야르 유엔사무총장과 회담
- 2.2.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국·일본 정상회담
- 2.3. 라이트 미국 하원의장, 미첼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등 면담
- 2.6.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 예방

2. 미국·일본 정상회담 결과

- 미국·일본 관계가 양국관계를 넘어서 세계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데 의견이 일치함.
- 누적채무 문제, 지역분쟁 등에 있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
- 미국·일본 안보체제를 기축으로 한 협력관계를 견지하고 대소련 정책 추진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 양국 경제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의 내수확대,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 노력과 함께 경제마찰의 사전 해결을 위한 포괄적 협의기구 신설 등에 합의함.

3. 유엔사무총장 방문

- 케야르 유엔사무총장 방문 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일본의 기여금제공 용의를 표명하면서, 금년 중 일본에서 개최될 군축회의 등 국제회의에 관해 언급함.

4. 평가

- 이번 미국 방문은 부시 대통령 취임 후 첫 서방 선진국 정상외 미국 방문으로서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소련의 대서방 화해정책과 관련 긴밀한 정책협의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자유진영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미국·일본 간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없음.
 - 다케시다 수상은 부시 대통령의 조기 공식 일본 방문을 요청함.
- 동 방문으로 향후 양국간 긴밀한 정책협조 분위기를 조성함.

카이후(海部) 일본 수상 미주 순방, 1989.8.30.-9.10.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8 / 20 / 1-117

카이후 일본 수상은 1989.8.30.~9.10. 미국, 멕시코, 캐나다를 방문함.

1. 가이후 수상의 미국 방문(1989.8.30.~9.3.)

- 주요 일정
 - 정상회담
 - 샌프란시스코 북가주 일본협회 및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
 - 상하원 의회 지도자 면담
 - 기자회견
 - 주미국 일본대사 주최 만찬(부통령, 하원의장, 국방장관 등 127명 초청)
 - 알링톤 국립묘지 헌화
- 주요 협의 내용
 - 한반도 문제 관련 미국·일본 양국은 대북한 관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태도 경색으로 당분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상함.
 - 미국 측은 대일본 무역적자 해소를 촉구하고, 일본 측은 슈퍼 301조 대일본 제재 자제를 요청함.
 - 양국은 소련의 평화공세에 대한 공동대처를 확인하고 중국의 개혁개방노선의 지속유지를 위한 공동보조에 합의함.
- 평가
 - 미국·일본 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함.
 - 통상문제 관련 미국 측의 대일본 강경자세 표명으로 금후 통상문제가 미국·일본 양국간의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임.

2. 가이후 수상의 캐나다 방문(1989.9.6.~8.)

- 주요 일정
 - 정상회담 및 합동기자회견
 - 캐나다 총독 예방
 - 캐나다 수상 주최 만찬
 - 밴쿠버 방문
- 주요 협의내용
 - 양국간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
 - 캐나다 측은 유자망 어업 조업규제에 대한 일본 측의 협조를 당부함.

미국·소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문제 협의회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8 / 21 / 1-170

미국과 소련 간의 1987~89년 중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문제에 관한 정책협의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됨.

1. 제1차 정책협의회(1987.9.10.~11., 모스크바)

- 참석자: 시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로가체프 소련 외무차관
- 미국 측은 북한의 서울올림픽 참가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하였으나, 소련 측은 북한지지 등 한반도 문제에 관한 종래 입장을 고수함.
- 소련 측은 미국·북한 간 직접대화를 요구하는 북한 측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제시한바, 미국 측은 즉석에서 거부함.

2. 제2차 정책협의회(1988.4.25.~26., 파리)

- 참석자: 시거 차관보, 로가체프 외무차관
- 미국 측은 한국의 확고한 정치발전예 비해 북한이 고립화를 자초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KAL기 폭파사건으로 미국은 새로운 대북한 이니셔티브를 취할 용의가 없음을 밝힘.
- 소련 측은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을 궁지에 처하게 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언급함.
- 미국 측은 서울올림픽 관련, 한국이 북한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고 있음을 지적함.

3. 제3차 정책협의회(1988.11.2.~3., 파리)

- 참석자: 시거 차관보, 로가체프 외무차관
- 소련 측은 서울올림픽의 성공에 만족을 표시하고 동 올림픽의 성공 및 안전개최를 위한 소련 측의 노력을 강조함.
- 미국 측은 북한에 대한 테러국가 지정 및 상업적 교역금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함.
- 소련 측은 한국의 북방정책이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한다는 북한 측의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함.

미국·소련 관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동구과

MF번호 2019-9 / 1 / 1-270

미국과 소련 간의 1989년 중 개최된 외무장관회담 관련 내용임.

1. 미국·소련 외무장관회담이 1989.3.7.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됨.

- 미국·소련 양국 외무장관은 양자문제, 군축문제, 지역문제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였으나, 양국 장관 간의 상견례가 주목적이었음.
 - Baker 미국 국무장관은 세바르나제 소련 외상에게 소련 개혁의 성공여부는 미국이 아니라 소련에 달려있다고 언급함.
 - 5월 중순 이전에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회담을 갖기로 합의함.

2. 미국·소련 외무장관회담이 1989.5.10.~11. 소련 모스크바에서 개최됨.

- 라우니 미국 대통령 군축특보대사가 1989.5.16.~17. 방한하여 동 회담 결과를 아래와 같이 한국 측에 설명함.
 - (한반도 문제)
 - 미국 측은 소련의 대북한 신예무기 공급 중지와 북한의 테러정책 포기 및 북한의 미사일 수출 억제를 위한 소련의 영향력 행사를 요청함.
 - 소련 측은 한국과의 경제협력강화 희망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언급함.
 - (소련에 대한 미국 측 평가)
 - 소련의 개방정책에는 진전이 있으나, 경제개혁에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미국·소련 외무장관회담이 1989.9.22.~23. 미국 와이오밍에서 개최됨.

- 세바르드나제 외상은 동 회담에 앞서 부시 미국 대통령을 예방함.
- 군축, 지역문제, 인권, 양자관계, 다자관계의 5가지 의제를 협의함.
- 1990년 봄~초여름 중 미국에서 미국·소련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함.
- 양국간 최대현안인 군축문제의 진전을 통해 상호신뢰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적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

미국·소련 정상회담. 몰타, 1989.12.2.-3.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북미과/동구과

MF번호 2019-8 / 22 / 1-280

1989.12.2.~3. 몰타에서 개최된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정상회담과 관련, 동 회담 전에 한·미국 정상 간 전화통화, 회담 후에는 솔로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방한하여 회담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함.

1. 한·미국 정상 간 전화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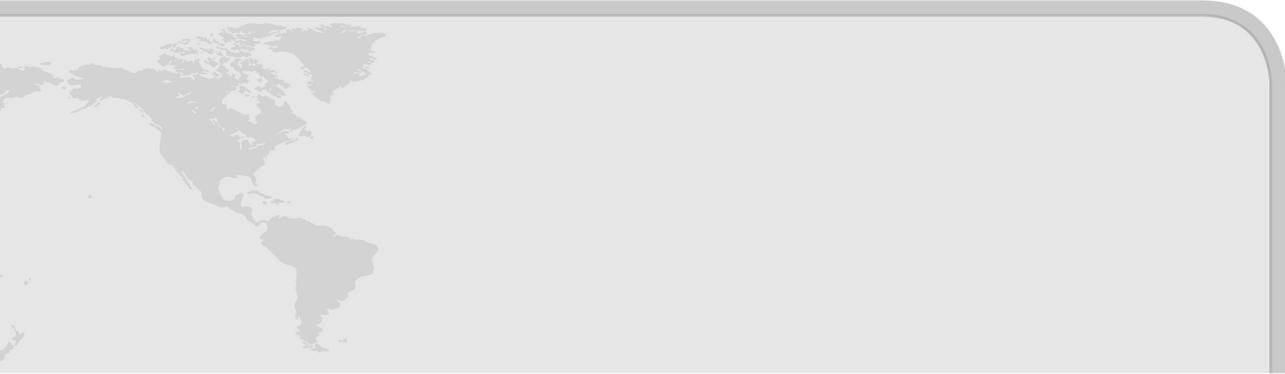
- 영국 런던에 체제 중이던 노태우 대통령은 1989.11.30.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북방외교에 대한 소련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줄 것을 요청함.
 - 북한이 극도의 패쇄상태를 벗어나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이 되도록 소련으로 하여금 북한 설득을 요청함.

2. 몰타 정상회담 결과

- 두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 미국·소련 간 새로운 협력시대 개막을 선언함.
- 소련은 동구국가의 민주화와 경제개혁에 대한 불간섭을 약속하고 동구국가의 선택의 자유권을 인정함.
- 미국은 동구국가의 개혁사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함.
- NATO 및 바르샤바조약기구 동맹의 장래는 유럽의 안정에 저해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협의하기로 함.
 - 유럽의 국경변경 불가 및 독일 문제의 단계적이고 질서 있는 변화 천명
- 핵무기 50% 감축을 내용으로 한 전략무기감축협정 목표에 합의함.
- 미국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의 성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함.
- 의의 및 평가
 - 새로운 동·서 관계 구축으로 소련은 동구국가들의 주권 존중을 천명함.
 - 주요 군축일정을 합의함으로써 실질 군축의 가능성을 보임.
 - 미국·소련의 새로운 협력시대 개막과 함께 군축, 인권 등 양자관계에서 획기적인 진전의 발판이 마련됨.
- 한반도 관련 사항
 -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개방을 촉구하는 한국 측의 대소련 메시지를 거론함.

3. 솔로몬 차관보 방한

- 방한 기간
 - 1989.12.7.~9.



- 주요 일정
 - 대통령 및 외무부장관 예방
- 방한 목적
 - 몰타 미국·소련 정상회담 결과 설명

한·가이아나 관계개선

생산연도 1979-1989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9-9 / 2 / 1-324

한·가이아나 간의 1979~89년 중 관계 개선 추진 경과임.

1. 한국은 1966.5월 가이아나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바 있으나, 1978.7월 양국 외교관계가 동결됨.
2. 정부는 가이아나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1986년 및 1987년 유엔총회 계기에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실현함.
 -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1986.9.30. 유엔본부에서 Esmond Jacson 가이아나 외상에게 한·가이아나 간 외교관계 정상화를 요청함.
 - Jacson 외상은 관계정상화 제의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한국 측이 제안한 한국경제 사절단의 방문은 접수하기로 함.
3. 조광제 주베네수엘라대사(가이아나 겸임)가 1989.1.24. Hoyte 가이아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으로써 10년간 동결되어온 한·가이아나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됨,
 - 조광제 대사의 신임장 제정 시 Hoyte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평가하고 가이아나 자원개발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희망함.

국교수립 - 헝가리, 1989.2.1. 전8권 (V.1 관계 개선추진, 1973-87)

생산연도 1973-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9/3/1-120

한·헝가리 간의 1973~87년 중 관계 개선 추진 경과임.

1. 재외공관에서의 접촉

- 양국의 해외 주재 공관장 및 공관원 간 접촉(리셉션 초청 등)을 통한 교류 가능성을 모색함.
 - 외무부는 주오스트리아대사관 및 주제네바대표부를 교섭 공관으로 지정

2. 미국 정부의 지원

- 미국 정부가 1982.10.12.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한국과 헝가리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바, 정부는 11.5. 미국 측에 추진 동의 의사를 전달함.
- Bergold 주헝가리 미국대사는 12.9. Hazi 헝가리 외무차관을 예방하고 한국과의 관계개선이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들면서 한국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권유함.
 - Hazi 외무차관은 남북한 간에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적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한국과 직접 협상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보적 반응을 보임.
 - 다만, 동 차관은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는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암시함.
- 한국 외무부 구주국장이 미국 측의 도움으로 1983.11.15.~16. 헝가리에서 개최된 국제경제관계 회의에 참석함.

3. 서독 정부의 지원

- Pfeffer 서독 외무성 차관보는 1985.2.25.~26. 헝가리 방문 계기에 Hazi 차관에게 아래와 같은 한국 정부의 희망을 전달함.
 - 양국간 비정치분야 교류를 통한 실질관계 증진
 - 증가하는 통상분야의 인사교류 확대
 - 직교역 조기 실현
- Pfeffer 차관보는 귀국 후 주서독대사에게 자신이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헝가리 정부의 입장을 문의한데 대하여 Hazi 외무차관이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수용적이나 조심스러운 태도를 표시하였다고 언급함.

4. 상주무역사무소 상호개설 추진

- 1987.8.25. 박영수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 헝가리를 방문하여 헝가리 상공회의소와 업무협력합의서에 서명함.



- 11월 헝가리 무역사무소의 서울 설치와 12월 KOTRA의 헝가리 무역사무소 설치 추진
- 조창범 외무부 동구과장이 부다페스트 박람회에 참가하는 민관통상대표단의 일원으로 1987.9.18.~22. 헝가리를 방문하여 헝가리 외무성 간부를 면담하고 양국 교류증진 문제를 협의함.
- 헝가리 국제문화교류처장이 1987.11.10. 한국 국제문화교류협회 초청으로 방한함.

국교수립 - 헝가리, 1989.2.1. 전8권 (V.2 수교추진, 1987-88)

생산연도 1973-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9 / 4 / 1-302

한·헝가리 간의 1987~88년 중 국교수립 추진 경과임.

1. 수교추진교섭단 헝가리 방문

- 1988년 정부는 6·23 선언 및 북방정책 추진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동구권국가 중에서 우선 헝가리와의 관계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게 됨.
 - 정부는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하여 특사단 방문 시 협상안과 대표단 구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
- 박철언 대통령 정책담당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1988.7.6.~8. 헝가리를 방문하여 헝가리 수상, 부수상 등을 면담하고 협상을 진행함.
 - 그로스 수상은 경험을 시작으로 한 단계적 점진적 수교를 희망함.
 - 경험 방안은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함.
 - 그러나 대표단 방문 중에 헝가리 정부가 사회주의국가 중 최초로 88 서울올림픽 참가를 발표하여 긍정적 분위기는 유지됨.

2. 미국 정부의 지원

-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그로스 수상의 미국 방문(1988.7.21.~28.) 기회에 솔츠 미국 국무장관이 한·헝가리 외교관계 정상화를 권고하는 메시지를 동 수상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 솔츠 장관의 메시지 전달에 대해 동 수상은 헝가리의 88 서울올림픽 참가를 위한 정부관리 1명 파견의 의미를 강조함.

3. 상주대표부 개설협정 교섭을 위한 헝가리 대표단 방한

- Ferenc Bartha 헝가리 국립은행장을 단장으로 하는 2차 협상대표단이 1988.8.9.~12. 서울을 방문하여 노태우 대통령 등 인사들을 면담하고 교섭을 진행함.
- 헝가리 측이 1단계로서 영사 및 무역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할 대표부 설치 추진을 제의하여, 양측이 상주대표부 교환 개설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한국대표단이 헝가리를 방문하여 상주대표부 개설협정에 서명하기로 함.
- 또한 양측은 상주대표부 설치 이후에 즉각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기로 함.

국교수립 - 헝가리, 1989.2.1. 전8권 (V.3 한·헝가리 상주대표부 개설협정교섭 대표단 헝가리 방문, 1988.8.24.-27.)

생산연도 1973-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9/5/1-151

한·헝가리 상주대표부 개설협정 교섭을 위해 민형기 외무부 구주국장을 교섭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1988.8.24.~27. 헝가리를 방문함.

1. 훈령

- 한·헝가리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협정 타결 및 서명
- 외교관계 수립 시 신임장 제정만으로 곧바로 대사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무리
- 협정 내용에 관한 사항
 - 무역, 영사기능 및 기타 공적 대표기관으로서의 활동 수행(엄격히 공식적인 외교기능 제외)
 - 5~9명 규모의 외교관 등 파견
 - 가급적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준용하여 최대범위의 지위 부여
 - 실제 설치는 국내절차를 필하는 대로 가급적 조속히 실시

204

2. 협정 서명

- 양국 수석대표는 1988.8.26. 한국 측 협정문안을 전폭적으로 반영한 협정문에 서명
 - 대표부 및 공관 구성원(대표 및 직원)에 외교권 지위 부여, 국기 사용, 외교관 차량번호 부여 등
- 협정문 교환은 1988.9.13. 서울에서 실시하고 동일자로 대외 발표
 - 상주대표부 설치 합의사항과 조속한 시일 내 외교관계 수립 협상 개시 내용 포함
- 상주대표부 설치는 1988.9.13. 협정 발효 이후 가능

국교수립 - 헝가리, 1989.2.1. 전8권 (V.4 상주대표부 설치, 1988)

생산연도 1973-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9/6/1-317

한·헝가리 간의 상주대표부 설치 경과임.

1. 상주대표부 설치협정 발효

- Sandor Etre 헝가리 대사가 1988.9.10.~19. 한국을 방문하여 9.13. 외무부에서 개최된 상주대표부 설치 협정문 교환식에 참석함.
 - 외무부장관, 대통령 정책보좌관 등 인사 예방, 산업시설 및 관광지 시찰, 9.17. 올림픽 개막식 참석 등 일정을 가짐.
- 협정문
 -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협정
 - 구성: 전문 및 19개 조항
 - 기능: 대표부 지위와 기능을 실질적 면에서 대사관의 경우와 같도록 함.
- 대외 발표
 - 최호중 외무부장관이 1988.9.13.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함.

2. 상주대표부 설치 추진

- 한국대표부 상주대사대리로 함명철 참사관이 1988.10.24. 현지에 부임하여 10.25. 상주대표부를 개설함.
 - 상주대표부는 헝가리뿐만 아니라 소련, 유고슬라비아, 동독,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을 외교 및 영사관할구역에 포함함.

3. 상주대표부 설치에 대한 반응

- 북한이 대표부 설치를 맹비난함에 따라 헝가리 외무부차관이 10월 중순 김평일 북한대사를 외무부에 초치하여 항의를 표명함.
 - 김평일 대사가 평양으로 소환되고 헝가리 외상의 평양 방문도 취소됨.
- 국내 언론은 사회주의국가인 헝가리와의 대표부 설치 합의가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보도함.

국교수립 - 헝가리, 1989.2.1. 전8권 (V.5 신동원 외무부차관 헝가리 방문, 1988.12.27.-29.)

생산연도 1973-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9 / 7 / 1-314

한·헝가리 간의 국교수립 교섭을 위하여 신동원 외무부차관이 1988.12.27.~29. 헝가리를 방문함.

1. 양국간 외무차관 교환방문 추진

- Etre 헝가리 외무부대사(한국 주재 대표부 대표로 내정)가 1988.11.22. 함명철 주헝가리대표부 대사대리에게 양국간 외무차관 교환방문 검토를 제의하였다고 주헝가리대표부가 외무부에 보고함.
 - 이에 대해 외무부는 11.25. 외무차관 교환방문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헝가리 측의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교섭 지연에 우려를 표명하고 헝가리 측의 의도를 파악하도록 동 대표부에 지시함.
- 서울에 부임한 Etre 상주대표는 12.7. 외무부장관대리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Horn 헝가리 외무차관 명의의 신동원 외무부차관 헝가리 방문 초청장을 전달함.
 - 12.19. 시작되는 주에 헝가리에서 협의를 가지기를 희망하며 수교문제에 대한 합의가 가능함을 언급함.
 - 외무부는 신동원 차관이 1988.12.27.~29. 헝가리를 방문하며 양국 외무차관회담 결과를 합의의사록 형식으로 서명할 것을 헝가리 측에 제의하여 합의됨.
 - 헝가리 측은 Horn 차관이 1989.1월 방한 시 서명할 수교를 위한 의정서 안을 한국 측에 제시함.

2. 신동원 외무부차관 헝가리 방문(1988.12.27.~29.)

- 신동원 차관은 1988.12.29. 개최된 양국 외무차관회담에서 조속한 수교원칙, 각종 협정체결 추진, 공관청사 상호교환 원칙 등 회의 내용을 담은 합의의사록에 서명함.
 - Horn 차관의 1989.1.28. 방한 시 양측이 수교의정서에 서명하여 양국관계를 2월 중순 이전에 공식 외교관계로 격상하기로 함.
- 신 차관은 헝가리 체류 중에 Groz 헝가리 공산당 서기장 예방, 헝가리 국영 TV와의 인터뷰 등 일정을 가졌으며, 국내외 언론은 양국간 조기 수교 가능성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함.

국교수립 - 헝가리, 1989.2.1. 전8권 (V.6 신동원 외무부차관 헝가리 방문자료)

생산연도 1973-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9/8/1-173

한국·헝가리 간의 국교수립 교섭을 위한 신동원 외무부차관의 헝가리 방문(1988.12.27.~29.)
자료임.

1. 회담 예상 주제에 관한 발언자료 및 참고자료

- 국제정세일반, 동북아 정세, 한국 정세, 남북대화 현황, 헝가리 개황, 대사관 현황 등

2. 각종 협정 교섭에 관한 관계부처 자료

- 이종과세협정, 무역·경제협정, 과학기술협정, 가족위생협정, 문화협정, 항공협정, 사증면제협정 등

3. 기타 자료

- 오만찬 축사, 고위인사 예방 시 사용할 발언자료, 헝가리 TV기자회견자료 등

국교수립 - 헝가리, 1989.2.1. 전8권 (V.7 Horn, Gyula 헝가리 외무담당 국무비서 방한, 1989.1.28.-2.1.)

생산연도 1973-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9/9/1-369

Horn 헝가리 국무상이 1989.1.28.~2.1. 방한함.

1. 방문 목적 및 일정

- 방문 목적
 - 양국 외무차관회의에서 합의한 수교의정서 및 기타 협정 서명
 - 대통령 등 고위인사 면담 및 산업시찰
- 주요 방문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등 고위인사 면담 및 연회 개최
 - 삼성전자 등 산업시설 시찰
 - 수교의정서 및 협정 서명
 - 주한 헝가리대사관 현판식 개최
 - 강연 및 기자회견

2. 방문 결과

- 노태우 대통령 예방(2.1.)
 - Groz 헝가리 공산당 서기장 겸 수상의 친서 전달
 - 노 대통령이 양국 정상회담 개최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함에 대하여 Horn 국무상은 귀국 즉시 건의하여 초청장을 발송하겠다고 언급
- 외무부장관 및 외무부차관과의 비공식 회담(1.30.)
 - 양국간 관계강화에 합의
 - 외무부장관의 헝가리 방문 추진
 - 국장급 정책협의회 개최
 - 경제, 문화, 체육, 관광 등 제반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 수교의정서 서명
 - 1989.2.1.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Horn 국무상이 수교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수교가 성립
- 협정 체결
 - 문화협력협정, 외교관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협정,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

국교수립 - 헝가리, 1989.2.1. 전8권 (V.8 후속조치 및 국내외 반응)

생산연도 1973-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9 / 10 / 1-202

한·헝가리 간의 국교수립(1989.2.1.)에 따른 후속조치와 국내·외 반응임.

1. 후속조치

- 주헝가리대표부를 대사관으로 격상하기 위한 조치
 -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89.2.2. 국무회의에 상정
 - 주헝가리대표부가 1989.1.31.자로 그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주헝가리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신청
 - 2.1. 주헝가리대사관 현판식 개최
 - 외교공한 및 보도자료를 통하여 헝가리 외무부, 외교단 및 언론에 통보
- 대외 공고
 - 외무부는 2.1. 한·헝가리 외교관계 수립 발표문을 언론에 배포하고 전 재외공관에 동 사실을 통보
 - 주유엔대표부는 수교의정서 및 주요협정 서명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2. 국내외 반응

- 북한
 - 헝가리 정부가 한국과의 수교 방침을 북한에 통보하자, 북한은 남북대화 진전 시까지 보류해줄 것을 요청
 - 북한은 평양 주재 헝가리대사관을 대리대사급으로 격하할 것을 헝가리 정부에 요구
 - 북한 노동신문은 1989.2.18. 논평을 통하여 헝가리를 신랄하게 비난
- 언론 보도
 - 헝가리, 미국, 일본 등의 해외언론은 사회주의 국가 최초로 한국과의 수교 의의를 평가
 - 국내 언론들은 공산권 진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
 - Horn 헝가리 국무상은 2.3. 헝가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헝가리 방문 문제가 거론되었으며 1989년 중에 가능하다고 언급

국교수립(교섭) - 이라크

생산연도 1964-1980

생 산 과 중동담당관실

MF번호 2019-10 / 1 / 1-204

한국의 1964~80년 중 대이라크 관계개선 노력에 관한 내용임.

1. 한국은 1970년대까지 미수교국 이라크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함.

- 1974.2월 차지철 국회 내무위원장 명의로 주일본 이라크대사를 방한 초청하였으나, 동 대사의 사정으로 연기됨.
- 1975.5.8. 주일본 이라크대사는 주일본대사 면담시, 상기국회 내무위원장의 초청 추진 등을 양국간 관계개선을 위한 좋은 계기로 여기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무역관계 확대 등으로 접근 시도함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함.
- 주요르단대사는 1976.12.29.~77.1.3. 이라크에 방문하여 이라크 외무성 의전부국장 및 유력 변호사 등을 면담하고 양국간 관계개선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함.

2. 1980년 마련된 대이라크 관계개선 방안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급격한 접근시도보다는 건설,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실질협력 강화로 협력자로서의 이미지 부각
- 개선 방안(3단계)
 - 실질협력 강화(바그다드 국제박람회 참가, 런던·이라크 세미나 참석, 주일본 이라크대사 방한 초청, 주이라크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소 설치 추진, 이라크 사절단 유치 등)
 - 통상대표부 또는 영사관 설치 추진
 - 외교관계 수립

국교수립(교섭) - 이라크

생산연도	1981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9-10 / 2 / 1-246

한·이라크 양국은 1981.4.15. 영사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상대국에 총영사관을 각각 설치함.

1. 외무부는 1981.1.10. 주일본대사에게 이라크와의 관계개선 원칙을 전달하면서 주일본 이라크대사 접촉시 대이라크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것을 지시함.
 - 1980.10.10. 북한의 대이란 무기지원으로 이라크와 북한이 단교함.
2. 외무부장관은 대통령 방미 수행시 1981.2.2. 주미국대사 주최 리셉션에서 Muyad Gallab 주미국 이라크이직대표(대사)를 면담하고, 한국의 수교의사를 전달함.
 - 해외 주재 한국대사들(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 주미국대사 등)도 현지 이라크대사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함.
3. Hamoodi Al-Daraji 주사우디 이라크대사는 1981.3.22.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을 통해 양국간 영사관계수립에 동의함을 알려오면서, 한국 정부 입장을 정식 공문으로 회보해줄 것을 요청함.
 - 이라크 정부는 한국과의 전면 외교관계 개설에 앞서 점진적 관계개선 전 단계로 영사관계수립 및 총영사관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
4. 한·이라크 양국은 1981.4.15.자로 총영사급 영사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이라크는 Riyadh Ali Al Azawi 총영사를 임명·통보해 옴.
 - 6.26. 서울 이라크총영사 부임

국교수립 - 이라크. 전3권 (V.1 1985-87)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9-10 / 3 / 1-268

한·이라크 간의 1985~87년 중 국교수립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관한 내용임.

1. 관계개선 추진현황

- 1981.4.15. 양국 영사관계 수립
- 1981.9월 이후 유엔총회 계기 4차례 외무장관회담 개최
- 1982.7월 이후 5차례 한국 국무총리와 Ramadhan 이라크 부수상 간 친서 교환

212

2. 이라크 측 경험제외에 대한 한국 측 최종입장 전달(1985.4.23.)

- 신병현 부총리는 Ramadhan 이라크 제1부수상 앞으로 아래 요지의 서한 전달
 - 건설공사 금융지원, 상품 연불수출, 원유도입 등 항목별로 구체적인 한국입장 제시
 - 이상 제반사항은 한국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가능한 최대의 조치임을 강조
 - 기 체결된 양국간 무역 및 경제기술협력 협정에 따른 경제협력 및 관계증진 의사 표명

3.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 이라크 방문(1987.4.17.~20.)

- 박수길 차관보는 Aziz 이라크 외무장관 등을 면담, 조속한 양국관계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래와 같이 한국 측 입장을 제의
 - 1989년 유엔총회 계기 한·이라크 외무장관회담 개최
 - 동 외무장관 회담 직후 양국 수도에서 양국관계 격상을 동시 발표
 - 외무부장관의 이라크 방문

4. 수교관련 Aide-Memoire 전달(1987.7.7.)

- 주바드다드총영사가 Al-Bayrakdar 이라크 외무성 정무국장에게 양국 수교와 관련한 한국 측 입장을 담은 Aide-Memoire를 전달
 - 영사관계수립 이래 양국관계 계속추진에 만족표명
 - 제협정 체결을 포함한 양국간 경제관계 강화는 우호관계 발전에 이미 크게 기여
 - 관계 격상에 관한 기존 한국입장 재표명: 선 수교 후 경험확대
 - 관계 격상 조기타결을 위한 한국 측 제안 재확인: 1989년 유엔총회 계기 양국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수교 합의, 외무장관회담 직후 양국 수도에서 관계격상 동시 발표, 관계격상 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외무부장관 이라크 방문, 국무총리의 이라크 방문은 수교 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추진



5. 한·이라크 외무장관회담 개최(1987.9.28. 뉴욕)

- 최광수 외무부장은 Aziz 이라크 외무장관과 양국간 수교문제에 관해 회담
 - 한국 측은 양국관계의 격상 필요성을 언급
 - 이라크 측은 양국관계 격상에 어려움은 없으나, 그 준비과정에서 기술적, 행정적 문제 검토를 요망

국교수립 - 이라크. 전3권 (V.2 1988-89)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9-10 / 4 / 1-386

한·이라크 양국은 1989.7.9.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함.

1. 양국 외무장관 면담(1989.1.9., 파리)

- 최호중 외무부장은 화학무기 관련 회의 계기에 Aziz 이라크 외무장관을 면담, 양국간 수교문제에 관해 협의
 - Aziz 장관은 양국 수교에 문제가 없으며, 행정절차만 남아있다고 언급하고 최호중 장관의 이라크 방문을 희망
 - 최 장관은 외교관계 수립의정서 합의 시 이라크 방문 용의를 표명한바, Aziz 장관은 동 의정서의 조속 합의를 위한 조치 약속

2. 외무부는 한·이라크 외교관계 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1989.7월)

- 최호중 장관이 이라크를 방문(1989.7.8.~10.)하여 7.9. Aziz 장관과 함께 양국간 영사관계를 외교관계로 격상한다고 공동 발표
 - 7.9.자로 현 주바그다드총영사를 대사 임명 시까지 대사대리로 임명
- 평가 및 전망
 - 이란·이라크 휴전 이후 전후복구를 위한 이라크의 대외협력 필요성 증대
 - 88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이라크의 대한민국 인식 개선
 - 양국간 외교현안의 타결로 우호협력관계 진전 및 전후 복구사업에 대한 한국기업 진출기반 확대
- 조치 예정사항
 -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을 주이라크대사관으로 명칭 변경
 - 주이라크대사 임명
 - 주한 이라크대사 접수

3. 최봉림 신임 주이라크대사는 1989.10.30. Ibrahim 혁명위 부의장을 통해 S. Hussein 이라크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최봉림 대사는 초대대사로서의 중책을 느끼며, 배전의 노력으로 양국관계 증진에 헌신하겠다고 언급
 - Ibrahim 부의장은 최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총영사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한·이라크 양국관계, 특히 경제관계 증진에 보다 더 큰 힘을 써주기를 당부

국교수립 - 이라크.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85-1989

생산과 중동과

MF번호 2019-10 / 5 / 1-196

한·이라크 간의 수교와 관련된 각종 자료가 수록됨.

1. 한·이라크 영사관계 수립(1981.4월)
2. 한·이라크 간 무역 및 경제기술 과학협력협정(1983.7월 발효)
3. 한·이라크 간 특별공급 재정의정서(초안)(1984년)
4. 한·이라크 양국 고위인사 간 친서 서한(1981.11~87.4월)
 - 전두환 대통령의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앞 친서(1982.12.7.)
 - 국무총리와 라마단 이라크 부수상 간 친서(1982.7~85.9월)
 - 외무부장관의 Aziz 이라크 외상 앞 친서(1984.4~87.4월)
5. 한·이라크 수교문제 및 국무총리 이라크방문 교섭현황(1987.4월)
 - 1981.4.15.~87.4.20. 양국간 주요 외교교섭 일지
6. 한국과 이라크, 이란과의 경제관계 비교표(1987.4.30.)
7. 한·이라크 수교 및 국무총리 이라크 방문 문제 관련 양측 입장 비교표(1987.5월)
8. 양국간 수교 관련 한국 측 Aide-Memoire 문안(국, 영문)(1987.7월)
9. 한·이라크 수교합의 한국 측 발표문(영문)(1989.7월)

한·모잠비크 관계 개선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9-10 / 10 / 1-198

한·모잠비크 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관한 내용임.

1. 주스와질랜드대사, 대모잠비크 공여물품 기증식 참석(1989.6.1.)

- 주스와질랜드대사는 1989.5.31.~6.3. 모잠비크에 출장, 무상원조 물품(약 20만 달러 상당의 군화)기증식에 참석
 - 주스와질랜드대사는 기증사에서 양국간 협력을 통한 관계 정상화를 희망
 - Manguera 모잠비크 국방부 국무상은 금번 원조를 계기로 양국관계가 높은 차원으로 진전될 것을 확신한다고 언급

2. 외무부, 주스와질랜드대사에게 대모잠비크 수교 제의 훈령 하달(1989.8.10.)

- 모잠비크의 정치, 경제정책 전환과 제반 국제정세 추이 및 한국의 제3세계 국가와의 관계를 감안, 모콩비 모잠비크 외상을 면담하여 양국 수교문제를 공식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음을 설명
 - 후속조치로 특사 또는 사절단을 파견하여 구체적 문제를 협의하자는 입장을 전달

3. 주스와질랜드대사, 모잠비크 방문(1989.10월)

- 주스와질랜드대사는 송학원 외무부 대사와 함께 모잠비크 방문
 - 모잠비크 협력부장관에게 수교희망 의사 전달

4. Mazive 모잠비크 외국투자진흥청 부청장 방한(1989.10.14.~24.)

- 한국 KDI(한국개발연구원) 주최 연찬회에 참석
 - 방한기간 중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 수출입은행, 관련 민간회사 등 방문

5. 주스와질랜드대사, Sumbana 주스와질랜드 모잠비크대사 면담결과 보고(1989.11.30.)

- Sumbana 대사는 모잠비크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성취시키기 위해 전선국가 등 아프리카 우방국들과의 사전협의를 진행하는데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언급

6. 외무부, 북한인 귀순 발표(1989.8.17.)

- 한국과 미수교국인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북한 농업기술대표단 통역요원으로 근무 중인 북한인이 모잠비크에 입항 중이던 외국선박에 밀송선 후 한국에 귀순을 요청
 - 한국 정부는 동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귀순을 허용
 - 동인은 1989.8월 서울에 도착

국교수립 - 폴란드. 전6권 (V.1 관계개선, 1972-87)

생산연도 1972-1989

생산과 동구과

MF번호 2019-10 / 11 / 1-294

한·폴란드 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1972~87년)에 관한 내용임.

1. 재외공관의 폴란드 인사 접촉 및 관련 동향 보고

- 이창수 주스웨덴대사관 참사관, 주스웨덴 폴란드 외교관 면담 및 폴란드 입국비자 발급가능성 타진(1972.9.8.)
- 주베트남(구 월남)대사, Bogdan Wasilewski 폴란드 대사와 만찬(1973.8.3.)
 - 폴란드대사는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가능하다고 하고, 남북한 간의 관계가 개선되어 유엔에 동시가입하면 외교관계는 곧 수립될 것이라고 언급
- 정규호 주터키대사관 참사관, Henryk Matuszkowiak 폴란드 외교관 만찬(1977.5.13.)
 - 동 외교관은 한·폴란드 직접교역 제의에 대해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며, 이데올로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
- 주터키대사, 폴란드대사 접촉보고(1980.3.4.)
 - 폴란드대사는 한국과 공식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 이병록 주덴마크대사관 참사관, 폴란드 상무관 접촉보고(1980.3.28.)
 - 양국간 직교역 추진 및 폴란드 내 한국무역사무소 설치문제 등에 관한 의견교환
- 최동진 주영국대사관 공사, Korzonek 폴란드 해운경제장관 면담(1983.5.20.)
 - 동 장관은 한국과 간접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비정치적분야에서 자주 접촉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언급
- 주네덜란드대사, Kucharski 폴란드 대외무역성 동아시아 국장 언급내용 보고(1984.3월)
 - 88 올림픽을 계기로 한·폴란드 간 교역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 주일본대사, 폴란드 외상 일본 방문 관련 보고(1986.11.15.)
 - 일본 측은 폴란드 외상에게 88 서울올림픽에 폴란드의 참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

2. 외무부의 폴란드와의 관계정상화 노력

- 윤하정 외무부차관, Hafez 주한 이란대사 면담(1977.7.5.)
 - Hafez 대사는 폴란드 외무차관이 한국 정부와 관계개선을 위해 언제든지 접촉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내용을 전언
- Ignaczak 폴란드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앞 신년인사 엽서 발송(1983.10.10.)
 - 1984년 새해를 맞아 만복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원

국교수립 - 폴란드. 전6권 (V.2 사전교섭, 1988.2-89.3)

생산연도 1972-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11 / 1 / 1-266

한·폴란드 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1988~89년)에 관한 내용임.

1. 재외공관의 폴란드 인사 접촉 및 관련동향 보고

- 이인석 함부르크 무역관장, Majman 폴란드 외국기업유치지원부장 면담(1988.1.5.)
 - 폴란드 외무성 및 대외무역성은 88 서울올림픽 이후 대한민국 문호개방을 시사
- 박상기 주뉴욕총영사관 영사, 1987.12.16. Zych 폴란드 상무관 접촉보고(1988.2.9.)
 - 폴란드는 대한민국 경제관계 증진을 강력히 희망
 - 폴란드 정부는 88 서울올림픽 참가를 결정
- 주호주대사, Pierzchala 주호주 폴란드대사 면담(1988.5.31.)
 - 폴란드 측은 양국간 실질관계 증진방안에 관해 협의 희망
- 이인석 무역관장, Stawiarski 폴란드 외무성 아주·아프리카국장 및 Jakubiszyn 대외경제관계성 아주국장 접촉(1989.2.2.~4.)
 - 폴란드 측은 한·폴란드 양국간 정치, 경제관계 수립을 위한 구체협의를 위해 대사급 한국대표가 빠른 시일 내(3월 이전) 폴란드를 방문할 것을 희망

2. 외무부의 폴란드와의 관계정상화 노력

- 외무부 구주국장, L. Mysak 폴란드 기자 면담(1989.1.17.)
 - 동 기자는 1989.9월 취임한 Rakowski 수상이 앞으로 2~3개월 내에 국내 정치문제를 해결한 후 대한민국 관계개선을 위한 외교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폴란드 내에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음을 언급
- 한국 정부대표단(단장: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폴란드 파견 추진(1989.3월)
 -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문제, 수교합의 발표문제, 경제협력 등 협의 목적
 - 폴란드 측 사정으로 동 대표단 파견연기

국교수립 - 폴란드. 전6권 (V.3 사전교섭, 1989.4-12)

생산연도 1972-1989

생산과 동구과

MF번호 2019-11 / 2 / 1-228

한·폴란드 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1989.4~12월)에 관한 내용임.

1. 폴란드 경제협력조사단(단장: J. Malec 저축은행장) 방한(1989.4.21.~28.)

-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면담, 양국간 수교방안 협의
 - 폴란드 측은 한국과의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준비 중임을 언급

2. 홍순영 제2차관보 폴란드 방문(1989.5.31.~6.3.)

- 주요일정
 - 폴란드 외무차관 등과 회담
 - 기업인 간담회 및 산업시찰
- 외교관계수립 및 일정에 관한 견해 차이로 합의의사록 서명을 보류하고 회의 종료

3. 외무부, 수교관련 조치 추진(1989.6.19.)

-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각종 수교관련 문서 폴란드 측에 전달
 - 수교의정서, 경험 합의의사록, 투자보장협정 등 한국 측 안 제시

국교수립 - 폴란드. 전6권 (V.4 수교교섭실무대표단 방한, 1989.9.17.-20.)

생산연도 1972-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11 / 3 / 1-202

한·폴란드 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1989.9.17.~20.)에 관한 내용임.

1. 폴란드 수교교섭 실무대표단(단장: A. Majkiwski 외무부 부국장) 방한(1989.9.17.~20.)

- 양국간 주요 합의내용
 -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수립 수교의정서 문안 확정
 - 경험관계 합의의사록 문안 확정
 - 투자보장 및 무역협정안 확정(이중과세방지협정 문안은 추후 합의)
 - 폴란드 외무차관이 1989.10월 방한하여 상기 문서에 정식 서명
 - 양국간 정식 수교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상주대사관 개설

2. 한·폴란드 외무장관회담 개최(1989.9.28., 뉴욕)

- 회담 참석자
 -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최호중 외무부장관이 K. Skubiszewski 폴란드 외무장관과 회담
- 한국 측 주요 언급요지
 - 폴란드 장관의 외상직 취임축하
 - 폴란드 외무차관 일행이 1989.10.27.~28. 방한, 한국 측과 수교의정서에 서명할 것을 제의
 - 폴란드 외무장관의 직접 방한도 희망
- 폴란드 측 주요 언급요지
 - 그간 양국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폴란드의 노력에 한국이 협조적 접근자세를 보여준데 대해 사의 표명
 - 양국이 곧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
 - 수교합의 자체가 중요하며, 누가 서명하는지는 큰 문제는 아님.
 - 자신이 귀국하는 대로 외무차관의 방한시기 확정 약속
 - 수교 후 양국간 실질관계 증진을 위해 문화협정 체결도 필요하다고 제안

국교수립 - 폴란드. 전6권 (V.5 폴란드 정부대표단 방한, 1989.10.31.-11.4.)

생산연도 1972-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11 / 4 / 1-218

한·폴란드 양국은 1989.11.1.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함.

1. 폴란드 정부대표단(단장: J. Majewski 외무차관) 방한(1989.10.31.~11.4.)

- 주요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등 주요인사 예방
 - 양국간 수교의정서 서명
 - 산업시찰

2. 한국·폴란드 수교(1989.11.2. 외무부 구주국 자료)

- 개요
 - 한·폴란드 양국은 1989.11.1. 대사급 외교관계수립
- 수교의정서 서명
 - 1989.11.1. 외무부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Majewski 폴란드 외무차관 간 서명
 - 서명과 동시에 수교사실 대외공표
- 기타협정 서명
 - 투자보장협정 및 무역협정
 - 경험 합의의사록: 폴란드 진출 한국기업들에게 향후 5년간 수출입은행 자금 등 4억5천만 달러(경제개발협력기금 5천만 달러 포함)를 목표로 설정, 제공지원
- 수교 의의
 - 북방외교의 두번째 가시적 성과: 1989.2월 헝가리에 이어 북방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
 - 외무부의 정통외교 교섭의 성과: 양국 외무부 간 수차례 비밀 수교교섭 결과 최종적으로 수교에 합의
 -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은 직접적 외교관계 수립: 대형가리 수교와는 달리 상주대표부 등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여타 미수교 북방국가에 파급효과 기대: 헝가리에 이은 폴란드와의 수교는 유고슬라비아 등 여타 미수교 동구권국가와의 관계수립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궁극적으로 한국의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개선에도 바람직한 영향 예상
 - 평화통일 및 동서화해 증진에 기여: 전통적인 대북한 우방국과의 관계정상화 측면에서 궁극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근년에 들어 확산되고 있는 동서화해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

국교수립 - 폴란드. 전6권 (V.6 대외발표 및 국내외 반응)

생산연도 1972-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11 / 5 / 1-220

1. 외무부는 1989.11.1. 한·폴란드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해 아래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Majewski 폴란드 외무차관은 1989.11.1. 양국 정부 간 수교합의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한·폴란드 양국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함.
- 한국과 폴란드는 금번 외교관계수립이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발전 뿐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세계평화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함.
- 한국은 1989.2월 헝가리와의 수교에 이어 북방사회주의 국가와 두번째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함.
 - 금번 수교로 양국간 정치, 경제, 문화 등 제 분야에서 상호협력증대는 물론, 폴란드가 현재 추진 중인 민주화 및 경제개혁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한국과 여타 미수교 사회주의국가와의 관계수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
- 금번 폴란드와의 수교로 한국의 수교국 수는 133개국 이 됨.

2. 한·폴란드 수교에 관한 주요국 및 외국 언론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 미국(국무부): 한·폴란드 외교관계 수립을 축하하면서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
- 소련(주카이로 소련대사관 서기관): 한국의 대동구권 관계개선 추세는 한·소련 관계개선 내지는 외교관계 수립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
- 일본(언론): 폴란드와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한국은 대북한 관계 및 유엔가입 등의 외교전략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 점유
 - 북한·폴란드 관계는 냉각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북한의 개방촉진이라는 한국의 북방정책의 성과는 단기적으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
- 프랑스(언론): 한·폴란드 수교는 1988.7월 노태우 대통령이 제안한 북방정책의 결실로서 1989년 말 유고슬라비아와의 수교도 예상
 - 최근 소련인사들의 방한은 소련 측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반영하는 것이나, 소련은 북한 및 여타 동구국가를 의식하여 한국과의 경제관계는 확대하되 외교관계 수립은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캐나다(외무부): 금번 한·폴란드 수교는 한국의 동구국가와의 전반적 관계개선의 중요한 시금석으로 이를 환영
- 폴란드(주유엔 폴란드대사): 양국간 수교를 환영하면서 양국간에 경제협력에 활발해지기를 희망
- 스페인(언론): 한국과 폴란드 외교관계 수립 직후 북한은 폴란드 주재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
- 카이로(언론): 한·폴란드 관계정상화는 폴란드의 민주화와 경제건설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에도 기여
 - 한국의 동구권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북한의 동맹국들과의 국교를 수립한다는 노 대통령의 북방정책의 성과

대소련 외교관 접촉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11 / 6 / 1-129

재외공관의 1989년 중 소련 외교관 접촉 동향임.

1. 주카메룬대사, N. Igor 소련대사관 서기관 접촉보고(1.4.)

- 현 단계에서 소련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순수히 경제적이며 정치적인 면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2. 주핀란드대사, Rapota 소련대사관 서기관 접촉보고(1.13.)

-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의 최근 북한 방문 시 소련 측이 대한국과의 경제관계 설정에 대한 동기와 입장을 북한 지도자에게 설명함.

3. 주일본대사, A. Kravtsevich 소련대사관 경제부 서기관 오찬 결과보고(2.3.)

- 소련 경제전문가들이 남북한 경제력 격차(남한이 최소 4~5배 정도)를 판단하여, 금후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

4. 주유엔대사, Belyy 소련대표부 참사관 오찬 결과보고(3.15.)

- 1989.2월 중국·소련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의 대한국 관계를 현 단계에서는 비공식 관계로 국한하도록 상호이해가 이루어짐.

5. 주인도네시아대사, Basov 소련대사관 서기관 접촉 결과보고(4.1.)

- 한·소련 간 무역사무소 설치는 양국간의 관계증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며, 관계개선에 기여할 것임.

6. 주프랑스대사, Baikov 소련대사관 서기관 접촉 결과보고(5.24.)

- 한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은 여타 미수교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본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한 형편임.

7. 주태국대사, Frolov 소련대사대리 접촉 결과보고(8.22.)

- 한·소련 간의 관계개선은 남북대화의 진전에 영향을 받는데 현재 남북대화가 정체되어 있음.

8. 주방글라데시대사, Smirov 주방글라데시 소련대사 언급내용 보고(10.9.)

- 한국대사관 및 한국 상사대표와 필요 시 접촉하고, 양측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일은 적극 추진하라는 소련 정부의 훈령을 받음.



9. 주핀란드대사, Rapota 소련대사관 서기관 오찬결과 보고(11.2.)

- 소련도 한국과 수교하기를 바라나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그들을 자극하지 않고 수교하려는 것인데 북한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10. 주카메룬대사, Fedorov 주카메룬 소련대사 접촉결과 보고(12.22.)

- 한·소련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긴 과정을 걷기 시작한 양국은 영사처 설치 합의로 관계개선의 새로운 한 단계를 넘었음.

국교수립 - 유고슬라비아. 전7권 (V.1 1970-79)

생산연도 1970-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11 / 7 / 1-260

유고슬라비아와의 국교수립을 위한 1970~79년 중 한국 정부의 주요 동향임.

1. 1970~75년

- 주캐나다, 주브라질, 주에티오피아대사, 주이스라마바드바총영사 등이 주재국 유고슬라비아대사와 등과 접촉, 양국간 통상대표부 설치 및 수교 가능성을 타진함.

2. 1976년

- 윤경도 주핀란드대사는 주핀란드 유고슬라비아대사의 권유로 관광목적의 사증을 취득하여 1976.11.8.~14.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함.
 - 유고슬라비아 외무성 의전장, 상공회의소장 등을 면담함.
 - 윤경도 대사의 유고슬라비아 방문은 대사급 인사로서 최초의 공산권 입국이며, 유고슬라비아의 대한국 태도완화를 의미함.

3. 1977~79년

- 주핀란드대사는 1977.4.4. 주핀란드 유고슬라비아대사와의 면담 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 유고슬라비아는 대한국 무역금지 해제조치를 행함.
 - 이는 정기간 공식무역이 아닌 개인상사 간의 직접무역을 공식 허용한 것이며, 동 조치로 인해 개인상사 간 및 양국 상공회의소 간 거래 및 교섭이 가능하게 됨.
 - 유고슬라비아 정부의 결정은 약 2개월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 조치는 결정과 동시에 유효함.
 - 이로써 통상을 목적으로 한 양국 기업인의 왕래가 허용되는데 당분간은 한국기업인이 유고슬라비아 입국비자를 요청하면 본부의 사전승인을 얻어 발급하게 됨.
- 주핀란드대사는 8.11. 한국통상대표부 설치에 관한 유고슬라비아 측 반응을 외무부에 보고함.
 - Tito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의 소련, 중국 및 북한 방문(8월)이 사회주의 진영의 결속강화에 있으므로, 통상대표부 설치문제를 당장 제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함.
 - 동 문제는 Tito 대통령의 상기 3국 방문 분위기가 가라앉은 후에 거론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를 위해 양국 상사 간의 접촉 증대가 필요함.
- 주이탈리아대사는 1978.8.23. 주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대사 면담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 유고슬라비아대사는 북한이 유고슬라비아가 한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한국과의 관계증진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함.
 - 단, 경제통상 관계증진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태도를 표시함.

국교수립 - 유고슬라비아. 전7권 (V.2 1980-82)

생산연도 1970-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11 / 8 / 1-271

유고슬라비아와의 국교수립을 위한 1980~82년 중 한국 정부의 주요 동향임.

1. 1980년

- 주밀라노총영사는 5.15. 주밀라노 유고슬라비아총영사에게 한국 통상사무소 설치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함.
- 제21차 유네스코 총회에 참석 중인 한우석 주프랑스대사는 9.26. Margan 유고슬라비아 부수상과의 면담결과를 외무부에 보고함.
 - 한국 측은 양국간 교역 등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양국간 조속한 외교관계 수립을 희망함.
 - 유고슬라비아 측은 언젠가는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되기를 희망하나,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당장에 수교는 못하더라도 상호접촉과 교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2. 1981~82년

- 주프랑스대사는 1981.5.21. Margan 부수상의 한·유고슬라비아 관계개선 문제에 관한 언급요지를 보고함.
 - 유고슬라비아에는 한국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지도층이나 국민이 많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Tito-김일성 간의 관계 때문에 친북한 세력이 다수인 것이 사실임.
 - 양국간 경제, 체육교류 등을 통해 유고슬라비아 국민의 대한국 인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양국간의 공식관계를 단계적이고 꾸준히 추진해야 함.
- 김석현 외무부 동구담당관은 5.26. 및 5.29. Vujicic 유고슬라비아 외무성 경제부국장과 면담한바, 동인의 언급요지는 아래와 같음.
 - 유고슬라비아는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있는 북한과의 유대관계 때문에 당장 한국과 공식관계를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언젠가는 공식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가능한 시기는 남북한 대립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거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같은 상황 변동이 있어야 할 것임.
 - 양국간 직접교역 추진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의 발전상과 잠재력을 잘 알고 있으며, 실제 통상관계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한국과 직접 교역하는 문제도 거론되어 오고 있으나, 직접 교역을 위해서는 한·유고슬라비아 회사 간 우선계약(유고슬라비아 측은 국영무역회사)을 체결해야 하는데 북한과의 입장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함.
- 신기복 주인도공사는 10.23. Stamenkovic 유고슬라비아 Tanjug통신 서남아 지국장의 언급내용을 보고함.
 -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한 동구지역 국가들은 대한반도 정책에서 소련의 정책에 종속되며, 그 프레임에 타파할 만큼 대한반도 이해관계가 크지 않음.
 - 그러나 한국과 동구지역 국가 간 통상 및 문화 분야에서의 접촉이 확대되고 있는 점이 주목됨.

국교수립 - 유고슬라비아. 전7권 (V.3 1983-87)

생산연도 1970-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11 / 9 / 1-195

유고슬라비아와의 국교수립을 위한 1983~87년 중 한국 정부의 주요 동향임.

1. 1983~84년

- 외무부는 1984.1.6. 대유고슬라비아 관계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유고슬라비아의 대한국 정책: 한국과 경제통상 및 스포츠 교류 등 비정치분야 교류에 있어 동구 공산국가 중 가장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식관계 설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
 - 유고슬라비아의 대북한 정책: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만을 인정하고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하며, 비동맹세력 주도국의 하나로 북한과는 비교적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
 - 한·유고슬라비아 외교관 접촉: 1973.6.23. 선언 이후 양국간 총 101회(1983년 말 기준)
 - 한·유고슬라비아 인적교류 현황: 유고슬라비아인의 방한 매년 30~50명 수준(1981~83년), 한국인의 유고슬라비아 입국은 114명(1983년)

2. 1985~87년

- 외무부는 1987.10.21. 주유엔대사에게 대유고슬라비아 관계자료를 송부함.
 - 유고슬라비아의 대한국 정책: 비정치분야 교류에 있어 타 동구권국가에 비해 전향적이나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식관계 설정에는 소극적인 태도 견지
 - 유고슬라비아의 대북한 정책: 비동구권국가와는 달리 공산주의 이념에 입각한 관계 긴밀화 보다는 비동맹 운동을 중심으로 관계유지
 - 한·유고슬라비아 외교관 접촉: 동구권국가 중 비교적 한국 외교관과의 접촉이 많은 편이며 공관장급 접촉도 많음.
 - 한·유고슬라비아 인적교류 현황: 체육 및 국제회의 등 비정치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간 인사교류가 꾸준히 증가
 - 경제통상 관계: 대부분 간접교역 위주로 1986년도 대유고슬라비아 수출 570만 달러, 수입 106만 달러, 유고슬라비아 개최 박람회 참가실적 다수
 - 기타 관계: KAL기의 유고슬라비아 영공통과(1980.12월), 한·유고슬라비아 정기화물선 취항 (1979.12월), 양국간 민간은행 환거래계약 체결 등
- 외무부는 10.21. 주유엔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주유엔 유고슬라비아대표부와와의 대화채널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
 - 유고슬라비아 측 접촉 시 양국간 교류증진,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경제관계 기관의 사무소 설치, 정부간 무역대표부 교환 등을 통한 양국관계 개선 필요성 강조
 - 이와 관련한 유고슬라비아 측의 반응과 관심사항을 수시 파악, 보고

국교수립 - 유고슬라비아. 전7권 (V.4 1988)

생산연도 1970-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11 / 10 / 1-215

유고슬라비아와의 국교수립을 위한 1988년 중 한국 정부의 주요 동향임.

1. 조창범 동구과장은 GSTP(개도국간특혜무역제도) 각료회의 정부대표단 일원으로 1988.4.8.~17. 유고슬라비아를 방문, 외무성 및 대외무역성 등의 정부인사를 면담하고 양국간 실질분야 교류 활성화와 관계발전 희망의사를 전달함.
 - 유고슬라비아 측은 한국 측 제기사항을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임.
2. 주호주대사는 1988.5.17. 주호주 유고슬라비아대사와 양국관계 발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유고슬라비아대사는 한·유고슬라비아 관계가 북한의 강력한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우선 민간 경제교류가 공식 추진됨을 환영하며, 7월 한국 민관무역사절단의 유고슬라비아 방문이 양국에 공히 이익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준비 중임을 언급함.
 - 동 대사가 본국 훈령에 의거 대화를 희망해 온 것은 유고슬라비아의 대한국 관계발전에 관한 전향적 자세를 반영한 것으로 외무부는 평가함.
3. 이상렬 주리비아대사는 전지휴가차 1988.7.16.~29.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함.
 - 주요 실업인 등 각계 인사를 접촉, 한국을 소개하고 양국관계증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 Galovic 주리비아 유고슬라비아대사의 사전 여행주선 및 환대는 양국관계 증진에 대한 유고슬라비아 외무성의 간접적인 관심표명으로 관측됨.
4.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1988.9.28. 제44차 유엔총회 계기에 Loncar 유고슬라비아 외무장관과 한·유고슬라비아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함.
 - 동 회담에서 양국관계 장애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양측은 88 올림픽 후 대유고슬라비아 사절단을 파견하는 문제에 관해 기본적으로 합의
5. 유고슬라비아의 대한 통상사절단(단장: Kosir 슬로베이나주상공회의소 부회장)이 1988.10.19.~28. 방한, 유고슬라비아 서울무역사무소 개설(10.3.) 기념리셉션에 참가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사업 발굴활동을 수행함.
6. 민형기 구주국장은 1988.11.13. 뉴욕에서 Kapetanovic 유고슬라비아 수상 비서실장을 면담, 양국관계 수립에 관해 협의함.
 - 유고슬라비아 측은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영사관계를 수립하고 이어서 외교관계 수립을 추진하기로 이미 방침을 결정했다고 언급함.

국교수립 - 유고슬라비아. 전7권 (V.5 1989.1-7)

생산연도 1970-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11 / 11 / 1-239

유고슬라비아와의 국교수립을 위한 1989년 1~7월 중 한국 정부의 주요 동향임.

1.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1.9. 화학무기 사용금지에 관한 국제회의 참석 계기에 파리에서 Loncar 유고슬라비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관계증진 문제를 협의함.
 - Loncar 장관은 양국이 점진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 궁극적으로 외교관계 수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함.
 - 북한의 방해공작이 치열한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부연하면서 우선 영사관계 수립과 관민사절단의 유고슬라비아 파견을 희망
 - 최호중 장관은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 남북대화 현황, 북방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헝가리와는 외교관계를 수립할 예정임을 통보함.
2. Pavic 유고슬라비아연방 상의 의장 등 유고슬라비아 통상사절단이 1989.2.25.~3.1. 방한함.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의 업무협력 의정서 체결, 경제기획원 및 상공부 방문, 업계 대표와의 상담 등 일정을 진행함.
3. Dizdarevic 서울올림픽 전 유고슬라비아연락관은 3.9. 유고슬라비아 정부 훈령임을 전제로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아래와 같이 통보함.
 - 유고슬라비아는 1988.11월 한국과의 국교수립을 연방의회에서 의결함.
 - 영사 관계를 1989.5.15.까지 수립 용의
 - 외교 관계는 9월 비동맹회의 직후 수립
4. Loncar 장관은 4.10.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과 면담 후 모든 국가는 자유로이 외국과 관계를 맺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
 - 동 장관은 김영남 외교부장에게 한·유고슬라비아 간 관계정상화에 이를 수 있는 양국간 접촉 가능성을 통보함.
 - 외무부는 유고슬라비아 측이 대한 수교의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북한 측에 통보함으로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북한의 방해책동에 사전대비한 것으로 분석함.
5. 신동원 외무부차관은 1989.6.23. 77그룹 특별각료회의 참석 계기에 Loncar 장관과 양국관계 수립에 관해 협의함.
 - 한국 측은 양국 외무장관이 뉴욕 면담 시 양국 수교에 관해 합의, 발표할 것을 제의함.
 - 사전 정지작업으로 양국 고위정부대표단 간 교섭을 제의
 - 유고슬라비아 측은 한국 측 제의를 수락함.
 - 단, 발표시점은 비동맹회의 직후의 정세추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자는 입장 제시

국교수립 - 유고슬라비아. 전7권 (V.6 1989.8-12)

생산연도 1970-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12 / 1 / 1-231

유고슬라비아와의 국교수립을 위한 1989년 8~12월 중 한국 정부의 주요 동향임.

1. **홍순영 제2차관보는 한·유고슬라비아 수교 교섭차 1989.7.31.~8.3. 유고슬라비아를 방문, Loncar 유고슬라비아 외무장관 등과 협의함.**

- 한국 측은 양국간 조속한 외교관계수립을 위해 양국 외무장관 뉴욕회담 시 수교에 합의, 즉시 발표할 것을 제의함.
- 유고슬라비아 측은 1989년 말까지는 수교가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함.
 - 구체적인 수교발표 시기는 뉴욕 외무장관회담 시 협의

2.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1989.9.26. 제44차 유엔총회 계기에 Loncar 장관과 회담, 양국간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함.**

- 유고슬라비아 측은 연방내각 및 연방의회 승인 등 국내절차상 1989년 내 수교하는 것으로 양해하여 줄 것을 요청함.

3. **한국과 유고슬라비아는 1989.12.27.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는 공동발표문을 발표함.**

- 한·유고슬라비아는 12.27. 유엔 주재 양국 대표부를 통해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는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동일자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함.
- 양국 정부는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기초한 외교관계 수립이 양국 및 양국민 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게 될 것으로 확신함.
- 양국 정부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상주대사를 임명하기로 합의함.

4. **외무부는 1989.12.26. 전재외공관에 유고슬라비아와의 수교(1989.12.27.) 및 그 의의를 아래와 같이 통보함.**

- 북방정책의 성공적 추진
- 한국의 대비동맹, 제3세계 외교에 전기 마련
 - 비동맹운동 의장국으로서 비동맹과 제3세계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고슬라비아와의 수교로 한국의 대비동맹, 제3세계 외교에 전기를 마련
 - 대유엔 외교에도 긍정적 영향 예상
- 전방위 외교정착 계기 마련
 - 한국의 대비동맹, 제3세계 외교활성화로 전방위 외교정착에 기여 예상



- 동서화해 증진에 기여
 - 전통적으로 북한 및 제3세계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유고슬라비아와의 관계정상화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동서화해 및 세계평화 증진에도 기여
- 여타 북방 미수교 사회주의국가에의 파급효과 기대

국교수립 - 유고슬라비아. 전7권 (V.7 국내외 반응 및 참고자료)

생산연도 1970-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12 / 2 / 1-131



1. 한·유고슬라비아 수교(1989.12.27.)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임.

- 미국
 - 북방정책의 또 하나의 결실로 축하
 - 유고슬라비아와의 관계정상화는 한국의 제3세계 외교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
 - 미국은 한국의 북방정책을 변함없이 지지
- 일본
 - 북방정책의 착실한 성과거양으로 한국의 유엔가입 여건 호전
 - 북한은 외교적 고립 탈피를 위해 국제정세 추이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
- 중국
 - 한국의 대비동맹권국가와의 관계에 긍정적 영향
- 독일
 - 비동맹 의장국인 유고슬라비아와의 수교는 한국과 타 동구지역 국가들과의 수교를 촉진하는 계기
- 벨기에
 - 한국은 앞으로 동독 및 체코와도 관계개선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
 - 동구권과의 수교는 노태우 대통령 집권 후 개방정책과 서울올림픽 개최가 결정적인 전환점
- 태국
 - 한국 북방외교의 커다란 성공
 - 대동구권 경제관계 강화뿐 아니라 유엔 등 기타분야에 있어 한국의 위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중요한 조치로서 크게 환영
- 가봉
 - 양국간 수교가 한국의 비동맹 및 제3세계 국가들과의 관계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

2. 한·유고슬라비아 수교와 관련된 참고자료임.

- 유고슬라비아 외무성 평가보고서 및 연방각의 결의문(1987.7월)
- 유고슬라비아 외국인 투자법(1988.11월)
- KDI(한국개발연구원) 주최 제15차 외국인 직접투자과 경제개발에 관한 국제정책연찬회 프로그램 (1989.10월)

외교망 재정비 계획(재외공관 철수 및 감축) 추진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9-12 / 3 / 1-138

1. 외무부는 1988.12.27. 대통령 특별선언(1988.7.7.)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1차 외교망 재정비 계획에 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2. 외무부는 1989.2.22. 전 재외공관에 외교망 재정비계획을 통보함.

- 목적
 - 7·7 대통령 특별선언의 구체적 실천방안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간의 소모적인 대결외교를 지양하고 현재의 재외공관을 보다 기동성 있는 거점주의로 운영하기 위해 외교망 재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
- 시행원칙
 - 1차적으로 한국과의 실질관계가 미미한 국가에 주재하는 4개 대사관 철수 및 5개 대사관 인원감축
 - 대상공관은 국력, 교역량, 교민진출 등 객관적 기준과 대유엔·비동맹외교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철수 및 감축공관 직원은 인근 거점공관을 보강, 기동성 위주로 외교망 재정비
 - 철수대상 공관 주재국과의 기존 우호협력관계의 유지, 증진을 위해 인근공관을 겸임공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무상원조 및 기술연수생 초청 확대 등 제반 실질협력관계 증진방안 강구
- 재정비대상 공관
 - 철수대상 공관(4개):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중앙아프리카, 바베이도스
 - 감축대상 공관(5개): 말라위, 모리셔스, 시에라리온, 우간다, 볼리비아대사관에서 각 직원1명 감축
- 재정비 시기
 - 해당 국가별 사정 및 제반 국내절차 진척상황을 보아가며 1989년도 상반기까지 시행 예정

3. 외무부는 1989.5월 외교망 재정비 결과를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함.

- 공관 폐쇄: 4개 공관(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중앙아프리카, 바베이도스)을 1989.5.31. 폐쇄
 - 해당국 반응: 다소 유감을 표명했으나 4개국 공히 한국입장을 이해, 겸임공관을 통한 우호협력관계 유지 발전 희망을 피력
- 공관원 감축: 5개 공관(말라위, 모리셔스, 시에라리온, 우간다, 볼리비아)은 1989년 춘계 정기인사 시 시행
- 평가 및 관찰
 - 7·7 대통령 특별선언의 구체적 실천의지 표현
 - 재외공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공관 폐쇄로 인한 외교적 영향은 양국관계 소원화 등 단기적으로 발생 가능하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재외공관 폐쇄 - 바베이도스, 1989.5.3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법무담당관실/총무과

MF번호 2019-12 / 4 / 1-40

1. 한국 정부는 1989.1월 대통령 특별선언(1988.7.7.)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의 외교망 재정비계획에 따라 주바베이도스대사관을 폐쇄하고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에서 겸임하도록 결정함.
 - 재정비시기: 1989년 상반기 완료예정
2. 주바베이도스대사는 1989.2.27. Tudor 바베이도스 외무장관을 면담하고, 신정부 취임에 따른 외교정책의 재검토와 한정된 예산 사정에 따라 상주공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주바베이도스 대사관이 이에 포함됨을 통고함.
 - 주바베이도스대사는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이 바베이도스를 겸임할 것과 양국간의 기존 우호협력관계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다짐하고 관련 비망록을 수교
 - Tudor 장관은 매우 유감을 표명한 후, 한국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겠다고 말하고, 양국간의 기존 우호협력관계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다짐
3. 주바베이도스대사는 1989.5월 바베이도스 및 겸임하고 있는 5개국 외무부에 주바베이도스대사관의 공식 폐쇄를 공한으로 통보함.
 - 바베이도스 외무부에 주바베이도스대사관을 1989.5.31. 공식 폐쇄함을 통보
 -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관이 바베이도스 및 겸임 5개국 대사관의 의무와 권한을 수행 예정

재외공관 폐쇄 - 중앙아프리카, 1989.5.3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아프리카2과/법무담당관실
MF번호	2019-12 / 5 / 1-84

1. 한국 정부는 1989.1월 대통령 특별선언(88.7.7.)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의 외교망 재정비 계획에 따라 주중앙아프리카대사관을 폐쇄하고 주카메룬대사관에서 겸임하도록 결정함.
 - 재정비 시기: 1989년 상반기 완료예정
2. 주중앙아프리카대사는 1989.2.18. Gbezera-Bria 중앙아프리카 외무장관을 면담하고, 신정부 취임에 따른 외교정책의 재검토와 한정된 예산사정에 따라 주중앙아프리카대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음을 통고함.
 - Gbezera-Bria 장관은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면서, 비록 상주공관이 폐쇄되더라도 겸임대사를 통해 한·중앙아 협력관계의 발전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를 바란다고 언급
3. 주중앙아프리카대사는 1989.2.27. E. Franck 중앙아프리카 외무장관대리 면담 결과를 보고함.
 - Franck 장관대리는 2.27. 콜링바 중앙아프리카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의 공관철수와 관련, 한국대사를 지급 조치, 한국 정부의 공관철수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
 - 중앙아프리카 외무부는 1989.3.16.~18. Gbezera-Bria 장관 일행이 한국공관 철수에 대한 재고요청사절로 한국에 파견되고, 동 사절단은 콜링바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할 예정임을 통보
4. 주중앙아프리카대사는 1989.3.24. Gbezera-Bria 장관 면담결과를 보고함.
 - 주중앙아프리카대사는 중앙아프리카 정부가 사절단을 파견하고자 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동 사절단을 접수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함.
 - 아울러, 양국간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선 “방기시 100주년 기념식”에 즈음하여 덤프트럭 1대와 1989년 중 약 20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계획하고 있음을 설명
 - 동 장관은 금번 사절단 파견목적이 대사관 철수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데 있었으며, 한국 정부의 결정이 번복될 수 없다면 당장 사절단을 파견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
 - 아울러 한국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내린 배경을 이해하며, 무상원조 제공계획을 공한으로 보내 주기를 요청



5. 주중앙아프리카대사는 1989.4.20. 꼴링바 대통령을 면담, 한국공관 폐쇄사유와 무상원조계획을 재차 설명함.
 - 꼴링바 대통령은 한국공관 철수에 대해 섭섭한 감정을 표시하였으나, 금번 결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관찰
6. 외무부는 1989.5.13. 주중앙아프리카대사에게 동 대사관이 공식 폐쇄(1989.5.31.)됨을 주재국에 통보하라고 훈령함.

주Amsterdam(네덜란드) 총영사관 재개설 문제 검토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구주1과

MF번호 2019-12 / 6 / 1-35

1. 주네덜란드대사는 1988.11.1. 1982년에 폐쇄된바 있는 주암스테르담총영사관의 재개설을 건의 하고, 동 총영사관 재개설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경우 잠정조치로 명예총영사관 설치를 건의함.
 - 암스테르담 상공회의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한국총영사관 설치불가 시 명예총영사관 설치 필요성을 강조
2. 외무부는 1988.12월 주암스테르담총영사관의 재개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
 - 경제적 측면
 - 네덜란드의 수도이자 경제 중심지: 최대 산업지대 및 무역항 위치
 - 1992년 EC(구주공동체) 단일 구주시장 형성에 대비: 세계 최대시장 출현에 대비, 외국기업의 투자진출에 양호한 여건 제공
 - 대동구 교역중개지로서의 활용가치: 가공·중개무역 체제가 기 발달
 - 네덜란드 진출 한국상사·지사 활동지원: 대다수 지상사의 소재지
 - 영사교민활동 측면
 - 대한항공 취항(1989.4월 예정)으로 인한 인적, 물적 교류증가 대비
 - 원활한 영사 및 교민 권익보호활동 전개: 전체교민의 약 40%인 140여명 거주
3. 주네덜란드대사는 외무부 훈령에 따라 1989.3.3. 주암스테르담총영사관 재개설과 관련된 검토 필요사항을 보고함.
 - 암스테르담 소재 외국 총영사관(명예총영사관 포함) 현황: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9개
 - 암스테르담이 네덜란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 네덜란드 총 GDP의 50%를 상회
 - 유럽 단일시장 형성 시 암스테르담의 예상 역할
 - 1992년 유럽 단일시장에 대비, 많은 외국기업들이 네덜란드 특히 암스테르담지역에 진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외국기업의 진출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증권, 보험, 은행, 서비스분야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및 유럽시장에 대한 재분배 센터로서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영사, 행정업무관련 사항(1988년 기준)
 - 사증발급건수 97건, 여권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108건, 각종확인 1,080건, 공문 등 수발건수 3,232건
4. 주네덜란드대사는 1989.4.4. E. Thija 암스테르담 시장이 한국총영사관 설치를 적극 환영한다는 서한을 보내왔음을 보고함.

재외공관 설치 - Orange County(미국) 출장소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12 / 8 / 1-128

238

1. 외무부는 1988.9.21. 주로스앤젤레스 오렌지카운티 출장소 설치를 검토함.

● 경위

- 로스앤젤레스 오렌지카운티 교민대표들은 1988.8월 미국 방문 중인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에게 동 지역에 연락사무소(출장소) 설치 요청
- 공화당 측은 총재 비서실장의 서한을 통해 8.22. 김종필 총재가 대통령에게 동 내용을 설명했음을 외무부에 통보

● 문제점

- 영사관 설립기준은 통상 교포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지방정부 소재지 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면에 걸쳐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지역에 설치
-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거주 교포 수는 현재 5~7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교포 수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영사관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나, 로스앤젤레스와의 거리가 1시간 이내여서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비교적 쉽게 관할 가능
- 오렌지카운티에 영사관을 설치할 경우 인접지역에 같은 기능을 하는 영사관을 2개 설치하는 결과가 되어 영사관 기능의 중복을 초래할 우려
- 미국 내 여타 도시의 경우에도 교포수도 많고 지역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도시(예: 덴버, 댈러스, 필라델피아)에는 현재 영사관을 설치하기보다는 순회영사 기능을 활용하여 교민편익을 도모 중
- 오렌지카운티에는 외국영사관 미설치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의 검토의견(1988.9.15.)

- 영사관 설립대상 기준에 오렌지카운티는 적합하지 않으며, 2인 규모의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출장소 설치 또는 월 2회 실시되고 있는 순회영사 활동의 대폭강화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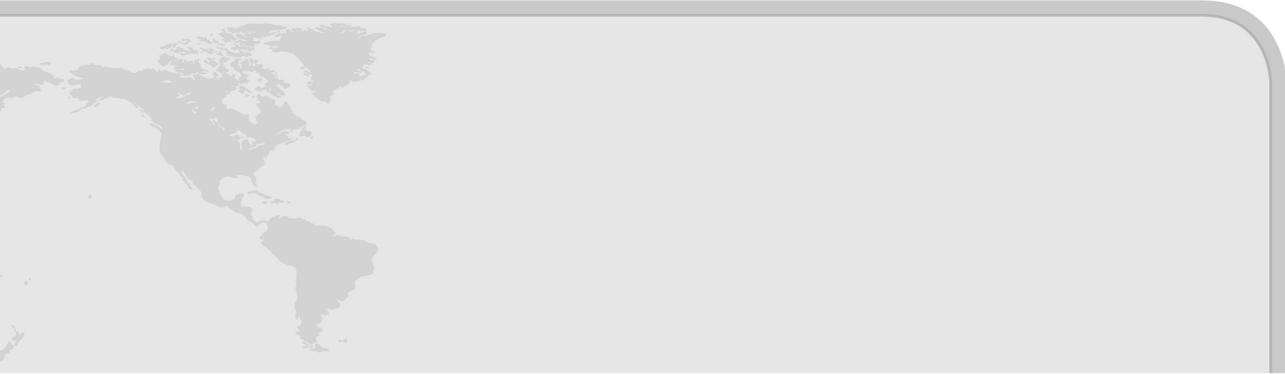
● 조치계획

- 현재 월 2회로 실시하고 있는 순회영사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1~2인 규모의 출장소 설치문제를 검토

2. 외무부 기획관리실은 1989.8.5. 미주국에 외무행정체계화 방안의 일환으로 행정개혁위원회가 의결한 재외국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재외공관의 기구 및 인력보강 건의와 관련, 오렌지카운티 출장소 신설에 관한 의견을 요청함.

● 요청사유

- 지역 내 12만 여명의 교민 집중거주 및 샌디에고카운티 등 인접지역에도 10여만 교포 거주
- 현재 관할공관인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과의 원격 위치로 민원업무 불편



- 교민 편익도모 차원에서 2~3인 규모의 출장소가 바람직하나 예산 및 인력사정상 현재 순회영사활동 강화 실시
- 1988.10월 대통령 미국 방문 및 여타 주요 국내인사 현지 방문 시 전향적 검토 약속
- 미주국은 8.18. 출장소 신설에 이의 없음을 회신

주한공관 설치 - 버마(미얀마)

생산연도 1979-198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9-12 / 10 / 1-97

1989.3.27. 주한 미얀마(구 버마) 상주대사관이 개설됨.

1. 권병헌 주미얀마대사는 1987.4월 미얀마 측에 주한 상주공관 설치를 제의함.
 - 김영주 특사가 1988.6월 우산유 미얀마 대통령 방문 시 상주공관 설치를 거듭 요청함.
2. 미얀마 정부는 1989.1월 주한 상주공관 설치를 결정하고 법안상정 중임을 한국 측에 통보함.
3. 미얀마 정부는 1989.2.17. 특명전권대사급 주한 상주공관을 설치하기로 하였음을 한국 측에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함.
 - 한국 정부의 동의가 있는 대로 3월말 경 공관을 정식 개설할 계획임을 밝힘.
4. 양국은 1989.3.10. 주한 미얀마 상주대사관이 설치될 것임을 동시에 발표함.
5. 주한 미얀마 상주대사관이 1989.3.27. 개설되고 기념리셉션이 개최됨.
 - 우 아예 킨 초대 주한 상주대사는 4월말 경 부임 예정이며, 우키톤 1등서기관이 대사대리직을 수행함.

주한공관 설치 - EC(구주공동체) 대표부

생산연도 1981-1989

생산과 서구1과/통상2과/조약과

MF번호 2019-12 / 11 / 1-271

주한 EC(구주공동체) 대표부 설치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는 1981.6월 EC 측에 주한 EC대표부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EC국가 주재 공관장들에게 동 설치를 위한 교섭을 지시함.
 - EC 회원국들은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함.
 - 1984.9월 EC 대외총국장은 예산사정 등 문제로 당분간 주한 EC대표부 설치가 어려워서 주일본 EC대사가 주한대사를 겸임한다고 통보함.
 - 1986.9월 EU 대외담당 집행위원은 외무부장관에게 재정 형편상 상주공관 설치는 어려우나 소규모 사무실 설치의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함.
2. EC 집행위 아국장은 1989.3월 주EC대사에게 주한 EC대표부 설치 및 특권, 면제에 관한 협정문안을 제시하고 한국 측의 검토를 요청함.
 - 1989.6.3.~13. EC 관계관이 방한하여 관저 및 공관 후보지를 물색함.
3. 외무부는 1989.6월 주한 EC대표부 설치협정을 국무회의에 상정함.
4. 주한 EC대표부 설치협정이 1989.7.7. 벨기에 브뤼셀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프란스 안드리센 EC 집행위 부위원장 겸 대외관계 및 통상정책 담당위원 간에 서명됨.
5. 주한 EC대표부 설치를 위하여 EC 관계관이 방한함.
 - 1989.9.25. 장충동 소재 건물의 임차계약을 체결함.
 - 11.18. 주한 EC대표부 창설요원이 한국에 도착함.

주한 나우루영사관(서울) 설치 추진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12 / 12 / 1-38

나우루 정부가 주한 나우루영사관 설치를 추진함.

1. 추진 경위

- 남태평양 나우루를 관할하는 주피지대사는 1988.8.2. 나우루 외무차관이 전화통화에서 주한 나우루영사관 설치의사를 표명하면서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 이에 대해 외무부는 8.8. 환영의 의사와 함께 필요한 정보를 주피지대사관에 통보
- 나우루 외무부가 1988.8.11. 주피지대사관을 통해 주한 나우루영사관 설치를 공식 제의하면서 초대 영사에 대한 동의를 요청함에 따라 외무부는 9.10. 이를 수락함을 주피지대사관에 통보함.
- 주피지대사관은 1988.9.28. 나우루 외무부에 한국 측의 수락 의사를 통보하였으며, Deroburt 나우루 대통령은 11.10. 주피지대사에게 서울 소재의 적절한 호텔 추천을 부탁함.
- 나우루 측은 1989.4월 영사관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해 문의하였으며, 8.4. 호주 방문 도중에 피지에 기착한 Deroburt 대통령은 주피지대사에게 사정상 새로운 인사를 임명하고자 한다고 언급함.

2. 추진 취소

- 나우루 외무부는 1988.8.30. 주피지대사관에 8.18. 출범한 신정부의 정부예산 절약방침에 따라 주한 나우루영사관 설치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통보함.

주한공관 설치 - 싱가포르, 1989.12.11.

생산연도 1975-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12 / 13 / 1-81

주한 싱가포르 상주대사관 개설 경과는 아래와 같음.

1. 영국 외교관계수립과 주한 싱가포르대사관 설치 교섭 경위

- 정부는 1975.8.8. 싱가포르와 외교관계를 수립함에 따라 기존의 주싱가포르총영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함.
- 외무부는 1975.10.2. 주싱가포르대사관에 싱가포르 정부에 대해 주한 대사관 설치를 권유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시함.
- 이군최 싱가포르 외무담당 국무장관은 1975.11.12. 주싱가포르대사에게 주한 대사관 설치에 관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싱가포르 외무부의 인원 및 예산사정을 설명함.
- 주싱가포르대사는 1976.11월 라자 싱가포르 외상 등 고위인사들을 계속 접촉하고 주한 대사관 설치 교섭을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정부가 1979.10.16.~21. 방한한 리관유 싱가포르 총리에게 주한 대사관 설치를 요청한데 대하여 리관유 총리는 인력난을 언급하면서 유감을 표명함.

2. 주한 싱가포르대사관 설치

- Chew Tai Soo 싱가포르 외무부 정무2국장은 1989.8.3. 주싱가포르대사에게 1989년 내 주한 상주대사관 설치를 위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8월 하순경 실무자들이 방한할 예정임을 통보함.
- 싱가포르 외무부가 10.13. 주싱가포르대사관을 통해 주한 싱가포르대사관 설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해온데 대하여 정부가 10.19. 동의함.
- 주한 싱가포르대사대리가 12.7. 한국에 도착하여 12.11. 주한 싱가포르대사관이 개설됨.
 - 주한 싱가포르 상주대사는 1990.7월경 부임 예정

일본의 아·태지역 경제협력체 구성 제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12 / 14 / 1-93

1988~89년 아·태지역 경제협력체 추진 동향임.

1. 추진 배경

- EC(구주공동체) 통합, 미국·캐나다 무역협정체결 등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화 경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태평양지역 국가인 일본, 호주, 한국, 미국을 중심으로 아·태지역 국가 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보호주의 동향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아·태지역 경제협력체의 구성이 추진됨.
 - 나카소네 전 일본 수상의 태평양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창설 제의, 솔츠 미국 국무장관의 Pacific Basin Forum 창설 제의 등

2. 역내 협의체 구성을 위한 움직임

- 일본 정부의 협의체 추진
 - 한국을 방문한 무라오카 일본 통상성 심의관이 1989.3.24.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면담 시 아태협력에 대한 일본의 구상을 설명함.
 - 일본 통상성의 협의체 추진에 대하여 일본 외무성이 반대 입장을 견지하여 일본 정부의 통일된 입장이 아님이 드러남.
- 호주 정부의 협의체 추진
 - 호주 외무·무역부 차관이 1989.4월 동아시아, 중국, 미국 등을 방문하여 1989.2월 호크 호주 수상이 제창한 경제협력에 관한 역내 공식협의체(OECD 성격) 구성 제의내용을 설명함.

3. 추진 경과

- 협의체 추진을 주도하는 미국, 일본 및 호주의 각기 다른 의도, 역내 구성 국가들의 다양성 등이 협의체 추진의 현실적 장애요소로 제기됨.
- 호주 정부는 1989.7월 아세안 확대외상회의에서 협의체 상설화안을 유보하고 일단 11월에 각료급회담을 캔버라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여 채택됨.

한·아세안 간 대화 개설문제 검토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12 / 17 / 1-232

한·아세안 간의 대화 개설 관련 내용임.

1. 아세안과의 대화 개설 문제 자료(1986년)

- 한국은 1977년 이래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개설을 계속 추진해 왔으나, 아세안 측은 회원국들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소극적 반응을 보임.
 - 1983년 한국은 말레이시아 및 태국 외상 앞 서한에서 전면적 대화관계 개설을 전제로 부문별(sectoral basis) 대화도 가능함을 표명함.
- 아세안 6개국(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은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과의 대화 개설에 소극적임.

2. 외무부 아주국의 정책검토 자료(1987년)

- 한국은 아세안과 장기적으로 전면적인 대화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를 개설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나, 이를 전제로 부문별 대화 개설도 병행 추진함.
- 현재로서는 아세안 측이 기본입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희박함.
 - 추후 여건 성숙 시 대화 문제를 제기함.

3. 제3국과 아세안의 대화현황 자료(1987년)

- 아세안은 1987년 현재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등 5개국과 대화관계를 유지함.
- 아세안은 1983.6월 제16차 아세안 외상회의에서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 불확대 방침을 결정함.
 - 개별 국가보다는 국가그룹 또는 국제기구와의 대화 개설 입장을 견지함.
- 대화개설 신청국
 - 한국, 인도, 스리랑카, 이집트, 루마니아, 브라질 등이 대화 개설을 신청함.

4. 일본 언론 보도(1988년)

- 일본 교도통신은 1988.7.4. 우노 일본 외상이 한국이 오픈버 자격으로 아세안에 참여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함.
- 이에 대해 외무부는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불확대 방침에 변화가 없는 점과 아세안 측이 거부할 경우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일본 측에 전달함.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전8권 (V.1 1988.12-89.4)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13 / 1 / 1-327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추진(1988.12~89.4월) 경과임.

1. 1989.1.21.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아세안 고위관리회의는 한국과의 분야별 대화(sectoral dialogue) 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한국과의 사전 협의를 거친 후 7월 아세안 외상회의에 동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함.
2. 이재춘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9.2.2.~11.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4개국을 순방하고 한·아세안 협의체 구성문제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 아세안 측은 구체적 협력방안 등에 관한 한국 측의 의견을 외무부장관 명의의 서한으로 아세안 상임위 위원장 앞으로 보내줄 것을 요망
 - 외무부 아주국장은 통상, 투자, 관광, 기술협력 등 분야에서의 협력내용을 설명
 - 통상, 투자, 관광, 기술협력
3. 외무부는 아주국장의 순방 결과를 감안하여 1989년 내 협의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협력분야는 우선 통상, 투자 및 관광으로 제한하되 추후 기술협력 등으로 확대하기로 함.
4. 외무부는 1989.3.13. 주브루나이대사관을 통하여 아세안 상임위원장 앞으로 차관보급 공동협력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외무부장관 명의의 공한을 송부함.
 - 3.21.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외무부 아주국장 명의의 공한을 아세안 측에 전달
5. 아세안 상임위는 1989.4.2.~4. 개최된 회의에서 한국 측 협력방안을 상임위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고 동 검토 결과를 5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결정함.
6. 아세안 상임위원장인 브루나이 외상은 1989.4.20. 최호중 외무부장관에게 전달한 공한에서 한국과의 협의체 구성을 7월 개최 예정인 제22차 외상회담에서 결정 예정임을 통보함.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전8권 (V.2 1989.5-6)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13 / 2 / 1-206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추진(1989.5~6월) 경과임.

1. 1989.5.23.~25. 개최된 제5차 아세안 상임위는 한·아세안 분야별 대화(sectoral dialogue) 수립을 적극 건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7월 아세안 외상회담에 제출하기로 결정함.
 - 우선 무역, 투자 및 관광분야를 우선으로 하고 추후 기술협력을 추가하기로 결정
 - 협력방식 및 협력분야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화체 수립 직후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결정
 - 한국과의 협의조정국은 인도네시아가 담당
2. 외무부는 1989.6월 아세안과의 협력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 준비를 위하여 일본의 아세안과의 협의체 운영실태에 관한 자료를 주일본대사관을 통하여 입수하는 동시에 아세안 주재 공관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함.
3. 이재춘 외무부 아주국장이 아세안과의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말레이시아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1989.6.21.~23. 말레이시아를 방문함.
4. 외무부는 1989.6월 아세안 외상회담(7월)에서 한·아세안 협의체 설치가 공식화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7.4. 발표할 보도자료를 작성함.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전8권 (V.3 1989.7)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13 / 3 / 1-278

1989.7.3.~4. 개최된 제22차 아세안 외상회담에서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이 공식 결정됨.

1. 아세안 상임위원회 결정

- 1989.6.28.~7.1. 개최된 제6차 아세안 상임위는 한·아세안 협의체제 구성을 결정함.
 - 외상회담에서 협의체제 수립을 공식 발표
 - 한국과의 협력조정국으로 인도네시아를 지정
 - 초기에는 통상, 투자 및 관광 3개 분야 협력 추진
 - 정기협의기구로 한·아세안 공동위원회 설치
 - 외무부장관과 아세안 상임위원장 간에 합의각서 교환
 - 1990년 아세안 확대외상회담에 외무부장관 참석여부 검토

2. 아세안 외상회담

- 1989.7.3.~4.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22차 외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아세안 협력체 설립을 공식 발표함.
 - Alatas 인도네시아 외상(상임위 의장) 명의의 공한으로 7.28. 최호중 외무부장관에게 동 외상회담 결정사항 통보
- 한국과 아세안은 9월 한국과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이 각서교환을 통해 협의체제 개시 예정

3. 한국 정부의 후속 조치

- 아세안과의 실무협의를 위하여 1989.7.20. 국내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 구체적 협력사업 내역에 대하여 협의
- 아세안 측이 직·간접적으로 희망을 표시한 대아세안 협력기금 조성 검토
 - 3~5년간 총 300만 달러 규모

4. 한·아세안 실무회담 및 각서교환 준비

-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1989.7.27. 분야별 협력에 관한 제안서를 한국 측에 전달함
- 외무부는 고위실무회담을 1989.8.21.~22.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아세안 측에 제의
- 외무부는 각서교환을 위한 최호중 장관의 인도네시아 방문 시기 및 각서안 검토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전8권 (V.4 1989.8.1.-19.)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13 / 4 / 1-192

1989.8월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및 합의각서 교환 준비와 관련된 내용임.

1. 실무회의 개최 준비

- 아세안 측과 합의
 - 홍순영 외무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실무대표단과 아세안 대표단(6개 회원국아세안 국장)이 1989.8.21.~22. 서울에서 회의 개최
 - 회의 의제 및 진행방식 등에 대하여 협의 진행
- 아세안과의 협력방식
 - 공동위원회, 주한아세안대사위원회, 민간경협위원회 구성
- 아세안과의 협력분야
 - 통상, 투자, 관광분야별 협력방안에 관한 개략적 의견교환
 - 구체적 사업내용은 향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
- 기타 관련사항
 - 합의각서 문안 및 교환시기
 - 제1차 공동위 개최 시기
 - 확대외상회담 참가문제 등

2. 합의각서 교환 준비

-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9월 인도네시아 방문이 어려워지자 외무부는 Alatas 인도네시아 외상의 한국 방문을 추진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전8권 (V.5 1989.8.21.-25.)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13 / 5 / 1-222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을 위한 실무회의가 1989.8.21.~22. 서울에서 개최됨.

1. 실무회의 개최 준비

- 의전사항, 회의자료 등 준비

2. 실무회의 결과

- 개최 시기 및 장소
 - 1989.8.21.~22., 서울
- 양측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순영 외무부 차관보
 - 아세안 측: 파네 인도네시아 외무성 아세안차관보
- 협력 방식
 - 협의체 운영을 위한 기구(공동위원회, 주한아세안대사위원회, 민간경협위원회)설치 합의
 - 한국과의 대화 조정역할은 인도네시아가 수행
- 협력 사업
 - 통상, 투자 및 관광분야에서 한국 측이 협력제공 가능한 사업을 제시
 -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향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
- 대아세안 협력기금
 - 아세안 측은 협의체 정식 출범 시 한국 측이 일정규모 협력기금 제공을 약속하되 향후 수년간 총 1천만 달러 정도 규모의 기금을 희망함을 시사
- 기타 사항
 - 합의각서 문안합의
 - 합의각서 교환절차 협의
 - 외무부장관의 아세안 확대외상회담 참석문제 협의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전8권 (V.6 1989.8.26.-12월)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13 / 6 / 1-176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추진(1989.8.26.~12월) 경과임.

1. 한국 측 준비

- 외무부는 아세안 측과의 실무회의(1989.8월)가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협력기금 기여금 총액을 700백만 달러로 정하고 예산당국에 1990년도 사업예산으로 140만 달러 편성을 요청함.
 - 그러나, 예산당국이 난색을 보임에 따라 기여금 총액을 500만 달러로 줄이고 1990년에 100백만 달러를 집행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1989.9.16. 아세안 주재 공관에 이를 통보하면서 주재국에 설명하도록 지시
- 아세안국가들이 한국의 기금액에 대하여 너무 인색하다는 반응을 보임에 따라 외무부는 10.18. 다시 아세안 주재 공관에 전문을 보내어 2차 연도부터는 1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향후 5년간 700만 달러 이상의 협력규모로 추진하고자 함을 주재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지시

2. 합의각서 교환

-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1989.11.1.~3. 인도네시아(아세안 의장국)를 방문하여 11.2. Alatas 인도네시아 외무장관과 한·아세안 협의체제 출범을 위한 합의각서를 교환함.

3. 후속 협의

- 한국의 기여금 규모에 대한 아세안 측의 실망이 후속 협의에 다소 지장을 초래함.
- 외무부는 1989.11.24. 아세안 사무국이 위치한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 전문을 보내어 향후 증액을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사무국에 전달하고 사무국을 통하여 회원국에도 전달하도록 지시함.
- 12.7. 개최된 아세안 상임위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관하여 토의하였으나 제1차 공동위 개최 및 한국의 확대외상회담 참여문제는 거론되지 않음.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전8권 (V.7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관련 관계부처 회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13 / 7 / 1-142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을 위한 정부 관계부처 회의 내용임.

1. 제1차 회의

- 1989.7.4. 아세안 외상회담에서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외무부가 7.20.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소집함.
 - 통상, 투자, 관광, 기술분야 협력, 민간단체간 협력방안, 협력기금 설치 등 논의

252

2. 제2차 회의

- 1989.8.22. 한·아세안 고위실무회의를 앞두고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8.11. 개최함.
 - 실무회의 의제, 분야별 협력방안, 민간경협위 구성방안, 협력기금 공여방안 등 논의

3. 제3차 회의

- 한·아세안 고위실무회의 개최 결과 아세안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설치의 필요성이 시급해짐에 따라 기금의 규모, 운영방안, 예산확보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함.
 - 아세안 측이 1천만 달러 정도의 기금을 희망
 - 합의각서 교환 시 700만 달러 정도의 공여 의사를 표명하도록 추진
 - 기금 운영에 관하여는 아세안 사무국에 일임하는 안과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안을 검토

4. 제4차 회의

- 1989.9.26. 개최된 대책회의에서 기금 사업비 운용방안, 민간경협위 구성방안, 아세안과의 교섭에서의 최근 진전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함.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전8권 (V.8 아세안·선진국 간 협력실적 및 협력방향 등 조사)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13 / 8 / 1-123

외무부는 향후 아세안과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아세안·선진국 간 협력실적 및 협력방향 등을 조사함.

1. 외무부는 1989.3.1.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 주재 대사관에 주재국의 아세안과의 협력사업 내용 및 규모 등을 파악,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4.21.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도 비슷한 내용을 지시함.
2. 주미국대사관과 주일본대사관은 1989.4~5월 케일 미국 부통령의 동남아 순방과 다케시다 일본 총리의 동남아 5개국 방문에 관해 각각 보고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아세안국기들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보고함.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관련 고위실무협의회. 서울, 1989.8.21.-2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12 / 16 / 1-219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을 위한 고위실무회의가 1989.8.21.~22.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참석자

- 한국 측: 홍순영 외무부 차관보, 이재춘 아주국장 등 11명
- 아세안 측: 아세안 6개국 외무성 간부, Rusli Noor 아세안 사무총장 등 12명

2. 주요 토의내용

- 협의기구 설치 합의
 - 공동위원회: 정부간 협의기구, 연례 정기회의 개최
 - 주한아세안대사위원회: 한국 외무부와와 상설협의기구
 - 민간경험위원회: 민간경제단체 간 협의기구
- 합의각서 교환
 - 한·아세안 협의체제의 정식 출범을 위한 절차로 외무부장관과 아세안 상임위 의장 (인도네시아 외상) 간 합의각서 교환 예정
- 아세안 확대외상회담 참여 문제
 - 한국 측은 내년도 차기 회담부터 외무부장관의 참여를 희망
- 협력분야별 사업내역
 - 한국 측은 대아세안 기술협력 의지를 천명하고 통상, 투자, 관광 등의 분야별 협력제공 가능사업을 제시

3. 외무부의 후속조치

- 국내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시행함.
 - 참석 부서: 외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교통부, 과기처, 대한상공회의소
 - 논의 사항: 한·아세안 특별협력사업비 사용방안, 민간경험위원회 구성방안

제22차 아세안 외상회담 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12 / 15 / 1-381

1989.7.3.~8. 개최된 제22차 아세안 외상회의에서 호주가 추진하는 아태 각료회의 개최 문제가 논의됨.

1. 아태 각료회의 개최 동향

- 아세안 외상회의의 합의
 - 1989.7.6.~8.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외상회의에서 아태 각료회의를 11월중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 아태 각료회의 참가국
 - 아세안 6개 회원국(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아세안 대화상대국 5개국(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및 한국(총 12개국)
 - 중국, 대만(구중화민국), 홍콩 참가문제는 추후 재검토하기로 함.
- 사전 준비회의
 - 아태 각료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고위관리회의를 자카르타 또는 캔버라에서 개최하기로 함.

2. 아태 각료회의에 대한 협의

- 상기 아세안 확대외상회의에서 대화상대국들은 아태 각료회의 개최를 지지하였으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소극적 태도를 보임.
 - 개별회의에서 아세안 각국은 각료회의 참가용의를 표명
- 아세안 측은 별도의 기구나 회의 창설보다는 아세안 확대외상회의의 틀을 유지하기를 희망함.
 - 대화상대국은 보다 광범위한 협의장치 희망

3. 평가 및 의의

- 1980년대초 이후 한국, 일본, 미국, 호주 등 역내국가의 태평양협력에 관한 각종 제안이 최초로 구체화되는 계기가 됨.
- 한국의 아태 각료회의 참가는 아세안 외상회의의 한·아세안 간 공식협의체 수립결과와 한국의 아태 다자외교의 주요 성과로 평가됨.
 - 최초 아태 각료회의 시 동 각료회의의 정례화 및 추진방식에 관한 논란 예상
 - 한·아세안 공식협의체 수립을 위한 한·아세안 고위실무회담 개최 예정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정상회의, 제4차. Islamabad(파키스탄). 1988.12.29.-31.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서남아과

MF번호 2019-13 / 9 / 1-74

제4차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정상회의가 1988.12.29.~31.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됨.

1. 회의 참가국

- 회원국(7개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몰디브 및 부탄
- 인도 및 파키스탄은 수상 그리고 나머지 5개 회원국은 국가원수가 참석

256

2. 회의 의제

- 식량, 농촌개발, 테러리즘, 마약거래 퇴치문제 등 11개 분야 협력사업추진 평가 및 새로운 협력방안 설정

3. 회의 결과

- 회의 합의사항을 담은 이슬라마바드선언 채택
 - 전세계 핵군비 경쟁의 종식 및 핵위협 제거를 위한 공동 노력
 - SAARC-2000 계획을 채택하여 역내 최대 당면과제인 국민의 기본 생존권 확보(주거, 건강, 교육향상, 빈곤퇴치 등)를 위한 공동대처방안 제시
 - 신규회원 가입 시 기존 회원국의 전원합의 원칙 재확인
 - 제5차 회의(1989년) 스리랑카 개최 결정
- 인도와 파키스탄은 별도 양자회담 3차례 개최
 - 상호 핵시설공격금지협정 체결로 인해 양국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마련

SPC(남태평양위원회) 총회, 제29차. Agana(괌), 1989.10.7.-11.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13 / 10 / 1-54

정부는 1989.10.7.~11. 괌 하갓냐에서 개최된 제29차 SPC(남태평양위원회) 총회에 최종화 외무부 동남아과장을 옵서버자격으로 파견함.

1. 참가 현황

- 남태평양 역내의 27개 회원국 대표단 및 23개 옵서버국 및 국제기구 대표 100여명 참가
- 남태평양지역에서 수상급 5명, 외상 등 각료급 10여명 참가

2. 주요 토의내용

- 역외 회원국 및 국제기구의 재정지원 확대
- 남태평양에서의 유자망 조업금지
- 남태평양 해수면 상승문제

3. 종합평가

- 동 기구는 비정치적 분야의 역내 협력기구로서 재정곤란, 회원국의 다양성 등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역내 국가들에 있어서는 상호 중요한 접촉 채널의 하나로 평가됨.
- 한국은 지역 내 회원국들과 양자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되 SPC와 같은 지역협력기구와는 옵서버 파견, 소액원조 제공 등을 통해 채널을 유지할 통해 장차 경제블록화 추세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임.

SPC(남태평양위원회) 총회, 제29차. Agana(괌), 1989.10.7.-11. 전2권 (V.2 회의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13 / 11 / 1-731

1989.10.7. 괌 하갓냐에서 개최된 제29차 SPC(남태평양위원회) 총회 관련 자료임.

1. 설립연혁

- 1947 남태평양지역에 식민도서를 소유한 서방열강들이 기술자문, 훈련, 정보제공을 위해 설립 (본부: 누메아, 뉴칼레도니아)
- 1967년 이래 연 1회 정기총회 개최

258

2. 회원국(27개 국가 또는 자치령)

- 독립국(17):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피지, 나우루, 사사모아, 통가, 솔로몬제도, 투발루, 키리바시, 바누아투,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마셜제도, 팔라우
- 미 독립자치령(10)

3. 소관기구

- South Pacific Conference
 - 최고정책결정기구로 연 1회 개최
 - 회원국 정부대표로 구성

4. 주요사업

- 주로 농업, 어업, 교육, 문화 등 비정치적인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함.

5. 재정

- 회원국 분담금
- 국제기구 기부금
- 사업별 관련국 특별기부금

SPF(남태평양협의회) 정상회담, 제20차. Tarawa(키리바시), 1989.7.10.-1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14 / 1 / 1-49

제20차 SPF(남태평양협의회) 정상회담이 1989.7.10.~11. 키리바시 Tarawa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남태평양 연안국들이 정치, 경제적 상호협력을 협의하기 위하여 1981년 발족, 피지 등 15개국이 회원국

2. 회담 결과

- 남태평양 해역에서 대만, 일본의 유자망 어업문제, 해수면 상승문제, 뉴칼레도니아의 독립문제 등을 최대 현안으로 다루었으며 유자망 어업금지를 촉구하는 Tarawa 선언과 회의 결과를 정리한 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
- 유자망 어업금지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
-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한 대응조치, 특히 호주 및 뉴질랜드의 협조방안 논의
- 뉴칼레도니아 독립문제에 대하여는 1998년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문제를 결정하겠다는 프랑스 정부의 평화안 준수를 촉구하기 위한 유엔총회 결의안 추진 결정

3.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과의 협의

- 최초로 대화상대국(역외국가)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은 정상회담 종료 후 별도로 회원국을 대표하는 통가, 키리바시 및 바누아투와 1989.7.14.~15. 협의 개최
 - 중국은 초청되었으나 국내 사태로 불참
 - 남태평양 개발원조, 유자망 조업, 지역간 운송 등 경제, 환경보존 문제 및 소련의 남태평양 진출 동향 협의
 - 전체회의와는 별도로 개별 국가 간 양자회담 개최

4. 한국 정부의 관심사항

- Tarawa 선언은 남태평양 해역에서의 한국의 유자망 조업중지 결정을 평가
- 한국의 SPF 대화(Dialogue) 참여 문제는 SPF 측의 공식제외가 있을 경우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결정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 제21차. 서울, 1989.6.26.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문화과

MF번호 2019-14 / 2 / 1-176

제21차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사회문화센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가 1989.6.26.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

-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 집행위원회 의장대리 자격으로 회의 주재
 - 한국: 태석원 문화과장
 - 중국: 임종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
 - 일본: 아마에 기시치로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
 - ASPAC 사회문화센터: 정순근 사무총장

2. 주요결과

- 최호중 외무부장관을 의장으로 선출
 - 부의장은 주한 중국대사 선출
- 실적 보고 및 내년도 예산안 승인
 - 중국 정부는 분담금을 11만5천 달러에서 17만2천 달러로 50% 증액

3. 특이사항

-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일본영화 수입금지에 반발, 내년도 ASPAC 영화제 참가 유보를 통보

OAS(미주기구) 기타 회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9-14 / 3 / 1-258

1. OAS(미주기구) 상임이사회 외상회의가 1989.5.17. 워싱턴에서 개최됨.(Baker 미 국무장관 등 30개국 외상 또는 대표 참석)

 - 파나마 사태 관련, 현 파나마 정부를 비난하고, 정권 이양을 촉진하기 위해 OAS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을 주골자로 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
2. 파나마 사태 해결을 위한 OAS 외상회의가 1989.7.23.~24. 워싱턴에서 개최됨.

 - 파나마 국민 주권 및 민족자결원칙하에서 9.1.까지 사태해결을 위한 범국민적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
 - 미국은 OAS가 파나마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할 것을 제의했으나, 회원국 대부분이 내정불간섭 원칙을 내세워 미국의 주장에 반대
3. 주코스타리카대사는 OAS 정상회담(1989.10.27.~28., 산호세(코스타리카))에 관한 주재국 언론의 평가(아래)를 보고함.

 - 코스타리카의 민주주의 100주년 기념행사로 가진 동 회담은 코스타리카 국민의 단결에 기여
 - Arias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 금번 OAS 정상회담 주관으로 민주주의와 인권투쟁에서 지도력 인정
 - 코스타리카와 미국은행들은 Brady 안에 입각하여 10억 달러 외채경감에 합의, 동 회담을 계기로 외채문제가 선진·개도국 정치지도자 간 정치문제로 본격 토의될 것으로 기대
 - 캐나다의 OAS 가입발표는 역사적인 선언
4. 주미국대사는 1989.12.20. OAS 긴급이사회 개최에 관해 보고함.

 - OAS 긴급이사회가 파나마의 요청으로 12.20. 워싱턴에서 긴급 소집
 - 동 이사회에서 니카라과는 미국의 군사개입을 OAS 헌장 위반으로 비난하고 미군의 즉각적 철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
 - 미국은 노리에가 정권의 정통성 상실, 미국민 보호 필요성 등을 들어 미국의 군사개입이 정당함을 주장
 - 동 이사회는 12.22. 미국의 대파나마 군사개입에 유감을 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
 - 어떠한 이유에서든 일국이 타국에 개입할 권리가 없음을 강조
 - 파나마에서 발생한 사태와 인명피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외국군대의 조속한 철수를 촉구(미국은 반대, 중미 4개국 등은 기권)
 - 파나마 대표권문제와 관련, OAS 이사회는 노리에가 정권의 몰락, 신임 Endara 정부의 출범이 기정사실화 될 전망임에 비추어 미국의 개입은 비난하되, 그 결과로 탄생한 정부는 인정해야하는 모순된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OAS(미주기구) 총회, 제19차. Washington D.C., 1989.11.13.-18.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9-14 / 4 / 1-396

262

1. 제19차 OAS(미주기구) 총회가 1989.11.13.~18. 워싱턴에서 개최됨.

- 총회 참가국
 - 31개 회원국, 19개 옵서버국, 22개 국제기구대표 등
 - 한국 측: 박동진 주미국대사 등
- 총회 중점 토의내용
 - 엘살바도르 사태
 - 파나마 문제
 - OAS 강화를 위한 제반 행동프로그램 마련 및 재정강화방안 연구
 - 캐나다의 OAS 가입
 - EC(구주공동체) 및 벨리즈의 상임옵서버 지위 획득
- 한국대표단 활동
 - 회의기간 중 OAS 사무국 상임옵서버 담당관 등과 수시 접촉, 상임옵서버국의 대OAS 협력활동, 예산문제 등에 관해 의견교환 및 Soares OAS 사무총장의 방한 관련 협의
 - 여타 대표들과 OAS 활동과 전망, 중남미 정세 관련 정보교환
- 대표단 건의
 - 당분간 종래와 같은 수준에서 OAS와의 관계를 유지, 발전
 - 주미국대사관 OAS 담당관은 가급적 스페인어 구사직원을 파견, 업무추진 능률을 향상
 - Soares 사무총장 방한 시 한·OAS 간 기본협약 양해각서에 서명, 동 기구와의 협력기반구축
 - 1982년부터 추진해온 대OAS 협력사업인 연수생 초청 및 전문가 파견을 계속하는 한편, 미주대륙 발견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중남미 학자교류, 예술품전시회 교환사업을 추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남미국가와의 유대관계 심화 모색

2. 외무부는 1989.10월 상기 총회대비 각종 참고자료를 작성함.

- OAS 개황
- 중남미 국별 현안 및 한국입장, OAS 총회 한국참여 현황, 대OAS 기술협력 현황, 대중남미 교역 및 어업협력 현황, OAS 사무총장 방한 및 한·OAS 양해각서, 한국의 IDB(미주기구개발은행) 가입추진, 파나마 사태 참고자료, 캐나다의 미주기구 가입 등 각종 현황
-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남북대화, 한국의 민주화,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
- 콜롬비아 마약전쟁, 중남미 외채문제 분석, 제3차 중남미 8개국그룹 정상회담 결과보고 등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생산연도 1987-1989

생산과 서구1과/통상2과

MF번호 2019-14 / 5 / 1-197

1987~89년 중 개최된 EC(구주공동체) 정상회담 내용임.

1. 1987년

- 1987.6.29.~30. 브뤼셀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는 공동농업정책의 개선과 재정적자 해결 문제를 집중 토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2월 정상회담에서 타결하기로 결정함.
- 1987.12.4.~5.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는 4대 미해결 문제에 관하여 집중 토의했으나 어느 의제에 대하여서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여 1989.2월 특별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재론하기로 결정함.
 - 국제정치 문제와 관련, 미국·소련 정상회담 환영,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평화적 해결 및 이란·이라크전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

2. 1988년

- 1988.2.11.~13. 개최된 특별정상회담에서 기존의 미해결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함.
 - 1992년 EC가 하나의 시장이 될 때까지 재정규모 증액
 - 농업보조금 개선을 위한 주요 농산품의 생산한도 설정
 - 역내 빈곤국 개발 지원액 증액
 - 영국의 분담금 감액을 위한 분담금 산정기준 개선
- 1988.6.27.~28. 하노버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을 채택함.
 - EC 단일시장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
 - 경제 및 통화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결정
 - 동서 관계 진전 환영
 - 걸프만 내 종전 촉구, 중동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등

3. 1989년

- 1989.6.26.~27.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유럽 경제통화동맹 설립문제, 사회적 권리에 관한 EC 헌장채택, 개도국 외채문제, 역외 국제정세 등이 토의됨.
- 베를린장벽 철파 후에 EC 의장국인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1989.11.18. 긴급정상회담에서는 EC 통합의 신속한 추진, 유럽 개발은행 설립, 동구 사태에 대한 공동대처 및 유럽 군축문제 등을 협의함.
- 1989.12.8.~9. 스트라스부르그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는 구주통합 가속화, 단일시장 완성, EMU 1단계 실시 합의, 사회적 권리 인정, 동구권에 대한 지원 등이 합의됨.

EC(구주공동체) 외상회의

생산연도 1984-1989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19-14 / 6 / 1-265

1984~89년 개최된 EC(구주공동체) 외상회담 내용임.

1. 1984년 외상회담

- EC 역내문제 협의
 - 재정적자, 영국 초과분담금 환불, 포르투갈 가입 등

2. 1985년 외상회담

- EC 창설조약인 로마조약 개정 등 제도개혁, 사회보장제도, EC 확대 후 예산분담 문제 등 협의
- 역외 국제정세 문제로 미국·소련 군축회담, 중동 사태, 유럽테러 사태, 중미 문제 등 협의

3. 1986년 외상회담

- EC 개혁안에 대한 서명 추진, 인권선언문 채택, 남아공에 대한 제재 조치, EC·미국 농산물 분쟁, 일본시장 개방문제, 1987년 EC GSP 기본지침 등 협의

4. 1987년 외상회담

- 서유럽 방위 강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문제, 대일본 무역역조 시정 문제, 집행위 권한 강화, 식용기름 등에 대한 세금 등 농산물 문제, 미국·소련 군축협상,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란·이라크전에서의 화학무기 사용문제, 중남미문제, 남아공 사태 등 협의
- 이란·이라크전 종전 촉구 및 중동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촉구 성명서 채택
- 한국의 민주화를 환영하는 성명서 및 동·서 관계에 관한 3개 선언문 채택

5. 1988년 외상회담

-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역할 강화, 중동 문제, 남아프리카 문제, 중남미 문제 등 협의

6. 1989년 외상회담

- 중국 천안문 사태에 관한 공동성명서 발표 및 진전사항 검토
- 중국과의 접촉 동결, 동·서 관계, 중동 사태, 소련과 폴란드와의 무역협력 등 협의

EC(구주공동체) 아주국장 회의 및 정무총국장 회의 (정치위원회)

생산연도 1984-1989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19-14 / 7 / 1-169

EC(구주공동체) 아주국장 회의 및 정무총국장 회의(정치위원회) 등에서의 한반도 관련 협의 내용임.

1. 1984년

- 북한에 의한 미얀마(구 버마) 테러사건이 있는 후에 구주 의회는 1983.12.15. 북한 규탄 및 북한 불승인 요청을 결의함.

2. 1985년

- 구주 정무총국장 회의는 1985년초 북한에 대한 수재물품 지원으로 개최하게 된 남북경제회담과 관련하여 '한국의 남북대화' 제하의 의제를 다루었으나, 남북대화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남북회담을 격려하는 성명 채택을 유보함.

3. 1986~87년

- 구주 의회는 1986.1.17. 채택한 북한과의 교역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의안 채택함.
- EC 아주국장 회의는 1987.4.29. 미국 외교관의 대북한 관리 접촉지침 완화 문제를 논의하고 구주국가들이 계속 북한과의 접촉을 자제한다는 결론을 내림.

4. 1988~89년

- EC 정무국장 회의는 1988.11.8. 남북한 간 긴장완화를 환영하는 선언문을 채택함.
- EC 아주국장 회의는 1989.1.13. 대북한 관계개선에 관한 지침안을 작성, 협의하기로 결정함.

GCC(걸프협력이사회) 정상회의

생산연도 1987-1989

생산과 중근동과

MF번호 2019-14 / 8 / 1-90

제8~9차 GCC(걸프협력이사회) 정상회의 개최 내용임.

1. 제8차 회의

- 개최 시기 및 장소
 - 1987.12.26.~29., Riyadh(사우디아라비아)
- 참가국
 - 회원국 6개국 정상
- 회의 주요결과
 - 이란·이라크전 관련 이란의 유엔안보리 및 국제사회의 결의 수락, 이행 촉구
 - 이란·이라크전 확대가 걸프지역 회원국과 국제수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개탄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난민 학대 행위 규탄 및 유엔 주도하의 중동국제회의 개최 촉구
 - GCC 국가의 군사협력과 통합의 중요성 강조
 - 회원국 상호간의 석유차용제도 승인
 - 국제유가 유지(18 달러) 및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산유 쿼터량 준수의 중요성 강조

2. 제9차 회의

- 개최 시기 및 장소
 - 1988.12.19.~22., Manama(바레인)
- 참가국
 - 회원국 6개국 정상
- 회의 주요 결과
 -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승인 촉구
 - 이란·이라크전 종전 관련 양국의 직접대화 지지 및 유엔결의안 598호 이행에 따른 국제사회의 협조 촉구
 - 지역안보 및 경제협력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공동노력 강조
 - 11월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의에서의 18.5백만 배럴 생산 쿼터 합의 지지
 - 레바논 내전 종식을 위한 아랍연맹 외상회담 개최 촉구
 - 아랍에서의 이집트의 책임 및 역할 지지
 - 소련·아프간 반군 간의 대화를 위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역할 지지

OIC(이슬람회의기구) 회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19-14 / 9 / 1-81

제17~18차 OIC(이슬람회의기구) 외상회의 개최 내용임.

1. 제17차 회의

- 시기 및 장소
 - 1988.3.21.~25., Amman(요르단)
- 참가국
 - 45개 이슬람지역 국가 외상 및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대표
- 회의 결과 채택된 결의안의 주요 내용
 - 이스라엘의 점령지로부터의 철수 촉구
 - 아랍·이스라엘 분쟁 관련 유엔결의가 준수되도록 모든 노력 경주
 - 팔레스타인 주민의 무력항거 지지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위원회 설치 결정
 - 이란·이라크전 종결을 위하여 이란의 유엔안보리 결의 제598호 수락 촉구
 -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촉구
 - 미국의 PLO 유엔대표부 폐쇄 결정 규탄

2. 제18차 회의

- 시기 및 장소
 - 1989.3.13.~16., Riyadh(사우디아라비아)
- 참가국
 - 45개국 회원국 외상 및 PLO 대표
- 회의 결과 채택된 결의안의 주요 내용
 - '악마의 시' 저자 Rushdie를 배교자라고 비난
 - 서구국가에 대해 타 종교 비난 금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
 - 아프가니스탄 무자히딘 대표들에게 OIC 내 아프가니스탄 의석을 갖도록 초청
 - 이스라엘군이 점령지로부터 무조건 완전하게 철수하고 동 지역을 유엔 위임통치하에 둘 것을 촉구
 - 역내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지지
 - 미국이 PLO와의 대화를 발전시킬 것을 촉구

아랍연맹 회의

생산연도 1989

생산과 중근동과

MF번호 2019-14 / 10 / 1-68

1989년 개최된 아랍연맹 정상회담과 ACC(아랍협력위) 정상회담 내용임.

1. 아랍연맹 정상회담(1989.5.23.~26., 카사블랑카(모로코))

- 참가국
 - 1979년 자격정지 이후 처음으로 참석 초청을 받은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을 포함한 21개국 연맹 대표가 참석
 - 카다피 리비아 대통령은 이집트의 아랍연맹 복귀를 유일하게 반대하며 회의 참석 거부
- 회담 주요결과
 - 이집트의 아랍연맹 복귀 결정
 - 1988.11월 Palestine National Council의 결의안 환영
 - 이스라엘의 점령지 내에서의 선거안 관련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입장 지지
 -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군의 철수 촉구
 - 레바논 문제에 관한 3개국(모로코, 사우디, 알제리) 정상위원회 구성
 - Shatt Al Arab 수로에 대한 이라크 주장 지지

2. ACC(아랍협력위) 정상회담

- 제1차 ACC 정상회담이 1989.6.15.~16.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개최됨.
 - 회원국인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예멘 4개국 국가원수가 참석
 - 이스라엘 점령지에서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봉기 지지
 - 레바논 내 위기 해소를 위한 3개국 위원회 설치 지지
 - 이란·이라크 평화협상 관련 Shatt Al Arab 수로에 관한 역사적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하여 이라크 주장 지지
 - 회원국 국민들의 여행 자유 보장을 위하여 상호 입국비자 및 여행세 면제 합의
 - 요르단 암만에 ACC 사무국 설치 운영
- 제3차 ACC 정상회담이 1989.9.25.~26. 예멘 사나에서 개최됨.
 - 회원국 간 협력과 단결 강화를 위한 그간의 ACC 노력 결과에 만족
 - 이란·이라크 평화 수립을 위한 유엔의 노력부진에 우려표명
 - Shatt Al Arab 수로에 대한 이라크 주권지지
 - 팔레스타인 주민의 자결권과 독립국 창설 및 중동평화수립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자세 촉구
 - 레바논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 철수 촉구

OAU(아프리카단결기구) 각료회의, 제49차. Addis Ababa, 1989.2.20.-24.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9-14 / 11 / 1-517

제49차 OAU(아프리카단결기구) 각료회의가 1989.2.20.~24.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됨.

1. 회의 의제

- 예산 및 행정 문제
 - '89~'90 예산안, 회원국 기여금 적기 납부, 1988.5~89.2월 간 OAU 활동보고 등
- 정치 문제
 - 남아공 정부의 국내정세 비판, 팔레스타인 국가 선포 지지 및 중동문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지지, 아프리카난민 등 곤경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 소집 결정, 차기 유엔총회 의장 지명 등

2. 참가자

- 21개 회원국 외상, 4개국 장관, 25개국 차관 및 대사

3. 회의 결과

- 21개 결의안 채택
- 주요 결의안
 - 1989/199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남아프리카 난민 사태에 관한 국제회의 소집
 - 남아프리카 한발 및 기근 저감을 위한 비상지원기금 설치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 대외부채에 관한 아프리카 공동입장을 위한 세미나 개최
 - IMO(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후보 결정

신정부 승인 - 버마(미얀마)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9-14 / 12 / 1-34

한국의 미얀마(구 버마) 신정부 승인과 관련된 내용임.

1. 경위

- 1988.9.18. 미얀마에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Saw Maung 장군을 수상으로 하는 신정부가 수립되어 주요 헌법기관 폐지, 국호 변경, 군의 국가전권 장악 등 조치를 단행함.
- 신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문제가 제기되자 미얀마 주재 한국대사관은 1988.9.23. 외무부에 보낸 전문에서 량군 주재 주요국 대사관의 승인 움직임을 파악, 보고하면서 군사정부의 실효적 지배가 상당기간 존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신정부 승인을 건의함.
 - 승인 방법은 명시적 방법보다는 사실상 승인에 가까운 간접적 승인을 건의

2. 한국 정부의 조치

- 외무부는 1988.9.24. 주미얀마대사에게 미얀마 정부의 정식 정부승인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대사관이 여타 국가 대사관들과 보조를 맞추되, 필요 시 신정부 인사 접촉 및 일상적인 문서 교환 등 방법을 취함으로써 묵시적 승인 태도를 취하도록 지시함.
- 미얀마의 제41회 독립기념일(1989.1.4.)이 다가오자 국가원수의 축전 발송, 대사의 경축 리셉션 참석과 공관장의 경축메시지 전달 등 정부 승인과 직접 관련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미얀마 신정부에 대한 공식 승인을 유보해 온 국가(한국 포함)들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여야 할 상황에도달함.
 - 외무부는 1988.12.14. 미얀마 야권의 강력한 불승인 요청, 한국 내 미얀마 민주화 지지 여론 등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가 취할 입장에 대한 주미얀마대사관의 의견을 구함.
 - 주미얀마대사관은 12.15. 국경일은 정권과 관계없는 국가의 경축일이기 때문에 국가원수 명의를 축전 발송은 가능할 것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 외무부는 12.24. 주미얀마대사에게 노태우 대통령 명의를 축전을 Saw Maung 법질서 회복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전달하고 국경일 리셉션에 참석할 것을 지시함.
 - 축전 전달 자체는 여타국의 동향을 파악하여 조치하도록 지시함.

신정부 승인 - 수단

생산연도	1985-1989
생산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9-14 / 13 / 1-27

한국의 수단 신정부 승인과 관련된 내용임.

1. 경위

- 수단에서 1985.4.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여 군사정권이 수립되었으며, 1989.7.1. 군사쿠데타가 재차 발생하여 지도자 Omar Hassan을 수반으로 하는 The Council of The National Salvation Revolution이 수립됨.
- 이집트, 사우디 등 아랍국가들은 수단 신정부를 승인하였으며,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승인을 유보함.

2. 한국 정부의 조치

- 외무부는 1989.7월 개도국에서의 빈번한 쿠데타로 인한 정권 교체에 비추어 신정부 승인의 이익 및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한 결과, 명시적 승인이 아닌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통한 간접적 승인 방법을 결정함.
- 외무부는 7.3. 주수단대사관에 주재국 수상, 외상 등 취임 시 축전 발송 등 묵시적 방법을 통한 승인 의사 표명을 검토 중에 있음을 통보함.
- 주수단대사관은 무혈 쿠데타가 사실상 성공하였으며, 이집트 등 국가들이 이미 승인을 하였고, 한국의 투자공장 운영 및 근로자 체류 등 직접적 이해가 있음을 감안하여 지체 없이 신정부를 승인할 것을 7.5. 및 7.10. 외무부에 건의함.
- 7.13. 외무부의 묵시적 승인 행위 지시에 따라 주수단대사는 7.16. Al Sahloul 신정부 외상을 면담하고 양국 협력관계 강화에 관해 협의함.
 - 미국, 일본을 포함한 약 25개국이 신정부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

최은희, 신상옥 납북 사건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정보2과/북미과

MF번호 2019-15 / 1 / 1-309

납북되었던 최은희와 신상옥의 북한 탈출(1986년)과 귀국(1989년)에 관한 내용임.

- 1978.1월과 7월 각각 홍콩에서 북한으로 납치되었던 배우 최은희와 영화감독 신상옥이 1986.3.13. 오스트리아 방문 중에 주오스트리아 미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미국에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이들은 4.4. 미국으로 이송됨.
- 외무부는 1986.3.16. 주오스트리아대사관으로부터 이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3.18. 외무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이들의 북한 탈출을 환영하며 미국 정부가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할 것과 한·미국 양국이 긴밀히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냄.
- 주오스트리아 북한대사는 1986.3.16. APA통신 외신부를 방문하여 미국이 한국의 동의 하에 동인들을 납치하였으며 양국은 이들 납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전달하고 납치 경위를 설명함.
 - 북한 문화예술부는 3.21. 성명을 발표하고 동인들이 영화제작비 300만 달러를 횡령 하여 도주했다고 비난하면서 만약 미국이 이들을 한국으로 인도할 경우에는 남북대화 재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협박함.
 - 북한 영화인동맹 위원장은 4.2. 유사한내용의 성명을 발표함.
- 미국 정부는 1986.5.14. 이들에게 체류허가를 부여하였다고 밝힘.
 - 동인들은 5.14. 기자회견을 가짐.
 - 동인들은 12월 미국 영주권을 획득함.

일본인 오사와 프레스사장 납치 사건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15 / 2 / 1-140

일본인 오사와 프레스사 사장이 한국에서 납치된 사건과 관련된 내용임.

1. 경위

- 한국 남일기계 종업원들은 일본 오사와 프레스제작소로부터 수입한 불량기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면서 1988.12.28. 제작소 직원과 중개상을 회사 사무실에 감금하고 경찰과 대처함.
 - 남일기계는 1987.12월 수입기계 불량을 발견,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청구지검에 고소를 제기함.
 - 일본인 2인은 주한 일본대사관 직원을 대동하여 청구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귀경 중에 고속도로 위에서 납치되었다가 12.30. 풀려남.
-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국을 방문한 오사와 사장이 1989.2.20. 행방불명상태가 되자 주한 일본대사관은 2.11.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함.

2. 일본 정부의 해결 요구

- 주한 일본대사관은 1989.1.16. 외무부에 보낸 외교공한을 통하여 일본인 강제 납치와 대사관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 방해로 관련자들에 대한 한국 당국의 처벌을 요청함.
- 하세가와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은 2.25. 천황 조문사절의 일행으로 방일한 이재춘 아주국장에게 한국 정부의 성의있는 해결을 강력하게 요청함.
 - 오사와 사장 동생이 2.27. 대통령에게 조기 해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송부함.
- 야나이 주한 일본대사는 3.7. 외무차관을 예방하고 한국 정부의 수사 진행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 사건이 대통령의 방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언급함.
 - 외무부는 관계부처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함.

3. 납치문제 해결

- 오사와 사장은 1989.3.24. 남일기계로부터 풀려나 출국함.
 - 양측이 합의한 손해배상액 5천만 엔이 3.24. 남일기계로 전달됨.
- 오사와 사장의 납치에 가담한 피의자들은 3.25. 경찰에 구속됨.
 - 법원이 6.1. 판결을 선고함.
- 한국 검찰은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하여 오사와 사장에게 7.24. 검찰에 출두할 것을 요구함.
 - 동인은 일본 동경대 의대 정신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납치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 완료 전에는 여행이 불가함을 통보해 옴.

다케시다 일본 수상의 침략전쟁 부인 발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15 / 4 / 1-62

274

1. 외무부는 1989.2월 다케시다 일본 수상의 침략전쟁 부인 발언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함.

- 다케시다 수상은 1989.2.18. 중의원 예산위에서 과거 전쟁의 성격이 침략전쟁이었는지 여부는 추후 역사가 평가할 문제라고 발언함.
 - 한국 국내언론은 상기 발언과 관련, 일본의 침략전쟁 부인에 대해 비난
 -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신화사통신 등도 동 발언으로 중국 내 반일감정이 분출될 것이 우려된다고 강력 비판
- 주한 일본대사는 1989.2.22. 외무부차관에게 본국 정부의 훈령임을 전제로 아래 요지로 다케시다 수상의 진의를 해명함.
 - 일본은 과거 전쟁을 통해 주변국가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고 국제적으로 침략이라는 준엄한 비판을 받고 있는바 이를 충분히 인식해야 함.
 -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본 국교수립 시 공동성명으로 밝힌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유감의사는 전혀 불변함.
 - 일본은 이러한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지역과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 외무부차관은 주한 일본대사의 설명에 대해 아래 요지로 대응함.
 - 과거전쟁이 침략전쟁이었음은 명백한 사실인바,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종래입장에 변동이 없다는 해명으로 이해함.
 - 가까운 이웃으로서 선린우호관계를 지향하는 한·일본 관계를 감안, 금후 이러한 물의가 다시는 없기를 기대함.
- 한·일본 양측은 동 문제의 불필요한 확대 방지를 위해 해명사실과 내용은 상호 보도하지 않기로 양해함.
 - 단, 일본 언론에 보도될 경우는 상기 한국 측 대응 내용을 한국 언론에 설명함.

2. 주일본대사는 다케시다 수상이 1989.2.27. 중의원 예산위에서 상기 전쟁책임 부인발언에 관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고 보고함.

- 일본의 과거역사에 대한 인식은 1965년 한·일본 공동성명, 1972년 일본·중국 공동성명에서 언급된대로 어떠한 변화도 없음.
 - 일본은 과거 전쟁을 통해 주변국가 등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러한 과거행위에 관해 침략적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음.
- 일본은 이러한 역사인식을 갖고, 평화에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한편,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평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헌해 나갈 생각임.

대일본 연예인 송출 문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재외국민과

MF번호 2019-15 / 5 / 1-191

1. 외무부, 노동부 및 주일본대사관은 대일본 연예인 송출 재개와 관련한 각종 조치를 시행함.
 - 외무부, 주일본대사에게 연예인 송출문제에 대한 의견회보 훈령 하달(1989.3.8.)
 - 주일본대사, 연예인 송출 조속재개 건의(7.13.)
 - 재일한국인 연예인 사업자협회 총회 결과를 감안한 민단 건의를 반영
 - 외무부, 노동부에 연예인 송출 재개문제 검토를 요청(7.24.)
 - 재일한국인 연예인 사업자협회 총회 시 회원업소 확정, 이사진 개편, 알선업자 추가모집 등 특기할만한 진전 감안
 - 노동부, 외무부에 회원업소 회계관계 규정, 프로덕션 재선정 결과 등 제출자료 보완요청(8.4.)
 - 주일본대사, 연예인 사업자협회 회계규정 등 자료 외무부에 보고(9.5.)
 - 노동부, 외무부에 연예인 송출허가 재개방침 통보(9.27.)
 - 구인요청서에 대한 공관확인 업무재개 지침에 따른 처리요청
 - 주일본대사, 연예인 송출한도 인원보고(11.17.)
 - 1989년도 하반기 1,600명, 1990년도 상시 1,600명(연간 연인원 4,800명-평균 4개월 체재)
2. 노동부는 1989.11.18. 연예인 송출제도에 관해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통보함.
 - 연혁
 - 1982년 이전에는 연예인의 국제간 문화교류와 외국 공연활동 지원 측면에서 문화공보부에서 담당
 - 1981.11월 연예인 송출과 관련된 소송사건에서 법원은 동 연예인 송출이 직업안정법상 해외 취업으로 인정, 1982.8월 연예인 국외송출업무가 문화공보부에서 노동부로 이관
 - 연예인 송출중단
 - 1983년 이후 실제 공연시설이 없는 소규모 업소에서 한국 연예인을 고용하여接客행위를 요구하거나 비연예인의 연예인 위장취업 및 탈선행위 등 문제점으로 1984.7월부터 동 송출중단 조치
 - 연예인 송출재개
 - 송출중단 이후 관광비자, 위장취업 등 불법취업 연예인이 증가하고 주일본 공관, 재일거류민단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연예인고용을 위한 송출개재 건의에 따라 1988.5월 연예인 송출제도 확정 및 연예인 송출업체 허가
 - 송출현황
 - 구인요청 303명, 출국 143명(1989.3월~9.30.현재)
 - 기타 참고사항
 - 연예인은 과거 부조리 사태를 감안, 개별 초청형식의 취업은 지양하고 현행제도를 통한 단체구인 절차에 의해 취업하도록 관계규정을 강화할 계획

한·미국 간 접촉 통로 및 미국 측 주요 인사 관리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15 / 7 / 1-68

1987~89년 외무부가 조사, 정리한 한·미국 간 접촉 통로 및 미국 측 주요인사에 관한 자료임.

1. 외무부는 대미국 외교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1987~89년 사이에 미국 주요인사 및 기관에 대한 자료를 보완함.
2. 외무부는 1987년 한·미국 간 존재하는 정부간 채널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접촉 통로를 조사, 정리하여 업무 참고자료로 발간, 배포함.
 - 조사된 단체에는 서울 소재 단체, 미국 소재 단체, 연구기관, 대학 및 학술 단체, 친한단체, 비판단체, 미국 정당 관련 단체 등이 망라됨.
3. 한·미국 관계 주요인사 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1989.9.27. 청와대 안보보좌관 주재로 개최됨.

Solomon, Richard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임명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15 / 8 / 1-105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의 임명과 활동에 관련된 내용임.

1. Richard L. Armitage

- Armitage는 1989.2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됨.
 - 3.2.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이 원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
 - 3.2 하와이에서 개최된 미국 국방대학 주최 심포지엄에서 “미국의 지속적 이해를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 제하의 아·태지역 정책 방향에 대하여 연설
- 추후 동인은 해군장관으로 임명됨.

2. Richard Solomon

- 미국 백악관은 1989.3.24. 2월에 지명한 Armitage 대신에 Solomon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로 임명함.
- Solomon은 6.12. 개최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 천안문 사태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고 소련의 아·태지역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아시아지역 우방들과의 집단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 한반도 상황 평가, 한국 정부의 북방정책 진전과 미국의 지원, 한미 안보협력관계 유지, 주한미군의 장래 및 미국의 대북한 정책 등을 언급

대미국 주요인사 친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15 / 9 / 1-141

1988~89년 한국과 미국 주요인사 간에 교환된 친서 내용임.

1. 1988년

- 최광수 외무부장관 명의 술츠 미국 국무장관 앞 서한(8.9.)
 - 1988.8월 볼리비아를 방문 중인 술츠 국무장관의 탑승 승용차가 도로에 설치된 폭발물의 공격을 받아 부인이 부상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데 대한 위로편지
-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8.22.)
 - 1994년 동계올림픽 유치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
- 기타 서한
 - 최광수 장관의 이임과 관련하여 교환된 서한 등

2. 1989년

- 부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김재순 국회의장에게 보낸 당선축하 서한에 대한 답서(1.21.)
- 부시 대통령 방한 시 한국 측의 환대에 감사하는 베이커 국무장관 명의의 외무부장관 앞 서한(3.2.)

화학무기 금지에 관한 국제회의 참석계기 한·일본 외무장관회담. Paris, 1989.1.8.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15 / 10 / 1-109

한국과 일본 외무장관이 1989.1.7.~11. 파리에서 개최된 화학무기 금지에 관한 국제회의의 참가 계기에 양국 외무장관회담(1.8.)을 가짐.

1. 경위

- 미국·소련 간 핵군축 실현 등 동·서 긴장완화 추세에 부응하여 화학무기 금지에 관한 국제협약 교섭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1989.1.7.~11. 파리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함.
- 정부는 최호중 외무부장관이 동 회의에 참석할 것을 결정하고 동 계기에 회의 참석 여타국 외무장관과의 양자 외무장관 회담 개최를 추진함.
 - 1988.12.21. 주일본대사는 우노 일본 외상이 한·일본 외무장관회담 개최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을 보고

2. 회담 개최

- 주요 의제
 -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 문제
 - 제15차 정기각료회의 개최
 - 재일한국인 및 그 후손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 문제
 - 무역역조 문제
 - 사할린 동포, 재한국 원폭피해자 문제 등 양국 현안문제
 - 한국의 북방정책 추진과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대화(설명)
- 회담 결과
 - 우노 외상은 노 대통령이 1989년 봄 일본을 방문해줄 것을 희망
 - 정기각료회의는 천황의 국장(1989.2.24.) 후 조기 개최
 - 정기 외무장관회담을 도쿄에서 개최
 - 재일한국인 후손문제, 한·일본 청소년 교류계획, 사할린 거주 동포 귀환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 최호중 장관은 한국의 남북대화 노력 및 북한 측 반응을 설명하였으며, 우노 외상은 한국의 북방정책 추진에 깊은 관심 표명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제4차. 동경, 1989.4.1. 전3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15 / 11 / 1-100

제4차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이 1989.4.1. 서울에서 개최됨.

1. 기본계획

-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태국, 헝가리, 이라크, 일본 4개국 순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 대통령 일본 방문 준비 성격의 방문

2. 일정(안)

- 3.31.
 - 주일본대사 주최 만찬
- 4.1.
 - 외무장관 회담
 - 일본 정계인사 초청 오찬
 - 특파원 간담회
 - 우노 일본 외상 주최 만찬
 - 다케시다 일본 총리 예방(일본 측 사정으로 미확정)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제4차. 동경, 1989.4.1. 전3권 (V.2 회담준비사항 및 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15 / 12 / 1-131

제4차 한·일 외무장관회담의 1989.4.1. 서울 개최 준비를 위한 회담 관련 자료임.

- 방문 일정
- 대표단 명단
- 행사별 자료
 - 대사 내외 주최 오찬
 - 내부 대책회의
 - 우노 외상 예방
 - 우노 외상 내외 주최 만찬 만찬사
 - 민단간부 초청 조찬
 - 다케시다 총리 예방
 - 아베 자민당 간사장 예방
 - 주일본 특파원단 초청 오찬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 제4차. 동경, 1989.4.1. 전3권 (V.3 회담결과)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15 / 13 / 1-88

제4차 한·일본 정기 외무장관회담(1989.4.1.) 결과 보고임.

1. 양국 외무장관회담 결과 보고

- 대통령 일본 방문 관련 협의
 - 한국 측은 일본 천황이 과거사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언명을 해줄 것을 요구함.
 - 일본 측은 천황의 방한 초청의사를 표명해 주면 한국을 새 천황의 최초방문국으로 하고자 함을 피력함.
- 한·일본 양국 현안문제, 문화교류, 협정체결, 일본·북한 관계 등
 - 재일한국인 문제 근본적 해결자세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함.
 - 동경박물관 소장 문화재 일부 반환을 요청한데 대해 일본 측은 일본 대중문화 규제 완화를 요청함.
 - 한·일본 간 기초과학 공동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기로 함.
 - 해난구조 및 긴급 피난협정, 비자협정 및 사법공조협정을 대통령 방일 시 서명가능하도록 노력함.
 - 일본의 대북한 접근이 서두르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함.

2.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일본 방문 의의 보고(주일본대사 보고)

- 대통령 일본 방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일본의 적극적 협력자세 확보
 - 기본인식 일치, 과거사 반성, 천황 방한에 대한 일본 측 의도 확인
-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 및 역량증대 확인
 - 아태지역 내 주요국으로 부상
- 북방외교 성과 거양 및 남북대화 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진출 의지 과시
- 유엔 가입의 조기 실현을 위한 국제적 분위기 조성
 - 소련 및 중국의 거부권 행사 자제 유도 효과 기대

3. 다케시다 일본 총리 및 아베 일본 자민당 간사장 면담 결과 보고

- 다케시다 총리 언급내용
 - 대통령 일본 방문(1989.5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임.
 - 외무장관 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하며 재일한국인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함.
- 아베 간사장 언급내용
 - 남북대화의 진전 및 한국의 입장을 주시하면서 일본 입장을 결정해야 하며, 한국의 남북대화보다 일본이 앞서가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자신의 생각임을 언급함.

화학무기 금지에 관한 국제회의 참석계기 한·미국 외무장관회담. Paris, 1989.1.7.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북미과

MF번호 2019-15 / 15 / 1-148

한·미국 외무장관이 파리에서 개최된 화학무기 금지에 관한 국제회의(1989.1.7.~11.) 참석 계기에 양국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함.

1. 경위

- 미국·소련 간 핵군축 실현 등 동·서 긴장완화 추세에 부응하여 화학무기 금지에 관한 국제협약 교섭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1989.1.7.~11. 파리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함.
- 정부는 최호중 외무부장관이 동 회의에 참석할 것을 결정하고 동 계기에 회의 참석 여타국 외무장관과의 양자 외무장관회담 개최를 추진함.
 - 외무부는 1988.12.7. 주미국대사관에 한·미국 외무장관회담 개최 추진을 지시

2. 한·미국 외무장관회담

- 참가자
 -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솔츠 미국 국무장관
- 일자 및 장소
 - 1989.1.7., 파리
- 결과
 - 최호중 장관은 노태우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2월말 이전 정상회담 추진과 노 대통령의 공식 정상방문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
 - 솔츠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 신정부의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
 - 최 장관은 한국의 북방정책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미국의 지원을 요청
 - 최 장관은 한·미국 안보협력 공고화 필요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강조
 - 솔츠 장관은 남북대화 추진과정에서의 조심성과 안보태세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

제44차 유엔총회 참석계기 한·미국 외무장관회담. New York, 1989.9.26.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15 / 16 / 1-25

1989년 제44차 유엔총회 계기에 부시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우방국 협의회 및 한·미국 외무장관회담이 개최됨.

1. 우방국 협의회

- 부시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우방국 협의회에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16개국, 한국, 일본 및 호주 외무장관이 참석하였으며, 미국 측은 바로 전 주에 개최된 미국·소련 외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함.
 - 소련 측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국·소련이 동 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해야 함을 강조함.
 - 미국 측이 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협정 조속 체결을 위하여 공동 노력할 것을 제의하여, 소련 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2. 한·미국 외무장관 회담

- 참가자
 - 최호중 외무부장관 및 제임스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
- 일자 및 장소
 - 1989.9.26., 뉴욕
- 주요 결과
 - 10월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기획에 개최될 한·미국 정상회담 개최에 관하여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임을 설명
 -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에 대한 공동대처와 주한미군기지 이전의 원만한 해결에 대한 기대 표명
 - 미국 측은 최근 미국·소련 외상회담에서 소련 측이 북한의 핵개발을 원치 않으며 한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 제거를 요청하였다고 설명
 - 한국 측은 북한의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 체결 촉구를 위한 교섭 노력을 설명
 - 11월 호주에서 개최될 아·태각료회의에 관하여 의견 교환
 - 한국 측이 남북대화 진전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미국 측은 한국의 유엔 가입문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

한·캐나다 정책협의회, 제5차. 서울, 1989.11.13.-14.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북미과

MF번호 2019-15 / 19 / 1-253

제5차 한·캐나다 정책협의회가 1989.11.13.~14.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
- 캐나다 측: Jean McCloskey 캐나다 외무부 아·태담당차관보

2. 협의회 의제

- 국제 정세 및 여타지역 정세
- 아태 협력
- 한반도 정세
- 한·캐나다 양자관계
 - 정치, 경제통상, 이민문제, 문화관계 등

3. 주요 토의 결과

- 캐나다 측은 베를린장벽 와해 등 동구권과 소련에서의 변화를 평가하고 미국·소련 간 군축과 지역분쟁에서의 양국의 협력을 환영함.
- 캐나다 측은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 요청에 대하여 유엔의 보편성 원칙에 의거하여 한국의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재강조함.
- 한국 측은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에 따라 캐나다·북한 간의 관계개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으나 북한의 호전적 태도 불변화를 고려하여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요망함.
- 양측은 노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추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 한국 측은 멀로니 캐나다 수상의 소련 방문 시 한국의 유엔가입, 동북아6개국 평화협의회 제안 등 한국의 입장을 소련 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 캐나다 측은 한국 내 인권 상황을 주시하고 있음을 언급함.
- 캐나다 측이 유자망 어업문제 해결, 양국간의 무역역조 개선, 교역품목 불균형 시정, 시장개방에 있어서 미국과의 차별 시정, 보험시장 및 농산물시장 개방 등에 있어서 한국측의 협조를 요청한데 대하여, 한국 측은 캐나다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일반특혜관세 수혜의 계속적 부여 등을 요청함.

한·EC(구주공동체) 정무협약체 회의, 제1차. Paris, 1989.10.23.

생산연도 1989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19-16 / 1 / 1-160

제1차 한·EC(구주공동체) 정무협약체 회의가 1989.10.23. 파리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Hollants 벨기에 외무부 정무차관보가 1989.1.25. 유종하 주벨기에대사에게 EC와 한국 간의 제도화된 협의체의 필요성을 제기함.
- 외무부는 EC와의 협의체 구성 방침을 정하고 1989.5.26. 외무부장관 명의의 서한을 통하여 EC 측에 이를 정식 제의함.
- Prieto-Castro 주한 스페인대사는 1989.6.16.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를 예방하여 6.6. 개최된 EC 정무총국장 회의에서 한국의 장관급 회의 제의에 대하여 협의체 구성을 수락하되 우선 정무총국장급 회의 개최를 결정하였음을 통보함.
 - 이에 대해 한국 측은 EC의 결정에 동의하되 추후 장관급 회의로의 격상을 희망
- 주한 프랑스(EC 의장국)대사가 1989.7.13. 이정빈 제1차관보를 예방하고 제1차 협의회를 10월 중 파리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함.

2. 회의 개최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
 - EC 측: Bertrand Dufourcq 프랑스 정무국장
- 회의 결과
 - 한국 측은 노태우 대통령의 EC국가 순방,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남북한 관계, 북방정책 등에 관해 설명
 - EC 측은 미국·소련 관계, 소련 및 동구권 정세, 중동 문제 등에 관해 설명
 - 양측은 한·프랑스 양국협력에 관한 의견 교환
 - 한국 측이 동 회의의 외상급 회의로의 격상을 요청한데 대하여 EC 측은 추후 검토를 약속

한·헝가리 정책협의회, 제1차. 서울, 1989.9.27.-28.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16 / 2 / 1-70

제1차 한·헝가리 정책협의회가 1989.9.27.~28. 서울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Varkonyi 헝가리 외무장관은 1989.3.29.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한·헝가리 외무부 간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함.
 - 동 양해각서에 따라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1989.9.27.~28.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2. 회의 개최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민형기 외무부 구주국장
 - 헝가리 측: Laszlo Ivan 헝가리 외무부 제3지역국장
- 회의 의제
 - 한국 측이 북방정책, 한·서구 관계에 관해 발표
 - 헝가리 측이 헝가리의 아시아국가와의 관계, 동구권 정세, 소련·동구권 관계에 관해 발표
 - 양측이 공통 관심사항인 한·헝가리 정무관계 협의
- 회의 결과
 - 제1차 회의에서 한국의 북방정책 설명에 대하여 헝가리 측은 중국 지도부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종전보다 더욱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한·중국 관계가 한·소련 관계보다 더디게 진전될 것으로 평가
 - 제2차 회의에서 헝가리 측은 국내 개혁정책 추진현황, 동구권국가별 정세, 중국과 몽고의 한국의 북방정책에 대한 입장 등을 평가
 - 제3차 회의에서 양측은 노태우 대통령의 헝가리 방문 추진, 메제시 헝가리 부수상의 방한 추진, 각종 협정 체결, 학술·문화관계증진 문제 등을 협의

한·일본 고위정책협의회, 제6차. 서울, 1989.8.4.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16 / 3 / 1-34

제6차 한·일본 고위정책협의회가 1989.8.4. 서울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한·일본 양국은 1984년 이래 매년 양국 수도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
- 일본 측이 1989.6.1.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하여 제6차 회의를 8.4.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2. 회의 개최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
 - 일본 측: 구리야마 다카가즈 일본 외무심의관
- 회의 의제
 - 국제정세 일반(미국·소련 관계, 군축동향, EC 통합)
 - 한반도 주변정세(북한 정세/평양축전, 남북대화, 중국과 소련 정세, 중국·소련 관계, 북방외교, 일본·북한 관계)
 - 아시아지역 정세(아·태지역 협력, 캄보디아 문제, 필리핀 다자원조회의)
 - 미국과의 관계(한·미국 관계, 일본·미국 관계)

한·일본 고위정책협의회, 제6차. 서울, 1989.8.4. 전2권 (V.2 자료 및 회의록)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16 / 4 / 1-160

제6차 한·일본 고위정책협의회 관련자료임.

- 대표단 구성
- 의제별 발언자료
 - 국제정세 일반
 - 한반도 주변 정세
 - 아시아지역 정세
 - 대미국 관계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 제1차. Wellington, 1989.12.7.-8.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16 / 5 / 1-290

제1차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가 1989.12.7.~8. 웰링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
- 뉴질랜드 측: Graham Ansell 외교통상차관

2. 회의 의제

- 한반도 정세
- 세계 정세
- 아시아지역 정세
- 양자관계
 - 한국의 유엔가입을 포함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무역 및 투자증진 방안
 - 농업분야 협력
 - 관광 및 교육분야 협력

3. 회의 결과

- 동구권 변화 및 동서 관계 변화가 아·태지역에 가져올 영향에 대한 의견 교환
- 동독 사태와 북한과의 차이를 비교하고 동구권 변화가 북한에 미칠 영향에 관해 전망
- 뉴질랜드의 한국에 대한 외교지원 약속
- 동서해빙이 아시아(중국 및 북한)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뉴질랜드의 대중국 관계개선 노력 설명
- 지역협력(PECC(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사무국 설치, 한국의 제3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 유치 등)에 관한 의견 교환
- 남태평양에서의 선진국의 지원프로그램 재조정 필요성, 프랑스의 대뉴칼레도니아 정책 변화 및 소련의 남태평양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에 관해 평가
- 양자문제 협의
 - 뉴질랜드 측은 한국의 수입자유화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18조 포기에 따른 농산물 수입자유화 협의 진전에 관심 표명
 - 한국 측은 1989~90년 뉴질랜드 수역에서의 어획쿼터 감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뉴질랜드·북한 간 관계개선 시 한국과의 협의를 당부

멜라네시안 3개국 정상회담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16 / 7 / 1-61

멜라네시안 3개국(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바누아투) 정상회의 내용임.

1. 제1차 회의

- 일자 및 장소
 - 1986.7.14.~17., Goroka(파푸아뉴기니)
- 협의 내용
 - 뉴칼레도니아 독립, 남태평양 비핵시대 설치, 다자간 어업협정, 지역간 경험 및 문화교류, 3개국 간 해양 및 항공노선 개설문제 등
- 공동성명서 요지
 - 남태평양 비핵조약 발기국인 호주의 우라늄 채광 및 수출 등 조약정신 위반 비난
 - 8월 피지 개최 SP 포럼에 뉴칼레도니아 독립문제 상정
 - 역내 어업개발 촉진 등 경제협력 증진방안 협의
 - 역내 테러리즘 및 마약밀수 방지 협의

2. 제2차 회의

- 일자 및 장소
 - 1987.5.20., Rabaul(파푸아뉴기니)
- 협의 내용
 - 피지의 군사쿠데타, 리비아의 남태평양 진출문제, 뉴칼레도니아 독립문제, 경제문제 등
- 공동성명서 요지
 - 피지 주권존중 및 외세개입 반대
 - 뉴칼레도니아 원주민의 독립투쟁 지지, 주민투표 반대
 - 3개국 간 관계강화 및 협력을 위한 기본원칙 작성 합의
 - SRO(단일지역기구) 수립 협의 희망

3. 멜라네시안 3개국 협력협정 서명

- 3개국 정상은 1988.3.13.~14. 바누아투에서 개최된 3개국 협력협정 서명식에 참석, 동 협정에 서명



4. 제3차 회의

- 일자 및 장소
 - 1989.1.23.~24. Samarai(파푸아뉴기니)
- 공동성명서 요지
 - 뉴칼레도니아 및 피지 사태 청취
 - 제4차 LOME협정 교섭관련 3개국 간 전략 조정,
 - 3개국 간 통상·기술협력, 항공협력강화 방안 합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ANICs(아시아신흥공업국) 간 대화 및 세미나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16 / 6 / 1-314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ANICs(아시아신흥공업국) 간 대화 및 세미나에 관한 내용임.

1. OECD·ANICs 세미나

- 개최 일자 및 장소
 - 1989.1.24.~5., 파리
- 참가국
 - OECD 24개국 대표와 ANICs 6개국 대표 참석
 - 한국 측에서는 한우석 주프랑스대사, 박유광 경제기획원차관보, 신봉식 전경련상근부회장, 양수길 KDI 선임연구위원 등 정부, 기업 및 학계 인사가 참석
- 회의 목적
 -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강화와 통상마찰 해결을 위하여 경제, 통상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새로운 관계설정을 목적으로 개최
- 회의 결과
 - OECD 측은 세계교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양측의 거시경제정책 협력 필요성을 강조
 - ANICs 측은 OECD 산하위원회 참여확대 필요성, 국제통화의 안정화, ANICs의 산업구조 필요성 등을 강조
 - 한국대표는 세계경제의 불균형 시정을 위한 선진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선진국의 기술이전 및 산업협력 확대를 촉구하고, 보호주의, 양자주의, 지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

2. 한국의 대응

- 한국대표는 1989.1.23. ANICs 대표들과의 사전 협의회를 갖고 향후 대화방식, 세미나 의제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 홍순영 외무부 차관보가 6.5. OECD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OECD·ANICs 대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및 OECD 한국가입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여타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정부는 11.7.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산하위원회 가입문제, 워크숍 개최문제를 협의함.
- OECD가 OECD·ANICs 대화의 후속조치로 1990.2~4월 기간 중 4개 분야에 관한 워크숍 개최를 추진함에 따라, 한국은 1990.3.20. 관련회의(다자간 교역, 지역협력)를 개최함.

공관장회의, 1989년도. 서울, 1989.3.9.-17. 전5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9-16 / 8 / 1-218

1989.3.9.~17. 서울에서 개최된 공관장회의 준비자료임.

1. 공관장회의 운영 개선

- 외무부는 1989년 공관장회의 개선 방안을 내부 협의하고 기본계획을 결정함.
 - 중장기 정세판단과 외교방향에 대한 설명
 - 전체회의 축소 및 지역별 회의 활성화
 - 초당 외교 및 국민 외교를 위한 당 고위당직자 및 국회의통위 위원들과의 간담회
 - 산업시찰

294

2. 1989년 회의

- 개최 일자
 - 1989.3.9.~17.
- 참가자
 - 77개 지역 대사, 5개 대표부 대사, 4개 지역 총영사 등 총 86명의 공관장
- 회의 운영
 - 국내외 정세 및 주요업무계획 설명
 - 북방외교 토의 및 공관장 의견 발표
 - 경제통상 현안 및 추진방안 토의
 - 4개 지역별 회의
 - 경제 4단체와의 간담회
 - 지방 산업시설 시찰

3. 기타 자료

- 회의 운영에 관한 안내서 등

공관장회의, 1989년도. 서울, 1989.3.9.-17. 전5권 (V.2 지역별 회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9-16 / 9 / 1-159

1989.3.9.~17. 서울에서 개최된 공관장회의 지역별 토의내용임.

1. 아주지역

- 캄보디아 문제 해결 전망
- 한국의 인도차이나 3개국 정책 방향
- 아세안과의 대화채널 구축에 관한 본부 입장

2. 미주지역

- 7·7 선언 이후 북한침투 동향 및 대책
- 대중남미 실질협력 증진 방향
- 중남미에서의 불법이민 대책
 - 공관장들의 건의로 중남미 이주정책에 관한 별도 회의 개최

3. 구주지역

- 7·7 선언 이후 북한의 대서구 접근 동향
 - 서구국가들의 남북한 문제에 대한 최근 입장
 - 북방정책의 성공적 추진방안
 - 북한의 대서구 접근 움직임에 대한 대처방안

4. 중동·아프리카지역

- 지역정세 평가
 - 이란·이라크 전쟁, 아랍·이스라엘 분쟁, 미국·리비아 분쟁, 남부아프리카 정세, 지역경제 블록화
- 미수교국 관계 개선
- 주요 현안문제 및 건의사항

공관장회의, 1989년도. 서울, 1989.3.9.-17. 전5권 (V.3 회의 자료 I (공관))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9-16 / 10 / 1-258

1. 1989.3.9.~17. 서울에서 개최된 공관장회의 토의자료임.
2. 동 공관장회의에 앞서 각 공관들이 외무부에 제출한 주재국 관련 정치, 경제 등 정세 현황, 양국간의 현안문제, 건의사항 등임.

공관장회의, 1989년도. 서울, 1989.3.9.-17. 전5권 (V.4 회의 자료 II)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9-16 / 11 / 1-157

1. 1989.3.9.~17. 서울에서 개최된 공관장회의 토의자료임.
2. 관계부처 및 외무부 각 실국에서 작성한 자료가 주된 내용임.
 - 1989년 주요업무계획
 - 국무총리실의 국정개혁 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 경제기획원의 1989년도 경제운용계획 및 최근의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 외무부 통상국의 통상외교의 현안과 추진방향 등

공관장회의, 1989년도. 서울, 1989.3.9.-17. 전5권 (V.5 결과보고 및 건의사항/본부검토)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9-16 / 12 / 1-211

1989.3.9.~17. 서울에서 개최된 공관장회의의 결과보고 및 건의사항임.

1. 결과보고

- 외무부가 1989.5월에 작성 배포한 “1989년도 재외공관장회의의 결과” 책자
 - 운영개선 지침에 따라 정무와 경제. 통상분야로 대별하여 3차의 전체회의와 지역별 회의를 통하여 주요 외교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룸.

2. 공관별 건의 및 조치사항

- 공관장의 건의사항
- 각 해당 실국의 조치사항

관내 공관장회의 및 상사협의회, 1989년도 - 캐나다. 전2권 (V.1 제1차. Ottawa, 1989.4.27.-28.)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통상1과
MF번호	2019-16 / 13 / 1-115

1989.4.27. 오타와에서 개최된 캐나다지역 공관장회의의 관련사항임.

1. 일정(4.27.)

- 개최 및 주캐나다대사 훈시
- 정무, 홍보·문화관계 토의
- 경제·통상관계 토의
- 아태지역경제협업체 창설 추진동향 보고
- 영사·교민, 이민관계 토의

2. 참석자

- 박수길 주캐나다대사, 박송택 주토론토, 정기욱 주밴쿠버, 라원찬 주몬트리올총영사

3. 의제별 토의

- 주재국 정세 및 대외관계
- 한·캐나다 관계 주요 외교현안
 - 한국 대통령 캐나다 방문 문제 등
- 최근 북한동향, 캐나다·북한 교류동향 등
- 친한단체 육성 강화 방안
- 홍보사항
 - 주재국 홍보여건 검토 및 대학별 한국학 강좌개설 지원 등

4. 영사·교민 사항

- 교포 방북 관련 교민선도 대책 및 방북절차 파악
- 해외여행 자유화 관련 업무체제 확립
- 소수민족 문화행사 종합지원
- 캐나다 한인 총연합회, 경로회 개최

5. 이민관계

- 캐나다 이민제도, 수민현황, 한국인의 유형별 이민현황 등

관내 공관장회의 및 상사협의회, 1989년도 - 캐나다. 전2권 (V.2 제2차. Vancouver, 1989.11.2.-3.)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북미과/통상1과

MF번호 2019-16 / 14 / 1-286

1989.11.2.~3. 밴쿠버에서 개최된 캐나다지역 공관장회의 및 상사협의회 회의 결과임.

1. 제2차 캐나다지역 공관장회의(1989.11.2.)

- 참석자
 - 박수길 주캐나다대사(회의 주재), 박송택 주토론토총영사, 정기옥 주밴쿠버총영사, 라원찬 주몬트리올총영사
- 분야별 토의내용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주재국 내에서의 종합적 홍보강화 방안
 - 고위인사 교류, 국제무대 협조, 문화협정체결, 주정부 접촉강화 등 양국관계 증진방안
 - 양국간 경제통상 현안문제
 - 한국전문가 육성방안
 - 각종 공연, 행사, 교환프로그램의 종합적 추진
- 영사·교민분야 토의내용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교민사회 홍보와 교포 방북관련 문제
 - 미수교 북방 사회주의 국가 관련 출입국 문제
 - 주재국 내 각 지역 소수민족 문화행사 종합추진 계획.

2. 제2차 상사협의회(1989.11.3.)

- 참석자
 - 주캐나다대사(회의 주재)
 - 공관직원: 대사관 및 각 총영사관 직원 8명, 토론토 및 밴쿠버 무역관장
 - 상사지사 및 은행: 현대자동차, 한인은행 등 지사장 19명
- 협의 내용
 - 캐나다 경제동향 및 전망
 - 한국의 무역동향 및 대책
 - 한·캐나다 교역추이 및 전망
 - 1989년도 대캐나다 경제 및 통상활동 평가

주일본지역 공관장회의, 1989년도 - 일본. 동경, 1989.6.8.-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17 / 1 / 1-224

1989.6.8.~9.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일본지역 공관장회의 결과임.

1.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1989.6.8.~9., 주일본대사관
- 참석자
 - 주일본대사
 - 일본지역 총영사 11명
 - 본부 아주국 심의관 및 영사교민국 재외국민과장

2. 의제

- 1989년도 양국관계, 일·북한 관계 전망과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제
- 대일본 수출진흥 활동 평가와 관할지역 시장 진출상의 애로사항 검토
- 영사관련 민단 주요업무 및 성묘단 사업, 민단에 대한 보조금 문제
- 외무부 본부설명 및 지시사항
 - 일본·북한 관계 개선에 대한 대책
 - 한·일본 외교일정
 - 영사 수입금 직접사용 문제
 - 조총련계 동포 모국왕래 문제

3. 주요 건의사항

- 주니가타총영사관 국유화
- 영사수입금 직접사용 문제
- 재일동포 입국 시 외화소지 한도 3천 달러 제한 완화
- 조총련계 동포 개별 모국방문 허용 문제
- 재일한국인 지방자치체 참정권 획득 문제
- 오사카 국제조경 박람회 참가와 현지 전문가파견 건의

한·일본 간 소련관계 구주국장 협의회, 제4차. 서울, 1989.2.10.-1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17 / 3 / 1-211

제4차 한·일본 구주국장 협의회가 1989.2.10.~11.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참석자

- 한국 측: 민형기 외무부 구주국장, 최병호 외무부 동구과장 등 5명
- 일본 측: 토고 외무성 구아국장, 가이타니 외무성 소련과 과장보좌 등 5명

2. 의제별 회의 결과

- 북방정책 및 한·소련 기본관계(한국 측 설명)
 - 북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배경
 - 한국의 대소련 기본입장 및 최근 한·소련 관계
- 소련의 대내외 정세 및 대아시아 정책 (일본 측 설명)
 - 현재까지 경제면에서의 개혁성과 미흡
 - 일부 저항은 있으나 고르바초프의 권력기반은 안정적
- 소련·북한 관계
- 일본·소련 관계
 - 소련은 최근 대일본 경제협력 필요성을 절감
 - 일본은 북방 4개 도서영유권 문제의 해결 없이는 대소련 관계개선이 어렵다는 입장
- 일본 측 관심사항
 - 한·일본 양국의 대소련 정책추진에 있어서 상호정보교환 및 입장조정 필요성
 - 한·소련 간 영사기능 수행문제에 관한 교섭진행 과정 및 내용

한·미국 간 소련관계 실무자 회의, 제6차. Washington D.C., 1989.8.28.-29.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동구과

MF번호 2019-17 / 5 / 1-82

한·미국 간 소련관계 국장급 실무자 회의가 1989.8.28.~29.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됨.

1. 회의 일자 및 장소 : 1989.8.28.~29., 미국 국무부 회의실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민형기 외무부 구주국장
- 미국 측: Curtis Kamman 국무부 구주 및 캐나다담당 부차관보

3. 주요 일정

- 8.28.: 차관보 예방, 제1차 회의, 미국 측 주최 오찬, 제2차 회의
- 8.29.: 제3차 회의, 한국 측 주최 오찬

4. 토의 내용

- 소련 국내정세(미국 측 설명요지)
 - 소련 국내정세의 장래와 그 영향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음.
 - 경제 난국, 공산당이 당면한 문제, 범죄문제, 민족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드러남.
- 미국·소련 관계
 - 미 행정부는 야심적인 목표를 가지고 대소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음.
 - 미국은 소련을 군사적 경쟁상대에서 국제문제 해결의 대화 파트너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미국은 한국 정부가 한·소련 관계 개선 과정에서 취한 원칙을 지지하며 이를 지켜나가기 바란다고 언급함.
- 제3차 회의에서는 폴란드 정세, 헝가리 정세가 논의되었으며, 소련의 대아시아 외교 및 경제정책이 토의됨.

한·미국 간 소련관계 실무자 회의, 제6차. Washington D.C., 1989.8.28.-29. 전2권 (V.2 회의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17 / 6 / 1-285

1989.8.28.~29.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국 소련관계 국장급 회의 관련자료임.

- 미국 측 환영사에 대한 답사
- 소련 내부정세
- 미·소련 관계 전반
- 미·소련 간 지역문제 협의
-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 소련의 대중국, 대일본 정책
- 아시아지역의 소련 외교 및 경제정책
- 1990년대 소련의 대아시아 정책 전망
- 결론

동북아 학술회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19-17 / 7 / 1-234

1. 아태지역 평화와 안보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가 하와이대학 주관으로 1989.2.23.~26. 개최됨.

- 참석자(13개국 30여명 학자 참석)
 - 한국: 안병준 연세대 교수, 한승주 고려대 교수
 - 북한: 송호경 군축 및 평화연구소 부소장, 윤종민 선임연구원, 이형철 통역
 - 미국: 스킨라피노 버클리대학 동아시아 연구소장 등 2명
 - 일본: 니시무라 국제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 소련: 이바노프 학술원 산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태평양연구과 주임 등 2명
 - 후아 디 국제신탁공사 국제연구소 부소장 등 2명
- 토의 내용
 - 북한, 중국, 소련 대표는 모두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 철수, 팀스피리트 중지를 주장한 반면, 한국, 미국은 점진적 교류증진을 통한 신뢰회복을 우선 추진할 것을 주장함.
 -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간 협의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함.
 -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진전 가능성 및 한국의 새로운 통일방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함.
 - 소련은 한반도 비핵화시대 문제에 관한 북한입장을 지원함.

2.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공동주최한 동북아시아 전문가회의가 1989.5.25.~27. 일본 도쿄에서 개최됨.

- 회의 주제 : 동북아 평화와 경제협력
- 참석자
 - 한국: 최광수 전 외무부장관, 정종욱 서울대 교수, 이시영 외무부대사
 - 북한: 송호경 군축평화연구소 소장 대리 외 3명
 - 미국: 시거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외 3명
 - 일본: 다니노 외무성 아주국 심의관 외 3명
 - 소련: 두루고프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연구원 외 2명
 - 기타: 인도네시아와 몽고에서 각 1명
- 토의 내용
 - 한국은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으로 북한과의 대결, 경쟁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고 언급함.
 -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및 미군철수 주장 등 기존입장을 반복함.
 - 소련은 한반도 정세 개선을 위해 관계국 간 균형있는 경제교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한·이집트 학술회의, 제2차. 서울, 1989.10.24.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근동과

MF번호 2019-17 / 8 / 1-108

제2차 한·이집트 학술회의가 1989.10.24. 서울에서 개최됨.

1. 참가자(수석대표)

- 이집트 측: Mohamed El-Zayyat 국회 아랍 및 국제문제위원장
- 한국 측: 임동원 외교안보연구원장

2. 발표 논문

- 제1세션
 -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대외정책
 - 중동에 있어서의 평화노력
 -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이집트 시각
 - 지역정치 문제에 대한 이집트 시각
- 제2세션
 - 한국의 경제발전과 대외정책
 - 이집트의 경제정책
- 제3세션
 - 한·이집트 관계강화를 위한 정치외교적 접근
 - 이집트와 한국 간의 건설적이고 결실있는 양자관계
 - 초강대국 간의 데탕트와 중동지역에 있어서의 영향

한·헝가리 원탁학술회의, 제2차. 서울, 1989.3.5.-1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17 / 9 / 1-58

제2차 한·헝가리 학술회의가 연세대학교와 KIET(산업연구원) 공동으로 1989.3.5.~12.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개최 경위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는 헝가리 학자 11명을 초청하기로 하고 외무부의 협조를 요청함.
 - 외무부는 동 학자들의 초청에 이의없음을 알리고 일정 주선에 협조함.
- 회의 참석자
 - 헝가리 측: Erno Kemenes 국가계획청 국무비서 외 10명
 - 한국 측: 김달중 연세대 교수, 이종재 산업연구원 교수 외 다수

2. 토의 의제

- 변모하는 세계 속에서의 한·헝가리 관계
 - 양국에 있어서 정치개혁과 함의
 - 동유럽과 동아시아 간 지역경제협력
 - 동유럽국가의 경제개혁이 동·서 경제협력에 주는 영향
 - 동·서의 자본, 투자와 기술협력의 가능한 메카니즘
 - 한·헝가리 기업의 정책결정
 - 한·헝가리의 경제협력의 현상과 문제점

3. 기타 관련사항

-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가 헝가리 국가계획청 국무비서를 위한 오찬 주최
 - 동구권국가 최초로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데 대해 평가

한·일본 동북아 정세 연구회의, 제4차. 서울, 1989.5.25.-27.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기획조사과

MF번호 2019-17 / 10 / 1-54

제4차 한·일본 동북아 정세 연구회의가 1989.5.25.~27. 서울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한국 측: 임동원 외교안보연구원장 등 17명
- 일본 측: 니세키 긴야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등 9명

2. 토론 요지

- 소련 정세
 - 소련은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미 과거에로의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의 새로운 소련으로 변모함.
- 중국 정세
 - 중국은 지난 10년간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며 과감한 개방정책을 추진해 왔음.
 - 경기과열, 유통부문의 혼란, 이종가격제에 편승한 물가고, 각종 투기 등 부작용을 낳고 있음.
- 북한 정세
 - 북한은 서방과의 경제교류를 모색하고 있으나, 개방으로 초래될 체제상의 정치, 경제적 혼란의 우려 때문에 본격적인 변화는 김일성 사후에나 전개될 것으로 보임.
- 남북한 관계
 - 남북한 간에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일본 측은 일본·북한 관계가 한·소련 관계 발전보다 선행될 수 없는 한정적 공존에 머무를 것이라고 내다봄.

한·미국 관계 학술회의. New York, 1989.1.11.-12.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17 / 11 / 1-45

한·미국 관계에 대한 학술회의가 서울포럼과 CFR(미국외교협회) 공동주최로 1989.1.11.~12. 뉴욕에서 개최됨.

1. 회의 주제 : 한·미국 안보관계, 반미감정, 통상문제 등 한·미국 간 현안문제

2. 주요 참석자

- 한국 측
 - 박동진 주미국대사 등
- 미국 측
 - 아마코스트 국무부차관 등

3. 미국 측 발언요지

- 한국의 발전과 대외 정책
 - 경제력, 방위력 성장에서 오는 자신감이 대외관계 활력으로 작용함.
- 한반도 주변상황
 - 미국·소련 관계가 갈등 관계에서 실리적 관계로 전환 중이며, 미국은 북한의 억지를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소련은 한국과의 경제관계 증진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 중임.
 - 북한의 정책이 불변인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함.
- 한미 관계
 - 반미감정에 대처하는 한국 측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됨.
 - 통상문제 관련, 한국이 약소국이라는 논리는 통용될 수 없음.
- 안보문제
 - 주한미군은 지역안보적 역할이 아니라 순전히 대북한 견제 역할을 하고 있음.

4. 한국 측 발언 요지

- 남북대화, 북방정책, 통상문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개진함.
- 주한미군, 핵무기 등을 협상없이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데에 대해 부정적임을 강조함.

미국 Heritage Foundation 주최 한국관계 세미나. Washington D.C., 1989.10.10.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17 / 12 / 1-70

한·미국 정상회담(1989.10.10.)에 즈음하여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미국 대통령에 대한 건의서를 발표하고 한국관계 세미나를 개최함.

1. 헤리티지재단의 아시아 연구부는 1989.10.6.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내야 할 부시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 제하의 정책 건의서를 발표함.

- 정상회담 시 부시 대통령의 입장 건의
 -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의 재다짐
 - 노 대통령의 민주화 노력 지지 천명
 - 한국의 시장개방 조치 치하 및 지속적 경제자유화 노력 촉구
 - 한국의 북방정책 지지 및 한·미국 동맹관계 재확인

2. 헤리티지재단의 아시아 연구부는 1989.10.10. “한미 관계 1990년대 공약 재확인” 제하의 세미나를 개최함.

- 주요 토의내용
 - 민주주의 신장으로 인권문제 해소
 -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로 국민적 자부심 고양
 - 여소 야대 정국
 - 한·미국 관계변화에도 불구하고 안보협력관계는 견고
 - 1990년대 후반에는 한국이 한반도 방위의 중추적 역할 기대
 - 지난 10년간 양국 경제통상관계가 크게 개선
- 평가
 - 한·미국 관계가 정치, 안보, 경제면에서 긍정적인 발전을 하였음을 평가하고 1990년대 더욱 성숙한 관계 발전을 희망

한·일본 21세기위원회 공동연구회, 제1-2차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17 / 13 / 1-301

1. 1989.1.29.~30. 일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일본 21세기위원회 합동회의 관련자료임.

- 참가자
 - 한국 측: 고병익 한림대 교수 등
 - 일본 측: 스노베 료조 외무성 고문 등
- 주요 일정
 - 회의 및 다케시다 일본 수상 예방
- 회의 진행
 - 주로 양측 전문위원 간의 논문발표와 토의로 진행
 - 한국 측은 논문 형태로, 일본 측은 참고자료로 제출
- 회의 주제
 -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화, 사회
 - 양국관계에 관한 문헌조사
 - 양국간의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에 대한 조사
 - 상호인식에 관한 연구
 - 재일한국인 문제

2. 1989.11.10.~11. 한국에서 개최된 제2차 한·일본 21세기위원회 합동회의 관련자료임.

- 참가자
 - 한국 측: 고병익 위원장 등
 - 일본 측: 스노베 위원장 등
- 주요 일정
 - 11.10. 제1세션(국제환경의 변화), 고병익 위원장 주최 만찬
 - 11.11. 제2세션(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일본 양국의 정치, 안보관계 전망), 제3세션(국제경제의 변동과 한·일본 경제관계의 전망), 야나이 주한 일본대사 주최 만찬

한·일본 21세기위원회 운영 및 제2차 본회의. 동경, 1989.5.13.-14.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17 / 14 / 1-57

1. 1989년도 한·일본 21세기위원회의 양측 위원 명단임.

- 한국 측 명단
 - 위원장: 고병익 한림대 교수
 - 위원(7명): 최석채 고문, 정수창 동양맥주 회장, 최형섭 산업과학기술연구소 고문, 문인구 변호사, 강영규 한국외교협회 이사,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김옥렬 숙명여대교수
 - 위원 및 사무국장: 한승주 고대 교수
- 일본 측 명단
 - 위원장: 스노베 료조 외무성 고문
 - 위원(7명): 스기우라 빈스케 일·한 경제협회장, 사에키 기이치 노무라 상담역, 우치다 겐조 법정대학 교수, 이야자키 이사무 대화증권 대표, 오키타 사다코 상지대교수, 하가 도오루 동대교수, 무카이 다카시 원자력위원회 위원장대리
 - 위원 겸 사무국장: 야마모토 다다시 국제교류센터 이사장

2. 제2차 한·일본 21세기 위원회 본회의가 1989.5.11.~14. 도쿄에서 개최됨.

- 참석자
 - 한·일본 양측 위원, 오택섭, 장달중, 오키노기 교수.
- 회의 주제
 - 한·일본 교류의 현황조사
 - 한·일본 양국의 상호인식
 - 한·일본 양국의 경제문제
- 회의 결과
 - 양국간 교류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과거역사 인식문제에 대한 공동연구 실시 합의
 - 청소년 교류 활성화 및 교직원을 포함한 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수활동 장려
 - 재일한국인 문제 및 역사인식, 역사교육의 문제가 양국관계개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 의견 일치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제27회. 서울, 1989.12.6.-8.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17 / 15 / 1-67

제27회 한·일본 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1989.12.6.~8. 서울에서 개최됨.

1. 일정

- 12.6.
 - 국립묘지 참배
- 12.7.
 - 회의, 창립 20주년 기념리셉션
- 12.8.
 - 외무부장관 주최 조찬, 대통령 예방, 합동 심포지엄, 주한 일본대사 주최 만찬
- 12.9.
 - 판문점 시찰

2. 일본 대표단 구성(각계인사 51명)

- 후쿠다 다케오 전 수상
- 미츠바야시 전 과기청장관
- 가나야마 전 주한대사
- 다카기 일본항공 상담역 등

3. 회의 결과

- 회의 결과에 대한 공동성명 채택
- 노태우 대통령 및 가이후 일본 수상의 메시지 낭독
- 합동회의에서는 정치·안보·외교분야, 경제분야, 문화분야별 의제로 토론 진행
- 합동 심포지엄에서는 아시아·태평양시대의 한·일본 경제협력을 주제로 현상과 전망, 한국의 역할 등을 토의

한·미국 관계 대통령 자문위원회 설치 검토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17 / 16 / 1-18

한·미국 관계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설치문제에 관한 초기(1989.8월 이후) 검토자료임.

1. 대통령 미국 방문 성과 제고방안 중 하나로 자문위원회 설치 문제를 검토함.

- 한·미국 관계현황과 기본적 문제점을 점검
 - 한·미국 양국에 의한 한·미국 관계 재평가 움직임
 - 양국관계 현안에 시각차 노정
 - 시각차 해소를 위한 홍보활동 중요성 제기
- 견실한 양국관계 관리방안 강구
- 가칭 「한·미국 관계 대통령자문위원회」 설치
 - 한·미국 관계전반에 대한 포괄적 분석 및 장기적 관점에서 우호신뢰 및 실질협력관계 유지, 발전을 위한 방향설정
 - 전직 고위외교관, 재계, 학계, 정계 등 각계 대표로 구성

2. 한국 측의 자문위 설치구상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원칙적으로 좋은 구상이나, 기구의 성격, 기능, 구성, 활동, 경비 등에 대한 구체적 제안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임.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계획. 전5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통상2과
MF번호	2019-17 / 17 / 1-336

1989.5월로 예정된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한 대책 및 조치사항임.

1. 청와대 대변인은 1989.3.10. 노태우 대통령 내외의 금년 5월 하순 일본 공식 방문에 대해 발표함.

2. 외무부가 1989.4월 작성한 대통령 방일 추진현황 및 금후 계획은 아래와 같음.

- 추진 일정: 1989.5.24.~27.(3박4일)
 - 천황 내외 예방 및 천황 내외 주최 공식만찬
 - 총리 접견 및 정상회담
 - 국회 연설 및 중·참의원 지도자 접견
 - 경제 5단체장 주최 오찬
 - 재일교포를 위한 리셉션(오사카 한국인회관)
- 금후 대일교섭 추진 계획
 - 양국 외무부 아주국장간 협의: 정상회담 의제확정, 현안 해결방안 협의 등
 - 개별 각료회담 추진
 - 과거사 반성 및 발언내용 사전 확인
 - 국회연설 추진, 일본 기자클럽 기자회견 추진
 - 정상회담 결과 대외발표문 협의
- 천황 방한 초청문제
 - 한·일본 관계 및 의전관계에 따라 구두초청 방안검토
- 한·일본 대중문화 교류문제
 - 대중문화 교류는 단계적, 점진적 추진

3. 다케시다 일본 수상은 1989.4.25. 기자회견을 통해 사임의사를 표명함.

4. 외무부장관은 1989.4.27. 주한 일본대사에게 대통령의 방일 연기를 통보함.

- 다케시다 수상이 사임의사를 표명하는 등 일본정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하에서 일본을 방문한다는 것은 적절히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방일 연기를 통보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계획. 전5권 (V.2 교민 및 홍보)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동북아1과/통상2과

MF번호 2019-18 / 1 / 1-172

1989.5월로 예정된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한 교민행사와 홍보행사에 관한 자료임.

1. 교민관련 주요행사(3월 주일본대사 보고)

- 교민대표 접견
 - 10명 내외의 교민대표와 10~20분간 접견
- 주일본대사 주최 환영리셉션
 - 오사카 리가로얄호텔에서 교민대표 약 800명을 초청하여 개최

2. 주일본대사 주최 환영리셉션 초청대상자(4월 주일본대사 보고)

- 민단 관계자: 372명
- 6개 산하단체 간부: 138명
 - 부인회, 상공회, 청년회, 체육회, 군인회, 학생회
- 한신협 대표: 31명
 - 한신협 연합회, 지방 상은 신용조합 이사장
- 평통 자문위원: 54명
- 올림픽 고액 성금자: 59명
- 민단전직 유력간부 11명, 성화회대표 11명, 각계대표 67명
- 대통령 취임식 개별초청자 7명, 오사카지역 서민대표 50명

3. 홍보계획의 기본방향(4월 외무부 작성)

- 과거에 대한 감정적 집착보다 미래를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현실인식 강조
- 국익차원에서 한·일본 우호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실리외교 전개의 타당성 강조
-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인 외교노력 부각
- 우리의 국제적 지위 향상 실증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계획. 전5권 (V.3 관계부처 대책회의 I)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통상2과

MF번호 2019-18 / 2 / 1-202

1989.5월로 예정된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한 제1차 관계부처 대책회의 내용임.

1. 일시 및 장소

- 1989.3.17. 외무부 회의실

2. 회의 주재

-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

3. 참석자

- 외무부: 이시영 정특반장 외(11명)
- 관계부처: 문동석 청와대 비서관 외(11명)

4. 주요 협의사항

- 정무
 - 조총련 포용: 관계부처 간 구체협의 진행
 - 사할린 거주 교포문제
- 경제, 통상문제
 - 대통령 방일 상징사업 1~2개 선정 필요
 - 무역역조문제는 무역확대발전 개념으로 제기
 - 한국 건설인력의 일본 진출문제 진전 희망
 - 과학, 기술협력방안으로 한·일본 기초과학 공동연구회 설치 제의
- 교민, 문화문제
 - 문화재 반환 구체협의 진전희망
 - 청소년교류를 위한 예산확보 필요
- 기타
 - 과거사에 대한 입장정립 필요
 - 4월 중순 제2차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계획. 전5권 (V.4 관계부처 대책회의 II)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통상2과

MF번호 2019-18 / 3 / 1-166

1989.5월로 예정된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과 관련한 제2차 관계부처 대책회의의 내용임.

1. 일시 및 장소

- 1989.4.18. 외무부 회의실

2. 회의 주재

-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

3. 참석자

- 외무부: 이시영 정특반장 외(8명)
- 관계부처: 문동석 청와대 비서관 외(11명)

4. 주요 협의사항

- 정상회담 의제
 - 일본 건설시장 진출문제를 의제에 포함
- 1차 정상회담 의제(안)
 - 국제정세 일반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남북대화, 북방외교, 일본·북한 관계
 - 역내 협력: 동북아 및 아·태지역 협력
- 2차 정상회담 의제(안)
 - 한·일본 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
 - 현안문제: 재일한국인 문제, 산업·과학기술협력 확대, 일본 건설시장 진출, 무역의 확대균형, 인적 문화교류증대
 - 다케시마 수상 방한 초청
 - 제15차 정기각료회의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 계획. 전5권 (V.5 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통상2과

MF번호 2019-18 / 4 / 1-233

1989.5월로 예정된 노태우 대통령 일본 방문과 관련하여 작성된 각종자료임.

1. 사안별 말씀요지 및 참고자료

- 국제정세
 - 미국·소련 관계, 군축관계 등 국제정세 일반(정보문화국, 미주국 작성)
 - 남북대화(정보문화국 작성)
 - 북방외교(구주국 작성)
 - 동북아 평화 6자 협의회,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협력증진방안(정특반 작성)
 - 한·일본 양국간 무역의 확대 균형 방안(통상국 작성)
 - 한·일본 산업과학협력 증대방안, 대일본 건설시장 진출, 국제경제협력(국제경제국 작성)

2. 계기별 말씀자료

- 공항-영빈관 이동
- 영빈관-황거 이동
- 천황예방, 동경도지사 접견, 천황 주최 만찬
- 일본 국회지도자와의 환담, 총리대신 내외 주최 오찬
- 교민대표 접견, 주일본 공관장과의 만찬, 명예총영사 위임장 수여식, 경제 5단체장 주최 오찬
- 천황 작별인사
- 오사카부 지사 등 접견
- 재일교포를 위한 리셉션
- 일본 정계지도자와의 만찬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989.10.15.-20. 전17권 (V.3 의전 I(8-9월))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18 / 7 / 1-285

외무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방문(1989.10.15.~20.)을 위한 각종 의전관련 조치를 시행함.

1. 행사준비 점검표 작성(1989.8월)

- 일정, 행사, 출입국, 항공기, 숙소, 화물, 차량, 훈장, 선물, 경호협조, 선발대, 공관지원 및 자료, 기타 참고사항

320

2. 행사관련 미국 측 문의사항 준비(1989.8.28.)

- 수행원 명단, 특별기, 숙소, 음식, 선물, 교통편의, 통역, 행사일정(대통령, 대통령부인 별도일정), 경호, 통신

3.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1989.8.31.)

- 한·미국 관계 현황 설명
 - 기본관계: 한·미국 관계는 기본적으로 견실한 동맹관계,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개념 등 공동가치 추구, 안보 및 경제분야에 있어서 전통우호관계 유지
 - 최근 관계확대 현상에 따른 새로운 문제 대두: 안보분야(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 등 논의, Nunn-Warner 수정안이 조만간 통과되면 1990.4.1.까지 미국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등에 관한 대의회보고서 제출의무, 주한미군 주둔 관련문제), 국내의 대미 감정변화(일부 과격운동권 중심의 반미감정 대두, 통일논의 활성화 및 분단 재조명 노력), 통상문제(수퍼 301조 이행, 최근 오징어 유자망 문제, 소고기 문제 등 현안)
 - 향후 발전방향: 양국관계가 확대 발전되고, 한국의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양국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바람직, 이를 위해 그동안 한·미국 관계발전협의회 수차례 개최
- 대통령 방미행사 및 웨일 미국 부통령 방한 대책회의 자료 설명
- 각 부처별 예상의제 토의
 - 의제총괄, 한·미국 안보협력 및 주한미군 장래, 남북대화 및 한국의 통일정책, 반미감정 및 과격세력에 대한 대응과 대미홍보, 국내정세 및 민주화 추진, 최근 미국 측 제기 현안(베트남 난민문제, 한국 내 정치범 문제, 최근 한국의 대미안마 무기수출), 기타 각 부처 관심사항

4. 공식수행원명단, 대통령 재가(1989.9.25.)

- 외무부·국방부·상공부장관, 주미국대사 내외, 대통령 비서실장·경호실장, 의전·공보수석비서관, 외교안보보좌관, 대통령 주치의, 외무부 의전장, 외무부 미주국장(총 13명)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989.10.15.-20. 전17권 (V.4 의전 II(10-12월))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18 / 8 / 1-251

외무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방문(1989.10.15.~20.)을 위한 각종 의전관련 조치를 시행함.

1. 세부 행사계획 점검(1989.10월)

- 각 행사별 세부일정 및 참석인사
- 차량 운용계획, 화물 수송계획 수립
- 통신계획 수립
- 현지 기후조사
- 입국수속 및 간이 통관절차
- 각종 식사메뉴 확인
- 대통령 영부인 별도일정 확인

2. 한국 수행원 통보(1989.10.6. 주미국대사에게 훈령)

- 공식수행원 영문 이력사항, 비공식수행원 영문 성명 등

3. 수행기자단 입국수속 및 간이통관(1989.10.13. 주미국대사에게 훈령)

- 수행기자단 포함 전 수행원 간이수속 조치

4. 국방장관 별도회담 개최일자 확정(1989.10.17.)

- 미국 측은 협의 의제로 차세대 공군전투기 구입문제, 방위분담 문제, 북한의 핵개발 문제, 전시초청국 정부 지원문제,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대의회 검토문제 등 준비

5. 로스앤젤레스 세계문제협회 연설(1989.10.26.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건의)

- 동 협회 측의 기념사진첩 제작을 위한 대통령 서명 송부 요망

6. 노태우 대통령 방미행사 세부설명서 송부(1989.10.27.)

- 주일본대사, 주앵커리지총영사에게 소책자 송부

7. 노태우 대통령 행사사진 송부(1989.12.13.)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에게 송부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989.10.15.-20. 전17권 (V.5 의전 III(선발대))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18 / 9 / 1-288

1. 외무부는 노태우 대통령 방미 관련, 1989.8.29. 선발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함.

- 파견기간: 1989.9.6.~16.
- 선발대 명단
 - 박건우 외무부 의전장(단장) 등 18명(외무부 4명, 대통령비서실 4명, 대통령 경호실 8명, 기타 2명)
- 출장지역
 - 미국 워싱턴(4박5일), 윌리엄스버그(1박2일), 로스앤젤레스(2박3일), 앵커리지(2박3일)
- 활동내역
 - 대사관 및 총영사관과의 합동회의 개최
 - 미국 측과의 전체회의 개최
 - 숙소, 공항 및 행사후보지 답사

2. 외무부는 1989.8.29. 주미국대사 및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에게 선발대 방문시 공관자료를 사전준비하도록 훈령함.

- 공항행사, 교민행사 및 기타 예상행사 세부계획
- 각 행사 및 기능별(차량, 숙소, 화물, 선물, 의전용품 등) 준비현황
- 공관 업무분장(행사별, 기능별)
- 행사장간 거리 및 소요시간(지도 포함)
- 안내자료(공관현황, 각종 참고자료 등)
- 외무부 건의 및 지원요망 사항
- 경호실 요청자료(숙소 및 공항 행사장 요도 등)

3. 외무부, 주미국대사관 등은 관련자료를 작성함.

- 선발대 자료(1989.9.5. 외무부)
 - 본대 항공일정, 행사일정, 세부 행사설명서 및 점검사항, 기능별 점검사항
- 선발대 방문자료(1989.9월 주미국대사관)
 - 방문개요, 일정, 공관현황, 교민현황 등
- 행사준비 현황(1989.9월 주미국대사관)
 - 기본일정(워싱턴, 영부인 별도일정, 윌리엄스버그 일정), 공관 업무분장(기능별 분장, 행사별 분장), 세부 업무추진 현황 및 기초자료
- 행사연회 계획(1989.9월 주미국대사관)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989.10.15.-20. 전17권 (V.8 의전 VI(선물 및 의전용품/예산))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19 / 1 / 1-215

외무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방문(1989.10.15.~20.)을 위한 각종 의전관련 조치를 시행함.

- 대통령 내외 명의 선물 대상자 및 품목건의 훈령(1989.8.14. 주미국대사,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앞)
- 부시 미국 대통령 및 퀘일 미국 부통령 내외 앞 선물(1989.9.11. 주미국대사 보고)
- 주미국대사 주최 리셉션 초청장 문안 (1989.9.12. 주미국대사 건의)
- 의전용품 송부(1989.9.20.~10.7. 주미국대사,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및 주앵커리지총영사 앞)
 - 대통령 존영, 만찬 초청장, 교민리셉션 초청장
 - 태극기, 성조기, 의장기 등
- 비표 운용계획 수립(1989.9.29. 외무부)
- 선물 대상자 확정 및 선물 송부(1989.10.7. 주미국대사 앞)
- 노 대통령 방미 시 접수선물 송부(1989.10.20. 주미국대사, 10.24.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 대통령 부인명의 선물 송부(1989.12.18. 주미국대사,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앵커리지총영사 앞)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989.10.15.-20. 전17권 (V.9 홍보)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19 / 2 / 1-318

외무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방문(1989.10.15.~20.)을 위한 각종 홍보관련 조치를 시행함.

1. 종합 홍보계획(1989.8.10. 주미국대사 보고)

- 방미 전 사전홍보
 - 주재국 언론대상 배경설명회 개최 및 특집 추진
 - 주요 미디어 기고 추진, 문화행사 개최 등
- 방미 중 본격홍보
 - NPC(전국기자협회) 오찬연설, 워싱턴포스트 회견 등
- 방미 후 홍보
 - 성과설명회 개최, 자료제작 배포 활용

324

2. 미국 측과 홍보계획 협의(1989.9~10월, 주미국대사 보고)

- 백악관 브리핑, 국무부 브리핑, 언론대상 배경설명회 등 각종 계기 홍보계획 확정
- 정상회담 후 언론발표문 문안조정

3. 노태우 대통령 내외의 미국 공식 방문 발표(1989.10.5. 청와대)

- 노 대통령 내외, 부시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1989.10.16.~18. 워싱턴 방문
 - 워싱턴 방문 전 윌리엄스버그 방문, 워싱턴 후 로스앤젤레스 방문 예정
- 방문 기간 중 한·미국 정상회담 개최
 - 국제정세 전반과 동북아정세 의견교환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안보유대 공고화, 경제통상관계 발전방안 등 논의예정

4. 노태우 대통령 방미 관련 각종 언론기사(1989.10월 주미국대사 등 각 공관 보고)

5. 각종 홍보자료 작성

- 대통령 방미계기 대미 홍보계획(1989.8월, 해외공보관)
- 외무부장관 정례기자 브리핑자료(1989.9.9., 외무부)
- 노 대통령 기자회견자료(1989.9.27. 외무부)
- 외무부장관, KBS와의 인터뷰자료(1989.10.5., 외무부)
- 대통령 라디오 주례방송(안)(1989.10월, 외무부)
- 외무부장관의 한·미국 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1989.10.17., 외무부)
- 정상회담 후 외신기자 브리핑자료(1989.10월, 외무부)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989.10.15.-20. 전17권 (V.10 의회연설 I(교섭문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19 / 3 / 1-201

1. 외무부는 1989.8월부터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의회연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미국 측과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함.
 - 아울러 미국 양원 주요의원에 대해 대통령의 미국 의회 합동회의 연설이 실현되도록 협력을 요청하는 서한 발송
2. 외무부는 1989.9월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의회 합동회의 연설관련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함.
 - 그레그 주한 미국대사는 9.23. 국무부 지시로 외무부장관대리에게 아래 내용을 공식 통보
 - 한·미국 정상회담을 위한 방미 시 노 대통령이 10.18.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 하도록 미국 의회가 결정
 - 향후 미국 측 조치계획
 - 미국 의회는 폴리 하원의장 및 미첼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 명의 합동회의 연설초청 서한을 9.25. 대통령에게 발송 예정
 - 미국 의회는 연설시간을 10.18. 오전 10시30분으로 잠정 결정
 - 미국 의회 측은 상하원 원내총무를 중심으로 각각 10명 내외의 중진의원을 선정하여 영접위원회 구성
 - 한국 측 조치계획
 - 미국 의회의 초청서한 접수 즉시 정식 수락 통보
 - 연설 관련 의전 세부사항은 미국 측과 긴밀히 협조
3. 주미국대사는 1989.10.19. 노태우 대통령의 의회연설에 관해 보고함.
 - 노 대통령은 10.18. 오전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Partners for Progress-Republic of Korea/US Relations in Changing World' 제하 영어연설 시행
 - 동 회의에 상하의원, 외교단, 행정부 및 군 등 주요인사 다수 참석
 - 동 연설은 의회 및 언론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
 - 연설에 대한 미국 의회 반응(외무부 종합)
 - 한·미국 관계가 아주 좋기 때문에 금번 연설이 가능했으며, 참석인원으로 보아 미국 내에 한국의 친구가 많다는 게 증명
 - 노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을 과시하고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었던 계기
 - 최근 한국 내 민주화 상황이 후퇴되었다는 인상과는 대조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의지표명이 무척 인상적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989.10.15.-20. 전17권 (V.11 의회연설 II(연설문))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19 / 4 / 1-200

1. 외무부는 1989.8월 이후 노태우 대통령의 미 의회연설을 위한 사전 준비조치를 시행함.

- 이승만 대통령 연설내용 분석(1954.7.28. 시행)
- 아시아지도자의 미국 의회 연설내용 비교
 - 이광요 싱가포르 수상,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등
- 각각도로 연설문에 포함될 내용검토
 - 외부 민간자문위원의 자문청취

326

2. 노 대통령은 1989.10.18.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아래 요지로 연설함.

- 연설기회 부여에 사의 표명
 - 한국의 경제적 위상강화와 민주주의 발전 설명
- 한·미국 관계
 - 강력한 한·미국 동맹관계 및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 확약 강조
 - 양국간 성숙한 동반자관계 발전 의지표명
 - 양국간 경제관계 발전과 한국의 시장개방, 무역자유화 지속의지 표명
-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 성실이행
 - 한반도 주변의 긴장완화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
 - 나아가 동서간, 남북간 화해와 협력증진에 기여
 - 북방외교의 추진
 - 개발경험 공유
 - 유엔에의 가입의사 표명
-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방안 설명
 - 남북이 자유, 평화, 민주주의 3원칙에서 남북연합과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재설명
- 결어
 - 한국은 미국의 맹방
 - 세계와 인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전진 강조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989.10.15.-20. 전17권 (V.12 계기별 행사 I(대학/언론))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19/5/1-179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방문(1989.10.15.~20.) 관련된 계기별 행사에 관한 내용임.

1. 노태우 대통령 명예박사학위 수여식(1989.10.17. 주미국대사 관저)

- 조지워싱턴대학으로부터 명예법학박사학위 수여
 - 한국의 민주화를 비롯한 공공분야에서의 공적을 인정
- 노 대통령은 학위수락 연설 시행
 - 대통령 취임 이래 온 국민의 참여하에 안정 속에서 민주화 추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사실을 강조

2. 윌리엄앤메리대학 방문(1989.10.16. 윌리엄스버그)

- 대통령 영애에게 우수졸업생 기념열쇠 전달식 참석

3. National Press Club(전국기자협회) 오찬 회견(1989.10.18.)

- 오찬 연설
 -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발전성과 및 민주적 개혁과정 언급
 - 노동권과 언론의 자유신장 사례 소개
 - 공산주의 위협, 남북대치 상황 등 한반도 정세와 불안정한 국내정세 설명
 - 한·미국 경제교역관계 현황 설명
 - 굳건한 한·미국 관계와 미국의 지원에 대한 사의표명
- 연설후 질의응답
 - 한·미국 양국관계, 한국의 향후 경제전망 등

4. 워싱턴포스트지 회장 초청 조찬(1989.10.17.)

- Graham 회장, 논설주간 등 간부 참석
- 주요 설명내용
 - 한국의 민주정치 발전성과 등
 - 한·미국 관계의 전반적 평가 및 향후 전망
 - 7·7 선언 이후 남북 관계개선 및 남북통일전망
 - 북방외교정책 성과 등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989.10.15.-20. 전17권 (V.13 계기별 행사 II(교민))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19 / 6 / 1-269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방문(1989.10.15.~20.) 중 교민 초청 행사에 관한 내용임.

1. 주미국대사 주최 교민초청 리셉션 개최(1989.10.16., 워싱턴)

- 워싱턴, 미국 중동남부지역 교민대표 1,200여명 참석
 - 교민대표의 환영사
- 노 대통령의 교포에 대한 격려말씀 전달
 - 미국에서 근면, 성실한 생활로 한국인 상(像)을 심고 있는 교포들에 대한 인사
 - 한·미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논의,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재확인 등 안보협력 공고화 도모예정 소개
 - 한·미국 간 교역의 확대균형 노력
 - 한국의 민주화 진전현황 소개
 - 남북한 관계설명 및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시 등 한국의 통일노력 의지표명
- 민통 등 반정부단체 반정부시위 개최(주미국대사 보고)
 - 교포들의 냉담한 반응 및 일부 원로교포들의 질책을 받고 해산

2. 교민초청 리셉션 개최(1989.10.18., 로스앤젤레스)

- 평등 로스앤젤레스 지역협의회, 상공회의소, 재향군인회 등 교민대표 650명 참석
- 대교민 격려말씀 전달
 - 워싱턴 교민초청 리셉션 시 내용과 유사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989.10.15.-20. 전17권 (V.15 자료 II(일자별 말씀 및 참고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19 / 8 / 1-202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방문(1989.10.15.~20.) 관련자료임.

1. 출국인사(1989.10.15.)
2. 앵커리지공항 경유 시 말씀자료(1989.10.15.)
3. 버지니아 주지사 내외 주최 오찬 시 말씀자료(1989.10.16.)
4. 베이커 국무장관 내외 접견자료(1989.10.16.)
5. 주미국대사관저 만찬 시 말씀자료(1989.10.16.)
6. 알링턴국립묘지 방문 시 대화자료(1989.10.17.)
7. 한국전 참전용사기념비 건립위원회 간부 격려사, 참전기념조형물 건립위 간부진 접견 시 말씀자료(1989.10.17.)
8. 부시 미국 대통령 부인 면담 및 오찬자료(1989.10.17.)
9. 주미국대사 주최 만찬 시 연설(국·영문)(1989.10.17.)
10. 의회지도자와의 환담 시 말씀자료(1989.10.18.)
11. 레이건 전 대통령 면담자료(1989.10.18.)
12. 로스앤젤레스 비공식만찬 시 말씀자료(1989.10.18.)
13. WAC(세계문제평의회) 초청 연설(국·영문), WAC 조찬 시 대화자료(1989.10.19.)
14. 귀국인사(1989.10.20.)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989.10.15.-20. 전17권 (V.16 자료 III(공관보고))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19 / 9 / 1-189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주미국대사가 외무부에 송부한 자료들임.

1. 행사지 및 추진현황(1989.8.3.)

- 알링턴 국립묘지,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 추진현황, 영빈관, 윌리엄스버그
- 영빈관 개황(영문)

2. 윌리엄스버그 숙소(1989.9.15.)

3. 대통령행사 자료(1989.9.26.)

- 대화자료
 - 워싱턴 기념비 광장, 베이커 장관과의 차중(車中)대화, 비공식만찬, 아동병원 방문시 대화자료
- 윌리엄스버그 관련자료
 - 주 개황, 주요인사 인적사항 포함
- 공군기지 자료
 - 앤드류스 기지, 랭글리 기지, 연혁, 관련인사 인적사항 포함
- 코크란박물관, 윌리엄스버그 인, 랭글리 기지, 앤드류스 기지 소개화보

4. 대통령 행사자료(1989.9.29.)

- 영빈관 관계자료
- 교민 리셉션 시 대화자료
- 워싱턴포스트 회장 조찬 말씀자료
- 전국기자협회 행사 시 말씀자료
-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지 자료

5. 대통령 행사자료(1989.10.6.)

- 윌리엄스버그 행사 관련 인사 이력서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방문, 1989.10.15.-20. 전17권 (V.17 결과 및 후속조치)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북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19 / 10 / 1-299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방문(1989.10.15.~20.) 결과와 후속조치임.

1. 노태우 대통령 방미 성과 및 후속조치(1989.10.23. 외무부)

- 주요일정
 - 한·미국 정상회담, 미국 의회 상하양원 합동회의 연설, NPC(전국기자협회) 오찬 연설, 로스앤젤레스 세계문제평의회 조찬 연설, 미국 주요인사 초청 공식만찬, 조지워싱턴대학 명예박사학위 수여, 교민초청 리셉션(워싱턴 및 로스앤젤레스)
- 방미성과
 - 한·미국 정상간 친분돈독을 통한 우호협력관계 강화
 - 한·미국 안보협력 강화 및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재확인
 - 민주화 의지천명 및 미국의 이해제고
 -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장치 구축기반 조성
 - 통상현안의 호혜적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 합의
 - 아태협력에 공동참여 확인
- 향후 정책방향
 - 한·미국 양국간 전진의 동반자 기반확대
 - 남북관계 화해 및 민족통합과 통일을 이루는 여건조성
 -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동서화해의 기운을 적극 활용, 북방정책을 추진
 - 21세기를 향한 국제무대에서의 새로운 정치, 경제적 선진국으로서 역할증대 및 국제적 지위고양
- 향후 조치계획
 - 한·미국 동반자관계 발전: 안보협력 강화, 경제통상관계의 확대균형, 종합적인 홍보계획 수립시행
 - 아태협력 증진: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아태 각료회의
 - 북방외교: 폴란드 및 유고슬라비아와의 수교추진,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개선노력 지속
 - 유엔가입 추진
 - 비동맹외교 강화: 미수교국과의 수교확대, 남남협력 강화
 - 교민대책 강화: 국민의 해외진출 장려, 모국과의 유대강화 및 자긍심 고취



2. 한·미국 관계 발전협의회 개최(1989.11.3. 외무부)

- 정부 각 부처별로 대통령 방미 후속조치 추진계획수립 및 시행결정

3. 감사서한 발송(1989.10.31.)

- 대통령 방미시 면담 주요인사에 대한 감사서한을 발송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1 기본계획 I: 1988.6-7)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19 / 11 / 1-208

노태우 대통령 아태지역 순방 관련 1988.6~7월 준비 현황임.

1. 외무부는 1988.6.7. 노태우 대통령의 아태국가 순방계획을 대통령에게 건의함.

- 순방시기
 - 올림픽 직후인 1988.7월 하순~8월 상순
- 순방 대상국
 - 아태지역의 중요국가 3~5개국

2. 외무부는 1988.6월 이후 상기 대통령 순방을 위해 아태국가들과 외교교섭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일단 동 계획을 연기하고 올림픽 이후 상호편리한 시기에 추진하기로 결정함.

3. 외무부는 1988.7.20.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과 동남아, 태평양국가 순방계획을 대통령에게 건의함.

- 순방시기
 - 1988.10.31.~11.17.
- 순방 대상국
 -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4. 외무부는 1988.7.23. 주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 순방을 1988.10.31.~11.17.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동 기간 중 주재국 공식 방문(State Visit)이 이루어지도록 교섭하고 결과보고

5. 외무부는 1988.7.23. 주일본대사에게 아래 훈령함.

-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이 서울올림픽 이후 동남아지역 수개국과 일본을 공식 방문할 예정
 - 1988.11.15.전후 2박3일 정도의 기간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교섭하고 진전상황 보고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2 기본계획 II: 1988.8월-9.7.)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0 / 1 / 1-253

노태우 대통령 아태지역 순방 관련 1988.8월 준비 현황임.

1. 외무부는 1988.8.27. 노태우 대통령의 아태지역 5개국 방문 관련, 상대국과 합의했음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함.

- 국별 방문기간
 - 말레이시아(1988.11.2.~5.), 호주(1988.11.5.~8.), 인도네시아(1988.11.8.~12.),
브루나이(1988.11.12.~15.), 일본(1988.11.15.~17.)
- 대외발표
 - 9.1. 발표예정(방문 대상국과 발표시기 협의 중)

2. 외무부는 8.31. 전재외공관장에게 대통령의 아태지역 5개국 방문에 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함.

- 대통령 아태지역 5개국 방문계획을 9.1. 공식발표 예정
 - 대통령 내외는 11월 중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일본을 공식 방문
 - 금번 방문은 아태지역 주요국들과 우호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이 지역의 안정과 발전, 공동번영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것임.
- 금번 대통령 순방 의의
 - 민족자존의 자주외교 구현
 - 평화통일 기반조성외교 전개
 - 실리추구의 경제외교 강화
 - 아태시대의 주역으로서의 지위확립
 - 한·일본 관계의 내실화
 - 방문국 정상과의 친분강화
 - 해외동포의 권익보호와 사기진작

3. 외무부는 9.6. 대통령의 아태지역 5개국 방문과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함.

- 주요 검토사항
 - 7·7 선언 설명: 선언의 기본정신, 향후 정책추진 계획
 - 북방외교: 북방외교의 배경과 기본구도
 - 아태협력: 아태시대에 있어 상호 협력정신 부각
 - 문화협력증진: 인접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기반 구축



- 투자확대: 국제수지 흑자기조, 자본자유화 정책에 기초, 일반적 투자확대방안과 국별·선별적 확대방안
- 통상증진: 순방국은 우리의 가장 큰 무역역조국, 무역역조 개선방안 검토
- 자원협력: 자원의 안정적 도입 확보, 자원개발사업 추진
- 건설진출: 대아세안 건설진출 확대방안 검토, 일본 건설시장 개방추구
- 기타 국별 검토사항 검토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3 기본계획 III: 1988.9.8.-30.)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0 / 2 / 1-257

노태우 대통령 아태지역 순방 관련 1988.9월 준비 현황임.

1. 외무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아태지역 순방 관련 제2차관보 주재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함.

- 9.6. 경제통상 관련 논의
- 9.12. 일정 및 숙소 등 행정사항 논의
- 9.13. 정무관계 회의

336

2. 외무부의 1988.9월 대통령 아태지역 순방 준비현황은 아래와 같음.

- 방문국별 일정과 주요행사, 중점 추진사항 검토
- 주요 검토사항(정무)
 - 정상회담 형식, 별도 각료회담, 연설문, 기자회견, 공동성명, 출국 및 귀국성명, 방문국별 도착·출발 성명, 기상(機上) 메시지 등
- 정상회담 의제
 - 국제 정세(의견교환)
 -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한국 측 설명)
 - 동남아 및 남태평양 정세(방문국 측 설명)
 - 아시아태평양시대 협력
 - 양자관계

3. 경제기획원은 1988.9월 대통령 아태지역 순방 관련 경제협력 방향 및 추진대책을 수립함.

- 금번 아태순방의 경제적 의의
 - 새로운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아태 중심의 국제경제시대에서의 역할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 순방 개별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관계의 심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기마련
- 경제정상외교 추진 기본방향
 -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제협력관계정립에 주안(主眼)
 - 다자간 협력 논의와 양자간 협력 논의를 균형있게 전개
 - 호혜평등의 원칙하에서 협력접근
 - 문화적 측면에서의 상호이해 노력 강화
- 순방국별 협력 추진방향 및 대책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4 기본계획 IV: 1988.10-11)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0 / 3 / 1-317

노태우 대통령 아태지역 순방 관련 1988.10~11월 준비 현황임.

1. 청와대 대변인은 1988.10.26. 노태우 대통령 내외의 아태지역 4개국 방문에 관해 공식 발표함.

- 국별 방문기간
 - 말레이시아(1988.11.3.~5.), 호주(1988.11.5.~8.), 인도네시아(1988.11.8.~12.),
브루나이(1988.11.12.~14.)
- 공식 수행원
 - 최광수 외무부장관, 안병화 상공부장관, 이봉서 동자부장관, 홍성철 대통령 비서실장 등
- 정상회담
 - 국제 및 지역정세에 관해 상호의견교환
 - 방문국과의 정치, 경제통상, 문화 등 제반분야에 관한 협력방안 논의예정

2. 외무부는 1988.10.27. 대통령 내외의 아태지역 4개국 공식 방문 관련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함.

- 방문의 외교적 목적(기대성과)
 - 대통령의 아태지역 주요지도자로의 부상
 - 21세기 아태시대의 주역 역할
 - 자원의 상호보완적 합작 추구
 - 아세아 협력외교추진
 - 방문대상국과의 양자관계 강화
- 국별소개 및 주요현안
- 정상회담 의제
 - 국제 정세(의견교환); 동서관계, 국제경제 동향
 - 지역 정세: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한국 측 설명), 동남아 및 남태평양 정세(방문국 측 설명)
 - 아태시대 협력: 아태지역의 활력과 잠재력, 지역 내 협력강화 방안
 - 양자관계: 양국간 협력강화 방안,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여건조성(협정체결 등), 각 분야 교류 및 투자권장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5 사전준비 I: 말레이시아(정무 및 자료))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0 / 4 / 1-247

노태우 대통령 아태지역 순방 중 말레이시아 방문 관련 준비 현황임.

1. 외무부는 1988.11월 노태우 대통령의 아태지역 4개국 순방 중 말레이시아 방문(1988.11.3.~5.) 관련, 사전 준비조치를 시행함.

- 방문일정 및 각 행사별 구체 진행계획 협의
 - 각 행사별 한국 측 참석범위 확정
- 사전 준비자료 작성(1988.8.8., 주말레이시아대사관)
 - 방문의의, 회답자료, 각종 행사시 연설문 및 말씀자료, 주요인사 인적사항 등
- 말레이시아 국왕의 공식 초청장, 대통령비서실에 송부(10.4.)
- 양국 정상회담시 한국 측 관심사항 전달(10.21.)
 - 양국관계 개관
 - 공동위원회(외무장관회담) 설치
 - 외교적 협력: 한반도문제에 관한 이해와 계속적 협조기대
 - 무역의 균형적 확대
 - 투자확대: 말레이시아의 투자환경개선 희망
 - 동방정책 협력
 - 말레이시아 경제개발계획이 공공부문 건설사업 참여희망
 - 학술, 문화분야의 협력 등

2. 외무부는 1988.11월 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 관련, 대통령 말씀자료를 작성함.

- 일반 말씀자료
 - 역사와 정치, 문화와 교육, 경제, 자연환경
- 계기별 말씀자료
 - 수상과의 차중대화, 국왕과의 차중대화 및 숙소에서의 환담, 수상 내외 접견, 국왕 내외 주최 공식만찬, 산업시찰, 교민초청 리셉션, 수상 내외 주최 비공식만찬, 국왕 내외 작별예방
- 주요 행사장 설명자료
 - 국회의사당, 왕궁 등

3. 노태우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과 관련된 각종 연설문 등 자료가 수록됨.

- 교민초청 오찬시 격려사(안)(1988.9.3.)
- 이스칸달 말레이시아 국왕 만찬사, 노태우 대통령 만찬답사(11.3.)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6 사전준비 II: 호주(정무 및 자료1))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0 / 5 / 1-256

노태우 대통령 아태지역 순방 중 호주 방문 관련 준비 현황임.

1. 외무부는 1988.11월 노태우 대통령의 아태지역 4개국 순방 중 호주 방문(1988.11.5.~8.) 관련, 사전 준비조치를 시행함.

- 방문일정 및 각 행사별 구체 진행계획 협의
- 정상회담 의제 호주 측에 전달(1988.9.16.)
 - 국제 정세(의견교환): 동서관계, 국제경제 동향(보호무역주의, 세계경제의 불룩화 추세)
 -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한국 측 설명): 동북아정세, 남북한관계(7·7 선언, 북방외교)
 - 동남아 및 남태평양 협력(호주 측 설명)
 -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
 - 양자관계: 양국관계 개관, 외교적 협력, 경제통상 문화협력 (한·호주 항공회담, 한·호주 문화공동위 구성)

2. 주호주대사관 및 주시드니총영사관은 노태우 대통령의 호주 방문 관련 각종 자료를 작성·보고함.

- 방문관련 자료(1988.6.29.)
 - 호주 수상 주요 연설문, 주요 외국 국가원수 호주 방문 일정, 면담 예정인사 인적사항, 개황자료 등
- 교민행사 중 대통령 격려사(9.2.)
- 경제인 다과회 시 대통령 연설문(9.16.)
- 호주 경제인연합회 자료(9.30.)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7 사전준비 III: 호주(정무 및 자료2))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0 / 6 / 1-372

노태우 대통령 아태지역 순방 중 호주 방문 관련 준비 현황임.

1. 외무부는 1988.11월 노태우 대통령의 아태지역 4개국 순방 중 호주 방문(1988.11.5.~8.) 관련, 사전 준비조치를 시행함.

- 방문일정 및 각 행사별 구체 진행계획 협의
 - 각 행사별 한국 측 참석범위 확정
- 대통령의 호주 ABC 방송 회견자료 작성(1988.10월)
- 대통령의 호크 수상 오찬 및 그라이너 New South Wales(NSW)주 수상 오찬시 연설문 확정(11.1.)

2. 주호주대사관 및 주시드니총영사관은 노 대통령의 호주 방문 관련 각종자료를 작성·보고함.

- 각 계기별 말씀자료(1988.10.17.)
- 스티븐 총독, 호크 수상 등 주요 면담인사 자료(10.18.)
- 교민 리셉션 시 대담 예정인사 인적사항 및 개별 대담자료(10.17.)
- 정상회담시 호주 측 관심사항(10.20.)
 - 한·호주 협의회 구성, 한·호주 간 무역협정 부속의정서 등
- NSW주 수상 오찬사, 경제인 초청 NSW주 수상 연설문, 경제인 초청 AKBCC(한·호주 기업인 협력위원회) 회장 연설문(10.28.)

3. 본 문서철에는 호주 외무성이 1988.11월 작성한 노 대통령의 호주 방문 관련자료가 첨부됨.

- New South Wales 방문 소책자
- 노태우 대통령 호주 국민 방문(State Visit)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8 사전준비 IV: 인도네시아(정무 및 기자회견))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0 / 7 / 1-273

노태우 대통령 아태지역 순방 중 인도네시아 방문 관련 준비 현황임.

1. 외무부는 1988.11월 노태우 대통령의 아태지역 4개국 순방 중 인도네시아 방문(1988.11.8.~12.) 관련, 사전 준비조치를 시행함.

- 방문일정 및 각 행사별 구체 진행계획 협의
- 정상회담 의제에 관한 한국 측 관심사항 인도네시아 측에 전달(1988.10.21.)
 - 양국관계 개관: 양국관계 현황에 만족 표명 및 향후 긴밀한 협력희망
 - 공동위원회(외무장관회담) 설치
 - 외교적 협력: 한반도 문제에 관한 이해와 계속적 협조 기대
 - 무역의 균형적 확대
 - 투자확대: 민간기업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적극 장려, 투자보장협정의 조기체결로 투자증대의 제도적 기반 마련
 - 항공협정의 조기체결 및 항공사 간 상무협정 적극지원 희망
 - 인도네시아 경제개발계획의 공공부문 건설사업 참여희망
 - 문화, 학술협력; 인도네시아대학 내 한국학연구소 지원용의

2. 주인도네시아대사는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관련, 각종 자료를 작성 보고함.

- 교민 격려사(1988.9.7.)
- 각종행사 참고자료(9.7.)
- 정상회담시 경제통상분야 협력증진 방안(9.12.)
 - 이종과세방지협정 서명, 항공협정 체결, 투자보장협정 서명, 건설협력, 교역의 균형적 확대, EDCF(경제개발협력기금) 정부간 협정서명, 한국학 진흥

3. 외무부장관은 1988.11.11. 노태우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기간 중 인도네시아 내외신과 기자회견을 가짐.

- 질문요지
 - 노 대통령의 아태지역 4개국 방문 관계
 -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필요성
 - 아태협력 전망
 - 캄보디아 사태의 최근 진전사항 평가
 - 한반도 관계: 미군철수 반대이유, 남북대화에 대한 평가, 북한이 남한의 남북대화 제의를 거절하는 이유 등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9 사전준비 V: 인도네시아(자료))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0 / 8 / 1-346

노태우 대통령 아태지역 순방 중 말레이시아 방문 관련자료 작성 현황임.

1. 외무부는 1988.11월 노태우 대통령의 아태지역 4개국 순방중 인도네시아 방문(1988.11.8.~12.) 관련, 사전준비 조치를 시행함.

- 대통령 말씀자료 작성(88.10월)
 - 일반: 역사, 정치, 문화와 예술, 자연환경, 자원, 국민성, 체육, 양자관계
 - 계기별: 발리 주지사 주최 만찬, 인도네시아대통령 내외 예방 등 각종 계기
 - 행사장 참고자료: 대통령궁, 영웅묘지
-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자료작성(88.11.10.)
 - 인사말씀
 - 국제정세
 -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 아세아태평양지역 협력
 - 동남아 정세
 - 한·인도네시아 관계
 - 맺는 말씀

2.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988.11.10. 한·인도네시아 외무장관회담 자료를 작성, 보고함.

- 주요일정, 외무장관 별도일정, 인도네시아 개관, 공관현황
- 양국 외무장관회담 자료(인도네시아 외무성 작성)
- 양국관계 입장(인도네시아 외무성 작성)

3. 본 문서철에는 각종행사 자료가 수록됨.

- 수하르토 대통령 만찬사 및 노 대통령 만찬답사(1988.11.9.)
- 수캄다니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 오찬사 및 대통령 오찬답사(11.11.)
- 교민 격려사(11.11.)
- 발리 주지사 만찬사에 대한 대통령 답사(11.8.)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10 사전준비 VI: 브루나이(정무 및 자료))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1 / 1 / 1-331

노태우 대통령 아태지역 순방 중 브루나이 방문 관련 준비 현황임.

1. 외무부는 1988.11월 노태우 대통령의 아태지역 4개국 순방 중 브루나이 방문(1988.11.12.~14.) 관련, 사전준비 조치를 시행함.

- 방문일정 및 각 행사별 구체 진행계획 협의
- 영부인 계기별 말씀자료 작성(1988.10월)
 - 도착시 차중대화, 제1왕비 예방, 제2왕비 예방, 만찬시 대화, 박물관·민속공예센터 방문, 교민 리셉션, 출국시 차중대화
- 한·브루나이 정상회담 자료 작성(11월)
 - 양국관계 평가, 외교적 협력, 경제기술협력, 교역확대, 한국 교민 관련, 주한 상주대사 파견, 항공협정
- 한·브루나이 외무장관회담 자료작성(11.12.)
 - 양국관계 개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외교적 협력, 경제개발계획 참여, 교역확대, 한국 교민 관련, 항공협정(브루나이 측 언급시)

2. 주브루나이대사관은 노 대통령의 브루나이 방문 관련자료를 작성보고함.

- 교민 리셉션 시 대통령 격려사(1988.9.1.)
- 대통령 방문일정(안)(9.1.)
- 방문 관련자료(8.29.)
 - 방문의의와 목적, 정상회담 및 외무장관회담 자료, 대내외 경제관계, 연설문 포함내용, 성명서 관련의견, 일정, 발표, 교민 및 체류자 현황, 면담 예정인사 인적사항, 개황자료

3. 본 문서철에는 각종 행사자료가 첨부됨.

-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만찬사(1988.11.12.)
- 노태우 대통령의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주최 만찬답사(11.12.)
- 교민대표 환영사(11.13.)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11 결과)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1 / 2 / 1-216

1988.11월 노태우 대통령의 아태지역 4개국 순방시 개최된 정상회담 결과임.

1.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1988.11.4., 마하티르 수상)

- 양국정상은 국제 및 지역정세와 양국관계 전반에 관해 협의
 - 양국간 상호이해증진을 통해 우호협력관계 심화 계기 마련 및 양국 정상 간 친분관계 형성에 기여

2. 한·호주 정상회담(1988.11.7., 호크 수상)

- 최근의 국제 및 지역정세, 국제경제 상황과 아태 협력문제, 양국간 협력문제 전반에 관한 의견교환
 - 한국 측은 7·7 선언과 유엔 연설, 한국의 북방정책과 동북아 6개국 협의회에 관해 설명
 - 호주 측은 이해와 지지 표명
- 양국은 무역의 균형적 확대에 노력, 양국의 미래관계 발전을 위한 한·호주 정기협의체와 문화공동위 설치에 합의

3.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1988.11.10., 수하르토 대통령)

- 한반도 및 동남아 등 지역정세에 관해 의견교환
 - 남북한 문제와 캄보디아 문제에 관해 양측이 상대방의 입장과 노력을 이해하고 지지 표명
 - 최근 국제경제 정세 관련, 양측은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와 EC(구주공동체) 등의 경제불력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상호협력으로 이를 극복하자는데 인식 일치
 - 아태협력 발전방안 모색과 양국간 협력확대방안에 대해서도 협의
 - 양국간 전반적 협력문제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공감

4. 한·브루나이 정상회담(1988.11.12. 불키아 국왕)

- 한국 측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입장 설명
 - 교역 및 투자확대 등 양국간 협력증진방안 협의
 - 한·아세안 협의체 수립에 대한 협조요청
- 브루나이 측은 경제개발에 한국기업의 진출확대 희망
 - 한·아세안 협의체는 분야별(sectoral basis) 협의체 수립에 동의입장 표명
 - 한국인 체류기간 연장문제에 대해 검토입장 표명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12 후속조치 I: 1988.11)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1 / 3 / 1-274

1. 외무부는 1988.11.14. 노태우 대통령 내외의 아태지역 4개국 공식 방문 결과를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함.

- 방문 의의
 - 획기적인 민주화와 정착된 흑자경제 그리고 대통령의 7·7 선언 및 유엔총회 연설에서 천명된 북방정책 등 새로운 비전 제시로 조성된 국제여론의 지지 및 사상최대의 성공적인 올림픽 주최를 배경으로 한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정상외교
 - 이번 순방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지지를 아태지역에 확산·정착
- 주요 성과
 - 정상 간 친선과 우의 구축
 - 7·7 선언과 유엔연설에서 제시된 대북한 및 북방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여 유엔, 비동맹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 정책의 성공을 위한 협조기반 조성
 - 사상 최대, 최고의 올림픽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국제적 역할증대 계기를 마련하고 올림픽 성공을 아시아인의 자랑으로 확산하여 우리와의 공감대 형성
 - 21세기 아태시대의 주역의 하나로 지위강화
 - 무역의 균형적 확대 합의
 - 한국에 대한 자원공급 국가인 순방국으로부터 주요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이 지역의 천연자원과 우리의 인적자원을 결합하여 지역공동개발에 기여하기로 합의
 - 국민 해외진출 협조 합의로 국민 해외활동 확대에 기여
 - 교민에 대한 격려와 고무를 통해 자긍심과 자신감 부여
- 후속조치
 - 정부내 각 관련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을 구성
 - 분야별, 국가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2. 외무부는 1988.11.16. 노 대통령의 아태지역 4개국 공식 방문 후속조치 계획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함.

- 대통령의 아태 4개국 순방성과를 극대화하고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협력과제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 관계부처 실무대책반을 구성, 효과적인 후속조치 시행 예정
- 후속조치 사항(공통)
 - 새로운 대북한정책에 대한 지지확산
 -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추진: 분야별 협의체제 수립을 위한 한국입장 검토, 필요시 아세안 측과 실무협의 개최



- 양자간 공동위원회 구성 시행: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공동위원회, 호주와 협의회 구성, 구체적 협의내용, 1차 회의 시기 등 한국입장 확정
- 교역의 균형적 확대추진: 수출증대 가능품목 선정 및 수출 장려, 한국상품에 대한 시장확대 교섭
- 실무대책반 구성
 - 외무부 제2차관보(반장)와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
 - 제1차 회의 1988.11월 중 개최
 - 필요시 민간 연구기관에 전문분야 연구검토 의뢰

3. 외무부는 1988.11월 대통령 아태지역 4개국 순방 후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

- 대통령의 4개국 정상 등 주요인사에 대한 감사서한 송부(11.17.)
-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4개국 외상 앞 감사서한 송부(11.21.)
- 관계부처에 대통령 순방 후속조치 추진 및 추진결과 수시송부 요청(11.23.)

4. 외무부는 1988.11.25. 대통령 아태지역 4개국 순방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수립, 관계부처 특별대책반 회의에 보고함.

- 정무
 - 새로운 대북한 정책에 대한 지지확산, 한·아세안 협의회체 수립, 양자간 공동위원회(또는 협의회) 구성, 항공협정 등 체결 교섭, 이민진출 및 교민보호
- 경제통상
 - 교역의 균형적 확대 추진, 국제경제 상황변화에 따른 동아시아국가 간 협력·투자 확대, 관광진흥, ECDF(경제협력개발기금) 지원 확대, 건설진출, 과학기술협력, 농업부문협력, 자원협력
- 문화·학술
 - 한·호주 문화공동위원회, 한국어·한국학 교육지원 등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13 후속조치 II: 1988.12-89.12)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1 / 4 / 1-205

1. 외무부 등 정부 각 부처는 1988.12.28. 대통령 아태지역 4개국 순방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제2차 특별대책반 회의를 개최, 후속조치 추진 세부계획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함.
2. 외무부가 1990.2월 작성한 대통령 아태지역 4개국 순방 후속조치 추진현황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순방국과 정부 및 민간 협의체제 강화
 - 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1989.11월 합의각서 교환으로 정식수립, 대아세안 협력사업 추진(1990년 중 100만 달러, 향후 5년간 500만 달러규모의 협력기금 운영)
 - 한·호주 협의회 개최: 제1차 회의(1989.11.20~21., 캔버라), 제2차 회의는 1990년 말 서울 개최 예정
 - 한·호주 공동위원회 개최: 제1차 회의(1989.5월., 서울), 제2차 회의는 1991년 캔버라 개최 예정
 - 통상확대 및 투자촉진
 - 통상장관회담 개최 및 통상사절단 파견: 한·인도네시아 통상장관회담(1989.7월, 자카르타), 한·말레이시아 통상장관회담(1989.4월, 서울), 한·호주 통상장관회담(1989.11월, 캔버라)
 - 합작투자 사절단 파견: 동남아사절단(1989.5월), 호주사절단(1989.9월)
 - 한·호주 무역협정 의정서 및 한·인도네시아 투자보장협정 체결 교섭 중
 - 각종 협정체결
 - 한·인도네시아 항공협정: 1989.9월 발효 및 양국 항공사 취항
 - 한·호주 항공협정: 1989.10월 양국 항공사간 취항원칙 합의, 1990.2월 가서명, 4월 정식서명 후 취항 예정
 - 한·인도네시아 이종과세방지협정: 1989.5월 발효
 - 기타 협력사업 추진
 - 인도네시아: 자본 및 기술협력(건설 무상기술용역 제공, 농지개발사업 지원 등), 제주도-발리섬 간 자매결연(1989.6월) 및 발리사원 개수공사비 지원
 - 호주: 대호주 기술 및 투자이민 확대(1989.12월 제2차 한·호주 정책협의회의시 요청), 노사협력(1989.5월 호주 노사대표단 방한, 8월 한국 노사대표단 호주 방문)
 - 브루나이: 브루나이교민 거주 허가제도 개선(계속협의)
 - 1990년 후속사업 계획
 -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 브루나이 국왕 등의 방한 추진(호주 호주 수상은 1989.1월 방한)
 - 기타 협력사업 계속 추진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1988.11.3.-14. 전14권 (V.14 홍보 및 언론보도)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1 / 5 / 1-121

348

1. 외무부는 1988.11.13. 노태우 대통령의 아태지역 4개국 공식 방문 성과에 관한 대언론자료를 배포함.

- 방문성과 종합
 - 동남아·대양주지역을 상대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확산
 - 아시아 협력외교 추진 기틀 마련
 -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확산 및 관계증대 합의
 -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에 대비한 협력구상 논의
 - 국민의 해외진출 분위기 조성
- 말레이시아
 - 양국간 협력의 제도적 장치 수립 합의: 정기 공동위원회 운영합의
 -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남남협력 결합
 - 무역의 균형적 확대합의: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교역확대 노력 등
 - 상호보완관계의 확대심화 합의: 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공동개발, 기술협력 강화
 - 합작투자 증대 합의
 - 말레이시아의 한국어 교육지원 합의
- 인도네시아
 - 양국간 협력의 제도적 장치수립 합의: 정기 공동위원회 운영합의
 - 상호보완관계의 심화 확대 합의: 세계 경제상황 대처를 위한 협력강화
 - 인도네시아 제6차 5개년계획(1989~93년)에 대한 한국기업 참여 확대
 - 합작투자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이종과세방지협정 체결, 투자보장협정 조속 체결추진
 - 무역의 균형적 확대 합의
 - 인도네시아의 한국어 교육지원 확대
 - 항공협정 체결 적극추진 합의
- 브루나이
 - 브루나이 제5차 경제개발계획(1986~90년) 참여 확대
 - 합작투자 제3국 공동진출
- 호주
 - 한·호주 양국의 새로운 협력관계 정립 합의: 한·호주 협의회 설립 합의, 정기항로 개설 합의 (1989년 상반기 중), 문화공동위 설립 합의
 - 국민 해외진출 증진
 - 무역의 균형적 확대 추진
 - 자원협력과 합작투자 증대 합의
 -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서명

2. 본 문서철에는 대통령 아태지역 4개국 순방 관련 내외신 언론보도 내용이 첨부됨.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1 사전준비 자료 I: 1988.8월-9.16.)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21 / 6 / 1-223

외무부는 1988.9월 노태우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보고(제1차)함.

1. 방문국 및 기간

- 말레이시아(1988.11.3.~5.), 호주(1988.11.5.~8.), 인도네시아(1988.11.8.~12.), 브루나이(1988.11.12.~15.), 일본(1988.11.15.~17.)

2. 방문국별 일정

- 각 방문국별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주요인사 면담 및 접견, 오·만찬, 산업시찰, 교민행사 등 일정 수립

3. 수행원

- 공식수행원
 - 외무부, 상공부, 동자부장관, 주재국 대사, 대통령 비서실, 외무부 의전장·아주국장 등
- 비공식 실무수행원, 경호관, 기자단 등

4. 기타 각종 준비사항

- 이용 항공기
- 숙소
- 훈장
 - 교환여부 등 검토
- 선물
- 복장
- 선발대
- 국내행사
 - 기념품제작 및 가두장식 폐지
 - 공항행사계획 수립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2 사전준비 자료 II: 9.20.-10월)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21 / 7 / 1-167

외무부는 1988.10.27. 노태우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보고(제2차)함.

1. 국별 일정

- 말레이시아(1988.11.3.~5.)
 - 11.3. 공항도착, 공식 환영행사, 수상 내외 접견, 국왕 내외 주최 공식만찬
 - 11.4. 정상회담, 수상 내외 주최 오찬, 교민초청 리셉션
 - 11.5. 국왕 내외 작별예방 및 환송행사, 시드니 향발
- 호주(1988.11.5.~8.)
 - 11.5. 공항도착
 - 11.6. New South Wales(NSW)주 수상 내외 접견, 시드니 향만시찰, 교민초청 리셉션, 한·호주 친선협회 리셉션
 - 11.7. 호주 경제단체 초청연설, NSW주 수상 내외 주최 오찬, 캔버라 도착, 한·호주 정상회담, 수상 내외 접견, 총독 내외 주최 만찬
 - 11.8. 전쟁기념관 헌화, 하워드 야당당수 접견, 수상 내외 주최 오찬 및 국회시찰, 인도네시아 향발
- 인도네시아(1988.11.8.~12.)
 - 11.8. 발리공항 도착, 발리 주지사 내외 주최 만찬
 - 11.9. 자카르타 도착, 공식 환영행사, 인도네시아 대통령 예방, 만찬
 - 11.10. 한국업체 건설현장 시찰, 국회의장 주최 오찬,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한국기자 간담회, 공식만찬
 - 11.11. 영웅묘지 헌화, 교민초청 리셉션,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 주최 오찬
 - 11.12. 인도네시아 대통령 내외 작별예방
- 부루나이(1988.11.12.~14.)
 - 11.12. 공항도착, 환영행사, 국왕 면담, 정상회담, 국왕 내외 주최 공식만찬
 - 11.13. 박물관 및 민속공연 관람, 수공예품 전시장 관람, 교민초청 다과회
 - 11.14. 서울 향발

2. 기타

- 수행원(공식, 비공식 및 실무) 확정, 항공기 전세, 숙소, 훈장, 통역 확정 등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3 일정, 숙소 등 의전 I: 말레이시아)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21 / 8 / 1-245

외무부는 1988.11월 노태우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 관련, 말레이시아 방문(1988.11.3.~5.) 행사 세부계획을 수립함.

1. 체재 일정

- 공항 환영식, 국립묘지 헌화, 국왕 및 수상의 예방접견, 정상회담, 공식연회, 교민초청 오찬, 산업시찰 등
 - 대통령 부인 별도일정

2. 정상회담

- 의제협의, 참석자 확정

3. 공식만찬

- 참석대상자 확정

4. 양국 상공장관 회담, 재무장관 회담

- 개최 확정

5. 기타 필요조치

- 행사별 참석범위 확정
- 프레스센터 사전점검, 행사별 취재계획 수립
- 통신시설 점검
- 행사별 차량배치 등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4 일정, 숙소 등 의전 II: 브루나이)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21 / 9 / 1-240

외무부는 1988.11월 노태우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과 관련, 브루나이 방문(1988.11.12.~14.) 행사 세부계획을 수립함.

1. 체재 일정

- 과거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참신한 정상외교 일정 수립
- 공항 환영식, 국왕과의 면담 및 한·브루나이 정상회담, 공식만찬, 교민 리셉션, 주택건설현장 등 각종 시찰 등
 - 대통령 부인 별도일정

2. 정상회담

- 예방(면담) 형식의 회담, 공식수행원 대동
 - 별도 각료급회담은 필요 시 추진

3. 공식만찬

- 복장 및 훈장, 초청대상자 확정, 만찬사 및 답사연설 시행

4. 교민 리셉션

- 참석대상자 검토

5. 행사별 내용 및 절차 검토

- 대사 주최 교민 리셉션, 비공식만찬
- 박물관, 기술박물관 및 수상촌 시찰

6. 기타 점검사항

- 연설 행사명, 방명록 서명 행사명, 국가연주 행사명, 화환증정 행사명
- 통역, 출입국, 숙소, 차량, 훈장, 선물, 경호협조 등
- 공관지원
 - 의전비품 및 자료, 기타 참고사항, 주요 전화번호 등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5 일정, 숙소 등 의전 III: 인도네시아 1(7월-10.18.))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21 / 10 / 1-197

외무부는 1988.11월 노태우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과 관련, 인도네시아 방문(1988.11.8.~12.) 행사 세부계획을 수립함.

1. 체재 일정

- 발리 도착, 발리 주지사 주최 만찬, 자카르타 도착, 공항 환영식, 대통령 내외 예방, 부통령 내외 접견, 공식만찬, 한국건설현장 시찰, 국회의장 주최 오찬, 영웅묘지 헌화, 정상회담,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교민 리셉션, 인도네시아 대통령 작별예방 등
 - 대통령 부인 별도일정

2. 정상회담

- 형식은 정상회담 후 확대회담 개최
- 의제 내용 점검
 - 양국간 항공협정, 공동위원회 구성,
- 회담 후 기자들에게 구두로 회담 결과를 발표 및 기자회견 실시

3. 각 행사별 준비점검

- 행사별 세부 점검사항 및 내용
 - 행사별 참석자, 기자초청 여부

4. 주재국 내 주요기관 자료 작성

- 한국학연구소, 자카르타 한국학교,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민속촌 등

5. 교민초청 리셉션

- 초청대상자 확정

6. 기타

- 통역, 출입국, 숙소, 차량, 훈장, 선물, 경호협조 등
- 취재진 지원
- 자료 및 기타 참고사항
 - 인도네시아 개황, 주요인사 이력서, 인도네시아 영예 수행인사 명단
 - 영부인 면담자료
 - 주요인사 면담 시 말씀자료
 - 방문시설 개황
 - 방문기간 중 기후, 시가지 약도, 주요 전화번호 등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6 일정, 숙소 등 의전 IV: 인도네시아 2(10.19.-11.7.))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21 / 11 / 1-247

외무부는 1988.11월 노태우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과 관련, 인도네시아 방문(1988.11.8.~12.) 행사 세부계획을 수립함.

1. 세부일정 설명서 작성(1988.10.19.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 각종일정 세부조정

- 정상회담 의제 및 형식
- 외무장관 회담 및 기자회견
- 영부인 별도일정, 교민 리셉션, 국회의장 주최 오찬,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등

3. 각종 자료작성

- 계기별 말씀자료
- 기자회견 자료
 - 외무부장관의 인도네시아 주재 외신기자 대상
- 인도네시아 면담 주요인사 이력
- 교민회 현황

4. 기타 필요사항 조치

- 숙소, 통신지원, 통역, 차량, 홍보, 경호
- 선발대 방문협조
- 한국언론 취재지원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7 일정, 숙소 등 의전 V: 호주, 일본)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22 / 1 / 1-281

외무부는 1988.11월 노태우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과 관련, 호주 방문(1988.11.5.~8.) 행사 세부계획을 수립함.

1. 체제 일정

- 시드니 도착, 호주 경제인 초청연설, 캔버라 도착, 공식 환영행사, 정상회담, 총독 주최 공식만찬, 전쟁기념관 헌화, 하워드 야당당수 접견, 호주 수상 주최 오찬, 교민 리셉션 등
 - 영부인 별도일정

2. 정상회담

- 형식 및 의제 점검

3. 각 행사별 준비

- 행사별 세부 점검사항 및 내용
 - 행사별 참석자 확정, 기자초청 여부

4. 각종 자료작성

- 공관 준비지침
 - 일반사항, 교민행사, 경호상황실 준비, 경호요원 지원사항, 통신 등
- 주요 면담인사 명단

5. 기타 조치사항

- 숙소, 경호, 취재협조, 선물 등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8 선발대 I: 말레이시아)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22 / 2 / 1-221

외무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1988.11월)을 사전점검하기 위해 박건우 의전장을 단장으로 하는 선발대를 1988.9.28.~10.1. 말레이시아에 파견함.

1. 말레이시아 측과 제1차 전체회의 개최(1988.9.29.)

- 전체일정 협의
 - 11.3. 공항도착, 공식 환영행사(국회의사당 광장), 수상 내외 접견, 국왕 내외 주최 공식만찬
 - 11.4. 수상과의 정상회담, 산업시찰, 교민초청 리셉션, 수상 내외 주최 비공식만찬
 - 11.5. 국왕 내외 작별예방, 시드니 향발
- 영부인 별도일정
 - Orchid garden, 수공예품 전시장, 지체부자유자 보호소 방문
- 기타
 - 경제단체 주최 다과회 생략, 훈장교환 협의

2. 현장답사(1988.9.29. 오후)

- 숙소, 공항, 국회의사당 등

3. 제2차 현장답사(1988.9.30.)

- 산업시찰(Palm Oil 연구소), 박물관, 지체부자유 아동보호센터 등

4. 제2차 전체회의(1988.9.30.)

- 준비상황 전반에 관해 의견교환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9 선발대 II: 인도네시아)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22 / 3 / 1-43

외무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1988.11월)을 사전점검하기 위해 박건우 의전장을 단장으로 하는 선발대를 1988.10.4.~9. 인도네시아에 파견함.

1. 발리 체제 일정협의 및 현장답사(1988.10.5.)

- 발리 주지사 주최 만찬
- 환영행사장(공항), 숙소 답사

2. 인도네시아 측과 자카르타 일정협의 및 현장답사(1988.10.6.)

- 국회연설 문제협의
 - 인도네시아 측은 외국 국가원수의 국회연설은 일반적 관례가 아니므로 고위층의 결정을 요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상부에 보고하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언급
- 현장답사
 - 대통령궁 내 환영행사장, 공식만찬장 및 영빈관 답사

3. 인도네시아 측과 제2차 일정협의 및 현장답사(1988.10.7.~8.)

- 일정 최종확정
 - 11.8. 발리도착, 발리 주지사 주최 만찬
 - 11.9. 자카르타 도착, 환영행사, 인도네시아 대통령 예방, 부통령 내외 접견
 - 11.10. 한국업체 건설현장 시찰, 정상회담, 기자간담회, 공식만찬
 - 11.11. 영웅묘지 헌화, 교민 리셉션,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비공식만찬
 - 11.12. 인도네시아 대통령 고별예방
- 현장답사
 - 영웅묘지, 공항, 민속촌 및 한국 건설현장
 - 신체부자유 아동복지원,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장소 등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10 선발대 III: 호주)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22 / 4 / 1-230

외무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1988.11월)을 사전점검하기 위해 박건우 의전장을 단장으로 하는 선발대를 1988.10.10.~9. 호주에 파견함.

1. 호주 측과 일정협의 및 현장답사(1988.10.10.)

- 시드니 및 캔버라 일정 협의
- 현장답사
 - 정상회담 장소, 국회의사당, 환영행사장(공항) 등

2. 제2차 일정협의 및 현장답사(1988.10.11.)

- 캔버라 일정 잠정협의
 - 11.7. 캔버라공항 도착, 환영행사, 정상회담, 수상 내외 접견, 총독 내외 주최 공식만찬
 - 11.8. 전쟁기념관 헌화, 하워드 야당당수 접견, 수상 내외 주최 오찬, 국회시찰, 발리향발
- 현장답사
 - 전쟁기념관, 국립미술관, 장애아동 치료센터

3. 제3차 일정협의 및 현장답사(1988.10.12.)

- 시드니 일정 협의
 - 11.6. NSW주 수상 내외 접견, 시드니 항만시찰, 교민초청 리셉션, 한·호주 친선협회 리셉션
 - 11.7. 호주 경제단체 초청연설, NSW주 수상 내외 주최 오찬
- 현장답사
 -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 숙소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11 선발대 IV: 브루나이)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22 / 5 / 1-92

외무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1988.11월)을 사전점검하기 위해 박건우 의전장을 단장으로 하는 선발대를 1988.10.1.~4. 브루나이에 파견함.

1. 행사장 외곽답사(1988.10.2.)

- 영빈관, 왕궁, 회교센터, 수상촌, 박물관, 공예품 전시장 등

2. 브루나이 측과 전체회의 개최(1988.10.3.)

- 전체회의와 의전, 공보, 경호 및 통신분야 별도협의
- 전체일정 협의
 - 11.12. 도착 및 환영식, 국왕예방 및 정상회담, 공식만찬
 - 11.13. 교민과의 다과회, 비공식만찬
 - 11.14. 브루나이 출발
- 행사장 답사
 - 왕궁, 영빈관, 한국건설업체 현장, 공항 등

3. 선발대 건의사항

- 현지 도착 후 공식행사 이외의 다른 활동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일본 방문이 연기되는 경우 브루나이 방문기간을 1일 단축하여 통보
- 대통령 부인의 왕비 예방 시 한국 측이 남자통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영어에 능통한 여성 통역요원 선정요망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12 훈장 교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22 / 6 / 1-162

1. 외무부는 1988.9월 노태우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순방 시 훈장교환계획을 수립하고, 공적조서작성 등 관련절차를 진행함.

- 교환내역
 - 훈장교환 비율은 한국 측과 방문국 측 간 협의로 결정
 - 인도네시아 대통령 부처, 브루나이 국왕은 이미 한국 측 훈장을 받은 바 있어 금번 훈장교환 시는 제외

2. 상기 훈장교환계획에 따라 한국 측 서훈자 명단은 아래임.

- 말레이시아(2)
 - 노태우 대통령 부처: 국가 최고영예훈장
- 인도네시아(8)
 - 노 대통령(1):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훈장, 노 대통령 부인(1): 1등 공로훈장,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경호실장, 합참의장(4): 2등 공로훈장, 주인도네시아대사, 의전수석비서관(2): 3등 공로훈장
- 브루나이(8)
 - 노 대통령 부처(2): 브루나이 왕관장, 외무부, 동자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3): 왕국 1등급 명예훈장, 경제수석, 공보수석비서관, 외무부 의전장(3): 왕국 2등급 명예훈장

3. 상기 훈장교환계획에 따라 외국인사 서훈자 명단은 아래임.

- 무궁화 대훈장(4)
 - Ismail 말레이시아 국왕 부처, Saleha 브루나이 제1왕비 및 Mariam 제2왕비
- 수교훈장 광화대장(2)
 - Suharmono 인도네시아 부통령 부처
- 수교훈장 광화장(9)
 - 인도네시아 외무, 공업, 무역, 광업, 관방장관 및 관방성 부장관, 주한 인도네시아대사
 - 브루나이 NOC(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재무장관
- 수교훈장 흥인장(7)
 - 주한 브루나이대사, 정무차관, 왕실 의전장
 - 인도네시아 관방장관 보좌관, 정무차관보, 경제차관보, 의전장
- 국민훈장 통일장(1)
 - 인도네시아 정치안보담당조정장관
- 국민훈장 국선장(2)
 - 인도네시아 대통령 군사비서관, 대통령 경호대장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13 수행원 명단, 숙소 배정)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22 / 7 / 1-203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1988.11.3.~14.)시 수행원 명단은 아래와 같음.

1. 공식 수행원

- 최광수 외무부장관, 안병화 상공부장관, 이봉서 동자부장관, 손장래 주말레이시아대사 내외, (이창수 주호주대사 내외, 김영섭 주인도네시아대사 내외, 강승구 주브루나이대사 내외), 홍성철 대통령 비서실장, 이현우 대통령 경호실장, 최세창 합참의장, 김영구 민정당총재 비서실장, 노창희 의전수석비서관, 박승 경제수석비서관, 이수정 공보수석비서관, 최규완 대통령주치의, 박건우 외무부 의전장, 소병용 외무부 아주국장

2. 비공식 및 실무수행원

- 청와대
 - 이병기 의전비서관, 문동석 정무비서관, 김성익 공보비서관, 문무홍 공보비서관, 신현국 공보비서관, 김영일 민정비서관 외 비서실 직원
- 외무부
 - 홍순영 제2차관보, 김하중 의전과장, 유명환 장관보좌관, 정영조 동남아과장, 신장범 경험1과장 외 실무직원
- 기타 부처
 - 박유광 경제기획원 차관보, 홍재형 재무부 제1차관보, 이부식 건설부 해외건설국장, 임내규 상공부 아주통상과장, 이승용 동자부 장관비서관, 현오석 경제기획원 대외조정4담당관, 한승의 합참 의장보좌관

3. 수행 경호관

4. 수행 기자단

5. 기타

- 조종건 대한항공 사장

노태우 대통령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 순방[의전], 1988.11.3.-14. 전16권 (V.14 인원 지원, 경호 협조)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22 / 8 / 1-184

1. 외무부는 1988.9월 노태우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순방(1988.11.3.~14.) 관련 특별인력을 지원함.

- 방문국별로 의전 또는 행사경험이 있는 직원을 10~11월 초 파견
 - 말레이시아 1명, 호주 1명, 시드니 2명, 인도네시아 1명, 브루나이 4명
- 기타 각 방문국별로 통신지원대책을 수립, 시행
 - 외무부·공관 간, 공관 상호간 안정적인 통신망 구성
 - 기타 필요한 행정지원 등
- 통신지원
 - 국제회선 운용계획 수립 시행
 -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 파견

2. 외무부는 1988.9월 노태우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순방 관련 대통령 경호실의 요청사항에 대해 협조함.

- 각종 행사도면
 - 행사장별 내부 및 외곽 상세도면
 - 전국지도
 - 시가지도
 - 관광안내도
- 경호유관 기관 직제표 및 책임간부 명단 등
- 선발대 지원
 - 일정 주선 및 통역, 안내 등 행정서비스

Albert 벨기에 왕제 방한, 1989.6.23.-2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2과
MF번호	2019-22 / 11 / 1-191

Albert 벨기에 왕제가 1989.6.23.~29. 방한함.

1. 방한 목적 및 일정

- 목적
 - Belgian Week 참석 등 양국관계 증진
- 수행원
 - Claes 부수상 겸 경제장관, Urbain 통상장관, 벨기에 전경련회장 등 기업인 70명
- 주요 일정
 - 6.26. 상공부장관, 전경련회장, 무역협회 회장 면담, Belgian Week 개막식 참석
 - 6.27. 삼성물산 회장 주최 조찬, 대한상의 회장 면담, 벨기에 Hi-Tech 세미나 개막식 참석, 대통령 주최 청와대 오찬, 상공부장관 주최 만찬
 - 6.28. 대우그룹 회장 주최 조찬, 국회의장, 국무총리 예방, 벨기에 투자세미나 참석
 - 6.29. 체신부장관 면담

2. Belgian Week(1989.6.26.~30., 서울)

- 주요 행사
 - 개막식
 - 제11차 한·벨기에 통상장관회담
 - 제15차 민간경험위원회
 - “한국과 구주단일시장”, “벨기에의 Hi-Tech”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

3. 제11차 한·벨기에 통상장관회담(1989.6.26.,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한승수 상공부장관
 - 벨기에 측: Urbain 통상장관
- 주요 협의사항
 - 양국교역 증진방안
 - 투자기술 등 산업협력 등

Cerezo Arevalo, Vinicio M. 과테말라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9-22 / 12 / 1-111

Vinicio M. Cerezo Arevalo 과테말라 대통령의 방한 초청이 추진됨.

1. 대통령 특사로 1987.7.1. 과테말라를 방문한 문창화 대사의 Cerezo 과테말라 대통령 예방 시에 동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기를 희망함.
 - Valle 과테말라 대통령실 정치담당차관은 1988.12.30. 조기성 주과테말라대사에게 전화로 동 대통령이 1989.5~6월 중 히로히토 천황 장례식 참석 기회에 한국 방문을 희망한다고 알려옴.
 - 야당에서 대통령의 잦은 해외여행과 반일감정으로 반대하여 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법무장관이 대신 장례식에 참석하게 됨.
2. Cerezo 대통령은 계획을 바꾸어 한국, 대만(구 중화민국) 방문을 추진하기로 하고 1989.6.29. 조기성 대사에게 9.3.~6. 한국 실무방문을 희망한다고 언급함
 - 한국 정부는 과테말라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는 입장이기는 하나, 2월 일본 방문 취소 등 의회의 사전동의 없이는 대통령의 해외방문이 불가능함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견지
 - 주과테말라대사관에 국회 비준여부를 계속 지시하는 한편, 일본과 대만 정부의 방문 준비를 확인
3. 정부는 방문 시기가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과테말라 의회 통과 등 필요한 준비 부족 등으로 방한 실현이 불가능하여질 것으로 판단하고 1989.8.8. 주과테말라대사에게 국내 사정으로 내년에 공식 방문을 추진하기를 원한다는 본부의 훈령을 주재국에 전달하도록 지시함.

교황 요한 바오로(John Paul) 2세 방한, 1989.10.7.-9.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9-22 / 13 / 1-259

교황 요한 바오로(John Paul) 2세가 1989.10.7.~9. 한국을 방문함.

1. 제4차 세계성체대회(International Eucharistic Congress)가 1989.10.7.~9. 서울에서 개최됨에 따라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게 됨.
 - 성체대회는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천주의 세계적인 종교의식 행사이며 100여개 국가에서 3만 여명이 참석
2. 청와대 대변인은 1989.6.8. 교황의 방한을 공식 발표함.
 - 노태우 대통령은 7.5. 교황 앞 서한을 통하여 교황의 방한을 환영함.
 - 한국 정부는 세계성체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하여 필요사항을 점검
3. 교황은 방한기간 중 성체대회 참석 및 미사 봉헌, 대통령 예방 등 일정을 가짐.

89-0324

교황 요한 바오로(John Paul) 2세 방한, 1989.10.7.-9. 전2권 (V.2 자료 및 언론보도)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9-22 / 14 / 1-88

교황 요한 바오로(John Paul) 2세의 방한(1989.10.7.~9.) 관련자료임.

1. 노태우 대통령의 교황 면담자료
2. 교황의 연설문
3. 언론보도

Aquino, Corazon 필리핀 대통령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2 / 15 / 1-26

1988~89년 중 Corazon Aquino 필리핀 대통령의 방한이 추진되었으나 성사되지 않음.

1. Aquino 필리핀 대통령 방한 초청 경위

- 1988.4월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필리핀 방문 시 노태우 대통령 초청 서한 전달
- 1988.9월 동 대통령은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방한시기 확정이 어려움을 회신
- 1989.5월 김영정 정무장관의 필리핀 방문 시 노 대통령의 방한 초청 의사 재표명 서한 전달

2. 방한 추진

- 주필리핀대사는 1988.7.2. Manglapus 외무장관을 예방, Aquino 대통령의 방한 초청을 상고하고 방한 가능성을 문의한데 대해, 동 장관은 Aquino 대통령과 논의하겠다고 언급
- 동 대사는 7.7. 대통령 의전수석과 오찬 시 Aquino 대통령의 방한문제 언급
- 동 대사는 1989.2.8. Manglapus 외무장관 이임 예방 시 Aquino 대통령의 방한문제 언급
- Aquino 대통령은 12.21. 대통령궁 출입기자단 성탄절 파티에서 근검절약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외국 방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Quayle, Dan 미국 부통령 방한, 1989.9.19.-2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23 / 4 / 1-328

Dan Quayle 미국 부통령이 1989.9.19.~21. 한국을 방문함.

1. 경위

- Quayle 부통령은 1989.9월 도쿄에서 개최되는 국제민주연합(International Democrats Union, IDU) 회원국 정당 당수회의 참석 기회에 한국 등 아시아국가 순방을 추진함.
- 정부는 강영훈 국무총리 명의로 Quayle 부통령을 방한 초청함.

368

2. 방한 결과

- Quayle 부통령은 체한 기간 중 대통령, 국무총리 등 고위인사 면담, 정당 지도자, 언론계 및 종교계 저명인사 면담, 기자회견 등 일정을 가짐.
- 대통령, 국무총리, 정당 지도자 등과의 면담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 주한미군 문제, 한국의 통일정책 및 북방정책,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통상문제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 재확인,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확인, 한국의 대북정책 지지,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 등 성과

Hawke, Robert J. L. 호주 수상 방한, 1989.1.29.-2.1. 전3권 (V.3 자료수집(부내 및 타부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3 / 7 / 1-148

Robert Hawke 호주 수상의 방한(1989.1.29.~2.1.) 관련 자료임.

1. 외무부 자료

- 남북한 관계현황 및 전망
- 북한의 대중국·소련 관계, 북한의 대소련 관계
- 중국·소련 관계, 미국·소련 관계, 부시 행정부의 아태지역 정책 전망
- 북방정책, 한·중국 관계
- 세계경제 블록화 추세, 아태지역 협력
- 대호주 투자확대, 자원협력관계
- 한·호주 이민관계
- 한·호주 범죄인 인도조약
- 한·호주 문화공동위 설치, 호주 내 한국학 진흥지원

2. 타 부처 자료

- 대호주 통상현안
 - 한국 측 관심사항: 양국교역의 확대균형, 한국상품 구매확대, 반덤핑 규제완화
 - 호주 측 관심사항: 석탄·철광석, 소고기
 - 제16차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및 정상회담 후속조치: 무역협정부속의정서 체결, 투자조사단 파견, 자동차부품 시절단 파견 등
- 경제관련 자료
 - 자원교역, 자원합작 개발
 - 금융협력, 해외투자, 외국인 투자
 - 소고기 수입, 밀 수입, 신선과일 및 채소류, 어업협력

Brandt, Willy 전 독일 수상 방한, 1989.10.24.-3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9-23 / 8 / 1-110

Willy Brandt 전 독일 수상이 1989.10.24.~31. 한국을 방문함.

1. Brandt 전 수상(국제사회주의연맹 의장)이 국제언론문화사(시사저널)의 초청으로 한국을 비공식 방문함.
2. Brandt 전 수상은 방한 기간 중 대통령 예방 및 오찬, 국회의장 및 4당 대표와의 환담, 언론사 사장 면담, 특별강연, MBC 토론 참석, 판문점 방문 등 일정을 가짐.

Medgyessy, Peter 헝가리 부수상 방한, 1989.10.22.-25.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동구과

MF번호 2019-23 / 9 / 1-212

Peter Medgyessy 헝가리 부수상이 1989.10.22.~25. 한국을 방문함.

1. 헝가리 외무부가 주헝가리대사관을 통하여 1989.11월 대통령의 헝가리 방문을 사전준비하기 위한 Medgyessy 부수상의 한국 방문을 희망함에 따라, 정부는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명의로 동인을 방한 초청함.

- 동 방한은 1989.2월 양국 수교 이후 최초의 고위인사 방한으로 헝가리 국립은행 총재 등이 수행

2. Medgyessy 부수상은 체한 기간 중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등 고위인사 면담,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구자경 럭키금성그룹회장 면담 등 일정을 가짐.

3. Medgyessy 부수상 방한 시 양측의 협의사항은 아래와 같음.

- 헝가리 측은 양국간 경제협력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협력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기업의 헝가리 투자 건에 대한 조속한 승인을 요망하고, 경협차관 제공, 수입조건 완화, 가족위생협정 체결 등을 요청함.
 - 한국의 대헝가리 지원회의 참가문제를 제기하고, 대통령의 헝가리 방문 시 구체적인 협정 조인을 요망함.
- 한국 측은 실천가능한 사항으로 1995년 헝가리 EXPO 참석, 반가공육류 중 Selami Suassage 수입개방을 약속하고, 가축 또는 생육 수입은 불가입장을 밝힘.
 - 대우 합작투자, 경협 Package 이행 등 문제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힘.

Lange, David R. 뉴질랜드 수상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3 / 10 / 1-22

정부는 1985~89년 David R. Lange 뉴질랜드 수상의 방한을 추진함.

1. 주뉴질랜드대사는 1985.2.19. Lange 뉴질랜드 수상의 방한 초청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정부는 1987.8.15. 뉴질랜드 총선에서 승리하여 재집권하게 된 Lange 수상에게 김정열 총리 명의의 방한 초청 서한을 송부함.
3. Lange 수상은 1988.10.30. 방한하는 Marshall 외무장관 편으로 보낸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에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노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을 초청함.
 - 동 대통령은 이 서한에 대한 답신에서 동 수상을 다시 방한 초청함.

Bhichai Rattakul 태국 부수상 방한, 1989.5.20.-25.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3 / 11 / 1-52

Bichai Rattakul 태국 부수상이 1989.5.20.~25. 한국을 방문함.

1. Rattakul 부수상은 로터리클럽 서울총회 참석차 개인자격으로 부인을 동반하여 방한함.
2. 외무부는 Rattakul 부수상이 외무장관을 역임한 종진인사임을 감안하여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을 개최함.
 - 동 부수상은 청와대에서 개최된 로터리클럽 회원을 위한 오찬행사에도 참석함.

최호중 외무장관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 참석 및 인도네시아 방문, 1989.11.1.-7. 전3권 (V.1 사전준비 I(7월-10.24.))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3 / 12 / 1-200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1989.11.6.~7., 캔버라) 참석 및 인도네시아 방문(1989.11.1.~3.)에 대비한 사전준비 내용임.

1.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

- 주요 일정
 - 1989.11.5. 고위실무자회의, 호주 정부 주최 만찬
 - 1989.11.6. 경제개발문제 협의, 무역자유화문제 협의, 호주수상 주최 만찬
 - 1989.11.7. 특정분야 지역협력회의, 아태경제협력 향후 조치 협의, 기자회견, 호주 외무장관 주최 만찬

2. 인도네시아 방문

- 협의 경위
 - 1989.8.28. 인도네시아 외무부, 아태 각료회의 이전 외무부장관의 인도네시아 방문희망 언급
 - 1989.9.16. 인도네시아 외무부, 캔버라 각료회의 전후 외무부장관의 방문희망 통보
 - 1989.9.20. 외무부, 11.1.~3. 외무부장관의 인도네시아 방문계획을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 통보
 - 1989.9.21. 주인도네시아대사, 인도네시아 정무차관보 면담 시 방문일자 설명
 - 1989.10.2. 주인도네시아대사, 인도네시아 외무부와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예방 등 방문일정 협의
 - 1989.10.23. Alatas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명의 초청장 접수
- 주요 활동계획
 - 한·아세안 협의체제 합의각서 교환 및 기념리셉션 개최
 - 수하르토 대통령 예방
 - 양국 외무장관 회담

최호중 외무장관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 참석 및 인도네시아 방문, 1989.11.1.-7. 전3권 (V.2 사전준비 II(10.25.-11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3 / 13 / 1-145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1989.11.6.~7., 캔버라) 참석 및 인도네시아 방문(1989.11.1.~3)에 대비한 사전준비 내용임.

1.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

- 협의 경위
 - 1989.10.27. 주호주대사관, 아태각료회의 일정 보고
 - 1989.10.31. 주호주대사관, 한·호주 외무장관회담 일정(11.5) 보고
- 자료
 - 외무장관의 아태각료회의 참석 및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 아태각료회의 참석 준비현황 브리핑자료
 -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ide Memoire on Administrative Arrangements
 - 아태각료회의 참석 및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보도자료

2. 인도네시아 방문

- 협의 경위
 - 1989.10.24. 주인도네시아 공사, Jamtomo 외무부 아세안국장 면담 시 합의각서 교환식 참석범위 등을 협의
 - 1989.10.25. 알라타스 인도네시아 외상의 초청서한에 대한 답신송부
- 자료
 -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예방 자료: 인적사항, 말씀자료 등

최호중 외무장관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 참석 및 인도네시아 방문, 1989.11.1.-7. 전3권 (V.3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4 / 1 / 1-123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인도네시아 방문 및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 참석 결과임.

1. 인도네시아 방문 결과

- 기간: 1989.11.1.~3.
- 주요 활동내용
 - 한·아세안 협의체제 합의각서 교환: 조속한 시일 내 한·아세안 공동위원회 등 협력기구 발족 합의
 -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예방: 방한 초청의사 전달, 양국관계 만족표명
 - 한·인도네시아 외무장관회담: 양국간 실질협력증진방안 및 아태협력문제 등 협의, 한국의 제3차 아태각료회의 개최 지지 약속
 - 기타 주요인사 면담: 수달모노 부통령, 무르다니 국방장관 등
 - 기타 활동: 내외신 기자회견, 한·아세안협의체제 출범기념 경축리셉션 개최
- 평가
 - 한·아세안 협의체제 출범을 통한 대아세안 협력시대 개막
 -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이후 양국 실질협력관계의 증진 및 후속사업의 진척
 - 아태각료회의에 대비한 한·아세안 협조체제 마련

2. 아·태각료회의 참석 결과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1989.11.6.~7., 캔버라
 - 참석자: 아태지역 12개국에서 26명의 외무장관 및 경제장관 참석
- 회의 결과
 - 세계 및 지역경제현황, 교역자유화, 특정분야에 대한 협력 및 향후 추진방향의 4개 의제에 대한 토의
 -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의 협력 합의
 - 아태각료회의 제2차, 3차 회의를 각각 싱가포르,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한국대표단 활동
 - 외무부장관의 기조연설에서 아태협력에 대한 한국의 협력의지 천명
 - 상공부장관은 무역자유화 등 경제 의제에 관한 발언을 통해 협력정책 천명
- 분석
 - 1989.1월 호크 호주 수상 방한 시 합의를 계기로 시작된 아태지역 최초의 역내 각료회의 개최로 아태협력시대 개막
 - 제3차 회의 서울 개최 결정으로 한국의 외교적 위상 강화

최호중 외무장관 헝가리 방문, 1989.3.28.-30.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동구과

MF번호 2019-24 / 2 / 1-270

최호중 외무부장관이 1989.3.28.~30. 헝가리를 방문함.

1.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Peter Varkonyi 헝가리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헝가리를 방문하여 1989.11월 예정인 노태우 대통령의 헝가리 방문에 대해 협의하고,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서명함.
2. 최호중 장관은 헝가리 체재 중 아래와 같은 일정을 가짐.
 - 헝가리 대통령, 수상, 당서기장, 국회의장 등 고위인사 예방
 - 양국 외무장관회담 개최(3.28.)
 - 수교기념 리셉션 참석
 - 헝가리 언론과의 인터뷰 등
3. 상기 방문 기간 중 헝가리 측은 한국 측에 당서기장 및 국가원수 공동명의로 노태우 대통령 앞 헝가리 방문 초청장을 전달하였으며, 한국 측은 헝가리 측에 그로스 당서기장의 방한을 요청하는 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Varkonyi 장관의 한국 방문을 초청함.
 - 양국 외무장관은 외무장관회담 종료 시 양국 외무부 간 외교협력 양해각서에 서명

최호중 외무장관 헝가리 방문, 1989.3.28.-30.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24 / 3 / 1-209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헝가리 방문(1989.3.28.~30.) 관련자료임.

1. 외무장관회담 의제별 언급내용
2. 고위인사예방 인사별 인적사항 및 언급사항
3. 의전계획 등

최호중 외무장관 서구 및 이라크 순방, 1989.6.27.-7.12. 전6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19-24 / 4 / 1-102

외무부가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서구 및 이라크 순방(1989.6.27.~7.12.)을 대비한 대책 및 조치사항임.

1. 방문 계획

- 방문 일정: 영국(6.28.~30.), 독일(7.3.~4.), 벨기에(7.5.~8.), 이라크(7.8.~10.)
 - 벨기에에서는 제6차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개최
 - 이라크는 이라크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방문

2. 방문국가별 활동계획 교섭

- 방문국가별로 회담 의제, 예방 대상자, 세부 방문일정 등 교섭
- 국가별 방문 계획
 - 영국: 외무장관회담 개최 및 오찬, 국방장관, 하원의장 면담
 - 독일: 외무장관회담 개최 및 오찬, 대통령, 하원의장 및 내독관계부장관 면담
 - 벨기에: 국왕 예방, 외무장관회담, EC 집행위원장 및 대외담당집행위원 예방
 - 이라크: 외무장관회담, 양국 수교축하 리셉션 개최, 제1부수상 예방
- 제6차 한·EC 고위협의회 개최(7.6.~7.)
 - 실무회의와 고위협의회 개최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최호중 외무부장관(실무회의 수석대표: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 의제: 한국 측에서는 반덤핑 등 EC의 수입규제완화, 과학기술협력증진에 관심을 두었으며, EC 측에서는 한국시장 개방, 외국인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보호에 관심을 가짐

최호중 외무장관 서구 및 이라크 순방, 1989.6.27.-7.12. 전6권 (V.2 국별교섭)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9-24 / 5 / 1-239

외무부가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서구 및 이라크 순방(1989.6.27.~7.12.)을 대비한 국가별 교섭내용임.

1. 외무부는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제6차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참석 계기에 인근 유럽 국가를 순방하는 일정을 계획함.
 - 영국, 독일 및 벨기에 주재 한국대사관에 동 장관 방문가능 여부, 방문가능 시 면담 및 회담 일정과 의제 등에 관해 교섭할 것을 지시함.
2. 관련 재외공관은 주재국 정부와 협의, 교섭하고 그 결과를 수시로 본부에 보고함.

최호중 외무장관 서구 및 이라크 순방, 1989.6.27.-7.12. 전6권 (V.3 활동사항 및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9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19-24 / 6 / 1-86

최호중 외무부장관이 1989.6.27.~7.12. 서구 및 이라크를 순방함.

1. 방문국가별 결과보고

- 영국(6.28.~30.)
 - 외무장관회담, 하원의장과 국방장관 예방, 데일리텔레그래프지와와의 기자회견 등 일정을 가짐.
 -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한국 대통령의 영국 방문을 위한 영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방한을 초청하였으며, 한국의 유엔가입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한·소련 관계개선을 위한 영국의 측면지원을 확보하고 양국간 경제·통상분야 실질협력 증대방안을 협의함.
- 독일(7.3.~4.)
 - 외무장관회담, 바이첵커 대통령, 하원의장 및 내독관계장관 예방 등 일정을 가짐.
 - 최호중 장관은 한국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위한 독일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바이첵커 대통령을 방한 초청하였으며, 독일 측으로부터 한국의 유엔가입노력 및 북방정책에 대한 협조와 한·EC(구주공동체) 관계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확보함.
- 벨기에(7.5.~4.)
 -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고 보드웬 국왕과 마르텐스 수상을 예방함.
 - 동 국왕과 동 수상의 방한을 초청하였으며, 한국의 유엔가입 노력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고 제3국에 대한 양국의 공동경험진출 추진에 합의함.
- 이라크(7.8.~10.)
 -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후세인 대통령과 부수상을 예방함.
 - 양국 수교축하 리셉션에 참석하고 주이라크대사관 현판식을 거행함.
 - 양국 영사관계를 외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한국기업의 전후복구사업 참여 문제를 협의함.

2. 한·EC 고위협의회(7.6.~7.)

- 주요 일정
 - 제6차 한·EC고위협의회를 개최하고, EC 집행위원장을 예방함.
 - 주한 EC대표부 설치 및 특권·면제에 관한 협정에 서명함.
- 회의 결과
 - 한국 측: VCR 등의 덤핑, 한국산 자동차의 프랑스 수출, 철강쿼터 철폐문제 등을 제기함.
 - EC 측: 농산물 수입개방,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지적재산권의 평등한 보호 등에 관심을 표명함.

최호중 외무장관 서구 및 이라크 순방, 1989.6.27.-7.12. 전6권 (V.4 자료 I: 영국)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9-24 / 7 / 1-119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영국 방문(1989.6.28.~30.) 관련자료임.

1. 한·영국 외무장관회담 자료
2. 영국 하원의장과 국방장관 면담자료 등

최호중 외무장관 서구 및 이라크 순방, 1989.6.27.-7.12. 전6권 (V.5 자료 II: 독일)

생산연도	1989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19-24 / 8 / 1-109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독일 방문(1989.7.3.~4.) 관련자료임.

1. 한·독일 외무장관회담 자료
2. 바이첵커 독일 대통령 면담자료 등

최호중 외무장관 서구 및 이라크 순방, 1989.6.27.-7.12. 전6권 (V.6 자료 III: 벨기에)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9-24 / 9 / 1-143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벨기에 방문(1989.7.5.~8.) 관련자료임.

1. 한·벨기에 외무장관회담 자료
2. 보드웁 벨기에 국왕 면담자료
3. 마르텐스 벨기에 수상 면담자료 등

최호중 외무장관 태국 방문, 1989.3.23.-27. 전3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4 / 11 / 1-165

최호중 외무부장은 ESCAP(아·태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참석 계기에 1989.3.23.~27. 태국을 방문함.

1. 개요

- 시티 사웻실라 태국 외무장관 초청에 의한 공식 방문
- 방문기간: 1989.3.23.~26.

2. 주요 일정(안)

- 3.24.
 - 푸미폰 태국 국왕 예방
 - 한·태국 외무장관회담(한·아세안 협의체제 수립 문제 등 협의)
 - 한·태국 투자보장협정 서명
 - 시티 외무장관 주최 만찬
- 3.25.
 - The Nation지 기자회견
 - 태국 주재 교민 및 상사대표 리셉션
- 3.27.
 - 제45차 ESCAP 총회 참석 및 기조연설

최호중 외무장관 태국 방문, 1989.3.23.-27. 전3권 (V.2 활동결과)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4 / 12 / 1-135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ESCAP(아·태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참석 계기 태국 방문(1989.3.23.~27.)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태국 국왕 예방(3.25.)

- 최호중 장관이 노태우 대통령의 문안인사를 국왕에게 전달
- 태국 국왕은 노 대통령의 태국 방문을 초청

386

2. 한·태국 외무장관회담 결과(3.24.)

- 동북아 및 동남아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 한·아세안 협력체제 수립 관련 태국의 적극 협조 약속
- 남북한 유엔가입에 대한 한국 입장 및 북방정책 설명
- 경제·통상협력 증진 노력 합의
 - 태국 측이 양국 상공장관회담 재개 요청
- 투자보장협정 서명

3. ESCAP 총회 참석(3.27.)

- 기조연설
 - 21세기 태평양 시대에서의 태평양 역내국가 간 협력과 교류증진 필요성 강조
 - 한국의 적극적인 대외 경제개방정책 설명
 - 한국의 대개도국 경제·기술협력 강화 의지 표명
- 시티 태국 외상 주최 리셉션 참석 계기 로가초프 소련 외무차관과 면담

최호중 외무장관 태국 방문, 1989.3.23.-27.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4 / 13 / 1-212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태국 방문(1989.3.23.~27.) 관련자료임.

1. 한·태국 외무장관회담 자료
2. 교민 간담회시 말씀자료
3. 적십자아동보호원 방문자료
4. 투자보장협정 서명식 연설자료
5. 태국 외상 면담자료
6. 만찬답사
7. 태국 국왕 및 부수상 예방자료
8. 외무부장관의 태국 공식 방문자료(종합)
9. 주태국대사관 브리핑자료

최호중 외무장관 미국 방문, 1989.7.20.-27. 전5권 (V.1 사전교섭(워싱턴))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통상1과

MF번호 2019-24 / 14 / 1-132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1989.7.20.~27. 미국 방문 관련 준비 현황임.

1. 방문교섭 경위

- 미국 국무부가 1989.5.24. 주미국대사관을 통하여 7.25. 워싱턴에서 한·미국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한데 대해 외무부가 이를 수락함.
- 양국은 회담 진행방식, 참석자 및 의제에 관한 협의를 진행함.
 - 양측은 국제정세 및 양자관계, 남북관계 관련 사안들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함.
 - 미국은 한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유자망 조업문제 등 경제, 통상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음.

2. 방문일정 준비

- 주미국대사관은 외무부장관 방문 시 아래와 같이 일정을 준비함.
 - Bush 대통령, Cheney 국방장관, Hills USTR 대표, Mosbacher 상무장관, Mitchell 상원 원내총무, Foley 하원의장 면담.
 - Brookings 연구원과의 조찬, Washington Post지 방문 및 오찬, 특파원 조찬 등
- 기타 일정은 아래와 같음.
 - 1989.7.20.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미관계 공동학술회의 참석
 - 1989.7.21. 북부 캘리포니아 World Affair Council에서 한국 외교에 관해 연설

최호중 외무장관 미국 방문, 1989.7.20.-27. 전5권 (V.2 사전교섭(샌프란시스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통상1과
MF번호	2019-24 / 15 / 1-82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1989.7.20.~27. 미국 방문 관련 준비 현황임.

1. 샌프란시스코 일정(1989.7.20.~21.) 개요

- 제3차 한·미국 포럼 만찬 연설
- World Affair Council 연설
- 교포 및 언론기관과의 간담회

2. 제3차 한·미국 포럼

- 버클리대학, 서울포럼 및 Asia Foundation Center For Asian Affairs 공동 주관으로 1989.7.20. 개최됨.
 - 한국과 미국 학자들이 통상 및 투자, 한·미간 정무, 경제 및 안보관계, 한국의 중진국 도약에 따른 한·미국 관계, 아시아에서의 한·미국 관계를 주제로 토론

3. World Affair Council 연설

- 최호중 장관은 1989.7.21. “1990년대의 한국 외교”를 주제로 연설하고 질의응답을 가짐.
 - 1990년대 한국 외교정책 기조인 “한반도 긴장완화, 동북아시아 안정추구, 유엔가입 노력, 한태평양국가 관계 강화”를 설명
 - 질의응답에서는 중국 사태가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북한 김정일의 후계 가능성,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 한국에서의 반미감정 및 남북통일문제 등에 관한 질의에 답변

4. 교포 및 언론인 간담회

- 교포 언론사 대표 언론인 등과의 조찬 및 만찬 간담회를 개최함.

최호중 외무장관 미국 방문, 1989.7.20.-27. 전5권 (V.5 자료 II)

생산연도 19899

생 산 과 북미과/통상1과

MF번호 2019-25 / 3 / 1-277

1.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미국 방문(1989.7.20.~27.) 관련자료임.
2. 외무부 통상국에서 작성한 한·미국 통상 현안별 참고자료가 수록됨.

RASHID Abdullah Al-Noaimi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외무담당국무상 방한, 1980.12.29.-81.1.1.

생산연도	1980-1981
생 산 과	근동담당관실
MF번호	2019-25 / 4 / 1-220

Rashid Abdulah Al-Noaimi UAE(아랍에미리트) 외무담당국무상이 1980.12.29.~81.1.1. 방한함.

1. 주요 일정

- 대통령 예방, 국무총리 예방
- 외무부장관 예방 및 한·UAE 외상회담
- 동자부장관, 건설부장관 예방

2. 방한 의의

- 한·UAE 간 외교관계수립 후 최초의 각료급 인사 방한
- 원유도입에 호의적 고려 약속

3. 외상회담 주요내용

- UAE산 원유도입에 관한 협의 및 상호보완적 기술협력관계 발전 필요성 공감
- 한반도 정세, 한국의 평화통일노력 및 북한의 남북대화 중단사실 등 설명
 -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남북대화 재개희망을 표시
- 비동맹회의 등에서의 UAE의 한국입장 지지

4. 공동발표문(1980.12.31.)

- UAE 측이 대한민국 원유공급관련 호의적 배려 약속
- 양측이 한·UAE 우호협력관계에 만족 표명
- 비동맹회의 등 국제회의 시 UAE의 한국입장 지지 약속

Arnau, Juan Carlos Sanchez 아르헨티나 외무부 양자경제 차관보 방한, 1989.11.20.-27.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9-25 / 5 / 1-111

Juan Carlos Sanchez Arnau 아르헨티나 외무부 양자경제담당차관보가 1989.11.20.~27. 방한함.

1. 방한 목적

- 대아르헨티나 투자유치
 -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대아르헨티나 투자설명회' 개최
- 양국간 경제·통상 문제 협의
 - 아르헨티나산 육류수출에 관심 표명

2. 주요 방한일정

- 11.21.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 면담
- 11.22. 외무부장관대리(차관) 예방,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면담
- 11.23. 경제기획원 제2협력관, 재무부 국제금융국장, 상공부 제2차관보 등 면담
- 11.24.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부회장 면담
- 11.25.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시찰

3. Arnau 차관보는 1989.11.22. 외무부차관을 예방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함.

- 메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지시로 방한함.
- 아르헨티나 신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며,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희망함.
- 아르헨티나는 한국을 모델로 삼아 공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기업과 30건의 계약을 체결함.
- 섬유, 가죽가공 및 섬유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함.
- 한국수출입은행·아르헨티나국가개발은행 간 협력의 진전을 희망함.
- 양국간 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의 출범을 희망함.

Mock, Alois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방한, 1989.9.17.-19.

생산연도	1989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19-25 / 6 / 1-394

Alois Mock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이 1989.9.17.~19. 방한함.

1. 방한 일정

- 9.17.
 - 한국 도착
- 9.18.
 - 민정당 대표와의 조찬
 - 국립묘지 헌화
 - 외무장관회담
 - 통일원장관 예방
 - 상공부장관 면담
 - 외무부장관 내외 주최 만찬
- 9.19.
 - 포항제철 회장과의 조찬
 - 대통령 예방
 - 기자회견
 - 주한대사 주최 리셉션

2. 양국 외무장관회담 시 논의내용

- 양국관계
 - 정무관계: 양국관계 증진 추세 만족, 고위인사 교류 추진 등
 - 국제기구분야: 남북한의 유엔가입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이해 희망
 - 경제·통상관계: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경험 증진, 교역량 증가 추세
 - 과학기술문화교류: 최근 교류확대 만족, 연구기관간 교류 및 유학생 교류증대 희망
- 지역 및 국제정세
 - 남북대화, 북방정책, 한반도 정세 등 설명
 - 오스트리아의 대동구 관계, EC(구주공동체) 등 설명 청취
 - 동서관계, 세계경제 정세, 유엔의 역할 등에 관한 의견교환

Mohamed Bolkiah 브루나이 외무장관 비공식 방한, 1989.5.17.-20.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5 / 7 / 1-193

Mohamed Bolkiah 브루나이 외무장관이 1989.5.17.~20. 비공식 방한함.

1. 방한 일정

- 5.17.
 - 서울 도착
- 5.18.
 - 외무부장관 면담
 - 외무부장관 내외 주최 비공식만찬

2. 외무장관 면담 시 논의사항

-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아세안의 역할
- 1989.7월 아세안 외무장관회의 시 한·아세안협의회 수립 결정에 대한 지원요청
- 노태우 대통령의 브루나이 방문 결과

3. 참고사항

- Bolkiah 장관은 1989.5.12.~17. 아세안상임위 의장자격으로 일본 공식 방문 후 귀로에 비공식 방한

Gbezera-Bria, Michel 중앙아프리카 외무장관 방한, 1989.6.13.-17.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9-25 / 9 / 1-244

Michel Gbezera-Bria 중앙아프리카 외무장관이 1989.6.13.~17. 방한함.

1. 방한 일정

- 6.14.
 - 외무장관회담(실무회담: 제2차 공동위)
 -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 서울종합운동장 시찰
 -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6.15.
 - 삼성전자 수원공장,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시찰
 - 대한상의회장 주최 오찬
 - 주한 중앙아프리카 명예총영사 주최 만찬
- 6.16.
 - 대통령 예방
 - 판문점, 새마을시범마을 시찰
- 6.17.
 - 합의의사록 서명(한국 측: 외무부 중동아국장, 중앙아 측: 외무부 순회대사)

2. 양국 외무장관회담 시 주요 토의내용

- 양국 우호협력관계 평가 및 증진방안
-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설명 및 중앙아의 지지 재확인
- 한국의 유엔가입 당위성 및 비동맹에서의 한국문제 관련 한국입장 설명
- 양국간 실질협력문제
 - 향후 3년간 연 20만 달러 범위 내의 병원차량, 벼재배용 농기구 및 교육기자재 지원

Da Luz, Silvino Manuel 카보베르데 외무장관 방한, 1989.5.1.-4.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9-25 / 10 / 1-315

Silvino Manuel Da Luz 카보베르데 외무장관이 1989.5.1.~4.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8.10.25. Santos 주유엔 카보베르데대사는 박쌍용 주유엔대사를 면담하고, 9.28. 뉴욕 개최 양국 외무장관회담 시 논의된 카보베르데 외무장관 방한문제를 협의함.
- 1988.12.23. 외무부는 국내일정을 감안, 방한 시기를 1989.5~6월경으로 연기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카보베르데 측에 설명할 것을 주세네갈대사관(카보베르데 겸임)에 지시함.
- 1989.4.11. 주유엔대사는 카보베르데 외무장관 방한시 금융 및 기술협력, 한국의 대카보베르데 투자, 한국 어선의 Porto Grande 항만 이용 및 통상관계 등에 대하여 협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알려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카보베르데는 4.13.자 구상서로 협의 의제를 주세네갈대사관을 통해 전달함.

2. 한·카보베르데 외무장관회담 개최(1989.5.2.) 후 합의의사록 서명

- 어업협력협정 조기추진
- 유엔, 비동맹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조
- 무상원조(30만불) 공여 및 경제개발협력기금 제공 검토
- 관민 경제시찰단 파견

3. 방한 의의

-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입장 지지 기반 확보
- 한국기업의 카보베르데 진출 지원
- 카보베르데 유력인사의 친한화

Herrera Cabral, Fabio F. 도미니카공화국 외무차관 방한, 1989.5.21.-25.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종미과

MF번호 2019-25 / 11 / 1-96

Fabio F. Herrera Cabral 도미니카공화국 외무차관이 1989.5.21.~25. 방한함.

1. Herrera Cabral 차관이 1989.4.21. 김성식 주도미니카대사에게 대만(구 중화민국) 방문기회에 한국 방문을 희망함에 따라 김성식 대사가 동인의 방한 초청을 건의함.
2. 동 차관은 방한기간 중에 최호중 외무부장관 예방, 올림픽경기장, 판문점, 삼성전자공장 시찰 등 일정을 가짐.

Bongo, Martin 가봉 외무장관 방한 초청계획

생산연도 1980-1986

생 산 과 중남아프리카과

MF번호 2019-25 / 12 / 1-49

외무부는 1980~86년 중 M. Bongo 가봉 외무장관의 방한 초청을 추진함.

1. 방한 추진경과

- 노신영 외무부장관의 서부아프리카 6개국 순방(1980.11.15.~12.7.) 시 Bongo 가봉 외무장관을 방한 초청
- 노 장관의 방한 초청장 전달(1981.1.12.)
 - Bongo 외무장관은 일정상 조속한 방한은 어려우며, 유엔총회 참석 후 귀국길에 방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공식 회답하겠다고 언급
- 노 장관 친서전달(1983.5.11.)
 - Bongo 장관은 유엔총회 후 10월경 방한이 가능하다고 언급
- Adande 가봉 외무성 외교고문 언급(1983.9.22.)
 - Bongo 외상 부인의 서거로 1983년 중 방한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외상 자신도 1984.4.~5월경으로 연기할 것을 검토 중
- Bongo 장관의 방한 희망(1986.1.15.)
 - 유엔총회 참석 후 10월 한국 공식방문 희망
 - 방한 기간 중 한·가봉 혼성위원회 개최를 제의하고, 아울러 양국간 사업의 일환으로서 1985년 한국 측이 제의한 해운협정 체결도 희망

2. 외무부 Bongo 장관 방한 공식추진 및 연기

- Bongo 장관의 방한시기 조정제의(1986.3.25.)
 - 1986년 말 대통령 선거로 인한 바쁜 국내일정상 당초 10월 방한계획을 변경하여 1986.4월 아주 순방(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후 한국 방문 제의
- 주가봉대사에게 훈령(3.29. 및 3.31.)
 - Bongo 장관의 1986.4.18.~23. 방한을 수락
 - 양국의 우호관계 및 가봉 측 요청을 감안, 수행원 전원에 대해 한국 측이 체재비 부담
- 주가봉대사 보고(4.3.)
 - Bongo 장관 해외출장안이 현재 대통령 재가 대기 중
 - 수행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 때문에 최종결재 시 축소될 가능성이 큼.
- 주가봉대사 추가보고(10.9.)
 - 가봉 외무성 아주국장은 11월 대통령 선거와 그후 개각이 있을 예정임에 비추어 Bongo 장관의 1986년 한국 방문과 제3차 한·가봉 혼성위원회 개최는 부득이 1987년으로 연기하게 되었다고 통보

Martini Herrera, Julio A. 과테말라 외무차관 방한, 1989.4.9.-1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9-25 / 13 / 1-77

Julio Martini 과테말라 외무차관이 1989.4.9.~19. 방한함.

1. 방한 일정

- 4.10.~17.
 - KDI(한국개발연구원) 연찬회 참석
 - 세미나, 산업시찰, 고적답사, 경제기획원장관 주최 리셉션 등
- 4.18.
 - 외무부장관 예방
 - 외무부차관 면담 및 만찬
 - 올림픽경기장 시찰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2. 외무부차관 면담시 협의사항

- 한국의 경제발전
- Cerezo 과테말라 대통령의 방한 시기

Lopez Contreras, Carlos 온두라스 외무장관 방한, 1989.4.19.-23.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중미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26 / 1 / 1-328

Carlos Lopez Contreras 온두라스 외무장관이 1989.4.19.~23. 방한함.

1. 방한 일정

- 4.19. 주한 명예총영사 주최 만찬
- 4.20. 국무총리 예방, 외무장관 회담, KOEX 및 서울종합운동장 시찰, 외무부장관 주최 만찬
- 4.21. 대통령 예방, 투자설명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면담
- 4.22. 삼성전자 수원공장 시찰

400

2. 양국 외무장관회담 협의내용

- 한반도 및 중미정세
- 유엔 등 다자협력
-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
- 온두라스대사관 설치 문제

3. 방문결과 평가

- 양국간 전통우호협력관계 재확인
- 유엔 등에서의 한국입장 지지 확보

무라타 료헤이(村田 良平) 전 일본 외무차관 방한, 1989.11.16.-18.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26 / 2 / 1-80

무라타 료헤이 전 일본 외무차관이 외무부 초청으로 1989.11.16.~18.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4년 이후 정례화 되어 있는 한일외무차관 교류의 일환
 - 1989.3월 신동원 외무부 차관 명의로 무라타 차관 부부 초청
 - 1989.5월 상순 방한을 추진했으나 일본 국내 정국사정으로 부득이 방한을 연기
- 1989.6월 신동원 외무부차관 부부 일본 방문
- 1989.10월 일본 외무성은 11.16.~18. 무라타 전 차관(11월말 주미국대사로 부임) 방한 희망을 통보해 옴.

2. 주요 일정

- 1.17.
 - 이규호 전 주일본대사 주최 조찬
 - 외무부장관 및 차관 예방
 - 독립기념관 견학
 -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

Johnson, J. Rudolph 라이베리아 외무장관 방한, 1989.12.21.-24.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9-26 / 3 / 1-71

Rudolph Johnson 라이베리아 외무장관이 1989.12.21.~24. 비공식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9.12.6. Johnson 외무장관이 1989.12.21.~24. 방한의사 피력
- 1989.12.14. 외무부가 동 장관의 비공식 방한 수락

2. 주요 일정

- 12.22.
 -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 Minikon 주한대사 주최 칵테일 파티
- 12.23.
 - KOEX(한국종합전시장) 및 여의도 63빌딩 참관
 - 한·라이베리아 친선협회 “친선의 밤” 행사 및 만찬

3. 방한 기간 중 라이베리아 측 요청사항

- 양국 정부간 공동위원회 개최
- 인쇄기, 지프차량 및 의전용 차량 등 무상원조
- 섬유, 팜오일, 고무, 타이어공장 건설에 한국 민간기업의 참여

Rozental Gutman, Andres 멕시코 외무차관 방한, 1989.11.8.-10.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9-26 / 4 / 1-103

Andres Rozental Gutman 멕시코 외무차관이 1989.11.8.~10. 방한함.

1. 방한 일정

- 11.9.
 - 외무부장관대리 예방
 - 한·멕시코 민간경험위 위원장 주최 오찬
 - 전경련 부회장 면담
 - 수출입은행장 면담
 - 동자부장관 예방
 - 외무부장관대리 주최 만찬

2. 양측 협의사항

- 멕시코의 한국 등 태평양 연안국과의 관계중시 정책
- 제7차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옵서버 참석 문제
- Salinas 멕시코 대통령의 방한추진 문제

3. 방한결과 평가

- 양국간 경제협력증진 기틀 마련
- 양국 공동위 개최 추진
- 양국간 경제사절단 교류 확대

Ike Omar Sanda Nwachukwu 나이지리아 외무장관 방한, 1989.8.16.-19.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26 / 5 / 1-196

Ike Omar Sanda Nwachukwu(은와추쿠) 나이지리아 외무장관이 1989.8.16.~19. 방한함.

1. 영국 외무장관회담 의제

- 지역정세
 - 한반도 주변정세 및 남북대화
 - 아프리카지역 정세
- 우호관계증진
 - 기존 우호협력현황 검토
 - 국제무대(제43차 유엔총회, 제9차 비동맹정상회의)에서의 협력
 - 문화·인적 교류(문화협정 체결 등)
- 경제·기술협력
 - 차관, 기술·통상협력
 - 경제 관련 협정(해운, 항공,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2. 방한 결과

- 대통령 및 경제부총리 예방
- 외무장관회담
 - 지역정세에 대한 의견교환
 - 합의사항(유엔, 비동맹에서의 긴밀한 협조, 경제·기술협력 및 기술연수생 확대)
 - 해운협정 서명

Ike Omar Sanda Nwachukwu 나이지리아 외무장관 방한, 1989.8.16.-19.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의전담당관실

MF번호 2019-26 / 6 / 1-243

Ike Omar Sanda Nwachukwu(은와추쿠) 나이지리아 외무장관의 방한(1989.8.16.~19.) 관련 자료임.

1. 나이지리아 수출대금 미회수
2. 남북관계 현황 및 전망
3. 나이지리아 외무장관 방한 면담자료(국제기구조약국)
4. 한·나이지리아 통상현황
5. 북방정책 및 남북대화
6. 한·나이지리아 외무장관회담 자료(중동아프리카국)

포르투갈 Pinheiro 외무장관 및 Barroso 외무부 장관 방한 초청 계획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19-26 / 7 / 1-33

1988~89년 중 Pinheiro 포르투갈 외무장관 및 Barroso 외무부 장관의 방한 초청계획에 관한 내용임.

1. Pinheiro 포르투갈 외무장관이 주포르투갈대사에게 1988년 말 방한 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주포르투갈대사는 외무부장관 명의의 동 장관 방한 초청장 발송을 외무부에 건의함.
 - 추후 포르투갈 측은 1989.1~2월 중 방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 406 2. 주포르투갈대사는 Barroso 포르투갈 외무부 장관의 방한 초청도 외무부에 건의함.
 - Barroso 장관도 방한 원칙에 동의하고, 일정은 추후 협의하자고 함.
 - 동 장관은 수상의 신임이 높아 차기 외무장관 가능성이 높음.
3. 1989.4.12. 포르투갈 외무부 측은 주포르투갈대사관 직원 면담시 당초 1988년 말 예정됐던 한국 방문을 1989년 하반기 중 실시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함.
 - Pinheiro 장관은 4.19. 및 5.9. 주포르투갈대사 면담시 9월 방한 추진을 언급함.

Carlos Alberto Monteiro Dias DA GRACA 쌍투메프린시페 외교장관 방한, 1989.6.20.-23.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9-26 / 8 / 1-162

Da Graca 상투메프린시페 외무장관이 1989.6.20.~23.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8.8.12. 한·상투메프린시페 대사급 외교관계수립 합의 시, Da Graca 상투메프린시페 외무장관은 주가봉대사(상투메프린시페 겸임)에게 서울올림픽 이후 10월경 방한을 희망함.
- 주가봉대사관은 1988.9.7. 최광수 외무부장관 명의 방한 초청장을 가봉 측에 전달함.
- Da Graca 외무장관 방한은 국내 정치사정으로 연기된 후 1989.6월로 확정됨.

2. 방한 일정

- 6.21. 한·상투메프린시페 외무장관회담 개최
- 6.22. 대통령 예방

3. 외무장관회담(6.21.) 결과

- 한반도 및 아프리카 정세에 대해 의견 교환
- 아래사항에 합의
 -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무상원조 제공
 - 기술연수생 초청 검토
- 경제과학기술협정 가서명
- 아프리카 포어권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에 협조

베네수엘라 외무장관 방한 초청 계획

생산연도 1980-1989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9-26 / 9 / 1-60

1980~89년 중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의 방한 초청 추진 관련 내용임.

1. 1982.4.1. 주베네수엘라대사는 Zambrano 베네수엘라 외상을 방문하고 양국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동 외상의 4월 일본 방문 계기에 방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동 외상의 일본 방문 계획 연기로 방한 추진이 무산됨.

2. 1984.3.27. 주베네수엘라 미국대사관 초청 만찬 계기 Morales 베네수엘라 외상은 주베네수엘라 대사와 면담하고 방한 희망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베네수엘라 외무부 의전장은 동 외상의 극동지역 방문 계기 방한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함.

- 한국 정부는 5.15. 외교부장관 명의 초청장을 베네수엘라 측에 전달하고 Morales 외상의 초청 수락 서한을 접수하였으나, 1985년 초 개각으로 인해 동 외상 방한이 무산됨.

노영찬 특사(본부대사) 아프리카 순방, 1989.6.26.-7.15.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아프리카1과
MF번호	2019-26 / 11 / 1-194

노영찬 특사(본부대사)가 1989.6.26.~7.15. 아프리카 3개국(시에라리온, 가나, 보츠와나)을 순방함.

1. 시에라리온 방문(6.28.~7.2.)

- 대통령, 국회의장, 외무장관대리 면담
 - 국제무대(유엔, 비동맹 등)에서 한국 지지(대통령)
 - 남북대화 관련 한국입장 지지(외무장관대리)

2. 가나 방문(7.3.~7.6.)

- 국무총리, 외교안보담당위원, 외무장관 면담
 - 투자, 무역전문가 파견요청(국무총리)
 - 대화와 협상에 의한 남북통일 지지(외교안보담당위원)
 -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농업개발협조 요청(외무장관)

3. 보츠와나 방문(7.9.~11.)

- 대통령 및 외무장관 면담.
 -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전수 희망(대통령)
 - 국제무대, 대북한 화해노력 지지(외무장관)

조상호 특사(전 체육부장관) 중동 순방, 1989.6.20.-7.2. 전3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중근동과

MF번호 2019-26 / 12 / 1-156

1989년 중 중동지역에 대한 대통령 특사 파견(1989.6.20.~7.2.)을 추진함.

1. 외무부는 1989.3월 1989년도 대통령 특사 파견계획을 수립함.

- 제44차 유엔총회 및 제9차 비동맹 정상회의 대비가 주목적
- 외무부 부내협의를 거쳐 4개 지역 18개국을 선정
- 중동지역은 조상호 전 체육부장관을 대통령 특사로 오만, UAE, 수단 3개국에 파견

410

2. 외무부는 1989.5.26. 각 관련 재외공관에 6월 말~7월 초 대통령 특사 파견계획을 통보하고, 세부일정교섭을 지시한바, 중동지역 일정은 아래와 같이 확정됨.

- 오만(6.20.~23.)
- UAE(6.23.~27.)
- 수단(6.27.~30.)

조상호 특사(전 체육부장관) 중동 순방, 1989.6.20.-7.2. 전3권 (V.2 친서 및 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중근동과

MF번호 2019-26 / 13 / 1-202

조상호 대통령 특사의 중동지역 3개국 순방 관련자료임.

1. 대통령 친서 사본
2. 수단정세 및 현안자료(주수단대사관)
3. 각국별 자료(영사교민국, 통상국)
4. 특사 브리핑자료(중동아프리카국)
5. 특사 접견자료(중동아프리카국)

조상호 특사(전 체육부장관) 중동 순방, 1989.6.20.-7.2. 전3권 (V.3 활동결과)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중근동과
MF번호	2019-26 / 14 / 1-119

조상호 대통령 특사(전 체육부장관)의 1989.6.20.~7.2. 중동지역 3개국(오만, 아랍에미리트, 수단) 순방 주요결과임.

1. 오만 방문(6.20.~23.)

- 주요 일정
 - 6.21. Tarik 외무장관대리(외무차관), Mahfudh 문교·청년장관 면담
 - 6.22. Fahhad 법률담당 부총리(국왕대리) 예방, Moosa 보건장관 면담
- 방문 결과
 - 유엔, 비동맹에서의 지속적인 지지 확보
 - 정치, 외교분야는 물론 경제, 문화, 스포츠 등 제 분야에서 정부 고위인사 교환 방문, 민간교류 확대 희망
 - 양국간 수산분야 협력 확대 희망

2. 아랍에미리트 방문(6.23.~27.)

- 주요 일정
 - 6.24. Rashid Abdullah 외무장관 면담
 - 6.25. Al-Tyre 재무담당 국무상, Butti NOC(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면담
 - 6.26. Sheikh Zayed 부통령, Sheikh Hamdan 부총리 면담
- 방문 결과
 - 한국과의 경제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희망
 - 평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한 문제 해결 지지

3. 수단 방문(6.27.~7.2.)

- 주요 일정
 - 6.29. El-Mahdi 수상, El-Banna 부통령, Al-Hussein 부총리겸외무장관, Ibrahim Radwan 공업성장관 면담
- 방문 결과
 - 주한 상주공관 연내 설치 추진 약속
 - 수단 수상의 방한희망 표명
 - 한국과의 협력관계 확대 희망

최광수 특사(전 외무장관) 아주 순방, 1989.6.25.-7.8. 전3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동남아과
MF번호	2019-26 / 15 / 1-309

1989년 중 아주지역에 대한 대통령 특사의 파견(1989.6.25.~7.8.)을 추진함.

1. 외무부는 유엔 총회 및 비동맹 정상회담 대비를 위해 1989.3월 1989년도 대통령 특사 파견계획을 수립하고 아주지역 특사 및 파견 대상국을 선정함.
 - 아주지역에는 최광수 전 외무부장관을 특사로,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피지, 바누아투 4개국에 파견
2. 외무부는 아주지역 대통령 특사 파견에 필요한 아래사항을 준비함.
 - 대통령 친서
 - 국별 내용 확정
 - 훈령
 - 일정 교섭

최광수 특사(전 외무장관) 아주 순방, 1989.6.25.-7.8. 전3권 (V.2 활동결과)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동남아과
MF번호	2019-26 / 16 / 1-170

최광수 대통령 특사(전 외무부장관)의 1989.6.25.~7.8. 아주지역 4개국 순방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파푸아뉴기니 방문(6.25.~28.)

- 주요 일정
 - 6.26. Namaliu 수상, Somare 외무장관 면담, Young 국회의장, Kilage 총독부처 예방
- 방문 결과
 - 파푸아뉴기니의 한국과의 장기적인 경제협력 관심 확인
 - 주한 파푸아뉴기니 상주대사관 개설 의사 확인

2. 피지 방문(6.28.~7.1.)

- 주요 일정
 - 6.29. Ganilau 대통령 부처, Mara 수상 겸 외무장관, Kamikamica 재무장관 예방
- 방문 결과
 - 피지의 임시정부 체제 1~2년 연장 추세에 따른 양국 협력방안 논의

3. 뉴질랜드 방문(7.1.~4.)

- 주요 일정
 - 7.3. Palmer 부수상 주최 오찬, Moore 대외관계 무역부장관 면담
 - 7.4. Lange 수상 예방, Ansell 외무장관대리 면담, 한·뉴질랜드 경제인연합회 연설
- 방문 결과
 - Lange 수상과 노태우 대통령 상호방문 초청 희망 재확인

4. 바누아투 방문(7.5.~8.)

- 주요 일정
 - 7.5. Kalpokas 외무장관 면담
 - 7.6. Leororo 대통령 수석보좌관 면담
 - 7.7. Lini 수상 예방, Qualao 상공장관 면담
- 방문 결과
 - 바누아투에 대한 무상원조사사업의 필요성 보고

최광수 특사(전 외무장관) 아주 순방, 1989.6.25.-7.8.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동남아과
MF번호	2019-27 / 1 / 1-227

최광수 대통령 특사의 아주지역 4개국 순방(1989.6.25.~7.8.) 관련자료임.

1. 남북한 관계현황 및 전망
2. 뉴질랜드와의 어업협력
3. 남극조약
4.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5. 방문국 현황
6. 특사 연설문

강경식 특사(전 재무부장관) 남미 순방, 1989.6.28.-7.12. 전3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남미과

MF번호 2019-27 / 2 / 1-213

1989년 외무부가 남미지역에 대한 대통령 특사의 파견(1989.6.28.~7.12.)을 추진함.

1. 외무부는 유엔 총회 및 비동맹 정상회담 대비를 위해 1989.3월 1989년도 대통령 특사 파견계획을 수립하고 남미지역 특사 및 파견 대상국을 선정함.

- 남미지역은 강경식 전 재무장관을 대통령 특사로 파라과이,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4개국에 파견

416

2. 외무부는 1989.5.26. 각 관련 재외공관에 6월말~7월초 대통령 특사 파견 계획임을 통보하고, 세부일정 교섭을 지시한바, 남미지역 순방일정은 아래와 같이 확정됨.

- 파라과이(6.28.~7.1.)
- 볼리비아(7.1.~4.)
- 콜롬비아(7.5.~9.)
- 에콰도르(7.9.~12.)

강경식 특사(전 재무부장관) 남미 순방, 1989.6.28.-7.12. 전3권 (V.2 활동결과)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남미과
MF번호	2019-27 / 3 / 1-135

강경식 대통령 특사(전 재무부장관)의 1989.6.28.~7.12. 남미지역 4개국 순방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파라과이 방문(6.28.~7.1.)

- 주요 일정
 - 6.28. Argana 외무장관, Vargas 내무장관, Devernardi 재무장관 면담
 - 6.30. Rodriguez 대통령 예방, Nogues 상원의장, Aquino 하원의장
- 방문 결과
 - 파라과이의 한국에 대한 경험 기대 및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제공 희망 의사 확인

2. 볼리비아 방문(7.1.~4.)

- 주요 일정
 - 7.3. Paz 대통령, Garrett 부통령 예방, Banzer AND(민족민주행동당) 대통령 후보 면담
 - 7.4. Abecia 외상 면담, Lozada NMR(민족혁명운동당) 대통령 후보 면담
- 방문 결과
 - 볼리비아는 한국의 대볼리비아 잠업투자 필요성을 강조함.

3. 콜롬비아 방문(7.5.~9.)

- 주요 일정
 - 7.6. Robayo 산업진흥원장 면담
 - 7.7. Barco 대통령, Forrero 외무차관 면담
- 방문 결과
 - 콜롬비아는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KDI, KIST 등 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태평양-대서양연안 연결 육로건설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요청함.

4. 에콰도르 방문(7.9.~12.)

- 주요 일정
 - 7.10. Aleman 외상대리 면담
 - 7.11. Borja 대통령, Parodi 부통령 예방
- 방문 결과
 - 양측이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기체결에 공감함.

강경식 특사(전 재무부장관) 남미 순방, 1989.6.28.-7.12. 전3권 (V.3 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남미과

MF번호 2019-27 / 4 / 1-136

강경식 대통령 특사의 남미지역 4개국 순방(1989.6.28.~7.12.) 관련자료임.

1. 특사 방문 관련 브리핑자료
2. 특사 방문일정(항공, 체재 등)
3. 대통령 친서사본
4. 중남미 정세 개관
5. 국별자료
 - 면담자료, 양국간 현안, 국별개황 등

김창훈 특사(외무부 본부대사) 서아프리카 3개국(토고, 중앙아프리카, 니제르) 순방(참고자료), 1989.9.18.-10.4.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9-27 / 5 / 1-138

김창훈 특사(외무부 본부대사)의 1989.9.18.~10.7. 서아프리카 3개국(토고, 중앙아프리카, 니제르) 순방 자료목록임.

1. 순방국 지도 및 항로

2. 일정

- 9.15. 서울 출발
- 9.21.~10.7. 토고, 중앙아프리카, 가봉,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방문
- 10.8. 서울 도착

3. 공통 훈령

- 방문국 국가원수에 대한 대통령 안부와 친서 전달
- 7·7 특별선언 등 제6공화국 정부의 대외정책 설명
- 유엔, 비동맹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지지 요청
- 상주공관 철수 배경 설명

4. 국별 훈령: 중앙아프리카, 니제르, 토고

5. 경유지 공관 현황: 프랑스, 가봉, 코트디부아르

6 주요문제에 대한 입장 및 통계자료

- 대아프리카 정책
- 대외경제협력기금
- 대아프리카 경제협력현황
- 대아프리카 교역현황
- 정파의 및 태권도사범 파견현황
- 주요 한국경제지표

Woolcott, Richard 호주 수상 특사(외무무역부차관) 방한, 1989.4.20.-24.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7 / 6 / 1-179

1. 1989.4월 Hawke 호주 수상은 아래 요지의 한국 대통령 앞 친서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 협력체 구상을 설명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한다고 알려음.

- Woolcott 호주 외무무역부차관을 개인특사로 역내 관련국가에 파견
 - 아·태지역 협력체 구성제외에 대한 호주 측 구상 상세 설명
 -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가들의 의견 청취 후 금후 추진에 반영
- 동 특사 방한 시 동 수상의 제외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 청취희망

420

2. 1989.4.20.~24. Woolcott 차관은 Hawke 수상의 특사로 아·태지역 정부간 협의체 창설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한함.

- 방한 일정
 - 대통령 예방, 외무부장관·차관 예방, 외무부 차관보와 고위실무협의
 -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상공부 차관보 면담, KDI(한국개발연구원)·전경련 방문
 - 주한 외신기자단 기자회견
- 방한 결과
 - 한국은 호주의 아·태지역 협의체 창설 제안에 원칙적 찬성을 표하고 향후 동 제의 실현을 위한 협의과정에 적극 참여할 방침을 전달함.
 - 호주 측은 연내 각료회의 개최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함.
 - 참가국 범위는 서태평양 핵심 10개국에 미국, 캐나다를 포함하며 중국, 대만(구 중화민국), 홍콩 포함에도 호주 측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

야마시타 도쿠오(山下徳夫) 일본 수상 특사 방한, 1989.11.7.-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27 / 7 / 1-35

1989.11.7.~9. 가이후 일본 수상의 특사로 야마시타 도쿠오 의원이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9.10.31. 노태우 대통령은 가이후 수상의 자민당 총재 재선에 대하여 축전을 발송
- 1989.11.2. 가이후 수상은 주일본대사 면담 시 상기 축전에 대한 답신 전달을 위해 특사를 파견할 예정이라고 언급
 - 타니노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은 주일본대사에게 야마시타 도쿠오 전 관방장관이 동 수상의 친서를 노태우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방한 예정임을 언급

2. 가이후 수상 친서의 주요 내용

- 노태우 대통령의 축전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함.
- 한·일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자 함.
- 금번 야마시타 의원을 통해 대통령께 친서를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함.
- 현재의 한·일본 관계는 모든 면에서 긴밀하며 금후에도 청소년 교류문제, 재일한국인 3세 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자 함.

3. NHK 뉴스 보도(1989.11.8.)

- 야마시타 의원은 가이후 수상의 특사로 1989.11.8. 오후 노태우 대통령을 예방, 노 대통령의 방일을 초청하는 수상의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노대통령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방일하겠다고 말함.
- 노 대통령은 자신의 유럽순방 시 일본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으면서 재일한국인 3세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측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

Mohamed Sheikh Osman 소말리아 대통령 특사 (경제담당 국무장관) 방한, 1989.2.15.-17.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9-27 / 8 / 1-79

M.S.Osman 소말리아 대통령 특사(경제담당국무장관)가 1989.2.15.~17. 방한함.

1. 방한 경위 및 목적

- 일본천황 장례식 참석계기 5개국 순방의 일환
 - 파키스탄, 인도, 한국, 중국, 일본
- Barre 소말리아 대통령 친서전달
- 소말리아 최근 국내정세 설명

422

2 주요 방한활동

-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참석
- 관련업체 방문 및 올림픽시설 시찰 등

3. 외무부장관 면담 내용(2.16.)

- Barre 대통령의 노태우 대통령 앞 친서 전달
 -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바르 대통령 안부 전달
 - 특사를 통하여 양국 공동관심사 협의 및 유대관계 강화 희망
- Osman 특사 언급 요지
 - 소말리아 국내정세 설명: 에티오피아와의 관계, 인권문제, 북부지역 사태 등
 - 소말리아의 경제재건을 위한 조치설명 및 협력요청
- 외무부장관 언급 요지
 - 양국 우호관계 발전에 만족표명
 - 소말리아 요청에 대해 가능한 협력방안 강구 노력
 - 신정부의 외교정책 및 남북한 관계 설명

일본 야당 동향

생산연도 1987-1988

생산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27 / 9 / 1-36

1. 다케이리 일본 공명당 전 위원장은 1988.1월 주일본대사에게 한·중국 관계, 일본 국내정세 전망에 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함.
 - 등소평 중앙군사위 주석이 한·중국 관계 개선의 시급성을 언급한 점에 비추어 총론적인 기본방침은 정해져 있음.
 - 한·중국 관계 개선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합작투자, 재일한국인의 중국 방문 등 기술적 고려가 필요
 - 일본의 야당연합에 의한 사회당 정책의 현실화는 기대하기 어려움.
2. 나가스에 일본 민사당 부위원장은 1988.3월 주일본대사에게 일본 내 야당동향에 대해 아래 요지로 언급함.
 - 한국 정부가 사회당이 최소한 한·일본 기본조약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대한정책을 포함한 주요정책에서 사회당이 현실감각을 갖게 하는데 효과가 클 것임.
 - 미야모토 공산당 의장은 선거 전에 KAL 사건이 북한의 범행임을 확실히 함으로써 북한과 거리를 두고 사회당과의 차이를 보여 선거에 승리함.
 - 민사당은 일본에서 국제성이 가장 강한 정당인 바, 국제면에서 협조를 위해 한국여당 내 중진들과 별도 관계를 강화할 생각임.
3. 아사이 일본 공명당 부위원장은 1988.6월 주일본대사와 면담함.
 - 아사이 부위원장은 공명당이 재일한국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방자치선거권을 위한 법령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함.
 - 주일본대사는 서울올림픽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일본 등 우방국의 협력으로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북한의 참가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할 것임을 언급함.
4. 이시다 고시로 일본 공명당 부위원장은 1988.10.13.~10.16. 방한함.
 - 방한 목적
 - 한국의 정치, 경제사정 파악
 - 방한 일정
 - 10.13.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윤길중 민주정의당 대표 면담
 - 10.14.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재순 국회의장, 박태준 한일외연 회장 면담

박준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캐나다 방문, 1989.7.3.-8.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27 / 10 / 1-96

박준규 민정당 대표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1987.7.1.~8. 캐나다를 방문함.

1. 방문 목적

- PDU(태평양민주연합) 및 IDU(국제민주연합) 운영위원회 참석

2. 방문 결과

- 멀로니 캐나다 수상 예방
 - 박준규 대표위원은 멀루니 수상 앞 대통령 친서 전달
 - 멀로니 수상은 노태우 대통령의 내년도 캐나다 방문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최대한 준비를 하겠다고 언급
- 잔느 소비 총독 예방
- 상원의장 주최 오찬 참석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캐나다 및 멕시코 방문, 1989.6.7.-15.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북미과/중미과
MF번호	2019-27 / 11 / 1-105

남재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의원친선협회사절단이 1989.6.7.~15. 캐나다와 멕시코를 방문함.

1. 캐나다 방문(6.7.~11.)

- 주요 일정
 - 6.8. Shields 통상부 정무차관 면담, Fraser 하원의장 예방, 캐나다 의원친선협회와의 오찬 간담회
 - 6.9. Doody 원내 부총무(상원의장대리) 방문
- 주요 방문 결과
 - 1989 하반기에 캐나다 측 의원사절단 방한 예정(친선협회)
 - 한국시장 내 캐나다 농산물이 미국과 동등한 대우 희망(정무차관)
 - 하원의장 방한 초청

2. 멕시코 방문(6.12.~15.)

- 주요 일정
 - 6.13. 멕시코 의원친선협회와의 간담회, Morales 하원의장, Berezaluce 상원의장 직무대리 예방
 - 6.14. 교민 및 상사대표 간담회
- 주요 방문 결과
 - 상호교류 강화를 통한 협력확대 희망(의원친선협회)
 - 양국관계발전을 위해 국회차원의 협력강화 희망(하원의장)
 - 어업분야 협력 가능성 공감(상원의원 간담회)

박준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일본 방문, 1989.7.9.-14.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27 / 14 / 1-104

박준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일행이 1989.7.9.~14. 일본을 방문함.

1. 방문단 구성

- 박준규 대표위원 및 수행원
 - 수행원: 박정수 국제평가위원장, 정석모 위원, 박태준 의원, 박희태 대변인, 구창림 국제국장

2. 주요 일정

- 7.10. 후쿠다 일·한의원 회장, 다케시다 전 수상 예방
- 7.11. 우노 수상, 나카소네 전 수상 예방, 미츠즈카 외상 면담, 무라타 자민당 정조회장 예방

3. 주요인사 예방 및 간담회 결과

- 박준규 대표는 7월 평양집회 상황, 남북대화 현황 및 국내정세를 설명하고 재일한국인 후손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측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함.
- 후쿠다 총리는 최근 방북한 히로세 의원과 허담 북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 간의 회담을 소개하고 허담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 우노 수상은 서미트 이후에 동회의 결과를 한국측에 보고하기 위해 외무성 간부를 파견할 예정이며 금번 서미트에서는 인권문제, 환경문제 및 경제문제가 논의될 것이라 언급함.
 - 중국 정부가 국민을 탄압한 사실에 대하여는 민주주의 국가의 가치관에서 볼 때 비난해야 하나 제재조치 등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고립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함.
 - 7월 평양집회에 참석한 히로세 의원이 후지산마루 선원문제를 북한 측에 언급하였으나 별 반응이 없었다고 언급함.

한·멕시코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멕시코 방문, 1981.8.24.-27.

생산연도	1981
생 산 과	종미담당관실
MF번호	2019-27 / 15 / 1-26

한·멕시코 의원친선협회 의원단이 1981.8.24.~27. 멕시코를 방문함.

1. 권정달 회장(민정당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의원단이 멕시코를 방문하여 로스피노스 멕시코 대통령을 예방, 전두환 대통령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하고 전 대통령의 대북제의 등을 설명함.
2. 또한 의원단은 PRI(집권당) 당의장, 상원의장과 내무장관을 예방하고 양국협력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내무장관에게는 북한의 침투저지를 당부함.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미국 및 소련 방문, 1989.6.2.-18.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북미과

MF번호 2019-27 / 16 / 1-312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가 1989.6.2.~18. 미국 및 소련을 방문함.

1. 미국 방문(1989.6.11.~18.)

- 방문 일정
 - 6.10. 뉴욕 도착, 교민 초청 리셉션
 - 6.11. 뉴욕 상륙회 및 노인회 방문, 퀸즈 문화예술제 참석
 - 6.12. 키신저 초청 조찬, 뉴욕 경제인협회 방문
 - 6.13. 미국 CFR(외교협회) 조찬 연설
 - 6.13. 워싱턴 도착, Scowcraft 안보보좌관 면담
 - 6.15. Solarz 하원 아태소위원장 면담, 헤리티지재단 주최 오찬, Cranston 상원 동아태소 위원장 면담, 교민초청 리셉션
 - 6.16. NPC 연설, Kennedy 상원의원 및 Quayle 부통령 면담

2. 소련 방문(1989.6.2.~10.)

- 초청 기관
 - 소련 과학아카데미 산하 '세계경제 및 국제문제연구소' Evgeni Primakov 소장
- 주요 방문일정
 - 6.3. 모스크바 도착, 프리마코프 소장 면담
 - 6.4. 레닌그라드 방문
 - 6.5. 세계경제 및 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 참석, 연방상공회의소 방문
 - 6.6. 소련 공산당 중앙위 국제부 부부장 브루텐츠 면담, 사이킨 모스크바 시장 면담
 - 6.7. 소련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방문, 기자회견, 프리마코프 소장 면담, 그라모프 체육장관 면담, 총재 주최 리셉션
 - 6.8. 타슈켄트 방문(한인 콜호즈 방문 등)
 - 6.9. 프리마코프 소장 주최 만찬
- 주요 활동
 - 내외신 기자회견 2회
 -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에서 "한·소련 관계 전망" 제하 연설
 - 동 연구소와 공동성명 채택
 - 주요인사 면담 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문제, 한민족 체육대회 등에 관한 협조 요청

박준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 미국 방문계획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북미과

MF번호 2019-27 / 17 / 1-96

1. 박준규 민정당 대표위원이 1989.6.4.~19. 미국 방문예정이었으나, 민정당 내 사정으로 박 대표위원의 방미가 연기됨.
 - 동 방문 일정 협의등을 위해 구창림 민정당 국제국장이 1989.5월 방미한 바 있음.
2. 동 방미 연기와 관련, 박준규 의장은 공관을 통하여 아래 인사에게 서한 및 선물을 전달함.
 - Gerald Curtis 콜롬비아대학 교수
 - Margaret Osmer-McQuade 미국 외교협회 부회장
 - Peter Holms National Press Club 회장

국회의원 동남아시아 국가 방문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7 / 18 / 1-46



1. 국회 교통체신위원회 의원일행 5명(단장:이대엽 공화당 의원)이 1988.8.19.~30. 동남아국가 및 호주·뉴질랜드를 방문함.

- 태국(8.19.~21), 싱가포르(8.21.~23.), 인도네시아(8.23.~25.), 호주(8.26.~28), 뉴질랜드(8.28.~30)

2. 민정당 사무처는 1988.8월 사무처 간부들의 해외시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라고 외무부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함.

- 아주지역 시찰단
 - 기간: 1988.8.26.~9.6.
 - 방문국: 일본, 대만(구 중화민국), 태국, 필리핀, 홍콩
 - 시찰인원: 21명
- 호주·뉴질랜드 등 시찰단
 - 기간: 1988.8.31.~9.10.
 - 방문국: 홍콩,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 시찰인원: 13명

3. 국회 법률개폐특위 해외시찰단이 아래와 같이 아주지역국가를 방문함.

- 제1반(오유방 위원장 등 의원 5명)
 - 기간: 1988.7.24.~8.1.
 - 방문국: 대만, 태국
 - 경유국: 말레이시아, 홍콩
- 제2반(이진우 의원 등 의원5명)
 - 기간: 1988.7.24.~8.1.
 - 방문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 경유국: 싱가포르, 태국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구주 순방, 1989.2.1.-15.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19-27 / 19 / 1-209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1989.2.1.~15. 구주 5개국(스웨덴, 이탈리아, 교황청, 네덜란드, 헝가리)을 방문함.

1. 방문국 및 주요일정

- 스웨덴(2.1.~4.)
 - 칼손 수상 예방, 안데르손 외무장관 면담, 고(故) 팔메 수상 묘지 헌화
- 이탈리아 및 교황청(2.4.~8.)
 - 교황 알현, 아드레오띠 아탈리아 외무장관 면담, 피콜리 국제기독교민주당연합 의장 면담
- 네덜란드(2.8.~12.)
 - 루버스 수상 예방, 반 덴 부르크 외무장관 면담, 돌만 하원의장 면담, 이준 열사 묘비 및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탑 헌화
- 헝가리(2.12.~15.)
 - 부르노 국가원수(상징적 지위) 예방, 스타딩거 국회의장 및 유하스 국회상공위원장 면담, 후사르 애국인민전선 사무총장 면담, 호른 국무장 면담

2. 특기사항

- SI(사회주의 인터내셔널) 및 CDI(국제기독교민주당연합)에 평민당 옵서버 파견 의사표명
- 교황의 서울 국제성체대회 참석 권유(1989.10월 중 개최)
 - 교황은 참석 의사표명
- 한국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유럽의 중요성 강조
 - 1989.4월 중 독일, 프랑스, 소련 방문 의사표명
 - 구주단일시장 추진에 대한 관심표명 및 한·EC(구주공동체) 협력증진 강조
- 한반도 문제 관련 입장표명
 - 한국의 유엔가입 지원요청, 평화공동체제 확립 시까지 주한미군의 계속주둔 필요성 강조, 남·북한 관계개선에 대해 조심스런 낙관적 전망
- 한국의 민주화 관련 언급
 - 일부 혼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낙관
- 헝가리의 대한민국 수교결정 평가

김재순 국회의장 구주 순방, 1989.6.5.-24.

생산연도 1989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19-28 / 1 / 1-289

김재순 국회의장이 1989.6.5.~24. 구주 3개국(스페인, 포르투갈, 터키)을 공식 방문함.

1. 방문단 구성

- 국회의장 내외
- 국회의원 4명(부인 동반)
- 국회의장 비서실장, 기타 수행원 3명, 수행기자 7명

432

2. 방문국 및 주요일정

- 스페인(6.7.~11.)
 - 국왕, 상원의장, 하원의장 예방
 - 상원의장 주최 만찬
- 포르투갈(6.11.~15.)
 - 대통령, 수상 예방
 - 국회의장 주최 만찬, 알가르베 주지사 주최 만찬
- 터키(6.15.~21.)
 - 대통령, 국회의장, 수상 예방
 - 국회의장 주최 만찬, 이스탄불 주지사 주최 만찬

3. 경유국

- 프랑스(6.6.~7.), 영국(6.21.~23.)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단 구주국가 방문, 1989.11.15.-27.

생산연도 1989

생산과 서구2과

MF번호 2019-28 / 2 / 1-34

김현옥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단이 1989.11.15.~27.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및 EC(구주공동체)를 방문함.

1. 방문 목적

- 분단국 통일문제, 동구개혁 관련 워크숍 개최
- 방문국 의원친선협회 의원과의 간담회

2. 방문 일정

- 독일
 - 독일의원과의 통일문제에 관한 워크숍 개최
 - 내독성장관 및 차관보 예방
 - 외무위원장 및 한·독일 의원친선협회 의원과의 간담회
- 오스트리아
 - 통일문제 및 동구개혁 관련 워크숍
 - 외무위원장 예방
 - 한·오스트리아 의원친선협회 의원과의 간담회
- 헝가리
 - 국회의장 예방
 - IPU(국제의원연맹) 관련 의원 및 의원친선협회 의원 면담
- EC
 - EC 관계 벨기에 의원 및 EC 사무총장 면담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소속 의원단 동구국가 방문, 1989.4.24.-5.6.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28 / 3 / 1-80

정대철 평민당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소속 의원단이 1989.4.24.~5.6. 동구권 3개국을 방문함.

1. 방문국

- 체코,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 경유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434

2. 방문 목적

- 동구권국가의 교육·문화제도 및 정책 파악

3. 특기사항

- 주헝가리대사관은 방문단의 유고슬라비아 및 체코 입국비자를 현지에서 발급받음.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중남미 순방

생산연도 1986-1989

생산과 남미과/중미과

MF번호 2019-28 / 4 / 1-241

1. 류근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의원친선협회사절단이 1987.8.10.~21. 중남미 3개국(코스타리카, 페루, 콜롬비아)를 순방함.

- 코스타리카(8.10.~13.)
 - 대통령, 국회의장 예방, 국회 본회의 연설
- 페루(13.~18.)
 - 하원의장, 상원의장, 제1부통령, 제2부통령 겸 수상 예방, 페루 측 의원친선협회장 주최 만찬, 산업시찰
- 콜롬비아(8.18.~21.)
 - 상·하원 의장단, 한·콜롬비아 의원친선협회 회장 면담

2. 박종대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의원친선협회사절단과 이자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의원친선협회 사절단이 1988.8.7.~15.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방문함.

- 아르헨티나(8.7.~10.)
 - 부통령 겸 상원의장, 하원의장 면담, 하원의장 주최 오찬
- 브라질(8.11.~15.)
 - 브라질 외무부는 브라질 국회에 일정주선 협조 요청

3. 김종권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의원친선협회사절단이 1989.7.3.~8.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를 방문함.

- 에콰도르(7.3.~5.)
 - 국회의장 예방, 국회 외무위원장 예방 및 외무위원들과 간담회, 민주좌익당수 예방
- 베네수엘라(7.5.~8.)
 - 상원의장, 하원의장, 상원 및 하원 외교분과위원장, 한·베네수엘라 의원친선협회장 예방
- 페루(7.8.~11.), 멕시코(7.11.~13.) 경유

콜롬비아 국회의원 방한

생산연도 1985-1988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9-28 / 5 / 1-273



1985~88년 중 콜롬비아 국회의원단의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1985년도

- L. Sarmiento De Santamaria 하원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의원단이 1985.8.20.~24. 방한을 추진함.

2. 1986년도

- M. Pineto Vidal 하원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의원단이 1986.6.11.~13. 방한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및 외무부장관 예방 등 일정을 가짐.
- J. Franco Burgos 하원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의원단이 1986.6.30.~7.4. 방한하여 국회의장, 외무부차관 예방 등 일정을 가짐.

3. 1987년도

- R. Bolanos De Bautista 상원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의원단이 1987.6.29.~7.3. 방한을 추진함.

4. 1988년

- Ruerda 상원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상·하 합동의원단이 1988.6.16.~21. 방한을 추진함.

캐나다·한 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방한, 1989.10.23.-28.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28 / 6 / 1-47

1. William John Vankoughnet 캐나다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한·캐나다 의원친선협회 의원단이 1989.10.23.~28. 방한함.
2. 동 의원단은 방한 시에 국회의장, 외무부차관, 전경련회장 등을 예방하고, 삼성전자 수원공장, 올림픽시설, 울산공업단지 시찰 등 일정을 가짐.

덴마크 국회의원 방한

생산연도 1984-1989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9-28 / 7 / 1-44

1984~89년 중 덴마크 국회의원의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1984년도

- John Arentoft 덴마크 의원 부부가 한·덴마크 의원친선협회의 초청으로 1984.7.18.~23. 방한하여 국회의장 및 외무부장관 예방, 판문점 시찰 등 일정을 가짐.

2. 1989년도

- Viggo Fisher 덴마크 국회외무위원장이 한국 방문을 희망함에 따라 김현욱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초청장이 전달되고 1989.10월 방한이 추진되었으나, 동 의원의 사정으로 방한이 취소됨.

과테말라 국회의원 방한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9-28 / 8 / 1-148

1987~89년 중 과테말라 국회의원의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1987년도

- George Antonio Serrano 과테말라 연합행동당 당수가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1987.7.30.~8.2. 방한함.
- Serrano 당수는 방한기간 중 외무부차관 및 국회외무위원장 예방, 판문점 시찰 등 일정을 가짐.

2. 1989년도

- Jose Robert Alejos Cambara 과테말라 의회 특수업무위원장이 이끄는 국회의원단이 국회의 초청으로 1989.3.6.~9. 방한함.
- 동 국회의원단은 서울근교 산업시설 및 용인민속촌 방문일정 등을 가짐.

일본 사회당 대표단 방한, 1989.12.21.-23.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28 / 10 / 1-123

1. 야마구치 일본사회당 서기장 일행(4명)이 김영삼 민주당 총재의 초청으로 1989.12.21.~23. 방한한바, 동 일행의 주요 방한일정은 아래와 같음.

- 김영삼 총재 주최 환영리셉션 및 만찬
- 한국 민주당·일본 사회당 합동회의
-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 예방
- 국회의장 예방

440

2. 한국 정부는 당초 사회당 대표단의 방한을 불허할 방침이었으나,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동 대표단에게 입국사증을 발급함.

- 일본사회당 서기장 일행은 한·일본 기본조약을 인정하고, 사회당의 종래 대한국 정책을 현실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초청자인 한국민주당 측과 협의하여 양국간의 우호친선을 강화하는 것이 입국 목적이라고 함.

필리핀 국회의원 방한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8 / 11 / 1-63

1985~89년 중 필리핀 국회의원의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1985년도

- Sultan Omar Dianalan 필리핀 국회외무위원회 부위원장이 1985.5.9.~14. 방한하여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를 방문함.

2. 1989년도

- 유학성 국회 국방위원장의 초청으로 Ernesto Maceda 필리핀 상원 국방위원장이 1989.6.14.~18. 방한하여 국회 국방위원장 대행, 합참의장 및 국방부장관 예방, 육사 및 방위산업체 방문 등 일정을 가짐.

파푸아뉴기니 국회사절단 방한, 1989.5.13.-1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8 / 12 / 1-79

파푸아뉴기니 국회사절단이 1989.5.13.~19. 방한함.

1. 파푸아뉴기니 국회가 한국국회사절단의 1988.8월 파푸아뉴기니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한국 방문을 희망함에 따라, 김재순 국회의장이 Dennis Young 파푸아뉴기니 국회의장에게 초청장을 발송함.
2. Dennis Young 국회의장 일행이 1989.5.13.~19. 방한하여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및 경제기획원장관 예방, 산업시찰 등 일정을 가짐.

세네갈 국회사절단 방한, 1988.11.14.-19.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9-28 / 13 / 1-69

세네갈 국회사절단이 1989.11.14.~19. 방한함.

1. 이세기 대통령 특사가 1986.1월 세네갈 방문 기회에 구두로 세네갈 국회의장 등 인사에 대한 방한 초청 의사를 표시함.
2. 세네갈 국회의장에 대한 이재형 국회의장 명의의 방한 초청장이 1986.6월 세네갈 측에 전달됨.
3. 1986.9월 국회 내에 신규 결성된 한·세네갈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이 1988.8월 세네갈을 방문함.
4. 세네갈 국회의장의 방한이 자국 내 사정으로 연기되어 오다가 Lena Fall Diange 세네갈·한 의원친선협회장이 이끄는 세네갈 국회사절단의 방한으로 대체됨.
 - 동 사절단은 방한기간 중 국회의장 예방, 산업시찰 등 일정을 가짐.

Pancha Kesornthong 태국 하원의장 방한, 1989.8.14.-19.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8 / 14 / 1-89

Pancha Kesornthong 태국 하원의장이 1989.8.14.~19. 방한함.

1. 1988.7월 태국 총선 결과 새로 하원의장이 된 Pancha Kesornthong에 대하여 김재순 국회의장이 방한 초청장을 송부함에 따라 방한하게 됨.
2. Pancha Kesornthong 하원의장은 방한기간 중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외무부장관 예방, 산업시찰 등 일정을 가짐.
3. 정부는 Pancha Kesornthong 하원의장에게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함.

Solarz, Stephen J. 미국 하원의원 방한, 1989.8.17.-19.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북미과

MF번호 2019-28 / 16 / 1-191

Solarz, Stephen J.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아·태소위 위원장이 1989.8.17.~19. 방한함.

1. 주요 방한일정

- 8.17. 김대중 평민당 총재 주최 만찬
- 8.18. 대통령, 통일원장관, 상공부장관 예방, 한미협회 오찬 연설
- 8.19. 국방부장관, 외무부장관 면담,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 면담

2. 방한 목적

- 한국내 반미감정, 민주화 발전, 인권 상황 등 국내정세 파악
- 남북한 군사 균형, 남북한 긴장완화 전망 등 남북한 관계 현황 파악
- 한·미국 안보, 통상 문제 등 한·미국 관계 전반적 현황 파악

미국 의회의원 및 보좌관 방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28 / 17 / 1-127

1989년 중 미국 의회의원 및 보좌관의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Richard Lugar 상원의원 등 상원의원 2명

- 기간: 1989.1.13.~16.
- 일정: 주한 미국대사관 한국정세 브리핑, 주요인사 방문(대통령, 부총리, 외무부장관, 농수산장관 예방, 김대중 총재 오찬, 김종필 총재 조찬)

446

2. Connie Mack 상원의원

- 기간: 199.8.18.~21.
- 일정: 외무부장관, 통일원장관, 보사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예방, 박정수 민정당 의원 만찬

3. Kathleen Harrington 상원의원 입법보좌관

- 기간: 1989.8.28.~9.3.
- 일정: 김성진 국제문화협회장, 박신일 해외공보관장, 정의용 정세분석관 주최 오찬, 김경원 전 주미국대사, 정보문화국장 면담

4. Ike Skelton 하원의원

- 기간: 1989.9.1.~5.
- 일정: 미국대사관 정세브리핑, 미국무역센터 방문, 군사정세 브리핑 청취

5. Frank H. Murkowski 상원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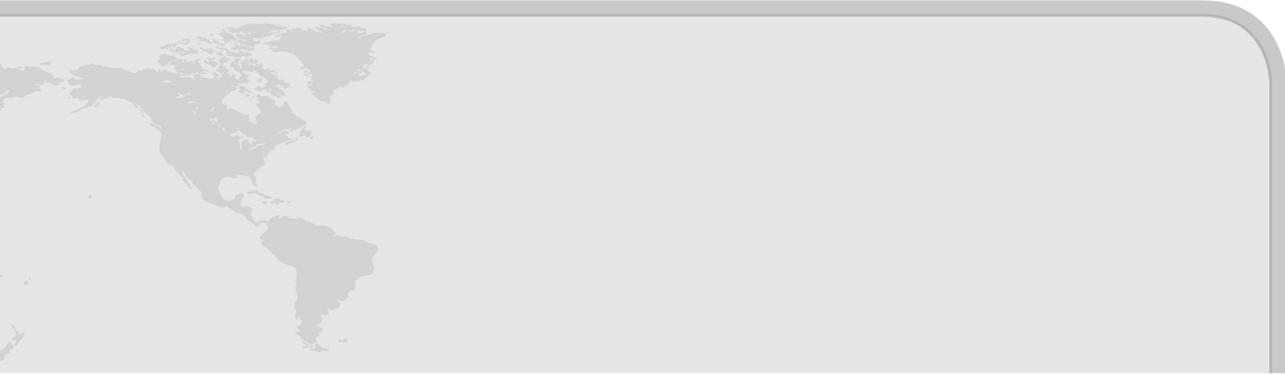
- 기간: 1989.12.7.~10.
- 일정: 대통령, 동자부장관, 상공부장관, 수산청장, 국회 외무통일위원장 예방

6. Marvin Leath 하원의원

- 기간: 1989.12.9.~12.
- 일정: 주한미군부대 시찰

7. Mervyn Dymally 하원의원

- 기간: 1989.12.12.~16.
- 일정: 국회도서관장 면담



8. Charlie Rose 하원의원

- 기간: 1989.12.12.~16.
- 일정: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민정당 대표위원, 국회 외무통일위원장 예방, 상공부장관 주최 오·만찬

미국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 소속 의원단 방한, 1989.8.6.-9.

생산연도 1989

생산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19-28 / 15 / 1-116

미국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단이 1989.8.6.~9. 방한함.

1. 의원단 구성

- Robert Roe 위원장(민주당) 등 의원 6명 부부 및 보좌관

2. 방한 목적

- 한·미국 과학기술협력 협의
- 한·미국 STA(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PSA(군사비밀특허협정) 교섭 문제 협의
- 농산물 수입개방, 지적재산권보호 문제 등 협의

3. 주요 방한일정

- 8.7.
 - 외무부장관대리 예방
 - 과기처장관대리 예방
 - 판문점 시찰
- 8.8.
 - 김현욱 외무위원장 예방
 - 주한 미국대사대리 주최 리셉션
 - General Dynamics사 주최 만찬

미국 하원 의원단 방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9-28 / 18 / 1-171

1. Patricia Schroeder 미 하원 군사위 군사시설소위 위원장 일행(4명)이 1989.8.18.~21. 방한한 바, 주요 방한일정은 아래와 같음.

- 국방부장관, 청와대 안보보좌관 면담
-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 외무부장관은 한국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에 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

2. 미 하원 세출위 국방소위소속 의원단(7명)이 1989.8.22.~27. 방한한 바, 주요 방한일정은 아래와 같음.

-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 국방부장관 면담, 청와대 예방, 판문점 시찰, 포항제철 방문

Klepsch, Egon Alfred 구주의회 기민당그룹 의장 방한, 1989.6.22.-24.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9-28 / 19 / 1-73

1. 김윤환 한·구주 의회의원친선협회장의 초청으로 Egon Alfred Klepsch 구주의회 기민당그룹 의장의 방한(1989.6.22.~24.)이 추진됨.
2. 외무부는 동 방한을 위하여 대통령, 국회의장대리 및 외무부장관 예방, 판문점 시찰 등 일정을 준비함.

자이르·한 의원친선협회 사절단 방한, 1989.7.31.-8.4.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9-28 / 20 / 1-64

Lebughe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한 의원친선협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1989.7.31.~8.4.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8.8.7.~10. 한국 의원친선사절단의 신상식 콩고민주공화국 단장은 콩고민주공화국 의원친선협회 임원 등의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함.
- 1989.2.7.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을 통해 김재순 국회의장 명의 Lebughe 콩고민주공화국 친선협회장 방한 초청장을 전달

2. 주요 방한일정

- 8.1. 김재광 국회부의장(의장대리) 예방, 판문점 시찰
- 8.2.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올림픽경기장 시찰

3. Lebughe 의원친선협회장은 이정빈 외무부 제1차관보를 면담(8.2)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함.

- 한국 연수 또는 유학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학생친선협회를 구성하여 양국관계 긴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남협력을 통한 관계 긴밀화를 희망
- 콩고민주공화국은 한국을 포함한 우방을 지원하고 문호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남협력 정신에 입각한 한국과의 대외기술협력증진을 통한 관계심화를 희망함.
- 남북한 문제에서의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성취하기를 희망함.

한·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8 / 21 / 1-19

1986~89년 중 한·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 관련 내용임.

1. 한·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 의원단이 1988.8.25.~28. 인도네시아를 방문함.

- 인도네시아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양국간 협력증진 문제를 협의함
- 국제의회 간 협력위 간담회에서 양국 의회 간 교류증진방안을 협의함.

2. 1989.10.20.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한·인도네시아 간 이해 및 우의증진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측 의원친선협회 방한 추진을 외무부에 건의함.

- 1987년 인도네시아 총선거 후 1989.3월 한·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 회원이 새로 구성됨.

한·일본 의원연맹 합동총회, 제17차. 서울, 1989.9.7.-9.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29 / 1 / 1-235

제17차 한·일본 의원연맹 합동총회가 1989.9.8.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

- 한국 측
 - 명예단장: 박태준 회장(단장: 정석모 부회장)
- 일본 측
 - 회장: 후쿠다 전수상(회장 대행: 다나카 전 문부상)

2. 주요 일정

- 9.7. 민정, 평민, 민주, 공화 4당대표 예방, 합동운영위원회
- 9.8. 대통령 예방, 합동총회, 각 상임위별 개별토론, 공동기자회견
- 9.9. 국회의장 예방

3. 토의 의제

- 안보·외교 위원회
 - 최근 급변하는 극동정세와 금후의 아시아·태평양협력문제
- 경제위원회
 - 한·일본 양국의 경제과학기술협력의 증진과 무역의 균형적 확대
- 사회·문화위원회
 - 한·일본 양국의 교육·스포츠·문화·청소년교류문제의 가일층 촉진
- 법적지위위원회
 - 3세 이하의 처우를 비롯한 재일한국인의 지위향상과 사할린 잔류 한국인의 귀환 촉진

한·일본 의원연맹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29 / 2 / 1-210

1989년 중 한·일본 의원연맹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임.

1. 히데오 일본 시민권 상임고문 참의원은 1989.1.25.~27. 방한하여 김대중 평민당 총재, 이도선 한·일본 의원연맹 부회장을 면담함.
2. 도츠카 시야 일·한 의원연맹 운영위원장 일행이 1989.2.2~3. 방한함
 - 주요 일정
 - 한·일본 의원연맹 방문
 - 외무부차관 예방
 - 올림픽 조직위 방문
3. 하라다 켄 일·한 의원연맹 부회장은 방한하여 5.2. 국무총리를 예방함.
 - 국무총리의 천황 장례식 참석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함.
4. 정석모 한·일본 의원연맹 간사장 일행 16명은 양국 의원연맹 간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989.5.11.~13. 일본을 방문함.
 - 방문 목적
 - 제1차 합동총회 개최일정 및 의제 협의
 - 주요 일정
 - 양국 의원연맹 간사회의 참석(합의문 채택)
 - 후쿠다 일·한 의원연맹 회장 예방
 - 중의원 의장, 참의원 의장 예방
 - 간사회의 결과
 - 양국 대표단은 사할린 잔류 한국인의 조기귀환 실현에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대표단을 8월 중에 현지에 파견하는 것을 확인함.
 - 양국에서 추진 중인 8,000명 청소년 교류계획의 실행 방안을 9월의 합동총회에서 검토하기로 합의함.



5. 한·일본 의원연맹 회장단이 1989.11.8.~11. 일본을 방문함.

- 방문단 구성
 - 회장: 박태준
 - 부회장: 최영근, 서정화, 이도선, 이동진, 조세형, 이상구, 박종율, 구자춘
 - 간사장: 정석모
- 주요 일정
 - 가이후 수상 예방
 - 야마나카 외상 면담
 - 오자와 자민당 간사장, 이시다 공명당 위원장, 미츠츠키 자민당 정조회장, 나가스에 민사당 대표 면담

한·라이베리아 의원친선협회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9-29 / 3 / 1-60



456

1. 라이베리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1987.7.21. 서한을 통해 한·라이베리아 의원친선협회 결성을 제의함.
2. 1987.8.27. 국회사무처는 동 제안을 환영하나, 향후 국내 일정 및 국회 사정 등을 감안하여 제13대 국회 개원 후 결성을 추진하고자 함을 라이베리아 측에 통보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3. 1988.7.5. 주라이베리아대사관은 Smith 라이베리아 하원 외무위원장이 한국 국회와의 의원친선협회 결성을 제안하면서, 7월말 일본 방문 계기에 방한하여 한국 국회와 동 문제를 협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보고함.
 - 외무부는 7.15. 주라이베리아대사관에 김현욱 외무통일위원장 명의 방한 초청장을 전달함.
4. Smith 라이베리아 하원외무위원장은 1988.8.10.~13. 방한하여 국회의장,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 차관보 오찬 등 일정을 가짐.
5. 한국 의원친선사절단(단장: 오한구 의원)은 1988.8월 라이베리아 방문 시 라이베리아 측과 양국 의원친선협회 결성 및 회칙에 합의함.

덴마크 주요인사 교류

생산연도 1984-1989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9-29 / 4 / 1-123

1. Ritzau 덴마크 국영통신 아시아외교담당 기자가 1984.11.3.~10. 방한함.

- 방한 목적
 - 덴마크 외무성 후원 하에 한국의 외교안보분야를 취재하여 유력지에 기고
- 주요 방한일정
 - 외무부, 국토통일원, 국방대학원, 해외공보관, 민정당 방문
 - 판문점, 땅굴 시찰

2. 1986년도 한국 측의 덴마크 주요인사 방한 초청 내용임.

- 7월 이재환 국회의사무총장이 Helge 국회의사무총장을 방한 초청
 - 9월 Helge 사무총장은 1988년에 방한 가능함을 통보해 옴.
- 7월 외무부는 Hjortdal 외무차관을 방한 초청
- 9월 이재형 국회의장은 덴마크 국회의장을 방한 초청
- 11월 이재형 국회의장은 덴마크 사민당 당수를 방한 초청

3. 덴마크·한국 친선협회 회원 44명이 1987.4.10.~26. 방한함.

- 방한 전에 삼성전자, 현대조선, 현대자동차, 판문점 시찰 등을 희망함.

4. 주덴마크대사관은 1988년 중 아래 인사의 방한을 보고하면서 일정 주선을 요청함.

- 6월 덴마크 유력지 Politiken의 Nielsen 기자 방한
 - 올림픽 관련 취재
- 9월 덴마크 문교부차관 방한
 - 문교부차관 및 과기처차관 면담
- 9월 덴마크 문화부장관 방한
 - 서울올림픽에 참가하는 덴마크 선수단과 함께 방한
- 11월 코펜하겐대학교 인문대학장 방한
 - 서울대학교 총장 면담

주요인사 인도네시아 방문

생산연도 1983-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9 / 5 / 1-61

1. 김정례 보건사회부장관 인도네시아 방문 추진

- 1983.6.21. 인도네시아 보건성은 Swardjono 장관 명의 김정례 장관의 인도네시아 방문 초청장을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을 통해 송부해 옴.
- 보건사회부는 11월 동 초청을 수락하는 답신을 송부함.
- 한국 측은 1984.5월초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참석 계기 인도네시아 방문을 제시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측 사정으로 방문 접수가 어려워 동 방문이 무산됨.

458

2. 김영진 내무부차관 인도네시아 방문(1989.6.8.~13.)

- 인도네시아 도시협의회는 1989.3.28. IULA(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 아태지역세미나의 기조연설자로 한국 내무부장관을 초청함.
- 한국 측은 1989.5월 김영진 내무부차관이 동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결정 하였음을 통보함.

박철언 대통령 정책보좌관 미국 방문, 1989.4.25.-5.6.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29 / 6 / 1-65

1. 외무부는 1989.4.20. 주미국대사관에 박철언 대통령 정책보좌관의 방미계획을 전달하면서 미국 측 인사들과의 면담 주선을 지시함.

- 이번 방문은 Liley 주한 미국대사가 박철언 보좌관을 방미 초청함에 따라 추진

2. 박철언 대통령 정책보좌관은 1989.4.25.~5.6. 미국을 방문함.

- 방문 목적
 - 남북대화 및 한국의 북방정책 설명
- 주요 일정
 - 4.27. Gates NSC 부보좌관, Kimmitt 국무부 정무차관 면담
 - 4.28. Solomon 동아태 차관보 내정자, Gregg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 면담

이흥구 국토통일원장관 서구 및 미국 순방, 1989.6.3.-15.

생산연도 1989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19-29 / 7 / 1-75

이흥구 국토통일원장관은 1989.6.3.~15.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및 미국을 방문함.

1. 방문 목적

- 오스트리아 정부지도자 면담을 통해 한국의 7·7 선언, 북방정책 등 평화통일정책 홍보
- 뮌헨, 뉴욕 등의 학술 및 외교단체에서 한반도 문제 연설
- 서독 문화재단과 통일원 간의 공동추진 업무 협의

460

2. 주요 활동

- 오스트리아(6.4.~6.)
 - Waldeim 대통령 예방, Mock 외무장관, Keimel 오스트리아·한국 의원친선협회장 면담
 - 오스트리아 중립화 경험, 한반도 통일문제 등에 관해 의견교환
- 독일(6.7.~10.)
 - 바이에른 주정부 방문, 「한스·사이델」 재단 방문, 뮌헨 외교협회 강연
 - 한국 민주화와 통일문제와 관해 의견교환
- 프랑스(6.10.~11.)
 - Lewis 뉴욕타임즈 논설위원 면담
 - 한국의 민주화와 북방정책 진전 상황 설명
- 뉴욕(6.11.~12.)
 - 콜롬비아대학 한국학 연구소, Asia Societ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연설

김영정 정무 제2장관 동남아 순방, 1989.5.14.-24.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29 / 8 / 1-90

김영정 정무 제2장관은 1989.5.14.~24. 동남아 3개국을 순방함.

1. 태국(5.14.~18.)

- 주요 일정
 - 5.14. 주태국대사 주최 만찬
 - 5.15.~16. 유니세프 '1990년대의 아동을 위한 전략회의' 참석
 - 5.17. Supatra 수상실 장관 및 Chansamorn 태국 여성협회 회장 면담, 범태평양 동남아시아여성협의회 회장 주최 만찬

2. 싱가포르(5.18.~20.)

- 주요 일정
 - 5.18. YWCA 회장 및 간부 면담, 주싱가포르대사 주최 만찬
 - 5.20. Wong Kan Seng 외무장관 겸 지역사회개발장관 면담, 탁아시설 및 복지시설 방문

3. 필리핀(5.20.~21.)

- 주요 일정
 - 5.21. Pulgado YWCA 회장 면담, 주필리핀대사 주최 만찬
 - 5.22. Shahani 상원 외무위원장, Quisumbing 문교문화체육장관 및 Tavera 사회복지개발장관 면담
 - 5.23. 아키노 대통령 예방, Romero 대통령 특보 면담

신두병 외무부 미주국장 중남미 순방, 1989.4.23.-5.5.

생산연도 1989

생산과 중미과

MF번호 2019-29 / 9 / 1-348

신두병 외무부 미주국장이 1989.4.23.~5.5. 중남미 5개국(가이아나, 자메이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을 방문함.

1. 가이아나(4.23.~25.)

- 면담·예방
 -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기획·개발담당 부수상, 외무장관, 외무차관, 상무장관
- 방문성과
 - 투자보장협정 체결제의, 실질경협증진방안 협의, 북한동향 탐문

2. 자메이카(4.26.~28.)

- 면담·예방
 - 외무차관, 외무차관보
- 방문성과
 - 한반도 정세 설명, 자메이카 신정부의 대외정책 및 대한민국 정책 탐문, 한국의 실질경협증진 노력 설명, 경험문제 협의

3. 브라질(4.29.~5.3.)

- 면담·예방
 - 외무차관, 외무차관보, 외무부 아주국장
- 방문성과
 - 한·브라질 공동위 설립 양해각서 가서명, 1989년 중 제1차 공동위 개최 합의, 브라질 외무차관 방한 희망 의사 접수, 한국과의 관계강화 의사 확인

4. 아르헨티나(5.3.~4.)

- 면담·예방
 - 외무부 아주국장
- 방문성과
 - 기존 우호협력관계 확인, 신정부 수립시 대한 정책 변화 가능성 희박 확인



5. 칠레(5.4.~5.)

- 면담·예방
 - 외무차관 대리, 외무부 양자국장
- 방문성과
 - 기존 우호협력관계 재확인, 칠레의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가입 희망의사 접수, 한국과의 관계강화 의사 접수

Moustafa Ahmed Kamel Ibrahim 이집트 내무성 제1차관 겸 보안경찰총국장 방한, 1989.5.21.-26.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9-29 / 11 / 1-40

Mustafa Ahmend Kamel Ibrahim 이집트 내무성 제1차관 겸 보안총국장이 1989.5.21.~26.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9.3월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겸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명의 초청장을 송부

2. 방한 목적

- 양국관계증진 및 정보분야협력 방안 모색

3. 주요 일정

- 5.22. 안전기획부장, 치안본부장, 김운용 IOC 위원장 예방
- 5.23. 올림픽 시설, 안전대책 및 대테러 시범 참관
- 5.24. 외무부 제1차관보 예방, 안전기획부 2차장, 중동아국장 등 면담
- 5.25. 삼성전자 시찰

Saathi, Mahinder Singh 인도 Delhi 시장 방한, 1989.4.24.-29.

생산연도 1989

생산과 서남아과

MF번호 2019-29 / 12 / 1-28

1. 주한 인도대사관은 1989.4월 Saathi 인도 델리시장이 1989.4.24.~29. 방한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동인의 방한기간 중 한국당국이 경호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관계기관에 경호조치를 지시함.
2. Saathi 델리시장은 1989.4.25. 고건 서울시장을 면담하고 서울·델리시 간 자매결연 문제를 협의함.

일본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29 / 13 / 1-198

1. 오키나와현 지사를 비롯한 오키나와현 일·한 친선협회 관계자 160명이 1988.5.11.~14. 방한함.

- 방한 인사
 - 니시메 오키나와현 지사 부부, 이케다 오키나와현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등
- 주요 일정
 - 한·일본 협력위원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일본 경제협회 회장 예방
 - 외무부, 문교부, 교통부, 한국관광공사 방문

466

2. 일본 오카야마현 지사는 한·일 교류협력증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989.5.29.~6.2. 방한함.

- 방한 인사
 - 나가노 시로우 오카야마현 지사 부부
 - 하티야 카츠시 오카야마현 의원
 - 수행원: 서일본 방송사 대표 등 4명
- 주요 일정
 - 경상남도 지사 예방, 경상남도 현황브리핑 청취, 창원공장 시찰, 판문점 방문, 경주 시찰

3. 일본 외무성 종견간부 3명이 외무부 초청으로 1989.11.20.~24. 방한함.

- 방한 인사
 - 가와무라 경제국 총무참사관
 - 고마쓰 이치로 조약국 법규과장
 - 곤도 국제보도과장
- 주요 일정
 - 외무부 간부 예방(제1차관보, 아주국장, 정보문화국장)
 - 외무부 관계자와 의견교환
 - 독립기념관, 땅굴, 경주 시찰

페루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9-29 / 14 / 1-354

1988~89년 중 페루 주요인사 방한 내용임.

1. Miro Quesada 페루 El Comercio지 일요판 국장이 KDI(한국개발연구원) 연찬회 참석차 1988.4.11. 서울에 도착함.
2. Castro 페루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외무부 초청으로 1988.7.4.~9. 방한한 바, 주요 방한일정은 아래와 같음.
 -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 남양어망 방문
 - 판문점·올림픽경기장 시찰
 - 현대자동차·제일모직공장 방문 등 산업시찰
3. Del Castillo 리마시장이 올림픽조직위 초청으로 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1988.9.16.~21. 방한함.
 - 올림픽 개회식 및 대통령 주최 만찬 참석, 서울시장 면담 등 일정을 가짐.
4. 주페루대사는 1988.8. Barrentes 전 리마시장을 올림픽 참관을 위해 방한 초청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외무부는 동인의 방한 초청이 어려운 사정임을 통보함.
5. Saenz 페루 감사원장이 감사원 초청으로 1989.5.15.~19. 방한한 바, 주요 방한일정은 아래와 같음.
 - 대통령 예방(수교훈장 광화장 서훈)
 - 감사원장 면담 및 감사원장 주최 오·만찬 참석
 - 대법원장 예방
 - 올림픽경기장 시찰
6. Vargas Llosa 페루 야당 대통령 후보가 한국국제문화협회 초청으로 1989.10.4.~8. 방한한바, 주요 방한일정은 아래와 같음.
 - 국무총리, 국회의장, 서울시장 예방
 - 한국국제문화협회장 주최 만찬 참석
 - 대우(주), 삼성물산, 대우중공업 방문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문 및 코엑스 한국전자전 관람
 - Korea Herald 인터뷰

영국 Wales담당장관 방한

생산연도 1984-1989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9-29 / 15 / 1-138

1. Edwards 영국 웨일즈담당장관이 대웨일즈 투자권장을 위해 1984.10.13.~16. 방한한 바, 주요 방한일정은 아래와 같음.

- 국회의장, 경제기획원장관, 체신부장관, 외무부차관, 상공부차관 예방
- 한국과학기술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판문점 시찰
- 외무부차관 주최 오찬

2. Edwards 영국 웨일즈담당장관이 웨일즈지역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1986.3.8.~11. 방한한 바, 주요 방한일정은 아래와 같음.

-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 경제기획원장관, 상공부장관, 과기처장관 예방
- 대우그룹 회장, 현대전자 사장, 삼성전자 부회장, 럭키금성 사장 면담
- 전경련 회장단 예방 및 연설
- KAIST 세미나 참석

3. Walker 영국 웨일즈담당장관이 구주산품 특별전시회 개막 참석 및 웨일즈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1989.9.25.~27. 방한함.

Glenarthur, Simon 영국 외무부 아주지역담당 국무상 방한, 1989.5.22.-26.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9-29 / 16 / 1-140

1. Glenarthur 영국 외무부 아주지역담당 국무상이 1989.5.22.~26. 방한한바, 주요 방한일정은 아래와 같음.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예방
 - 외무부차관, 경제기획원차관, 과기처차관 면담
 - 울산·포항지역 산업시찰
2. 상기 외무차관 면담 시 중국 정세, 일본 정세, 아태지역 협력문제 등에 관해 의견교환을 함.
3. 본 문서철에는 외무부장관 및 외무부차관 면담요록이 수록됨.

미국 주요인사 방한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29 / 17 / 1-207



1987~89년 중 미국 주요인사의 방한 관련 내용임.

1. Sherman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1987.1.26.~29.)

- 민정당 국책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함.

3. Holbrooke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1987.8.12.~14.)

- 한국 국내정세 파악 및 개인 사업차 방한하여 대통령 예방, 외무부장관 주최 오찬, 민정당 총재 면담 등 일정을 가짐.

4. Lutali 미국령 사모아 총독(1988.3.13.~19.)

- 한국 기업인 접촉, 서사모아 무역사무소 개설, 수산청장 면담 등 일정을 가짐.

5. Campbell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1989.2.7.~9.)

- 한국과의 경제협력증진을 위해 통상사절단을 인솔함.

6. Dunlop 국무부 한국과장(1989.2.9.~14)

- 한국의 북방정책과 소련 및 동구권과의 관계 파악을 위해 방한함.

Rowny, Edward L. 미국 대통령 군축담당 특별보좌관 방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30 / 1 / 1-103

Rowny 미국 대통령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의 1988~89년 중 방한 관련 내용임.

1. 제1차 방한(1988.6.5.~7.)

- Rowny 대사는 방한 기간 중 6.6. 외무부장관을 면담하고 미국·소련 정상회담(1988.5.29.~6.2.)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함.
 - 소련은 북한의 도발적 태도에 대한 미국의 지적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함.
 - 미국은 이러한 소련의 긍정적 자세변화를 평가함.
 - 전략핵무기감축협상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인권, 지역문제에 대한 소련 측의 성의있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 소련은 공산당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력기반 구축과 개혁정책의 기반마련에 부심 중임.

2. 제2차 방한(1989.5.16.~17.)

- 미국·소련 외상회담 결과 설명차 방한
- 동 보좌관은 방한 기간 중 외무부장관과 오찬 면담 및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임.

Sigur, Gaston J.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방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30 / 2 / 1-226

Sigur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1988~89년 중 방한 관련 내용임.

1. 제1차 방한(1988.4.2.~5.)

- 주요 일정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국방부장관, 상공부장관 예방
 - 외무부장관 오찬
- 이한 성명(4.5.) 요지
 - 한국의 화합과 민주화 과정 평가
 - 민주발전과 함께 인권존중사회로 발전희망
 - 양국간 통상문제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타결희망

2. 제2차 방한(1989.10.29.~11.2.)

- 국무부를 퇴직한 Sigur 전 차관보가 북한 방문(1989.10.20.~27.) 후 1989.10.29.~11.2. 방한함.
 - 북한이 북한 평화군축연구소장 명의로 동 차관보(조지워싱턴대학 교수 자격)를 초청
- Sigur 전 차관보는 10.30. 외무부장관에게 자신의 방북결과를 아래와 같이 설명함.
 - 김일성, 김정일은 만나지 못했으며, 북한으로부터의 메시지는 없음.
 - 북한 측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및 남한과의 불가침협정체결 희망, 미국과의 고위급 접촉 희망, 미군유해 송환,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요청, 남한의 국가보안법 철폐문제 등에 대하여 거론함.

미국 유대인 위원회 대표단 방한, 1989.9.8.-13.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30 / 3 / 1-20

미국 유대인위원회 대표단이 1989.9.8.~13.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9.6.30. 미국 유대인위원회 국제부장, 주뉴욕문화원장 면담 시 방한협조 요청
- 1989.8.16. 주LA총영사관, 미국 유대인위원회 연구소장의 방한협조 건의

2. 방한 대표단

- Harvey Feldman 미국 유대인위원회 국제부장(전 유엔 주재 차석대사)
- David Harris 미국 유대인위원회 워싱턴지역대표
- Neil Sandberg 미국 유대인위원회 연구소장

3. 방한 목적

- 미국과 태평양국가 간 문화교육기관 설립추진
- 청소년 교류문제 협의 등

4. 주요 일정

- 9.11. 김경원 사회과학원장, 외무부 정보문화국장 면담
- 9.12. 민관식 전 국회의장, 문교부 국제교직국장, KBS 방송사업단 사장 면담

김용식 특사(전 외무장관) Menem, Carlos Saul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89.7.6.-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9-30 / 4 / 1-171

김용식 특사(전 외무부장관)가 메넴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1989.7.6.~9. 아르헨티나를 방문함.

1. 취임식 참석 경위

- 6.15. 주아르헨티나대사, 취임식 개최 일자(7.8) 외무부에 보고
- 6.20. 주한 아르헨티나대사, 노태우 대통령 앞 취임식 초청장 송부
- 6.22. 외무부, 특사 내정자 주아르헨티나대사관에 통보
- 6.30. 외무부, 특사 파견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474

2. 아르헨티나 방문 결과

- 주요 활동
 - 7.7. 이임 알폰신 대통령 주최 리셉션 참석
 - 7.8. 메넴 대통령 취임식 참석
- 대통령 취임식 내용
 - 신임 대통령 취임 선서식
 - 신·구 대통령 이·취임식
 - 신임 대통령에 대한 하례
 - 신임 대통령 내외 주최 경축연
- 평가
 - 국민의 축제분위기는 전임 대통령 취임 시보다 다소 침체
 - 메넴 정부는 경제위기 타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충격요법의 경제정책 추진 예상

박춘범 주엘살바도르대사 CRISTIANI Burkard, Licenciado Alfredo Felix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 참석, 1989.6.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종미과

MF번호 2019-30 / 5 / 1-21

1. 박춘범 주엘살바도르대사가 1989.6.1. Christiani Burkard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함.
2. 엘살바도르 정부와 주한 엘살바도르대사관(일본 상주)이 Christiani Burkard 대통령 취임식에 한국 경축사절 파견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외무부는 박춘범 대사의 동 취임식 참석을 지시함.

이남기 특사(전 주이탈리아대사) 몰타 독립 25주년 기념식 참석, 1989.9.17.-2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9-30 / 6 / 1-126

이남기 전 이탈리아대사가 몰타 독립 25주년 기념 경축행사에 경축특사로 참석하기 위해 1989.9.19.~9.22. 몰타를 방문함.

1. 파견 배경

- 1971년 이래 16년간 동결되었던 한·몰타 외교관계가 1988년 정상화된 후 첫 행사임을 감안하여 경축사절 파견

476

2. 타국 경축사절 참석 현황

- 영국의 필립공, 이탈리아 상원의장, 미국의 부시대통령 동생 등 약 200명 참석
- 북한은 채의정 합영공업부장과 주몰타대사 부부가 참석

3. 주요 활동내용

- 타보네 몰타 대통령 면담
 - 타보네 대통령은 자신이 외무장관 재직시 방한초청을 받은바 있으므로 가능하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
- 아다미 몰타 수상 면담
 - 이남기 특사는 노태우 대통령의 몰타 독립기념일 축하의 뜻과 양국간 실질협력증대 희망을 전달
 - 아다미 수상은 조선분야 등에서의 양국간 협력증대 희망을 피력

최광수 특사(전 외무장관) Perez, Carlos Andres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남미 순방, 1989.1.31.-2.10.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남미과
MF번호	2019-30 / 7 / 1-122

최광수 대통령 특사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1989.1.31.~2.10. 베네수엘라,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를 방문함.

1. 방문 목적

- Carles Andres Perez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베네수엘라 신정부와의 유대강화 기반 마련.
-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양국 고위인사 면담 및 교민 격려

2. 방문국별 주요활동

- 베네수엘라(1.31.~2.3.)
 - Peres 대통령 취임식 참석: 총90개국 특사 참석, 북한은 차봉주 외교부 부부장 참석
 - Peres 대통령, 루신치 이임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외상 면담
 - 교민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 브라질(2.4.~2.8.)
 - 상파울루 거주 교민과의 간담회
 - 한인회관 및 한인상가 밀집지역 방문
- 아르헨티나(2.8~2.10)
 - 까부토 외상, 마르띠네스 부통령 겸 상원의장 면담
 - 교민 및 주재상사대표와의 만찬

강영훈 국무총리 일본 방문, 1989.2.23.-25. 전2권 (V.1 기본계획)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30 / 8 / 1-318

강영훈 국무총리는 1989.2.23.~25. 쇼와 일본 천황의 장례식 조문사절로 일본을 방문함.

1. 주요 일정

- 2.24
 - 장례식 참석
 - 다케시다 수상 주최 리셉션 참석
 - 부탄 국왕 및 영국 외상 개별 면담
 - 민단간부 초청 만찬
- 2.25
 - 다케시다 수상 면담
 - 아키히토 천황 예방
 - 하라다 켄 일·한 의원연맹 간사장 면담

2. 주요인사 접촉 결과

- 다케시다 수상 언급내용
 - 조문사절 파견에 대한 감사 및 한국 신정부 출범 1주년 축하
 - 신 천황의 최초 국민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 희망
 - 남북대화 추진을 위한 한국 측 노력 평가 및 남북한 대화환경 조성을 위한 일본의 협력의사 표명
-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명
- 케야르 유엔 사무총장
 - 금후 남북한 간 화해를 위한 노력 의사 표명
- 왕축 부탄 국왕
 - 한국과의 경제협력증대 희망 및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입장 지지 약속

강영훈 국무총리 일본 방문, 1989.2.23.-25. 전2권 (V.2 참고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30 / 9 / 1-192

강영훈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1989.2.23.~25.) 관련 참고자료임.

1. 쇼와 천황의 장례식 절차

- 일시 및 장소
 - 1989.2.24.(금), 도쿄 신주쿠 교엔
- 참석자
 - 외국 조문사절 및 민간사절, 외교단, 일본 국내인사 등 약 1만명 정도
 - 각국 조문 사절: 118개국, 12개 국제기구 대표
 - 부시 미국 대통령 등 국가 원수급: 41개국
 - 강영훈 국무총리 등 수상급: 8개국
- 장례절차
 - 10:20 장례행렬 행사장 도착, 조조덴노 기 (황실의식) 제사 및 황족 참배
 - 11:15 다이소노 레이 (국가의의식): 수상 등 조문 낭독, 국내외 조문 사절 조의 의식
 - 15:00 장례행렬 묘지 도착 및 료소노 기: 매장 및 황족 배례

2. 국무총리의 부토 파키스탄 수상 면담 자료

- 서남아 정세: 아프가니스탄 문제, 서남아지역 안정을 위한 파키스탄의 역할
- 양자 관계: 양국관계 평가, 대파키스탄 고추 무상지원

3. 국무총리 방일 일정

- 조문사절 및 수행원 명단
- 체재 일정: 1989.2.23.~25.(숙소: 도쿄 제국호텔)
- 행사별 세부 계획: 공항 도착, 대사 주최 만찬, 장례식, 민단간부 접견, 하우 영국외상 접견, 다케시다 수상 주최 리셉션, 주일 특파원 초찬, 하라다 케 일한외련 간사장 접견, 다케시다 수상 예방, 아키히토 천황 예방, 귀국 순으로 세부일정을 설명함.

이방자 여사(영친왕 비) 타계, 1989.4.30.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30 / 10 / 1-23

1989.4.30. 타계한 이방자 여사(영친왕 비)의 장례식 참석차 일본 황족 미카사노미야 부처가 방한함.

1. 이방자여사 타계

- 사망일시
 - 1989.4.30. 09:30 (낙선제)
- 장례위원회 구성
 -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주관
 - 장례위원장은 이재형 전 국회의장
- 발인
 - 1989.5.8. 10:00 (9일장)
- 장지
 - 경기도 금곡 홍유능 (영친왕과 합장)

2. 미카사노미야 부처 방한

- 일본 외무성은 1989.5.1. 고 이방자여사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카사노미야 부처가 1989.5.7.~8. 방한함을 알렸음.
 - 미카사노미야는 아키히토 천황의 삼촌으로 왕위 계승 서열 4위

북한·베냉 관계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9-30 / 12 / 1-59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베냉 겸임)이 1985~89년 북한·베냉 관계 동향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북한 경제사절단 베냉 방문(1985.3.5.)

- 북한 경제사절단(단장: 김상철)이 베냉을 방문하여 문화관 건립 등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함.

2. 북한·베냉 관련 현지 언론보도 동향

- 북한은 베냉 수도 코트누에서 1986.2.3.~8. 베냉 기자연수회 개최를 지원함.
- 김성환 북한대사는 1986.3.31. 케레쿠 베냉 대통령을 면담함.
- 북한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대표단(단장: 김진범)이 1986.12.8.~11. 베냉을 방문함.
- 이종옥 북한 부주석이 1987.1.14. 베냉을 방문함.
- 엄덕환 북한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이 1987.2.4. 베냉을 방문함.

3. 베냉 대통령 북한 방문(1986.12.7.~12)

- 수행원: 외무장관, 통상관광상 등 각료급 12명
- 주요 일정: 대성산 열사능에 화환 증정, 김일성과 회담, 만경대 및 김일성대학 방문
- 평가: 북한은 베냉 대통령을 2차례 방북 초청함으로써 비동맹에서의 협조를 요청

4.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베냉 방문(1989.9.19.~20)

-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베냉을 방문하여 베냉 혁명의회 부의장을 예방하고 북한이 지원, 건립한 기자의 집을 방문함.

북한·캐나다 관계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30 / 14 / 1-170



1. 북한 비즈니스 관계자가 1987.9월 캐나다에 입국함.
 - 한국 측의 항의에 대해 캐나다 측은 민간레벨의 단순한 무역을 위한 입국에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
2. 캐나다 일간지 관광담당기자가 밴쿠버 소재 여행사(Canada Swan)가 알선한 북한 관광여행단의 일행으로 1988.4.8.~13. 북한을 방문함.
 - 동여행사는 북한으로부터 향후 3년간 매년 150명씩 캐나다 관광객이 입국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음.
3. 주창준 북한 노동당 중앙위 위원 등 3명이 1988.5.20.~26. 토론토에서 개최된 제27차 캐나다 공산당 당대회 참석차 캐나다에 입국함.
 - 한국 측의 항의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북한 정부대표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사정을 설명함.
4. 북한 사회과학원 소속 유해용 등 3명이 1988.6.6. 캐나다를 방문함.
 - 온타리오주 윈저대학에서 한국의 현안문제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경제개발 및 한반도 통일방안 등을 발표함.
 - 초청자는 캐나다 맥길대학 교수이며 친북인사인 Samuel Noumoff 임.
 - 동 대학에서도 윈저대학에서와 유사한 간담회를 가짐.
5. Barry Till 캐나다 빅토리아미술관 아시아담당관은 빅토리아 아시아 문화협회 회원 20명을 인솔하여 1988.9.30.~10.7. 북한을 방문함.
 - 동인은 북한 방문 보고강연(1989.1월)에서 김일성 체제에 대한 신랄한 비난을 함.
 - 북한주민들은 김일성을 세계 모든 국민이 우러러 보는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음.

북한·덴마크 관계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9-31 / 1 / 1-112

북한·덴마크 간의 1988~89년 중 관계 동향임.

1. 주덴마크대사관 참사관은 1988.5.9. Tillisch 덴마크 외무부 아주국장을 면담하고, 북한 외교부 부부장의 덴마크 방문 여부를 문의한바, 동 국장은 KAL기 폭파사건 시 표명한 입장에 비추어 북한 외교부 부부장의 덴마크 방문 희망을 거절하였다고 언급함.
2. 덴마크는 1989.3.30.~4.3. 간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 축전에 정당인, 언론인 등 26명의 대표단을 파견함. 일부는 덴마크 귀국후 동 행사가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었다고 언론을 통해 비판함.
3. 1983.7월 평양집회에 참가하는 덴마크 대표단은 남북한 인권문제 비교를 위해 행사 종료 후 판문점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계획을 검토하였으나, 일정·경비문제로 무산됨.
4. 1989.9월 덴마크 국회사절단이 북한 9·9절 경축행사 참석차 방북함.
 - 주덴마크대사는 10.5. 방북 의원을 면담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균형있고 공정한 시각을 가져줄 것을 당부함.

북한·프랑스 관계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9-31 / 3 / 1-211

북한·프랑스 간의 1985~89년 중 관계 동향임.

1.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대표단이 1985.2.6~10.간 개최되는 프랑스 공산당 전당대회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함.
2. 황장엽 북한 당중앙위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은 1985.11.4.~8. 프랑스를 방문하고, 11.5. 프랑스 공산당 대표단과 협의함.
3.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은 1987.7~8월 Silva 프랑스 외무부 한국담당관을 면담하고 1984년 파리에 설치된 북한 일반대표부의 외교적 권한에 대하여 문의한바, 프랑스 측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 북한 일반대표부 직원의 지위는 1984.12월 프랑스·북한 간 체결된 비밀약정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 북한대표부는 불가침권이나 외교관 면제특권을 향유하지 않으며 직원들도 외교관 신분이 아니나, 외교관 차량번호판 부착과 같은 일정부분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고 있음.

북한·가봉 관계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9-31 / 4 / 1-65

북한·가봉 간의 1985~89년 중 관계 동향임.

1. 가봉 주재 북한대사관은 1985.4.12. 대사관저에서 김일성 생일 리셉션을 개최하고 25분 분량의 선전 영화를 상영함.
2. 1985.9.13. 주가봉대사관은 김재봉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 포함된 북한 대표단이 9.11. 가봉에 도착하여 가봉 민주당과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가봉 측은 동 방문이 비공식 방문이라는 이유로 접촉을 기피하였으며, 동 대표단은 9.13. 떠날 예정임을 보고함.
3. 김용섭 북한 외교부 부부장은 1986.3.29.~4.3. 가봉을 방문하여 봉고 가봉 대통령 동상 제막식에 참석하고 가봉 주요 인사들과 면담함.
 - 4.1. 보건성차관을 면담하고 의사파견, 의료요원 초청 훈련 및 의약품 제공 제의하고, 문화성 차관 면담시 문화분야 협력증진 및 문화성 장·차관의 북한 방문을 희망함.
 - 4.3. Dossou-naki 외무차관을 면담하고 1988년 비동맹 외상회의 개최국 결정시 북한 지지를 요청함.

북한·가나 관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9-31 / 5 / 1-92



북한·가나 간의 1989년 중 관계 동향임.

1. 가나 주재 북한대사관은 1989.4.11. 문익환 방북 관련 내용을 왜곡하고 틴스피리트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4.15.자 공한을 통해 문익환의 즉시 석방을 위해 성명발표 등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가나 각계에 요청함.
2. 1989.7.10. 주가나대사관은 7.8.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7.6. 평양집회에 참석한 가나대표단장인 Saraah-Mensah 청년체육장관이 김일성에게 Rawlings 가나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김일성은 Rawlings 대통령 방북 초청을 하였다고 보고함.
3. 가나·북한 간 협정을 체결함.
 - 아크라평원 개발사업 관련 북한기술용역협약(5.31.)
 - 무역·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합동위 설치 협정(11.22.)

북한·헝가리 관계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31 / 6 / 1-118

북한·헝가리 간의 1988~89년 중 관계 동향임.

1. 북한은 한국·헝가리 수교를 비난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988.9.13. 북한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한·헝가리 상주대표부 설치 합의 비난
- 1989.11.5. 김병일 주헝가리 북한대사 소환 및 1989.2월 헝가리와의 외교관계를 대사 대리급으로 격하
- 1989.2.20.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사회주의 형제국인 헝가리가 배신하였다고 직설적으로 비난

2. 헝가리 외무부는 1989.5.9. 헝가리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을 초치하고 북한의 외교관계 격하 조치에 대응하여 북한대사관 공관원 및 외교관차량 규모축소, 밀수기도 북한외교관 소환요구 등의 입장을 통보함.

- 7.10. 북한대사관은 헝가리 외무부에 7.27.까지 부다페스트대사관 주재 외교관 수를 감축할 예정이며, 밀수 관련 외교관도 7.13. 출국 예정임을 통보함.

3. Matyus 헝가리 외무부 부국장은 1989.7.10. 북한대사대리를 초치하고, 과거 북한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을 남용한 사례에 따라 사증면제협정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음을 공식 통보함.

- 상기 통보에 따라 양국간 사증면제협정은 8.10.부터 자동 폐기됨.

북한·아일랜드 관계

생산연도 1983-1989

생 산 과 서구1과

MF번호 2019-31 / 8 / 1-39

북한·아일랜드 간의 1983~89년 중 관계 동향임.

1. 1987.8.25. 주아일랜드대사는 아일랜드 근로자당(Workers' Party) 전당대회에 북한대표단 4명이 참가해오고 있었으며, 7월 주아일랜드대사관 활동이 본격화되면 북한의 방해활동이 예상됨을 외무부에 보고함.
2. 1988.4.14. 주아일랜드대사관 참사관은 Barrington 아일랜드 외무부 아태국장과 면담하고 북한의 근로자당 전당대회 참석문제를 제기한바, Barrington 국장은 북한인에 대한 입국 협조는 정당의 요청에 따라 부여한 것이며, 아일랜드의 대북한 불승인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함.
 - 주재국 미국대사관 관계자에 의하면, 아일랜드 정부는 북한의 외교관계수립 제의 뿐만 아니라, 통상대표부 설치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됨.

북한·모리타니아 관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마그레브과
MF번호	2019-31 / 12 / 1-58

북한·모리타니아 간의 1989년 중 관계 동향임.

- 북한은 평양 세계청년축전 참가 교섭을 위해 1989.3.26.~28.간 모리타니아에 북한사절단을 파견하고 모리타니아 구국군사위 사무총장, 청년체육장관 및 국장 등 면담함.
 - 북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대해 항공권과 숙식제공을 제안
 - 모리타니아 측은 동 축전에 총 28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관계부처 책임자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위원장: 모리타니아 구국군사위 사무총장)를 발족
- 모리타니아 정부는 1989.6.21. 각료회의를 통해 평양 세계청년축전 참가대표단 명단을 확정하였는 바, Sidatt 구국군사위 문화·종교·사회담당 사무국장(수석대표) 등 총 14명으로 구성됨.
 - 당초 28명 파견 예정이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동 축전 중 체육 및 문화행사 참가를 취소함으로써 참가규모를 반으로 감축함.

북한·나이지리아 관계

생산연도 1985-1989

생산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9-31 / 13 / 1-92



북한·나이지리아 간의 1985~89년 중 관계 동향임.

1. 주나이지리아 북한대사관은 1985.4.10.~16.간 나이지리아 국립극장에서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등을 전시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함.
 - 북한은 당초 동 행사를 14일간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나이지리아 정부가 1주 개최만 수락함.
2. 1985.10.16. 나이지리아 가디언즈지는 나이지리아의 10.1. 쌀수입 전면금지 조치 발표 이후 북한 농업기술자 10명이 나이지리아 Peremabiri(Rivers주) 농장에서 약 300ha 규모의 벼재배 사업 착수를 준비 중이며, 향후 2년간 근무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3. 1987.9.15. 주나이지리아대사관은 김완수 신임 주나이지리아 북한대사가 Olisemeka 나이지리아 외무부 지역차관보를 예방하고, Babanida 나이지리아 대통령 및 나이지리아 외무부장관의 방북을 초청하고, 나이지리아 주재 무관부 설치 및 고위 군사사절단 방북 등 양국간 군사협력 강화 등에 대하여 요청하였다고 보고함.
 - 나이지리아 외무성은 12월 북한 무관부 설치에 동의하는 공한을 북한대사관에 전달함.
4. 나이지리아와 북한은 1988.4.11.~14.간 평양에서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합의의사록에 서명하나, 주요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 1978.6월 이래 시행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Peremabiri 합작농장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여타 주에서도 합작농장사업 실시
 - 북한 측은 양국 정부 간 의약품 제조 합작회사 설립을 제의하였으나, 나이지리아 측은 나이지리아 상공회의소를 통해 민간회사를 알선

북한·필리핀 관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31 / 14 / 1-82

북한·필리핀 간의 1989년 중 관계 동향임.

1. Manglapus 필리핀 외무장관은 1.17. 외교사절 및 정부관계자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한 신년도 외교정책 발표행사에서 탈이데올로기 외교의 일환으로 대북한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함.
2. 필리핀 정부는 1989.6.25. 7월 평양집회 참석대표단을 파견함.
 - 대표단은 약 50명 규모이며, 하원의원 및 언론인 등 포함

북한·페루 관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9-31 / 16 / 1-107



1988~89년도 북한·페루 간의 관계 동향임.

1. 북한·페루협정 등 서명

- 북한쌀 6만 톤 페루 수입계약서 서명(1988.10.26.)
- 북한·페루 간 교역증진협정 서명(1988.11.16.)

2. 페루 주재 북한통상대표부(대사관) 행사 개최

- 김정일 47회 생일행사(1989.2월)
 - 리마시립극장에서 친북한 연예인 김정일 찬양노래 및 페루 민속공연
 - 약 200명 참석
- 김일성 생일행사(3월)
 - 친북협회장 등 약 50명 참석
- 북한 영화상영 및 칵테일(4월)
 - 페루 농업장관 등 약 160명 참석
- 9·9절 41주년 리셉션 개최(9월)
 - 페루 정계인사, 친북의원, 외교단 등 약 120명 참석
- 노동당 창당 44주년 행사(10월 친북협회 명의)
 - 친북협회장 등 60여명 참석
- 북한대사관 개설 리셉션(12월)
 - 페루 제1부통령, 제2부통령, 수상 겸 외교장관, 내무장관, 농무장관 등 80여명 참석

3. 북한 주요인사 페루 방문

- 북한 은덕상사 부사장 일행(1989.4.23.~5.11.)
 - 북한 광산물 수출 협의
- 김진범 북한 대문위 부위원장 일행 3명(1989.10.18.~11.1.)
 - 쿠스코시와 개성시 간 자매결연 합의서 서명
 - 지방순회 사진전 개최
 - 친북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 갱신 체결

북한·르완다 관계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9-31 / 17 / 1-16

1. 주르완다대사관이 1988.6월 보고한 북한의 대르완다 침투현황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르완다의 대북한 정책
 - 르완다 대외정책의 기본은 비동맹 중립임.
 - 북한의 대르완다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약속 이행 지연과 미흡으로 북한에 대한 불만 증대
 - 1987.9월 한국대사관 개설 이래 한반도 문제 관련 중립입장 견지 분위기
- 북한의 침투현황
 - 공무원 4명(대사 포함) 근무, 옥수수 가공공장 기술자 7명, 벼경작 기술자 6명 파견
 - 북한은 1975~81년 군사대표단을 파견하고 소형화기· 대공포 등을 지원하였으며, 르완다 군인에 대해 방북 군사교육을 실시하였으나, 1981년 이후 동 군사교육은 중단
- 경제협력
 - 청년회관 건립, 옥수수 가공공장 건설

2. 주르완다대사관은 주재국의 남북한 외교정책과 관련한 '87년도 르완다 외무성 연례 보고서를 입수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 1987.9. 한국대사관 재개설 허용은 르완다 정부의 비동맹 중립외교 정책에 기초
- 르완다 정부는 북한에 한국대사관의 재개설이 르완다 정부의 대북한 관계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시켰고, 북한은 르완다 정부의 확고한 입장으로 인해 남북한 공존에 대한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음.

북한·스웨덴 관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구2과

MF번호 2019-31 / 18 / 1-38

494

1. 강석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 일행 4명이 1989.4.4.~8. 스웨덴을 방문함.
 - 주요 체류일정
 - 외무장관 예방, 외무차관 면담 및 오찬, 정부차관보와 회담 및 오찬, 국회 외무위 간담회
 - 주요 협의내용
 - 스웨덴 측이 채무상환 문제를 제기하면서 채무관련 협정의 불이행은 신의 문제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유해함을 강조한 데 대하여, 북한 측은 채무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
 - 북한 측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강력히 희망해 왔음에도 미국 측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불평한 데 대해 스웨덴 측은 미국이 현재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조금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여건도 조성되지 않았다고 언급
 - 북한 측은 미국이 한국의 대북정책을 반대하고 있어 남북대화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통일방안으로 고려연방제를 설명
 - 주스웨덴대사관의 평가
 - 스웨덴 측은 강석주 부부장의 방문 결과에 다소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인 바, 이는 동 방문 시 채무상환에 관해 북한 측의 새로운 언질이 없었고 새로운 제안도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스웨덴은 동 방문이 1988.10월 Andersson 스웨덴 외무장관의 판문점 경유 북한 방문 제의를 북한 측이 거절한 데 대한 북한 측의 화해노력의 일환으로 생각
2. 주홍콩총영사관이 현지 스웨덴영사관으로부터 탐문한 바에 의하면, 1989.8월초 스웨덴 정부 사절단이 북한의 대스웨덴 채무상황 교섭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으나, 북한 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함.
3. 스웨덴 정부는 1989.9월 외무부 국제기구국 참사관을 그간 공석 중이던 평양 주재 스웨덴대사 대리로 발령 조치함.
4. 스웨덴 외무부 정부차관보대리는 1989.9.19. 주스웨덴대사를 초치하여 스웨덴 정부가 북한에 대사대리를 임명·파견하기로 한 배경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이해를 요청함.
 - 한국 정부는 제6공화국 수립 이후 스웨덴이 평양 주재 상주대사관을 통하여 북한에 대해 한국의 통일정책을 이해시켜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유도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참작하여 스웨덴으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한 것임.

북한·시에라리온 관계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9-31 / 19 / 1-193

1. 시에라리온 유력 일간지 The New Citizen은 1985.3.30. 및 4.4. 북한 주체사상 비판 기고문을 게재함.
2. William Conteh 시에라리온 국회의장은 1986.3.20.~25. 북한 최고인민회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함.
 - 김일성은 Conteh 국회의장에게 동인의 방북은 양국간의 우호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고, Momoh 시에라리온 대통령이 가까운 장래에 방북하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함.
3. 정준기 북한 부총리 일행이 1986.8.30.~9.4. 시에라리온을 방문함.
 - 정준기 부총리는 Momoh 대통령 예방 시 북한의 3자 군사회담 제의 및 한반도 비핵지대 설치에 관하여 설명하고 시에라리온이 북한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4. 전일춘 북한 경제사업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경제사절단 일행 8명이 1987.9.12.~25. 시에라리온을 방문한 바, 주요 방문일정은 아래와 같음.
 - 대통령 예방, Binkolo(대통령 고향)지역 농업개발원조에 관한 합의서 서명
5. Kamara 시에라리온 제1부통령을 단장으로 한 시에라리온대표단이 9·9절 행사 참석차 1988.9.5.~12. 북한을 방문함.
6. 길재경 북한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노동당대표단이 1989.5.7.~13. 시에라리온을 방문한 바, 주요 방문일정은 아래와 같음.
 - 대통령, 제1부통령, 공보장관, 청년장관 등 예방
 - 시에라리온 APC당 중앙위 간부들과 양국 정당 간 협력문제 협의

북한·세네갈 관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9-31 / 20 / 1-51

1. 길재경 북한노동당 중앙위원을 단장으로 한 북한노동당 대표단 2명이 1989.5.13.~20. 세네갈을 방문한바, 방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세네갈 사회당과 북한노동당 간의 회의 개최
 - 양국관계, 한반도 통일, 동서 관계, 남아공 인종차별문제, 나미비아 문제 등 논의
 - 세네갈 국회의장 예방
 -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세네갈 국회의장 초청의사 전달
2. 1989.7월 평양집회에 참가하는 세네갈 선수단(80명) 환송식이 Diouf 세네갈 대통령 참석하에 대통령 궁에서 개최됨.
3. 세네갈 국회의장 일행이 북한 방문 후 1989.7.6. 귀국한 바, 주요 북한 방문일정은 아래와 같음.
 - 김일성 예방(세네갈 대통령 친서전달), 최고인민회의 의장 방문, 평양집회 개막식 참석
4. 북한·세네갈 경제협력의정서가 1989.10.9. 다카르에서 주세네갈 북한대사와 세네갈 경제재무장관 간에 서명됨.
 - 동 의정서는 세네갈의 농지개간(6,138헥타르)사업에 대한 북한의 농지개간 장비·물자공급 조건 및 무이자 차관제공을 주요내용으로 함.

북한·우간다 관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아프리카2과
MF번호	2019-31 / 21 / 1-114

1. 길채경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 등 2명으로 구성된 NRM/NRA 승전 기념일 경축사절단이 1989.1.24.~2.1. 우간다를 방문함.
 - 동 사절단은 우간다 대통령 예방 시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한 바, 동 대통령은 북한의 통일방안을 찬동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의 대우간다 차관상환 연기조치에 사의를 표함.
2. Kategaya 우간다 제1부수상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989.3.13.~18. 북한을 방문한바, 동 방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김일성을 예방하여 우간다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간 협력문제를 협의함.
 - 정준기 북한 부총리 주최 리셉션에 참석하여 우간다가 북한의 남북한 통일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요지의 연설을 함.
3. Elly Tumwine NRA 군사령관이 1989.4.11.~19. 북한을 방문함.
 - 동 군사령관은 방북기간 중 북한 측으로부터 바터무역을 통해 42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류를 수입하고 우간다는 커피·면화·공을 북한에 수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4. 북한 경제대표단 4명이 1989.5.19.~6.5. 우간다를 방문한바, 방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북한·우간다 간 Kilembe 동광산의 일부 복구를 위한 협정 체결
 - 북한대표단장과 우간다 수자원광물장관이 서명
 - 제1부수상 면담
 - 200가구 주택건설지원 등 경제협력증진 문제 협의

북한·영국 관계

생산연도 1985-1989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19-31 / 22 / 1-80

498

1. Robert Parry 등 친북성향의 영국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4명이 1985.7월 북한을 방문함.
 - 영국 외무부 당국자는 주영국대사관 직원에게 상기 영국 하원의원의 북한 방문은 완전히 개인적인 것으로서 영국 정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그들의 여행이 영국 정부의 대북한 정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함.
2. Robert Parry 등 노동당 극좌파 하원의원 10명은 1986.7월 한국에서의 외국인 철수 및 동북아 비핵시대 설치 등 북한의 제의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영국 하원에 제출함.
 - 주영국대사관은 상기와 같은 일부 극소수 좌파 의원들의 선전적 움직임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한국 내 정치정세나 인권문제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을 유발할 우려도 있음을 감안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3. Frank Cook 등 노동당 하원의원 4명이 북한의 초청으로 1986.10.20.~25. 북한을 방문함.
 - 동 의원단은 김일성 예방, 남포댐·개성·판문점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진 것으로 탐문됨.
4. Robert Parry 등 노동당 극좌파 하원의원들은 1986.11.25. 북한의 한반도 비핵시대화 주장을 지지하는 결의안과 건국대 소요사건 관련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각각 하원에 제출함.
5. Robert Parry 등 노동당 친북한 하원의원 10명은 1987.2.11. CILRECO 창설 10주년을 축하하는 동의안을 하원에 제출함.
6. 영국 정부는 1988.11.10. 영국 외교관의 북한 외교관과의 접촉 금지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를 중국 측에 전달한바, 동 조치내용 및 중국 측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 조치내용
 - 영국 정부는 계속적인 남·북한 관계진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영국 외교관과 북한 외교관과의 접촉금지를 완화
 - 동 조치는 한국의 동구권 및 중국과의 접촉증진을 감안한 것
 - 중국 측 반응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모든 조치를 환영하고 영국 측도 남북대화 진전을 격려하여 주기를 기대

북한·소련 관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안보과/북미과

MF번호 2019-31 / 23 / 1-87

1. 소련 직업외교관 출신 Safronchuk 유엔사무차장이 1989.7월부터 약 2개월간의 본국 휴가기간 중 북한을 방문함.
 - 주유엔 북한대사가 동인의 본국 휴가 중 북한을 비공식 방문하도록 초청하여 이루어짐.
2. 일본 외무성 담당관은 1989.11월 주일본대사관 서기관에게 김일성이 가까운 장래에 소련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김일성이 1984.5월 및 1986.10월 중국 방문후 소련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살펴볼 때, 김일성이 금번 중국 방문 시 중국 측과 한반도 정세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면 가까운 장래에 소련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음.

미국·북한 관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32 / 3 / 1-147



1. 미국 상무부는 1989.4.24. 미국의 대북한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인도적 물자의 대북한 상업적 수출을 허용한다고 발표함.
 - 수출 허용취지
 - 한국의 7·7 선언 취지에 따른 미국의 대북한 조치의 일환으로 인도적 물자의 대북수출을 허용
 - 허용 품목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식품 및 농기구, 의류 및 생활용품, 긴급피난용 건축자재 및 수송구, 교육용 기자재 등 인도적 물품

2. 1989.4월 캘리포니아 거주 한국계 미국인이 미·북한 민간교류 관련 6개항을 미국 정부에 문의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회신한 내용임(주미국대사관이 1989.7월 미국 국무부를 통해 확인).
 - 문의사항 및 미국 국무부 답변
 -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한국계 미국인의 북한 방문: 인도적 고려 및 문화교류 차원에서 긍정적 검토 가능
 - 북한 예술인의 공연목적 방미: 1988.10.31.자 대북제재 완화조치에 따라 비자신청 시 긍정적으로 검토
 - 식료품, 의류 및 의약품의 대북한 수출: 상무부의 수출규제규정 개정으로 허용
 - 북한 예술품의 미국 내 수입: 예술품은 허용되지 않음.
 - 미국시민이 미국 내 북한 유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교육기관을 통해 지급 가능
 - 한국계 미국인의 북한 유학: 미국시민의 북한 여행금지는 10년 전에 폐기되어 유학 가능

3. Arthur Hummel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주중국 대사 역임)는 북한 초청으로 1989.10.29.~ 11.2. 방북한 바, 동인의 방북 평가는 아래와 같음.
 - 북한 사회의 개방·개혁 전망은 김일성 생존 시에는 매우 회의적임.
 - 북한의 전통적 등거리 외교를 통한 중국·소련 조정력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보임.

4. Gaston Sigur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1989.11.16. 카네기재단에서 개최된 남북한 정세설명회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함.
 - 북한과의 협상·대화는 힘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는 만큼 한·미국 관계가 더욱 굳건해져야 함.
 - 1989.10.20.~27. 자신의 북한 방문 시 평양에서 미국이 한국의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한국이 원하는 한 계속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미국·북한 학술교류. 전2권 (V.1 1-4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32 / 4 / 1-116

1. 송호경 북한 군축·평화연구소 부소장 등 3명이 1989.2.22.~27. 미국 하와이대학 주관 6개국 학술대회(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소련)에 참석함.
2. 송호경 부소장 등 3명은 1989.3.1.~13.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개최된 북한사회과학원과 미국 스탠포드대학 간 학술회의에 참석함.
3. 1989.4월 개최 예정이던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과 북한 사회과학원 간의 학술회의가 취소됨.
 - 북한 참가자 중 일부가 정부관리의 신분을 위장함에 따라 미국 입국비자 발급이 거부됨.
4. 북한학자 3명(박창곤, 이동삼, 김경하)이 1989.4.4.~14. 하와이를 방문한바, 동인들의 방문 일정은 아래와 같음.
 - 하와이대학 총장 예방, 주의회 방문, 평화연구소 기자회견, 호놀룰루 시의회 방문 및 시장 예방
 - 북한 사회과학원 공개 세미나(4.7.)
 - 학생, 교수 등 150여 명 참석
 - 북한학자 3명이 주제 발표

미국·북한 학술교류. 전2권 (V.2 5-12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

MF번호 2019-32 / 5 / 1-241

1. 미국 카네기재단은 북한학자 4명을 초청, 1989.5.31. 워싱턴에서 남·북한 문제에 관한 비공개 학술회의를 개최함.
 - 회의 주제
 - 한반도 긴장완화
 - 남북통일
 - 북한의 경제발전과 대외협력
 - 참석자
 - 북한 측: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등 4명
 - 미국 측: 전직 관료 및 학계인사 등 26명(국무부 직원 4명은 옵서버로 참석)
 - 회의의 전반적 평가
 - 북한학자들이 종래의 입장을 반복하고 미국 측 참석자들의 비판적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함으로써 토의 부진

2. Simone 미국 하와이대학 총장 일행이 1989.8.25.~9.1.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측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학생·교수 교환연수 등에 관해 협의함.

3. 미국 컬럼비아대학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하는 북한관계 세미나가 1989.9.21. 동 대학에서 개최됨.
 - 미국 국무부 한국과 부과장 및 정보조사국 한국 수석연구관의 발표와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의 발언이 있었음.
 - 동 세미나 종료 후 한국과 부과장 및 연구관과 북한대표부 차석 간에 접촉이 있었음.

북한·아프리카 관계

생산연도	1989
생산과	아프리카1과/아프리카2과
MF번호	2019-32 / 6 / 1-60

1. 김형률 북한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대표단이 1989.7~8월 아래와 같이 아프리카를 순방함.

- 세네갈(7.19.~8.2.)
 - 외무차관 예방, 양국간 실무회담
- 시에라리온(8.2.~6.)
 - 대통령 대행 예방, 외무장관 대행 면담, Binkolo사업 건설현장 시찰
- 가봉(8.10.~13.)
 - 외무차관 면담
- 카메룬(8.14.~19.)
 - 국회의장, 외무장관, 상공장관, 문공장관, 농업장관, 사회보장·여성장관 예방
 - 외무장관 주최 만찬
 - 산업시찰 및 항만시찰

2. 정태화 주마다가스카르 북한대사가 1989.11.20. 겸임국 코모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코모로는 1983년 랑군 사태 후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하였으나, 마다가스카르의 중재로 북한대사가 신임장을 제정하게 됨.

북한·아시아 관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서남아과

MF번호 2019-32 / 7 / 1-134



1989년 중 북한과 아시아국가 간의 관계 동향임.

1. 네팔

- 시레스타 네팔 수상은 2.25. 주네팔 북한대사 접견 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의 노력 지지 언급
- 주네팔 북한대사관은 4.14. 김일성 생일 기념리셉션을 개최

504

2. 방글라데시

- Ahmed 방글라데시 부수상은 1월 방북하여 김일성 등을 면담
- Mahmud 외무장관은 8월 북한을 방문하여 김영남 외교부장 등과 면담, 항공협정 시행문제 등 협의

3. 인도

- 2.14. 뉴델리에서 김정일 생일 계기 문화행사의 밤 등 개최
- 북한 의원사절단(단장: 양형섭)이 1989.4.19.~24. 인도를 방문하여 간디 수상 등 예방

4. 파키스탄

- 북한 무역상품전람회가 3.18. 라호르에서 개최되어 파키스탄 국제사업동력부 국무상이 참관
- 정준기 북한 부총리는 1989.5.22.~29. 파키스탄을 방문, 신드주 수석장관 등 면담
- 북한 의원사절단(단장: 양형섭)이 1989.7.19.~24. 파키스탄을 방문, 부토 수상 등 면담

5. 태국

- 태국 외무부 국장은 북한의 통상대표부 인원 증원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4.26. 언급
- 태국 수상실장관을 대표로 하는 45명의 대표단이 평양축전 참가차 6.28. 평양 도착

북한·중동 관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근동과/마그레브과
MF번호	2019-32 / 8 / 1-133

1989년 중 북한과 중동국가 간의 관계 동향임.

1. 리비아

- 정정일 북한 무역대표부 부부장은 1989.5.28. 리비아를 방문, 해양장관을 면담
- 리비아와 북한 간 외무장관회담이 1989.10.4. 유엔에서 개최되어 경제사회공동위 의제에 합의

2. 모로코

- 모로코와 북한은 2.13.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
- 모로코 청년학생대표단은 평양축전에 참가하였으나 폴리사리오의 참가로 축전을 보이콧 함.

3. UAE

- 두바이국제박람회(2.27.~3.10.)에 북한이 참가, 인삼차, 도자기 등을 전시
- UAE 청년스포츠 최고위원회는 제13차 세계청년축전에 불참하기로 결정

4. 요르단

- Mamser 청년부차관은 제13차 세계청년축전에 불참할 방침임을 2.21. 언급
- 북한대사관은 9.4.~7. 요르단대학에서 연례사진전 및 9·9절 기념리셉션 개최

5. 이란

- 정송남 북한 대외경제부장은 1.1. Zanganeh 이란 에너지장관 면담, 북한의 댐 건설 및 농업용수 개발기술자 파견에 관해 합의
 - 또한, 1.4. Foruzesh 이란 국토건설장관과 회담, 어로, 조선 등 분야 양해각서를 서명
- Foruzesh 장관은 공동위원회 참석을 위해 45명의 대표단을 인솔하여 5월 북한을 방문
- 하메네이 이란 대통령은 1989.5.14.~17. 북한을 방문함.
 - 일정: 김일성과 2차례 회담, 서해 갑만 등 항만시설, 평양축전 스타디움 등 시찰
 - 협의사항: 어업, 광물분야 등 협력의정서 체결 및 정치적 협력
- 이란 국회사절단은 11월 북한을 방문,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의장 등을 면담
- Rezaie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1989.12.3.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제 무기구입 등에 관해 협의하고 방위협력협정을 체결



6. 이집트

- 북한 최고인민회의의장단은 1989.2.26.~3.2. 이집트를 방문,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국회의장, 외무장관 등을 면담
- 이집트 청년체육부는 6.28. 기자간담회에서 평양 세계청년축전 불참 결정은 불법단체의 개별 참가 문제가 원인이라고 발표

북한·중미 관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미과
MF번호	2019-32 / 9 / 1-104

1989년 중 북한과 중미국가 간의 관계 동향임.

1. 가이아나

- 주가이아나 북한대사는 1986.3~89.5월 재임 후 이임함을 평양방송이 보도
- Hoyte 가이아나 대통령은 이임 접견에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입장을 지지

2. 니카라과

- 북한은 니카라과에 1989년초 고속정 6척을 인도

3. 도미니카공화국

- Infante 도미니카 상원 외무위원장은 북한이 8월 상원의원 5명의 방북을 초청하였으나 외교관계 부재 등을 이유로 수락을 거절함을 언급
- 친북단체인 CILRECO지지위원회는 임수경 및 문규현 구속항의 및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사관에 발송

4. 멕시코

- 북한은 2.3. 세계청년학생축제선전 전시회 개막식 및 2.10. 주체사상설명회를 개최
- CILRECO 멕시코 청년위원회는 4.15. 김일성 생일 기념행사를 개최
- 북한은 주멕시코 상주대사관의 개설을 요청하면서 불가 시에는 통상대표부 개설안을 거론하였다고 외무부 태평양국 부국장이 9.29. 언급

5. 수리남

- 김창호 북한 체신부장 등 3명이 1989.8.22. 수리남 방문, 군참모총장, 국민민주당 총재 등을 면담

북한·남미 관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남미과

MF번호 2019-32 / 10 / 1-101



1989년 중 북한과 남미국가 간의 관계 동향임.

1. 베네수엘라

- 차봉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은 1989.2.2. 페레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 북한 사회과학원 소속 요원들은 2.23.~25. Zulia대학에서 독립, 평화 및 우의를 위한 중남미 주체사상토론회 개최
- 친북협회는 북한·베네수엘라 문화연구소를 설치
 - 설치시기: 1989.1월
 - 목적: 학술, 문화, 예술, 홍보 및 교류
 - 구성: 집행위원 3명, 자문위원 4명 등 대학교 소속 친북인사
- 대표단 53명이 7월 평양축전 참가

2. 볼리비아

- Ramos San Andres 대학 총장을 단장으로 19명의 대표단이 7월 평양축전에 참가

3. 에콰도르

- 북한 사회과학원 사절단 3명이 3월 에콰도르를 방문, 대학 총장 면담 및 주체사상 세미나 개최
- 24명의 국회의원 및 친북인사가 임수경 석방 및 북한의 통일방안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대사관에 발송
- 사회과학원 사절단은 1989.11.6.~10. 에콰도르를 방문, 친북협회장, 국회의원 등을 면담

4. 우루과이

- 북한요원이 1989.9~10월 우루과이를 방문, 양국간 교류협력을 추진

5. 콜롬비아

- 한국전 참전용사회는 대북한 수교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1988.12.28.자 서한을 Barco 콜롬비아 대통령에게 발송
- Acosta 콜롬비아 하원의원은 12월 개인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

최수현 북한 외교부 부부장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방문, 1989.4.14.-20.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32 / 11 / 1-15

최수현 북한 외교부 부부장은 1989.4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함.

1. 말레이시아

- 기간: 1989.4.14.~17.
- 일정
 - 4.15. Fadzil 말레이시아 외무부 부장관 면담
 - 4.16. 말라카 관광, Fadzil 부장관 주최 만찬
 - 4.17. Abu Hassan 말레이시아 외무부장관 예방
- 면담 내용
 - 하라레 비동맹회의 관련 북한입장 설명 등

2. 인도네시아

- 기간: 1989.4.17.~20.
- 방문 성격
 - 인도네시아 정부 초청 공식 방문
- 일정
 - 4.18. Alatas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면담, Louhanapessy 인도네시아 정무차관보 면담
- 면담 내용
 - Alatas 장관의 방북 초청장 전달
 - 비동맹회의 의제 등 협력문제 논의
 - 평양 세계청년축전 참가 요청
 - 남북한 문제 논의

북한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일본 방문, 1983.4.3.-6.8.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32 / 12 / 1-148

북한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1983.4.3.~6.8. 일본을 방문함.

1. 경위

- 북한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일조문화교류회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며, 일본 NHK 및 아사히 신문이 후원함.
 - 동 예술단은 이상태 북한 문화예술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100명으로 구성
 - 23개 도시에서 56회 공연

510

2. 재외공관 보고

- 일본 주재 공관들은 관할지역 내에서 개최된 북한 평양학생소년예술단 공연 및 일본 관객들의 반응, 일본언론의 보도 등에 관해 본부에 보고함.

일본·북한 경제 관계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32 / 14 / 1-293

일본·북한 간 경제관계 동향임.

1. 일본·북한 간 무역동향

- 1989.3월말 기준 일본·북한 간 수출입통계(요코하마 세관 통관 기준)
- 일조무역회 발간 '일·조 무역' 1989.2~3월호 및 1989.4월호
- 일조무역회 발간 1988년 일·북한 간 무역통관통계

2.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작성 북한 경제동향

- 세출예산
 - 1988년: 316억 6천만 원(전년 대비 5.2% 증가)
 - 국방예산 점유비: 12.2%
- 경제계획 주요목표
 - 1987~93년까지의 제3차 7개년계획의 실적을 공표치 않았으나, 평양축전 기간 중 외국기자단에 부분 공표
- 무역
 - 1987년: 수출입합계 41억 달러(수출: 16억 달러, 수입: 25억 달러)
 - 무역적자 누적액: 30억 달러
 - 소련과의 무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중국 및 일본과의 무역은 감소 추세
- 평가
 - 제2차 계획기간(1978~84년)중 실적은 거의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내용은 과대달성으로 공표
 - 에너지분야인 전력, 석탄생산 실적이 저조하여 경제성장의 가장 큰 장애요인
 - 곡물과 수산물의 저조한 실적은 식생활의 어려움을 표시

3. 북한 경제동향(1989.9.8. 닛케이 보도)

- 북한의 최근 4~5년간 경제불황으로 미루어 제3차 7개년경제계획(1987~93년)의 생산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
- 경제부진의 주요인으로는 생산설비의 노후화 및 기술낙후, 높은 군사비, 외채 등
- 북한 지도층은 경제불황 타개책으로 대외경제개방의 필요성은 인식하나 부르주아사상의 유입과 사회혼란을 우려



4. 북한 경제대표단 일본 방문

- 덕천 자동차공장 기술연수단
- 기간: 1989.10.2.~11.7
- 투자유치경제대표단
- 기간: 1989.11.20.~12.11.

북한 정세 동향

생산연도 1987-1989

생산과 북미과

MF번호 2019-32 / 15 / 1-74

1987~89년 중 북한 정세 동향임.

1. 미국 FBIS 평가 북한 권력구조 변동

- 1984~85년간 김중린의 권력구조 내 부상과 실각의 반복은 북한집권층 내 대남, 대미정책과 관련된 논란을 시사
- 1987.3월 김중린이 중앙통신사장 취임으로 재등장하고 4월 정치국 개편 이후 권력구조 내 변화 초래
- 량군 사태 당시 대남사업 책임자였던 김중린의 재등장에 주목할 필요

2. 1988년도 김일성 신년사

- 요지
 - 대내 경제: 1988년도 경제과업은 전력, 석탄, 금속공업의 토대 강화 및 10대 목표달성
 - 대남 및 통일관계: 남한 정세, 한국의 대통령선거 결과 평가, 통일을 위한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및 긴장완화, 남북불가침선언 채택 필요 등
 - 대외정책: 핵전쟁의 근원제거 및 세계평화수호 필요, 신국제 경제질서 수립 주장
- 평가
 - 북한 정권수립 40주년의 의의 강조
 - 사회주의 건설 및 제3차 7개년계획의 중점사업 수행을 독려하면서도 구체적 정책은 미제시

3.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3차 회의 개최

- 기간: 1989.4.5.~7.
- 주요 논의사항
 - 1987년도 예산결산 및 89년도 예산안 보고 및 토론
 - 1988년도 예산: 318억 5천만 원
- 평가
 - 예산증가를 5% 하향 책정은 대내외 자본조달의 어려움 반영

4. 1989년도 Amnesty International 보고서

-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경제정책을 비판한 대학교수 및 학생의 구금 및 강제노동 수용소 내 10만명 수감 현황을 비난
-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조치를 환영하는 한편, 친북성향 학생 및 언론인 구속에 대한 우려표명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관련 미국 측 반응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북미과/유엔정책과

MF번호 2019-32 / 17 / 1-15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 등임.

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미국 국무부 반응

- 미국 국무부는 1989.9.1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보도지침을 마련
- 보도지침 내용
 - 통일방안은 독립, 평화 및 민주주의에 기초한 것으로 미국은 이를 지지
 - 미국은 한국의 통일목표에 대해 공감
 - 금번 통일방안은 궁극적 통일을 위한 실제적, 전환적 시스템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514

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관련 북한 측 반응에 대한 미국의 견해

- 북한의 반응은 긍정적 요소를 내포하는 것으로 분석
- 한국은 기술적으로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 북한 측이 남북정상회담 제의를 일축하다가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 주목할 필요

3.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홍보

- 주유엔대표부는 1989.9.11. 보도자료 제작 및 배포
- 주시에라리온 한인회는 9.14. 추석 모임 계기에 설명회 개최

북한 적십자사의 수재의연품 제공 제의에 대한 대책. 전3권 (V.1 기본문서(9.5.-17.))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19-33 / 4 / 1-216

1. 북한은 1984.9.8. 평양방송을 통해 한국에 대한 북한적십자사 명의의 수재의연품 전달을 제의해 옴.
 - 제공물품 내역: 쌀 5만 석, 천 50만 미터, 시멘트 10만 톤, 기타 의약품
2. 정부는 1984.9.14.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일 것임을 발표함.
3. 국제적십자사연맹은 1984.9.3. 수해구호지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제의하여 왔으나, 대한적십자사는 자체적으로 수해복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사양함.
4. 외무부는 정부의 북한 수재의연품 제의 수락과 관련 아래와 같이 조치함.
 - 주한 미국·일본대사관에 사전통보(1984.9.13.)
 - 미국 측 반응: 수락환영 및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 기대
 - 전재외공관에 주재국 정부, 언론, 정계 등 각계에 홍보하도록 지시(1984.9.14.)
 - 제의 수락은 정치, 경제 등 제반분야에서의 압도적 대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의연한 조치
 - 주제네바대사에게 국제적십자사연맹 및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동 수락내용을 통보하도록 지시
 - 주유엔대사에게는 유엔사무총장에게 통보하도록 지시

북한 적십자사의 수재의연품 제공 제의에 대한 대책. 전3권 (V.2 기본문서(9.18.-10.16.))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19-33 / 5 / 1-267

1.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1984.9.18. 성명을 발표, 북한 측이 9월 중 물자를 완전 인도할 구체적 물자운반계획을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함.
2. 북한은 1984.9.23. 평양방송을 통해 아래와 같이 보도함.
 - 남조선 수재민들에게 줄 구호물품에 대한 품질검사사업을 전반적으로 끝냈음.
 - 북한 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위원회에 품질검사를 위한 요원의 평양파견을 요청한바 있음.
 - 구호물자를 육로로 판문점에 실어갈 자동차수송대가 편성됨.
 - 전국 각지에서 구호물자를 실은 열차, 자동차가 출발지를 향하고 있음.
3. 북한은 1984.9.25. 판문점을 통해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옴.
 - 구호물자 수송 일자
 - 1984.9.29.~30.
 - 인도 장소별 품명 및 물량
 - 판문점: 쌀 5만 석, 천 50만 미터, 의약품 14종
 - 인천항: 시멘트 65,000톤
 - 북평항: 시멘트 35,000톤
 - 기타사항
 - 북한 측 인원의 신변안전과 배, 자동차의 안전운행 보장각서 요구
4. 북한 측 선박은 북한구호물품 중 시멘트의 마지막 하역작업을 완료하고 1984.10.4. 인천항을 출발, 북한으로 귀환함.

북한 적십자사의 수재의약품 제공 제의에 대한 대책. 전3권 (V.3 해외반응)

생산연도	1984
생 산 과	특수정책과
MF번호	2019-33 / 6 / 1-356

1984.9월 한국의 북한적십자사(북적) 명의 수재의약품 제의 수락과 관련하여 재외공관이 보고한 해외 반응임.

1. 해외반응 개요

- 금번 북적 물자 인도·인수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임.
 - 남북한 상호간 교류진전 및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것임.
- 북한의 제의는 량군 사건으로 실추된 대외이미지 만회 및 대미국·일본 관계개선을 위한 대외선전 목적이 있음.
 - 한국 측의 수락 배경은 한반도의 긴장완화 추구하고 대중국·소련 관계개선 및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그 목적이 있음.
- 각국 정부관계자 및 언론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함.

2. 각국 주요 논평

- 미국 국무부
 - 한국 측의 수락 결정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 측의 입장을 표현한 적극적 반응으로 환영함.
- 일본 외무성 관계관
 -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환영함.
- 프랑스 외무성 관계자
 - 한국의 수락 결정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한 관계해소에 도움을 줌.
- 독일 외무성 관계자
 - 남북한 접촉구축이라는 한국의 정책에 부응한 것이며 차원 높은 결정임.
- 기타국가 외무성
 - 싱가포르, 스리랑카, 파키스탄, 칠레, 에콰도르,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시에라리온 외무성도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함.

3. 국제적십자연맹 및 국제적십자위원회 반응(9.14.)

- 북한이 8.20. 한국의 대북한 생활물자 제의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의 제의를 수락한 한국 측의 용단을 높이 평가
- 한국 측의 수락은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결정으로 보임.

남북교류협력 사업

생산연도 1989

생산과 정보2과

MF번호 2019-33 / 7 / 1-91

1989년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임.

1. 남북한 민간경제협력에 대한 미 국무부 반응

- 미 국무부는 정주영 회장의 방북 및 남북한 민간경제협력 관련, 아래와 같은 보도지침을 마련하여 문익에 대응
 - 무역 및 경제협력이 남북한 대화 증진 및 한반도 긴장완화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지지
 - 합작사업의 실현 시 남북관계의 현저한 발전을 기대

518

2. 남북 합동미술전 개최

- 아사히신문사 주최로 도쿄 등에서 개최 후, 서울 및 평양 개최 추진
- 전시명: 현대코리아미술전
- 전시 내용: 남북한 회화 100점, 도자기 40점, 고미술품 20점
- 외무부는 비정치적 민간차원의 교류로서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회보

3. 경제, 체육분야 교류에 관한 사항

- 남북한 남녀배구 대표팀 정기교환 경기
 - 대한배구협회는 1989.9월 홍콩 개최 제5회 아시아 여자배구선수권대회 참가 계기 교류 제의 예정
 - 체육부는 교류 제의 자제 의견
- 제7차 외국 무연탄 도입 심의
 - 외무부는 7·7 선언 및 '남북교류협력 기본지침'에 일치하므로 이의없다고 하면서도 무연탄 도입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가능성을 지적

남북한 군축

생산연도 1984-1989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9-34 / 1 / 1-296

1. 한국과 미국은 1984.10월 북한의 공격전담사단 전방배치에 관한 한·미국 간 합동홍보지침을 마련함.
 -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위협적인 상황을 국제사회에 공개하는 것이 북한의 도발기도를 좌절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
2. 소련 알마아타(Alma Ata)에서 1988.6.23.~25. 개최된 미국·소련 학술회의에서 양측은 한반도 안보강화방안을 공동제안함.
 - 학술회의 주최
 -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 소련과학원의 극동문제연구소
 - 공동제안 요지
 - 비무장지대 주변의 긴장 및 분쟁 완화 방안 모색
 - 지상전투부대와 전차·대포 등 장비 감축 협정
 - 핵무기 철수 및 관계국 간 한반도 내 핵 재배치 방지책 마련
 - 한반도 내 무기반입과 국산 병기수준 종류 제한
3. 대한적십자사가 1989.1월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를 촉구한 것과 관련, 북한 측은 2.15. 아래 요지의 대남 서한을 전달해 옴.
 - 팀스피리트 훈련과 같은 대대적인 전쟁연습이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동 훈련이 중지되고 긴장상태가 완화되면 언제든지 남북적십자회담을 계속해 갈 것임.
4. 본 문서철에는 1989.7월 McCain 미국 상원의원이 공개한 '남북한 군사력 및 아태지역 내 소련 군사력 현황자료, 주요 군축문제 현황과 아국입장(1989.10월 외무부 작성), 주요국가의 무기 판매현황 보고서(1987.5월 주미국대사관 작성) 등이 수록됨.

대공산권 학술교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34 / 2 / 1-61

1988~89년도 대공산권 학술교류에 관한 내용임.

1. 대학생 공산권 연수추진

-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25명)
 - 1989.2.16.~27. 헝가리 연수
- 경희대 동북아연구소 및 건국대 중국문제연구소(50명)
 - 1989.2.10.~21. 중국 연수

2. 공산권 연수 관련 의견 문의

- 문교부는 하계 및 동계방학 중 각기 1,500명의 대학생 및 교사에 대한 구주 및 아주지역 공산권국가 연수계획에 관해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
- 외무부는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방문에는 이의 없으나,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경우는 우리와의 관계진전을 보아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989.4.15. 회신

3. 정부합동답사단 파견

- 목적
 - 대학생 및 교사의 공산권 연수의 효과적 운영
- 기간
 - 1989.5.1.~5.10
- 답사단 구성
 - 3개 반으로 구분(헝가리·유고슬라비아반, 중국반, 베트남·미얀마반)
 - 각반별 5인으로 구성

북방정책 추진. 전8권 (V.3 북방외교추진본부 설치)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동구과

MF번호 2019-34 / 5 / 1-157

1988~89년 북방외교추진협의회 설치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북방외교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9.2월 북방외교추진본부를 설치함

- 구성
 - 본부장: 제2차관보
 - 위원: 아주국장, 미주국장, 구주국장(간사), 국제경제국장, 통상국장, 정보문화국장, 영사교민국장
- 임무
 - 북방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대북방 민간경제협력의 외교적 활용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도모
 - 북방외교 언론대책 및 홍보대책 수립·시행
- 운영
 - 동구과내에 북방외교추진본부 운영(반장: 동구과장)
 - 격주 화요일 정기회의 개최

2. 외무부는 외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북방외교추진협의회 설치를 위하여 1989.3.31. '북방외교추진협의회 규정(대통령령 제12,671호)'을 마련함.

- 목적 및 기능
 - 북방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개선 및 교류·협력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조정
 - 북방교류·협력추진 지원 및 주요사항 관계부처 간 협조
- 구성
 - 외무부장관(위원장) 및 경제기획원, 외무부, 국방부, 문화공보부, 국토통일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전기획부 차관급 인사

북방정책 추진. 전8권 (V.4 북방외교추진협의회 1)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34 / 6 / 1-230

1989년 중 북방외교추진협의회 개최 현황임.

1. 제1차 북방외교추진협의회(4.25.)

- 참석자
 - 외무부장관(위원장),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국방부, 상공부, 문공부, 통일원차관, 대통령 정책보좌관, 총리실 행정조정실장, 안기부 제2차장
- 북방외교추진협의회 운영세칙 및 북방교류협력 기본지침 의결
 - 4.27. 실무위를 개최하여 기본방향에 따른 기본지침 작성 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 시행
- 분야별 이익보다는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조정역할 필요성 검토
- 정치·경제 불가분 북방정책의 기본방침에 따라 국별·분야별 대책 마련

2. 제1차 북방외교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4.27.)

- 주재: 외무부차관
- 제1차 북방외교추진협의회 회의에서 의결된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방향에 따른 기본지침안 작성

3. 제1차 남북 및 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4.29.)

- 주재: 국무총리
-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안' 의결

북방정책 추진. 전8권 (V.5 북방외교추진협의회 2)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동구과

MF번호 2019-34 / 7 / 1-161

1989년 중 북방외교추진협의회 개최 현황임.

1. 제2차 북방외교추진협의회 실무회의(5.11.)

- 중국 및 소련과의 영사기능 수행문제 대처방향 논의
- 한국의 중국 및 소련과의 사무소 개설문제 및 대처방향 논의

2. 제3차 북방외교추진협의회 실무회의(12.8.)

- 대한항공, 소련항공사 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항공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하고 한·소련 간 정부 수준의 항공협정 체결 추진 결정
- 언론사무소, 여행알선사무소등 상주사무소 개설문제도 항공사무소 개설 문제와 같이 정부 간 공식관계와 맞추어 추진

523

대한민국외교자료해집

북방정책 추진. 전8권 (V.6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34 / 8 / 1-246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작성 관련 내용임.

1. 1989.4월 외무부장관 주재 제1차 북방외교추진협의회(4.25) 및 외무부차관 주재 제1차 실무위원회(4.27)를 개최하여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함.

- 관련부처 간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짐.
- 적용대상국에서 최근 수교한 헝가리는 제외함.

524

2. 1989.4.29.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차 남북 및 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에서 동 기본 지침이 의결되어 국무총리 훈령 제232호로 발령됨.(5.20)

- 그동안 정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제정·운영해오던 대북방교류 관련 각종 규정 및 지침을 종합 정비함.
- 북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특히 국민들의 중국, 소련 등 북방 사회주의국가 여행절차를 완화·간소화함으로써 교류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 내용은 기본원칙, 북방사회주의 국가여행, 통상교류 및 일반교류, 협력사업 등
- 국가이익과 합치, 평화통일에 기여, 안보위해에 대한 철저대비, 국민합의에 기초 등을 기본원칙으로 함.

북방정책 추진. 전8권 (V.7 참고자료)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34 / 9 / 1-172

1. 외무부는 1988.5.3. 정책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북방 외교정책에 대한 학계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언론, 강의, 외국학자 면담 등을 통해 홍보함.
 - 북방정책 개념: 대중국, 소련 및 기타 공산권국가, 북한 정책을 의미
 - 목표: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및 경제 등 실익 추구
 - 기본방향: 중국, 소련 등 공산권국가와의 관계개선 노력 적극화, 여타국에 대한 확산 추진, 전통적 우방국과의 협조 유지
 -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추구
 - 국별 세부 추진 방안을 제시
2. 외무부장관 국방대학원 강의 자료(1989.4.10.)
 - 남북한 관계와 북방외교, 북방정책 추진 배경 및 현황
 - 북방정책 제1차 연도 추진성과 종합 평가
3. 북방외교 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자료(1989.5.11.)
 - 한·중국 간 사무소 개설문제
 - 중국·소련과의 영사기능 수행문제 대처 방향

북방정책 추진. 전8권 (V.8 대북방 경제정책 추진)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34 / 10 / 1-187

1. 정부는 1988.10.12. 국무회의를 통해 경제기획원 주도로 대북방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전담조직 (대외경제조정실 제4협력관실)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대외협력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체제를 정비함.
 - 동 위원회에 북방경제정책 심의·조정 기능 추가
 -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 설치 근거 신설
2. 경제기획원은 1988.12.21. 개최된 대외협력위원회 결과에 따라, 1989년도 대북방경제정책 추진계획 수립 방안을 작성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함.
 -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중국, 소련, 동구 등 권역별 경제협력 추진전략 수립
 - 민간주도 경제교류 원칙에 부합되도록 관련 제도 정비
 - 출입국, 교역·투자 등 경제교류 규제 완화 및 금융·보험 등 제반 지원제도 개선
 - 미수교과과의 계약 완화를 위한 무역사무소 설치 등 협력기반 구축에 중점
3. 1989년 중 대북방경제정책 추진 관련 실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됨.
 - 경제활동 목적 공산권 출입국 신청 지침 제정 문제(1.13.)
 - 대북방경제협력 추진체계 정비방안 및 경제교류협력 전략 수립(3.2.)
 - 대북방경제협력 사업추진 지침 마련(3.15.)

대동구권 관계 개선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34 / 11 / 1-242

1988~89년 중 대동구권 외교정책 관련 내용임.

1. 1988.1.30. 외무부차관 주재 유관기관 국장급이 참석한 '대동구권 관계 개선 문제'를 개최하여, 정책방향과 언론문제 등을 협의함.

- 무분별한 언론 보도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언론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 '공산권국가에 관한 보도 요강'(문공부 예규, 88.1.1. 시행) 철저 준수 필요
- 부처 상호간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가 중요한바, 외무부 중심으로 정보교환 협조 필요

2. 외무부는 관계기관 및 재외공관 의견조회를 거쳐 1988.2월 아래와 같이 대동구권 외교정책을 마련함.

- 기본방향: 점진주의 접근방법에 의한 문호개방정책 지속추진, 중점대상국에 대한 집중노력과 여타국으로의 확산, 전통우방국과의 협조유지
- 세부방안: 대공산권에 대한 문호개방 재천명, 외교관 접촉 적극화, 우방국을 통한 간접접촉 활용, 88 서울올림픽 계기 교류증진 가속화
- 제도개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조정·협조 체제 정립, 대동구 교류 관련 업무지침 정비
- 언론대책: '공산권국가에 대한 보도요강'(문공부 예규)의 엄격한 시행

동구권 교섭창구공관 지정 및 활동강화

생산연도 1983-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34 / 12 / 1-166

동구권국가와의 관계개선 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1983~89년 중 대동구권 교섭창구공관 지정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80.10월부터 책임공관제를 시행한바 있으나, 대동구권 관계개선 활동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1983.2월 교섭창구공관의 일원화를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지정함.

- 소련: 주유엔대표부, 주일본대사관
- 헝가리: 주제네바대표부
- 체코: 주오스트리아대사관
- 동독: 주독일대사관
- 루마니아: 주인도대사관
- 불가리아: 주바그다드총영사관
- 폴란드: 주베를린총영사관

2. 외무부는 1985.11월 '동구권 교섭창구공관 제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재외공관에 활동 강화 및 결과 보고를 지시함.

- 창구공관별 해당국가와의 대화채널 구축 및 접촉 활동 강화
- 해당 국가 주요 정세 및 대북한 교류 등 실태 등 조사
- 대동구 관계개선 추진 및 정책수립 관련 정책 건의

3. 1987.4월 외무부는 동구권 일부 국가의 태도변화 및 공관 현지사정에 따른 교섭창구공관의 신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점대상국가(헝가리, 동독, 유고슬라비아담당 창구공관 복수 지정, 소련담당 창구공관 다원화 등 대동구권 창구공관을 일부 조정함.

4. 1988.7월 외무부는 접촉사례 및 상대국의 호응도, 주요 교류실적 등을 감안하여 동구권 교섭 창구공관을 재지정함.

- 소련: 주유엔대표부, 주일본·미국·영국·핀란드대사관
- 헝가리: 주제네바대표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 유고슬라비아: 주이탈리아·호주대사관
- 폴란드: 주독일·영국·일본대사관
- 동독: 주독일·일본대사관
- 불가리아: 주벨기에·싱가포르대사관
- 체코: 주오스트리아·태국대사관
- 알바니아: 주그리스대사관

공산권·특정국가에 대한 여행제도 지침 및 개선 방안. 전3권 (V.1 1988.7-89.4)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영사과
MF번호	2019-34 / 13 / 1-249

공산권국가와의 교류 확대로 공산국가 출입국 관련 제도를 정비함.

1. 친척방문 목적의 중국 방문 절차 등 간소화(1989.1.4. 시행)

- 친척방문 목적의 중국 방문 및 일시 방한 중국동포 체류연장 신청의 경우, 외무부 여권과에 접수된 서류처리 시 아주국을 거치지 않고 여권과에서 바로 안기부와 협의하여 처리

2. 1989.1.13. 경제활동 목적 공산국가 출입국 관련 법령개정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관계 부처회의가 개최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회의개최 배경
 - 1988.8월 대중국 경제교류 업무 전담 상설기구 설치 관련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북방경제 민관창구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IPECK(민간경제협의회, 민경협)로 이관
 - 민경협의 법적 근거없는 출입국 관련 업무 수행에 따라 민원인 혼선 야기
- 회의 내용
 - 북방경제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외무부 등이 민경협의 출입국 업무 수행에 협조해 주기 바라며, 관련 법령정비를 조속 추진 예정
 - 미수교국 여행허가 업무는 외무부 고유권한인바, 경제기획원의 미수교국 출입국 관련 법령 정비 시 외무부와 협의 필요

3. 지정 미수교국가 국민 등에 대한 입국허가절차 간소화(1989.2.1.)

- 미수교국가 국민, 동 국가 거주 무국적자 및 북한 방문자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을 재외 공관장에게 위임

4. 1989.2.1.자로 헝가리와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함에 따라 동일자로 여행허가 대상국에서 헝가리를 제외함.

공산권·특정국가에 대한 여행제도 지침 및 개선 방안. 전3권 (V.2 1989.5-7)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영사과

MF번호 2019-35 / 1 / 1-134

1. 외무부는 1989.4.29. 개최된 제1차 남북 및 북방교류협력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북방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총리훈령 제232호, 1989.5.20.)시행에 의거하여, 7월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함.

- 재외공관장에게 여행허가권 부여
- 복수여행허가 인정
- 여행허가대상국은 14개 미수교 북방사회주의 국가로 지정
- 거주여권 또는 영주권 및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사증 소지자에게 여행신고제 적용
- 북방교류협력 기본지침에 의거 위반자 행정제재

530

2. 외무부는 1989.5월 중국 천안문 사태 악화와 미수교 상태에서 한국인 보호방안이 없음을 감안하여 교통부 및 미국, 일본, 홍콩 등 주요공관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중국 방문 자제조치를 시행함.

공산권·특정국가에 대한 여행제도 지침 및 개선 방안. 전3권 (V.3 1989.8-12)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북아2과/영사과

MF번호 2019-35 / 2 / 1-91

1. 미수교 북방사회주의 국가 및 특정국가 여행제도 보안을 위하여 여권법 시행규칙이 1998.9.28.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됨.
 - 미수교 북방사회주의 국가에 대해 1년 범위내에 복수여행 허가
 - 해외주재 상사원, 특파원, 국제기구 근무자들에 대한 여행허가는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재량 부여
 - 거주여권, 영주권, 장기체류사증 소지자는 여행신고제 적용

2. 1989.10.26. 외무부는 상기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특정국가 복수여행허가 규정과 관련하여 허가기준지침 제정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을 문의함.
 - 허가대상자, 기간, 신고, 사후관리 등 방법, 절차 등 상세 규정 필요
 - 복수여행허가 타당성 검토를 위해 일정기한 전 신청, 방문국 입·출국 시 주재 정부대표기관 신고 등 규제·통제 관련사항 마련 필요
 - 특정국가로의 무단 여행이 허가제도 미인지로 발생한 경우 등에 비추어 동 제도의 홍보강화와 병행하여 추진 필요

3.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에 편승하여 중국 등 특정국가를 무단여행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대책으로 관련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바, 외무부는 1989.11월 이와 관련하여 관련부처 의견을 조회함.
 - 현 여권 발급제한기한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검토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법무부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필요

비동맹 정상회의, 제9차. Belgrade(유고), 1989.9.4.-7. 전6권 (V.1 기본대책 및 각국 지지교섭)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35 / 3 / 1-265

제9차 비동맹 정상회의 기본대책과 지지교섭에 관한 내용임.

1. 회의 개요 및 기본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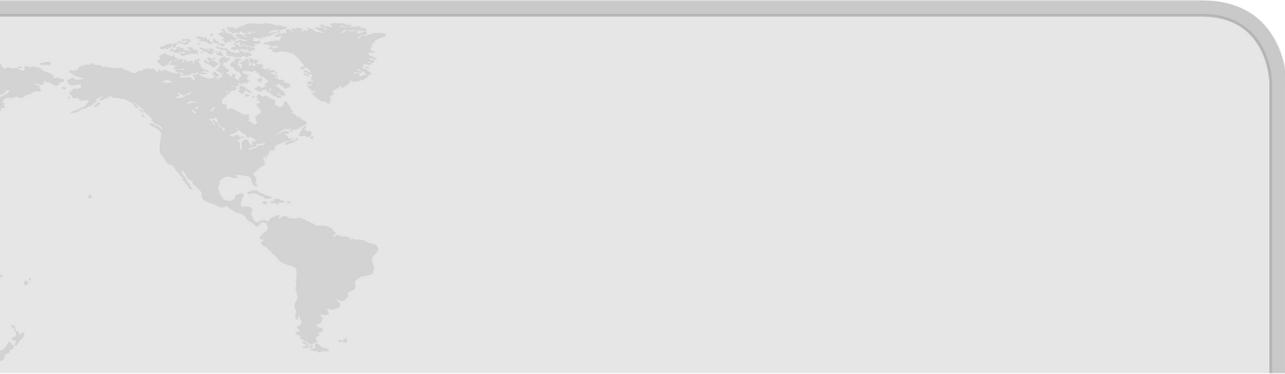
- 회의 장소: 베오그라드(유고슬라비아)
- 회의 일정
 - 1989.8.31. 고위급 실무회의
 - 1989.9.1.~2. 외상회의
 - 1989.9.4.~7. 정상회의

2. 비동맹 정상회의 대책

- 기본 입장
 - 7·7 대통령 선언에 따라 비동맹에서의 남북한 간 소모적 대결 지양
 - 비동맹의 한반도 문제 취급 불원
 - 남북한 당사자 간 해결 입장 제시
 - 북한의 편파적 주장 삽입 기도 저지
- 세부 방향
 - 비동맹회의의 한반도 문제 토의 지양 추진
 - 주요 우방국을 대상으로 지지 교섭 활동
 - 주최국 유고슬라비아와의 협조관계 구축
- 세부추진 대책
 - 비동맹회원국 대상 교섭 시행
 - 비동맹 동향 파악
 - 북한의 비동맹 외교동향 파악
 -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교섭단 파견

3. 지지교섭 활동(1989.1~8월)

- 1.12. 외무부는 비동맹회의 개최일자 등을 파악하도록 주유엔대사에게 지시
- 2.23. 주유엔대사는 1~2월 중 관련국 대사들과의 면담 결과보고
- 3.7. 외교안보연구원은 유고슬라비아 자그레브대학 교수 초청 간담회 개최
- 3.8. 자그레브대학 교수는 외무부 제1차관보 및 국제기구국장 면담
- 3.30. 주유엔대사는 주유엔 유고슬라비아대사를 면담, 유엔 총회계기 수교 희망 전달



- 3.30. 외무부는 비동맹 정상회의 참여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도록 주유엔대사에 지시
- 4.18. 주유엔 짐바브웨대표부는 하라레 비동맹 외상급조정회의(5월) 문서초안을 배포
- 7.20. 비동맹 조정위원회 유엔 본부에서 개최
- 7.24. 주유엔대사는 유엔사무총장을 위한 리셉션에서 유고슬라비아 외무차관 접촉
- 8월중 주페루대사의 페루 외상 면담 등 유엔 및 비동맹지역 주재공관 활동보고

비동맹 정상회의, 제9차. Belgrade(유고), 1989.9.4.-7. 전6권 (V.2 회의결과)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35 / 4 / 1-83

제9차 비동맹 정상회의 결과 내용임.

1. 회의 기간 및 장소

- 1989.9.4.~7., 베오그라드(유고슬라비아)

2. 회의 참가현황

- 회원국(98개국), 옵서버(7개국 및 10개 국제기구), 피초청(19개국 및 25개 국제기구)

3. 회의 결과

- 회의 개최
 - 무가베 짐바브웨 수상의 개회선언에 이어 드르노브세크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을 의장으로 선출
- 최종문서 채택 및 주요 결정사항
 - 외상회의에서 제출된 선언문 및 정치위원회와 경제위원회가 제출한 41개 결의를 최종문서로 채택
 - 빈부국 간 격차해소를 위한 선진국의 책임 강조 및 남북협조를 통한 해결 모색 주장
 - 대서방 비난 어조 완화 및 미국·소련 관계 개선의 긴장완화 기여 평가
 - 국제평화 수립, 빈부격차 축소, 식민주의 배격 등 6개항의 우선 과제 선정
 - 회원국 간 남북협력강화를 위한 13개 개도국 간 연례정상회의 개최 합의
- 한반도 문제 토의 경과 및 내용
 - 1988.9월 니코시아 외상회의에서 채택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24개 정치문제 결의 중 하나로 채택
 - 한반도 조항 내용: 7·4 남북공동성명서상의 3대원칙에 따른 평화통일노력 지지, 남북한 간 신뢰 구축, 외군철수를 통한 한반도 통일달성 등

비동맹 정상회의, 제9차. Belgrade(유고), 1989.9.4.-7. 전6권 (V.3 북한 동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35 / 5 / 1-142

제9차 비동맹 정상회의(1989.9.4.~7.) 관련, 북한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북한의 비동맹 외교활동에 관한 재외공관의 보고

- 북한 외교부장의 유고슬라비아 방문(1989.4.11.)
 - 북한은 한국의 비동맹 정상회의 참가 반대입장을 유고슬라비아 측에 전달
- 윤기복 북한 부총리의 에티오피아 방문(1989.7.30.~8.3.)
 - 북한은 에티오피아가 한국의 단독 유엔가입이나 비동맹 정상회의 참석을 거부해줄 것을 요청

2. 북한 고위인사 방문외교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
 - 1989.7.13.~17. 조문사절단으로 이란 방문
- 정준기 부총리(노동당 대표단)
 - 1989.7.22.~8.4. 제5차 모잠비크 해방전선단 대회 참석차 모잠비크 방문
- 이종옥 부주석
 - 1989.7.17.~22. 니카라과 혁명승리 10돌 기념행사 참가차 니카라과 방문
- 김창호 체신부장(노동당 대표단)
 - 1989.8.22.~26. 제8차 가이아나 인민민족대회 참석차 가이아나 방문
- 조세웅 부총리(노동당 대표단)
 - 1989.7.21.~25. 앙골라 방문
- 김형울 외교부 부부장
 - 1989.7.29.~8.2. 세네갈 방문
- 김용영 외교부 부부장
 - 1989.7.31. 탄자니아 방문

3. 북한의 대비동맹국 방문외교

- 개요
 - 1989.7~8월 중 아프리카 13개국, 중동 3개국, 중남미 3개국, 아시아 1개국 등 20개국에 8개 사절단 파견
- 북한 측 주요 언급사항
 - 고려연방제 통일, 한국의 단독 유엔가입 반대, 한국의 비동맹 정상회의 참석 반대

비동맹 정상회의, 제9차. Belgrade(유고), 1989.9.4.-7. 전6권 (V.4 회의록)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35 / 6 / 1-113

제9차 비동맹 정상회의(1989.9.4.~7.) 관련자료임.

1. 의제

- 개회, 의제 채택, 회원국 가입,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 의장 보고
- 아프리카기금위원회 의장 보고
- 국제정세 현황, 비동맹의 역할 검토, 세계경제정세 평가
- 유엔의 역할 등 다자협력문제

536

2. 참가국 리스트

3. 외상회의 보고서

- 정상회의 선언문안 검토 및 승인
- 각료위원회의 보고 및 건의서

4. 제8차 비동맹 정상회의 의장 보고서

5. 제9차 비동맹 정상회의 사무총장 보고서

비동맹 정상회의, 제9차. Belgrade(유고), 1989.9.4.-7. 전6권 (V.5 최종선언문)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35 / 7 / 1-114

제9차 비동맹 정상회의(1989.9.4.~7.) 최종선언문 관련 내용임.

1. 제9차 비동맹 정상회의 선언문 및 결의

- 최종선언문
 - 국제 긴장완화 추세에 대한 긍정적 평가
 - 선진·개도국 간 빈부격차 등 국제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 촉구
 -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경각심 제고
 - 인권, 마약, 테러 등 문제
- 42개 항목의 정치 및 경제 결의
 - 국제안보와 군축, 레바논, 아프간, 라틴아메리카, 사이프러스 문제
 - 이란과 이라크 간 문제, 서부 사하라, 한국, 팔레스타인 문제
 - 아랍과 이스라엘 간 분쟁, 동남아, 남부 아프리카, 뉴칼레도니아 문제
 - 탈식민지, 국제테러, 평화와 국제법, 남극, 난민
 -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등

2. 비동맹 각료급조정회의 문서

- 시기 및 장소: 1989.5.17.~19., 하라레
- 제44차 유엔총회 문서로 배포

비동맹 정상회의, 제9차. Belgrade(유고), 1989.9.4.-7. 전6권 (V.6 연설문 및 언론보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35 / 8 / 1-88

제9차 비동맹 정상회의(1989.9.4.~7.) 관련 연설문, 언론보도 내용임.

1. 연설문

- Borja 에콰도르 대통령(중남미 회원국 대표)
 - 중남미 외채의 정치적 해결 방안 모색 강조
 - 전세계적인 군비경쟁 지양 및 평화추구 노력 강화
-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
 - 이념위주에서 탈피하여 경제문제 중심으로 비동맹의 신 방향 정립 필요성 제기
-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 비동맹의 현실적인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경제개발문제 중시 입장 촉구
- 가다피 리비아 대통령
 - 비동맹의 경제분야 협력강화, 외군지시 허용국의 비동맹 회원 가입 반대
- 간디 인도 수상
 - 세계질서 형성에서의 비동맹의 역할
 - 경제분야의 식민지 종식을 위한 단합 강조
 - 환경보호기금 제의

2. 언론보도

- 인도 언론
 - 정상회의에서의 절차 문제 검토 여부
 - 게스트 회원 자격 요건, 공동성명 작성 방향
 - 지역분쟁, 외채 등 주요 이슈, 선언문 수정
 - 기본노선 변경문제, 경제문제부각, 지역문제 거론
- 코트디부아르 언론
 - 비동맹 내 온건국과 강경국 간의 노선 차이
- 뉴욕 타임즈
 - Non-Aligned Nations in Crisis 제하 논평 기사 게재
 - 비동맹의 정체성 문제, 경제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비동맹의 장래 방향 등

비동맹 외상회의, Nicosia(사이프러스), 1989.1.13.-16.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35 / 9 / 1-194

비동맹 외상회의가 1989.1.13.~16. 사이프러스 니코시아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최 배경 및 목적

- 1988.9월 사이프러스 비동맹 외상회의 시 비동맹의 기능 및 운영을 위한 39개국 외상위원회 회의 개최를 결정
- 동서긴장완화 등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비동맹의 기능 및 방향 재정립 모색

2. 회의 참가 현황

- 외상 11명 등 59개국 대표 참석
- 북한대표단 참석
 - 김영남 외교부장 등 7명의 대표단

3. 회의 결과

- 회의 경과
 - 18개국이 비동맹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서 제출
 - 최종문서 채택없이 각국대표가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
 - 정치문제를 제외하고 비동맹의 기능 및 운영개선 문제만 논의
- 주요 토의사항
 - 회의의 형식성 배제
 - 문제 중심의 실질적 토의
 - 회의 문서의 간결화
 - 비동맹과 비회원국 간 접촉 및 문호확대 검토 필요성 제기
- 평가
 - 비동맹의 기능 및 운영개선 필요성 인정
 - 비동맹의 문제점 제기에도 결론은 유보

비동맹 외상회의, Hague(네덜란드), 1989.6.26.-30.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유엔정책과

MF번호 2019-35 / 10 / 1-47

평화 및 국제법에 관한 비동맹 외상회의가 1989.6.26.~29. 헤이그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최 배경 및 목적

- 회의 배경
 - 1988.9월 니코시아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니카라과 제의로 개최 결정
 - 비동맹국에서의 전쟁 발생이 발전저해 요인이라는데에 공통 인식
- 목적
 - 1899년 헤이그 평화회의 100주년 기념
 - 제44차 유엔총회에서 “평화와 국제법의 10년대” 선포하도록 추진
 -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법의 권능 강화 모색
 - 다수국의 ICJ(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 수락 촉구

540

2. 회의 내용

- 일정
 - 6.26. 사무국 및 대사단 예비회의, 개회식, 전체회의
 - 6.27.~29. 전체회의
 - 6.29. 폐회
- 채택 선언문 내용
 - 모든 국가의 주권평등
 -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해결원칙
 - 국제법 질서존중 등
- 북한 참가
 - 최수현 북한 외교부 부부장이 6.28. 연설에서 ‘미국의 남한에서의 핵무기 증강,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 등에 관해 설명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Harare(짐바브웨), 1989.5.17.-1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35 / 11 / 1-212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가 1989.5.17.~19.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개최됨.

1.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문서 초안

- 회의 개요
 - 비동맹 의장단(짐바브웨) 주재로 개최
 - 1989.5.15.~16. 고위급 실무회의, 1989.5.17.~19. 외상급 조정위 회의 개최
 - 제9차 비동맹 정상회의 준비사항 토의
- 회의문서 초안 내용
 - 신회원국 가입, 옵서버, 게스트 자격 참여 사항
 - 문서내용은 1988.9월 니코시아 비동맹 외상회의 최종선언문과 거의 동일

2.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결과

- 주요 결정사항
 - 1989.9월 정상회의 일정 확정
 - 나미비아 문제 관련 특별선언 채택
 - 정치위원회 의장에 팔레스타인 선출
 - 베네수엘라 가입 권고안 통과
 - 최종선언문 채택
- 한반도 문제 토의 경과
 - 북한 측이 연방제 방식의 통일 추진을 위하여 한반도 조항 수정 제의
 - 레소토대표의 당사국 일방 대표불참문제 제기로 북한이 수정안 철회

비동맹 조정위원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유엔정책과

MF번호 2019-35 / 12 / 1-25

유엔에서 1989년 중 개최된 비동맹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일자 및 논의사항임.

- 리비아의 화학무기생산공장에 대한 미국의 제재 움직임 관련 비동맹 입장 논의(1.3.)
- 미군기에 의한 리비아기 격추 사건 관련 미국 비난 성명 채택(1.5.)
- 나미비아 관련 커뮤니케 채택(1.23.)
- 팔레스타인 및 중미문제 관련 커뮤니케 채택(3.15.)
- 나미비아 사태 커뮤니케 발표(4.6.)
- 1989년 비동맹 정상회의 토의
 - 뉴질랜드의 게스트 자격 참여 건의(4.20.)
- 1989.2월 자카르타 개최 비공식 회의 결과 브리핑(4.27.)
- 1989.6월 헤이그 개최 평화 및 국제법 관련 비동맹 외상회의 논의(6.6.)
- 짐바브웨 대표의 헤이그 비동맹 외상회의 준비 동향 브리핑(6.15.)
- 헤이그 비동맹 외상회의 참가국 대표단 구성 및 참석 안내 설명(6.20.)
- 제9차 비동맹 정상회의 등 협의(7.13.)
- 나미비아 사태 커뮤니케 채택(8.10.)
- 나미비아 문제 및 유엔 국제법 10년대 논의(11.8.)
- 나미비아 방문 비동맹 조정위 옵서버단 방문 결과 청취(11.20.)

비동맹 정상회의 관련 유고인사 방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유엔정책과
MF번호	2019-35 / 13 / 1-60

유고슬라비아 학계인사들이 방한하여 한국 측 관계인사들과 유고슬라비아 비동맹 정상회의(1989.9.4.~7.)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함.

1. 라도반 부카디노빅 자그레브대학 교수

- 방한기간: 1989.3.6.~15.
- 주요 일정
 - 3.7.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세미나 참석
 - 3.8.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서울대 세미나 참석, 관광 및 산업시찰
- 특기사항
 - 동 교수는 유고슬라비아 비동맹 정상회의 6인 준비위원회 일원

2. 랑코 페트코비치 베오그라드대학 교수

- 방한기간: 1989.5.29.~6.7.
- 주요 일정
 - 5.30. 외교안보연구원 간담회 참석
 - 5.31.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IPECK(국제민간경제협의회) 방문
 - 6.7. 판문점 시찰
- 특기사항
 - 동 교수는 유고슬라비아 비동맹 정상회의 6인 준비위원회 일원

비동맹 Africa 기금위원회, 제4차. New Delhi(인도), 1989.2.14.-17.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35 / 14 / 1-240

제4차 비동맹 아프리카기금 고위실무자회의가 1989.2.14.~17,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됨.

1. 한국대표단 초청

- 초청 경위
 - 주한 인도대사는 1989.1.11.자 공한으로 회의 개최 통보 및 한국대표단 초청
 - 외무부는 1989.1.25. 대표단 구성 및 훈령 결재
 - 주인도대사는 1989.1.27. 인도 외무부 기금담당특별대사 면담
- 한국의 지원내역
 - 비동맹 아프리카기금에 1988~92년간 100만 달러 상당의 현물 제공
 - 기금공여의 일환으로 모잠비크에 1988년 20만 달러 지원
 - 사업의 효율성제고 및 계속성 차원에서 1989년도에 모잠비크에 20만 달러 지원

544

2. 회의 결과

- 회의 개요
 - 참가현황: 7개 회원국, 6개 옵서버국, 35개 특별초청국 등
 - 의제: 아프리카기금 모금현황보고, 동 기금위원회 활동 검토, 기금 활용방안 검토 등
- 한국 대표단 구성 및 활동
 - 김태지 주인도대사 및 관계직원 참가
 - 아프리카 전선국가들은 한국 측에 비동맹 아프리카기금 제공 요청
- 비동맹 아프리카기금 현황
 - 기금공여 약속 총액: 4억 2천만 달러(한국: 100만 달러)

비동맹 Africa 기금위원회, 제5차. New Delhi(인도), 1989.8.1.-4.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35 / 15 / 1-49

제5차 비동맹 아프리카기금 고위실무자회의가 1989.2.14.~17.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됨.

1. 한국대표단 초청 경위

- 1989.7.4. 주한 인도대사는 외무부차관 앞 공한으로 회의 개최 통보 및 참석 초청
- 1989.7.6. 외무부는 주인도대사에게 참석 준비 지시
- 1989.7.8. 외무부는 대표단 구성 및 훈령 결재

2. 회의 결과

- 개요
 - 참가현황: 9개 회원국, 3개 옵서버국, 37개 특별초청국 등
 - 의제: 아프리카기금 실적보고서 제출, 동 기금 활동 검토, 기금 활용방안 검토 등
- 한국 대표단 구성 및 활동
 - 김태지 주인도대사 및 관계직원
 - 잠비아, 탄자니아, ANC(아프리카민족회의), SWAPO(남서아프리카인민기구) 대표 등 면담
 - 짐바브웨를 제외한 전선국가들은 한국대표단 면담 시 지원 요청
- 비동맹 아프리카기금 현황
 - 기금공여 약속 총액: 4억 2천만 달러(한국: 100만 달러)

일본의 안보 및 방위 정책

생산연도 1989

생산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36 / 1 / 1-127

일본의 안보 및 방위정책에 관련된 내용임.

1. 미국·일본 간 FSX 전투기 공동생산 문제

- 내용
 - FSX 계획은 미국의 F-16에 일본의 신기술을 가미하는 공동개발의 단계로 발전
- 경과
 - 1987.8월 양국 정부 간 합의 도달
 - 1989.1월 주계약자인 제너럴다이내믹사와 미츠비시중공업 간 계약 체결
 - 1989.4.28. 부시 미국 대통령이 FSX 협정 최종합의 도달 발표
 - 1989.5.3.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는 협정심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
 - 1989.5.23.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는 Byrd 의원 수정안 심의
 - 1989.6.7. 미국 하원은 상원 수정안 채택 후 대통령에게 발송

2. 일본 1989년판 방위백서(89.9.12. 일본 각의승인)에서의 한반도 정세 관련 내용

- 정세 개관
 - 한반도 평화 및 안정이 동북아 평화에 중요
 - 북한의 고립 심화 및 경제 부진
 -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
- 북한의 군사력
 - 육군 26개 사단 75만 명, 해군 함정 520척, 공군 작전기 770기
 - 소련-북한 간 군사협력 긴밀화
- 한국의 군사력
 - 육군 21개 사단 54만 명, 해군 함정 170척, 공군 작전기 390기
 - 방위력 강화, 주한미군 등

3. 자위대 해외 파견 문제

- 일본 수상 발언
 - 1989.10.5. 가이후 일본 수상의 국회 중의원 답변 발언이 발단
 - 재외국민안전, 긴급원조대 등 비무력행사 차원에서 검토 가능 언급



- 일본 정부 입장(외무성 관계자 언급)
 - 가이후 수상의 발언이 과거 우노 일본 외상 및 다케시다 일본 수상의 발언과 차이 별무
 - 무력불행사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헌법이 허용
 - 자위대법에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외파견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 자위대 파견 관련 실무작업 진행
 - 국제긴급원조대의 역할, 재외국민의 보호, 유엔정전감시단 참가 등 검토
- 플루토늄 해상수송문제
 - 일본 외무성은 자위대 해외파견과는 관련없다는 입장이며 방위청은 자위대법의 개정없이도 해상수송호위가 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소련의 군사·안보 동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36 / 2 / 1-220

소련의 군사·안보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소련 극동지역 군사력 현황(Yazov 소련 국방장관의 1989.5.28. 프라우다 회견 내용)

- 극동지역 총병력: 60만 명
- 구성
 - 제1그룹: 배치지역(극동군관구의 태평양 연안반도 및 도서, 태평양 함대), 임무(태평양의 미국·일본 군사력, 알래스카 및 미 서해안의 군사력에 대항), 군사력(병력 33만 명, 항공기 870대 등)
 - 제2그룹: 배치지역(자바이칼 군관구, 몽고, 극동군관구의 중국·소련 국경지대), 임무(동부지역 국경방위), 군사력(병력 27만 명, 항공기 820대 등)
- 서방 측 평가
 - 서방 측 집계와 대체로 유사
 - 장거리 폭격기 숫자 불명 등 구체성 결여

2. 미국 국방부 발행 “Soviet Military Power 1989” 내용(1989.9월 발간)

- 주요내용
 - 소련의 방위정책, 대외정책, 군사자원 배분, 핵 및 전략방위, 일반 군사력 및 군사력 균형, 연구개발 등
 - 소련의 동아시아태평양 정책: 역내 국가에 대한 적극적 접근 노력, 동 지역과의 경제적 연계 미약으로 성과 별무

3. 재외공관의 소련 정세 보고

- 유럽안보협력회의 및 재래식 군비감축협상
 - 1989.1.4.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미국·소련 간 인권회의 1991년 개최 동의로 유럽 재래식 군비 감축협상 및 유럽안보협력회의 개최 가능
- 1990년도 연례 국방보고서(1989.1.17.발표)
 - 미국의 안보에 대한 소련의 위협 제기로 국방비 증액 필요성 강조
- 소련 군사 관련 청문회 개최
 -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989.3.9.~10. 소련의 감군 및 군조직 개편 제하의 청문회 개최
 - 동 군사위원회는 5.9. 소련 군축 및 전략전문가 4인 초청, 청문회 개최

미국 의회의 국방관련 예산 법안심의 동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9-36 / 3 / 1-157

미국 의회의 국방관련 예산 심의 동향임.

1. FY90 예산 교서 발표

-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89.2.9.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FY90 예산교서를 발표
 -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1989.1.9. 제출한 예산안 일부를 수정
- 동 예산안은 세입 1조593억 달러, 세출 1조1,604억 달러, 적자 948억 달러로 편성

2. 상원 세출위 국방소위 청문회

- 주한 미국사령관이 1989.2.23. 상원 세출위 국방소위에서 증언
- 북한의 군사력 우위, 남북한의 국방비 지출 등에 대해 언급

3. 하원 군사위 FY90~91 국방예산 수권법안 심의

- 체니 미국 국방장관은 1989.4.25. 하원 군사위 FY90~91 국방예산 수권법안 심의에 출석, 행정부 수정안을 제출하고 신행정부의 주요 국방정책에 관해 설명
 - 예산제안 설명에서 소련의 무기체계 현대화 지속 등을 고려, 억지력 유지 필요성 및 우방국과의 공동방위 중요성 강조

4. 하원 국방예산 심의

- 하원 본회의는 1989.7.27. 3,055억 달러 규모의 FY 국방예산 수권법안을 통과
 - 동 예산안은 일부 재래식무기 구매계획을 취소하고 주요 전략무기 개발비를 대폭 삭감

5. 의회 FY90 국방예산 통과

- 의회는 1989.8.3. 3,050달러 규모의 FY90 국방예산을 통과
 - 동 예산은 10.1.부터 집행 예정

중국의 군사·안보 동향

생산연도 1983-1987

생산과 동북아2과

MF번호 2019-36 / 4 / 1-89

중국(구 중공)의 군사 및 안보 동향에 관한 1983~87년 중 재외공관의 보고 내용임.

1. 일본·중국 군사교류

- 주요 교류내용
 - 1974년 일본 우호사격대회 선수단 중국 방문
 - 1976년 중국 사격선수단 일본 방문
 - 1979년 중국 해방군 의료견학단 일본 방문
 - 1980년 일본 역도선수단 중국 방문
 - 1981년 일본 자위대 군의관 등 중국 방문
 - 1982년 일본 역도선수단 중국 방문
- 자위대 교육담당자 방중
 - 방위청은 1984.5.24. 자위대 교육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중국 방문단을 1984.6.4.~10. 파견 예정이라고 발표
 - 방위 심의관을 단장으로 4명으로 구성

2. 중국 국방부장의 일본 방문

- 방문 일자
 - 장애평 중국 국방부장은 1984.7.8.~9. 일본 방문
- 방문 일정
 - 쿠리하라 일본 방위청장관 면담 및 로봇공장 시찰
- 국방장관 면담 내용
 - 양국관계 강화 필연성 확신
 - 양국간 군사협력 증대에 관해 실무협의 중이며 가능한 범위 내 추진 필요

3. 중국군 개편 보도

- 대공보 보도(1985.6.11.)
 - 등소평 중국 중앙군사위 주석은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군대 100만 명 감군계획을 선포
- 개편 내용
 - 11개 1급군구를 7개 1급군구로 개편
 - 총참모부, 총정치부 등 지휘부를 40~50대로 교체

각국의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문제

생산연도 1986-1988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9-36 / 5 / 1-190

일본의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관련 내용임.

1. 1987.7.21. 미국·일본 SDI 참여 MOU 체결

- 와인버거 미국 국방장관-마쓰나가 주미국 일본대사 서명
- 참여 방향
 - 민간주도
 - 정부산하연구소도 참여
- 참여 예상분야
 - 전자, 컴퓨터, 센서, 통신분야

2. 일본 교토통신은 1987.12.30. 보도를 통해 미국이 일본에 아태지역 TMDS(전역 미사일 방위체계) 공동연구개발을 공식 제의했다고 보도함.

- 공동연구 제의내용
 - 신형의 비핵 대공미사일, 고성능레이더 및 고속컴퓨터, 전자포(rail gun) 등
- 소련 극동해군력 증강을 감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및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 등의 격추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특징

한·미국 연례안보협의회, 제21차. Washington D.C., 1989.7.17.-19.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9-36 / 9 / 1-142

제21차 한·미 SCM(연례안보협의회) 관련 자료임.

1. 제21차 SCM 추진 방향 관련 보고서

- 최근 국제정세 변화와 미국의 대한정책 전망
- 제21차 SCM 기본방향
- 주요 정책 이슈 평가
 - 한국의 북방정책과 한·미국 동맹체제
 - 북한의 군사력 평가 관련 한·미국 정보협력강화
 - 주한미군과 반미감정 해소노력
 - 1990년대 안보협력 공동노력
 - CFC 편성 및 기능, 방위비 분담 등

552

2. 제21차 SCM 회의록

- 개회 및 폐회 회의록
- SCM 대표단 명단, 각료회의 명단, 정책검토위원회 보고서 등

FMS(대외군사판매) 차관 상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9-36 / 10 / 1-224

미국의 FMS(대외군사판매) 차관 상환에 관한 내용임.

1. 미국 의회의 FMS 차관 프로그램 통과

- 1987.12월 미 의회는 연리 10% 이상의 FMS 차관을 미국 정부의 90% 지급 보증하에 미금융기관에서 차입, 조기 상환하도록 하는 FMS Debt Reform Program을 통과시킴.
- 미국 회사들은 1988.3월부터 한국 재무부 및 주미국대사관을 접촉함.

2. FMS 차관 조기상환 시행 경과

- 재무부는 미국 측 프로그램 검토 결과,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정부보유 외환이나 우리 금융기관을 통한 조기 상환방안 검토
- 주미국대사관은 미국 재무부가 1988.6.29. 공포한 FMS Debt Reform 관련 최종 규정을 외무부에 송부함.
- 재무부는 1988.7.9. FMS 차관을 1987년도와 같은 방안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조기 상환 시 벌과금 불부과 등에 관한 미국 측 의사 확인을 요청함.
- 주미국대사관 재무관은 1988.11.4. 미국 측에 FMS 차관 조기상환 원칙을 통보하고 7.19. 합의한 차관 상환일자에 변동없음을 재확인함.
- 정부는 1988.12.20.자로 조기상환 시행 예정임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한국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 KFP(Korean Fighter Program)

생산연도 1989

생산과 안보과

MF번호 2019-36 / 11 / 1-49

한국공군 차세대전투기 사업(KFP: Korean Fighter Program) 관련내용임.

1. 일본 자위대 FSX 기종 미국·일본 공동생산 문제

- 추진 경위
 - 미국·일본 간 군사기술협력에 따른 FSX 계획에 의거, 미국 F-16에 일본의 신기술을 가미한 공동개발의 단계로 발전될 전망
 - 1987.8월 양국 정부 간 합의
 - 1989.1월 양국 주계약자 간 계약 체결
- FSX 계획에 대한 미 의회 및 행정부 내 반대 제기
 - 미국의 기술이전이 전투기뿐 아니라 민간항공분야에까지 미쳐 미국의 항공기 산업을 위협할 가능성 우려
- 전망
 - 이전대상 기술수준의 수정을 통한 타협 가능성

2. 한·미국 전투기 공동생산(KFP 관련) 결의안

- 상원안
 - Heinz 상원의원은 한·미국 간 전투기 공동생산 계획 관련, 상원 결의안을 1989.7.17. 발의
 - Heinz 의원은 동 결의안을 토대로 국무부 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7.19. 본회의에서 발의
 - 동 수정안은 GAO(회계감사원)에 의한 검토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될 때까지 한국 측과 MOU를 체결하지 않을 것을 행정부에 권고
 - Heinz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
- 하원안
 - 상원안과는 달리 권고조항이 불포함되었으며, 상·하원 양원 법안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Heinz 수정안 권고조항이 삭제

주요국가의 방위비 분담 현황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9-37 / 1 / 1-243

1. 외무부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대 요구와 관련한 대응 정책 검토에 참고하기 위해 1989.3월 일본 및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 주재 공관에 아래사항에 대한 주재국의 관련 정보를 수집,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본 문서철에는 해당공관의 보고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 방위비 분담현황 및 분담형식
- 방위비 분담 법적근거 및 협의채널
- 90년도 이후 분담 관련 미국 측의 요구내역
- 방위비 분담문제에 대한 입장 및 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한 대미홍보 자료
- NATO 기구의 분담문제 관련 역할과 관계자료(벨기에)

2. 미국의 1990년도 방위비 분담 증대 요구에 대한 검토의견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총괄적 의견 및 대응책
 - 점진적인 수용
 -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 일본의 방위분담 형태 배제
 - 한국의 전력증강 계획과 연계추진
- 각 분야별 수락 가능여부 및 대책
 - 미국 전쟁 예비물자 저장 및 유지비용 분담
 - 미군 항공기 정비 계속 지원
 - 미군부대 한국인 고용원 모두 보조
 - 통신 활동 지원
 - 1992년도 CDIP(연합방위력증강사업) 지원 규모(6천만 달러) 사전 약속

아시아·태평양 라운드테이블, 제3차. Kuala Lumpur, 1989.6.16.-1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안보정책과

MF번호 2019-37 / 2 / 1-135

제3차 아시아·태평양 라운드테이블이 1989.6.16.~1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주관
 - 말레이시아 ISIS(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주제
 - 태평양지역의 신뢰구축과 분쟁해결

556

2. 회의 참석자

- 미국, 중국, 일본, 소련, 한국, 북한, 아세안국가, 인도차이나국가,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학자, 정부관리, 언론인 등 150여 명 참석
 - 한국에서는 주말레이시아대사, 전 체육부장관, 국회의원, 교수, 외무부 서기관 등 6명 참석
 - 북한에서는 주말레이시아대사, 군축·평화연구소 부소장 등 4명 참석

3. 회의 경과

- 개막식
 - 말레이시아 총리 개막연설
- 제1차 회의
 - 아·태지역의 전략적 환경
- 제2차 회의
 - 일본·소련관계
- 제3~4차 회의
 - 한반도문제
 - 한국 및 북한 측 참석자 주제 발표
- 제5차 회의
 - 캄보디아 문제 해결 후의 동남아 협력
- 중국관계 특별세미나
 - 말레이시아 ISIS 측이 중국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예정에 없던 특별세미나 주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의회 대표회의 한국 옵서버자격 참석 문제

생산연도 1983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19-37 / 3 / 1-92

1983.11월 주벨기에대사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 의회대표회의(North Atlantic Assembly)에 대한 한국의 옵서버 참가 가능성을 아래 요지로 보고함.

1. North Atlantic Assembly 개요

- NATO 16개 회원국의 의회대표위원 184명으로 구성되며, 각국 인구비례에 의해 인원이 배정됨.
- 연 2회 봄·가을에 총회를 개최하고, 상임위원회와 5개 분과위원회(경제, 군사, 정치, 교육문화, 과학기술)로 구성됨.
- 사무국은 브뤼셀에 소재함.

2. 한국의 옵서버 참가 가능성

- 일본은 1980년, 호주는 1982년부터 옵서버로 의원대표단을 파견함.
 - 토의는 참여하나 투표권은 없음.
- 사무국 측은 현재 일본 및 호주의 옵서버자격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의원세력이 있을 뿐 아니라, 뉴질랜드의 옵서버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옵서버 참석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함.
 - 옵서버자격 허용여부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동 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각국 대표단장, 재무관으로 구성됨.
 - 사전에 상임위 의장(영국), 부의장3명(캐나다, 네덜란드, 포르투갈) 및 각 대표단장을 접촉하여 타진한 후에 그 결과를 보아 추진할 것을 건의함.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전2권 (V.1 1-5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9-37 / 4 / 1-139

558

1. 외무부 미주국이 1989.5월 작성한 'SNF(단거리핵무기) 문제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내분 조짐'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경위
 - 콜 독일 수상이 1989.5월 NATO 정상회담 시 독일배치 랜스 미사일의 현대화 계획에 반대할 것임을 밝히면서 문제가 표면화
- 미국과 독일 입장
 - 미국은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비해 재래식 군사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SNF가 서방 측의 중요한 균형유지 수단이라는 입장
 - 독일은 대부분의 NATO 보유 SNF가 독일에 배치되어 있음에 따라 SNF가 계속 존치되는 경우 독일 영토의 핵전쟁 지역화 우려
- 평가
 - 소련의 변화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미국과 독일 간의 시각차이 반영

2. NATO 16개국 정상회의가 1989.5.29.~30.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됨.

- 회의 개최 배경
 - NATO 창설 40주년 기념
 -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군축·평화 공세에 대응
 - 단거리 핵무기 문제를 둘러싼 NATO 회원국 간 이견 해소 필요
- 회의 결과
 - 부시 미국 대통령이 4개항의 동·서 군축안을 제의하고, NATO 회원국 대부분이 동 제의를 전폭적으로 환영
 - 단거리 핵무기 현대화와 감축협상 개시 문제에 대한 NATO 측 최종 타협안 성립(재래식 군사력 감축협정 성사 후 단거리 핵무기 감축협상 개시)
- 분석 및 평가
 - 부시 대통령의 동서문제에 대한 이니셔티브 확보 계기
 - NATO 균열 방지 및 결속 강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전2권 (V.2 6-12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9-37 / 5 / 1-207

1.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단 국방장관회의가 1989.10.24.~25. 14개국 국방장관이 참가한 가운데 포르투갈 Vilamoura에서 개최됨.
 - 동 회의는 5월 NATO 정상회의 합의사항(NATO의 핵억지 전략과 재래식 군비유지 정책)을 재확인함.
2. NATO 방위기획위원회 국방장관회의가 1989.11.28.~29.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됨.
 - 동 회의는 동구변화에 따른 NATO의 방위계획 문제를 주로 논의함.
3. NATO 외무장관회의가 1989.12.14.~15.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됨.
 - 동 회의는 동·서 관계, 군축문제, 동독문제 및 NATO의 장래기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함.

바르샤바(WARSAW) 조약기구 회의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동구과

MF번호 2019-37 / 6 / 1-72

1983~84년 개최된 바르샤바조약기구 각종 회의에 관한 내용임.

1. 1983년 개최

- 정상회담
 - 체코 프라하에서 1983.1.4.~5. 개최
 - 1983.1.6. 발표된 정치선언서에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의 평화적 관계유지에 관한 조약 체결을 제의
- 군사회의
 -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1983.4.24.~5.3. 개최
 - NATO의 신형미사일 유럽배치 저지방안과 배치 시의 대비책 등 협의
- 정상회담
 - 소련 모스크바에서 1983.6.28. 개최
 - 공동성명서에서 새로운 핵무기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소련의 핵무기 전면감축 제의(1983.1월)를 지지
- 외상회담
 -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10.13.~14. 개최
 - 공동성명서에서 유럽배치 중거리핵미사일 감축에 관한 제네바회담을 1984년도에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주장
- 국방상회담
 -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1983.12.5.~7. 개최

2. 1984년 개최

- 동독 베를린에서 1983.12.3.~4. 개최
 - 공동성명서에서 미국·소련 군축협상 재개를 환영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후속회의, 제3차. Vienna, 1986.11.4.-89.1.19.

생산연도 1985-1989

생산과 동구과/서구2과

MF번호 2019-37 / 7 / 1-265

1. 제3차 CSCE(구주안보협력회의) 후속회의 최종문서가 1989.1.19.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채택됨.

- 제3차 후속회의는 1986.11월부터 진행되어 옴.

2. 상기 최종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인권문제
 - 인권관계 후속 국제회의 개최 합의(제1차: 1989.5월 파리, 제2차: 1990.6월 코펜하겐, 제3차: 1991.9월 모스크바)
- 재래식 군축협상
 - 1973~87년 개최되었던 중부유럽 WBFR(상호균형감군회의)를 흡수
 -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 23개 전회원국이 참가하는 재래식 군사력 감축 협상을 1989.3월 비엔나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CSCE 제4차 후속회의
 - 1992.3월부터 헬싱키에서 개최

3. 상기 최종문서 채택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음.

- 동·서 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주요 성과
 - 특히,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위한 돌파구 마련
- NATO 측은 동구로부터 인권문제에 양보를 얻었으며, 소련 등은 재래식 군사력 감축으로 군사비 절감 및 경제개편 목적 추구 가능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 교통분과위원회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안보과

MF번호 2019-37 / 10 / 1-51

1.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미국 측 간사는 1988.6월 외무부 안보과장에게 주한미군 전세기의 김포공항 이용허가 여부를 비공식으로 문의한바, 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회보함.
 - 외국항공사의 한국 취항 증가, 제2민항의 취항, 국내·외 항공 수요의 급증 등으로 공항시설에 여유가 없음.
 - 국제민간공항이라는 대외적 이미지 측면에서도 주한미군 전세기의 김포공항을 이용한 출입국은 곤란함.
2. 외무부는 1989.4월 교통부에 주한미군 공용차량이 명확한 번호판 또는 기호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 SOFA 제24조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동 규정 이행과 관련된 상세사항을 SOFA 한·미국 합동위 산하 교통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할 것을 요청함.
 - 교통부는 1989.10월 외무부에 주한미군 번호표 등 식별부호 부착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측과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별도 합의가 곤란하다는 미군 측 견해를 확인하였다고 회보함.
 - 주한미군 공용차량의 식별기호에 관하여는 주한미군 규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협정 제24조는 주한미군 차량의 기호부착 의무규정으로서 한·미국 간 합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님.
 - 주한미군 공용차량의 식별기호는 전세계 주둔 미군차량에 통일적으로 사용되는 기호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관하여만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없음.
 - 교통부는 상기 사항을 회보하면서 동 건 관련, 한·미국 간 별도 합의나 이를 위한 합동회의 안건 상정 등은 하지 않고 동 건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제시함.

Chevenement, Jean-Pierre 프랑스 국방장관 방한, 1989.5.29.-31.

생산연도 1989

생산과 서구1과

MF번호 2019-38 / 4 / 1-61

Chevenement 프랑스 국방장관이 1989.5.29.~31. 방한함.

1. 방한 경위

- 국방부장관의 초청으로 방한

2. 주요 방한일정

- 대통령, 국방부장관, 외무부장관, 교통부장관 예방
- 국방부장관 주최 만찬
- 판문점 시찰
- 프랑스 참전비 헌화

3. 기타

- 외무부장관과 프랑스 국방장관 간의 면담요록이 수록됨.

한·인도 군사관계 인사교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9-38 / 3 / 1-65

1988~89년 중 한·인도 군사관계 인사교류에 관한 내용임.

1. 한·인도 군사교류 확대 추진

- 주인도대사는 1988.12월 한국 공군장교 일행의 인도 방문이 양국 공군 간 교류증진의 계기가 되었다면서 공군참모총장의 인도 공군참모총장 앞 서한 송부를 건의
- 공군본부 정보처장의 인도 공군본부 정보국장 앞 서한 송부
- Pant 인도 국방장관의 이상훈 국방부장관 앞 연하장 회신
- 국방정보본부는 1989.4.6. 인도군 정보참모부장 일행의 방한 초청장 송부
- 인도 외무부는 4.7. 인도 참모대학에 대한 한국장교의 입학(1989.6~90.5월) 허가 통보
- 인도 공군참모총장의 서동열 공군 참모총장 앞 서한 전달

2. 인도 국방대학원생 방한

- 시기
 - 1989.8.28.~9.1.
- 방문단
 - 공군참모처장을 단장으로 14명으로 구성

PPNN(핵 비확산 강화계획) 회의. Guernsey(영국), 1989.5.14.-17.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38 / 7 / 1-47

1. 1989.2.16. 주한 영국대사관은 5.14.~17. 영국에서 개최되는 핵 비확산 증진회의 초청장을 전달해 옴.

- 회의명: 핵 비확산 증진회의(Conference Programme for Promoting Nuclear Non-Proliferation)
- 회의목적
 - NPT(핵비확산조약) 회원국의 실무자급 외교관 초청, 최근 진전사항 등 교육
 - 전문가들과의 접촉 기회 제공 및 1990년도 NTP 검토 회의시 주요 쟁점 사전 검토
- 주최: PPNN(핵비확산증진계획)
- 초청국
 - 한국, 북한,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총 51개국

2. 1989.5월 정부는 상기 회의에 정부대표단 파견을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훈령함.

- 한국의 핵 비확산 찬성 입장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노력 설명
- 각국의 핵 비확산 정책 동향 및 1990년도 NPT 검토 회의 대처 동향 파악

3.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35개 NTP 회원국 36명 참가
 - 북한은 참가국 중 유일하게 2명 파견
- 핵 비확산 제도 고찰, 군비 축소, 핵의 평화적 이용, 비핵지대 설치 등

한·카메룬 군사협력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아프리카1과

MF번호 2019-38 / 8 / 1-30

1. M'eboutou 카메룬 국방부장관은 1988.8.3.자 주카메룬대사 앞 서한을 통해 카메룬 국경일(5.20.) 행사를 위한 전광판 설치, 한국의 태권도 시범 및 카드섹션 지도자 파견지원을 요청해 옴.
2. 1988.9월 외무부는 국방부 및 체육부 등에 상기 카메룬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의견을 문의한바, 각 부처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 태권도 시범은 카메룬측이 경비 부담하는 경우 가능하며, 카드섹션 지도자는 적당한 전문가가 없어 파견이 불가함.
3. 카메룬은 숙식, 교통편의 제공은 가능하나, 항공료 및 보수 부담은 곤란하다는 입장인 관계로 상기 지원요청 건은 무산됨.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관 동북아 문제 한·미국 학술회의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북미과

MF번호 2019-38 / 10 / 1-26

제6~7차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문제 한·미국 학술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됨.

1. 제6차 회의(1989.1.23.~25.)

- 회의 의제
 - 안보 및 동북아 평화협약회의, 한·미 무역관계 및 국내정치 발전
- 회의 참석자
 - 한국 측: 봉두완 전 의원 등 13명
 - 미국 측: 브레진스키 전 NSC보좌관 등
- 발표자
 - William Brock 전 USTR 대표: 한·미국 간 주요 통상현안 제기
 - 김덕중 교수: 무역불균형 시정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한국의 노력 설명

2. 제7차 회의(1989.10.1.~3.)

- 10.1. 리셉션
- 10.2. 국가안보회의, 미 무역대표부, 국방부, 상무부 방문 및 회의
- 10.3. 국방장관 예방 및 기자회견
- 한국 측: 이종찬 의원 등 의원단 7명
- 발표자
 - 10.1. 브레진스키 박사가 '공산권의 종말 도래' 주제로 강의

동북아 안보에 관한 한·미국 학술회의, 제7차. Washington D.C., 1989.12.4.-6.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기획조사과

MF번호 2019-38 / 11 / 1-74

제7차 동북아 안보에 관한 한·미국 학술회의가 1989.12.4.~6.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됨.

1. 회의 개요

- 주최기관
 - 외교안보연구원과 대서양협회
- 회의 주제
 - 동북아에서의 경제, 안보문제와 한·중국 관계

568

2. 발표 내용

- 한국 측: 김국진 연구원교수의 '한국의 대동북아정책' 등
- 미국 측: R. Scalapino 버클리대 교수의 '일본의 대동북아정책' 등
- 토론내용
 - 대서양 및 태평양지역 관계: 동구 및 동북아의 정세 변화,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 증대
 - 주한미군 문제: 의회의 주한미군 감축 압력 증대
 - 한·중국 관계: 한·중국 간의 교역증대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는 소강상태
 - 향후 일본의 역할: 일본의 국제사회 지도력 신장을 위해 신뢰회복 필요
 - 기타: 남북대화과 미국·북한 문제, 소련과 아태지역 관계

공무원 국제기구 파견 및 훈련

생산연도	1983-1987
생 산 과	경제기구과/국제연합과
MF번호	2019-38 / 12 / 1-230

1983~87년 중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 및 훈련에 관한 내용임.

1. 해외협력위원회가 1984.4월 대통령에게 경제의 국제화 및 개방화에 따른 해외협력전문가양성의 필요성을 보고한데 대해 대통령이 1984년부터 즉시 시행할 것을 지시함.
 -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공무원 파견 및 훈련을 추진
2. 1984.8월 관계부처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부처에서 30여개 국제기구 및 국제문제연구소에 대해 82명 파견을 요청함.
 - 경비는 한국 정부에서 부담하되 국제기구는 사무실 등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추진
3. 해외협력위원회는 1984.9월 국제기구 파견 확대를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고 계획안을 작성, 외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함.
 - 각 부처의 개별적 추진에 문제점이 야기되어 1986년에는 외무부가 내부적으로 개선안을 검토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 업무협조체계 일원화 문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38 / 13 / 1-133

1. 외무부는 1988.6월 일부 정부부처가 국제기구에 공무원 파견 시 대국제기구 외교경로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제기구와 교섭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혼선이 야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파견 교섭 단계에서 외교경로를 통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아래 관계부처에 요청함.
 -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보건사회부, 체신부, 교통부, 과학기술처, 특허청, 해운항만청, 환경청
2. 외무부 총무과는 1989.5월 '타부처 직원 국제기구 파견업무 협조체계 일원화(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외무부 각실·국의 의견을 문의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외무부 직원 파견

생산연도	1983-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38 / 14 / 1-352

1. 1982.1.15.~83.1.13.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무역국에 파견 근무한 김승의 외무부 서기관의 파견근무 결과보고서가 수록됨.
2. 외무부가 검토한 ESCAP 참가활동 강화 방안에 관한 자료가 수록됨.
 - ESCAP 참가활동 강화 방안(1983.11월, 외무부 경제국)
 - 대ESCAP 참가활동 강화 방안 검토(1986.6월, 외무부 경제국)
 - ESCAP의 외교적 활용 대책 검토(1987.7월, 주태국대사관)
3. 1987.11.30.~12.2.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한·ESCAP 연례회의에서 ESCAP 측은 한국이 고위직 외교관 1명을 non-reimbursable-loan basis로 ESCAP에 파견, senior advisor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양해함.
4. 외무부는 홍정표 부이사관을 아래와 같이 ESCAP에 파견함.
 - 근무기간: 1988.12~89.12월
 - 직위: ESCAP 무역자문관
5. 외무부는 1989.5월 상기 홍정표 부이사관의 후임으로 주진엽 주칠레참사관을 ESCAP에 파견하기로 결정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재무부 직원 파견

생산연도 1983-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38 / 15 / 1-187

1. 재무부는 주태국대사관을 통하여 박상태 서기관의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 파견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함.

- 파견기간: 1984.9~85.9월
 - 재무부는 ESCAP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박상태 서기관의 파견기간을 1986.9월까지 연장함.
 - 박 서기관은 상기 파견기간 종료 후에도 ESCAP,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UNDP (유엔개발계획)의 방콕협정 전담요원으로 1986.9~88.3월 ESCAP에 파견 근무함.

572

2. 재무부는 주태국대사관을 통하여 강정녕 서기관의 ESCAP 사무국 파견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함.

- 파견기간: 1988.7~89.7월
 - 재무부는 ESCAP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동인의 파견기간을 1990.6월까지 연장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과학기술처 직원 파견

생산연도 1987-1989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38 / 16 / 1-160

1. 과학기술처는 주태국대사관을 통하여 민태식 공업기정의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 파견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함.
 - 파견기간: 1988.7~90.7월
2. 과학기술처는 주태국대사관을 통하여 최광연 전기기좌의 ESCAP APCTT(아·태지역기술이전센터) 파견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함.
 - 파견기간(장소): 1988.11~90.11월(인도 방갈로)

ILO(국제노동기구) 파견 공무원 교체

생산연도	1988-1989
------	-----------

생 산 과	국제기구과
-------	-------

MF번호	2019-38 / 17 / 1-105
------	----------------------

1. 노동부는 1988.2월 ILO(국제노동기구) 파견기간이 만료되는 김세국 연구관의 후임으로 김하술 서기관을 파견하기로 하고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동인의 파견에 따른 행정절차를 취함.
 - 1988.11.12. 업무 시작
2. 노동부는 1988.2월 김원배 서기관의 ILO 파견기간을 연장함.
3. 노동부는 1989.9월 조주현 서기관을 ILO연구관으로 파견하기로 하고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동인의 파견에 따른 행정절차를 취함.
 - 10월 제네바 부임

국제기구에의 한국인 진출 강화 방안 검토

생산연도 1984-1988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38 / 18 / 1-313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 강화방안 검토와 관련된 내용임.

1. 외무부는 1984년부터 한국의 유엔분담금 사정률이 0.15퍼센트에서 0.18퍼센트로 증가되자,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 강화방안을 검토함.
 - 유엔직원 채용 시 각국의 분담률 고려
 - 해당 재외공관에 한국인 진출 실태파악 등을 지시함.
2. 외무부는 1987.8월 현재 6개 유엔직속기구 및 9개 유엔전문기구에 총 164명의 한국인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함.
 - 대다수는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IFC(국제금융공사)에 근무 중이며, 이들 기구를 제외할 경우 13개 기구에 34명이 근무하는 것에 불가함.
 - 외무부차관은 1987.10월 한국인이 진출 가능한 국제기구 및 진출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고 국제기구 측 관계자도 접촉하여 관련 사항을 조사하도록 지시함.
3. 1988.12월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술협력사무차장이 퇴임하게 되자, 정부는 정근모 박사의 후보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 강화방안을 계속 검토함.

한국의 유엔 분담금을 상향 조정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39 / 1 / 1-123

576

1. 한국의 1989~91년간 유엔 분담금 비율이 0.22%(현행 0.20%)로 상향 조정됨.

● 경위

- 1988.6월 개최된 유엔기여금위원회는 1989~91년간 한국의 분담금 비율을 0.3%로 조정하기로 결정
- 한국은 상기 조정 비율이 현행 분담금 비율에 비하여 50%에 달하는 대폭인상이며, 여타 국가들의 분담금 비율 조정 시 적용되는 대폭인상 억제규정(scheme of limit)이 한국에 적용되지 않았음을 유엔사무국 측에 지적
- 유엔기여금위원회 위원장은 1988.10월 주유엔대사에게 한국의 입장을 수용하여 1989~91년간 한국의 분담금 비율을 0.22%로 조정하기로 하였다고 통보

● 조정 분담금 비율에 따른 한국의 추가 부담액

- 유엔 산하회의 참가 시 분담금: 현행 약 20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정도 추가 부담
- 유엔 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및 경제관계기구 분담금: 현행 약 600만 달러에서 60만 달러 정도 추가 부담

2. 유엔사무국 측은 1989.4월 한국을 포함한 유엔 비회원국의 현행 분담금 납부 방식이 복잡하여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들어 동 방식을 1990년도부터 변경, 각국의 분담금 비율(한국 0.22%)에 따라 소정 분담금액을 산정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함.

● 유엔사무국 제안 내용

- 유엔 총예산에 대한 각국의 분담금 비율과 조정률(flat annual rate)에 따라 유엔 비회원국의 분담금액을 매년 기계적으로 산출하여 일괄적으로 납부
- 유엔사무국은 5년마다 각국의 실제 유엔회의 참석 실적을 고려하여 조정율을 재조정
- 사무국은 한국에 대해 20%의 조정률 제시

● 한국 측 입장 반영

- 한국으로서는 비회원국 분담금 납부방식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한국에 대한 사무국 제시 조정률 20%는 한국의 회의 참석 실적에 비해 과중하므로 조정율을 향후 5년간 15%로 할 것을 제안
- 유엔사무국은 한국의 제안대로 한국의 조정율을 15%로 하여, 1989년 유엔총회에 회부 예정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전3권 (V.1 1-4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국제기구과
MF번호	2019-39 / 2 / 1-387

1. 유엔사무국은 1989.1월 한국의 1989년도 분담금(175,461달러)을 통보함.
 - 상기 분담금액은 1978~87년간의 한국 분담금 총액을 연간 평균으로 산출한 금액임.
 - 1989년말 실제 한국의 유엔산하기관 회의 참여 실적에 따라 정산
 - 제43차 유엔총회는 1989년부터 한국 등 비회원국의 분담금 납부에 관한 새로운 절차를 채택한 바 있음.
 - 비회원국으로 하여금 과거 10년간의 분담금 평균액을 회계연도 초에 납부하도록 하고, 실제 유엔회의 참석실적에 따라 동 금액을 사후에 조정
2. 외무부는 1989.3.21.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유엔 남부아프리카기금에 대한 기여금 서약식에서 한국의 남아프리카 관계 기여금 2만 달러 제공을 서약하기로 함.
 - 유엔 남부아프리카기금, 유엔 남부아프리카 교육연수 계획, 유엔 반아파트헤이트 홍보기금, 유엔 나미비아 연수원에 각 5,000달러씩 기여금을 제공하기로 서약함.
3. 외무부는 1989.3월 유엔고문피해자 구호기금에 5,000달러의 기여금을 공여하기로 함.
4. 외무부는 1989.3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추진하는 나미비아 난민귀환에 소요되는 자금 모금을 위한 서약회의에서 10,000달러의 공여를 서약하기로 함.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전3권 (V.2 5-9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국제기구과

MF번호 2019-39 / 3 / 1-304

1. 유엔사무국은 1982년 및 1985~87년중 한국이 참여한 유엔기구의 각종 활동경비 중 한국의 미납액수(총계 306,555달러)를 1989.5월 통보함.

- 1982년도 활동에 대한 분담금: 2,717달러
- 1985년도 활동에 대한 분담금: 21,232달러
- 1986년도 활동에 대한 분담금: 43,789달러
- 1987년도 활동에 대한 분담금: 238,717달러

578

2. UNEP(유엔환경계획) 사무국은 1989.5월 한국 정부의 향후 수년간 기여금 증액 계획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 제15차 UNEP 집행이사회 결의는 1992년까지 예산목표 1억 달러 달성을 위해 1989년 기준으로 매년 35%이상 기여금 증액을 각국 정부에 요청함.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전3권 (V.3 10-12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국제기구과
MF번호	2019-39 / 4 / 1-163

1. 외무부는 1989.10월 유엔 산하기관에 대한 1989년도 한국의 분담금(1,404,659달러) 납부를 위한 조치를 취함.
2. 외무부 국제기구국은 1989.11월 기획관리실에 1989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부족액(약 48만 달러)의 보전조치를 요청함.
 - 관계부처가 분담금 예산을 과소 책정하고,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각 국제기구가 예산을 증액함에 따라 동 예산의 부족분이 발생함.
3. 유엔사무총장은 1989.11월 한국의 1988년도 회의 분담금이 190,486달러라고 통보함.
4. '국제기구 분담금 88/89년도 집행내역' 자료가 수록됨.

1989년도 유엔 개발활동 기여금 서약회의. New York, 1989.10.30.-3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39 / 5 / 1-116

1. 외무부는 1989.10.31.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는 1990년도 유엔개발활동에 관한 서약회의에서 UNDP(유엔개발계획), UNICEF(유엔아동기금) 등의 기구에 대한 한국의 기여금을 국회 동의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서약하기로 함.
 - UNDP(1백만 달러), UNICEF(40만 달러), UNFPA(5만 달러), UNCHS(18.5천 달러), UNFSTD(3만 달러), UNIFEM(2천 달러), UNITAR(1만 달러), UNFDAC(2천 달러), SMF/LDC(1만 달러), UNTFA(5천 달러)
- 580 2. 외무부는 1989.11월 중 별도의 서약회의가 개최되는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 및 UNRWA(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서약하기로 함.
 - UNHCR(2만 달러), UNRWA(1만 달러)

한·일본 외무부 유엔국장 정책협의회, 제4-6차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39 / 6 / 1-318

1. 제4차 한·일본 외무부 유엔국장 정책협의회가 1987.7.20. 도쿄에서 개최된바, 주요 토의 의제는 아래와 같음.
 - 남·북한 유엔가입 문제, 군축 문제, 남극 문제, 유엔 토의의제 중 한·일본 양국간 협조가 요망되는 분야

2. 제5차 한·일본 외무부 유엔국장 정책협의회가 1988.6.17.~18. 서울에서 개최된 바, 동 회의 시 일본 측 발언요지는 아래와 같음.
 - 제43차 유엔총회 전망
 - 주요 의제는 아프가니스탄 문제, 이란·이라크 전쟁, 팔레스타인 문제, 앙골라 문제, 중미 사태, 남아프리카 문제 등 정치문제와 기타 유엔 재정문제, 미국·유엔관계 문제 등이 될 것으로 봄.
 - 아프가니스탄 문제 전망
 - 소련군 철수는 1988년 내 완료 가능성도 있으나, 그 후의 아프가니스탄 정국전망은 불투명함.
 - 유엔군축특별총회
 - 금번 제3차 총회는 신데탕트의 국제 분위기로 보아 결실을 볼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까지 최종문서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함.
 - 최광수 외무부장관 연설 평가
 - 최광수 장관의 군축총회 연설을 통한 단계적 군축협상 추진방향 제시는 일본 외무성도 높게 평가함.

3. 제6차 한·일본 외무부 유엔국장 정책협의회가 1989.7.24. 도쿄에서 개최된바, 주요 토의 의제는 아래와 같음
 - 남·북한의 유엔가입 문제, 한국 등 옵서버의 유엔 내 지위강화 문제,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평가, 남극 문제 관련 양국간 협력 문제, 제9차 비동맹 정상회의 전망, 제44차 유엔총회 전망, 국제군축협상의 현황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보트피플에 대한 일시비호정책, 1990년도 개도국 경제개발에 관한 유엔 특별총회 및 IDS의 전망

유엔 아시아그룹 회의. 전2권 (V.1 1-5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39 / 7 / 1-234

582

1.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9.1월 팔레스타인의 유엔 아시아그룹 의장직 수임 움직임 관련 한국입장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장관에게 건의함.

- 한국, 북한 및 팔레스타인은 유엔 비회원국이나 유엔에서 아시아그룹의 구성원이 됨.
 - 동 그룹은 아시아지역에 할당되는 유엔 각종기구의 이사국 또는 위원국으로 피선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비공식 협의기구
 - 상기 3개 구성원은 유엔 비회원국이므로 매달 순차적으로 담당하는 그룹의장직은 수임하지 않는 것으로 구두 양해
- 상기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은 아시아그룹의 의장직을 수임하는 데 관심을 표명하고 아시아국가의 의사를 타진함.
- 국제기구조약국은 한국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 한국이 팔레스타인의 의장직 수임에 찬성하는 태도를 밝힘으로써 한국도 앞으로 아시아그룹 의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유도
 - 동 문제에 대해 조용한 태도를 견지하되 한국의 찬반태도 표명 필요시 찬성태도를 명백히 함.

2. 1989.1~5월 아시아그룹 회의의 주요 협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 1.12. 회의
 - 유엔사무총장이 Director-General for Development and Int'l Economic Cooperation로 지명하고자 하는 전 주아르헨티나 프랑스대사에 대해 이견없음을 통보하기로 함.
 - 제44차 유엔총회 부의장국 후보 등 각종 위원국, 이사국 등의 후보국을 선정함.
- 2.24. 회의
 - 팔레스타인의 의장국 추진 포기로 파푸아뉴기니가 1989.2월 의장국이 됨.
 -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국 등 기구별 후보국 선정 문제를 협의함.
- 3.29. 회의
 - 1989년도 제1차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회의 및 제44차 유엔총회 시 선출 예정인 기구의 후보국 문제를 협의함.
- 5.5. 회의
 - 의장은 아시아그룹에 할당된 2석의 군축위 부의장에 바레인, 스리랑카를 추천하였음을 밝힘.
 - 1989년도 제1차 ECOSOC 회의 및 제44차 유엔총회 시 선출 예정인 기구의 후보국 문제를 협의함.
- 5.17. 회의
 - 의장은 유엔사무국 총회담당 국장과 각 지역 그룹 의장 간의 회의결과(제44차 유엔총회 개최시기 및 의제, 총회 의장 및 부의장 후보, 각 위원회 의장 후보)를 설명함.

유엔 아시아그룹 회의. 전2권 (V.2 6-12월)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39 / 8 / 1-138

1989.6~12월 유엔 아시아그룹 회의의 주요 협의내용임.

1. 6.27. 회의

- 유엔사무국 총회담당국장이 각 지역그룹 의장에게 브리핑한 내용 청취
- 제44차 유엔총회 기구에 대한 입후보 선정 문제 협의

2. 8.24. 회의

- 의장으로부터 유엔총회 담당 사무차장이 각 지역그룹 의장에게 브리핑한 내용 청취
- 제44차 유엔총회 기구에 대한 후보국 간 이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9월 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함

3. 9.15. 회의

- 제44차 유엔총회 기구에 대한 각국의 입후보 조정 문제 협의

4. 9.22. 회의

- 의장은 아주그룹에 배당된 공석에 비해 입후보국이 많아 후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UNDP(유엔개발계획) 등 3개 기구의 입후보국들이 비공식 협의를 계속할 것을 당부

5. 10.20. 회의

- 유엔기구 입후보 관련 각국 대표가 입장 표명

6. 10.31. 회의

- 유엔 사무총장이 추천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 후보(노르웨이 출신)를 지지하기로 결정
- 아파르트헤이트에 관한 특별총회를 1989.12월 개최하도록 하는 총회결정 초안을 지지하기로 결정

7. 11.13. 회의

- 유엔기구 입후보국 간 조정을 위한 토의 진행

8. 11.30. 회의

- 유엔기구 입후보국 간 조정을 위한 토의 계속



9. 12.5. 회의

- 유엔군축위원회 의장에 인도네시아, 부의장에 이란을 지지하기로 결정
- 제17차 특별총회(마약 특총) 부의장에 말레이시아를 지지하기로 결정
- 제16차 특별총회(아파트헤이트 특총) AD-HOC 위원회 의장단에 바누아투를 지지하기로 결정

10. 12.13. 회의

-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및 부속기구에 대한 입후보 조정
- 제45차 유엔총회 기구 입후보 문제 토의

유엔총회, 제44차. New York, 1989.9.19.-12.22. 전14권 (V.1 기본대책)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39 / 9 / 1-173

제44차 유엔총회에 대비한 대책 및 조치사항임.

1. 유엔총회 기본대책 수립

- 1989.8월 기본대책 수립
- 기본방침
 - 유엔가입 당위성에 대한 지지에 중점
 - 회원국 대상으로 가입 지지 교섭
- 지지 교섭용 각서
 - 한국의 유엔가입 당위성
 - 한반도 평화정착 및 세계평화에 기여
- 안보리 문서용 설명자료
 - 과거 유엔가입 신청 경위 설명
 - 북한 가입 불반대 입장
 - 북한의 반대 논리의 허구성

2. 유엔가입 안보리 문서

- 주유엔대표부는 유엔가입 설명문을 안보리 의장 앞 서한으로 배포요청하고자 외무부에 1989.8.25. 청훈
- 외무부는 9.5. 주유엔대사 명의로 안보리 의장에게 배포요청하도록 지시
- 주유엔대사는 9.5. 안보리 의장인 브라질 대사 면담, 설명서 수교 및 배포요청
- 9.6. 상기 안보리문서 배포

3. 제44차 유엔총회 대비 홍보

- 외무부는 1989.8.27. 유엔가입 지지를 위해 교섭하도록 관련 공관에 지시
- 외무부는 8.28. 제44차 유엔총회에서 가입신청서 제출 계획이 없음을 공관에 통보
- 주유엔대사는 9.6. AP, 로이터, UPI, BBC 등의 유엔주재 지국장들에게 유엔가입에 관한 입장 설명
- 권종락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9.8. Budai 주유엔 헝가리대표부 차석에게 유엔가입에 대한 입장 설명

유엔총회, 제44차. New York, 1989.9.19.-12.22. 전14권 (V.2 기조연설 지지교섭 I: 각서(memorandum) 배포)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39 / 10 / 1-84

제44차 유엔총회의 기조연설 지지교섭에 관한 내용임.

1. 유엔총회 한국입장 지지교섭 각서

- 내용
 - 기본방향: 유엔가입의 당위성에 초점
 - 내용: 보편성 원칙에 입각한 가입 당위성,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
- 영어본 외에 아랍어, 서반아어, 불어본 등 작성

586

2. 유엔가입 정책에 대한 외국 반응 및 지지 교섭

- 1989.9.11. 현재 총 97개국의 반응 접수
 - 지지표명 또는 검토약속: 53개국
 - 지지표명 곤란: 10개국
 - 입장 불확실: 34개국
- 외무부는 9.11. 각국의 기조연설에 지지 내용 포함을 교섭하도록 지시
- 외무부는 9.16. 재외공관에 대주재국 지지 교섭을 강화하도록 지시
- Mock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은 방한 중인 9.18.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우리입장 지지 약속
- 북한은 8.21. 유엔가입에 반대하는 북한 외교부 성명을 안보리문서로 배포

유엔총회, 제44차. New York, 1989.9.19.-12.22. 전14권 (V.6 각국 기조연설 II: 주유엔대표부 및 공관보고)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0 / 2 / 1-229

제44차 유엔총회 시 각국의 기조연설에 관한 내용임.

1. 기조연설

- 1989.9.25. 브라질, 미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페루 등 5개국 대표 연설
 - 오스트리아: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 표명
 - 페루: 한국의 통일을 위한 노력 지지
- 9.26. 일본, 보츠와나 등 8개국 대표 연설
 - 일본: 남북한의 유엔가입 지지 및 환영, 남북한 당사자 간의 직접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해결 희망
 - 보츠와나: 한국 문제의 평화적해결 촉진을 관계당사국에 촉구
- 9.27. 서독, 이태리, 필리핀, 영국, 포르투갈 등 13개국 대표 연설
 - 서독: 동·서 관계의 장래 및 유럽평화를 위한 독일의 역할
 - 필리핀: 외채 등 경제문제 강조
- 9.28. 캄보디아, 몰타, 헝가리, 케냐 등 13개국 대표 연설
 - 헝가리: 유엔의 보편성 확보를 위한 가입 희망국의 가입 지지 강조
 - 케냐, 그리스, 네덜란드: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
- 9.29. 이집트, 나이지리아, 동독, 중국(구 중공) 등 연설
 - 나이지리아, 아일랜드, 태국, 룩셈부르크, 수단, 피지: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
 - 동독: 북한의 평화노력 지지
- 10.2. 뉴질랜드, 리비아, 요르단, 가봉 등 연설
 - 요르단, 가봉: 한국의 유엔가입 언급
- 10.3. 터키, 칠레,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시리아 등 연설
 - 터키, 칠레: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
- 10.4. 코트디부아르, 코모로, 사이프러스, 체코, 자메이카 등 연설
 - 코트디부아르, 코모로: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
- 10.5. 인도, 말레이시아, 이라크 등 연설
 - 인도가 최초로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 발언



2. 기초연설 종합

- 1989.9.25.~10.12.간 154개국 참여
- 연설 내용
 - 군축, 지역분쟁, 경제문제 외에 환경 및 마약문제를 강조
 - 101개국이 한국 문제 관련 언급
 - 41개국이 한국의 유엔가입 입장 지지

유엔총회, 제44차. New York, 1989.9.19.-12.22. 전14권 (V.7 장관 방문: 일정)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0 / 3 / 1-317

제44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면담 및 활동 내용임.

1. 제44차 유엔총회 시 면담 및 활동 계획

- 기본방침: 20여개국
 - 정책협의 필요: 미국, 일본
 - 미수교국과의 수교교섭 면담
 - 최근 방한 인사는 제외
- 면담 검토 대상국
 - 중남미: 브라질,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 중동 아프리카: 알제리, 남예멘, 베냉, 토고, 말리, 카보베르데
 - 유럽: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터키,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헝가리
 - 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파키스탄
- 주요 활동 계획
 - 유엔사무총장, 총회의장 등 면담
 - 미국, 일본 외무장관, 동구권 및 미수교국 외무장관, 기타 주요국가 외무장관 등 면담
 - 미국 주요인사 면담
 - 장관 주최 행사

2. 제44차 유엔총회 참석 활동 내용

- 기간: 1989.9.23.~10.1.
- 목적
 - 제44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평화통일정책 및 유엔가입 당위성 설명 및 홍보
 - 동구권 및 미수교국과의 관계개선
 - 대유엔 외교강화
- 주요 활동 계획
 - 한·미국, 한·일본 외무장관 회담
 - 인도,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헝가리 등 10개국 외무장관 면담
 - 유엔사무총장, 총회의장 면담
 - 부시 미국 대통령 주최 우방국 협의회 참석
 - 대언론 활동: 뉴욕 타임즈, 유엔주재 각국 특파원 등

유엔총회, 제44차. New York, 1989.9.19.-12.22. 전14권 (V.9 장관 방문: 언론보도 및 홍보)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0 / 5 / 1-180

최호중 외무부장관의 제44차 유엔총회 참석 관련 대언론 활동 및 언론보도 내용임.

1. 외무부장관의 대언론 활동

- 주요 일정
 - 9.26. 한국 특파원과의 간담회
 - 9.27. UNCA(유엔 특파원단) 초청 리셉션
 - 9.28. 뉴욕타임즈 기자 인터뷰
 - 9.29. 재뉴욕 주요 교포단체장 초청 오찬 및 재뉴욕 교포기자와의 간담회
- 대언론 활동내용
 - 한국특파원 간담회: 부시 미국 대통령 주최 만찬 참석 의의, 유엔가입 문제, 북방외교 추진 성과 등 설명
 - UNCA 리셉션: 유엔가입, 동구권과의 경제협력, 남북한 대화전망 등 답변
 - 뉴욕타임즈 회견: 유엔가입,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주한미군 문제, 중국 및 소련과의 관계, 유엔평화유지군 활동지원, 남북한 대화 등에 관해 질의 및 답변

2. 언론보도

- NYT(10.15): "Seoul renews Bid to gain UN Seat"
- AP: "South Korea calls its Admission to UN without delay"
- UPI: "South Korea renews Quest for UN Admission"
- Intercop Press: "La Republica de Corea pertenece a la familia"
- El Heraldo de Mexico: "La Republica de Corea Pertenece a la O.N.U."
- 한국일보 현지판(10.1): "최외무 제44차 유엔총회 참석"
- 국민일보(9.22): "유엔총회 새의장 가르바"
- 동아일보(10.2): "한국 유엔가입 기반 다졌다"

유엔총회, 제44차. New York, 1989.9.19.-12.22. 전14권 (V.11 본회의 토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0 / 7 / 1-200

제44차 유엔총회의 의제, 일정 및 본회의 토의내용임.

1. 의제

- 총회 운영위가 1989.9.20. 개최, 의제 채택 및 총회 운영 관련 결정
- 의제
 - 155개 의제를 총회 의제로 건의
- 총회는 9.22. 속개, 운영위 보고서를 채택

2. 본회의 일정

- 1989.10.12. Garba 유엔총회 의장은 총회 본회의 잠정 일정을 발표
- 일정
 - 10.17. 사무총장 보고서, 유엔·OAU(아프리카단결기구) 간 협력, 유엔·이슬람회의기구 간 협력 등
 - 10.18.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5개국 선거
 - 10.23. 중미 정세, 환경문제 등
 - 10.24. 국제평화의 해 성과, 수단원조
 - 10.26.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 11.1.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29개국 선거
 - 11.6. 문화재의 원소속국 반환 등
 - 11.7. 남아공의 아파트헤이트 정책
 - 11.8. 대처 영국 수상 연설 등

3. 본회의 결과

- 1989.11.26. 의제 37(팔레스타인 문제) 결의안 채택
- 12.8. 의제 18(식민지 독립부여선언 이행) 관련 결의 및 결정 등 채택
- 12.15. 11개 의제 관련 41개 결의안 2개 결정사항 채택
- 12.21. 18개 결의안 및 2개 결정 채택

유엔총회, 제44차. New York, 1989.9.19.-12.22. 전14권 (V.12 위원회별 토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0 / 8 / 1-366

제44차 유엔총회 위원회별 토의 및 관련 자료임.

1. 제1위원회

- 1989.10.13. 부의장 및 보고자 선출 후 회의 일정 채택
- 10.16.이후 군축문제 관련 각국 대표 연설
- 10.25. 군축 주간행사 및 연설과 기여금 서약회
- 11.2.이후 군축문제 토의 및 결의안 논의
- 11.17. 군축결의안 처리 및 발언
- 11.27.~30. 국제안보 의제 토의 및 결의안 처리

2. 특별정치위원회

- 1989.10.17.~25. 6차례 회의 개최, 방사능 효과 등 논의
- 10.24.이후 UNRWA(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 팔레스타인 점령지 인권 등 토의

3. 제2위원회

- 1989.10.23.이후 환경, 사막화 문제, 환경보호 등 토의
- 12.4.이후 기후 보호, 개도국 빈곤제거 등 결의안 채택

4. 제3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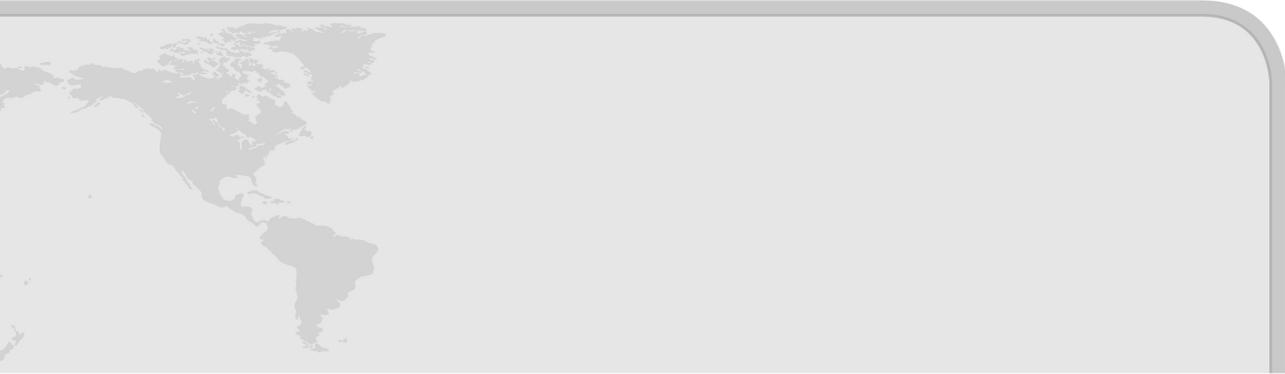
- 1989.9.19. 의장단 선출 및 의제 토의 회의 진행 계획 채택
- 10.9.이후 인종주의 철폐, 인권, 사회개발, 여성 문제 등 토의
- 11.28. 난민 지원 등 결의안 채택

5. 제4위원회

- 1989.10.5.이후 식민지 독립부여 선언 등 의제 토의
- 11.28. 토의 종료

6. 제5위원회

- 1989.9.26. 의장단 선출
- 12.20.까지 재정보고서, 유엔 예산안, 행정 효율성, 예산안 재심의 등 토의



7. 제6위원회

- 1989.9.26.~28. 용병문제 관련 국제협약 초안심의 작업단 설치
- 10.10.이후 유엔기능강화특위보고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법 원칙, 테러방지조치 등 토의
- 12.1. 테러리즘 결의안 채택

유엔총회, 제44차. New York, 1989.9.19.-12.22. 전14권 (V.13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0 / 9 /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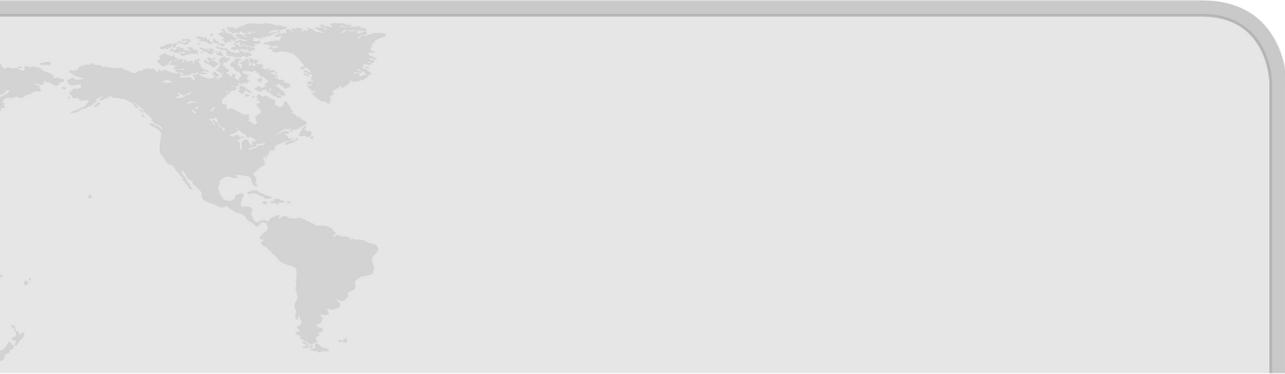
제44차 유엔총회 결과보고임.

1. 결과보고

- 기간
 - 1989.9.19.~12.22.
- 의제
 - 160개 의제 논의 및 처리
- 주요 토의 문제
 - 팔레스타인, 캄보디아 사태 등 지역분쟁
 - 부분핵실험금지조약 개정 등 군축 및 국제안보
 - 환경 및 개도국 경제개발문제
 - 아동권리협약 채택 등 사회, 인권 문제
 - 용병의 모집사용 등 금지 국제협약의 채택 등
- 주요문제 토의 특기사항
 - 국제평화 등 관련 미국·소련 간 협력 및 공동결의안 제출
 - 마약 및 환경문제의 부각
 - 팔레스타인대표의 지위 격상 노력
- 한국 관련 사항 평가
 - 한국의 유엔가입 지지 증대
 - 여성, 아동 등 의제에 관한 유엔활동에 적극 참여

2. 본회의 및 위원회 토의 결과

- 종합 평가
 - 국제관계의 개선 분위기 속에서 생산적인 총회 활동
 -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소련의 국제평화 및 협력증진 관련 공동결의안 제출 및 채택
 - 지역분쟁 외에 환경 및 마약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
- 본회의
 - 55개의 본회의 의제 및 105개의 각 위원회 상정 의제 처리
 - 국제관계의 개선을 반영, 타협을 모색하는 분위기의 진작
 - 주요 의제: 미국·소련 공동결의안, 마약 특총, 캄보디아 정세, 중동 정세 등



● 위원회별 토의

- 제1위원회: 부분핵실험금지조약 개정, 인도양 평화지대 선언 이행 등
- 특별정치위원회: 평화유지활동, 외기권 평화적 이용 등
- 제2위원회: 개도국 경제개발, 개도국 외채, 환경 문제 등
- 제3위원회: 인권, 마약, 여성, 인종 문제 등
- 제4위원회: 식민지 독립부여 선언 이행
- 제5위원회: 유엔재정 위기, 회의 운영방식, 신분담률 등
- 제6위원회: 국제테러방지 조치, 용병 모집 등 국제협약 등

유엔총회, 제44차. New York, 1989.9.19.-12.22. 전14권 (V.14 각국 대표단 및 북한 동정)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0 / 10 / 1-39

제44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 및 북한 동정에 관한 내용임.

1. 참석자

- 파라과이: A. Rodriguez 대통령
- 터키: M. Yilmaz 외무장관
- 케냐: Ouko 외무장관
- 네팔: Upadhyaya 외무장관
- 싱가포르: Wong Kan Seng 외무장관
- 핀란드: Paasio 외무장관
- 미국: Bush 대통령
- 과테말라: Cerezo 대통령
- 콜롬비아: Barco 대통령
- 스웨덴: S. Andersson 외무장관
- 아르헨티나: 메넴 대통령
- 볼리비아: J. Paz 대통령
- 호주: Evans 외무장관
- 이라크: Aziz 외무장관

2. 북한 동향

- 북한 정부대표단(단장: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
 - 1989.9.17. 도착 2~3주 체류 예정
 - 9.21. 케야르 유엔 사무총장 면담 등 68개국 대표단장과의 면담 추진
- 주유엔 북한대표부
 - 9.8. 유엔사무국 및 각국대표부 등을 초청, 9·9절 리셉션 개최
 - 9.11. 박길연 주유엔 북한대사, 주유엔 교황청대사 접촉 시 옵서버국가의 유엔총회 연설 동정 파악

제26차 유엔총회에서의 중공대표단 활동보고

생산연도 1971-1972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0 / 11 / 1-74

제26차 유엔총회에서의 중국(구 중공)대표단의 활동 내용임.

1. 차오 관화 중국 수석대표는 1971.11.15. 유엔총회에서 연설함.
2. 1971.11.18. 현재 중국대표단의 활동은 아래와 같음.
 - 중국대표들은 총회장에서 타국대표들과의 접촉을 활발히 함.
 - 중국은 제1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토론에는 불참함.
 - 중국대표들은 안건제기 등 활동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처신함.
3. 중국대표는 1971.11.16. 유엔 특별정치위원회에서 아파트헤이트에 관한 결의안 표결 시 투표정정 등 실수를 함.
 - 중국은 포르투갈과 함께 반대투표를 하였으나, 실수를 깨달은 중국대표는 회의절차에 익숙하지 않다고 변명하고 반대투표를 철회함.
 - 중국대표는 재차 발언권을 얻어 찬성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함.
4. 중국대표는 1971.11.19. 제3위원회에서 동파키스탄 피난민 문제에 관하여 아래 요지로 발언함.
 - 동파키스탄 사태는 내정문제로 파키스탄 정부가 해결하여야 함.
 - 동 사태가 내정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인도)가 간섭하고 있음.
 - 파키스탄에 대한 내정간섭은 즉시 중지되어야 함.
5. 중국은 1971.12월 군축문제에 관한 결의안 표결 시 아래와 같은 태도를 보임.
 - 전면 군축문제 각종 결의안: 불참
 - 화생무기문제 각종 결의안: 불참
 - 핵·수소탄 실험금지 결의안: 반대

유엔총회에서의 남극 문제 토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9-40 / 12 / 1-207

598

1. 제43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1988.11.21.~22. 남극 문제(의제 70)를 토의함.

-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남극조약 비당사국 14개국과 동 조약 당사국을 대표한 호주가 발언하고, 2개의 결의안을 채택함.
- 조약 비당사국들은 남극 문제에 대한 컨센서스 실패의 책임이 유엔과의 협조를 거부한 조약 당사국에 있다고 하고 남극 문제를 인류 공동유산 개념에 입각하여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할 것을 주장함.
 - 특히 제42차 유엔총회가 남극 광물자원 교섭의 연기를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8.6월 남극광물자원협약을 시급히 채택한 것을 강력히 비난
- 호주 대표는 조약 당사국을 대표하여 남극조약과 남극광물자원협약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남극 문제는 남극조약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컨센서스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함.

2. 제44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1989.11.20.~22. 남극 문제(의제 70)를 토의함.

-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남극조약 비당사국 20개국과 조약 당사국을 대표하여 호주가 토의에 참가하고, 실질문제 결의안과 남아공 관련 결의안이 채택됨.
- 조약 비당사국들은 남극 문제가 세계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사국들만이 남극 문제의 모든 결정을 독점하고 있음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고, 남극 문제를 인류공동유산의 개념에 입각하여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조약 당사국들이 남극 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유엔사무총장의 회의 참석 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협의내용을 계속 비밀로 함으로써 비당사국들에게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고 비난
- 호주 대표는 조약 당사국을 대표하여 남극조약 체제가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고, 당사국들도 환경보호 문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남극조약 체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남극 문제는 남극조약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컨센서스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함.

제4차 유엔개발 10개년을 위한 국제개발전략 준비회의, 제1-2차 회기. New York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0 / 13 / 1-135

1. 정부는 1989.6.5.~19.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4차 유엔개발 10개년을 위한 국제개발전략 준비위 제1차 회의에 채의석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회의 결과

- 동 회의는 5차례의 회합을 통하여 새로운 국제개발 전략에 관한 회원국의 일반적 견해를 청취한 후 종료(예정보다 1주일 단축)
- 개발계획위원회 등이 제출한 문서는 국제개발전략이 다룰 우선 분야로 경제성장의 가속화, 인적자원개발, 극빈상태 감소 및 환경보존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원국들도 동 분야를 중심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동 4개 분야가 향후 국제전략의 윤곽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 일반 토의에서 개도국들은 세계경제의 불균형 시정, 개도국 외채문제 해결, 보호주의 무역 관행의 시정, 기술이전 등을 강조한 반면, 선진국들은 지속가능개발이 국제개발전략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질적인 개발, 사례별 접근 방식, 공공분야 역할 축소를 강조
-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강조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개발의 시급성, 환경문제의 중요성, 극빈상태의 감소, 개도국 외채문제의 해결 등에 있어 회원국들의 의견수렴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

2. 정부는 1989.9.11.~15.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4차 유엔개발 10개년을 위한 국제개발전략 준비위 제2차 회의에 채의석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회의 결과

- 제4차 국제개발의 윤곽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의 종료
- 77그룹이 제3차 국제개발전략과 같은 방식으로 각 분야의 전략을 세부적으로 열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선진국들은 양적인 목표를 지양하고 우선 분야별로 개괄적인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는 입장 표명
- 77그룹이 제4차 국제개발전략이 선진국의 의무이행을 위주로 하는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전략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EC(구주공동체)는 개발에 있어 일차적인 책임은 각국에 있음을 강조하고 개발전략은 국제협력보다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맞게 추진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

유엔평화유지군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0 / 14 / 1-78



1. 노르웨이의 노벨상위원회는 1988.9.29. 유엔평화유지군을 1988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함.
 - 유엔평화유지군이 세계 각 분쟁지역의 긴장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유엔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한 점이 평가됨.
 - 동 수상 결정은 1988년도 이란·이라크 정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소련군 철수, 서남아프리카지역 분쟁 협상 진전 등을 중재한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간접적인 시상으로 해석됨.
2.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8.10월 대통령의 유엔 방문 시 유엔평화유지 기능을 위한 500만 달러의 기여금 제공을 외무부장관에게 건의함.
 - 평화유지군 경비 특히 이란·이라크 휴전 감시단 유지에 관한 자발적 기여금으로 제공할 것을 건의함.
3. 주유엔대표부가 유엔에서 설립 준비 중인 '평화유지 신탁기금'에 한국이 100만 달러를 기여할 것을 건의한 데 대해, 외무부는 1989.8. 주유엔대표부에 아래와 같이 회보함.
 -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은 안보리에 일차적 책임이 있고, 아직 동 기금에 대한 주요 회원국의 지원 여부 및 규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회원국인 한국이 앞서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고 시기상조일 것으로 판단되어 현 단계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함.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0 / 15 / 1-109

1. 정부는 1989.5.2.~24.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1989년도 ECOSOC(유엔경제사회이사회) 제1차 회기 회의에 채의석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회의결과
 - 제1(경제)위원회 관련 보고서 채택(다국적 기업)
 - 제2(사회)위원회 관련 보고서 채택(여성문제, 사회개발, 인권문제)
 -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 철폐 행동계획 이행 결의안 채택
 - 국제연대 설정지침 관련 결의안 채택
 - 제2차 회기 회의 잠정예제 채택

2. 정부는 1989.7.5.~28.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1989년도 ECOSOC 제2차 회기 회의에 박영우 주제네바대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회의 결과
 - 선진국들은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균형보다는 환경, 인권, 난민, 인구문제 등이 주요 관심사임을 표명하고, 개도국들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성장 불균형이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에서 기인한다고 하면서 세계경제체제의 구조적 변화 필요성을 역설
 - 본회의 소관 결의안 3개 채택(세계 경제상황 변동의 조기 파악·분석·관제를 위한 유엔의 역할, 팔레스타인 및 기타 아랍 점령지에서의 이스라엘의 경제적 형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개최 문제)
 - 위원회 관련 결의안 채택
- 한국 수석대표는 아래 요지의 기초연설을 함.
 - 주요 선진국 간의 불균형이 선진·개도국 간의 불균형을 악화시킴을 언급
 - 선진국과 개도국 공히 조정 노력을 시급히 하여야 함을 강조
 - 국제사회가 해결하여야 할 주요 문제로 개도국 외채문제, 보호무역주의 및 환경보호 문제를 지적
 - 한국이 취하고 있는 남남협력분야 제조치 소개

UNCHS(유엔인간거주위원회) 총회, 제11차. New Delhi, 1988.4.6.-12.

생산연도 1988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1 / 1 / 1-172

정부는 1988.4.6.~12.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11차 UNCHS(유엔인간거주위원회) 총회에 서병기 건설부 주택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참가국

- 49개 회원국
- 33개 비회원국

602

2. 회의 의제

- 세계 무주택자의 해에 관한 사무국장 보고
- 주거문제해결을 위한 2000년까지의 국제전략
- Habitat 활동상황 보고

3. 한국대표단 활동

- 1988.4.7. 총회 기조연설에서 2000년까지의 한국 정부의 입장 및 주택정책에 관해 발표
- 대한주택공사에서 준비한 한국의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사진전시회 개최 및 유인물 배포 등 홍보활동

UNCHS(유엔인간거주위원회) 총회, 제12차. Cartagema(콜롬비아), 1989.4.25.-5.3.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1 / 2 / 1-219

1. 정부는 1989.4.22.~5.3.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된 제12차 UNCHS(유엔인간거주위원회) 회의에 조우현 건설부 주택정책과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참석자: 49개 회원국 및 29개 비회원국 대표, 26개 단체 대표 등

2. 동 회의의 주요 토의결과는 아래와 같음.

- UNCHS의 활동 보고
 - 8개 항목 주거전략 추진상황
- 2000년의 세계주거 전략
 - 각국의 주거전략 수행상황과 계획 발표
- 각국의 기여금 발표
- UNCHS 활동 계획(1990~97년 중기계획)
 - 중기계획에 관한 사무국의 보고(국제협력 강화, 여성의 정주개발 참여 적극 지원 등) 청취
-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 간의 상호협력 및 건물·부대시설의 유지보수와 비용 토의
 - 비정부기구 및 민간부분 참여 적극 지원 필요성 강조
 -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의 개도국 지원현황 설명
 - 기술 및 재정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강화 강조
 - 유럽 국가들은 주택의 개보수, 증개축, 근린주거환경보존이 신축만큼 중요함을 설명
 - 영국, 네덜란드는 주택보호기술 및 재정지원 방안 등에 있어 개도국 지원 용의표명
- 한국 대표단의 활동
 - 기초연설에서 한국의 주택정책 설명
 - 분과위원회 토의참가 및 자료전시·배포

UNCTC(유엔다국적기업위원회) 회의, 제14-15차. New York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1 / 3 / 1-106

1. 정부는 1988.4.6.~15.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14차 UNCTC(유엔다국적기업위원회) 회의에 오행겸 주유엔대표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참석자
 - 48개 회원국 및 11개 옵서버국 대표, 10개 유엔전문기구 대표, 전문가 14명 등
- 토의 의제
 - 다국적기업과 국제경제관계의 최근 추세, UNCTC의 활동, 다국적기업 행동 규범, 국제적인 회계 및 보고, 남아프리카와 나미비아에서의 다국적기업 활동, 개도국의 대TNC(무역협상위원회) 협상능력 제고, 연구조사, 다국적은행의 역할, 정보체계, 전문가 임명
- 회의 결과
 - 의제 토의
 - 결의안 채택(남아프리카·나미비아에서의 TNC 활동, UNCTC의 활동,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UNCTC의 역할 강화)

2. 정부는 1989.4.5.~14.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15차 UNCTC 회의에 오행겸 주유엔대표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토의 의제
 - 다국적기업과 국제경제관계의 최근 추세, 남아프리카와 나미비아에서의 다국적기업 활동, UNCTC의 연구활동, 다국적기업 행동규범, 국제적인 회계 및 보고, 서비스분야에서의 TNC의 역할, 개도국의 대TNC 협상능력 제고, 포괄적 정보체계, UNCTC의 차후 활동
- 회의 결과
 - 의제 토의
 - 결의안 채택(8개)

유엔직원 연금기금의 한국내 증권투자 문제

생산연도 1984-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1 / 4 / 1-211

1. 유엔직원 통합연금기금은 1984.6월 이래 수차에 걸쳐 동 연금기금이 한국증권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특혜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외무부는 1984.7월 및 1985.2월 아래 입장을 동 연금기금에 통보함.
 - 외국인에게 한국 국내증권시장을 직접적으로 개방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음.
 - 현 여건하에서는 동 유엔직원 연금기금은 Korea Fund 주식매입, KIT 및 KT의 수익증권의 매입을 통하여 한국 증권에 간접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음.
2. 국세청은 1989.1월 대한투자신탁 앞 공한으로 유엔직원 통합연금기금에 대한 특권 및 면제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유엔직원 통합연금기금은 1986년 이래 대한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한 연 약 2억5천만원의 이익 분배액에 대하여 유엔헌장 및 유엔특권면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면세하여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함.
 - 동 연금기금에 대한 면세특권과 관련한 국세청의 문익에 대하여, 외무부는 1988.12월 동 연금기금 및 투자이익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요지의 검토의견을 회보함.

주유엔한국대표부 대외활동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1 / 5 / 1-69

1989년 중 주유엔대표부의 대외활동에 관한 내용임.

1. 주유엔대사의 주요인사 면담은 아래와 같음.

- 유엔사무총장(1월), 유엔사무총장 특별보좌관(1월), BBC 유엔지국장(1월), 파나마대사(3월), 필리핀대사(3월), 콩고대사(3월 면담, 5월 오찬), 안보리 의장(세네갈대사, 3월), 르완다대사(3월), 헝가리대사(관저만찬, 4월), 탄자니아대사(5월 면담 및 오찬), 토고대사(8월), 주요 언론사 특파원 10명(12월 오찬)

606

2. 주유엔대표부 직원들의 주요인사 접촉은 아래와 같음.

- 중국 수석참사관(2월 면담 및 오찬), 폴란드 공보관(2월 및 5월), 소련 국영방송 유엔지국장(3월), 체코 공보관(3월), 헝가리 공보관(3월), 소련 공보관(3월 및 5월), 소련 참사관(3월), 유고슬라비아 참사관(4월 및 5월)

3. 주유엔대표부는 1989.10.3. 국경일 리셉션을 개최함.

- 제44차 유엔총회 의장을 비롯한 주유엔 외교단, 유엔총회 각국 고위대표단, 주유엔 특파원, 교민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함.

4. 주유엔대표부는 1989.11.15. 서울올림픽 영사회를 개최함.

- 주유엔 외교단, 주유엔 특파원 등 각계 인사 약 250명이 참석함.

5. 유엔대표부는 1989.1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내용을 Press Release로 제작하여 각국 대표부, 유엔사무국 및 출입기자에게 배포함.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법적지위 문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유엔정책과
MF번호	2019-41 / 6 / 1-12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법적지위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설치 경위는 아래와 같음.

- 1973.6.27. 허담 북한 외교부장은 유엔사무총장에게 주유엔 북한대표부 설치를 신청
- 1973.6.29. 유엔사무총장이 이를 승인
- 1973.9.14. 초대 권민준 대사는 유엔사무총장에게 임명통지서 제출

2. 외무부가 1989.11.8. 한국민의 주유엔 북한대표부 직원 접촉문제에 관해 검토함.

- 주유엔 북한대표부 설치근거 및 법적지위
 -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상주 옵서버대표부인바, 옵서버대표부의 설치근거나 특권, 면제 등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음.
 - 관행상 유엔 비회원국이 1개 이상의 유엔전문기구 회원국이 되면 뉴욕 및 제네바에 상주 옵서버대표부를 설치하게 되며, 설치절차는 해당 비회원국이 유엔사무총장에게 설치희망을 표시하고 사무총장이 이를 승인함.
 - 북한은 1973.5월 WHO(세계보건기구) 가입 후 주제네바대표부와 주유엔대표부를 설치함.
- 옵서버대표부의 유엔업무 범위 밖의 활동
 - 이론적으로 미국 정부의 입국비자 발급과 관련, 입국 목적 외의 활동으로 인정될 경우 규제가 가능하나, 실제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정부의 규제사례가 거의 전무함.
 - 북한대표부 설치 초기에는 대언론 접촉활동(기자회견, 주요 일간지 광고게재) 등과 관련, 미국 정부가 유엔을 통해 북한 측의 주의를 환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언론 활동, 교민접촉 등을 이유로 미국 측이 북한 측에 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없음.
- 한국민의 주유엔 북한대표부 직원 접촉문제
 - 한국민의 주유엔 북한대표부 직원 접촉 허용여부는 일차적으로 한국 정부에 달려있음.
 - 북한대표부의 유엔업무 범위 밖의 활동이 미국 정부의 정책이나 국가이익에 직접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 광범위하게 방임되고 있는 현재의 관행을 고려할 때 미국 측이 한국민의 북한대표부 접촉을 스스로 문제삼을 가능성은 크지 않음.
 - 그러나,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활동이 본래의 설치목적에 충실한 범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기본입장임에 비추어 한국민의 주유엔 북한대표부 접촉과 같이 북한이 유엔활동 참여와 무관한 사안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한국의 외교정책상 바람직하지 않음.

유엔 주재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대사 방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1 / 7 / 1-266

유엔 주재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대사의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유엔 주재 중동 및 아프리카대사 4명(코트디부아르, 튀니지, 남예멘, 레소토)이 유엔 및 비동맹 유력인사 방한초청사업의 일환으로 1989년 중 각각 방한함.

2. 상기 대사들의 주요 방한일정은 아래와 같음.

- Essy 코트디부아르대사(1989.4.10.~13.)
 -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면담 및 만찬, 중동아프리카국장 주최 만찬, 판문점·올림픽경기장 시찰
- Ghezal 튀니지대사(1989.4.24.~27.)
 -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면담 및 만찬, 중동아프리카국장 주최 만찬, 판문점·올림픽경기장 시찰
- Al-Ashtal 남예멘대사(1989.5.2.~6.)
 -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면담 및 만찬, 중동아프리카국장 주최 만찬, 판문점 시찰, 민속촌 등 관광
- Phoofolo 레소토대사(1989.8.24.~28.)
 -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면담 및 만찬, 중동아프리카국장 주최 만찬, 판문점 시찰, 지방 방문

유엔 주재 미주지역 대사 방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1 / 8 / 1-235

1989년도 유엔 주재 미주지역 대사의 방한에 관한 내용임.

1. Pickering 주유엔 미국대사가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1989.8.9.~10. 방한하여 대통령 예방, 외무부장관 면담 및 오찬 등 일정을 가짐.
 - 대통령 및 외무부장관 면담 중 한국의 유엔가입 문제, 한국의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등 유엔활동 지원 문제, 주요 국제분쟁, 남태평양 신탁통치지역 독립문제 등 양국 관심사를 협의
2. Barrow 주유엔 바베이도스대사가 유엔·비동맹 방한초청사업의 일환으로 1989.5.24.~6.2. 방한한 바, 주요 방한일정은 아래와 같음.
 - 외무부장관 예방,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면담, 경주관광
 - 제19차 국제간호협의회 서울총회 참석
3. Delpech 주유엔 아르헨티나대사가 유엔·비동맹 방한초청사업의 일환으로 1989.6월 방한 계획이었으나, 동 대사의 사정으로 방한이 이루어지지 않음.

Rosenstock, Robert 주유엔 미국대표부 법률고문 방한, 1989.7.31.-8.5.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1 / 9 / 1-56

1. Rosenstock 주유엔 미국대표부 법률고문이 외무부 초청으로 1989.7.31.~8.5. 방한함.

- 동인이 20여년간 주유엔 미국대표부에 근무하면서 한국문제 유엔상정 시부터 1989년 현재까지 한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고 계속 유엔에 근무하게 될 것임을 감안, 동인을 방한 초청함.

2. Rosenstock 법률고문의 주요 방한일정은 아래와 같음.

- 외무부장관 예방
-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면담 및 만찬
- 판문점 시찰
- 경주관광, 국립박물관·한국민속촌 관람
- 울산 현대중공업 시찰

유엔 한국협회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1 / 10 / 1-225

1. 유엔한국협회는 1988.9.13.~17. 몽골에서 개최되는 제2차 세계유엔협회 아·태지역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한국대표단의 제반경비를 지원해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한 바, 외무부는 1989.7월 아래 요지로 회신함.
 - 몽골은 아직 한국과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공산국가로서 전직 총리, 전직 유엔대사 등이 포함되는 대표단이 참석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외무부는 유엔한국협회의 지역협회 회의 참가경비를 별도로 지원한 사례가 없는바, 금번 아·태 회의 참가경비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음.
2.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1988.10.24. 유엔한국협회가 주최한 유엔의 날 기념만찬에서 '새로운 국제질서하의 유엔의 역할과 한국의 대유엔 정책'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함.
3. 1989.10.9.~14. 소련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32차 유엔협회 세계연맹총회에서 한국대표단은 한국 외무부의 요청에 따라 총회 결의안에 유엔 회원국의 보편성 원칙이 포함되도록 함.
4. 최호중 장관은 1989.10.24. 개최된 유엔한국협회가 주최한 유엔의 날 기념만찬에서 한국의 유엔가입문제에 관한 최근 입장을 표명하는 연설을 함.

UNMCK(유엔기념묘지위원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1 / 11 / 1-160



1989년 중 개최된 UNMCK(유엔기념묘지위원회) 관련 회의 내용임.

1. 제42차 소위원회(1989.4.28.,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 위원국 11개국 실무자 대표가 참석
- 회의 결과
 - 1988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채택
 - 관리소장의 사업집행 보고서 채택
 - 위원회 재정규칙 개정

2. 제43차 소위원회(1989.9.29.,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 위원국 11개국 실무자 대표가 참석
- 회의 결과
 - 정기총회 1989.10.23. 부산 개최 결정
 - 1990년도 예산안 채택

3. 제14차 정기회의(1989.10.23., 부산)

- 외무부장관 및 위원국 10개국 주한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
- 주요 의제
 - 제15차 총회 요약기록 채택
 - 소위원회 보고서 채택
 - 감사 선정
 - 1990년도 예산안
- 회의 결과
 - 1990년도 예산안 승인(1990년부터 원화로 예산 편성)
 - 신임 의장으로 주한 노르웨이대사 선출

나미비아의 날 기념행사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1 / 12 / 1-219

한국 정부가 1986~89년 나미비아 기념행사에 메시지를 전달함.

1. 나미비아의 날 지정

- 1973년 유엔총회는 나미비아에 대한 유엔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미비아인의 자결 및 독립 쟁취 노력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8.26.을 나미비아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 행사를 거행해 옴.

2. 한국 정부의 메시지

- 아프리카국가들과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독립 후에 나미비아와의 관계수립에 대비하여 1979년 이래 매년 외무부장관 명의의 메시지를 전달함.
- 메시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나미비아 국민들의 합법적 투쟁에 대한 전폭적 지지 재확인
 - 남아공의 나미비아에 대한 신탁통치 종식문제 미해결에 대한 유감 표명
 - 안보리 결의안 제435호 전폭 지지
 - 식민주의와 인종차별 규탄
 - 유엔 주관 하에 진행되고 있는 나미비아 독립과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노력 촉구 등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경제구조 재조정 전문가회의. Bangkok, 1989.1.11.-13.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2 / 3 / 1-40

이영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이 1989.1.11.~13.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ESCAP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경제구조 재조정 전문가회의에 참가함.

1. 참가 목적

- 제45차 ESCAP 총회의 핵심주제인 90년대 아·태 개도국 구조 재조정에 관한 전문가 그룹회의에 참가
- ESCAP 초안 보고서에 대하여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전문가 그룹의 ESCAP에 대한 건의문 작성에 참가

614

2. 한국의 구조조정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견해

- 한국은 아·태지역 내에서 경제구조조정에 성공한 모범적인 사례로 인식됨.
- 한국의 경제정책, 특히 산업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함.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공적원조가 저개발국가의 구조조정 및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HRD(인적자원개발) 정부간 회의. Bangkok, 1989.1.17.-19.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2 / 4 / 1-18

정부는 1989.1.10.~19.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HDR(인적자원개발) 전문가회의 및 정부간 회의에 황경호 과학기술처 인력정책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목적

- ESCAP 인력개발 행동계획에 따라 전문가회의와 정부간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ESCAP에 행동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권고와 제안을 하기 위한 것임.

2. 참가자

- 한국 등 22개국 37명
- UNDP(유엔개발계획) 등 15개 국제기구 20명

3. 회의 일정

- 전문가 회의: 1989.1.10.~13.
- 정부간 회의: 1989.1.17.~19.

4. 행동계획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

- 지역 내 인력개발 현황의 심층적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이에 대한 지지표명
- 1987년에 이어 1989년에도 ESCAP지역 내 인력개발 고위정책결정자 워크숍 개최 의사 표명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KECF(한·ESCAP 협력기금) 운용연례회의, 제2차. Bangkok, 1989.2.16.-17.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2 / 5 / 1-244

1. 주태국대사는 1988.12.8. Kibia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에게 88년도 KEFC(한·ESCAP 협력기금) 30만 달러를 전달함.
 - Kibia 사무총장은 제1차 연도 기금사업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의 지원이 역내 개도국 개발에 소기의 결실을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언급함.
2. 1988.12.14. 외무부와 관계부처가 상기 한·ESCAP 협력기금 운용방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연도 사업이행 결과를 검토하고 ESCAP가 제시한 제2차 연도 사업계획서 안을 검토함.
3. 정부는 1989.2.16.~17.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차 KEFC 운용 연례회의에 전순규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회의 의제
 - ESCAP 제시사업계획안 및 한국 측 수정방안의 검토를 통한 제2차 연도 시행사업 확정
 - 한·ESCAP 협력기금 제1차 연도 사업결과 평가
 - 금후 ESCAP 기금운용 방안 논의
4. 제2차 KEFC 운용 연례회의 결과
 - 제1차 연도 사업이행 결과
 - 6개 시행사업 중 4개 사업이 1988년 중 성공적으로 이행되었으며, 나머지 2개 사업도 1989.3월 중 각각 시행 예정
 - 한국이 승인한 제2차 연도 사업내역(1989년도 시행)
 - TCDC 사업
 - 중소기업 간 기술이전
 - 기술 및 개발을 위한 인력지원정책 및 계획에 관한 고위급 세미나
 - 청소년을 위한 인력자원개발정책에 관한 국별 경험분석
 - 2000년대에 있어서 다국적기업 기술에 관한 심포지엄
 - 벼껍질 전력화사업
5. 주태국대사는 1989.4.12. Kibria ESCAP 사무총장과 함께 1989년도 한·ESCAP 협력기금사업 자금을 배정하는 사업약정서에 서명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KECF(한·ESCAP 협력기금) 운용연례회의, 제2차. Bangkok, 1989.2.16.-17. 전2권 (V.2 자료)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2 / 6 / 1-133

1989.2.16.~17.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차 KEFC(한·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협력기금) 운용 연례회의 관련, 외무부 국제경제국에서 작성한 회의자료의 목차는 아래와 같음.

1. 출장개요
2. 회의개요
3. 정부훈령
4. 연설문
 - 개회사
 - 오찬답사
 - 만찬사
5. 제1차 사업이행결과 평가
6. 제2차 사업계획서안 검토
7. KECF 이외 재정지원사업 검토
8. 사무총장 면담자료
9. 참고자료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농촌 종합개발 검토지역전문가 회의. 수원, 1989.3.14.-17.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2 / 7 / 1-64

1989.3.14.~17. 한국 수원에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농촌종합개발검토지역 전문가 회의가 개최됨.

1. ESCAP 개요

- 설립연도: 1947.3(소재지: 방콕)
- 설립목적
 - 경제사회문제에 관한 지역협력
 - 지역 내 기술문제의 조사·연구사업의 실시 또는 원조
 - 회원국에 대한 경제사회 및 기술자문의 실시
 - 역내 경제문제에 대하여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의 기능 보좌
- 조직
 - 총회, 사무국, 상임위원회
- 우리나라와 관계
 - 준회원국 가입: 1949.3월
 - 정회원국 가입: 1954.4월
 - 4개 전문기구 활동: 잡곡류 개발센터, 농기계 지역망사업, 통계 연수원, 아시아 행정개발센터
 - 매년 총회 참석

2. 회의 개요 및 결과

- 목적
 - 농촌종합개발전략 및 농촌지도사업방법 발전에 관한 기술정보교환
- 주최
 - ESCAP 및 한국 농촌진흥청 공동주관
- 참가국
 - 한국,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등 10개국
- 기타사항
 - ESCAP 농업국장은 종합농촌 개발전략 전문가 그룹회의 시 채택된 행동계획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989.3.27.~4.5. 개최된 제45차 ESCAP 총회에서 채택되었음을 서한으로 알려줌.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5차. Bangkok, 1989.3.27.-4.5. 전4권 (V.1 기본계획 I (1989.1-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1 / 13 / 1-173

정부는 1989.3.27.~4.5.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45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에 최호중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정주년 ESCAP 상임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총회 개요

- 핵심주제
 - 1990년대 아·태 개도국 경제구조 재조명
- 총회구성
 - 본회의: 기초연설 및 주요의제 토의
 - 전원위원회1, 2
 - 결의안 심의위원회
 - 신임장 위원회

2. 총회 의제(ESCAP 사무국 작성)

- ESCAP지역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전망
- 1990년대 아·태 개도국 경제구조 재조명
- ESCAP지역 인력자원개발에 관한 자카르타 행동계획 이행상태
- 아시아·태평양 개발기술에 관한 동경계획 검토
- ESCAP 제 분야 활동계획 등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5차. Bangkok, 1989.3.27.-4.5. 전4권 (V.2 기본계획 II (1989.3))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1 / 14 / 1-378

제45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참가를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임.

1. 의제에 대한 정부 입장

- 핵심 의제인 아·태지역 인적자원개발 ESCAP 종합행동계획 관련 정부 입장
 - 일본과 함께 아·태지역 인적자원개발분야의 선도국으로서 종합행동계획을 원칙적으로 지지
 - 1987.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중견공무원 기술개발워크숍 결과 설명
 - 1988년도 한·ESCAP 기금으로 인적자원개발분야의 사회분야사업 실시계획 천명
 - 1989년도 대외기술공여사업 현황 및 해외청년봉사단 구성 파견 전망 설명

620

2. 정부훈령 요지

- ESCAP 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 의제에 대한 아국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
- 아·태지역 국가와의 협력활동 홍보 및 ESCAP을 통한 미수교국과의 협력강화 방안 모색
- 미수교국 공산권국가 아국대표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도 발언자료에 따라 강력히 대처
- 북한의 ESCAP 가입문제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경우 기본대책에 따라 적절히 대처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5차. Bangkok, 1989.3.27.-4.5. 전4권 (V.3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2 / 1 / 1-117

제45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의 결과보고임.

1. 최호중 외무부장관 기조연설

- 1989.3.27. 태국 수상 주재 총회에서 연설
- 연설 요지
 - 21세기 태평양시대 도래와 관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역내국가 간 협력과 교류증진 필요성 강조
 - 총회 핵심 의제인 경제구조조정분야의 한국 경험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 언급
 - 한국 정부의 대개도국 경제기술협력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유일한 정부간 기구로서의 ESCAP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

2. 회의 참가 결과보고(1989.4.4. 외무부 작성)

- 주요국가 수석대표 연설
 - 미국: 시장경제 지향의 경제구조 재조정 강조
 - 일본: 1988~92 기간 중 ODA 500억 달러 제공 용의 표명
 - 중국: 외군 조기철수 및 평화 5원칙 강조
 - 소련: 환경보호, 천연자원 관리를 위한 역내협력 필요성 강조
- 한국대표단 활동
 - 임홍재 주태국대사관 서기관이 제1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피선
 - 각 의제별로 소관부처대표가 한국입장 발표
 - 한국의 개발경험 및 당면 문제점 설명
 - 자유무역주의 수호의지와 시장개방정책 설명
 - 1990년 국별 책임관회의 서울 개최용의 표명
 - 1992년 제4차 아·태 인구회의 서울 개최 소개
 - 방콕협정 확대 필요성 강조
- 총회 핵심 의제인 경제구조조정 문제에 관한 지배적 의견
 - 각국은 자국 환경에 맞는 구조조정을 추진해야하나 NICs(신흥공업국)의 경험 참고 필요
 - 인력자원개발, 시장원리, 자유무역체제유지 등 지향
 - 차기회의에서도 동 의제를 핵심의제로 채택하기로 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제45차. Bangkok, 1989.3.27.-4.5. 전4권 (V.4 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2 / 2 / 1-305

제45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총회 관련, 외무부 국제경제국이 작성한 자료임.

1. 정부대표단 구성

- 대표단 명단
- 수석대표 일정

622

2. 총회의 개요

- 회의일정 및 장소
- 회의 의제
- 회의조직 및 진행
- 각국 수석대표

3. 정부훈령

4. 수석대표 기초연설문(영문)

5. 주요의제와 아국입장

6. ESCAP 관련 참고자료

- ESCAP 개황
- 한·ESCAP 협력기금 현황
- ESCAP 총회 유치문제
- 한국대표권 문제
- 북한의 ESCAP 가입문제
- 방콕협정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 한국의 89년 기여금 및 행정지원
- 주요인사 인적사항 및 참고자료

7. 기타 자료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개발계획 및 통계위원회 회의, 제1차. Bangkok, 1989.7.24.-28.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2 / 8 / 1-99

정부는 1989.7.24.~28.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개발계획 및 통계위원회 회의에 임홍재 주태국대사관 1등서기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ESCAP 역내국가들의 개발계획 및 통계분야의 발전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수립 논의에 참여함.
- 한국의 경제사회발전계획을 홍보하고, 개발계획 및 통계분야에 있어서 ESCAP 회원국 간 이해증진 및 협력강화를 도모함.

2. 훈령 요지

- 역내 개발정책 및 전략문제 토의 참여 및 한국정책 홍보
 - 성장의 문제와 더불어 소득분배의 개선도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중요하므로 소득분배 문제에 대한 각국의 경험 교류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
 - ESCAP지역의 환경오염문제는 각국의 경제개발로 핵심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이행함에 따라 그 심각도가 커질 것임을 감안, 한국이 환경문제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강조
 - 한국은 EDCF(경제협력기금) 규모를 늘리고 기술훈련 등을 확대하며 최빈국 상품에 대한 국내시장의 개방을 가속화할 것임을 표명
- 한국의 향후 통계분야 활동계획 설명
 - 1990년 세계 인구센서스에 맞추어 한국도 제14차 인구 및 주택센서스를 실시할 예정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공업기술 및 인간정주위원회 회의, 제1차. Bangkok, 1989.9.11.-15.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2 / 9 / 1-104

정부는 1989.9.11.~15.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공업기술 및 인간정주위원회 회의에 문하영 주태국대사관 1등서기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토의결과 요지

● 공업

- 농업 및 연관산업, 중소기업, 투자진흥, 인력자원개발, 최빈국 및 태평양도서국가 공업에 관한 사무국 활동 및 기여 평가
- 중소기업 관련,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이전을 위한 지역 세미나 개최 지원을 평가하고 향후 정기적인 회의 개최 필요성 지적

● 기술

- 기술분야 활동을 위한 한국, 일본, 중국, 네덜란드 및 소련의 지원을 평가하고 향후 과학 및 기술관련 계획 지원요청

● 인간 정주

- 중국 정부의 지역훈련과정 주최 의향을 평가
- 인간정주 관리를 위한 지역망에의 소련 동부도시 참가 의향에 대한 관심 및 1989.11월 상하이회의에 참가 절차 협의 권고

2. 차기 공업기술장관회의 주요의제

- 제조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 기술능력향상을 위한 유리한 여건 조성
- 산업기술력 발전
- 환경에 해롭지 않는 산업 및 기술발전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중국 통상정책 심포지움, 북경, 1989.10.28.-3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2 / 10 / 1-80

정부는 1989.10.28.~31.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중국 통상정책 심포지움에 김탄일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종실 협력2과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1. 심포지움 개관

- 개최 목적
 - 무역 및 투자분야에서의 중국의 개혁정책에 대한 이해제고
 - 중국 무역회사와 참가국 간 통상, 경제협력 증진방안 모색
- 참가자: 약 250명
 - 각국 정부관리: 14개국 26명
 - 주로 개도국 출신이며 일본, 미국 등 주요국 관리 불참
 - 민간 개인자격 참가자: 17개국 110명
 - 중국 측 : 중국 대외경제무역부 부장, 중국 국가계획위원회 차관, 중국 국무원 부수상, 업계 직원 등 100여 명

2. 주요 토의내용

- 중국의 외환제도
- 중국 내 외국투자상사와 중국상사 간 분쟁시 법적해결 절차
- 합작투자 방안
- 일본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현황, 전망

3. 심포지움 주제발표

- Shen Juren 중국 대외무역부 부부장, Kibria ESCAP 사무총장, Tian Jiyun 중국 국무원 부수상 등 6명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WMO(세계기상기구) 태풍위원회 회의, 제22차. 동경, 1989.10.30.-11.6.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2 / 11 / 1-292

정부는 1989.10.30.~11.6.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2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WMO(세계기상기구) 태풍위원회 회의에 박용대 중앙기상대 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참가국

- 회원국(7개국): 한국, 일본, 중국,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 옵서버(2개국, 1기구) 및 국제기구(7기구)

2. 회의 참가 목적

- 태풍에 대비한 각국의 정책방향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재해방지 대책 수립 건의
- 제23차 태풍위원회 서울 개최의사 표명

3. 주요 토의사항

- 1989년도 중요사업 보고
 - 위성수신 장비
 - 컴퓨터 시스템 업무 전산화
 - 통신망 고속화
- 1990년 태풍실험
 - 최종 세부지침 작성을 위한 소회의 개최에 합의
- 제23회 총회 유치
 - 차기총회 서울유치 제안 만장일치로 통과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농업·농촌개발 및 환경위원회 회의, 제1차. Bangkok, 1989.11.13.-17.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2 / 12 / 1-53

1. 외무부는 1989.11.3.~17.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1차 ESCAP 농업·농촌개발 및 환경위원회 회의와 관련 농수산부와 환경청의 참가여부를 문의함.

- 농수산부, 환경청 모두 참가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옴.

2. 주태국대사관 직원이 동 회의에 참가한바, 토의결과는 아래와 같음.

- 농산품 수출가격 하락의 영향
 - 농산품의 다변화, 투자계획 및 시장정보 개선 방안지시
- 비료개발 및 정보 네트워크
 - 독일 정부의 계속적 재정지원 용의표명
- 농업분야의 주요 활동
 - 농업기후 예보 프로그램(위성 모니터링): 한국 등 미참여국에 프로그램 참여 권고
 - 농업정보 및 농가방송 개발
 - 에너지원으로서 농업부산물 활용: 한국, 중국 공동으로 1990년 시행예정인 벼껍질 전력화 사업의 유용성 평가
- 농촌개발
 - 1990년대 농촌 빈곤타파 관련 종합농촌개발 전략수립을 위한 한국의 세미나 개최 평가
- 환경분야 주요이슈
 - 환경차원에서 지속적인 개발: 경제개발을 우선정책으로 하되, 환경보존에 대한 투자증대가 바람직함.
 - 지구 자연생태계 관리: 지구 사막화현상 연구 중요성 인식
 - 해양환경 보호: 유독, 유해, 쓰레기관리에 관한 사무국 연구 계획 승인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정부간 철도그룹회의, 제6차. Bangkok, 1989.11.27.-12.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2 / 13 / 1-71

제6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정부간 철도그룹회의가 1989.11.27.~12.1. 태국 방콕에서 개최됨.

1. ESCAP 측은 상기회의와 ESCAP 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회의가 동시에 개최됨을 알려오면서 한국대표 참가를 요청해 옴.

- 정부는 관계부처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음.

628

2. 주태국대사관이 ESCAP 사무국으로부터 입수한 동 회의 최종보고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참가국
 - 호주, 방글라데시, 중국, 캄보디아,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소련, 영국
- 토의 의제
 - 직원 선출
 - 개도국지역 철도발전계획 검토
 - 최근 철도기술 검토
 - 인력개발의 주요문제
 - 철도분야의 업무계획의 우선순위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RNAM(농기계지역망사업) 집행위원회 회의, 제12차. Kathmandu(네팔), 1989.12.17.-1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2 / 14 / 1-243

정부는 1989.12.17.~19. 네팔 카투만두에서 개최된 제12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RNAM(농업기구지역망사업) 집행위원회 회의에 남상정 주네팔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참가국 및 후원기관

- 회원국
 - 한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란, 태국, 인도, 스리랑카, 네팔, 중국 등 10개국
- 후원국 및 기관
 - 일본, UNDP(유엔개발계획), ESCAP, FAO(유엔식량농업기구)

2. 참가 목적

- 아·태지역 국가에 대한 한국 농기계 수출 및 생산분야 기술협력 추진방안 강구
- 아·태지역 국가에 대한 한국의 개발협력의지 홍보
- RNAM에 의한 농업기계화 정책 및 기술전파계획에 대한 정보 및 자료수집

3. 정부 훈령

- 한국의 농업기술 및 경험을 여타 회원국에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고, 농기계의 수출촉진 방안을 강구함.
- 의제별 토의 시 한국의 입장과 견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토의에 적극 참여할 것

4. 회의 결과(한국대표단 발언)

- RNAM 활성화를 위해 회원국 확대가 바람직하며 중국 가입은 역내국가 간 실질협력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환영함.
- UNDP의 계속 참여 및 지원을 촉구함.
- 차기회의의 서울 개최(1990년 말)를 추진 중임.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ACPR(상임대표 자문위원회), 제131-139차. Bangkok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2 / 15 / 1-94

1989년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31~139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ACPR(상임대표자문위원회) 토의내용임.

1. 제131차 회의(1989.1.31.)

- 태평양 신탁기금으로 한국이 1만 달러, 프랑스가 1만5천 달러 기여를 발표함.
- 순번에 따라 차기회의 의장인 임홍재 외무부 서기관이 사전 7개국 선도모임을 주관하기로 함.

630

2. 제132차 회의(1989.3.17.)

- 남태평양 신탁기금 관련 자금공여국과 남태평양 도서국들 간 회의를 갖고 신탁기금의 계속여부를 검토하기로 함.

3. 제133차 회의(1989.4.21.)

- 이번 총회에서의 결의안 수 5개는 적절했으며, 신탁기금 지원으로 15개 태평양 도서국의 총회 참가가 실현됨.

4. 제134차 회의(1989.6.9.), 제135차 회의(1989.7.20.), 제136차 회의(1989.9.25.)

- 토의기록만 수록되어 있음.

5 제137차 회의(1989.10.17.)

- 제46차 쿠알라룸푸르 총회 의제(안)을 중심으로 토의함.

6. 제138차 회의(1989.11.20.)

- 제46차 총회 주석의제(안)이 논의 채택됨.

7. 제139차 회의(1989.12.19.)

- 1992~97년도 분야별 중기 계획안은 약간 수정을 가한 후 원안대로 채택됨.

Nibhon Debavalya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인구국장 방한, 1989.5.28.-6.3.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2 / 16 / 1-29

Nibhon Debavalya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인구국장이 1989.5.28.~6.3. 한국을 방문함.

1. 방문 목적

- 한국의 제4차 아태지역인구회의(1992년) 개최 희망과 관련 사전업무 협의 및 현지 시설답사
 - 중국, 인도네시아도 유치의사 표명
 - 아태지역인구회의는 총 48개국의 회원이 참가하며 매 10년마다 회원국 중 유치국가에서 개최
- 동 회의 유치에 대한 한국 정부(보건사회부)의 구체적 계획 청취

2. 인구국장 인적사항

- 성명: Nibhon Debavalya
- 국적: 태국
- 경력: 태국 추량코린 대학 교수, 인구문제 연구소장

3 주요 일정

- 5.29. 보건사회부 장관 예방
- 5.30.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면담
- 5.3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장 방문

4. 아태지역인구회의 개요

- 회의목적
 - 아태지역의 각국 정부대표들이 모여 인구정책, 인구사업계획 및 활동 등 인구문제에 관한 주요과제를 토의, 결의하여 각국의 효과적인 인구사업 수행에 반영
- 주최: ESCAP
- 참가국: 48개 ESCAP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대표 약 400명
- 회의주기: 매년 10년마다 개최(11일간)
- 소요경비부담
 - 각국 대표 자비부담
 - 회의비용은 유치국가 부담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2000년대를 향한 사회개발 전략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2 / 17 / 1-85

1989.9.26.~29. 서울에서 개최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2000년대를 향한 사회개발전략 정책방향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의 개최 경위에 관한 내용임.

1. ESCAP 사무국은 1987.10월 2000년대를 향한 사회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 정부의 동의를 요청해 오면서, 한국이 관련 세미나 개최(1989년)를 위해 7만5천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의해 옴.

632

2. KDI(한국개발연구원)은 1987.11월 아래 요지의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태국대사관을 통해 ESCAP 측에 통보함.

- 사업일정, 규모 등 사업내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선발개도국으로서 경제개발뿐만 아니라 사회개발분야에 있어서도 그간 축적된 한국의 경험을 소개하고 학술적 논의를 통하여 역내 개도국을 선도할 수 있을 것임.
- 한국에서의 세미나 개최 여부 및 7만5천 달러 규모의 비용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임.

3. ESCAP 사무국은 1989.6.1. 주태국대사 앞 서한을 통해 1989.9.26.~29. 서울에서 사회개발현황, 정책 및 계획접근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회의개최 합의를 제시해 옴.

- ESCAP 사무국은 1989.8.2. 동 회의 직전에 지역자문관을 서울에 파견하여 회의를 지원하고자 함을 알렸음.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KECF(한·ESCAP 협력기금) 인력자원개발사업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2 / 18 / 1-220

한·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협력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인력자원개발 전문가 회의가 ESCAP과 KEDI(한국교육개발원) 공동주관으로 1989.3.6.~10. 서울에서 개최됨.

1. 한국 측 참석자

-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인력개발 계획과장 등 3명
-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등 3명
- 문교부 장학편수실장 등 3명
- 보건사회부 보건국장 등 2명
- 과학기술처, 노동부, 한국개발연구원 등

2. 각국 참석자

-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제기구과 부과장
- 인도 Tata 사회과학연구소장
- 인도네시아 인구 및 인력연구센터 소장
-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차관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대표

3. 주요 토의의제

- 인력자원개발에 관한 과제, 정책, 계획에 관한 토의
 - ESCAP의 기본 정신에 입각한 인력자원개발 정책 및 활동
- 인력자원개발 현황 및 전망
 - 정책방향 및 계획의 접근방법
- 한국의 인력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사례
- 인력자원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지침 작성

4. 상기 회의 추진을 위해 ESCAP 전문가가 방한하여 한국 측과 사전 협의를 진행함.

- 박보의 ESCAP 사회개발국 연구관이 한·ESCAP 협력기금운용사업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1988.3.14.~18. 방한
- Camy ESCAP 인력자원개발사업 선임전문가가 역내 국가간 인력자원개발 협의차 1988.10.10.~15. 방한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KECF(한·ESCAP 협력기금) 표준화 훈련과정 사업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2 / 19 / 1-18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KECF(한·ESCAP협력기금) 1차 연도 사업의 일환으로 표준화훈련과정사업이 1988.10.31.~11.10. 서울에서 시행됨.

1. 훈련과정 사업의 목적

- 국제무역에 있어 표준화의 미비로 발생하는 기술적 제약요인 제거
- 표준화작업 정부관리 훈련규정을 통하여 회원국의 국가 표준화 단체 설립, 강화 및 발전
 - 한국의 급속한 산업발전에 기초가 된 공업표준화와 관련된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태평양지역 국가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함.

634

2. 훈련 참가자 국적(8개국 10명)

- 방글라데시, 중국, 네팔,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 미수교국가인 중국, 베트남 인사가 참가하여 입국허가서 발급 등 사전조치를 취함.

3. 기대효과

- 전문엔지니어 및 정부관리를 훈련시켜 국가 표준화작업의 중요성 인식제고
- 국가 표준화 사업상의 문제점 파악

4. 1989.1.4. ESCAP 사무국은 서울에서 개최된 표준화 훈련과정을 높이 평가하고, 여사한 훈련과정이 매년 계속될 것을 권고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중국 순회 세미나. 정주(중국), 1989.5.18.-6.1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3 / 1 / 1-61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에 파견근무 중인 홍정표 자문관은 중국 국제무역연구소 초청으로 1989.5.18.~6.12. 중국 3개성 순회세미나에 ESCAP 측 연사로 참여함.

1. 세미나 개요

- 중국 대외경제 무역부 요청에 따른 ESCAP의 자문사업
- 개최지: 당초 중국 3개성(베이징, 하남성, 호북성, 안휘성)
- 대상: 경제관료, 무역기구 및 업계인사
- 연사: ESCAP 무역국 소속 직원 4명(한국, 일본, 서독, 중국)

2. 홍정표 자문관 발표내용

- 제목: 한국의 교역증진 경험과 시장현황(중국의 대한국 수출 가능성을 중심으로)
- 내용
 -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수입시장 및 절차 소개
 - 한·중국 간 교역 및 투자전망 설명
 - 한국의 대중국 수입동향, 기 진출업체 소개, 투자보장 등 제도적 장치 필요성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CGPRT(잡곡류연구개발센터) 운영위원회, 제7차. Bogor(인도네시아) 1989.1.12.-14.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지구과

MF번호 2019-43 / 2 / 1-49

정부는 1989.1.9.~14.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제7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CGPRT(잡곡류 연구개발센터) 집행위원회 및 제6차 기술자문위원회 회의에 이은섭 농촌진흥청 맥류연구소 대맥과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7차 ESCAP/CGPRT(잡곡류 연구개발센터) 집행위원회 및 제6차 기술자문위원회
- 회의 일정
 - 제6차 기술자문위원회: 1989.1.9.~11.
 - 제7차 집행위원회: 1989.1.12.~14.
- 한국대표의 참가 목적
 - 잡곡류 분야에 대한 각국의 농업정보 및 최신자료 수집
 - 한국의 식량자급을 위한 식량증산의 차원에서 잡곡류 개발을 위한 연구, 시험분야의 발전에 기여

2. 한국대표단 훈령

- 기본훈령
 - 잡곡류의 생산, 활용 및 교역개발을 위한 토의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증진에 노력할 것
 - 회원국의 잡곡류에 대한 각종자료 및 농업정보를 최대한 수집할 것
 - 한국의 1988년도 기여금 기부와 관련, 한국의 대개도국 협력내용을 홍보하고 잡곡류 생산국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
 - 식량자급을 위한 식량증산의 차원에서 잡곡류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연구시험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

3. 회의 결과

- Shiro Okabe ESCAP/CGPRT 사무국장이 퇴임하고 신임국장으로 Seiji Shindo가 선출됨.

네팔 Lumbini(룸비니) 성역화사업 대표단 방한, 1989.7.2.-5.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서남아과
MF번호	2019-43 / 3 / 1-43

네팔 룸비니 성역화사업위원회(Limbini Development Trust) 대표단이 1989.7.1.~5. 방한함.

1. 주네팔대사는 1989.5.10. Silwal 네팔 아주국장을 면담한바, 네팔 정부는 석가모니 탄생지인 룸비니 성역화사업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위해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예정이라고 하면서 협조를 요청해 왔으며, 이에 대해 대사는 불교계 등 민간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측면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음.
2. 외무부는 1989.6월 조계종 측에 동 위원회의 방한 계획을 알리고 네팔의 면담요청 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함.
3. 방한 결과
 - 대표단: Silwal 네팔 외무성 아주국장(단장) 외 4명
 - 목적: 룸비니 성역화사업 홍보 및 기금 모금
 - 조계종 총무원장 및 18개 불교종단협의회 대표와의 회담을 갖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함.
 - 한국불교대표단의 룸비니 방문
 - 룸비니개발을 위한 한국 위원회 조직
 - 룸비니지역 내 한국사찰 건립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동광석(copper) 회의. Geneva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3 / 6 / 1-64

638

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동광석(copper) 회의 준비회의가 1987.11.16.~20. 제네바에서 개최됨.(한국은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참석)

- 주요 회의결과
 - 동광석 생산자-소비자 기구의 설립조건 및 사무절차의 실질적 토의여부에 대한 생산국-소비국 간 견해대립으로 사실상 회의 미진행
 - 각 그룹은 의장의 중재하에 1988년 중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동광석 생산, 소비자 기구의 설립을 위한 협상위원회를 개최, 동 회의 이전에 별도의 시장개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또한 사무국에서 협상위에서 토의를 위한 협상조건 및 사무규칙을 작성, 제출할 것을 요청
 - 동광석 생산국들이 희망한 동광석기구의 기능 및 설치방안이 1988년 협상위에서 재론될 예정이나, 실질적이고 유효한 토의 가능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

2. UNCTAD 제1부 동광석 회의가 1988.6.15.~24. 제네바에서 개최됨.(동광석 주요 생산국 및 소비국 40여개국 및 관련 국제기구 참석, 한국은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이 참석)

- 대표단 훈령
 - 한국은 동광석 수입국으로서 원칙적으로 소비국 입장에 동조하나, 세계시장 내 소비수준이 아직도 적은 실정으므로 생산 개도국과의 관계를 감안, 중도적 입장 견지
 - 동 기구의 위치는 동 기구의 기본조직 및 사무규칙 활용, 별도의 분담금없이 유엔예산 활용 등의 이점이 기대되고 통계수집 등 회원국 협조확보를 위해서도 UNCTAD 내 설치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
- 주요 회의결과
 - 동광석기구의 기능 및 위치 등에 관한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UNCTAD 사무총장이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회의를 재소집하는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
 -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결의문 내용 중 기구의 위치를 독립적(autonomous)이라고 규정할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련은 동 결의문 자체에 유보 표명
 - 한국은 동 기구의 창립을 위한 회의의 재소집에 지지를 표명하고, 기구의 위치에 대해서는 유보를 표명

3. UNCTAD 제2부 동광석 회의가 1989.2.20.~24.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임.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기술이전위원회, 제7차. Geneva, 1989.1.23.-2.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3 / 7 / 1-74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제7차 기술이전위원회가 1989.1.23.~2.2.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국제기술이전과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함.(한국은 주제네바대표부 담당관 참석)

1. 결의문 주요내용

- 기술이전 추세의 변동이 개도국의 개발에 미치는 영향 및 개도국의 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강조
- UNCTAD 사무국에 기술이전 증대를 위한 국별정책, 연구사업과 산업분야의 연관성, 중소기업에 의한 기술이전 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요청
- UNCTAD 사무총장에게 공업소유권보호가 개도국의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소집 및 국제 기술이전 규범 제정을 위한 노력 계속 촉구
- 90년 유엔 최빈개도국 회의 대비, 최빈개도국의 기술개발을 위한 사무국의 연구 요청 및 UNCTAD 기술이전 자문그룹의 활동 등 대개도국 기술이전을 위한 지원사업 계속 요청

2. 평가

- B그룹(선진국)은 UNCTAD의 예산 및 인원제약, UNCTAD와 타 국제기구와의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UNCTAD 기술이전분야의 사업확대에 반대
- 기술이전 감소추세, 외채 및 1차상품 가격하락과의 연관성을 지적한 전문 삭제
- 국별 기술정보센터, 국제기술이전기금 창설 등을 위한 제안 삭제
- 파리협약의 개정문제는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소관사항임을 이유로 삭제
- 지적재산권보호 관련, 개도국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제외

3. 한국대표단 관찰

- B그룹은 금번회의에 극히 소극적으로 참가하고, UNCTAD의 사업확대, GATT(관세및무역에 관한일반협정) 및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등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토의에 반대
 - 77그룹도 기술이전 문제 토의에 국한하기보다 외채문제 해결방안 강구를 위한 국제적 관심제고 및 GATT TRIPS 등에서의 개도국 우대조항 등의 삽입을 위한 환경조성 등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감지
- UNCTAD 사무국은 금번 회의기간 중 국제기술이전 규범의 조속한 협상을 위해 이에 대한 그룹간 협의를 시도했으나, B그룹의 반대 및 결의문 채택관련 협상 지연으로 진전 별무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제7차. Geneva, 1989.2.27.-3.3.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3 / 8 / 1-148

정부는 1989.2.27.~3.3.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에 이상만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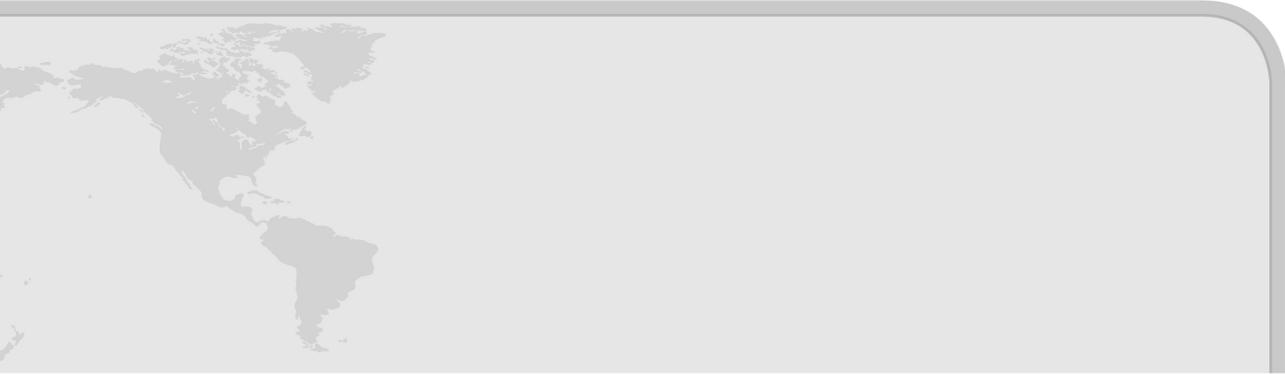
- 제한적 영업관행 규제를 위한 일반원칙과 규칙(The Set of Principles and Rules)의 적용 및 이행실적 검토
- The Set의 규정과 관련된 제한적 영업관행 연구
- 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기술지원 및 자문, 훈련계획의 이행검토

2. 주요 회의결과

- 이행실적
 - 77그룹, D그룹, 중국 등은 Set의 이행실적이 미미함을 지적하고, 특히 선진국의 다국적기업 합병 등 방법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공박하고, Set 이행을 위한 정치적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
 - 선진국(B그룹)은 오히려 77그룹을 비롯한 개도국 정부의 각종 보호무역 정책이 Set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언급
- 연구실적, 기술지원, 핸드북 및 Model Law 발전: 대부분 동 중요성에 공감
- 국제무역 관련 RBP의 해결방안
 - 개도국은 Set와 관련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 선진국은 각국이 RBP 관련 국내법 제정으로 적절한 규제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입장 견지
- 정보의 공개 및 협의절차: 개도국은 정보의 공개가 시급하며, 필요시 협의절차의 UNCTAD 내 설치를 강조, 선진국은 소극적 입장 견지
- 선진·개도국 간 이견으로 합의의사록 채택 실패
 - 차기 회의는 사무총장과의 월례협에서 결정

3. 한국대표단 활동사항, 관찰 및 건의

- 의제 3, 4에 대한 한국 입장을 표명하고 국내 공정거래제도 소개
 - 아울러 개도국 기술지원협력의 일환으로 제3차 아시아·오세아니아 공정거래회의 개최 (1989.5.1.~3., 서울)사실 통보



- 합의의사록 실패이유는 RBP 문제에 대한 선진·개도국 간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연유된 것으로 단기간에 해결 난망
- 제3차 아시아·오세아니아국가 공정거래회의에 선진·개도국 간의 지대한 관심을 감안, 이를 한국의 RBP 발전에 대한 기여사항으로 활용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제35차(제2부). Geneva, 1989.3.6.-22. 및 5.1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3 / 4 / 1-209

정부는 1989.3.6.~22. 및 5.19.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5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2부 회의에 박영우 주제네바대표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의제

- 보호무역주의 및 구조조정
- 상이체제 간 국제교역
- 국제서비스 교역

2. 한국대표단 훈령

- 실제문제 토의에 적극 참가
- 국익보호차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대처
- UNCTAD 회원국과의 협력강화
- 세계통상 및 개발협력 관련 자료수집

3. 회의 결과

- 의제별 회의를 거친 후 1989.3.22. 최종 본회의를 개최, 토의결과 문서 및 회의록 공식 채택
 - 환경문제 의제에 대해서는 합의 결론을 채택한 바, 이는 환경문제가 개도국의 무역 및 개발에 새로운 규제요건이 될 것을 우려한 77 그룹의 주장이 반영된 것임.
 - 유엔개발 10개년계획 의제는 합의 결론을 채택하고 UNCTAD가 기여할 필요성을 인정함.
 - 사무국이 제안한 UNCTAD 25주년 기념행사계획을 승인함.

4. 제35차 2부 속개회의(1989.5.19.)

- 제4차 유엔개발 10개년계획에 대한 UNCTAD의 참여방안 관련, 각 그룹간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의장은 각 그룹의 견해를 열거하여 유엔전체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별다른 합의없이 종료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수출소득 감소 보상금융 전문가 회의, 제2차(제2부). Geneva, 1989.4.10.-14.

생산연도 1989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3 / 9 / 1-66

정부는 1989.4.10.~18.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수출소득감소 보상금융 전문가 회의 속개회의에 전해진 주제네바대표부 서기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회의결과

- 각 그룹대표 연설
 - EC(구주공동체)는 운용하는 보상금융제도를 설명하고, 1차상품 보상 금융문제를 다수국이 참가하는 여타 UNCTAD 회의에서 검토할 것을 제의
 - 개도국 등 77그룹은 1차상품 가격하락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개발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시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미약함을 지적
- 현존 보상금융제도 검토
 - IMF(국제통화기금), EC 및 스위스의 보상금융제도의 현황, 장단점, 기술적 문제 등 토의
- TDB(유엔무역개발이사회)에 제출할 수출소득감소 보상금 관련 아래 내용의 권고문 채택
 - 개정 IMF 보상금융(IMF-CCFF)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점을 77그룹 견해로 포함
 - 현존제도의 적용 대상국 및 적용품목이 제한적임을 인정하고, 현존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상호협력 필요성을 강조
 - 신규제도 창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77그룹 입장으로 포함
 - 현존제도의 문제점을 감안, 신규제도 창설 시까지 적용대상 국가 및 품목의 확대, 융자조건 완화, 저금리, 융자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보상금융제도 관련 국제적 규범을 마련할 것을 77그룹 제안으로 포함
 - 신규제도 창설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B그룹(선진국) 견해로 포함
 - UNCTAD에 현존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보상금융제도 검토를 위한 TDB(유엔무역개발이사회)회의의 조속 소집을 요청

2. 한국대표 관찰

- 77그룹만이 현존 보상금융제도의 불충분한 점을 지적하는 이외에 선진국의 회의참여는 극히 저조하여, 다수 참가대표는 금번회의 결과에 극히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
 - 미국, 영국 등은 1차상품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의 보상금융제도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금번 회의에 불참
- 권고문 채택시 선진·개도국 간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아 각 그룹간 입장을 열거한 절충안을 채택함으로써 각 그룹의 상이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이외 별다른 의미가 없는 권고문 채택
 - 의장도 3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기존제도의 개선 및 신규제도 창설 필요성에 관한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으며, 일부 주요국가의 불참 및 소수국가만이 참석한 점에 유감을 표명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 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제6차. London, 1989.9.25.-29.

생산연도 1989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3 / 10 / 1-55

정부는 1989.9.25.~29. 런던에서 개최된 제6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에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을 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추진배경 및 경위

-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협약(1926년 및 1967년 조약)의 주요 해운국 비준유보로 비실효성 노출
- 선박저당권 보호강화로 해상금융 원활(개도국) 및 국제금융업계 권익옹호(선진국) 도모를 위해 선박우선특권 범위축소 및 미담보채권의 효력에 관한 국제적 통일협약 제정 필요
 - 1981년 UNCTAD 및 IMO 합동으로 1926년, 1967년 조약 재검토 결정
 - 1986~88년 5차례에 걸쳐 정부간 전문가 회의 개최

2. 대표단 훈령

- 기본입장
 - 제5차 회의 시 각국이 합의한 조항에 대해서는 한국 측도 더 이상 의견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아직 이견이 있는 부분과 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는 국내법 및 한국 해운기업의 원활한 해상활동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입장 표명
 - 동 조약이 채택되어 다수국가가 비준한다는 전제하에 한국의 비준여부 검토 및 현재 진행중인 한국의 상법개정에 반영을 위해 각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각국의 견해 파악
- 세부 대책
 - 소유권 또는 등기의 (임의)변경(제3조): 미국 측 안 지지
 - 기타 우선특권과 유치권(제6조): 1차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자는 스위스 안을 지지하되 동 제안이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유치권을 별도로 규정하자는 영국 측 안 지지
 - 임시국적선(제15조): 절차를 엄격히 규정한 제5차 회의 의장명의로 제출된 수정안 지지
 - 유보문제(제16조): 영국 측 안에 대해 한국과 관련 없는 조항이므로 관망자세 유지
 - 기타 조항: 타 국가가 수정안을 제출하는 한국의 기본입장에 따라 한국입장 표명
- 1952년 선박가압류조약 개정
 - 한국의 입장표명 보다는 차기 회의를 위한 각국의 입장을 상세히 파악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제36차(제1부). Geneva, 1989.10.2.-13.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3 / 5 / 1-119

정부는 1989.10.2.~13.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6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TDB(무역개발이사회) 제1부 회의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제4차 유엔개발 10년을 위한 IDS(국제개발전략)에 대한 UNCTAD의 기여
- 무역·개발금융 및 국제통화제도의 연계
- 개도국 부채와 개발문제
- UNCTAD 창설 25주년 기념 특별회의 개최

2. 한국대표단 훈령

- 주요 한국 관심사항의 토의에 적극 참가
- 국익보호 차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에 대처
- UNCTAD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
- 세계통상 및 개발협력 관련 자료수집

3. 회의 결과

- 의제별 회의를 거쳐 각 분과위별 보고서 채택
 - 90년도 중장기 계획 및 사업예산 작업반 구성
 - 아프가니스탄대표 신임장 처리문제에 대한 미국, 소련의 입장개진 후 논란없이 보고서 채택
 - 개도국의 개발, 성장,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촉구하는 77그룹 결의안에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포함한 결의문 채택

4. 평가

- 선진국은 개도국의 경제침체는 국내정책 실패에 기인하므로 시장경제로의 조정 및 개혁이 필수적임을 주장함.
 - 대부분의 개도국은 선진국의 논리에 대해 효과적인 반론을 제기하지 못함.
 - 중국만이 자기 체제하의 개혁을 강조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제8차. Geneva, 1989.10.23.-27.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3 / 11 / 1-178

정부는 1989.10.23.~2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8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에 오두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공정거래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주요의제

- 불공정 거래방지를 위한 다국간 Set(합의준칙)의 이행상황 및 관련 문제점 검토
- 상기 준칙상의 특별규정과 관련된 주요 추진상황 점검
 - 불공정 거래관행에 관한 조사연구, 공정거래제도 및 운영에 관한 국가간·지역간 기술원조·자문 및 훈련계획, 각국의 공정거래규약 발간, 표준공정거래법 마련
- 지난 10년간의 실적평가 및 개선방안 작성 등

2. 주요 합의사항

- 제9차 회의는 유엔의 재검토회의에 대비한 준비회의가 되므로 사전 철저한 준비요망
- UNCTAD 사무국이 지난 10년간의 Set의 적용과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및 동 재검토회의에 제안할 사항을 서류준비하기로 결의
- 차기회의 개최시기 및 토의의제 잠정합의
 - 시기: 1990.4월
 - 유엔 재검토회의(1990.11월 예정)에 대비한 준비 등

3. 한국대표단 활동

- 전체회의에서 기초연설을 통해 한국공정거래제도 운영실적과 정책방향을 발표
- 공식, 비공식회의를 통해 국내법으로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RBP를 규제해야 한다는 B그룹(선진국)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
- 한국의 공정거래법령, 제3차 아시아·오세아니아 공정거래세미나 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UNCTAD 사무국에 전달하고 주요 국가들의 최근 공정거래정책 동향을 파악

4. 한국대표단 건의

- 향후 구속력이 있는 Set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바, 동 회의에 철저한 follow-up 요망
- 한국 공정거래제도를 홍보하고 UNCTAD 발간 국제공정거래법규집에 한국공정거래법령이 수록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UNCTAD 및 주요국에 한국공정거래 관련정보 제공 요망



- Deregulation 문제는 각국의 관심사항인 바, 한국도 현재 추진 중인 정부규제완화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요망
- 지역 또는 국제공정거래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공정거래 관련정보를 교환하고 주요국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세계적인 추세파악 필요 등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주최 한국과 동구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증진에 관한 Workshop. 서울, 1989.11.14.-16.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조

MF번호 2019-43 / 12 / 1-208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와 한국 KIET(산업연구원) 공동주관으로 한국과 동구국가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증진에 관한 워크숍이 1989.11.14.~16.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개요

- 개최경위
 - UNCTAD는 매년 상이(相異)체제 국가 간의 교역증진을 위해 희망 회원국들과 협조, 워크숍을 개최
 - UNCTAD와 KIET 간 워크숍 개최 양해각서 서명(1989.3.31.)
- 참석자
 - 소련,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등 동구권국가 무역 및 대외경협분야 고위인사 및 UNCTAD 사무국 직원 등 약 30명
 - 한국은 공공 및 민간부문 무역 및 대외협력분야 전문가 약 200명
- 주요 의제
 - 동구권국가와 경제, 기술 및 산업분야에서의 협력방안
 - 동구권국가와의 교역방안
- 주요일정
 - 동구 4개국(불가리아, 체코, 폴란드, 소련) 발제
 - 산업시찰 등

2. 외무부 지원사항

- 주제네바대표부는 1989.1월 이후 상기 워크숍 개최를 위해 UNCTAD 사무국을 수시 접촉
 - 개최시기, 참석대상자 초청, 워크숍 일정, UNCTAD 지원내용 등 협의
- 주제네바대표부, KIET 원장 명의 초청장 전달(6월)
- 외무부, 소련 등 공산권 인사에 대한 입국비자 발급협조(11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중석(Tungsten)위원회, 제21차. Geneva, 1989.12.4.-8.

생산연도	1989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3 / 13 / 1-193

정부는 1989.12.4.~8.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1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중석(Tungsten) 위원회에 동력자원부 유익수 광산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한국대표단 참가필요성

- 국제텅스텐 가격안정화를 위한 입장표명
- 국제텅스텐 가격 시장동향 정보교환

2. 회의 주요결과

- 사무국 보고
 - 최근 소비국의 경제활성화에 따른 수요증가, 중국의 수출허가제 실시, 미국·중국 간 가격인상 목표책정, 각국의 지속적인 폐광에도 불구하고 텅스텐가격은 여전히 낮은 수준
- 각국대표 기조연설
 - 각국은 장기적인 텅스텐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지속적인 가격하락에 대해 우려를 표명
- 작업반회의 결과
 - 미, EC(구주공동체) 등은 중국, 소련의 성의있는 통계제공 및 사무국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
 - 텅스텐 가격하락은 저가의 과잉공급뿐 아니라 수요의 비탄력성, 정광 및 중간가공품 간 경쟁, 수요감소, 달러화강세, 방대한 재고량 등에 기인한다는데 공감
 - 중국은 합리적인 가격책정을 위한 국제협정 체결을 제의했으나, 미국·일본 등 소비국들이 반대

3. 한국대표단의 관찰 및 평가

- 금번 회의에서 대다수 국가가 텅스텐시장 불안정이 근본적으로 전세계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저가공급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중국의 협력을 촉구
 - 중국은 생산국, 소비국의 공동책임이라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바, 향후 중국의 실질적인 협력이 없는 한 텅스텐시장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 더구나, 중국의 저가공급에 대한 각국의 이해도 상이하여, 시장안정화에 대한 조기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금번 회의에서 중국이 공급·소비국이 공히 만족할만한 가격책정을 위해 국제협정 체결을 제의하였으나, 소비국의 반대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제시장 안정화를 위해 자국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관측



- 한국으로서는 현재와 같이 저가추세가 계속되어 결국 중국만이 독점적인 공급원이 되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여타 공급국들과 협력하여 최저수출가 도입, 수출수량 통제, 가공품의 적정가공임 반영 등을 위한 중국 측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을 계속 촉구해 나갈 필요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아시아지역 개도국 간 산업협력 Workshop. 서울, 1989.6.12.-16.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4 / 3 / 1-161

1989.6.12.~16.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아시아지역 개도국 간 산업협력 워크숍이 서울에서 개최됨.

1. UNIDO 측은 1988.2.4.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한국 정부가 남남협력의 일환으로 아시아지역 워크숍(아주지역 기업간 협력회의)을 개최할 것을 제의함.

-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987.11월 한국이 이사국으로 당선된 점, 한국이 각종 계기에 남남협력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점 등을 이유로 제의한 것으로 보고 수락을 건의

2. 한국산업연구원이 주관 용의를 표명함에 따라 UNIDO 사무국 담당과장이 1987.9.7.~10. 서울을 방문하여 섬유, 기계, 전자 3개분야에서 아시아지역 개도국가들 간의 산업협력이라는 명칭의 워크숍을 2차례(1차는 한국, 2차는 중국) 개최하기로 합의함.

- 서울회의는 UNIDO 서울사무소와 산업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며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태국 등 7개국 대표 참석

3. 회의 참석자들의 자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전망에 관한 발표, UNIDO의 신탁기금 역할 등에 관한 토의와 기아자동차 등 산업시설 시찰이 이루어짐.

- 건의 사항
 - 법적 효력이 있는 협력협정 지속적 교섭
 - UNIDO 신탁기금의 지원 필요성
 - 기술정보 제공 등 UNIDO Technological Information Bank의 역할 강화 등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 제3차. Vienna(오스트리아), 1989.11.20.-24. 전3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3 / 16 / 1-183

정부는 1989.11.20.~24.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에 이장춘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총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되 개최 희망국이 없을 경우에는 사무국 소재지인 비엔나에서 개최
 - 특별이사회를 연이어 개최
- 의제
 - 협력의 새로운 개념 및 접근방법, 공업개발재원 동원, 외채와 공업개발, 기술개발, 이전 및 인적자원개발, 개도국 간 경제기술협력, 아프리카 공업개발 10년, 최저개발국 공업화 과정 등
 - 행정사항(재정문제, 중기계획, 공업개발기금 및 자발적기여금, 사무총장 임명 등)

652

2. 한국 대표단 훈령

- 선발개도국으로서 협력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여 국위 선양에 기여, 동구권 및 제3세계 미수교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 임원진과 기관 선출에는 지역별 컨센서스에 따른 지지, 불가 시 수석대표 현장 분위기를 감안한 판단, 지지 약속국에 대한 투표
- 외채문제와 개도국공업개발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지적하고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금융 기구의 지원노력을 촉구하되 UNIDO에서의 외채문제 논의는 개도국의 공업개발문제와 직결되는 구체적 범위에 국한
- 인적자원개발분야에서 한국의 대개도국 협력능력 및 용의를 적극표명하고 한국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내용과 협력실적을 소개 등

3. 회의 결과

- 129개 회원국과 1개 옵서버국(팔레스타인) 대표, 49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 선출
 - SIAZON UNIDO 사무총장 연임, 27개국 이사국을 지역 그룹별 컨센서스로 선출
- 주요 결의사항(35개 결의안 채택)
 - 외채 부담 완화를 위한 UNIDO의 기술지원 및 역할강화, 1990~91년도 예산안 승인 등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 제3차. Vienna(오스트리아), 1989.11.20.-24. 전3권 (V.2 타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3 / 17 / 1-127

1989.11.20.~24.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에 선출할 이사국 및 기획예산위원회 출마국가들의 지지 요청에 관한 내용임.

1. 이사국 및 기획예산위원회 개선

- 제3차 총회에서 53개 이사국의 절반인 27개국을 4년 임기로 선출함에 따라 출마국가들은 소속된 지역그룹 내에서의 조정교섭과 여타 지역국가들에 대한 지지 교섭을 시행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아주지역 이외의 지역 국가들이 한국에 대하여 자국의 이사국 진출 지지를 요청하여 옴.
 - 아주지역 11개 의석 중 6개, 중남미 지역 8개 의석 중 4개, 아프리카 13개 의석 중 8개, 서구 14개 의석 중 6개, 동구 6개 의석 중 3개가 개선
- 기획예산위원회는 27개 의석 전원을 임기 2년으로 선출하게 됨.

2. 정부는 지역그룹별 컨센서스에 의한 결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밀투표에 의한 선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양국관계 및 국제기구에서 한국에 대한 지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지하는 방침을 정함.

- 이사국 진출 지지 요청 국가
 - 아주지역(인도네시아 등 4개국), 아프리카지역(세네갈 등 4개국), 중남미지역(코스타리카 등 3개국)
- 예산위원회 진출 지지 요청 국가
 - 아주지역(인도네시아 등 3개국), 아프리카지역(튀니지), 서구지역(그리스)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 제3차. Vienna(오스트리아), 1989.11.20.-24. 전3권 (V.3 참가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3 / 18 / 1-154

1989.11.20.~24.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 총회 참가 관련 자료임.

1. 회의 의제 및 일정
2. 대표단 구성
3. 훈령
4. 기조연설문
5. 의제별 설명자료 및 한국입장
6. 발언자료
7. 총회문서 점검표
8. 기타 참고자료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PS(투자진흥사무소) 서울사무소 설립협정 연장. 전2권 (V.1 제1-2차 연장)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조약과
MF번호	2019-43 / 14 / 1-287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PS(투자진흥사무소) 서울사무소 설립협정 연장 관련 내용임.

1. IPS 서울사무소 설립협정 체결

- 한국 정부와 UNIDO는 1987.4.15. 서울에 IPS 사무소를 설립하는 협정(2년 유효)을 비엔나에서 체결하여 동일자로 발효됨.
 - 양측은 사업 종료 6개월전에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연장여부를 결정
- 목적
 - 개도국에서의 산업투자의 증진을 위한 UNIDO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
 - 기술이전 및 투자 관련 정보의 수집 확산
 - 기술이전 및 투자진흥회의 개최 및 참석
 - 투자진흥 전문가의 교류 및 파근무

2. IPS의 실적 평가(1987.4~88.11월)

- 30여 개국으로부터 접수한 614개 투자사업정보를 국내업계에 소개
- 필리핀, 네팔 등 8개국 투자환경 설명회 8차례 개최
- UNIDO 주관으로 태국 등에서 개최된 해외 투자회의에 17개 한국기업 참가 주선
- 20여개사로 구성된 브라질 등 남미투자환경조사단 파견, 협력사업 발굴
- 인도네시아에 3개 투자협력사업 확정
- 인도네시아 투자진흥전문가 1인 초청

3. IPS 설립협정 연장

- 한국 정부는 IPS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연장하기로 하였으나, 예산당국의 필요 예산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새로운 협정문 서명이 기존 협정 종료 이전까지 불가능하게 됨. 따라서 UNIDO 측의 제의에 따라 발효 시까지 잠정적으로 IPS 법적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무부 국제경제 국장과 UNIDO 사무총장 간의 서한 교환으로 현행 협정을 잠정 연장하기로 함.
 - 1989.4.16.~7.16. 1차 기한 연장
- 담당부처인 과기처는 1989~92년 3년간 유효한 설립협정 체결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연장된 협정이 만료되는 7.16.까지 협정문안 교섭 및 국내절차 완료 등이 어려워짐에 따라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와 사무총장 간 서한교환으로 기존 협정을 다시 연장하게 됨.
 - 1989.7.16.~10.15. 2차 기한 연장
- 한국 정부는 1989.8.19.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관을 통하여 UNIDO 측에 새로운 협정문안을 제시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PS(투자진흥사무소) 서울사무소 설립협정 연장. 전2권 (V.2 제3차 연장 및 참고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조약과
MF번호	2019-43 / 15 / 1-98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PS(투자진흥사무소) 서울사무소 설립협정 연장 관련 내용임.

1. IPS 서울사무소 설립협정 연장

- 조약 체결 절차와 관련된 문제
 -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연장협정이 기존 협정과 대동소이하여 조약 승계에 해당되므로 약식 절차를 통한 기존 협정 연장을 조치할 것을(국내절차를 취함에 있어서 대통령이 아닌 외무장관의 전결사항으로 약식 처리) 건의한데 대하여 외무부는 기존 조약체결 절차에 따른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이견이 발생
 - 결국 외무부는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건의를 수용하여 1989.10.13. 동 대사관에 추진을 지시
-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0.16. UNIDO 사무총장에 보낸 각서에서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기존 설립협정을 1989~92년 연장, 새로운 IPS 사업 실시 의사를 통보
 - 사무총장이 동일자로 수락각서를 보냄에 따라 발효

2. 후속 조치

- 기존사무소 직원의 잠정 재임명 및 1989.11.27. 외무부고시 제176호를 통한 고시(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 협정의 연장협정체결을 위한 각서교환)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중소기업육성에 관한 국제회의, Tallin(소련), 1989.3.14.-16.

생산연도 1989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4 / 2 / 1-95

정부는 1989.3.14.~16. 소련 에스토니아공화국 탈린에서 개최된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의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국제회의에 이재길 상공부 중소기업국 지도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회의 목적
 -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의견교환
- 회의 의제
 - 중소기업 발전 환경
 - 생산성 향상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국제 및 지역간 협력

2. 회의 결과

- 훈령
 - 한국의 개방정책, 경제현황과 중소기업관련 정책을 설명, 홍보할 것
 - 수출, 해외투자, 기술이전 등 한국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모색할 것
 - 소련의 경제정책과 여건, 한국과의 협력가능 방안을 검토할 것 등
- 한국 대표의 활동(발언 내용)
 - 한국중소기업의 현황 및 역할 설명
 - 중소기업의 한국 경제에 대한 역할 점증 추세 설명
 - 중소기업육성 환경조성을 위한 차별 배제 지적
 -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개발 등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지적, 유도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
 - 한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소개
- 회의 결과
 - 소련, 프랑스, 한국 등 44개국 대표와 UNIDO 등 국제기구 대표 참석
 - 각 의제별 권고안을 채택
 - 후속 회의 세부의제를 채택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DB(공업개발이사회), 제5차. Vienna, 1989.6.27.-7.6.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3 / 19 / 1-137

정부는 1989.6.27.~7.6.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5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DB(공업개발이사회) 회의에 이장춘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의제
 - 기술협력 활동, 88년 진행보고서(나미비아 등 지원, 환경문제, 자문제도 등) 검토, 세계산업 개편, 공업개발을 위한 자원동원, 외채와 공업개발, 기술개발이전 및 인적자원개발, 유엔 체제 내에서 UNIDO의 조정 역할, 공업개발기금, 중기계획(1990~95) 검토
 - 1990년분 기여금액에 대한 서약회의 개최

2. 회의 결과

- 훈령
 - 자문제도, 아프리카공업개발 10년계획, 개도국 간 공업협력, 투자진흥사무소, 기술개발, 이전 및 인적자원개발 의제에 대한 한국 입장을 소개할 것
 - IDF 자발적 기여금 35,00 달러를 서약할 것
- 회의 결과
 - 51개 이사국, 31개 회원국과 24개 옵서버 및 각종 기구대표 참석
 - 41개 결의안 채택(제2차 아프리카개발 10년계획, 최빈국 공업화문제 등)
 - 현 사무총장 재추대, 1990~91 예산안 채택 등 행정사항 결정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DB(공업개발이사회), 제5차. Vienna, 1989.6.27.-7.6. 전2권 (V.2 회의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4 / 1 / 1-143

1989.6.27.~7.6.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5차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IDB(공업개발이사회) 회의 참가 준비자료임.

1. 회의 의제별 검토의견
2. 사무국이 배포한 회의자료

UNCSTD(유엔과학기술개발회의)/ICSTD(개발을위한과학기술 정부간위원회) 회의, 제10차. New York, 1989.8.21.-9.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4 / 4 / 1-151

1989.8.21.~9.1. 뉴욕에서 개최된 제10차 ICSTD(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정부간위원회) 회의에 원종찬 주유엔대표부 서기관이 옵서버로 참가함.

1. 회의 개요

- ICSTD는 1979년 제34차 유엔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설립
 - 매 2년마다 개최하며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
- 1979.8.20.~31. 비엔나에서 개최된 개발을 위한 유엔과학기술회의에서 채택된 과학·기술분야 비엔나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설립
- 회의 의제
 - 비엔나 행동계획의 이행 점검, 유엔시스템의 관련 활동

2. 회의 결과

- 결의안 채택
 - 비엔나 행동계획의 이행점검 및 활성화문제, 개도국의 과학, 기술분야 자생력 육성, 과학, 기술 분야 활동의 조정, 자원 조사문제, 기술 평가 등
- 제11차 회의 잠정 의제
 -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에 개도국의 참여를 확보하는 방안 및 개도국에 대한 여사한 기술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전문제, 과학기술분야 관련 유엔시스템의 제반활동, 자원조달, 개도국 자생력 육성에 대한 기여문제를 채택

UNCSTD(유엔과학기술개발회의) 국제기술개발훈련원 한국 설립 검토

생산연도	1979-1981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4 / 5 / 1-98

1. 주유엔대표부는 1979.5월 대개도국 외교 및 북한에 대한 우위확보방안의 일환으로 8월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UNCSTD(유엔과학기술개발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유엔기술개발훈련원' 형태의 훈련원을 설치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외무부는 1979.7월 주유엔대표부에 대개도국 기술훈련원 설치에 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 한국의 대개도국 원조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존 대개도국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 대개도국 훈련사업의 재정비, 강화문제를 두고 과거처에서 타당성 검토 중
 - 타당성 검토 후 종합적인 조정과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하므로 최종 정부방침을 확정하기에는 상당한 기간 소요 예상
 - 제1차 UNCSTD 총회에서의 훈련원 설치에 관한 입장표명은 일단 보류함.
 - 예산의 뒷받침이 불확실한 단계에서 국제적으로 공약하기는 곤란
 - 다만, 기술훈련계획과 관련하여 선진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을 비공식적으로 타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좋을 것임.
3. 외무부는 1981.1월 과학기술처에 국제기구 성격의 훈련기구를 한국 내에 설치하는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외교적 실익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이를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과학기술처는 3월 시점에서 국제훈련원 설치와 같은 전담기구 설치는 어려운 사정이라고 하면서 초청 훈련생수가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1985년 이후에 추진 가능하다고 회보함.

UNDP(유엔개발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원조조정관회의, 제4차. Jakarta(인도네시아), 1989.3.13.-15.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4 / 7 / 1-93

1989.3.13.~15.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4차 UNDP(유엔개발계획) 아시아·태평양 개발 원조조정관회의에 진해술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관과 이순천 주인도네시아대사관 1등서기관이 참석함.

1. 회의 개요

- 목적
 - 제4차 유엔개발계획 국가 간 교류사업(1987~91년)의 중간평가 및 신규사업 검토
 - ESCAP(아시아경제사회이사회)와 FAO(세계식량농업기구)의 신규사업 검토
- 아태지역 국가 28개국과 미국 등 원조제공국가 15개국 및 21개 국제기구대표가 참석

2. UNDP를 통한 남북 기술협력 추진

- Joseph UNDP 아태지역국장이 1989.2.23. 남북 간 기술협력 중재를 제의
 - 국가사업 또는 지역사업 자금을 활용하여 개도국 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남북과학기술협력 지원 용의표명
- 한국 정부는 7·7선언에 부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환영하기는 하지만 남북한 간에는 기존의 접촉창구가 있으며 각종 국제회의 또는 해외공관에서도 상호접촉이 가능하므로 UNDP 측에 특별히 주선을 요청할 필요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하고 UNDP 측이 요청한 고위인사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
- Joseph 국장은 3.11. 한국대표에게 5월에 남북대표를 뉴욕에 초청하여 과학기술교류를 중재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한국대표는 이를 환영하면서 초기에는 비정치적인 과학기술분야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언급
 - 북한 측은 한국에서 실시되는 팀스피리트 훈련 등을 거론하면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짐.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 제36차. New York, 1989.6.5.-30.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4 / 6 / 1-72

1989.6.5.~30. 뉴욕에서 개최된 제36차 UNDP(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에 채의석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옵서버로 참가함.

1. 회의 개요

- 의장: Pibussonggram 주유엔 태국대사
- 의제
 - UNDP 행정처장의 1990년대 중점사업에 관한 보고
 - 유엔인구활동기금 사무국장의 1988년도 사업결과 및 90년대 활동계획 보고
 - NGO(비정부기구) 및 GRASS-ROOTS 기관들과의 협력
 - 1990년대의 UNDP의 역할에 관한 협의 결과
 - 사하라이남 국가들에 대한 인구기금의 지원전략에 관한 보고서 등

2. 회의 결과

- 한국 대표의 발언
 - UNDP의 활동은 개도국의 특수성, 우선 사업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원국이 개발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 LDC(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고려 필요성 등을 강조 하는 발언
- 회의 내용
 - 18개국의 각료급 대표가 참석
 - UNDP 행정처장은 90년대 역점사업으로 개도국 인력개발 등을 제시하였으며, 기구의 기능 강화를 위한 기여금 증액 등 방안을 제시함.
 - 선진국대표들은 이에 대하여 자원 증대보다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면서 중진개도국의 UNDP 활동에 대한 기여 강화 등을 주장한데 대하여 개도국대표들은 행정처장의 자원 증액 제안을 환영하고 개발활동에 있어서의 개도국 인력과 물자 사용 증진 등을 촉구
 - 나미비아 등 지역별 경제개발 수행, 교통·통신 10개년계획, 제5차 개발계획 작성에 관한 UNDP 행정처장의 보고서에 수록된 제안내용 등 논의
 - 여성개발기금 활동 및 개발과 여성에 관해 토의
 - 유엔의 기술협력 활동, 여타 기금의 활동에 대해 평가
 - 조직 및 특별회의를 1990.2.21.~23. 뉴욕에서 개최하고 제37차 집행이사회를 1990.5.20.~6.27.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UNDP(유엔개발계획) 주한 상주대표 임명

생산연도 1981-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4 / 8 / 1-153

1981~89년 UNDP(유엔개발계획) 주한 상주대표 임명 관련 내용임.

1. 1981년 제6대 주한 상주대표 부임 후에 1989년까지 3명의 상주대표가 부임함.

- 이들의 부임에 따른 한국 정부의 동의 제공, 한국 정부 고위인사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이 수록됨.
- 제1대 주한 상주대표는 1962년 부임함.

2. 3명의 주한 상주대표 명단은 아래와 같음.

- 제6대: Bernardo Vunibobo 전 주유엔 피지대사(1981~86년 근무)
- 제7대: Nemmara Subbaraman 주파푸아뉴기니 UNDP 대표(1986~89년 근무)
- 제8대: Jacob Guijt UNDP 본부과장(1989년 부임)

강석재 UNEP(유엔환경계획) 및 HABITAT(유엔인간거주센터) 상주대표 임명, 1981.3.26.

생산연도	1981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4 / 9 / 1-15

1. 외무부는 1981.4월 강석재 신임 주케냐대사를 UNEP(유엔환경계획)과 HABITAT(유엔인간거주센터)의 한국 상주대표로 임명하고 신임장을 발급함.
2. 강석재 대사는 1981.5.5. 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에게 신임장을 제출함.

UNEP(유엔환경계획) 이사회, 제15차. Nairobi(케냐), 1989.5.15.-26.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44 / 10 / 1-132

정부는 1989.5.15.~26.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5차 UNEP(유엔환경계획) 이사회에 이상배 환경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1990~95년 중기환경계획, 2000년대 세계환경 전망, 오존층 보호, 유해폐기물 교역통제, 화학물질 정보교환, 집행이사회 기능강화 등 협의

666

2. 회의 결과

- 훈령
 - 2000년대 세계 환경전망, 1990~95년 중기환경계획 등 중장기 세계환경보호 방안협약에 적극 참여하고 신흥공업국으로서 오존층 보호, 유해폐기물 교역규제 등 국제환경보호 노력에 적극 동참 의사를 표명하는 동시에 개도국에 대한 UNEP의 기술지원 등을 요청할 것
 - 사무총장보고서 관련 UNEP의 창설 20주년이 되는 1992년 개최 예정인 유엔환경 및 개발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희망
 - 국가별 정책 조정 필요성 제기, 인접국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환경 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체결 추진 지지, 오존층 보호 등 UNEP 사무총장의 제42차 및 제43차 유엔총회 결의사항 이행 노력 치하, 개도국 환경자료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UNEP의 지원 필요성 강조 등
- 토의 결과
 - 1992년 제2차 세계환경회의의 개최를 위한 1990~92년 3차례에 걸친 정부간 준비회의 개최
 - 대기 및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하여 선진국은 1992년 회의에서 채택을 주장하는 반면에 개도국은 기술 및 재정 부족을 이유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 필요성을 강조
 - 집행이사회 기능 강화를 위하여 1990년 특별회의를 개최, 1992년까지 1989년도 예산의 2배 증액을 목표로 설정
 - 환경보호 및 경제개발 계획 채택
 - Clearing House의 기능 확대
 - 환경기금의 목표를 1989년도 44백만 달러에서 1992~93년 180백만 달러로 설정

UNICEF(유엔아동기금) 집행이사회. New York, 1989.4.17.-18.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4 / 12 / 1-118

정부는 1989.4.17.~18. 뉴욕에서 개최된 유니세프 집행이사회에 송영식 외무부 국제기구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북한, 중국 등 19개국의 국별 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
- 1990년대의 유니세프 활동 전략 논의
- 아동을 위한 범세계 정상회의 개최 구상 논의
- 아동권리협약 논의
- 1990~91년도 예산안 승인

2. 한국대표단 활동

- 한국은 1988년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최초로 참석
- 수석대표 연설문 요지
 - 아동문제 토의를 위한 범세계 정상회의 개최 구상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
 - 한국 어린이헌장 등과 관련 금년도 유엔총회의 아동권리협약 채택을 지지
 - 한국의 아동실태 및 불우아동 결연후원사업 등 정부의 지원노력 설명 등

UNICEF(유엔아동기금) 집행이사회 특별회의, New York, 1989.12.18.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4 / 13 / 1-59

정부는 1989.12.18. 뉴욕에서 개최된 유니세프 집행이사회 특별회의에 채의석 주유엔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개최 목적
 - 1990.9월 아동관련 세계정상회의 개최 지원 및 관련 홍보활동 문제 토의

668

2. 회의 결과

- 정상회의 개최에 관한 캐나다 등 6개국 제안검토 결과 회의 개최의 필요성 및 유니세프 개최 지원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정상회의 형태, 준비 방식, 예산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유니세프 사무처 예산 사용을 둘러싸고 정상회의 참석수준, 준비문제 등에 대해 일부 국가들이 문제 제기
- 속개된 회의에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 캐나다를 포함한 6개국 정상회의 개최 제안 환영
 - 정상회의는 제45차 유엔총회 시 본부에서 개최
 - 유니세프는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사무국 지원
 - 준비를 위한 준비특별위원회 설치 승인
 - 필요 예산은 유니세프 사무처가 150만 달러 한도 내로 작성한 수정예산안을 1990.4월 정기회의 및 특별회의에 제출 심의

UNICEF(유엔아동기금) 일반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4 / 11 / 1-157

한국 정부와 유니세프 간의 1989년 중 현안 내용임.

1. 수단 구호활동에 대한 지원요청

- Grant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5.1. 최호중 외무부장관 앞 서한에서 유니세프가 수단에서 시행중인 구호사업을 위하여 한국 정부가 트럭 20대(약 1백만 달러 상당)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한국 정부는 사정상 지원불가 통보

2. 기여금 증액

- 유니세프 측은 1990년 한국의 기여금을 1989년 33만 달러에서 60만 달러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이에 대한 긍정적 고려를 약속

3. 유니세프 한국관계사업에 대한 중간검토회의

- 1989.5.23.~24. 서울에서 개최됨.
 - 회의 참석차 방한한 구삼열 유니세프 홍보담당관은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면담하고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

Jolly, Richard UNICEF(유엔아동기금) 사무차장 방한, 1989.8.20.-2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4 / 14 / 1-45

Richard Jolly 유니세프 사무차장이 1989.8.20.~29. 서울을 방문함.

1. Jolly 사무차장은 1989.8.24. 국무총리 등 정부 요인을 면담하고 한국 정부의 대유니세프 지원에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고 관심사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함.
2. 한국은 1988.5월 처음으로 3년 임기의 유니세프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유니세프 측은 한국으로부터의 더 많은 기여를 기대하면서 기여금 대폭 증액, 수단 구호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함.
3. Jolly 사무차장은 한국을 방문한 후 1989.8.29. 국무총리 앞으로 보낸 서신에서 1990년 개최 예정인 아동문제에 관한 범세계 정상회의에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한국의 기여금 증액 방침 검토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1990년 한·유니세프 관계 4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희망함.

Doo-Kingue, Michel UNITAR(유엔훈련연구원) 사무처장 방한, 1989.12.8.-1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4 / 15 / 1-73

Michel Doo Kingue UNITAR(유엔훈련연구원) 사무처장이 1989.12.8.~11. 한국을 방문함.

1. Kingue 사무처장은 일본 소재 유엔대학 관계회의 참석 후 서울을 방문함.
2. Kingue 사무처장은 한국 방문 시 김종휘 대통령 외교안보보좌관 면담, KDI(한국개발연구원) 방문, 외무부 국제기구국장 면담, 외교안보연구원에서의 강연회 개최 등 일정을 가짐.
3. Kingue 사무처장은 외교안보보좌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대UNITAR 기여금 대폭 증액을 요청하였으며, KDI 방문 시에는 UNITAR/KDI 공동주관 개도국 대상 세미나 개최방안을 협의함.

Giorgio Giacomelli UNRWA(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금) 사무국장 방한, 1989.10.10.-13.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중동과

MF번호 2019-44 / 16 / 1-75

Giorgio Giacomelli UNRWA(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금) 사무국장이 1989.10.10.~13. 한국을 방문함.

1. UNRWA는 비엔나에 소재한 유엔기구임.
2. Giacomelli 사무국장은 방한하여 국회 외무위원장,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 심의관 등을 면담하였으며, 한국 정부의 기여금이 여타 국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므로 구호금 증액을 요청함.

WFC(세계식량이사회) 각료회의, 제14-15차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4 / 17 / 1-168

1. 정부는 1988.5.23.~26. 사이프러스 니코시아에서 개최된 제14차 WFC(세계식량이사회) 각료 회의에 신구범 주이탈리아대사관 농무관을 옵서버대표로 파견함.
 - 회의 개요
 - 최근 세계 기아현황, 개발지원을 통한 기아퇴치, 식량안보와 환경보호, 세계 농산물 교역, 관련 국제기구간 개발협력, 식량농업에 있어서의 남남협력 등을 협의
 - 회의 결과
 - 세계 기아 및 빈곤 해소를 위한 “사이프러스 이니셔티브”를 채택

2. 정부는 1989.5.22.~25.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15차 WFC 각료회의에 안덕수 농림수산부 양정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세계 기아에 대한 사이프러스 현장의 이행사항, WFC 후속사업 보고 등을 협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7차. Montreal, 1989.9.19.-10.6.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4 / 18 / 1-191

정부는 1989.9.19.~10.6.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7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 나원찬 주몬트리올총영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1986~88년도 연차보고서 및 1990~92년도 사업계획 보고, 항공협정 및 협약의 등록, 항공기 연료 절약 방안, 측정단위 통일방안, 초경량모터 항공기, ICAO 협약 제3조 2항 비준현황, 노약자 항공운송 이용, 항공안전에 관한 결의 A26-7의 이행, 이사국 선출 등 31개

674

2. 한국대표단 훈령

- ICAO 협약 이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결의안을 지지할 것
- 항공기 연료 절감방안에 적극 지지하고 자료를 입수할 것
- 초경량모터 항공기 사업계획에 적극 찬성하고 자료를 수집할 것
- 사무국 직원의 지역적 안배 원칙을 적극 지지하고 가급적 많은 한국 국민의 임명 방안 채택을 모색할 것 등

3. 회의 결과

- 161개 회원국 중에 139개 회원국과 2개 옵서버국가 및 21개 국제기구대표가 참석
- 결정 사항
 - 1990~92 예산안 채택
 - 1990~92 사업계획 채택
 - 항공안전에 관한 기술적, 재정적 및 물질적 지원을 위한 장치 마련을 위하여 제반조치를 강구
 - 국제민간항공에서 마약이 없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개발하고 체약국이 마약 및 중독성 물질의 불법운송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 당사국이 될 것을 촉구하도록 권고
 - 이사국 수 증가문제 협의를 위한 특별 총회를 1990년에 소집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7차. Montreal, 1989.9.19.-10.6. 전2권 (V.2 각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4 / 19 / 1-185

제27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서 선출할 이사국 입후보 국가들의 지지 요청 내용임.

1. 이사국 구성

- 제1군: 미국 등 주요 항공운수국 10개국
- 제2군: 인도 등 민간항공시설 제공공헌국 11개국
- 제3군: 지역대표국 12개국
-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연기명 비밀투표로 선출

2. 지지 요청 국가

- 제1군 영국 등 7개국, 제2군 이집트 등 9개국, 제3군 체코 등 10개국

3. 한국 정부의 지지결정 대상국가

-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프랑스, 독일, 브라질, 이탈리아, 호주,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핀란드,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케냐, 이라크, 베네수엘라, 멕시코, 이집트, 세네갈, 튀니지, 과테말라, 칠레

IMO(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 London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5 / 3 / 1-68

676

1. 정부는 1988.9.5.~9. 런던에서 개최된 제26차 IMO(국제해사기구) 회의에 김종태 주영국대사관 해무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회의 의제
 - 해양오염에 관한 국제협약 현황, 오염성만을 갖는 유해 액체물질의 건화물선 운송, 특별해역 지정 제안, 오염협약의 시행, 오염방지지침 등 25개 의제
- 한국대표단 훈령
 - 기름 잔유물의 저장, 취급 및 처리에 관한 영국 안 지지
 - 제한된 양으로 포장된 형태의 해양오염성 물질의 운송과 관련한 영국 안 지지 등

2. 정부는 1989.9.13.~17. 런던에서 개최된 제27차 IMO 회의에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회의 의제
 - 제26차 회의 의제 계속 토의
- 한국대표단 훈령
 - 오염성과 관련된 부속서 및 유해물질 목록개정에 관한 네덜란드 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
 - 기름기록부 양식 개정안에 관한 서독 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
 - 오염성에 관한 부속서 관련 노르웨이 안에 찬성할 것 등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 제62차. London, 1989.6.5.-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5 / 2 / 1-86

정부는 1989.6.5.~9 런던에서 개최된 제62차 IMO(국제해사기구) 이사회에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과 이은 해운항만청 IMO 주재관을 정부대표(옵서버)로 파견함.

1. 회의 의제

- IMO가 관장하는 협약 및 다국 간 규칙현황
- IMO 결의 A.500 시행에 관한 보고
- 해사안전위원회 보고서, 해양환경보호위원회 보고서 등 위원회 보고서 심의
-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회의 관련 보고
- 사무실, 인사, 재정문제 등 행정 사항
- 기구의 장기사업 계획, 1990~9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사무총장 임명 등

2. 한국대표단 훈령

- 의제별 각 이사국의 입장을 파악할 것
- 주요현안 관련자료를 수집할 것 등

3. 회의 결과

- 신규회원으로 신청한 모나코는 찬성표 미달로 추가 찬성표가 필요
- 1974년 아덴협약의 1976년 의정서가 발효 요건 충족으로 1989.4.30. 발효
- 1989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이 1989.4월 채택되어 15개국 이 수락한 날부터 1년후 발효
- IMO 총회 결의 A.500 시행에 관한 보고서 심의 결과 기존 보고서 문구 유지 결정
- 각 위원회 보고서 채택
-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관련 사항은 사무총장에게 일임
- 1990~91년도 예산은 사무국이 작성한 예산안에 대한 이견으로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유보
- 1994년까지의 장기작업계획은 총회에 상정 결정
- O'Neil 캐나다 후보가 사무총장으로 선출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IMO(국제해사기구)/UNDP(유엔개발계획) 세미나. Leningrad(소련), 1989.7.17.-28.

생산연도 1989

생산과 조약과

MF번호 2019-45 / 5 / 1-68

1989.7.17.~28. 소련 레닌그라드에서 개최된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IMO(국제해사기구)/UNDP(유엔개발계획) 공동세미나에 박영선 울산해양항만청 선박기좌가 참석함.

1. 참가자

- 42개국에서 50명이 참석
- 정부는 UNDP 한국사무소로부터 참석 초청을 받고 울산해양항만청 소속 직원을 세미나에 파견

678

2. 참석 보고서

- 세미나 목적
 - 해상 수색 및 구조 조직에 관한 1979년 협약이 1988.4.1.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32개국만 비준한 상태이어서 미비준국가를 대상으로 협약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정보제공
- 세미나 내용
 - 협약내용 설명
 - 해상수색 및 구조매뉴얼 설명
 - GMDSS의 시행에 따른 선박의 설비
 - 전세계 항해시스템 및 전자해도 표시시스템 설명
 - 소련 해운성이 실시한 실제 항공기 및 선박을 동원한 대규모 해상훈련 참관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6차. London, 1989.10.9.-20.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4 / 21 / 1-128

정부는 1989.10.9.~20. 런던에서 개최된 제16차 IMO(국제해사기구) 총회에 황규진 해운항만청 차장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최근배 주영국대사관 공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해사안전위원회 등 5개 위원회 상정안 검토, 해상총돌예방규칙 개정안 심의, 국제해사기술 협력 사업 실적 및 계획 검토, 차기 IMO 사무총장 임명 및 이사국 선출, 1990~9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등 42개 의제

2. 한국대표단 훈령

- 해사안전위원회가 작성한 선박안전관리 지침서에 적극 찬성할 것
- 1972년 해상총돌 예방규칙 개정안을 적극 찬성할 것
- 북해의 특별해역 지정에 찬성할 것
- 이사국 선출은 외무부 별도지침에 따라 투표할 것 등

3. 회의 결과

- 분담금 미납국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특별실무위원회를 구성, 국가별로 검토 후 제재를 결정
- 차기 사무총장으로 W.A.ONeil 임명
- 신규이사국 선출(ABC 그룹별)
- 해난사고 내용의 IMO 보고의무에 관한 결의와 해상안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다수의 신탁약 제정

IMO(국제해사기구) 총회, 제16차. London, 1989.10.9.-20. 전2권 (V.2 각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요청)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5 / 1 / 1-184

1989.10.9.~20. 런던에서 개최된 제16차 IMO(국제해사기구) 총회에서 선출할 이사국 입후보 국가들의 지지 요청과 한국 정부의 결정에 관한 내용임.

1. 이사국 구성

- 주요 국제해상수송국 8개국을 A그룹, 주요 국제해상교역국 8개국을 B그룹, 지역대표국 16개국을 C그룹으로 구성

680

2. 지지 요청국

- A그룹: 영국 등(6개국)
- B그룹: 캐나다 등(7개국)
- C그룹: 스페인 등(16개국)

3. 한국 정부의 지지 대상국가

- A그룹 지지 요청 6개국 전부, 잔여석 중에 1석은 미국 지지
- B그룹은 지지 요청 7개국 지지, 잔여석은 폴란드 지지
- C그룹은 지지 요청국 중 15개국 지지, 잔여석은 이란과 나이지리아 중에 지지

IMO(국제해사기구) 항해안전 및 방화 소위원회 회의. London(영국)

생산연도 1989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5 / 4 / 1-62

1989년 IMO(국제해사기구) 항해안전 및 방화 소위원회 회의가 런던에서 개최됨.

1. 정부는 1989.1.23.~27. 런던에서 개최된 제35차 항해안전 소위원회에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의제

- 선박의 항로, 충돌방지규칙 10D의 재심의, 전자해도장치의 개발, 야간의 1인 항해 당직, 해상 구조물 주위의 안전지대의 침해, 전세계 항해시스템, 전자해도 전시장치, 항해보조 설비 등

● 토의 결과

- 선박의 항로 관련 통항분리대 설치에 관한 스페인 안이 조건부로 채택
- 충돌방지규칙 10D의 재심의 결과 문안조정
- 해양구조물 주위의 안전지대 침해와 관련, 한국 측 제안에 따라 문안을 수정
- 전세계 항해시스템과 전자해도 전시장치와 관련하여 재논의 결정 등

2. 정부는 1989.2.27.~3.3. 런던에서 개최된 제34차 방화 소위원회에 최낙정 주영국대사관 해무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의제

- 화재시험 방법 및 절차, 위험화학품 산적 운반선의 관장치 세정, 소화장치, 플라스틱 파이프의 선내 사용, 여객선 안전을 위한 방화설비 등

● 한국대표단 훈령

- 창문 등 화재구역에 대한 화재시험 방법에 관한 영국 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할 것
- 위험화학품 산적운반선의 관장치 세정 관련, 불필요하게 엄격한 요건을 국제적으로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개정안을 반대하며 BCH 소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할 것 등

WMO(세계기상기구) 기후전문위원회 회의, 제10차. Lisbon(포르투갈), 1989.4.3.-14.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5 / 6 / 1-86

정부는 1989.4.3.~14.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제10차 WMO(세계기상기구) 기후전문위원회 회의에 정을영 중앙기상대 응용기상국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WCP(세계기후계획)
- WCDP(세계기후자료계획)
- WCAP(세계기후응용계획)
- 국가기후 응용의 사례
- WCIP(세계기후영향연구계획)
- 교육훈련 및 기술지식 이전 등

2. 한국대표단 훈령

- 기후관련 정보와 자료를 광범위하게 입수하여 정부의 관련 정책수립 및 발전에 기여할 것
- 세계기후자료 계획 관련 세부사항별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자료관리 및 활용현황을 소개하며 WMO가 설정한 목표에 접근하고 있는지 검토할 것
- 세계기후 응용 계획 관련하여 WMO가 설정한 목표에 한국의 추진현황이 적절히 접근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앞으로 이행과정에 반영하도록 할 것
- 세계기후영향 연구계획 관련하여 온실효과로 인한 기온상승에 대한 주요 회원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할 것 등

3. 회의 결과

- WCP
 - 제2차 세계기후회의를 1990.11월 스위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 구성
- WCDP
 - 30년 Standard Normal 값 즉시 산출 교환에 합의 등
- WCAP
 - 기후효과가 식량생산, 수자원 관리, 에너지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
- WCIP
 - 오존층 파괴,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온상승을 중점과제로 취급 등

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술협력사업

생산연도 1987-1989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5 / 7 / 1-348

1988~89년 중 한국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기술협력사업 내용임.

1. 1988년

- 1987.12.8.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 기술지원 및 협력위원회는 1988년도 한국과의 기술협력 사업을 확정함.
 -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대국민 홍보 등 9개의 정규사업
 - 핵물질관리 및 통제 등 5개의 Footnote A 사업
- 지역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가 시행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 원전사업계획 및 추진에 관한 훈련과정을 1988.11.7.~25. 한국원자력연구소 주관으로 개최
 - 비파괴검사 훈련과정을 1988.10.17.~11.4.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최
- 한국 정부는 1988.2월 IAEA 요청에 따라 1989~90년도 정규기술원조사사업 신청서를 제출함 (추후에 추가 신청).
 - 1988.12.6. 비엔나에서 개최된 IAEA 기술지원 및 협력위원회 회의는 대체로 한국의 요청을 수락

2. 1989년

- 정부는 기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영광3/4호기 안전성 검토사업을 추가로 신청하여 IAEA에서 수락함.
 - 정부는 1989.2.17. IAEA에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
- 지역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가 시행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 1989.10.23.~11.10. 제2차 원전사업계획 및 추진에 관한 훈련과정 개최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33차. Vienna, 1989.9.25.-29. 전4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5 / 8 / 1-257

정부는 1989.9.25.~29.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3차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 최영환 과학기술처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의제

- 1990년도 기술원조 및 협력자금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 사무총장 임명, 일반토론 및 1998년 보고서, 이스라엘의 핵무기 제조능력 및 위협, 이사국 선출, 1988년 결산보고,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안전조치 예산, 1990년도 예산, 현장 제6조 A.2 및 제6조 전면 개정 등

2. 한국대표단 활동

● 훈령

- 정근모 박사(과학재단 이사장)의 총회 의장 선출을 위하여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
- 북한의 전면적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북한에 촉구하도록 회원국들에 교섭할 것
- 사무총장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된 Hans Blix를 승인할 것
- 이사국 선출 지지 요청을 한 국가들에 대한 본부 결정사항에 따라 투표할 것 등

● 관심사항

- 정근모 박사의 총회 의장직 출마
- 북한의 전면적 안전조치협정 미체결 문제
- 북한의 이사국 진출 신청문제

IPCC(기상변화에관한정부간협약체) 회의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5 / 14 / 1-214

1988~89년 중 IPCC(기상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약체) 회의가 개최됨.

1. 제1차 회의(1988.11.9.~11., 제네바)

- 의제
 - 온난화에 관한 과학적 정보에 대한 평가 등 협약체의 활동사항 검토
 - 향후 작업계획
 - 제2차 세계기후 회의 개최 등
- 회의 결과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제1차 실무회의 개최를 결정
 - 온난화 원인에 대한 과학적 규명 등 3개 주제에 대한 소위원회 구성
 -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

2. 제1차 실무회의(1989.1.30.~2.1., 워싱턴)

- 의제
 - 실무작업반 제3반은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정보 및 자료를 기초로 기후변동에 대한 대응전략 계획수립을 협의
- 한국대표단
 - 신정승 주미국대사관 서기관 및 중앙기상대 연구관으로 구성
- 회의 결과
 - 에너지 및 산업그룹 등 4개 산하그룹을 조직, 관련 주제 검토를 결정(한국도 동그룹에 포함)

WMO(세계기상기구) 해상기상전문위원회 회의, 제10차. Paris(프랑스), 1989.2.6.-17.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5 / 15 / 1-167

정부는 1989.2.6.~17. 파리에서 개최된 제10차 IMO(세계기상기구) 해상기상전문위원회 회의에 봉중헌 중앙기상대 기상연구소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전문위원회 활동 보고, 실무단 의장 및 리포터의 보고, 해양기상업무, 해양통신, 해양관측 및 자료수집 시스템과 기술, 해양기후, 해빙, 장기계획 등

686

2. 한국대표단 훈령

- 신속한 원근해 기상정보 획득에 필요한 WWW의 시스템 운영의 개선방안 관련 한국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할 것
- IMMARSA와 ARGOS 시스템을 통한 해양기상정보 이용에 있어서 비용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할 것
- 해양기상관측을 위하여 한국이 서해에 계류 부이를 설치할 예정이므로 유실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 및 북한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상호 정보제공 가능성을 타진할 것 등

3. 회의 결과

- 해빙 등 실무작업단 의장의 보고, 해양통신 관련 보고양식 수정사항 채택, 해양관측 및 자료수집에 대한 시스템과 기술에 있어서 원거리 센싱 자료 응용 결정, 해양기후학 관련 권고안 채택 등

WMO(세계기상기구) 기상측기 및 관측법 전문위원회 회의, 제10차. Brussels(벨기에), 1989.9.11.-2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6 / 1 / 1-158

정부는 1989.9.11.~2. 벨기에에서 개최된 제10차 WMO(세계기상기구) 기상측기 및 CIMO(관측법 전문위원회) 회의에 박광준 중앙기상대 국제기상협력과 기상기좌를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제9차 위원회(1985.7월) 이후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 3개 실무단 및 12분야 전문가 지명, WMO 장기계획, 지상기상관측, 고층기상관측, 환경측정, 기상측기 및 관측법 지침서 등

2. 한국대표단 훈령

- 의제논의 동향, 신기술 및 장비동향 등을 파악할 것
- 전문가와 실무단 위원 임명에 한국과 기상기술협력이 용이한 우방국 회원이 지명되도록 노력할 것 등

3. 회의 토의내용

- 새로운 CIMO 자문위 재구성 및 자문위원 위촉
- 1992~2001 제3차 장기계획 준비를 결정
- 지상관측 관련, 관측기 및 관측법, 복사 및 대기혼탁도 측정, 습도 측정 등 실무단 보고서를 청취하고 추진사항 결정
- 고층관측 등 여타 실무단 보고서를 청취하고 추진사항 결정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5차. Paris, 1989.10.17.-11.16. 전4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6 / 2 / 1-436

정부는 1989.10.17.~11.16. 파리에서 개최된 제25차 유네스코 총회에 정원식 문교부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함태혁 주유네스코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의제
 - 제3차 유네스코 중기계획(1990~95년), 90/91 회계연도 사업 및 예산, 사무총장 활동보고 등 136개 의제

688

2. 한국대표단 훈령

- 유네스코를 통한 동구국가들과의 협력증진을 적극 모색할 것
- 유네스코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 확대와 한국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 입후보를 표명한 정부간 위원회 5개 중 정보학사업조정위원회와 불법취득문화재반환위원회에 선출되도록 집중 노력할 것
- 집행위원과 정부 간 위원회 선출은 본부 결정대로 투표할 것 등

3. 주요 회의결과

- 의장에 말레이시아 문교상 선출, 아주그룹 부의장에 한국과 북한 등 6개국 선출
-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가입문제는 집행위 건의에 따라 제26차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 정원식 장관은 유네스코 세종대왕상 제정을 축하하는 리셉션을 개최
- 한국은 국제커뮤니케이션 개발사업위원회, 불법소유문화유산의 반환촉구위원회, 정보학사업 조정위원회, 본부청사위원회에 선출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5차. Paris,
1989.10.17.-11.16. 전4권
(V.2 각국의 입후보 지지요청 I(집행위원))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6 / 3 / 1-291

1989.10.17.~11.16.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5차 유네스코 총회에 대비한 동기구 집행위원 입후보 지지 요청에 대한 정부입장임.

1. 아주지역과 미주지역 국가들이 자국 집행위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한국 정부에 요청함.
2. 정부는 양국간 관계, 여타 국제기구에서의 교환지지 조건, 대사관의 건의 등을 고려하여 지지 국가를 선정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5차. Paris,
1989.10.17.- 11.16. 전4권
(V.3 각국의 입후보 지지요청 II(집행위원))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6 / 4 / 1-210

1989.10.17.~11.16.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5차 유네스코 총회에 대비한 동기구 집행위원 입후보 지지 요청에 대한 정부 입장임.

1. 유럽지역, 중동지역 및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이 자국 집행위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한국 정부에 요청함.
2. 정부는 양국간 관계, 여타 국제기구에서의 교환 지지 조건, 대사관의 건의 등을 고려하여 지지 국가를 선정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25차. Paris, 1989.10.17.- 11.16. 전4권 (V.4 각국의 입후보 지지요청 III)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6 / 5 / 1-178

1989.10.17.~11.16.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선출할 사무국 간부, 총회 산하기관의 대표, 정부간 위원회 위원 등에 출마한 각국의 지지 요청과 한국 정부의 입장임.

1. 사무국 사무차장, 총회 산하기관의 대표 및 정부 간 위원회 위원으로 입후보한 국가들이 한국 정부에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양국관계, 여타 국제기구에서의 교환 지지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지 대상국을 선정함.
2. 총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하여 의장직에 Whitlam 호주 전 수상과 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문교장관이 출마함.
 - 양국은 아주그룹에서의 컨센서스에 의한 단일후보 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경합하다가 총회 개최에 즈음하여 호주 후보의 철회로 말레이시아 후보가 의장에 선출됨.
 - 양국으로부터의 지지 요청을 받은 한국 정부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가 대세가 말레이시아 후보로 기울어지고 호주 후보가 사퇴하자, 말레이시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 제131차. Paris, 1989.5.17.-6.2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6 / 6 / 1-393

정부는 1989.5.17.~6.22. 파리에서 개최된 제131차 유네스코 집행위원회 회의에 윤석현 집행위원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함태혁 주유네스코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제3차 유네스코 중기계획 초안 검토 등 프로그램 및 대외관계위원회 산하 16개 의제
- 예산의 항목간 이전 승인 등 재정 및 행정위원회 산하 7개 의제
- 가입신청 NGO에 대한 가입여부 결정 등 비정부기구위원회 산하 2개 의제

692

2. 한국대표단 훈령

- 세종대왕상 창설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한국 정부는 1988.12.31. 유네스코에 세종대왕상 창설을 희망)
- 제3차 중기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원칙적 지지 입장을 표명할 것
- 1990~91년도 예산안 관련 사무국 제안에 찬성할 것 등

3. 회의 결과

- 세종대왕상 창설이 결정됨.
- 제3차 중기계획 및 1990~91년도 예산안을 채택하고 총회에 제출할 최종안을 마련함.
-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가입문제에 대하여는 표대결을 통한 유네스코의 정치화를 피하기 위하여 토의를 연기하기로 함.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 제132-133차. Paris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6 / 7 / 1-113

정부는 1989년 중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32~133차 유네스코 집행위원회 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132차 회의(1989.9.28.~10.13.)

- 의제
 - 1990~91년도 유네스코 사업 및 예산안
 - 총회에서 추가로 다룰 의제 토의
 - 교사지위에 관한 결의이행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구성
 - 재정보고
 - 팔레스타인 가입문제 등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 윤석현 유네스코 집행위원
- 회의 주요내용
 - 집행위원들은 문명퇴치의 해 사업, 세계문화발전 10개년 계획 및 환경보호 문제 등에 관심을 표명
 - 총회 의장 선출 관련 아주지역회의에서 Whitlam 전 호주 수상이 후보직을 철회함에 따라 총회에서 투표로 말레이시아 후보가 선출되었으며, 남북한이 총회 부의장으로 나란히 선출
 - WDCD(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환경 문제 등 유네스코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 언급

2. 제133차 회의(1989.11.16.~17.)

- 의제
 - 집행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집행위 산하 5개 위원회 위원장 선출
 - 비정부간 기구 보조금 지원문제
 - 행정, 재정문제 등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 함태혁 주유네스코대사
- 회의 결과
 - 나이지리아 집행위원이 총회 의장으로 선출
 - 기타 집행위 산하위원회 위원장 선출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 IBE(국제교육국) 회의, 제41차. Geneva(스위스), 1989.1.9.-17.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6 / 8 / 1-173

한국대표단이 1989.1.9.~1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1차 유네스코/IBE(국제교육국) 회의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조성옥 주유네스코위원회 사무총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회의의제

- 중등이후 교육과 훈련을 위한 정책 및 전략
- 중등이후 교육의 새로운 동향
- 고용과 관련된 중등이후 교육의 다양화
- 취업과 관련된 중등이후 교육의 다양화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

2. 한국대표단 활동

-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에 참여, 중등이후 교육에 대한 한국의 교육정책과 제도 및 운영, 앞으로의 방향을 소개
 - 교육발전을 통한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
- 각국 대표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교육분야에서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 교육정책 수립에 참고할 각국의 교육 관련 정보자료 수집
 - 중국 등 미수교국 대표와의 접촉을 통해 상호 우의증진과 정보교환

3. 대표단 건의

- 동 회의의 결과로 도출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의 중등이후 교육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건의함.
 - 중등이후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체제의 다양화, 구조의 융통성과 운영의 유연성 제고
 - 중등이후 교육기관의 특성과 전문분야 등에 따른 정원책정과 조정의 자율화
 - 중등이후 교육내용의 적절성 제고와 교육방법 등 개선
 - 평생교육 차원에서 중등 이후 교육단계에서의 성인 계속교육 체제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
 - 중등이후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확대와 재정확보 방안 강구
 - 중등이후 교육발전을 위해 상호 경험 공유와 정보자료와 인적·물적 교류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 발계획 정부간위원회) 회의, 제10차. Paris, 1989.3.7.-13.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6 / 9 / 1-129

정부는 1989.3.7.~13. 파리에서 개최된 제10차 유네스코/IPDC(국제커뮤니케이션개발계획) 회의에 박재선 주유네스코대표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대표단 파견목적

- IPDC 이사국(1985.10월 제23차 유네스코총회시 피선)으로서 동 이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
 -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국제동향 파악과 동 분야에서의 한국의 대외협력활동 홍보

2. 회의 주요결과

- IPDC 운영방안 및 절차개선
 - IPDC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제9차 회의시 논의된 권고안 의결
- 신규사업 심사
 - 총 41개 사업 중 37개 사업 승인

3. 대표단 관찰

- 금번회의를 계기로 IPDC의 내실화를 구체화하는 운영방안 및 절차개선 권고안이 채택되어 금후 보다 효율적인 운영 기대
- 선진국들은 자발적 기여금과 신탁기금의 적정배분 지원을 공표하고 있는바, 대다수 개도국들은 양자 협력적 성격의 신탁기금보다 기여금 증액에 의한 다자간 협력강화를 희망
 - 유네스코사무국은 IPDC사업의 중요성을 인식, 동 사업에 대한 유네스코 일반예산 지원강화 의사를 표명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실�크로드 사업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6 / 10 / 1-329

유네스코가 추진한 실�크로드사업에 관한 내용임.

1. 사업 추진경위

- 유네스코는 1987년 제24차 총회에서 고대 동서양 문화교류과정의 종합적 연구, 조사를 위한 실�크로드 탐사사업(해상로, 초원로, 사막로 3개로)을 1988~92년간 실시하기로 결정
 - 이를 위해 실�크로드 분야 세계적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립, 동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추진

696

2. 제1차 국내자문회의(1989.1.13., 경주)

- 실�크로드사업 추진경위 및 향후 실�크로드 탐사계획 협의

3. 제1차 해상로 소위원회 개최(1989.1.23.~28., 오만 머스캣)

- 한국에서는 백승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부장 등이 참석
- 실�크로드 해상로 탐사계획 협의
 - 해상로 답사일정에 기항지로 부산을 포함하기로 합의

4. 유네스코 실�크로드사업 자문위원 추천

- 한국 정부는 실�크로드사업 자문위원으로 고병익 한림대 교수를 추천하기로 결정(1989.2.27.)
 - 주유네스코대표부대사에게 동 자문위원 임명을 사무국에 요청하도록 훈령
- Mayor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1989.3.31. 고병익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임명

5. 제1차 자문위원회 개최(1989.4.24.~30., 중국 시안)

- 한국에서는 고병익 교수 참가
- 실�크로드사업 추진상황 검토 및 자문

6. 제1차 유네스코 실�크로드 미디어분과회의 개최(1989.6.14.~21., 소련 애슈카바드)

- 한국에서는 고병익 교수 외 2명 참석
- 실�크로드사업에 대한 미디어 참여방안 등 협의



7. 주유네스코대표부대사의 실�크로드사업 추진상황 보고(1989.11.23.)

- 제25차 유네스코총회 결정사항
 - 실�크로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심도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 기간을 10년간으로 연장하고, 이를 협의하기 위한 육상로 소위원회를 개최(1990.1.7.~9., 파키스탄)
- 실�크로드사업 추진동향
 - 제1차 사업인 사막로 탐사사업이 1990.4월 약 50일간 실시될 예정
 - 1990.10.23.~91.2.23. 베니스-한국 경주-오사카 간 해상로 탐사사업 예정
 - 1992.5월 소련 Odessa-중국 우루무치 간 초원로 탐사 예정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시청각저작물 국제등록 조약 채택 외교회의 및 준비전문가 위원회. Geneva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47 / 2 / 1-207

698

1. 제1차 시청각저작물 국제등록에 관한 전문가위원회가 1988.3.7.~11. 제네바에서 개최됨. (주제네바대표부 서기관 참석)
 -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사무국이 준비한 시청각저작물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 초안 검토
 - 사무국은 오스트리아의 국제등록사무소 유치안 검토와 동 국제등록 조약 및 규칙초안을 작성, 9월 총회에 제출하기로 합의
 - 주제네바대표부는 한국이 시청각저작물 국제등록제도 가입여부를 9월 WIPO 총회 시까지 정립할 것을 건의
2. 국제등록조약 채택 외교회의의 준비 전문가 회의가 1988.11.28.~12.2. 제네바에서 개최됨.(윤희창 문화공보부 저작권과장 등 대표단 참석)
 - 주요 회의내용
 - 국제등록제도 설립 필요성: 대다수가 원칙적으로 지지
 - 저작권과의 관계: 기존 저작권이나 베른조약과는 별도로 성립되는 독립된 권리
 - 등록사무국 운영 및 설치장소: 차기 WIPO 총회에서 결정
3. 시청각저작물 국제등록조약 채택 외교회의가 1989.4.10.~21. 제네바에서 개최됨.(최태창 주제네바 대표부 담당관 참석)
 - 조약 성립배경
 - 영상기기의 발달에 따라 시청각저작물의 방송, 녹화, 재생, 상영, 공연 등 기회 확대 및 시청각 저작물의 국제적 판매, 대여 등의 급속한 증대
 - 시청각저작물에 대한 제호 및 권리관계 등을 국제적으로 등록하고, 동 조약가입국은 등록 내용에 대해 일응의 증거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시청각저작물의 국제적 권리, 이용관계의 명확화 도모
 - 사무국이 작성한 조약안에 대해 거의 원안대로 채택
4. 문화공보부는 1989.12.23. 시청각저작물의 국제등록조약 서명에 관한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함.
 - 현행 시청각저작물의 활발한 국제교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의 권리, 이용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동 조약은 국제문화교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약에 대한 서명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한국음반협회 등 관련단체에서도 긍정적 의사표시

집적회로보호조약 채택을 위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외교회의 준비회의. Geneva

생산연도	1988
생산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64 / 13 / 1-204

1. 집적회로 보호조약 채택을 위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외교회의 준비회의(1988.5.30.~6.1., 제네바)

- 참석자: 허정훈 특허청 전자심사관 등
- 향후 추진일정 합의
 - 제4차 전문가 회의와 예비 회의: 1988.11월 제네바 개최
 - 외교회의: 1989.5월 워싱턴 개최
- 상기 전문가 회의를 위해 WIPO 사무국에서 개도국이 제안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와 개정된 조약안을 준비하기로 결정

2. 집적회로 보호조약 채택을 위한 WIPO 외교회의 준비회의(1988.11.14.~22., 제네바)

- 참석자: 김경만 특허청 심사4국장 등
- 주요 협의의제
 - 집적회로 보호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의제, 규칙안, 초청대상, 초청문안 등
- 대표단 종합관찰 및 건의(외교회의 전망)
 - EC(구주공동체), 일본 등 선진국(미국 제외)은 미국의 일방적 보호요청에 따르기보다는 다자조약에 의해 적절한 보호제도를 수립한다는 전략에 따라 워싱턴회의에서 조약 채택을 서두를 것이며, 개도국은 최소한의 보호와 지연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
 - 외교회의에서는 개도국회의에서 사전 조항별 의견조정을 거쳐 그룹별 협상이 진행될 것인바, 개도국회의에 한국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충분한 대처가 필요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특허법 규정조정에 관한 전문가 회의, 제5-7차. Geneva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47 / 3 / 1-238

1. 제5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특허법 규정조정 전문가 회의(1988.6.13.~17., 제네바)

- 참석자: 김태준 특허청 항고심판소장(수석대표)
- 사무국 작성 조약안 검토
 - 특허보호 제외, 특허기간 등 새로운 의제 토의에 장시간 소요로 상정된 안건 토의 미완료
 - 1988.12월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

2. 제5차 WIPO/특허법 규정조정 전문가 회의 속개회의(1988.12.12.~16., 제네바)

- 참석자: 최태창 주제네바대표부 담당관
- 조약안 중 미토의 조항을 중심으로 토의진행
 - EC(구주공동체) 제도와 미국 제도의 조화에 목표를 두고 있는 조약안에 대해 선진국들은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가한 반면, 개도국은 전문가 부족, 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극적 참여
 - 1989.9월 총회에서 조약채택 일정문제 등을 협의, 외교회의 개최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
- 한국대표단 건의
 - 조약채택 시 한국의 가입이 불가피한 실정을 감안, 이에 관한 사전준비 철저 필요

3. 제6차 WIPO/특허법 규정조정 전문가 회의(1989.4.24.~28., 제네바)

- 참석자: 최태창 주제네바대표부 담당관
- 추가 조약문안 협의 및 미국, 일본, 영국 수정안 등 검토

4. 제7차 WIPO/특허법 규정조정 전문가 회의(1989.11.13.~24., 제네바)

- 참석자: 유인봉 특허청 항고심판관(수석대표)
- WIPO의 특허법 규정조정 조약안 문안 추가검토 계속
 - 한국은 전반적으로 동 조약안을 지지하고, 가능한 한 다수국이 체약국이 될 수 있도록 합의된 결론 도달을 요망
 - 일본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일정과 관련, 본 전문가 회의를 1990년에 외교회의로 발전시켜 가능한 한 조기결론을 희망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공업소유권에 관한 개발협력 상설위원회, 제13차. Geneva, 1989.5.29.-6.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47 / 4 / 1-104

정부는 1989.5.29.~6.2.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3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공업소유권에 관한 개발협력 상설위원회에 이승환 특허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주요결과

- 사업활동 계획의 검토 및 평가
 -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각국은 자국에 대해 WIPO의 지원이 증가되기를 희망
- 인적자원의 개발
 - 다수국이 인적자원의 개발이 개발협력사업의 최상의 목표임을 강조하고 국제사무국의 활동에 만족표시
- 특허정보 및 문헌 관련 사항
 - 국제사무국은 지역특허정보 및 문헌센터의 설립지원과 개도국의 특허정보 및 문헌의 해결에 관한 연구 지지 입장 표명
- 발명 및 기술혁신활동의 진흥
 - 수개국은 발명진흥 및 기술혁신에 대해 홍보 및 의사전달의 중요성에 관심표명
- 개발도상국 간 협력
 -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전문가 발굴 활용을 희망
- 공업소유권 라이선싱
 - 라이선싱에 관한 훈련 및 공업소유권과 기술이전의 법적 측면에 관한 훈련 확대를 건의
- 차기회의 심포지엄 주제
 -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기술혁신을 주제로 할 것을 건의

2. 대표단 관찰 및 평가

- 관찰
 - 인도, 브라질 등은 개도국 기술이전 확보와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내 WIPO에서 동 문제가 거론되기를 촉구
 - WIPO 사무차장은 개발협력사업은 프로그램사업이므로 동 논의가 어려우며, WIPO 총회에서 동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암시
 - 미국대표는 UR 지적재산권 협상이 개도국의 이익을 절대 해하지 않으며, WIPO의 권능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
- 평가
 - 개발협력사업회의는 전 회기까지 큰 논란 없이 진행되어 왔으나, 금번 회의는 국가별·지역별·사안별로 많은 논란과 의견이 제기되었고, 회의 성격 자체가 지역별 대립현상을 보인 것으로 평가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상표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조약 의정서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Madrid(스페인), 1989.6.12.-28.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47 / 5 / 1-81

정부는 1989.6.12.~28.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상표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조약 의정서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에 김태준 특허청 항고심판 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회의결과

- 상표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조약 의정서 문안 검토, 확정
 - 제16조로 구성(국제등록을 통한 보호확보, 국제출연, 적용영역, 국제등록의 효력·유효기간·갱신, 총회 및 사무국 구성, 의정서 발효 등)

2. 대표단 관찰 및 건의

- 관찰
 - 당초 의정서안과 비교시 큰 수정 없이 의정서 채택
 - 스페인, 독일 등 대표가 강한 관심과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나, 오피서버들은 거의 무관심
 - 북한은 정식 대표였으나, 발언 무
 - WIPO는 본 의정서의 통과와 본 의정서에의 참가를 희망하는 듯하며, 한국에도 가입서명을 요청
- 건의
 - 상표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약이므로 국내제도 등과 대비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 상표출원이 많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가입동향을 살펴 조약가입을 검토할 필요
 - 의정서가 NICE(국제상품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동 의정서의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3. 특허청의 동 의정서 가입검토 의견(1989.12.19. 외무부에 송부)

- 한국상표제도의 국제화,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표 관련 국제조약에의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동 의정서에 대해 적극적인 가입검토가 필요
 - 그러나 동 의정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원시의 사용언어 문제(현재 프랑스어), NICE 제도의 채택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바, 특허청은 NICE 분류제도의 채택을 위해 한국상품분류를 NICE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 따라서 이러한 전환작업이 1990년말경 완료되면 NICE 조약과 상표의 국제등록조약인 마드리드 의정서에의 가입검토가 병행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회, 제11차. Geneva, 1989.9.25.-10.4.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기구과
MF번호	2019-47 / 1 / 1-196

정부는 1989.9.25.~10.4.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차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회에 서정욱 특허청 항고심판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대표단 훈령(기본입장)

- 동 총회에서 한국의 지적재산권보호 노력을 알리고 지적재산권분야에 관한 최신정보 및 국제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의 지적재산권분야 발전에 기여
- 한국은 WIPO 관련 기구의 사업 특히 지적재산권보호 수준 제고와 세계지적재산권제도의 현대화 작업을 지지하고 동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표명
- 회의기간 중 WIPO 사무국 인사, 각국 대표와 지적재산권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여 특허청 발전에 계기화

2. 주요 회의결과

- WIPO 추진 프로그램사업 및 국제등록사업 평가
 - 특히 인력개발사업, 기술정보 지원, 발명촉진 및 법제의 현대화 지원 등이 개도국 지적재산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
- 각종 제안 채택
 - 파리협약 개정 및 특허법 통일화조약 채택을 위한 전문가 회의와 외교회의 개최 준비회의 1990년 2/4분기 개최, 동 조약채택 외교회의는 1991년 상반기 개최
 -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s) 보호에 관한 워싱턴조약과 시청각 작품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의 행정사항을 WIPO 사무국이 담당 등
- WIPO 1990~91년 사업 및 예산, 1992~95년 중기사업계획 승인
- 파리동맹 집행위원회 정회원국으로 한국 피선

3. 대표단 주요활동

- 한국 수석대표 기초연설 시행
 - 특허청의 국제특허연수원이 지역협력사업으로 1987년, 1988년 수행한 공업소유권 연수 세미나의 성공적 개최 및 첨단기술이 지적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제포럼(1989.8월, 서울)의 성공적 개최 보고와 유사 국제회의의 지속적 개최희망
- 회의 기간 중 WIPO 사무차장 및 주요국 특허청장과의 개별면담
 - 지적재산권에 관한 상호협력방안 포괄적 논의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 제91-96차. Rome

생산연도 1987-1989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7 / 8 / 1-162

정부는 1987~89년 중 로마에서 개최된 제91차, 제95~96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에 대표단을 파견함.

1. 제91차 FAO 이사회(1987.6.15.~26.)

- 참석자: 박명준 주이탈리아대사관 공사(옵서버)
- 주요 협의의제
 - 세계 식량사정, 제9차 농업위원회 보고서 및 제12차 식량안보위원회 등 각종 보고서 채택, Aid-in-kind 타당성 검토, 1988~89년 예산 및 사업계획 검토
 - 제92차 이사회 개최결정(1987.11.3.~5., 로마)

2. 제95차 FAO 이사회(1989.6.19.~30.)

- 참석자: 조규일 농림수산부 제2차관보(수석대표)
- 주요 회의결과
 - FAO 식량안보위원회 보고서 토의: 한국대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농업선진국의 농산물 보호주의와 개도국의 식량안보 및 농업구조 조정문제가 상호 조화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FAO의 적극적 역할수행과 특히 개방경제하에서의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FAO의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개발을 촉구
 - 1990/91년 사업계획 및 예산 검토와 각종 FAO 분과위 활동 보고서 채택

3. 제96차 FAO이사회(1989.11.6.~10.)

- 참석자: 원광식 주이탈리아 농무관(수석대표)
- 주요 회의결과
 - 총회 의장단 구성
 - 1990/91년 사업계획 및 예산 검토: 선진국들은 Zero-growth 원칙을 강조하면서 비용증가를 최대한 자체 흡수할 것을 촉구하고 개도국들은 확대예산 필요성을 강조
 - FAO 재정운용 및 전망 협의: 개도국들은 미불금의 조속한 납부를 촉구
 - 재정 및 계획위원회 전문가그룹의 FAO 활동 등 검토결과 보고: 미국 등 선진국은 FAO 운영개선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를 기존사업 중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취소함으로써 현 예산범위 내에서 FAO의 운영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또한 동 보고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총회 상정전 충분한 검토를 위한 Contact group 구성을 제안하고 총회 제2분과위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
 - 상품위원회 등 각종 산하위원회 결과보고 등: 원안대로 통과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 제25차. Rome, 1989.11.11.-30.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7 / 6 / 1-278

정부는 로마에서 개최된 제25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 및 이사회에 김식 농림수산부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김석규 주이탈리아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FAO 총회 및 이사회 개최계획 보고(1989.8월)

- 총회(1989.11.11.~30.) 및 이사회(1989.11.6.~10.)
- 주요의제
 - 세계 식량사정 및 관련정책 사업검토
 - 1990~91년 사업계획 및 예산검토
 - 현장 및 법률관계 검토

2. 한국대표단 훈령

- 파견목적
 - FAO를 통한 식량농업분야에서의 국제협력증진과 국제식량농업정책 조정에 있어 한국입장 반영
 - 국제식량농업분야 국제동향 파악 및 기술교환 협의
- 훈령
 - 모든 국가의 최대 관심사항인 식량증산, 세계 식량안보 및 농촌개발, 농어촌 복지향상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강조
 - 한국의 그간 FAO 활동에 대한 기여, 대개도국 지원상황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한국의 국제협력 추구노력 및 국제적 위치 부각

3. FAO 이사회 및 총회 참석결과 보고

- 이사회
 - 총회 의장단 구성, 1990/91년 사업계획 및 예산 검토, FAO 재정운용 및 전망 협의
 - 재정 및 계획위원회 전문가그룹 연구상황 검토, 상품위원회 등 각종 산하위원회 결과보고 등
- 총회
 - 의장단 및 3개 분과위 구성, 각국 수석대표 기조연설(한국대표는 1989.11.15. 현재 진행중인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평가와 한국의 농산물수입 개방노력 설명, 식량수입 개도국의 특수한 농업여건과 식량 안보상황이 UR 협상에 반영될 것을 촉구하는 연설 시행)
 - 대부분의 보고서 채택, 단 팔레스타인 기술원조결의안만 투표로 가결
 - 한국 수석대표는 FAO 사무총장과 FAO 준전문가 파견 협정서 서명교환 및 방한 초청, 마츠모토 일본대표와 유자망 조업중단 움직임에 대한 공동대처 합의 등 일정수행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 제25차. Rome, 1989.11.11.-30. 전2권 (V.2 각국의 입후보 지지 요청)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7 / 7 / 1-217

1. 제25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총회 계기, 각국의 이사국 입후보 지지 요청에 대해 아래 국가를 지지하기로 결정함.

- 아시아: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 아프리카: 모로코, 카메룬, 이집트, 가나, 코트디부아르, 수단
- 유럽: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폴란드
- 중남미: 멕시코, 브라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 북미: 캐나다
- 근동: 레바논,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2. 제25차 FAO 총회 계기, FAO 등 주요 요직에 아래 국가를 지지하기로 결정함.

- FAO 계획위원회(11석)
 - 아시아(2): 인도네시아
 - 아프리카(2): 에티오피아, 튀니지
 - 중남미(2): 멕시코, 바베이도스
 - 중동(2): 리비아, 쿠웨이트
 - 유럽(2): 프랑스, 노르웨이
 - 북미(1): 캐나다
- FAO 재정위원회(9석)
 - 아시아(1~2): 일본(1석 증가시 말레이시아)
 - 아프리카(2): 니제르, 카메룬
 - 중남미(1~2): 코스타리카(1석 증가시 브라질)
 - 중근동(1): 사우디아라비아
 - 유럽(1): 이탈리아
 - 북미(1): 미국
 - 남서태평양(1): 호주
- WFP(세계식량계획) 식량원조정책 계획위원회(5석)
 - 방글라데시, 호주, 캐나다
- 독립이사회 의장
 - 미국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미국연구단 회의, 제32차. Rome, 1989.2.28.-3.3.

생산연도 1989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7 / 9 / 1-95

정부는 1989.2.28.~3.3. 로마에서 개최된 제32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미국(米穀)연구단 회의에 원광식 주이탈리아 농무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김중대 농림수산부 양곡조사과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토의내용

- 세계 미국현황 및 전망
 - 1987년 생산량이 10년이래 최저수준(465백만 톤)을 기록, 1988년 세계미국시장 가격의 급상승 초래
 - 1988년의 증산에도 불구하고 1989년 세계 재고는 1988년과 같이 낮은 수준 지속 전망
- 참가국의 미국정책 토의
 - 20여개국이 자국의 최근 미국정책을 소개, 다수국은 자급실현을 주요 정책목표로 추진
 - 한국대표는 한국이 꾸준한 증산시책의 성공으로 1970년대의 쌀 부족시대에서 1980년대의 자급실현시대로 진입했으며, 자급실현 이후 공급과잉 가능성 및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쌀 생산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발표
- 국내외 미국정책을 위한 지침 토의
 - 현 지침의 개정 필요성 여부에 관한 토의는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무국이 각국의 의견을 종합하여 차기 회의시 상정
 - 아울러 현행 지침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원조공여국의 대개도국 기술 및 재정지원 강화와 개도국의 부족한 식량을 합리적 조건으로 수입 총당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권고문 채택
- 제33차 회의 개최
 - 연례적으로 계속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차기회의 일자와 장소는 의장단에 결정을 위임

2. 농림수산부는 1989.8.28. FAO 미국에 관한 국제행동지침 개정안에 대한 아래 검토의견을 외무부에 송부함.

-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1960년대 후반부터 주곡을 자립할 목표를 세우고 경지정리작업, 다수확 품종개발, 병충해 예방 등을 통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농가소득의 34%를 쌀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농업현실에 비추어 쌀만은 자급을 유지함으로써 이들 농민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
 - 국민의 기본식량으로서 주곡인 쌀은 해외시장의 변화에 영향없이 항시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자급을 유지하는 것이 주권국가로서의 안보유지를 위해 불가피
- 따라서 한국은 현행 지침의 일반목표인 개도국의 주곡자급 목표를 계속 국가식량정책으로 삼을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현행 지침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연구단 회의. Rome

생산연도 1989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7 / 10 / 1-147

정부는 1989년 중 로마에서 개최된 FAO(유엔식량농업기구)/CCP(상품문제위원회) 정부간 연구단 회의에 원광식 주이탈리아 농무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제13차 CCP 육류 및 피혁에 관한 정부간 회의(1989.3.7.~16.)

- 주요 토의내용
 - 세계 육류시장의 동향과 전망, 축산부문 국제협력 지침에 대한 후속조치
- 한국대표단 활동
 - 기초위원국으로 참여
 - 한국 농업에 있어 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소고기수입 재개조치를 소개
 - 아울러 FAO 국제협력지침 수행을 위한 회원국의 참여를 강조
- 대표단 건의
 - 본부에서 회의 대표단 파견
 - 한국의 축산정책 및 관련 통계자료 송부

2. 제22차 CCP 유지(油脂), 유실(oilseeds)에 관한 정부간 회의(1989.3.2.~23.)

- 참가목적
 - 유지작물 및 유지류분야에 대한 국제협력증진
 - 참가국의 유실·유지류에 관한 최근 정보 파악
- 주요 협의의제
 - 세계 유실·유지류의 단기시장 전망 검토, 유실·유지류에 관한 국제협력지침 후속조치, EC(구주공동체)의 유실·유지류 개발정책 검토, 상품기금 개발, 관련 국제기구의 활동상황 등

3. 제7차 CCP 차(茶)에 관한 정부간 회의(1989.5.9.~12.)

- 참가목적
 - 세계의 차 생산, 교역 및 가격전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각 참가 회원국들의 차에 대한 국내정책, 수급전망 등에 관한 최신정보를 수립하여 한국의 정책에 반영
 - 각국의 차 품질기준 및 ISO(국제표준화기구) 기준 3730의 내용과 품질관리제도 등을 파악, 한국의 품질관리제도 개선에 반영
- 주요 협의의제
 - 세계 차 경제의 현황과 단·장기전망 검토, 수출되는 차의 품질기준 이행 문제, 차 품질관리의 효과적인 감시를 위한 국제적 감시체제 설립, 차 일반진흥 대책 등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위원회 회의. Rome

생산연도	1989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7 / 11 / 1-148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위원회 회의가 1989년 중 로마에서 개최됨.

1. 제14차 CFS(식량안보위원회)

- 개최일시: 1989.4.3.~7.
- 참석자: 원광식 주이탈리아 농무관(대표)
- 주요 토의의제
 - 최근 세계식량안보 현황과 전망, 구조조정과 식량안보
- 대표단 건의
 - 세계식량안보의 현황과 문제점, 대책을 모색하는 중요회의인바, 본부 대표단의 참여요청
 - 식량안보를 위한 공동 대처방안의 하나로 아세안지역 식량안보계획에 참여하는 방안 신중검토
 - WFP(세계식량계획)에 대한 특별기여 검토

2. 제18차 COFI(수산위원회)

- 개최일시: 1989.4.10.~14.
- 참석자: 이희수 수산청 차장(수석대표)
- 주요 협의의제
 - 금후 25년간의 세계 수산추이·전망 및 FAO의 역할, FAO 지역기구·개도국간 기술경제협력, FAO 중단기 수산계획, 수산물 교역, 어선표식 및 식별 표준화, 인도양 참치위원회 설치 등
- 회의 성과 및 대표단 건의
 - 양식어업에 관한 한국의 경험과 발전과정, 문제점과 대응방침 등 소개로 회원국의 이해와 동조 획득
 - 기술협력, 무역신장에 대한 실적과 주장으로 개도국 어업발전에 협력적이라는 재인식 부여 등
 - 국제수산 사회에의 능동적 진출 필요
 - 인도양 참치위원회 설치 관련, 관민합동의 철저한 검토와 가입문제 결정 필요

3. 제3차 식물유전자원위원회

- 개최일시: 1989.4.17.~21.
- 참석자: 원광식 주이탈리아 농무관(대표)
- 주요 협의의제
 -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활동현황과 국제기금 설치 진전상황, 개도국 생존작물의 원원종 수집보존 현황, 유전자원의 현위치 보존(in-situ conservation) 상황, 종자은행의 원원종 수집에 관한 국제연락망 설치준비 현황,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협약 추진상황 등



- 회의 특기사항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불참하는 회의로서 유전자원의 보존, 이용 및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 간 이해관계가 크게 드러남
-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다 심도있는 사전준비와 참가 필요

FAO(유엔식량농업기구)/TCP(기술협력사업)

생산연도 1985-1989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7 / 12 / 1-316

1985~89년 중 FAO(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 승인된 TCP(기술협력사업) 내용임.

1. 실크가공에 관한 기술협력사업

- 한국은 FAO에 실크가공기술 개발에 관한 기술협력사업을 신청(1986.8월)
 - 사업목적: 국내 견직업계로 하여금 선진 실크가공기술을 습득, 국산 견제품에 대한 품질 향상으로 생사류 수출증대 도모
- FAO의 사업승인(1987.4월)
 -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10개월(1987.8월~), 12만3천 달러
 - 실크가공산업 연수생 파견, 전문가 초청, 국내훈련 등 실시

2. 화훼개발에 관한 기술협력사업

- 한국은 FAO에 화훼개발에 관한 기술협력사업을 신청(1986.8월)
 - 사업목적: 국민경제 수준의 향상에 따라 늘어가는 화훼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 및 수출작물로 화훼산업 육성
- FAO의 사업승인(1986.12월)
 -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해외연수 2개월, 전문가 초청 3개월, 총 10만2천 달러
 - 개인 및 단체 해외연수, 전문가 초청 등 실시

3. 청과물 저장가공 기술개발 연구사업

- 한국은 FAO에 청과물 저장가공 기술개발에 관한 기술협력사업을 신청(1986.6월)
 - 사업목적: 청과물 저장능력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다양한 청과물 가공품 개발
- FAO의 사업승인(1989.2월)
 - 소요예산: 23만 달러
 - 전문가 초청, 해외연수 및 관련 기자재 도입, 워크숍 개최 등

4. 기타사업

- 양봉개발사업(1986.1월 승인): 사업기간(1986.4~87.3월), 17만4천 달러
- 식품산업개발사업(1987. 12월 승인): 사업기간(1987.12~88.2월), 2만 달러
- 소규모 화훼개발사업(1986년 승인): 사업기간(1987.1~12월), 10만2천 달러
- 농림수산부, 국제농업우수관리 세미나 개최계획(1989년 하반기 또는 1990.5월)
 - 목적: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간의 효율적 농업우수 관리방안 협의
 - 참가국: 아태지역 14개국
 - 내용: 세미나 개최(1주), 실무 훈련과정(3주)

FAO(유엔식량농업기구)/IOFC(인도양수산위원회) 회의, 제8-9차

생산연도 1985-1989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7 / 13 / 1-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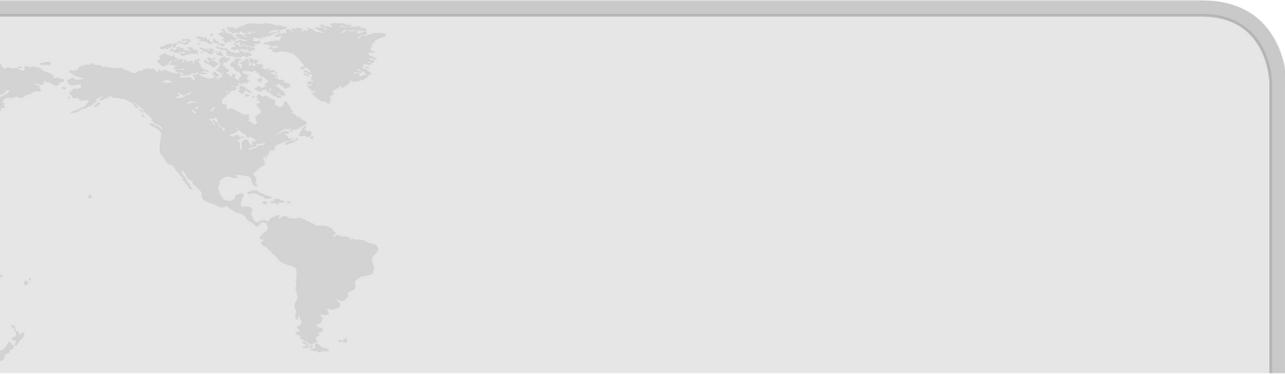
1985~89년 중 제8~9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IOFC(인도양수산위원회)가 개최됨.

1. 제8차 회의(1985.7.2.~6., 방콕)

- 참석자: 천인봉 수산청 수산기좌 등
- 주요 의제
 - 인도양에서의 주요어업 검토, 인도양 참치어업의 관리, 어업관리 및 개발에 관한 FAO 세계회의 후속조치, 위원회 보조기구의 활동보고 등
- 대표단 종합의견 및 건의
 - 인도양의 연안국이 참치어업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자국의 자원관리 이용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이들의 참여확대 예상
 - IOFC 등 국제기구에서도 실질적인 지역개발 지원확대 및 자원이용 개발원칙에 적극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안 개도국도 국제기구의 역할강화를 희망하고 있어 한국도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가 필요
 - 한국의 어획통계 분석체제 강화 및 적극적인 통계자료 제출 등을 통한 협조강화 요망
 - 어업자원 전문가 회의(1985.11.28.~12.2., 스리랑카 콜롬보)에 한국대표 파견 건의

2. 제9차 회의(1989.10.2.~6., 세이셸 Mahe)

- 참석자: 김영규 수산청 수산기좌
- 주요 의제
 - 회기간 위원회 활동 등 후속조치 검토, 수산정보 체제의 현황, 새우어업관리 및 개발문제, 수산관리와 개발에 관한 FAO 세계수산총회의 이행상황, 인도양 수산위원회 구조와 기능, 타 국제기구와의 협조활동 등
- 대표단 종합의견
 - 연안국들의 일반적 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별·지역별 발전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 특징
 - 특히 인도양지역의 주요어업인 참치, 새우류에 대한 연안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실질적인 권한강화 노력 중
 - 따라서 조업국인 한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참치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자원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연안국의 무차별적인 입장강화 노력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일본, 프랑스 등 조업국과 필요시 공동대처 노력 필요
 - 아울러 한국의 대외공여사업 등 지역발전에 대한 노력을 적절히 홍보하여 어업협력 강화 도모



- 금후 조치사항
 - ITPP(인도태평양 참치개발 및 관리프로젝트) 연장문제에 대한 한국입장 표명 및 협력필요
 - IOFC 참치위원회 차기회의(1990년 6~7월) 시 검토될 참치 자원동향 및 관리문제, 참치 유자망 문제 등 대비

FAO(유엔식량농업기구)/INFOFISH(아시아·태평양지역 내 수산물의 시장정보 및 자문역할을 위한 정부간 기구) 이사회, 제1-4차

생산연도 1987-1989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7 / 14 / 1-164

1987~89년 중 제1~4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INFOFISH(아시아·태평양지역 내 수산물의 시장정보 및 자문역할을 위한 정부간 기구) 이사회가 개최됨.

1. 제1차 이사회(1987.4.20.~24., 방콕)

- 주요 협의의제
 - 본부 설립협정, 재정규약, 1987년 작업계획 및 예산, FAO와의 관계, 타 국제기구와의 협조 등
- 한국은 불참

2. 제2차 이사회(1987.10.5.~7., 쿠알라룸푸르)

- 상기 이사회 개최 관련, 수산청은 INFOFISH 가입 등에 관한 입장을 1987.6.30. 외무부에 통보
 - 한국이 세계유수의 수산국이며, 동 기구가 아태지역 수산물 교역과 관련한 유일한 기구임을 감안, 한국의 동 기구가입은 바람직함.
 - 다만, 가입 주요대상국인 일본, 중국, 호주, 프랑스 등이 가입을 유보하고 있거나 관망중인 상태에 있어 이들 국가의 가입 없이는 동 기구 활동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한국도 가입대상 주요국들의 동향을 보아 가입검토
 - 한국은 불참

3. 제3차 이사회(1988.11.21.~23., 다카)

- 수산청은 동 회의 불참을 외무부에 통보
 - 동 기구활동 및 회원국의 동향파악과 향후 가입문제 검토를 위해 옵서버로서의 참석은 바람직함.
 - 단, 사정상 대표 파견이 어려운 실정임.

4. 제4차 이사회(1989.10.30.~11.1., 방콕)

- 주요 협의의제
 - 제3차 이사회 결과보고, 1990년도 작업계획, 재정 및 예산조달 계획 등
- 수산청은 예산 사정상 동 회의 불참을 외무부에 통보

FAO(유엔식량농업기구)/아시아·태평양지역 농업경영위원회 회의, 제10차. Bangkok, 1989.12.6.-9.

생산연도 1989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8 / 1 / 1-32

정부는 1989.12.6.~9.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0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아태지역 농업경영위원회 회의에 이복남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한국대표단 기본훈령

- 회의에 적극참여, FAO 아태지역 농업경영회의 회원국 간 협력증진에 노력하고 한국 정부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 국익증진에 기여
- 회원국의 농업경영에 관한 각종 자료 및 농업정보를 수집, 한국의 동 분야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

2. 의제별 세부훈령

- 사무국 및 각국 대표연설
 - 경청하고 한국에 유익한 자료수집
- 각국의 활동보고서 발표
 - 한국에 유익한 자료, 특히 수입개방 관련, 아열대 과수, 전분작물, 사료작물, 축산 등에 대한 생산동향, 가격, 생산비, 농가소득 등 자료수집
- 제9차 회의 추천사항 후속조치 검토
 - 국익관련 부분에 한국입장을 적극 개진, 필요시 한국의 현 농업경영상황 등을 설명
- 전작 경영조직 발전전망
 - 각국의 발표내용을 경청, 한국에 유익한 정보와 자료수집
- 재배 유형, 소농의 경영조직 개선을 위한 축산부문 도입, 경영조직에 있어서 농경과 임업
 - 한국 국익관련 사항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입장 개진, 유익한 정보 자료수집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경영 적용사례
 - 타국의 농업경영사례를 경청, 한국의 농업경영에 대한 적용가능성 여부를 검토, 필요시 이를 반영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이사회, 제33-36차. Rome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8 / 3 / 1-286

제33~36차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이사회가 로마에서 개최됨.

1. 제33차 이사회(1988.4.25.~30.)

- 참가 보고서 중 향후 IFAD 활용 방안
 - IFAD를 매개로 한국의 농업기술 해외지원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해외지원을 통해 한국의 위상강화, 수출기반 확충 및 한국 기술인력 활용 등의 효과 기대

716

2. 제34차 이사회(1988.9.13.~16.)

-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
 - 한국 참여의 IFAD 기금 규모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 및 남남협력 차원에서 결정이 필요
 - 심사 중인 차관사업에 한국이 참여하여 대개도국 농업개발 지원의 본격화 추진

3. 제36차 이사회(1989.4.25.~27.)

- 건의사항
 - 한국의 IFAD 이사국 임기는 1989년말까지 이므로, 제37차 이사회에서는 IFAD에 등록된 이사가 직접 참여하여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조치를 요청함.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이사회, 제37-38차. Rome

생산연도 1989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8 / 4 / 1-167

제37~38차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이사회가 로마에서 개최됨.

1. 제37차 이사회(1989.9.12.~15.)

- 훈령
 - 이사회에서 토의되는 IFAD 사업 활동, 각국의 차관사업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한국의 기술지원 및 용역진출 가능성 모색에 노력할 것

2. 제38차 이사회(1989.12.5.~8.)

- 주요 논의사항
 - IFAD 기여금 미납국에 대한 납부 촉구
 - 차관사업 계획 심의
 - 제13차 총회(1990.1월)에 제출할 '환경보호 및 농촌빈곤추방' 보고서 일부내용 수정
 - '89 사하라-아프리카지역 특별사업 중간보고서 일부내용 수정하여 총회에 제출 결정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회, 제12차. Rome, 1989.1.23.-26.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8 / 2 / 1-208

1. 정부는 1989.1.23.~26. 로마에서 개최된 제12차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총회에 이남기 주이탈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주요 회의결과
 - 남부사하라 특별지원계획, 차기 회의일정,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특별보고 합의
 - 제3차 기금조성 문제는 각 그룹 간 이견으로 미합의
 - 각 그룹별 기금 목표액 달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작업반회의를 3.31. 이전에 개최하고 그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총회를 속개하기로 결정
2. Brown IFAD 부총재는 1989.2.21.~23. 방한하여 외무부,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 인사를 면담, 제3차 IFAD 기금조성을 위한 한국의 기여금 증액을 요청함.
3. 제2차 IFAD 임시작업반회의가 1989.3.30.~31.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됨.
 - 주요 회의결과
 - 2그룹 국가 중 카타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지난번 수준의 기금공여를 약속, 동 그룹의 목표달성은 가능
 - 한국을 포함한 3그룹은 아르헨티나가 3백만 달러를 서약, 현재 6,500만 달러를 확보하고 잔여 1,000만 달러 확보를 위해 한국에 기대
 - 1989.6월 재차 협의 후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
4. 정부는 1989.6.7.~8. 로마에서 개최된 제12차 IFAD 총회 속개회의에 김석규 주이탈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제3차 IFAD 기금조성 결의안을 채택(각 그룹별 기여액)
 - 제1그룹 186.6백만 달러, 제2그룹 124.4백만 달러, 제3그룹 52.976백만 달러
 - 한국 수석대표는 제3차 IFAD 기금조성관련 2백만 달러를 기여하기로 서약
 - 이는 제2차 기금조성 시 30만 달러에서 대폭 증액
 - 한국 정부는 개도국의 농촌 및 농업개발을 위한 남남협력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모든 국가들의 공동노력을 통한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희망

WHO(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 제83차. Geneva(스위스), 1989.1.9.-20.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8 / 5 / 1-189

1989.1.12. 제네바에서 개최된 WHO(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에서 한상태 박사가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임기: 5년)으로 임명됨.

1.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지명 선거

- 1988.9.12.~16. 마닐라에서 개최된 WHO 서태평양지역위원회 선거에서 한상태 박사가 말레이시아 후보와 경합하여 압도적인 표차로 지명
- 동 선거결과, WHO 서태평양지역위원회는 한 박사의 사무처장 임명을 WHO 이사회에 건의

2.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선임 교섭

- 외무부는 1988.11.16. WHO 이사회의 사무처장 임명 관련 이사국들의 지지를 요청하도록 관계공관에 훈령
- 주제네바대표부는 1989.1.5. 대다수 이사국들의 지지 입장 확인

3.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임명

- 한상태 박사는 1989.1.12. 제83차 WHO 집행이사회에서 31개 이사국 전원의 찬성으로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임기: 5년)으로 임명
- 평가
 - 한국인의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 첫 성공사례
 - 입후보 결정에서부터 선거 등 전과정에 걸친 외교적 노력의 성과
 - 보건분야에서의 한국에 대한 실질적 혜택의 증가 효과 기대

WHO(세계보건기구) 협력사업 - 세미나·워크숍·훈련과정 참가자 추천. 전2권 (V.1 1988-89.4)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8 / 6 / 1-276

1988~89.4월 중 시행된 WHO(세계보건기구) 협력사업에 관한 내용임.

1. 청년보건 워크숍 개최

- WHO는 1988.12.5.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주관으로 워크숍 개최를 제의하는 서한 송부

2. 보건체계연구 협력센터 지정

- WHO는 1988.12.7. 연세대 인구보건서비스연구소를 협력센터로 지정을 제의하는 서한 송부
- 보건사회부는 1989.3.22. 이에 대해 동의 표시

3. 나병통제훈련과정 참가

- 과기처는 1989.1.9. 대한나관리협회 진료부장을 추천

4. 연구협력센터 재지정

- 과기처는 1989.1.13. 가톨릭 의대 임상의학연구소에 대해 4년간 바이러스성 간염연구분야 협력센터 재지정에 동의

5. 보건서비스개발 과정 참가

- 과기처는 1989.1.14. 보건사회부 직원을 추천

6. 보건인적자원지원 세미나 참가

- 과기처는 1989.1.17. 연세대 의대 교수 등 2인의 참가를 추천

7. 보건서비스발전 워크숍 개최

- 기간 및 장소: 1989.2.6.~22, 인도네시아 욱야카르타
- WHO는 1인의 전문가 참가 지원

8. WHO 보건인력개발 세미나

- 기간 및 장소: 1989.3.6.~10., 태국 방콕
- 외무부는 1988.12.29. 2명의 전문가 추천을 보사부에 요청



9. 농촌 상수도 공급 및 위생현황 견학 외국인 방한 훈련

- 보건사회부는 1989.3.17. 훈련생 4명의 5월 방한에 동의
- 과기처는 1989.3.20. 4명의 후보자 추천

11. 1989~90 설사질병 통제관리자 워크숍 참가

- 과기처는 1989.3.21. 보사부 방역과 의사를 추천

12. WHO 심혈관 질환 및 당뇨병 역학관리 워크숍과정 참가

- 과기처는 1989.4.13. 경북대 의대 전임강사를 추천

WHO(세계보건기구) 협력사업 - 세미나·워크숍·훈련과정 참가자 추천. 전2권 (V.2 1989.6-12)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8 / 7 / 1-222

1989년 6~12월 중 시행된 WHO(세계보건기구) 협력사업에 관한 내용임.

1. WHO 워크숍 참가 및 주최

- 생의학정보 프로그램 워크숍(1989.11.6.~10., 마닐라)
 - 보건사회부는 참가자 추천
- 정신건강 워크숍(1989.10.2.~6., 마닐라)
 - 보건사회부는 참가자 추천
- 콘돔활용 워크숍(1989.12.7.~12.)
 - 보건사회부는 WHO와 공동 주최에 동의

2. 자문관 추천

- 보건연구자문관 임명 동의
 - 김모임 대한간호협회장을 1989~90년간 자문관 임명 동의
- 국제표준 침술용어회의 임시자문관 파견 동의
 - 1989.10.30.~11.3. 제네바 개최 회의에 강성길 경희대학교 부교수 파견 동의
- 면역확대 사업회의 임시자문관 지명
 - 1989.10.16.~20. 도쿄 개최 자문관회의에 국립보건원 과장을 파견
- 폐질증 예방 조기진단 자문관 지명
 - 1989.11.1.~3. 제네바 개최 회의에 가톨릭 의대 교수 3인 파견

3. 보건과정 한국 개최

- WHO 기생충과정 훈련생 방한
 - 1989.10.23.~27. 인도네시아 훈련생의 과정 참가
- 위생공학 훈련생 방한
 - 1989.9.25.~10.6. 네팔 훈련생의 과정 참가

4. 기타 WHO 협력사업

- WHO 금연사업 정보자료 전담자 지정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총무국장을 전담자로 추천
- WHO 협력센터 지정
 -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가 녹십자 목암생명공학연구소를 백신 및 진단시약연구개발 협력 센터로 제의한데 대해 보건사회부가 동의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42차. Geneva(스위스), 1989.5.8.-19. 전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8 / 8 / 1-148

정부는 1989.5.8.~19.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2차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 문태준 보건사회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보건의료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강화
- WHO 회원국과의 보건분야 상호협력방안 협의 및 최신정보 및 자료수집

2. 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

- 국가 간 경제수준의 차이로 인한 인류보건 수준 향상의 제약, AIDS 등 새로운 질병의 확산, 마약 및 환경오염 등 보건 분야의 문제점 지적
-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소개 및 협력의사 표명

3. 총회 결과

- B 위원회 채택 1988년도 임시재정보고 등 예산관계 결의안 8개 및 팔레스타인주민 보건결의안 등 5개 결의안 채택
- A 위원회 채택 담배 및 건강 관련 결의안 및 마약 등 결의안 채택
- 집행이사국 선출
 - 운영위원회 추천 11개국을 컨센서스로 선출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42차. Geneva(스위스), 1989.5.8.-19. 전2권 (V.2 팔레스타인 가입문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8 / 9 / 1-152

팔레스타인의 WHO(세계보건기구) 가입문제에 관한 내용임.

1. 팔레스타인의 WHO 가입신청 배경 및 경위

- 1988.11.15. PNC(팔레스타인민족회의)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엔결의를 수락하고 팔레스타인국가 창설을 선언
- 1988.12.15.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관련 결의안 통과
- 1989.4.10. 팔레스타인은 WHO에 정회원으로 가입 신청

724

2. 팔레스타인 가입 관련 미국 및 EC 입장

- 베이커 미 국무장관 성명 발표
 - 1989.5.1. 미국은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WHO 또는 여타 유엔기구 가입을 강력히 반대
- EC 입장(주제네바 스페인대표부의 WHO 사무총장 앞 공한)
 - WHO 현장 상 국가에 한해 WHO 정회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정에 유의
 - 12개 EC국가는 PLO 또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불인정

3. 제42차 WHO 총회 시 팔레스타인 가입문제 논의

- 서방측은 1989.5.9. 논의 일정을 5.10.로 연기 추진
 - 아랍 측은 토의 연기안에 반대 표명, 가입 결의안 초안을 회람
- 토의 연기안과 아랍 측의 팔레스타인 가입안이 5.10. 사무국에 제출
- 25개국의 의제위원회는 WHO에서의 가입신청 토의를 권고하기로 함의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회의, 제40차. Manila(필리핀), 1989.9.19.-25.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인권사회과
MF번호	2019-48 / 10 / 1-288

정부는 1989.9.19.~25.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40차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회의에 조병륜 보건사회부 보건국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영유아 영양, 보건연구개발, 보건정보체계, 보건기획 및 재정관리
- 열대병 특별사업, 인간생식 연구개발 등

2. 한국의 차기 WHO 총회 부의장국 추천

- 한국대표단은 부의장국 출마의사를 문서로 각국 대표에 배포, 교섭활동을 전개함.
- 1989.9.21. 비공식협의회에서 한국이 1990년도 WHO 총회 부의장국으로 추천됨.

WHO(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분류 개정회의, 제10차. Geneva(스위스), 1989.9.26.-10.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8 / 11 / 1-121

정부는 1989.9.26.~10.2,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0차 WHO(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분류 개정회의에 김일현 경제기획원 인구통계과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회의 참가자

- 48개국 및 관련 국제기구

2. 토의 및 합의사항

- 제9차 회의 시 채택된 17개 질병군을 토대로 WHO 주관 전문가 회의를 거쳐 보완된 21개 질병군에 대한 질병의 세부분류, 질병분류기호 개선, 회의 결과의 적용확산 등에 관해 토의
- 채택된 최종 보고서는 제43차 WHO 총회에서 승인, 시행될 예정

ILO(국제노동기구) 한국가입 검토

생산연도 1987-1989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8 / 12 / 1-64

ILO(국제노동기구) 가입추진 검토 관련 내용임.

1. ILO가입 신청문제 검토(1987.4.7.,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 회원국 및 총회대표단의 구성
- 유엔 비회원국의 가입요건
- 아국의 가입여건
- 득표 가능성 분석
- 결론 및 대책
 - 현시점에서 출석대표의 76% 지지가 난망시되므로 서울올림픽 개최 등 국력신장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추진

2. ILO 가입추진 검토(1988.5월,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 총회대표단 구성, ILO 가입요건,
- 가입추진 필요성, 가입추진 현황
- 가입추진 대책
 - 서울올림픽 개최 후 1989년 제76차 총회 시 가입신청 제출방안 적극검토

3. ILO 가입 검토(1988.7월, 노동부)

- 가입의 이해득실
- 가입절차 및 여건
- 가입상의 장애요인
- 가입추진 전략
- 결론
 - 올림픽 개최 후 국력신장 및 대공산권 관계개선으로 가입여건의 성숙이 예상되므로 재외공관을 통한 ILO 회원국의 지지 여부 점검 및 가입추진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추진. 전6권 (V.1 기본 문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8 / 13 / 1-313

한국의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ILO 가입추진 경위

- 1989.1.26. ILO 조기 가입방침 재가
- 1989.2.14. 주제네바대사에게 방침 통보
- 1989.3.22. 재외공관에 방침 통보 및 회원국 정·노·사 대표에 대한 교섭지침 시달
- 1989.3.27. 지지 요청 각서 및 참고자료를 재외공관에 송부

728

2. ILO 및 관련 국제기구 사무국의 지원확보 교섭 및 반응

- ILO 사무총장
 - 적극 협조 약속
- ICFTU(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 97개 회원국 노조대표에 지지 권유 약속

3. 회원국 지지교섭 경과

- 1989.6.3. 현재 약 350표 정도의 지지 확보 예상
 - 안정선인 380표에는 미달 상황

4. 가입추진 보류

- 주제네바대표부는 1989.6.5. ILO 사무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및 기타 지역별 조정국 대표부에 1989년도 ILO 총회 가입신청 보류 및 내년도 가입추진 방침을 구두로 통보
- 12.27. 국내 관계부처회의에서 1990년도 가입 추진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추진. 전6권 (V.2 가입지지교섭(미주))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9 / 1 / 1-221

1989년 중 한국의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추진 시 미주지역 회원국(정·노·사) 대상 지지 교섭 현황임.

1. 정부

- 멕시코: 5.4. 노동부대표 Gasion Nouelo 고문은 지지 결정 통보
- 벨리즈: 5.19. 주멕시코 벨리즈대사관은 지지 결정 통보
- 에콰도르: 5.10. Eduardo Borja 노동부 국제국장은 지지 입장 확인
- 칠레: 5.8. 주제네바대표부는 지지 공한 송부
- 미국: 지지
- 트리니다드토바고: 6.2. Illes 외무차관은 지지 언급
- 그레나다: 5.22. Modeste 외무차관은 지지 확정
- 캐나다: Svoboda 외무부 유엔국제기구과장은 지지
- 아르헨티나: 4.19. 외무부는 지지 언급
- 콜롬비아: 5.2. Ferero 노동장관은 지지 확약
- 바베이도스: 5.8. Simmons 노동장관은 정부 및 노사대표의 지지 언급
- 안티구아: 5.10. Challenger 외무차관은 정부 및 노사대표의 지지 언급
- 과테말라: 4.20. Maldonado 노동장관 및 Palencia 외무장관은 지지 언급 등

2. 노동자

- 멕시코: 5.9. Alfonso Madariaga 노조대표는 지지 언급
- 에콰도르: 5.30. German Barragan 노동자단체 중앙연합회장은 지지 약속
- 칠레: 5.30. Lamberto Perez 및 Guillermo Medina 노동자대표는 지지 약속
- 콜롬비아: 5.9. Jorge Rojas 노조위원장은 지지 확약
- 과테말라: 4.21. Alfonso Miganjos 노조총연맹 사무총장은 지지에 문제 없음을 언급 등

3. 사용자

- 멕시코: Jorge Regil 사용자대표는 지지 결정 통보
- 에콰도르: 5.30. Sigirido Velez 건설협회 회장은 지지 언급
- 칠레: 5.29. Cristo Balvaldes 사용자대표는 지지 언급
- 아르헨티나: 4.27. Rioja 사용자대표는 전폭 지지 언급
- 콜롬비아: Fabio Echevelri 사용자대표는 지지 언급
- 과테말라: 4.21. Pola CACIF 사무총장은 지지에 문제없음을 언급 등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추진. 전6권 (V.3 가입지지교섭(아주/중동))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9 / 2 / 1-184

1989년 중 한국의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추진 시 아주 및 중동지역 회원국(정·노·사) 대상 지지 교섭 현황임.

1. 아주지역

- 일본: 4.28. 엔도 외무성 국제연합국장은 지지 입장 및 유리한 분위기 조성으로 측면 지원
- 필리핀: 외무부 유엔 및 국제기구 부국장은 노동부에 지지 입장 통보 및 노사대표는 정부 입장 추종 관례
- 뉴질랜드: 5.11.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은 가입지지 공한 송부(사용자: 5.10. 단체장의 지지 공한 송부)
- 말레이시아: 지지 약속(노동자: Rampak 노조위원장은 지지 약속)
- 버마: U. Aye 외무부 국기과장은 지지 결정
- 네팔: 4.25. 외무부는 공한으로 지지 통보
- 파키스탄: 5.25. 후세인 외무부 유엔국장은 지지에 별문제 없음.
- 스리랑카: Dias 노동부차관은 가입 지지(노동자: Perera 노조위원장은 지지/사용자: De Silva 사용자협회 사무총장은 지지)
- 호주: 지지 통보(노동자: 4.20. 연방노조는 지지 결정 통보/사용자: 대표는 지지 결정 통보)
- 파푸아뉴기니: 지지(노동자: Titimur 노조사무총장은 지지 재확인/사용자: Daruba 사용자대표는 지지)
- 인도네시아: Cosmas 노동장관은 지지 예정(노동자: Sudrawo 노조위원장은 지지 약속/사용자: Ratta 사용자협의회장은 지지 약속)
- 인도: Raghavar 외무부 국제기구담당관은 지지 예정(노동자: Gopeshwar 노조사무총장은 지지 예정/사용자: Pande 사용자협의회 사무총장은 지지) 등

2. 중동지역

- 바레인: Al-Mahloos 외무부 정무국장은 가입 문제 없으며 정부 및 노사대표의 의견일치를 강조
- 요르단: Bdour 노동장관은 적극 지지(노동자: Khormah 노조 사무차장은 지지 예정/사용자: Dajani 대표는 지지)
- 사우디아라비아: Attar 외무부 국기국 담당관은 지지 결정
- 이란: Honseini 외무부 유엔전문기구 부국장은 가입 문제 없음
- 카타르: 4.8. Al-Ansari 노동사회장관의 가입 지지 서한 접수
- UAE: Al-Jumeiru 노동부차관은 가입 지지 약속
- 쿠웨이트: Hucsein 사회노동부 차관보는 가입 지지 결정 등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추진. 전6권 (V.4 가입지지교섭(구주/미수교국))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9 / 3 / 1-208

1989년 중 한국의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추진 시 구주 및 미수교 회원국(정·노·사) 대상 지지 교섭 현황임.

1. 구주지역

- 오스트리아: 5.24. Martinek 노동사회부 노동입법국장은 지지(노동자: 원칙적으로 환영/사용자: 지지)
- 영국: 4.21. Brenton 외무부 유엔과장은 지지(노동자: ICFTU 입장 추종/사용자: 지지)
- 독일: 5.29. 주제네바대표부는 지지 공한 송부(노동자: 지지/사용자: 지지 약속)
- 핀란드: 5.12. Hamala 외무부 담당관은 서구권의 입장 결정 영향(노동자: 노르딕 ILO위원회 협의/사용자: 한국의 가입 희망)
- 스위스: 지지(노동자: 지지/사용자: 지지)
- 포르투갈: 4.26. 외무부는 지지 공한 송부(노동자: 지지 노력/사용자: 지지 의사)
- 터키: 4.20. 주제네바대표부는 지지 공한 송부
- 프랑스: 4.25. Cartier 노동부 국제국장은 가입 실현을 위한 협조(사용자: 가입 협조)
- 벨기에: 5.26. Soenem 노동부 행정국장은 지지(노동자: 긍정적 입장/사용자: 지지 재확약)
- 스페인: 5.4. Cabrera 외무부 국제기구국장은 지지(노동자: 지지/사용자: 지지 입장 결정 불변)
- 노르웨이: 5.8. 외무부는 지지 통보(노동자: 지지/사용자: 지지 예정)
- 아이슬란드: 주노르웨이대사관은 지지 통보
- 아일랜드: 5.2. 외무부는 지지 통보(노동자: 지지/사용자: 지지 문제없음) 등

2. 미수교국

- 유고슬라비아: 5.3. 주유엔 유고대표부 공사는 지지 건의 계획
- 베냉: 5.5. 주유엔 베냉대사는 본부 보고 예정
- 폴란드: 5.8. 주제네바 폴란드공사는 본부 보고, 협조제공 예정
- 토고: 5.10. 주영국 토고참사관은 본부에 적극건의 예정
- 레바논: 5.18. 주제네바 레바논대표부 담당관은 지지 건의 계획
- 사이프러스: 5.18. 주제네바 사이프러스대표부 담당관은 지지 건의 계획
- 기타 동구권 및 미수교국: 주제네바 일본대표부를 통해 반응(검토, 협의, 입장이해 등)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추진. 전6권 (V.5 가입지지교섭(아프리카))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9 / 4 / 1-210

1989년 중 한국의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추진 시 아프리카지역 회원국(정·노·사) 대상 지지교섭 현황임.

1. 정부

- 케냐: 3.30. Kasina 외무부 정무차관보는 문서 접수시 담당부서에 협조약속
- 보츠와나: 3.30. Chiepe 외무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 긍정적 조치 예정
- 카메룬: 4.3. Booh 외무장관은 지지 의사
-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4.5. Mvilakani 외무장관 수석보좌관은 지지에 문제없음.
- 코트디부아르: 4.7. Essigan 노동부 노동국장은 지지에 문제없음.
- 나이지리아: 5.30. Olumide 노동차관은 지지
- 이집트: 4.4. Moussa 외무부 국기국장은 지지 확신
- 가나: 5.2. Asamoah 외무장관은 지지 문제없음.
- 니제르: 4.11. Madougou 총무노동직업부장관은 지지 약속
- 모로코: 4.12. Berrada 외무부 국기과장은 지지 재확인
- 말라위: 4.7. Hanjahanja 외무부 의전장은 지지 입장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4.14. Ngregai 외무부 국기국장은 지지 문제없음.
- 수단: 4.12. Brido 외무부 국기국장은 적극 지지 검토
- 소말리아: 4.15. Garaad 외무부 국기국장은 호의적 검토
- 모리셔스: Bappoo 노동장관은 지지 문제없음.
- 에티오피아: 5.2. Adugna 노동장관은 가능한 노력 경주
- 라이베리아: 5.11. 외무부 지지 공한 송부
- 세네갈: 5.25. Reffella 외무부 정무경제문화국장은 호의적 검토

2. 노동자 및 사용자

- 카메룬: 노동자 측의 지지 확약
- 코트디부아르: 노동자 측의 지지 약속
- 나이지리아: 노사대표는 정부의 결정 추종
- 세네갈: 지지 약속
- 모리셔스: 노동자 측의 지지 약속/사용자 측의 지지 약속
- 차드: 노조위원장 및 사용자조합은 가입 지지 공한을 노동장관에게 송부

ILO(국제노동기구) 가입 추진. 전6권 (V.6 참고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9 / 5 / 1-111

1989년 중 ILO(국제노동기구) 가입추진과 관련된 참고자료임.

1. ILO 가입추진(3월)

- ILO 가입검토, 가입 추진 계획안, 개황, 한국의 노동조건 현황
- 한국의 노동 분야 대외기술협력 현황
- ILO 회원국 현황
- ILO 총회 참가국 현황

2. ILO 가입추진(5월)

- ILO 조기 가입추진
- ILO 가입추진 현황
- 가입신청서 제출 검토

3. ILO 가입추진 관련 참고자료(5월)

- ILO 가입절차
- 국제노동기구 개황
- 한국의 노동조건 현황

4. ILO 가입추진 검토(11월)

- 가입추진의 득실
- 가입추진 여건
- 검토의견

5. ILO 가입추진 계획(12월)

- 추진전략
- 추진일정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제76차. Geneva(스위스), 1989.6.7.-28.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9 / 6 / 1-380

정부는 1989.6.7.~28.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6차 ILO(국제노동기구) 총회에 장영철 노동부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140개국

2. 회의 의제

- 집행이사회와 사무총장 보고
- 사업, 예산제안 및 기타 재정문제
- 토착민과 부족민에 대한 조약 일부개정
- 야간근로,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상의 안전문제 등

3. 회의 내용

- 본회의
 - 각국 정·노·사 대표 기조연설, 토착민 및 부족민조약 개정안 채택 등
- 아주지역 그룹회의
 - 아주지역의 기술협력, 현장개정, 차기 아태지역 노동장관회의 개최지 문제 등 토의
- 주요 행사
 - ILO 창설 70주년 기념행사
 - Blanchard 전 ILO 사무총장 고별행사

4. 한국대표단 활동

- 수석대표 기조연설
 - 한국의 근로자 권익신장 등 소개
 - 경제사회발전과정상의 기술 및 경험공유 용의표명
- Hansenne ILO 사무총장 면담
- 아태지역 노동장관 초청 오찬회 개최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장관회의의 존속실효성 검토를 위한 ILO(국제노동기구) 아주그룹 회의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9 / 7 / 1-91

1988~89년 중 CAPLM(아시아·태평양지역노동장관회의) 존속실효성 검토를 위한 ILO(국제노동기구) 아주그룹 회의에 관한 내용임.

1. 1988년도 회의

- 10.27. ILO 아주그룹 회의
 - CAPLM의 필요성 추가토의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 결정
- 11.1. 실무회의
 - 노동장관회의의 실효성, 재정 및 조직 등 관련 본국의 의견조회 후 재협의
- 11.15. ILO 아주그룹 회의
 - 호주, 말레이시아 등이 의견 개진
- 12.13. 실무회의
 -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외 11개국의 긍정적 답변서 접수

2. 1989년도 회의

- 1.19. 비공식 회의
 - 16개국의 답변서를 기초로 한 보고서 초안 논의
- 1.26. 아주그룹 회의
 - 대다수의 답변서는 CAPLM의 유효성 인정 및 존속 희망
- 2.3. 아주그룹 회의
 - CAPLM의 유용성 인정 및 존속 희망하는 평가보고서 채택
- 10.5. 아주그룹 회의
 - 1991년 아시아지역 회의 의제 준비 및 차기 아태지역 노동장관회의 개최지 문제 협의
- 12.12. 아주그룹 회의
 - CAPLM 개최지 의견교환

UPU(만국우편연합) 집행이사회. Bern(스위스), 1989.4.10.-28.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9 / 8 / 1-145

정부는 1989.4.10.~28. 스위스 베른에서 개최된 UPU(만국우편연합) 집행이사회에 이형우 체신부 국제우편과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참가 목적

- 한국이 차기 총회 유치 및 집행이사회 진출 지원

2. 정부 훈령

- 한국의 이사국 진출 활동에 대비하기 위해 이사회 활동 면밀히 파악
- 연합운영에 대한 이사회 권고안 파악
- UNDP(유엔개발계획) 지원 및 UPU 특별기금에 의한 UPU 기술협력 시행내용과 평가내용 파악

3. 주요 토의내용

- 총 122개 안건을 10개 분과위원회별 토의 후 5일간 전체회의에서 승인
- 국제사무국 인사 및 재정에 관한 사항
- 집행이사회 이사국 선출시 지리적 배분
- 국제우편규칙 합법성, 유보설정문제
- UPU의 1986년 비엔나조약 가입결정문제

4. 정부대표단은 한국의 차기 UPU 총회 유치 및 집행이사국 진출 지원과 관련하여 UPU 고위 인사를 면담한바, 각 인사의 주요 언급요지는 아래와 같음.

- Barros 사무총장
 - 한국의 총회 유치 계획이 알려져 스웨덴이 유치 계획을 자진 취소함.
 - 한국은 집행이사국으로 충분히 당선 가능할 것임.
- Koller 집행이사회 의장(독일)
 - 한국의 UPU 총회 유치 계획을 환영하고, 1984년 총회 개최국인 독일(서독) 우정청은 자문에 적극 응할 예정임.
- Ciceron 사무차장
 - 한국의 집행이사회 진출은 제21차 총회 유치 후보국으로서 당연한 것이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 Ascandoni 사무차장보
 - 제21차 총회 유치계획과 집행이사국 진출 계획은 가능한 빨리 의사표명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아·태 한정연합 소수국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할 것임.

WARC(세계무선주관청회의) 최종의정서 승인 검토

생산연도 1982-198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9-49 / 9 / 1-33

1982~89년 중 WARC(세계무선주관청회의) 관련 의정서 국내 승인 내용임.

1. 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 최종의정서 승인(1984.5월)
2. 지구정지궤도 위성통신 및 위성방송에 관한 제1차 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 최종의정서 승인 (1986.9월)
3. 단파방송 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 최종의정서 승인(1988.7월)
4. 이동업무에 관한 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 1987년 회의 최종의정서 검토(1989.2월)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관리이사회 특별회의, Geneva(스위스), 1989.11.6.-10.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49 / 10 / 1-41

정부는 1989.11.6.~10.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관리이사회 특별회의에 박성득 체신부 통신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 ITU 조직 및 기능 검토를 위한 고위급위원회 구성에 정부입장 반영
- 전기통신개발국 설치에 비용을 억제하고 기존 조직을 가능한 활용한다는 기본인식으로 대처

738

2. 회의 결과

- ITU 조직 및 기능검토를 위한 HLC(고위급위원회) 구성
 - 고위위원회 21개 위원국 선정
- 전기통신개발국 설립에 따라 총 11명 직원 증원
- 제45차 관리이사회를 1990.6월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정지위성궤도 이용에 관한 제2차 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 (WARC-ORB-2). Geneva(스위스), 1988.8.29.-10.5.

생산연도	1988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9 / 11 / 1-189

정부는 1988.8.29.~10.5.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주최 제2차 세계무선통신주관청회의에 허필국 체신부 전파관리국장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고원상 체신부 전파관리국 방송과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회의명: 정지위성궤도의 이용에 관한 세계무선주관청회의(WARC-ORB-II)

2. 정부 훈령

- 정지위성업무계획 관련, 한국이 제출한 시험점, 사용주파수대 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
- 방송위성업무계획 관련, 인접국가 간의 전파간섭을 배제 또는 극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기술기준 채택 및 무선통신규칙 개정 등에서는 한국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다수의견에 따를 것

3. 회의 결과

- 7개 분과위원회 및 본회의의 특별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업무계획, 방송위성 업무계획, 기술기준의 제정 및 무선통신규칙 개정 논의
- 각국 간 고정위성 업무용 정지위성 궤도와 주파수 분배 및 관련 절차 개정
- 방송위성 상향회선 주파수 분배 및 관련 절차 제정
- 다국가 간 위성 간섭 조정회의 신설
- 위성망 운용계획 및 사전 공표기간 확정 등 무선통신규칙 개정

화학무기에 관한 국제회의. Paris, 1989.1.7.-11. 전4권 (V.1 기본문서(1988.10-11))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9 / 12 / 1-116

1989.1.7.~11. 파리에서 개최된 화학무기에 관한 국제회의 대책 및 조치사항임.

1. 국제회의 개최 배경

- 1988.10.20. 제네바 군축회의 프랑스대표는 유엔총회 제1위 일반토의에서 프랑스의 회의 주최(1989.1월) 의사 발표
 - 1989.1.7.~11. 파리 개최 결정

740

2. 화학무기에 관한 국제회의 준비협의회

- 제1차 비공식협의회(1988.11.16., 유엔본부)
 - 회의 목적: 1925년 제네바의정서 재확인, 화학무기금지협정의 조기 체결 촉진 역할 등
 - 기타: CD(군축협상) 교섭 정치적 지원, 최종문서에 포함될 내용 등
- 제2차 및 3차 비공식협의회(1988.11.22.~23., 유엔본부)
 - 지원사항: 각국 대표단 4명의 숙박, 승용차 2대 지원 등
 - 협의사항: 회의의 정치적 성격, 최종선언문 형식 및 내용 등

화학무기에 관한 국제회의. Paris, 1989.1.7.-11. 전4권 (V.2 기본문서(1988.12))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9 / 13 / 1-233

1989.1.7.~11. 파리에서 개최되는 화학무기에 관한 국제회의 대책 및 조치사항임.

1. 화학무기 국제회의 준비회의(1988.12.16.~17., 제네바)

- 협의사항
 - 회의 일정 및 조직
 - 회의 의사규칙안
 - 최종선언안: 화학무기에 관한 1925년 의정서 재확인,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협상 중인 화학 무기협정안의 조기타결 촉진

2. 생화학무기의 전시사용금지 의정서 가입

- 국내절차
 - 1988.12.20. 국무회의 심의
- 가입서 기탁
 - 1988.12.29. 가입서를 프랑스 외무부에 전달

화학무기에 관한 국제회의. Paris, 1989.1.7.-11. 전4권 (V.3 양자회담 및 결과보고)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49 / 14 / 1-231

정부는 1989.1.7.~11. 파리에서 개최된 화학무기에 관한 국제회의에 최호중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성격
 - 화학무기금지를 위한 국제여론 조성
 - 화학무기금지에 관한 정치적 결단 표명 및 제네바 군축회의 측면 지원
- 참석 현황: 149개국(84개국 외무장관) 및 2개 국제기구

742

2. 한국대표단 참석 활동

- 회의 일정
 - 1.7. 개회식, 프랑스 대통령 주최 리셉션 및 프랑스 외무장관 주최 오찬 참석
 - 1.9. 기조연설
- 양자 외무장관 면담 일정
 - 1.7. 한·미국 및 한·헝가리 외무장관 회담
 - 1.8. 한·일본 및 한·뉴질랜드 외무장관 회담
 - 1.9. 한·프랑스, 한·이라크 및 한·유고슬라비아 외무장관회담
- 기조연설 주요 내용
 - 남북한의 화학무기 사용포기 공동선언 제의
 - 한국의 화학무기 불보유 정책 천명
 - 한반도 군축에 관한 입장 표명
 - 화학무기금지 등 국제적 군축 움직임 지지 표명

화학무기에 관한 국제회의. Paris, 1989.1.7.-11. 전4권 (V.4 자료)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50 / 01 / 1-249

화학무기에 관한 국제회의 참석 관련 자료임.

1. 외무장관 면담 자료

- 솔츠 미 국무장관,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외무장관 등
 - 인적사항, 말씀자료

2. 화학무기에 관한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외무부장관의 프랑스 방문자료(1989.1월)

- 방문 일정
- 면담 자료
- 회의 관련 자료
 - 회의개요, 일정, 의제, 최종선언문 요지 초안, 회의 의사규칙, 1925년 제네바의정서
- 기타
 - 구주지역 공관장 명단, 한국대표 기조연설문

3. 외무부장관 국제회의 참가 참고자료

- EC(구주공동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프랑스, 영국

유엔 제네바 군축 회의. Geneva

생산연도 1989

생산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50 / 2 / 1-206

정부는 1989년 중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에 이상옥 주제네바대표부대사를 옵서버대표로 파견함.

1. 회의개요

- 참가국
 - 40개 회원국, 한국 및 북한 등 옵서버 29개국 참가
 - 한국과 북한은 최초로 화학무기 및 포괄적 군축 계획 등 2개 특별위원회 참가
- 기간
 - 제1차회기: 1989.2.7.~4.27.
 - 제2차회기: 1989.6.13.~8.31.

2. 주요 토의내용

- 핵실험금지 등 핵군축 관련 사항(의제 1, 2, 3)
 - 핵심 핵군축 의제인 CTBT(핵실험전면금지조약) 체결 관련 서구그룹과 비동맹 중립그룹, 사회주의 그룹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구체적 성과는 미미
 - 비동맹 중립그룹 및 사회주의그룹은 CTBT 진전이 없는 것을 이유로 1963년 PTBT(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 적용범위를 지하 핵실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개정회의 개최를 주장
- 화학무기(의제 4)
 - 5개 주제별 실무소위(검증, 법적·정치적 문제, 협약운용, 기술적 사항, transition)를 구성하여 협약 초안 협상 강화
 - 협약적용대상 화학물질 3가지 분류와 검증에 따른 군사기밀 및 민간화학산업 첨단기술 보호방안 등 순수 기술적 사항 타결
 - 의무적 현장검증 문제, 집행위 구성 문제, 협약위반시 제재 문제 등은 타결점을 찾지 못함.
- 포괄적 군축계획(CPD, 의제 8)
 - 비핵지대, 평화지대 등 7개 Contact Group이 구성되어 CPD 초안을 심의하였으나, 유엔총회에 제출될 초안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함.

교토 유엔 군축회의. Kyoto, 1989.4.19.-2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50 / 3 / 1-165

정부는 1989.4.19.~22.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유엔과 일본 정부 공동 주최 군축회의에 박홍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옵서버대표로 파견함.

1. 회의개요

- 개최 배경
 - 다케시다 일본 수상의 제3차 유엔 군축 특별총회(1988.6월) 연설시 개최 제의
 - 일본 정부가 납부한 유엔기금으로 자원 조달
- 참석자
 - 유엔회원국 31개국 89명
 - 일본학자, 언론인 및 도쿄 주재 공관을 둔 비회원국 옵서버

2. 주요 회의결과

- 미국 및 소련은 NPT(핵무기비확산조약) 체제를 유지 또는 강화를 주장한데 반해 브라질, 인도 등 NPT 미가입국 및 비동맹권은 NPT가 핵보유 독점을 위한 차별적 조약이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
- 핵실험 금지에 대해서는 CTB(핵실험 전면금지) 문제에 중점을 두었으며, 동구권과 서구 일부 국가들은 지하핵실험 전면금지 또는 제한을 지지한바, 미국은 핵 억지력 보유를 위한 핵무기 유지를 위해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미국은 핵억지력에 의한 국제안보 유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인 반면, 소련 등 동구권과 서구 진보주의학자 등은 현재 핵 억지력에 의한 안보 유지는 위험하고 불안정하므로 새로운 체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함.

유엔 인권위원회, 제45차. Geneva, 1989.1.30.-3.10.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50 / 6 / 1-203

정부는 1989.1.30.~3.10.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5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상욱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옵서버)을 파견함.

1. 회의개요

- 참가국
 - 119개국 정부대표
- 참가목적
 - 인권보장문제에 대한 각국 입장과 국제적 동향 파악
 - 한국의 인권개선 상황 및 정부입장 설명
 - 일부 반한 인권단체의 한국 인권상황 거론 시 이에 대한 적극 대처

746

2. 주요 논의 내용

- 아랍 피점령지역, 루마니아, 쿠바, 이란·이라크, 남아공, 칠레 인권문제
- 유엔의 세계인권 증진방안
- 고문문제
- 국제인권규약 가입

3. 한국 인권문제 관련 사항

- 한국 인권문제를 거론한 정부대표는 없었으나, 민간 인권단체 '국제 펜 클럽'이 작가, 문인 구속문제를 간략히 거론함.
- 한국대표는 1988.8월 Kooijmans 유엔 인권고문문제 특별보좌관의 방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논평형식으로 한국의 민주화 발전조치를 설명함.

유엔인권위원회 사무국 공한. 전2권 (V.1 1988.12-89.4)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50 / 4 / 1-240

1988.12~89.4월 중 유엔인권위원회 사무국의 인권 관련 문의 및 이에 대한 한국 측의 답변 내용임.

1. Kooijmans 유엔인권위 고문문제 특별보고관은 1988.11.30.자 주제네바대사 앞 공한에서 한국 군대에서의 고문행위 주장이 접수되었음을 통보하고 동 주장의 사실여부 및 한국 정부의 조치내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함.
 - 국방부는 동 건이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과 관련된 것이며 수사과정에서 구타 및 고문행위는 없었다고 답변
2. 유엔사무총장은 1988.11.11.자 공한으로 유엔인권소위 결의(1974/7)에 의거, 각국 정부에 “구금 및 투옥중인 자의 인권”과 관련, 최근 1년간 진전사항을 문의함.
 -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및 형사보상법의 개정, 행형제도 및 불량수용시설의 개선 등 피구금자의 인권보장 개선사항에 관한 자료를 송부
3. 유엔인권사무국은 1988.12.16.자 외무부장관 앞 유엔사무총장 명의 공한에서 유엔인권소위 결의안 1988/27에 따라 화학무기 사용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이 있을 경우 통보하여 주기를 요청함.
 - 정부는 화학무기 사용금지에 관한 입장을 1989.1월 파리 개최 국제회의에서 개진할 것임을 통보
4. 유엔인권소위원회는 1989.1.20.자 서한을 통해 여성과 아동의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남아선호, 금기 및 미신 등의 전통적 관행 제거를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 및 의견을 문의함.
 - 보건사회부는 소자녀 가치관 정착을 위한 지원시책, 남녀차별 시정을 위한 제도개선 등 조치 사항을 통보
5. 유엔사무총장은 1989.3.3.자 공한을 통해 유엔인권위 산하 역류관련 실무위가 작성한 강제 또는 비자발적 실종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선언문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 법무부는 동 선언문 제1조에서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 내용에 관한 설명이 없으므로 정의를 보충하고 선언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지적

유엔인권위원회 사무국 공한. 전2권 (V.2 1989.5-1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50 / 5 / 1-295

1989.5~12월 중 유엔인권위원회 사무국의 인권 관련 문의 및 이에 대한 한국 측의 답변 내용임.

1. 유엔사무국은 1989.5.5.자 외무부장관 앞 유엔사무총장 명의 공한에서 유엔인권위 결의 1989/45 관련 “발전의 권리” 문제에 관한 정부의 의견을 문의함.
2. 유엔인권위원회는 1989.4.17.자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 의정서” 관련 정부 의견을 요청함.
 - 법무부는 사형제도의 효과적인 범죄예방수단으로서의 기능 및 다수 국가의 사형제도 존치 등을 감안, 사형제도의 폐지여부는 형벌제도, 국민의 법 감정 등에 기초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통보
3. 유엔인권사무국은 1989.5.9.자 유엔사무총장 명의 공한에서 인권위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전산화된 개인파일 사용 지침” 관련 정부의 의견을 요청함.
 - 법무부는 유엔 지침안이 개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으로 국내법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통보
4. 유엔인권사무국은 유엔인권위 결의 1989/40 관련 1989.5.12.자 공한에서 “정신질환을 구실로 구금되거나 또는 정신이상으로 고통을 받는 자의 보호를 위한 보장 및 원칙”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요청함.
 - 법무부는 정신질환자의 인간적 존엄성 및 권리의 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기초된 것으로 이견이 없다고 통보
5. Kooijman 유엔인권위 고문문제 특별보고관은 1989.6.23.자 주제네바대사 앞 공한에서 1988.8월 방한 보고서에 포함된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관련 정부가 취한 조치를 알려주기를 요청함.
 - 법무부는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인권보장규정 신설 등을 통보
6. 유엔사무국은 1989.6.26.자 공한에서 “아·태지역에서의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역협조” 결의 관련 정부의 견해를 요청함.
 - 법무부는 의견이 없음을 통보

유엔인권소위원회, 제41차, Geneva, 1989.8.7.-9.1.

생산연도 1989

생산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50 / 7 / 1-189

정부는 1989.8.7.~9.1.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1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이상욱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참석자

- 인권소위 위원 26명, 84개국 정부 옵서버, 7개 정부간 기구, 4개 민족해방운동기구, 86개 민간인권단체 등

2. 중점 토의사항

- 최대 관심사인 중국 사태를 비난하는 결의안 채택
- 지역별 인권문제로 남아공,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과테말라, 동티모르 등 인권위반 사태 거론
 - 일반문제로서 화학무기사용, 소수민족 및 토착민 인권문제 부각

3. 한국관련 사항

- 실무소위에 제출된 한국 관련 진정서는 없음.
- 인권단체인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or of World Peace는 한국 등 수개국의 민주화 진전을 평가
- 북한 대표 및 친북 2개 인권단체는 좌경인사 방북사건 및 박종철 사건 등 한국 인권상황을 비난

Kooijmans, Peter Hendrik 유엔 인권위원회 고문문제 특별보고관 방한, 1988.8.24.-29.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50 / 8 / 1-117

1. Peter Kooijmans 유엔인권위원회 고문문제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고문행위 근절조치에 대한 현지 관찰업무 수행 목적으로 1988.8.24.~29. 방한한바, 동 특별보고관의 방한일정은 아래와 같음.
 -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면담 및 만찬
 - 치안본부 수사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검찰청 형사2부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지정일 교수 면담
2. Kooijmans 특별보고관이 제45차 유엔인권위에 제출할 보고서 내용 중 방한결과 부분의 권고사항은 아래와 같음.
 - 구속자 인권침해 경찰관에 대한 처벌 강화
 - 48시간 이내 취조완료 및 10일 이내 구속여부결정 법률조항의 철저 이행
 - 공식적으로 인정된 장소에서만 취조행위 허가
 - 효율적인 인권상담실 운영을 위한 인력보강
 - 법집행 관리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 인권상담실에 대한 독립적 지위부여 또는 독립기구 설립
 - 유엔인권규약 및 고문방지협약 조기가입
3. 본 문서철에 동 방한 결과보고서(영문) 전문이 수록됨.

IDNDR(자연재해 축소를 위한 국제10년대) 사업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99 / 3 / 1-157

유엔 IDNDR(자연재해경감 국제10년대)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유엔 IDNDR 사업

- 경위
 - 1987.12월 제42차 유엔총회는 1990년대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국제10년대로 지정
 - 유엔 산하 7개 기구와 협조, 1990년부터 10년간 사업추진 계획
 - 1988.7월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 회원국 정부의 사업실천을 위한 국가위원회 구성을 요청
- 국가위원회 구성 및 대표 현황
 - 아프가니스탄(부수상), 중국(부수상), 아이슬란드(민방위청장), 일본(수상 자문위원), 수단(난민 구호청장관), 터키(공공사업 및 재해국장), 미국(기상학회장) 등으로 구성

2. 한국위원회 구성 및 통보

- 경위
 - 1988.8월 주유엔대표부가 동 사업계획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
 - 1989.7월 외무부가 건설부, 중앙기상대 등 관계부처와 참여문제 협의
- 관계부처 반응
 - 건설부: 별도의 국가위원회 설치 의사는 없으나 업무 협조는 가능
 - 중앙기상대: 기상문제에 관해서는 적극 참여 예정이나 종합적 재해예방 성격상 기상대가 주관하기는 어려움.
 - 내무부, 환경청: 사업 참여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주관부처가 아니라는 미온적 반응
- 검토 의견
 - 자연재해가 많은 한국입장에서 필요성은 있으나, 기존의 재해대책위원회 활용문제 등 제기
 - 건설부를 Focal Point로 지정하고 위원회 구성은 추후 추진
- 유엔 통보
 - 1989.12.28. 주유엔대표부 명의 공한으로 한국의 Focal Point를 통보

CIREFCA(중미난민국제회의). Guatemala(과테말라), 1989.5.29.-3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50 / 9 / 1-57

정부는 1989.5.29.~31. 과테말라에서 개최된 CIREFCA(중미난민국제회의)에 조기성 주과테말라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참가현황

- 아시아(9), 미주(23), 구주(18), 중동(5)
- 국제기구(15), 정부간 기구(6), 비정부간 기구 등

752

2. 회의 일정

- 5.29.
 - 개회식, 과테말라 외무장관 주최 리셉션, 제1차 회의, 과테말라 대통령 주최 리셉션
- 5.30.
 - 제2차 및 제3차 회의, UNHCR(유엔난민기구) 주최 리셉션
- 5.31.
 - 제4차 회의, 선언 및 행동계획안 채택, 폐회 선언

3. 회의 내용

- 기초연설에서 대체로 중미지역의 난민 및 실항민 발생배경, 문제의 심각성 및 국제사회의 동참 필요성을 지적
- 아프가니스탄이 자국 문제 관련 파키스탄을 비난하고, 니카라과는 콘트라 지원 관련 미국과 온두라스를 비난

4. 한국대표단 활동

- 회의 참가 외에 OAS(미주기구) 고문, UNDP(유엔개발계획) 라틴아메리카 국장, 쿠바대표 등 면담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 제33차. Vienna, 1989.3.29.-4.7.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50 / 10 / 1-191

정부는 1989.3.29.~4.7.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3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회의에 이태식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참가현황

- 32개 회원국, 16개 옵서버, 8개 유엔기구, 5개 정부간 기구, 30개 비정부간 기구 등

2. 회의 토의 내용

- 남녀에 대해 동등한 사회보장기간 적용 및 고용과 승진에서의 균등한 기회 제공
- 여성의 가정 및 사회적 역할의 동시 수행 지원책
- 전쟁 종식과 문맹 퇴치

3. 회의 결의 채택

- 유엔 및 유엔기구 관련 프로그램과 사업조정에 관한 토의
- 여성발전을 위한 나이로비 전략이행에 관한 모니터링

4. 대표단 평가 및 건의

- 5년 후 개최되는 제34차 회의의 중간평가 회의로서의 중요성을 감안, 여성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홍보할 필요
- 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국으로서 유보조항의 철회 검토 건의

가족관련 유엔 지역세미나 참가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50 / 11 / 1-85

1989.12.5.~15. 소련 알타에서 개최된 가족관련 유엔지역 세미나에 노미혜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연구실 수석연구원이 참가함.

1. 참가 경위

- 1985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 1985/29에 의거 동 세미나 개최 결정
- 비엔나 소재 유엔 CSDHA(사회개발 및 인권문제센터)가 1989.7.24. 외무부 앞 전문으로 한국전문가를 초청

754

2. 세미나 성격

- CSDHA 주관 정부간 가족관계 전문가 회의

3. 세미나 주요의제

- 가족의 형성, 지속 및 해산
- 가족의 구조
- 친척 네트워크 및 유대

유엔마약위원회 회의, 제33차. Vienna, 1989.2.6.-17.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50 / 12 / 1-115

정부는 1989.2.6.~17.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3차 유엔마약위원회 회의에 김종해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서기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마약위원회가 작성한 잠정의제 채택

2. 주요 토의사항

- 마약 남용 및 불법거래 상황 및 추세 관련 의견교환
- 각국은 마약 통제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남용 및 불법거래 상황의 악화를 우려
- 국제협력의 효과적인 전개 필요성 강조
- 유엔마약위원회는 대책수립을 위한 최신 정보의 정기적 제공을 회원국에 요청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관한 한·일본 대책회의, 제5차. 서울, 1989.2.14.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북아1과

MF번호 2019-50 / 14 / 1-155

제5차 한국·일본 간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관한 대책회의가 1989.2.14.~17. 서울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89.1.13. 다나카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은 제5차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에 관한 한·일본 대책회의를 1989.2.14.~17.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제의함.
- 1989.2월 외무부는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회의 개최에 동의함.

756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문봉주 외무부 동북아1과장
- 일본 측: 히토시 외무성 동북아과장

3. 의제

- 한·일본 양국 마약 및 암페타민류 문제의 현황과 대책
- 한·일본 양국간의 협력현황 및 추진 대책
- 기타 양국 관심사항
 - 마약 및 암페타민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정보교환
 - 마약중독자 치료에 관한 정보 교환 등
 - 도쿄세관 마약탐지견 훈련센터 위탁교육

지역간 마약법집행기관장 회의, 제2차. Vienna, 1989.9.11.-15.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50 / 13 / 1-133

정부는 1989.9.11.~15.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차 지역 간 마약법집행기관장 회의에 유창중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참가현황

- 100개국, 28개 단체

2. 회의 논의사항

- 국제협력, 국내적 대처방안 등 발전 상황
- 마약건 사용 등 단속 대책과 기법의 활용방안
- 지역교육센터 설립 등 전문요원 양성방안

3. 유엔 건의문 채택

- 마약건 사용 권장 및 지원
- 콜롬비아의 마약퇴치전쟁 지원
- 사법공조 및 국제협력 증진
- 마약류 원료의 유통통제와 정보교환 등

4. 한국대표단 활동

- 본회의 및 아시아그룹 회의 참석 계기, 한국 마약사범의 현황 및 대책 설명
- 유엔 마약과 간부 면담, 마약 관련 세미나 개최 등 지원

5. 한국대표단 건의사항

- 마약류 불법거래방지협약 비준 준비 필요
- 국제정보교환 등 국제협력 필요성 증대
- 국제공항만 감시체제 강화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행사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51 / 1 / 1-216

1. 유엔총회는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3.21.을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한국은 1977년 이래 외무부장관 명의 성명을 발표하고 1978년 이래 남아공 관련 기금에 대한 기여금을 제공함.
2. 1988.3.21.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 정부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및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 반대하는 외무부장관 성명서를 발표하고, 남부아프리카 관련 유엔기금에 총 2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서약함.

- 상기 성명서는 유엔 반아파르트헤이트 특별위원회 의장앞으로 전달

BIE(국제박람회기구) 한국가입 및 총회. 전2권 (V.1 1986.1-87.12)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19-84 / 1 / 1-191

한국의 BIE(국제박람회기구) 파리협약 가입과 제102차 BIE 총회 참가에 관한 내용임.

1. BIE 파리협약 가입

- 제101차 국제박람회기구 총회(1987.5.20.)에서 BIE 회장은 한국이 1987.5.19.자로 정식 회원국이 되었음을 보고

2. 정부는 1987.12.4.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02차 BIE 총회에 조일환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참가국
 - 48개 회원국 중 35개 회원국
- 평가 및 건의
 - 1995년경 세계박람회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금번 회의참석을 통해 BIE 규정과 분위기 파악
 - BIE 의사결정이 집행위 및 사전교섭에서 결정됨을 감안, 총회 및 집행위 참가와 사무국과의 지속적인 교섭 필요
 - 1992년 세비야 세계박람회 참석여부를 조속 결정할 것을 건의

BIE(국제박람회기구) 한국가입 및 총회. 전2권 (V.2 1988.1월-1989)

생산연도 1986-1989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19-84 / 2 / 1-279

1988년 중 제103~104차 BIE(국제박람회기구) 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됨.

1. 제103차 총회(1988.5.31.)

- 한국과 관련된 의제 및 특별사안은 없음.
- 세계박람회 1928년 Convention을 수정함.
 - 등록박람회와 승인박람회로 구분함.
 - 등록박람회 개최기간은 6주 이상 6개월 이내, 승인박람회는 3주 이상 3개월 이내로 함.

760

2. 제104차 총회(1988.12.14.)

- 참가국
 - 총 48개 회원국 중 35개국 참가
- 정부대표단
 - 노영욱 상공부 통상정책과장 등
- 회의 결과
 - 세계박람회 최소 개최기간을 3주에서 6주로 연장함.
 - 등록박람회는 5년 주기로, 승인박람회는 2개의 등록박람회 사이에 1회만 개최함.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 제15차. Paris, 1989.7.4.-1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51 / 2 / 1-232

정부는 1989.7.4.~19.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에 함태혁 주유네스코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훈령

- 위원회 활동 보고
- 해양역학 및 기상, 세계 해수 순환연구 등 국제적 연구계획에 참여
- 해양과학 활동 지원
- IOC 및 지역연구

2. 총회 결과

- 간사 선임 및 집행이사국 증가
 - 집행이사국을 29개국으로 1개국 증가
- IOC 활동보고
- 비생물 자연관련 해양학
- 해양역학 및 기상
- 해양오염 조사 및 감시
- 국제지질, 생물권 프로그램
- 국제해양 과학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CCOP(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 지질과학 훈련 조정관 진출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기구조

MF번호 2019-51 / 3 / 1-29

김상엽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자원탐사연구부장이 1989.7월 CCOP(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 지질과학훈련조정관에 선출됨.

1. CCOP 사무국으로부터 지질과학훈련조정관 후보 추천을 의뢰받은 외무부는 1989.1월 김상엽 박사를 추천함.

- 소속: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자원탐사연구부장(책임연구원)
- 전공: 지화학(영국 LEEDS 대학 박사학위 취득)

2. CCOP 측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39명의 응모자 중 4명의 예비후보를 선발

- 김상엽 후보는 2위로 예비후보에 포함됨.

3. 1989.6월 제13차 CCOP 조정위원회 선거에서 김상엽 박사가 최종 당선됨.

- 한국 정부는 CCOP 각 회원국 대표들에게 지원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함.
- CCOP 측은 김 박사를 2년 단위로 사무국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해 옴.

CCOP(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공동탐사조정위원회) 회의

생산연도	1989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51 / 4 / 1-167

1. 정부는 1989.6.7.~9.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13차 CCOP(아시아천해저광물자원 공동탐사 조정위원회) 회의에 임흥재 주태국대사관 1등서기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참가 목적
 - 한국의 해저광물자원 탐사와 관련된 활동 소개
 - 한국의 동남아 진출 확대에 따른 자원협력기구에서의 역할증대 방안 모색
- 훈령
 - 한국의 해저광물탐사 및 활동발표를 통해 한국의 발전상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각국의 기술발전 현황을 입수
 - 김상엽 한국 동력자원연구소 박사의 CCOP 훈련조정관 입후보과 관련 회원국에 지지 교섭 활동에 노력을 경주할 것
- 회의 결과
 - CCOP 지역훈련조정관에 김상엽 박사가 선출됨.
 - CCOP 절차규정 합의
 - 제27차 연례회의 및 제14차 조정위원회를 1989.10.24.~11.3. 태국 방콕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2. 정부는 1989.10.23.~11.3.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6차 CCOP 총회에 조규장 동력자원연구소 해외자원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회의 결과
 - 본회의에서 한국의 조규장 박사가 부의장에 선출
 - 한·일본 공동개발구역의 제7광구에 대한 연구결과 요약보고 및 제6광구 석유탐사 활동보고
 - 부산-울산 외해지역에 대한 연근해저 물리탐사 결과 보고
 - 제4기 지질연구, 항공자력도 작성 프로그램, 연안지역 자원관리, 환경문제, 훈련계획 등 의제에 따른 한국의 입장 발표
 - 해양물리탐사, 항공탐사 및 제4기 지질 등의 각종 활동보고로 한국의 연구활동 부상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북한 지원사업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51 / 5 / 1-39

1988~89년도 중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북한 지원사업 내용임.

1. 평양-함흥 간 광통신 케이블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ITU가 동 구간의 광통신 시험운영을 위한 기자재 및 광통신 케이블 운영을 위한 기술훈련을 제공하여 북한의 전기·통신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협의됨.
 - UNDP(유엔개발계획) 자금 약40만 달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ITU 사무총장이 1987.5월 평양 방문 시 거론한 이래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북한 측이 연기를 요청하여 중단됨.
2. 북한은 평양 소재 김책대학 부설 전기통신훈련소 현대화를 위한 ITU 지원문제 협의를 ITU 측에 요청함.

APPU(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 집행이사회. Male(몰디브), 1988.9.13.-19.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51 / 7 / 1-190

정부는 1988년 중 몰디브 말리에서 개최된 APPTC(아시아·태평양우정연주소) 관리이사회(1988.9.11.~12.)와 APPU(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 집행이사회(1988.9.13.~19.)에 주이백 체신부 국제우편과 사무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회의 일정
 - APPTC 관리이사회(1988.9.11.~12.): 이사국 11개국 대표 참석
 - APPU 집행이사회(1988.9.13.~19.): 회원국 18개국 대표, 옵서버 2개국 대표 및 국제기구 4개 대표 참석
- 토의 내용
 - 관리이사회에서는 교수부장 선거, 직원 복지 향상문제, 1989년도 훈련과정 편성 등 토의
 - 집행이사회에서는 1989년도 예산을 의결하고 중앙사무국장을 선임하였으며, 업무의 실질적 개선, 아·태 우정정보센타 건립, 국제특급우편 등에 관해 토의

2. 정부대표단 훈령

- APPTC 교수부장 선출은 인도네시아 후보 지지
- 예산/결산안 승인
- 중앙사무국장 선출은 필리핀 후보 지지
- 우정정보센타 건립 지지
- 도착국료 산정은 정당한 원가보상선에서 도착국료를 결정하도록 주장

3. 한국 정부의 APPTC 기증

- 한국 정부는 1988.5월 APPTC에 PC 15대와 에어컨 2대를 제공(30,000달러 상당)
 - 1986년 APPU 집행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에 지원요청

APPU(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 집행이사회. Manila(필리핀), 1989.8.10.-15.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51 / 8 / 1-63

정부는 1989년 중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APPTC(아시아·태평양우정연수소) 관리이사회(1989.8.8.~9.)와 APPU(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 집행이사회(1989.8.10.~15.)에 허필국 체신부 우정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APPTC 관리이사회 의제
 - 88/89 연수소 업무활동 보고
 - 90년도 연수과정 편성 및 정원 배정
 - 교직원 선임 및 임명 승인
 - 연수소 교육훈련 계획
- APPU 집행이사회 의제
 - 중앙사무국 규칙 개정
 - UPU(만국우편연합) 총회에 참석할 APPU 옵서버 지정
 - 88년도 결산 및 89년도 예산심의 및 승인
 - APPTC 업무활동 보고
 - UPU 총회 대비한 별도회의 개최

2. 한국 대표단

- 훈령
 - APPTC 회의에서 선출할 연수소장에 대하여 태국 후보를 지지, 1990년도 훈련과정 편성에 한국의 요구가 반영될 경우 찬성, 연수소 재정에 오류가 없을 경우 승인 등
 - APPU 회의에서 제21차 UPU 총회 유치활동을 전개, AAPU-EC 이사국 진출 교섭, 결산 및 예산안 승인
- 수석대표는 서면과 연설을 통하여 제21차 UPU 총회 유치와 UPU-EC(구주공동체) 진출 의사를 표명

3. 회의 결과

- APPTC 관리이사회
 - 연차활동 보고, 1990년도 훈련과정 편성 및 정원 배정, 1990년도 예산안 승인, 연수소장 선임
- APPU 관리이사회
 - APPU 회원국의 UPU-EC 공동진출 대책논의, 예산 및 결산승인, 차기 총회 개최결정, UPU 총회에 대비하여 UPU-EC 제안사항, CCPS 제안사항 및 APPU 회원국 제안사항 검토

APPU(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 집행이사회. 서울, 1982.10.6.-14.

생산연도	1982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51 / 6 / 1-236

1982.10.6.~14. 서울에서 개최되는 APPU(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 집행이사회 개최준비 내용임.

1. 관계부처 대책회의

- 일시 및 장소
 - 1982.3.31., 체신부차관 회의실
- 참석범위
 - 외무부, 안기부, 치안본부, 관세청, 법무부, 교통부, 체신부, 서울시, 관광공사
- 토의사항
 - 각국대표단 초청절차
 - 공산권 회원국 참가문제
 - 각국대표단 신변보호
 - 출입국 관리
- 외무부 협조 사항
 - 공산권국가 참가 유도대책
 - 각국대표단 및 옵서버 초청을 위한 조치
 - 한국대표단 구성 및 활동대책
- APPU 개요
 - 1962년 창설(회원국 17개국)
 - 지역 내 국제협력 및 우편업무 발전 촉진
 - 기구: 총회(5년마다 개최), 집행이사회(매년 개최), 아시아·태평양 우정연수소(태국 방콕 소재), 중앙사무국(마닐라 소재)

2. 외무부 조치사항

- 초청장 발송(1982.7월)
 - 호주 등 18개 회원국과 피지 등 9개 옵서버국 및 국제기구에 초청공한을 발송
- 한국대표단 임명(9월)
 - 김용봉 체신부 우정국장 외 3명



3. 한국대표단 참가목적 및 주요의제

- 참가목적
 - 우정분야 국제협력증진 방안 검토
 - 우정연주소 운영 협의
- 주요의제
 - 우정분야 국제협력증진 방안
 - 각종 사업활동의 책정 및 검토
 - 우정연주소 운용에 관한 사항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특별총회, 제14차. Washington D.C., 1989.7.11.-13.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51 / 10 / 1-28

정부는 1989.7.11.~17.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4차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특별총회에 이종순 주미국대사관 통신협력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INTELSAT협정 제14조 D 및 E항의 별개위성의 사용 승인
- 별개 위성기구 협의 속결절차 결정 등

2. 한국대표단 훈령

- 이사회에 대한 보고내용 중 '중대한 경제적인 위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근거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요구할 것
- 사용 승인된 위성기구 중에 아시아지역에서 신청된 것에 대하여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입수할 것
- 별개위성기구 협의 속결절차는 미국 내 위성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음에 유의하여 승인요건 완화에는 유보적 입장을 취할 것
- 미국이 제의한 제3국의 별개위성 참여조건에 관하여는 반대할 것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서명자 회의, 제18-19차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국제연합과

MF번호 2019-51 / 9 / 1-230

1988~89년 중 제18차~19차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서명자 회의가 개최됨.

1. 제18차 회의(1988.4.18.~21., 호주 Hamilton Island)

- 회의 참가자
 - 75개국 대표 참석
 - 한국에서는 전기통신공사 국제계획국장이 참석
- 주요 토의내용
 - 기존 2개의 INTELSAT V-A 위성 외에 3개의 V-A 위성 및 5개의 VI 위성을 발사한다는 장기계획 수립
 - 이사국 진출 시 이사국 투자분담률을 1.54 퍼센트로 설정
 - 1988년도 지출 3억 달러, 한국의 투자분담률 1.32 퍼센트
 - 중국 및 수단의 국내통신 사용계획 승인
 - 별도위성기구 창설 및 해저 케이블에서의 광섬유 통신기술 응용 등으로 INTELSAT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저렴한 서비스 요금 등으로 경쟁력 제고
 - INTELSAT의 통신위성 독점에 대한 위협, 통신시장 현황, INTELSAT의 대응조치 등

2. 제19차 회의(1989.4.10.~13., 미국 Orlando) 개최 안내문이 수록됨.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총회, 제15차. Amsterdam(네덜란드), 1989.10.2.-5.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51 / 11 / 1-132

정부는 1989.10.2.~5.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제15차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총회에 이종순 주미국대사관 통신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의제
 - 법률전문가 패널위원 11명 선출
 - INTELSAT와의 사전협의 과정으로 별개위성기구가 제출한 회원국에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자료를 회원국이 검토
 - 협약 제14조D항 합의를 위한 기준안 추가(경제적 손실의 측정 항목에 잠정안 추가)
 - 협약 제14조의 권한을 긴급한 경우에 이사회와 사무국에 위임

2. 한국대표단 훈령

- 법률위원 선출은 본부에서 별도 지시한 프랑스 등 11개국 후보를 지지할 것
- 별개위성기구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인될 경우에 동의하되 다수국의 의견에 동참할 것
- 협약 제14조D항 합의를 위한 기준안 추가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인 연구사항들이 제시되면 여타국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동의할 것
- 협약 제14조 권한 위임에 대하여서는 다수국 의견에 동참할 것

3. 회의 결과

- 11개국 대표가 참석
- 법률전문가 패널위원 선출에 있어서 한국이 지지한 후보국 중에 브라질 및 칠레 후보가 투표에서 탈락
- 별개위성의 설치 및 사용 안건을 심의하여 이사회보고서를 승인
- INTELSAT의 장기전략 보고 안건 및 협약 제14조D항의 별개위성의 설치 승인기준에 대한 이사회 검토보고서를 토의하고 세부사항을 수정하여 채택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이사국 진출 검토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51 / 12 / 1-29

1987~89년 중 한국의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이사국 진출 추진에 관한 내용임.

1. 정부는 1987년 인도가 투자분담률 순위에 의하여 결정되는 INMARSAT 일반이사국에 한국이 인도,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입후보할 것을 제의하여 옴에 따라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함.
 - 정부는 3개국 투자분담률을 합산할 경우 핀란드와 스웨덴그룹을 초과하여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주영국대사관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측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인도네시아가 부정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무산됨.
2. 체신부는 1988.2.2. 외무부에 보낸 공문을 통하여 1987년 실패한 3개국 공동이사국 구성을 재추진하기 위한 외교적 지원을 요청함.
 - 체신부는 1989.2.25.에도 외무부에 한국의 이사국 진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인도와의 2개국 공동이사국 그룹 형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함.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회의, 제7차. Lisbon(포르투갈), 1989.10.31.-11.2.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51 / 14 / 1-314

정부는 1989.10.31.~11.2. 리스본에서 개최된 제7차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총회에 주철기 주포르투갈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의제
 - 지역별 이사국 개선
 - INMARSAT 협약 제14조1항 수정
 - 협약 제8조의 통고 및 조정절차의 신속화
 - INMARSAT의 특권 및 면책에 관한 의정서 비준 촉구
 - 협약 및 운영협정 개정안 추진
 - 영해 및 항구 내에서의 INMARSAT 선박지구국 사용에 관한 국제협정
 - 육상이동 위성통신 사용에 관한 국제법규 규정 및 정책 조사

2. 훈령

- 이사국 선출은 이라크, 라이베리아를 지지하고 여타국은 대표단 재량으로 투표할 것
- 미국이 발의한 협약 제8조의 통고 및 조정절차의 신속화는 미국의 별개위성기구업자들을 보호하고 그 처리를 신속화하려는 의도임을 고려하여 승인요건 완화에 유보적 입장을 취할 것
- INMARSAT 협약 및 운영협정 개정안에 대하여 아직 비준하지 않은 미국, 일본 등 우방국 입장 정보를 입수하여 한국 입장을 결정할 것
- 영해 및 항구 내에서의 INMARSAT 선박지구국 사용에 관한 국제협정에 관하여는 한국 영해 및 항구 내에서의 해안무선국을 통한 국제통신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입장을 유보할 것

3. 회의 결과

- 46개국 대표와 옵서버 1개국 대표, IMO(국제해사기구)와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대표 참석
- 제5차 총회 이후의 INMARSAT 활동에 관한 보고서 검토 및 채택
- 면책특권 의정서 비준 촉구
- 20개국이 비준한 영해 및 항구 내에서의 선박 지구국 사용에 관한 국제협정의 비준 촉구
- 육상이동 위성통신서비스 관련 법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INMARSAT 협약 제8조의 통고 및 조정절차 신속화 관련 경제적 손해에 관하여 구속력이 없는 권고형식으로 이사회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특별총회, 제6차. 런던, 1989.1.17.-19.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51 / 13 / 1-178

정부는 1989.1.17.~19. 런던에서 개최된 제6차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특별 총회에 한태규 주영국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회의 개요

- 의제
 - 육상이동 위성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INMARSAT 협약 및 운영 협정의 개정
 - INMARSAT와 타 국제기구 간 양해각서 승인에 관한 사항
 - 아랍과 아·태지역 위성통신기구와의 MOU 체결 등

774

2. 한국대표단 훈령

- 1988.6월 불가리아에서 개최된 전문가 회의에서 채택된 육상이동 통신서비스 제공 관련 INMARSAT 협약 및 운영협정 개정안에 동의할 것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협정에 동의
-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가급적 동의할 것
- 미국 정부의 별도 해사통신위성 사용에 관한 통고에 대하여는 다수결 의견에 동참할 것
- INMARSAT 협약 제8조의 통고 및 조정절차의 신속화에 관한 구체적 안이 제시될 경우에는 유보할 것

WTO(세계관광기구) 총회, 제8차. Paris, 1989.8.25.-9.2. 전2권 (V.1 사전준비)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51 / 15 / 1-139

정부는 1989.8.25.~9.2. 파리에서 개최된 제8차 UNWTO(세계관광기구) 총회에 조정식 교통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의제
 - 앙골라와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신규회원 가입승인 및 기존회원 탈퇴
 - 사무총장 선출과 집행이사국 선출
 - 정회원과 준회원의 회비 산정
 - 집행이사회의 활동사항 보고
 - 88~89년 WTO 활동에 관한 사무총장의 총괄보고와 특별활동보고
 - 90~91년 예산안 검토
 - 헌장 개정안 검토 등

2. 한국대표단의 훈령

- 필리핀, 태국 등 회원 탈퇴에 유감을 표명하고 대책수립을 촉구할 것
- 사무총장 후보로 집행이사회에서 추천한 멕시코 후보를 지지할 것
- 인도의 이사국 출마를 지지할 것
- 특별활동 보고관련 UNDP(유엔개발계획) 자금으로 실시하는 기술협력사업은 개도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므로 사업의 계속 시행 필요성을 역설할 것
- 관광객 및 관광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사무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독려할 것
- 집행이사회에서 건의한 회비산정방식에 이의가 없으나 미국 등 일부 국가의 회비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
- 90~91 사업계획 관련 WTO의 주요사업계획과 환율변동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규정의 개정에 대한 대다수 의견에 동참할 것
- 90~91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할 것
- 헌장개정안에 대하여는 대다수의 의견에 동참할 것

WTO(세계관광기구) 총회, 제8차. Paris, 1989.8.25.-9.2. 전2권 (V.2 결과보고 및 회의자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52 / 1 / 1-381

정부는 1989.8.25.~9.2. 파리에서 개최된 제8차 UNWTO(세계관광기구) 총회에 조경식 교통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참가자

- 정회원 96개국 대표, 준회원 3개영역 대표, 찬조회원 66개 기관, 영구옵서버 1개국, 국제기구 18개 대표 참석

776

2. 회의 주요결과

- 신규회원 가입을 신청한 앙골라는 승인되었으나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가입신청에 대한 토의는 제9차 총회로 연기
- 관광분야 기술협력, 관광객 및 관광시설의 안전과 보호, 편의촉진 및 관광법 법제화, 교육훈련, 관광 관련 정보자료 등에 관한 사무총장의 특별활동보고 청취 및 평가
- 회비산정방식 변화에 따른 회비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국가들을 고려하여 신규증가 회비 부담을 점진적으로 증대하도록 하며 신규 공식의 전면 적용은 1994~95년도 부터 시행
- 90~91년도 사업계획의 심사 및 승인
- 관광의 해 지정
 - 1991년 아프리카 관광의 해, 1992년 미주지역 관광의 해 등
- 90~91년도 예산안 검토 및 승인
- 현장 개정안에 비준 촉구

3. 한국대표단 활동

- 동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UNWTO-CAP 의장국으로 재선
- 조경식 차관은 프랑스 관광장관 예방, 프랑스와 영국 철도 관련 시설 방문 등 활동

ICLM(국제법정계량위원회) 회의, 제24차. Paris, 1989.9.27.-2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52 / 2 / 1-55

제24차 ICLM(국제법정계량위원회) 회의가 1989.9.27.~29.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38개국에서 57명 참석
- 한국 측에서는 공업진흥청 계량표준과장 등 3명 참석

2. 회의 결과

- 행정사항
 - 88년도 회계결산 승인
 - 사무국장 연임 승인 및 봉급인상을 결정
- OIML 증명제도 토론
 - 제3차 예비초안 토론 및 제4차 예비초안 개발 지시
- 4개 실무간사국 창설
 - 이온화 방사선의 산업이용에 대한 방사선량 측정방법, 방어급 방사선량 측정, Erg 측정기, 의료시험실용 측정기구의 실무간사국 창설
- 3개의 국제권고안 채택
 - 선박 탱크의 일반요건, 부피용기, 기압계의 국제권고안 채택
- 차기회의 개최지 결정
 - 1990.10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

APDC(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 사무국장 입후보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52 / 3 / 1-247

1. 1988.7월 개최된 제5차 APDC(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 총회는 1989.9월 이전까지 특별총회를 개최하여 신입사무국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함.
2. 외무부는 윤석범 연세대 교수를 신입사무국장 후보로 추천하고 정부차원의 지지 교섭을 추진함.
 - 입후보 현황
 - 한국: 윤석범(연세대 상경대 교수, 황인정 APDC 이사 추천)
 - 한국,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2명),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7개국에서 8명 입후보
 - 정부차원의 단계별 지지 교섭
 - 주한 외국공관과 재외공관을 활용
 - 운영위원인 황인정 박사를 통한 각 운영위원에 대한 지지 교섭
 - 추천위원회, 운영위원회의 대상국별 추가 교섭
3. 1989.6.10. APDC 사무국장 추천위원회는 한국의 윤석범 교수를 추천하기로 결정함.
 - 1989.6.8.~9. 개최된 운영위원회는 사무국장 후보 1순위로 윤석범 교수, 2순위로 파키스탄 후보, 3순위로 필리핀 후보를 결정함.
 - 9.25. 제6차 APDC 총회에서 윤석범 교수가 피선됨.

APDC(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 총회, 제6차. Kuala Lumpur(말레이시아), 1989.9.25.-26.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통상3과
MF번호	2019-52 / 4 / 1-208

정부는 1989.9.25.~26.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6차 APDC(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 총회에 손장래 주말레이시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아·태개발센터 총회에서 한국입장 적극 반영
- 차기 사무국장에 입후보한 한국 후보의 피선 적극 추진

2. 훈령 요지

- 한국 후보의 차기 사무국장 피선 및 운영위원 연임을 실현함으로써, APDC 내 한국 위치를 고양함.
- 사무국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세부훈령에 따라 대처하되, 예기치 못한 사태 발생시 본부에 긴급 청훈하여 처리함.
 - 윤석범 연세대 교수를 사무국장직에 추천한 운영위의 결정이 총회에서 순조롭게 컨센서스를 형성하도록 적극 노력함.
- 황인정 후보의 운영위원 연임 실현

3. 회의 결과

- 차기 사무국장에 관한 운영위 추천을 컨센서스로 채택함으로써, 윤석범 교수를 신임사무국장으로 결정함.

4. 한국 정부는 1989.8.2. 제3기 운영위원 선출에서 황인정 박사의 연임을 추천함.

- 운영위원회 추천국이 미달될 가능성이 높아 총회에서 경선없이 자연스럽게 연임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41차. Sandiego(미국), 1989.6.12.-16.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9-52 / 5 / 1-236

정부는 1989.6.12.~16.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제41차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에 하성환 국립수산진흥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한국대표단 훈령 요지

- 국제포경협약상 자국영토 내 자원관리를 위한 과학조사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 주장
- 포경국 대표와 긴밀 접촉, 아국 연안포경의 재개에 유리한 여건조성 노력
- 필리핀 국적 포경선의 아국 수입은 사실이 아님을 적극 해명

780

2. 회의 결과

- 참가국
 - 회원국 총 37개국 중 28개국 153명 참석
 - 과학조사 포경국: 일본, 아이슬랜드, 노르웨이(3개국)
 - 원주민 생존 포경국: 미국, 소련, 덴마크,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4개국)
 - 옵서버: 오스트리아, 캐나다(2개국)
- 주요 결정사항
 - 과학적조사 포경허가 문제는 일본,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등 3개국이 신청하였으나 반포경국의 결의안 제출로 무산
 - 원주민 생존포경은 종전대로 허용
 - 인도양 보호구역을 1992년까지 3년간 연장
- 기타 사항
 - 한국도 과거 포경국으로서, 포경 금지조치로 인해 소형포경이 막대한 손해를 받고 있음을 주장함.
 - 필리핀 포경선 문제는 한국으로 수출된 바 없음을 IWC 사무국에 해명하고, 회의보고서에도 기록됨.

AARRO(아시아·아프리카농촌재건기구) 연락관위원회 회의, 제6차. New Delhi(인도), 1983.4.21.

생산연도	1983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52 / 6 / 1-137

제6차 AARRO(아시아·아프리카농촌재건기구) 연락관위원회가 1983.4.21.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됨.

1. 참석자

- 주인도대사가 동 회의를 주재
- 한국, 인도 등 17개 회원국 대표 21명
 - 인도네시아와 터키 대표는 옵서버자격으로 참석

2. 1983년 주요사업계획 토의

- 농업 최고지도자회의(11월, 동경)
- 인도 SIET연구소 주최 연수(9~12월)
- 인도 편잡농과대학 주최 연수(2~3월)
- 이집트 국제농업연구소 주최 연수
- 대만(구 자유중국) 정부 주최 연수(5월)
- 국제워크숍(8월, 서울)

3. 차기회의 개최

- 규정상 1983.10월 중 개최되어야 하나, 제25차 집행위원회와 농업 최고지도자 회의가 각각 10월과 11월 개최될 예정임을 감안, 1983.12월에 개최하기로 결정

AARRO(아시아·아프리카농촌재건기구) 집행위원회, 제33차. New Delhi(인도), 1989.11.20.-23.

생산연도 1989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52 / 7 / 1-153

정부는 1989.11.20.~23.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33차 AARRO(아시아·아프리카 농촌 재건기구) 집행위원회에 김성한 주인도대사관 1등서기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AARRO 집행위원회에 한국 정부의 농업정책 및 입장 반영
- 대개도국 농업분야 협력관계 강화 기반조성

2. 한국대표단 훈령 요지

- 한국이 많은 금액의 분담금을 제공하고 AARRO 워크숍 개최 등 AARRO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할 것
- 세부훈령에 따라 한국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본부에 청훈할 것
- AARRO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훈련에 한국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1989.9.4.~8.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주관 농촌개발계획의 관리에 관한 워크숍에 14개국 16명이 참여하였음을 상기하도록 할 것
- 수입(회비) 예산 범위 내의 사업수행을 강조하고 미납회비 납부를 위한 사무국의 노력을 강조할 것

3. 결과 보고

- 집행위원국 참가국
 - 12개 회원국 중 8개국 참가
 - 이집트, 가나, 인도, 일본, 요르단, 한국, 모리셔스, 수단
- AARRO 지역사무소
 - 현재 서울에 극동지역사무소, 요르단 암만에 중동지역사무소를 설치 운영 중인바, 가나에 아프리카지역사무소 설치를 총회에 권고하도록 결정
- 이라크 탈퇴 통보
 - 이라크 정부는 1989.8월 AARRO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한바, 사무총장이 계속 협상을 한 후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도록 함.
- 91~93 사업계획 검토(5개 워크숍 주제 선정)
 - 농촌경제 발전을 위한 농로개발의 중요성
 - 농촌보건 및 의료시설 보급과 유아 사망률
 - 우유구매 및 낙농사업의 개발
 - 협동조합 운영 및 관리
 - 농촌개발에 있어 여성의 역할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동물약품 잔류위원회, 제4차. Washington D.C., 1989.10.24.-27.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52 / 8 / 1-206

정부는 1989.10.24.~10.27.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FAO/WTO CODEX(공동식품규격위원회) 동물약품 잔류위원회에 박종명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 가축위생연구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참가국

- 37개국 및 4개 국제기구 총 163명

2. 정부 훈령

- 기본 훈령
 - 최근 국제적 당면과제인 식품 내 동물약품 잔류에 관한 문제점 토의 및 동물약품의 사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제규격 기준제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축산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세부 훈령
 - 식품 내 동물약품 잔류 유해성에 관한 한국의 현황과 각국의 실태 및 정책방향을 수집·비교, 분석할 것
 - 식품 내 잔류성 동물약품의 사용 안전성에 관하여 국제규격, 기준제정 등에 관한 추진 상황과 세부추진계획을 종합, 분석할 것

3. 회의 결과

- 사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관한 소위원회에서 제라놀과 설파메타진의 잔류분석법이 채택됨.
- 최대잔류 허용한계 설정단계를 축소하기로 하고 농약의 최대잔류 한계 설정과정은 동물약품 잔류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함.
- 유럽경제공동체는 1997년까지 모든 동물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하여 최대잔류 한계를 설정하기로 함.
- 각국은 국제수역회의에 각국의 가축, 가금, 어류와 그 생산물에 대한 잔류규제계획에 대한 결과와 농장에서의 농약의 안전사용에 관한 활동을 보고하여야 함.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법규과

MF번호 2019-52 / 9 / 1-340

정부는 1989.11.5.~17.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제8차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 총회 및 과학위원회에 안중구 주호주대사관 공사를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한국대표단 훈령

- 남극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엄격한 보존조치 반대
- 남빙양 어획국가와의 협력가능성 타진
- 한국의 ATCP(남극조약협의당사국) 지위 취득 시 협조에 대한 사의표명
- 회의 적극참여 및 정보수집

784

2. 주요 토의결과

- 한국의 89/90 분담금
 - 4만 3천 호주달러
- 남조지아 근해에서 남극빙어의 총 어획가능량 설정 등 어류자원보존에 관한 5개의 신규 보존조치 채택
- 감시 및 검사제도 89/90 어기부터 적용
 - 한국, 일본 등 위원회 공식언어 사용국이 아닌 국가는 사무총장과 협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무총장이 배포한 서류를 번역하여 협력 해역에서 조업예정인 자국선박에 제공
- 제9차 총회는 1990.10.23.~11.2.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

ICSEAF(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 특별회의, 제7-8차

생산연도 1986-1989

생산과 자원협력과

MF번호 2019-52 / 10 / 1-177

1. 정부는 1986.12.5.~12.9. 스페인 라스팔마스에서 개최된 제7차 ICSEAF(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 특별회의에 박종국 주라스팔마스총영사관 수산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회의 참가국: 총 16개국, 4개 옵서버 국제기구
- 정부 훈령
 - ICSEAF는 한국이 쿼터를 받고 있으면서도 조업은 하지 않으나, 향후 한국 원양어업의 주요 어장이 될 수 있는 수역을 관장하고 있는 수산기구임을 감안, 제반 현안에 적극 대응할 것
 - 기존 어획쿼터가 계속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한국 쿼터를 양도 받고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긴밀히 협의할 것,
 - 별도 세부훈령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대표 재량으로 처리하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에 청훈할 것
- 회의 결과
 - 1987년도 민대구 어획 쿼터양을 41만 톤으로 결정(한국 쿼터양은 7,243톤)
 - 1987년도 전갱이, 고등어, 꼬치고기 총 어획량 확정
 - 1987년도 한국분담금은 11,253달러

2. 정부는 1988.12.13.~16.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8차 ICSEAF 특별회의에 이지연 수산청 기획관리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주요 의제
 - 위원회 88/89 회계연도 예산채택 및 분담금 결정
 - 산하 9개 위원회 보고사항 검토
 - 민대구 어획쿼터 결정 및 특종어종 어획규제
- 정부 훈령
 - 한국 원양선단이 진출하고 있는 수역의 어족자원 보존과 어획쿼터 결정에 관한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 원양어업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것
 - 민대구 쿼터문제는 기존 수준의 쿼터 확보에 노력할 것
- 회의 결과
 - 1989년도 민대구 쿼터는 총 허용량 감소로 전 회원국의 감소가 불가피하여, 한국 쿼터양 6.027톤을 수락함.
 - 1989년도 한국분담금은 당초 13,634달러에서 13,154달러로 삭감됨.

ICSEAF(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 정례회의, 제10차. Mallorca(스페인), 1989.12.6.-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기술협력과

MF번호 2019-52 / 11 / 1-60

정부는 1989.12.6.~9.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개최된 제10차 ICSEAF(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 정례회의에 박기철 수산청 원양개발담당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참가국

- 총 15개 회원국
- 5개 옵서버 국제기구

786

2. 정부훈령

- 동남대서양 수역은 한국이 진출하고 있는 중요한 어장이며, ICSEAF는 어획쿼터를 정하는 주요 국제수산기구임을 인식, 제반 현안에 적극 대응할 것
- 한국 쿼터를 양도 받고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긴밀 협의하여 기존 어획쿼터가 계속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
- 한국분담금이 증액될 것이 예상되는바, 현행대로 존치되도록 적의 대처할 것
- 의제별 토의에 있어서는 세부훈령에 따르고 중요사항은 본부에 청훈할 것

3. 주요 의제 및 회의 결과

- 주요 의제
 - 1990년 어종별 총 어획량 결정 및 예산과 국별 분담금 산정
- 회의 결과
 - 민대구 총 어획량은 과학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22만 톤으로 결정(한국은 969톤)
 - 1990년도 사무국 총예산은 7천7백만 페세타로 확정(한국분담금은 150만 페세타)

OIE(국제수역사무국) 지역위원회 회의, 제16차. Canberra(호주), 1989.10.10.-13.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조약과
MF번호	2019-52 / 13 / 1-89

정부는 1989.10.10.~13.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16차 OIE(국제수역사무국) 아시아·극동·대양주 지역위원회에 김옥경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대표단 파견목적

- 지역위원회 각 의제별 토의에 참석, 한국입장 반영
- 아시아대양주지역의 가축전염병 방역정책에 관한 국제간 협력동향 및 자료를 파악, 수집하여 한국의 가축위생 정책에 적극 활용

2. 주요 회의의제

- 가축위생 정보체계에 관한 협의
- 새로운 OIE 활동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각 회원국의 가축위생상황 보고
- 제15차 지역위원회 권고사항 추진현황
- 열대국가에서의 젖소사육 및 위생문제 협의
- 식품중 화학물질 잔류에 관한 협의
- 진단방법의 기술향상에 관한 협의

3. 대표단 주요활동

- 기본훈령 사항 수행
 - 한국의 가축질병 발생상황과 방역대책 등을 설명하고 회원국 간 상호정보교환
- 세부 훈령사항 수행
 - 한국의 가축방역사업 개황과 돼지전염병 방역대책 및 방역효과를 보고
 - 제15차 지역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을 보고하고 각국의 발표자료 수집
 - 한국의 가축방역 행정조직체계 설명, 회원국 간 정보전달 방법과 긴급 방역조치 등에 대한 지역협력문제 협의
 - 기타 각 회원국의 가축위생, 육류 산업현황, 진단기술개발 등 사항을 청취하고 관련자료 수집

OIE(국제수역사무국) 총회, 제57차. Paris, 1989.5.22.-26.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조약과
MF번호	2019-52 / 12 / 1-145

정부는 1989.5.22.~26.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57차 OIE(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 전찬수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주요의제

- 수의학에 있어 생명공학의 활용방안
- 내부기생충 질병의 면역반응
- 회원국의 가축위생 상황

2. 정부대표단 주요활동

- 기본훈령 수행
 - 각국 대표와 친선도모 및 현 정부의 북방외교정책을 감안 동구권지역 내 국가와도 상호 정보교환 등 다각적 활동 전개
- 세부훈령 수행
 - 한국은 가축질병 방제사업 중 질병예찰(豫察)사업에 입각한 가축방역 효과를 보고하고, 특히 1987.7월부터 발생이 확인된 돼지질병(Aujeszky병)의 발생상황과 동태파악을 위한 전국적 혈청항체 조사사업 현황을 보고
 - 가축방역 사업추진과 개선에 필요한 각종 기술정보 수집

3. 대표단 관찰

- OIE 사무국이 준비 중인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약이 갖추어야 할 제반요건과 진단기술 수록 편람이 발간되면 각 회원국의 가축전염병 방제사업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임.
- 수의학분야에서의 생명공학 기술응용과 관련, 한국의 생명공학 연구는 매우 뒤떨어져 있으므로 국내기술자의 해외훈련이 절실히 요망됨.
- 현재 가축의 내부기생충 방제를 위해 화학약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비용이 막대하며 약품의 잔류독성과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 내포
 - 한국도 앞으로 화학약품 사용을 줄이고 생물학적 방제법을 연구개발하는 방향으로 가축위생 연구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여성정치참여에 관한 IPU(국제의원연맹) 심포지엄. Geneva(스위스), 1989.11.20.-24.

생산연도 1989-1990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53 / 6 / 1-113

정부는 1989.11.20.~24.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여성정치참여에 관한 IPU(국제의원연맹) 심포지엄에 도영심 의원을 대표로 파견함.

1. 개관

- 개최목적
 - 의원, 전문가, 기타인사 간에 공평한 입장에서 자유롭고 공개적인 대화증진
 - 정치 및 의회에서의 여성의 참여증진과 의사결정권의 남녀 간 공평 분배를 위한 방안 강구
- 심포지엄 의제
 - 정치 및 의회에서의 의사결정권 분배
 - 정치 및 의회에의 여성참여를 제약하는 요인분석과 상황개선방법
 - 정치 및 의회에 여성의 당선과 지명을 보장하는 각종 긍정적 행동과 조치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공평성 보장 조치

2. 결과보고서

- 심포지엄 주제발표 및 토론종합 내용
- 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
 - 주제: 여성정치인과 미디어의 이미지
- 참가자 명단 등

AIPO(아세안의회기구) 총회, 제10차. Manila(필리핀), 1989.8.21.-26.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52 / 14 / 1-42

정부는 1989.8.21.~26.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0차 AIPO(아세안의회기구) 총회에 김장숙 의원을 옵서버대표로 파견함.

1. 개관

- 인도네시아의 제창에 따라 회원국의회 간 우호협력 증진과 역내 현안문제에 대해 의회차원에서의 공동입장 모색을 목적으로 1975.9월 발족된 비정부간 협력기구
 - 아세안 6개국 중 브루나이를 제외한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5개국이 주도
 - 연1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에 미국, 일본, 중국, 소련, 호주, EC(구주공동체), 한국 등 역외 유관국이 옵서버를 파견
- 주요협약 의제
 - AIPO 회원국과 옵서버국 간의 경제협력, 투자, 지역 및 국제정치현안
 - AIPO 회원국과 옵서버국 간의 상호 의원교류, 문화협력, 교통 및 기술교류 등

2. 회의 주요결과

-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기조연설(8.22.)
 - AIPO 상설사무국 창설 전폭지지
 - 아세안국가의 공동개발 및 상호보완적 협력희망
 - 역내통상, 기술협력, 금융, 재정 및 자원 활용증진을 위한 AIPO 결의안 시행을 위한 법제화 촉구
- 주요 결의안 채택
 - 정치관계: 아세안 협력, 캄보디아 사태, 난민 문제, 군비축소, 아태 협력
 - 경제 사회관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아세안입장, 아세안 통상증진 및 경제협력, 아세안 경제 협력의 장기목표, 연구 및 교육에 있어서의 아세안협력, 아세안 노동 및 복지, 아세안·EC 경제협력
 - 조직관계: AIPO 상설사무국 설치, 의회 간 교환방문, AIPO와 아세안각료회의 및 아세안 상임위원회 간 연락체계 구축, 아세안의회 설립
 - 기타: 아세안국가의 부채경감 노력촉구, 제11차 총회 개최(1990.9.3.~8., 싱가포르)
- 폐막 공동성명 채택(8.26.)
 - 의회는 모든 외국 군사시설의 궁극적이고 순차적인 해체와 핵무기의 제거가 동남아 평화·자유·중립시대 및 비핵시대화의 조기실현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데 주목

APPU(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 이사회, 제45차. Port Moresby(파푸아뉴기니), 1989.6.26.-2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53 / 1 / 1-156

정부는 1989.6.26.~29. 파푸아뉴기니에서 개최된 제45차 APPU(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 이사회에 이진우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사무처 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회의결과

- 각국 의원단이 제출한 총 17개 결의안(경제관계 8건, 정치관계 6건, 문화관계 3건)을 심의하여 서울 총회에 상정하기로 합의
- 제45차 이사회 회의록 채택

2. 한국대표단 활동

- 수석대표 기조연설 시행(6.28.)
 - 세계는 아·태지역을 주목하고 있으며, 동 지역은 세계사의 새로운 무대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태지역 경제협약체 구성이 필요
 - 한국의 북방정책은 아·태지역 긴장완화와 동 지역의 평화정착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을 확신
 - 차기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됨.
- 2개 결의안 제출, 채택
 - 아·태 경제협약체 창설촉구 결의안(경제관계)
 - 청소년 문화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협력에 관한 결의안(문화관계)
- 기타 회의참석 활동
 - 이사회 의안건의심 및 토론 시 주도적 역할 수행
 - 각종 회합에 참여, 폭넓은 교류와 접촉으로 상호이해증진과 우의증진에 기여

3. 특기사항

- 대만(구 중화민국)대표단의 파푸아뉴기니 입국좌절
 - 입국사증 미발급으로 회의에 불참
- 파푸아뉴기니 의원단과 언론의 한국대표단에 대한 관심지대
 - 이는 한국의 국력향상과 1989.5월 방한한 D. Young 국회의장의 각별한 배려로 관측

APPU(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 제24차 총회 및 제46차 이사회. 서울, 1989.10.30.-11.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동남아과

MF번호 2019-53 / 2 / 1-218

제24차 APPU(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 총회 및 제46차 이사회가 1989.10.30.~11.1.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일정

- 10.30. 운영위원회, 개회식, 제1차 이사회
- 10.31. 제1차 총회, 제2차 이사회
- 11.1. 제2차 총회, 폐회식

2. 대표단(의장)

- 이사회: 이진우 의원
- 총 회: 서정화 의원

3. 한국 대표단 주요 활동

- 정치, 경제, 문화 관계 결의안 총 4건을 제출,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4. 주요 성과

- 아·태지역에서의 한국의 주도적 지위 확립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의 노력 홍보
- APPU 확대 발전 계기 마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81차. Budapest(헝가리), 1989.3.13.-18.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53 / 3 / 1-188

정부는 1989.3.13.~18.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제81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 박정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94개국, 23개 국제기구 참석
- 의제
 - 어린이의 권리보호
 - 탈식민주의
 - 인종차별 종식 및 세계정치
 - 경제정세에 관한 일반 토의

2. 주요 회의결과

- 3.13. 이사회에서 산마리노와 에티오피아가 회원국으로 가입함.
- 3.14. 본회의시 의제별로 한국대표단이 연설함.
 - 의제5항(어린이 권리보호) 조순승 의원
 - 의제6항(탈식민화 및 인종분리정책) 이희일 의원
 - 의제7항(일반토론) 박정수 의원
- Groz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 서기장은 3.17. 총회시 헝가리의 개혁 및 개방정책에 관해 연설 하면서,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언급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 제82차. London(영국), 1989.9.4.-9.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53 / 4 / 1-365

정부는 1989.9.4.~9.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82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 박정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100개 회원국 1,200여명 대표 참석
 - 엘리자베스 여왕, Thatcher 수상 개최식 참석

794

2. 주요 활동

- 박정수 단장, 폴란드대표단 초청 오찬 개최(9.5.)
 - 폴란드 대표단장 방한 초청
 - 한·폴란드 의원친선협회 결성에 원칙적 합의
- 조순승 의원, 총회 본회의시 '우주의 평화적 접근과 인류이익을 위한 이용' 제하의 연설
- 도영심 의원, 아·태지역을 대표해서 여성의원회의 운영위원으로 선출
- 권현성 의원, 본회의 연설(9.7.)
 - 인구 및 식량문제와 제3세계의 부채문제
- 박정수 단장, 본회의 연설(9.8.)
 - 한국 정부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설명
 - 7·7 선언 및 통일 3원칙 등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 강조

IPU(국제의원연맹)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아시아의원 회의. 북경, 1981.10.27.-30.

생산연도	1981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53 / 5 / 1-115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지역의원 간 이해증진 및 공동노력을 위한 아시아의원 회의가 1981.10.27.~30. 베이징에서 개최됨.

1. 회의 연혁

- 세계인구회의 개최(1974.8월, 부카레스트)
-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의원 회의 개최(1979.8월, 콜롬보)
 - 콜롬보선언문 채택
- 자원,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아세안 회의 개최(1980.9월, 쿠알라룸푸르)

2. 한국의 참가노력

- 동 회의 주최국인 중국은 한국의 참가를 배제하기 위해 유엔회원국만을 초청하는 원칙을 고집
 - 옹서버로는 북한만을 초청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
- 1981.6월 한국 국회의원이 동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IPU(국제의원연맹) 사무총장과 일본 인구문제의원연맹 등에 협조 요청
 - 남북한 동시 옵서버자격으로 참석 추진
- 제1차(1981.2월) 및 제2차(1981.6월) 운영위원회에서 남북한 동시 불초청하기로 결정

3. 회의 결과

- 아시아지역 유엔회원국 18개국 의원, 과학자 및 국제기구대표 약 200명 참석
- 인구성장과 경제개발 간의 적절한 조절문제에 관해 집중 토의
- 인구 및 개발에 관한 북경선언문 채택
 - 지역정책 및 계획수립에 있어 자원과 인구문제의 적절한 통합접근 모색
 - 신국제 경제질서수립 및 실현을 위한 협력강화방안으로서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대화증진 노력을 선언
 - 1984년 유엔의 세계인구회의 개최를 촉구
 - 아시아 인구 및 개발문제의 지속적 연구를 위해 아시아 각국 의원들로 구성되는 임시위원회 설치를 권고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 제57-58차

생산연도 1988-1989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53 / 8 / 1-139

1. 제57차 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가 1988.11.17.~23. 방콕에서 개최됨.

- 주페루대사는 1988.7.19. 페루 외무성이 제57차 총회 이사로 입후보한 F. Roca 페루 경찰총장의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고
 - 한국은 동 페루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결정, 11.9. 주페루대사를 통해 페루 외무성에 지지 의사를 통보

2. 정부는 1989.2.21.~24. 네팔 카트만두에서 개최된 제10차 INTERPOL 아시아지역 회의에 장근식 치안본부 형사부장 경무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3. 정부는 1989.11.27.~12.1.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제58차 INTERPOL 총회에 이강년 치안본부 치안감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대표단 기본훈령
 - 한국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켜 국익증진과 국위선양에 최대한 노력
 - 회의기간 중 각종 경찰관련 정보 및 자료를 입수, 한국의 동 분야 정책수립과 과학수사 향상에 기여
 - 각 회원국 대표와 수시접촉, 상호 우의친선 및 이해증진 도모로 국제협력 강화에 노력
- 대표단 세부훈령
 - 특별위원 선출: 다수 의견에 따르되 가급적 우방국 후보가 선출되도록 함.
 - 1988년도 연례보고 및 회계감사 보고: 한국에 불리하지 않는 한 지지
 - 재정문제: 한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은 경우 원안에 동의
 -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국 설치안: 추가 재정부담이 없는 한 지지
 - 인터폴 본부이전: 추가 예산부담이 없는 한 지지
 - 불법 마약거래: 한국의 마약류 사범의 현황과 단속실적 및 대책을 발표
 - 국제적인 경제 및 재정범죄: 다수의견을 지지
 - 통신 및 전산화 문제: 한국의 통신망 현황을 보고하고, 표결이 있을 경우 비화기 설치 지지
 - 90년도 사업계획: 표결이 있을 경우, 다수의견에 따를 것
 - 집행위원 선출: 경합 시 우방국 지지
 - 제59차 총회장소 선정: 개최 희망국 경합 시 한국과 가까운 우방국 지지
 - 대만(구 중화민국)의 지위회복문제: 대만 지지입장 발언 불요, 대만과 중국이 합의하는 문제는 지지, 대만과 중국의 의견이 대립되는 문제는 기권
 - 카보베르데와 모잠비크의 가입 신청안: 지지

INTOSAI(세계최고회계검사기관기구) 총회, 제13차. Berlin(독일), 1989.6.12.-21.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서구1과
MF번호	2019-53 / 9 / 1-251

정부는 1989.6.12.~21. 독일 서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3차 INTOSAI(세계최고회계검사기관기구) 총회와 제14차 ASOSAI(아시아최고회계검사기구) 이사회에 김영준 감사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회의내용

- INTOSAI 총회
 - 의장단 교체(의장에 Zavelberg 독일 연방회계검사원장, 부의장 2명 피선 등)
 - 지역기구 의장의 활동보고 청취, INTOSAI 규약 개정안 채택
 - 3개 주제(감사에 있어서 관리문제, 공공부채 감사, 전산감사) 토의 및 건의안 채택
 - 이사국 선출(이집트, 스페인) 등
- ASOSAI 이사회
 - 이사회 활동상황 보고
 - ASOSAI 세미나 개최실적 평가 및 계획 토의
 - 차기 이사회(1990년 개최) 및 제4차 ASOSAI 총회(1991년 개최) 준비상황 보고 청취

2. 한국대표단 활동

- 회의 참가 및 회의기간 중 회원국 대표 등과 접촉, 친선도모와 한국의 참된 이미지 부각에 노력
 - 한국은 ASOSAI 물자감사 세미나계획(1989.8.29.~9.7.)을 발표, 회원국들의 호의적 반응 획득
- 동베를린 공식 방문

3. 한국대표단 결론 및 건의

- 감사제도, 감사기법의 발전을 기대하는 각 회원국 대표들과 감사경험 및 지식에 관한 의견교환
 - 각국이 합법성 감사에서 효율성 감사로 전환하려는 모습 관찰
 - 감사의 질 확보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감사요원의 자격요건 및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일치
- INTOSAI 총회 및 ASOSAI 이사회에서 한국 감사원의 새로운 위상정립
 - 의장단, 지역협력기구, 미국·캐나다 회계검사원장 등 주요 회원국 대표와의 협조유대 강화
 - INTOSAI 세미나(공공부채 감사방법 및 기법)에 대한 리포터 역할로 세미나 토의에 적극기여
 - ASOSAI 차기 이사회 개최지(한국) 결정, 차기 총회(중국)의 국제세미나 주제결정 등에서 한국 감사원의 영향력 발휘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총회, 제12-13차

생산연도 1987-1989

생산과 국제기구과/동남아과

MF번호 2019-53 / 10 / 1-99

798

1. 정부는 1987.11.21.~29.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2차 EROPA(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총회에 손종석 중앙공무원 교육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회의 주요결과
 - EROPA 활동보고(1985~87년) 청취
 - 의결 및 미래계획위원회 구성
 - 집행이사회 결정사항 승인: 집행이사회 임원 선출, 신규회원 가입, 회계감사보고서·계획검토위원회 보고서 및 88~89년 예산안 채택 등
 - 여성위원회(상설) 설립승인
 - 학술토론(주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공공행정) 개최
- 특기사항
 - 주제발표 및 부제 토론과정에서 다수 발표자들이 한국의 경이적인 경제발전에 대한 찬양을 거론
- 한국대표단은 동 총회 참석 후 말레이시아 방문(1987.12.1.~9.)
 - 목적: 한·말레이시아 교류협력관계 확대, 외국공무원 교육훈련제도에 대한 견문확대로 국내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 한국연수 말레이시아 공무원에 대한 지도 및 교육효과 분석으로 외국인 교육 사후관리 철저 및 연수과정 발전방향 모색
 - 말레이시아 인사원, 국립행정연수원, 기타 지방 교육기관 등 방문, 교육훈련 현황 파악 및 시설견학

2. 정부는 1989.12.1.~10. 네팔 카트만두에서 개최된 제13차 EROPA 총회에 정문화 중앙공무원 교육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회의 주요결과
 - EROPA 활동보고(1987~89년) 청취
 - 제14차 총회 개최(1991년, 중국 베이징), 제38차 집행이사회 개최(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확정
 - 제36차 집행이사회 개최: 제12차 총회(1987년) 이후 주요 활동사항 보고
 - 발전관리센터(중앙공무원교육원) 등 EROPA 부설기관의 활동 및 계획보고
 - 학술토론(주제: 1990년대의 공공행정-도전과 기회를 중심으로) 개최
- 한국대표단 활동
 - 제36차 집행이사회 감사로 한국대표 피선
 - 한국은 상기 학술토론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 주제로 발표
 - EROPA 과정연수생 지도: 중앙공무원교육원 연수과정의 교육성과 재확인, 연수생에 대한 관심 표명과 유대강화

ICA(국제행정정보기술위원회) 총회, 제23차. Oslo(노르웨이), 1989.10.17.-20.

생산연도	1989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53 / 11 / 1-37

정부는 1989.10.17.~20.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제23차 ICA(국제행정정보기술위원회) 총회에 김태겸 총무처 행정전산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대표단 파견목적

- 위원회 각 의제별 토의에 참석, 한국입장을 반영
- 행정전산화 체계에 관한 각국의 추진현황 및 국제간 협력동향을 파악, 한국의 행정전산망 정책에 적극 활용

2. 주요 회의결과

- 각 주제별 연구발표
 - 현대화와 정보기술 개관, 각국의 최근 행정전산화 경험소개, 조직구조와 정보기술,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대안, 정보기술 현대화의 의미
- 이사회 개최
 - 1990년 이스라엘 총회 세부사항 논의
 - 차기총회 잠정합의: 1991년(스위스), 1992년(미국) 등
 - ICA 회지발간 및 회계관련 보고사항 결정

3. 한국대표단 활동

- 한국의 행정전산망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 기본방향, 목표, 추진전략 및 실적 등
- 각 주제별 연구발표 및 이사회 참가

4. 대표단 건의사항

- ICA와의 국제교류활동 적극화
- 회원국과의 전산관련 정보교환 활성화
 - 선진국의 행정전산화 경험전수 활용
- 1990년대 말까지 ICA 총회 유치
 - 세계적 전산관련 석학의 국내결집으로 행정전산화 성숙계기 마련
 - 한국의 행정전산화 현황 및 정보산업 발전상황 대외홍보
 - ICA에서의 한국의 지위향상

유엔 주관 심포지엄. Helsinki(핀란드), 1989.6.12.-16.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유엔정책과

MF번호 2019-53 / 12 / 1-37

유엔이 주관한 국제심포지엄이 1989.6.12.~16.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됨.

1. 심포지엄 참가자

- 중앙계획경제국가 및 국제경제기구 등의 학자 또는 전문가 65명 참석
- 한국은 옵서버로서 주핀란드대사관 관계관이 참석

2. 심포지엄 주제 및 토의사항

- 주제
 - 세계경제관계에서의 아시아 중앙계획경제국, 중국, 동구 및 소련 등의 경제개혁 및 정부의 역할
- 토의사항
 - 중앙계획경제와 국제경제질서
 - 중앙계획경제와 세계무역질서
 - 중앙계획경제와 개발도상국
 - 중앙계획경제와 국제금융
 - 경제개혁과 지역경제기구

3. 심포지엄 결과

- 소련, 동구 및 아시아 계획경제국의 최근 경제개혁 현황과 문제점 및 세계경제질서와의 협력방안 등을 소재별로 발표 및 토론
- 중앙계획경제의 한계와 시장경제의 강점 및 한국 등 신흥공업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사례가 수차 강조 또는 인용
 - 중앙계획경제 시행결과, 비능률과 비생산성 등 대부분 경제개도국으로 전략
 - 따라서 각국은 각자 실정에 맞는 경제개혁(시장경제원리 도입 등)과 서방국과의 협력을 모색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는 정치적 환경변화가 필요
- CMEA(상호경제원조위원회) 사무처는 역내 단일시장을 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 설립안을 구상 중에 있으며, 성안이 되면 각국에 제시할 예정
- 베트남 외무성 차관보는 베트남의 저임금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을 광고하고, 외국의 투자를 공개 요청

UNDTCD(유엔기술개발협력국) 관련 회의

생산연도 1989

생산과 경제기구과

MF번호 2019-53 / 13 / 1-39

1. UNDTCD(유엔기술개발협력국)/아프리카 개발계획 워크숍이 1989.11.27.~12.1.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됨.

- 워크숍 개최목적
 - 아프리카국가의 개발계획 및 거시경제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선진·개도국의 경험사례 공유
 - 한국, 일본, 태국의 경험사례 발표
- 한국 참가자(정갑영 연세대교수) 발표
 - 한국의 경제개발 초기 및 형성기 정부 및 개인저축, 자본형성 및 투자계획 수립 등 분야에서의 경험소개
- 주유엔대표부의 평가
 - UNDTCD 측은 한국 전문가의 참여로 상기 워크숍이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
 - 동 워크숍의 지원을 통해 한국도 유엔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대아프리카 경제외교에도 기여한 것으로 생각

2. UNDTCD/태양에너지 응용 심포지엄이 1989.10.23.~29. 중국 란저우에서 개최됨.(한국은 정현생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부장 참석)

- 심포지엄 개최목적
 - 개도국의 고위 기술 및 정책결정자에 대한 태양에너지 응용개발 검토 및 경험사례 발표와 공유기회 제공

AIC(아시아 ISDN 협의회) 회의. 서울, 1989.5.16.-23.

생산연도 1989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53 / 14 / 1-267

제2차 AIC(아시아 종합정보통신망 협의회) 총회 및 작업반 회의가 1989.5.16.~23. 서울에서 개최됨.(아시아 8개국 138명 참석, 한국에서는 체신부 및 정보통신협회, 관련기업대표 참석)

1. AIC 개요

- 설립목적
 - 회원국 간의 전기통신망 현대화 및 고도화 촉진을 위한 상호 협력
 - 아시아문화권에 맞는 ISDN(종합정보통신망)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전기통신기술 관련정보 및 인적자원의 상호 교류
- 창립총회
 - 1988.4.26.~28. 일본 도쿄 개최, 한국, 일본 등 아시아 5개국 참가
 - 토의내용: AIC 사무국 규칙, 준회원의 분담금규정 등 채택, 사무국장 선출

2. 회의 주요결과

- 관리이사회 의장단 선출
 - 의장에 서정옥 KTA(한국전기통신공사) 사업개발담당장 피선
- 차기회의 개최국 선정
 - 제4차 작업반 회의(1989.11월, 인도네시아)
 - 제3차 총회 및 제5차 작업반 회의(1990.5월, 태국)
 - 제6차 작업반 회의(말레이시아)
- 작업반 토의결과 인정 등

3. 회의 성과

- 대외적 성과
 - 한국의 AIC 내 입지확보 및 한국의 이미지 개선: 한국의 발전상 확인기회 제공 및 기술발전 인식제고
 - 중국의 최초 참가: AIC에 대한 중국의 관심증가
- 대내적 성과
 - 15개 국내회원사간 협조체제 구축
 - ISDN에 대한 국내인식 제고
 - ISDN 개발성과의 전시를 통해 ISDN 시대로의 첫발 진입
- 기술적 성과
 - ISDN에서의 운용보전체제 구축기술 자료습득
 - 컬러비디오 전화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 이해
 - 일본의 표준화 정책 동향파악 등

국제영양학회 총회, 제14차. 서울, 1989.8.20.-25.

생산연도 1989

생산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54 / 3 / 1-123

1. 주네덜란드대사는 1989.8.3. 제14차 국제영양학회 서울총회(1989.8.20.~25., 서울)와 관련하여 외무부에 아래와 같이 보고함.

- Hautvast 국제영양학회 사무총장은 8.2. 대사관에 상기 총회 관련 아래 요망사항을 전달
 - 서울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인 5~10명의 한국입국 사증발급을 거절당한바, 이는 국제학술연합회 규약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동 남아공 대표단에게 사증이 조속 발급되기를 강력히 요청
- 한국 정부가 남아공 대표단에게 총회 전까지 사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많은 국가의 대표단이 서울총회를 보이콧하겠다고 함.
 - 다수 대표단이 참석하지 않는 서울총회는 차기대회 장소결정, 신규회원 가입 등 투표결정 권한이 없음.

2. 외무부는 1989.8월 남아공 인사의 상기 총회를 위한 입국허용 여부를 검토함.

- 대남아공 교류억제 기본방침은 견지함.
 - 동 건 관련, 보사부 의견조회에 대해 3월 남아공 인사의 동 회의 참가가 부적절하다고 회신
- 국제영양학회 총회가 비록 민간학술회의이기는 하나,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동 학회 사무총장의 강력한 관심표시에 비추어 남아공인의 입국을 불허할 경우, 일부국가 대표단의 회의 보이콧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유사한 국제회의의 한국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인상을 피하면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으로서 유엔결의 등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는 관광목적의 비자신청을 유도함.

3. 주네덜란드대사는 1989.8.29. 국제영양학회 서울총회와 관련하여 추가보고함.

- Hautvast 사무총장은 8.29. 주네덜란드대사관에 아래와 같이 통보함.
 - 이번 서울총회에 남아공대표단이 참석하는 문제가 한국 정부 및 대사관의 각별한 협조로 잘 해결된데 대해 사의표명
 - 또한 서울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데 대해, 서울 측 준비인사들에게 사의전달 희망
 - 국제영양학회는 앞으로 한국과 더욱 긴밀한 협조 및 우호유대를 강화할 예정

IRF(국제도로연맹) 총회, 제11차. 서울, 1989.4.16.-21.

생산연도 1984-1989

생 산 과 국제기구과

MF번호 2019-54 / 4 / 1-279

제11차 IRF(국제도로연맹) 총회가 1989.4.16.~21. 서울에서 개최됨.

1. 외무부는 제11차 IRF 서울총회 개최 관련, 아래와 같이 협조함.

- 조직위(1987.6~8월) 및 지원협의회(1988.2~89.8월) 구성에 동의
 - 외무부차관(조직위 명예위원) 및 제1차관보(지원협의회 위원) 참여
- IRF 개요
 - 1948.5월 설립된 비정부 간 국제기구(81개국 약 400여개 기관 회원, 한국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협회 등 3개 정부기관 가입)
 - 설립목적: 회원 상호간의 도로기술 교류 및 협력증진, 각국 도로의 계획·건설·유지관리 및 도로교통의 국제수준화 도모
 - 매 4년마다 세계 총회개최

2. 주미국대사는 1988.4.6. IRF 서울총회 조직위원장과 공동명의로 IRF 연례회의 계기에 리셉션을 개최함.

- 제11차 IRF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한국의 발전상 홍보 목적
 - IRF 각국회원, 미국 정부 및 업계인사 등 약 250명 참석
- 4.7. IRF 연차회의에서 제11차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결의

3. 외무부는 1988.10.18. 한국도로공사에 IRF 서울총회 대표단 초청 관련 아래 의견을 통보함.

- 남아공대표의 총회 참석은 동 총회가 대규모 국제회의로서 대외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한국의 대남아공 교류억제 기본방침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남아공 인사의 참석을 불허
 - 이스라엘대표 초청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스라엘 인사가 개인자격으로 참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동 총회의 비정치적 성격을 감안, 허용해도 무방
- 북한대표의 초청은 남북한 간 화해와 자유접촉을 희망하는 전향적인 7·7 선언의 기본정신에 입각, 초청에 이견없음.

4. 외무부는 1989.2월 IRF 서울총회 참가 외국 장차관급 인사의 초청 관련 건설부장관 초청장 전달 등을 위해 협조함.

- 인도네시아 등 14개국 장·차관 초청서한 전달과 참가여부 확인
- 서울총회 개요
 - 1989.4.16.~21. 서울에서 개최, 80여개국 2,500명 참가 예정
 - 총회 의제: 국토개발과 도로의 역할
 - 도로계획과 행정 등 7개 주제 협의

한·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전5권. 1987.9.11. Washington D.C.에서 서명:
 1989.5.11. 발효(조약 제976호) (V.1 1983-86)

생산연도 1983-1989

생 산 과 통상1과/안보과/조약과

MF번호 2019-55 / 2 / 1-270

한국과 미국 간의 1983~86년 중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추진경과임

1. 1985.4.23. 미 국무부는 1984.5월 한·미국 간 1차 협정한 바 있는 대공산권 전략물자 수출 통제 양해각서 교환에 관한 양국간 협의를 조속 재개할 것과 미국 측 MOU 안에 대한 입장 제시를 요청함.
2. 외무부는 1985.5.3. 관계부처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측 제의에 대한 대책방안을 협의함.

한·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전5권. 1987.9.11. Washington D.C.에서 서명: 1989.5.11. 발효(조약 제976호) (V.2 1987(가서명))

생산연도 1983-1989

생산과 통상1과/안보과/조약과

MF번호 2019-55 / 3 / 1-328

한국과 미국 간의 1987년 중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추진경과임.

1. 1987.1월 외무부는 미국의 전략물자 및 기술교류에 관한 MOU 체결 제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함.

- 미국에 대한 협정상 의무로 제도운영에 있어 한국의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축소됨.
-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제도보다 더욱 강력한 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임.
- 미국과 안보유대 강화와 고도기술 도입 기반 및 COCOM과의 동등한 대우 기대 가능성 등 긍정적 측면이 있음.
- 전략상품 및 기술 통제제도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국이 선호하는 MOU 방식에 반대할 실익이 없음.
- 미국 측의 MOU 안을 수정·보완하고 반대급부 받아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

2. Ikle 미국 국방부차관은 1987.4.10.자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하여 MOU 교섭을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해 온바, 1987.5.13.~15. 서울에서 한·미국 간 실무회담이 개최됨.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 미국 측: Hughes 국무부 정치군사 부차관보
- 정부 훈령
 - MOU 조기 체결을 위해 적극적 자세로 임함.
 - 필요한 경우 추후 재회담 시도
 - 문안합의 시 가서명
- 협의 내용
 - MOU 및 2개 부속서한 가서명(5.13.)
 - 한국이 COCOM 제도와 동등한 수출통제제도 시행
 - COCOM 회원국과 동등한 대우
 - 전략물자 및 기술이전 촉진
 - 협의기구 설치
 - 한국의 COCOM 가입협조 등

한·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전5권. 1987.9.11. Washington D.C.에서 서명:
 1989.5.11. 발효(조약 제976호) (V.3 1987(후속조치 I))

생산연도	1983-1989
생 산 과	통상1과/안보과/조약과
MF번호	2019-55 / 4 / 1-388

한국과 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협정 가서명 이후 후속조치 현황임.

1. 외무부는 한·미국 간 전략물자 및 기술통제협정 양해각서 체결에 대하여 1987.5.19. 대통령에게 보고함.

- 평가
 - 한국의 대공산권 안보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천명
 - 미국으로부터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회원국과 동등한 대우 보장
 - 각 부처 대표단 간의 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한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
- 후속 조치
 - 주미국대사관에 정식 서명조치 지시
 - 합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 국내 조치사항 준비

2. 외무부는 5월 가서명한 한·미국 간 MOU 내용 중 국내 입법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조약체결 형식으로 체결이 필요함을 미국과 협의하고 이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추진함.

- 9.3. 국무회의 심의

3. 1987.9.11. 주미국대사관에서 김경원 주미국대사와 Holmes 미 국무부 차관보 간 양해각서 서명식을 개최함.

**한·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전5권. 1987.9.11. Washington D.C.에서 서명:
1989.5.11. 발효(조약 제976호) (V.4 1987(후속조치 II))**

생산연도 1983-1989

생산과 통상1과/안보과/조약과

MF번호 2019-55 / 5 / 1-85

한국과 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협정 서명 이후 후속조치 현황임.

1. Onate 미 국무부 담당관은 1987.9.16.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전략물자 통제에 관한 MOU 국내실시 협의를 위하여 10월 중 실무진 협의 개최 및 Hughes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을 제의해 옴.
2. 미국 측 제의에 대해 한국은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아래 이유로 미국 측 실무팀 방한을 1987.12월로 연기할 것을 미국 측과 합의함.
 -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대상품목 선정 등에는 시간이 소요됨(한국 측 실무협상안이 마련된 후에 추진).
 - Hughes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한도 1988.1월로 연기됨.
3. 한·미국 전략물자 수출통제 실무협회가 1987.12.8. 서울에서 개최됨.
 - 한국은 한·미국 전략물자 수출통제 양해각서 국내시행을 위한 준비조치 현황 및 전망 설명
 - 미국은 내무부와 국무부 담당관이 각각 소관사항별 수출통제제도 절차에 대해 브리핑

한·미국 간의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전5권. 1987.9.11. Washington D.C.에서 서명:
 1989.5.11. 발효(조약 제976호) (V.5 1988-89)

생산연도	1983-1989
생 산 과	통상1과/안보과/조약과
MF번호	2019-55 / 6 / 1-180

한·미국 전략물자 및 기술보호 양해각서가 국회비준 등 양국의 국내 조치를 거쳐 1989.5.11. 발효됨(조약 제976호).

1. 한국에서는 국회심의를 거쳐 1989.3.8. 국회 비준안이 통과됨.
 - 국회 절차에 필요한 자료 등 포함(참고자료, 국회 검토보고서 등)
 - 미국도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계에 COCOM의 효과에 관한 자료 등을 전달
 - 국회심의 일정은 동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로 진행
2. 한국 정부는 1989.4.5. 양해각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주미국대사 명의 외교공한을 통해 미국 측에 통보함.
 - 미 국무부는 1989.4.11. 각서발효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30일 경과한 날짜에 각서가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의 외교공한을 송부함.

한·헝가리 간의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협정, 1988.8.26. Budapest 에서 서명: 1988.9.13. 발효(조약 제958호)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동구2과/특전담당관실
MF번호	2019-55 / 7 / 1-150

1. 1988.9.13. 한·헝가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협정' 발효를 위한 양국 외무장관 명의의 국내조치 완료 통고문을 교환하고, 동일자로 협정을 발효함 (조약 제958호).
2. 상기 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상주대표부를 서울과 부다페스트에 각각 설치함.
 - 상주대표부는 외교적 대표권과 교섭권을 가짐.
 - 상주대표부 및 그 직원은 외교관과 동일한 특권면제 및 편의를 향유함.
3. 한·헝가리 양국은 각각 대표부에 직원 등을 파견하고, 이에 따른 대사관 및 직원주택 물색, 확보에 따른 특권, 면제, 편의를 제공함.
 - 한국은 헝가리 상주대표부를 1988.10.25.자로 개설함.

한·인도네시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전4권. 1988.11.10. Jakarta에서 서명: 1989.5.3.발효(조약 제975호) (V.1 1981-83)

생산연도	1981-1989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2과
MF번호	2019-55 / 8 / 1-165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1981~83년 중 조세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추진경과임.

1.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1982.8.27.~28.간 자카르타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예비협상을 진행하고 아래 합의사항에 대한 의정서에 가서명함.
 - 양측은 이중과세방지 조치 필요성에 공감함.
 -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새로운 조세정책을 설명함.
 -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타국과 기 체결한 조세협정과 동등한 대우를 요청함.
 - 양측은 한국 측이 제시한 협정문안을 검토함.
2. 1982.9월 이후 정부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차기 실무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인도네시아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인도네시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협의가 지연됨.
 -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협정 체결에 매우 소극적 입장으로 기 타결된 일본과의 협정 시행을 보류한바 있음.
3. Mochtar 인도네시아 외상은 1983.12.20. 기자회견에서 1984년부터 실시되는 신조세제도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재 체결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재교섭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관련국가에 예비접촉을 요청할 계획임을 언급함.

한·인도네시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전4권. 1988.11.10. Jakarta에서 서명: 1989.5.3.발효(조약 제975호) (V.2 1984-87)

생산연도 1981-1989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2과

MF번호 2019-55 / 9 / 1-221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1984~87년 중 조세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추진경과임.

1.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인도네시아 측 제의로 1984.7.9.~11. 자카르타에서 제1차 실무회의를 개최함
 - 인도네시아는 자원부국임을 감안 '원천지국 과세원칙' 강력 주장(신조세정책 내용)
 - 한국은 최혜국 대우를 요구함.
 - 양측은 협정문안에서 '조세대상' 등 많은 조항에 합의함.
- 812 2.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1985.4.22.~25. 자카르타에서 제2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4.25. 양측 수석대표 간 협정에 가서명함.
3. 한국 측은 가서명 후 1985.6월 인도네시아 측에 오류에 대한 수정 제의를 한바, 인도네시아 측은 9월 한국 측의 수정 제의에 동의하면서 협정문 일부(고정사업장, 사업소득)에 대해 수정을 제의함.
 - 한국 측은 단순오류 수정은 가능하나 협약안의 본질을 수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임.

한·인도네시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전4권. 1988.11.10. Jakarta에서 서명: 1989.5.3.발효(조약 제975호) (V.3 1988.1-10)

생산연도	1981-1989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2과
MF번호	2019-55 / 10 / 1-244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1988년 중 조세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추진경과임.

1. 한국은 한·인도네시아 양국이 가서명한 이중과세방지협정문안에 대해 인도네시아 측이 제의해온 수정안을 수락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1988.9월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을 통해 전달함.
 -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수정 제의안을 수락하지 않는 한 협정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
2. 한국은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양측 간에 협의를 진행하여, 해당 조항의 문구 수정을 통해 1988.10월 최종문안을 합의함.
 - 제7조1항에서 protocol 문안 채택(인도네시아 제의 수용)
 - 제5조3항에서 기간 분리(6, 3개월)
3. 한·인도네시아 양국이 노태우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기간 중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식을 거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은 국내절차를 진행함.

한·인도네시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전4권. 1988.11.10. Jakarta에서 서명: 1989.5.3.발효(조약 제975호) (V.4 1988.11-89.5)

생산연도 1981-1989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2과

MF번호 2019-55 / 11 / 1-213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1988~89년 중 조세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추진경과임.

1. 노태우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기간 중인 1988.11.10.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양국간 조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서명함.
 - 최광수 외무부장과 Ali Atlas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이 서명
2. 양국은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조치를 완료하고, 1989.5.3 서울에서 외무부장관 명의 비준서를 교환한바, 동일자로 동 조약이 발효됨(조약 제975호).
 - 한국은 10.26. 국무회의 심의, 12.16. 국회비준 동의

한·뉴질랜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 교섭

생산연도 1984-1989

생 산 과 경제협력과

MF번호 2019-55 / 12 / 1-151

1. 뉴질랜드는 1984.1.4.자 공한으로 1981.10.6. 서명(1983.4.22. 발효)된 ‘한·뉴질랜드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무차별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청해온바, 한국은 동 제안에 동의하고 11.13. 한국 측 수정안을 뉴질랜드에 전달함.
 - 뉴질랜드는 한국과의 협정 서명 후 미국 등과의 협정에서도 무차별 조항을 포함시킴.
2. 무차별 조항에 대한 양측 입장은 아래와 같음.
 - 뉴질랜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차별적 무차별 요구
 - 한국은 무차별 조항을 추가하지 않거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없는 절대적 무차별 요구
3. 양국은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을 통해 협의(1987년 말까지 각기 4차례 수정안 제시)를 진행하여 의견차를 좁혀 나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한국 측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더라도 비거주자의 범위를 개인에 한정(법인은 불포함)할 것을 최종 제의함.

한·스웨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1.5.27. 서울에서 서명: 1982.9.9. 발효(조약 제785호) (V.1 1977-79.3)

생산연도 1977-1982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9-56 / 1 / 1-294

한국과 스웨덴 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자 회의가 1979.3.5.~8.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진배 재무부 세제국장
- 스웨덴 측: K. Malmgren 예산성 세제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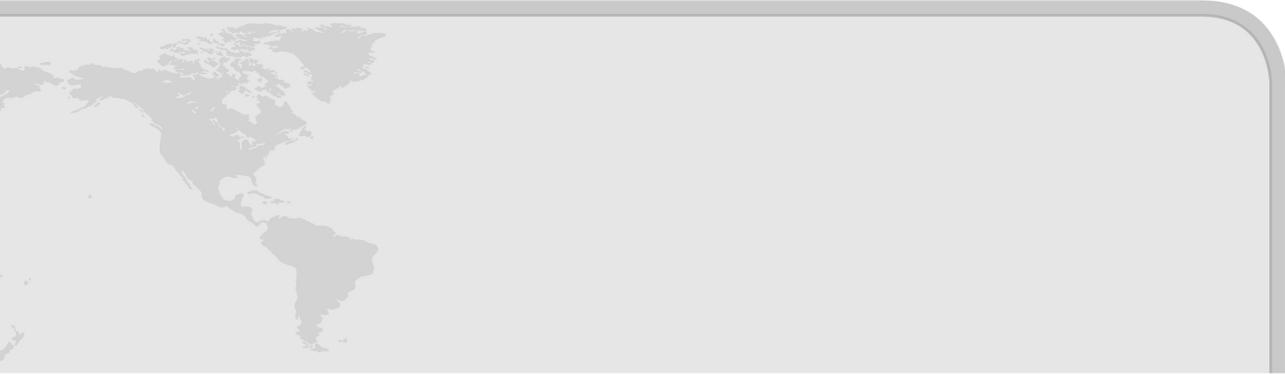
816

2. 회의 결과

- 이중과세방지협약 전문 29개조 및 합의의정서 1개항에 대한 협의 진행
 - 미합의 사항은 제2차 회의를 개최, 협의하기로 합의

3. 주요항목에 대한 협의결과

- 인적적용 범위: 합의
- 대상조세
 - 한국 측: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스웨덴 측: 중앙정부소득세, 유보이윤세, 감자 또는 청산에 따른 분배금에 대한 조세, 연예인에 대한 조세 및 지방소득세
- 일반적 정의 및 거주자: 한국안에 합의
- P.E.(영구설립):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감리용역 제공시 P.E.로 간주하기로 합의(단, 존속기간은 미합의)
- 부동산 소득: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한다는 원칙에 합의
- 사업소득: 귀속주의 및 독립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과세한다는 데 합의
- 국제운수소득: 기업소재지주의에 따라 상호 면세한다는 원칙 합의
- 특수관계인: 한국 안에 합의
- 배당: 양 체약국에서 과세한다는 원칙 합의, 단 원천지국에서의 제한세율에 대해서는 미합의
- 이자: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과세한다는 원칙 합의
- 사용료: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과세 미합의
- 양도소득: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미합의
- 근로소득: 선박 및 항공기 승무원의 소득에 대해 미합의
- 연금: 논의 보류
- 정부직원: 보수 및 연금에 대해 한국안에 합의



- 학생 및 교수: 논의 보류
- 이종과세 방지방법: 세액공제방법 등 원칙적으로 합의
- 무차별대우 등: 합의
- 시행 및 종료: 한국 안에 합의

한·스웨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1.5.27. 서울에서 서명: 1982.9.9. 발효(조약 제785호) (V.2 1979.5월-1982)

생산연도 1977-1982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9-56 / 2 / 1-286

한국과 스웨덴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이 1981.5.27. 정식 서명되고, 국내절차를 거쳐 1982.9.9. 발효됨(조약 제785호).

1. 제2차 실무자회의(1979.7.30.~8.2., 스톡홀름)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최진배 재무부 세제국장
 - 스웨덴 측: Y. Hallin 예산성 국제조세국장
- 제1차회의 시 미합의 사항에 대한 중점 토의
 - 전문 28개조와 합의의정서 3개항에 대해 최종 합의
- 동 협약안 주요내용
 - 대상조세
 - 한국 측: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
 - 스웨덴 측: 중앙정부소득세, 법인유보 이윤세, 연예인세 및 지방소득세
 - 배당, 이자 및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10~15%) 적용

2. 한·스웨덴 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서명

- 1981.5.27. 노신영 외무부장관과 K. Warnberg 주한 스웨덴대사 간 서명
- 동 협약의 체결로 한국과 스웨덴은 양국경제에 따른 이중적인 조세부담을 방지하고, 조세상의 불안과 분쟁을 제거함으로써 양국간의 경제적·인적 교류를 도모하여, 스웨덴의 한국에 대한 투자 및 기술진출 촉진 기대
 - 한국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총 14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3. 한·스웨덴 간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 국회 동의(1981.12.14.)
- 비준서 교환(1982.8.10.)
 - 강영규 주스웨덴대사와 L. Land 스웨덴 외무차관 간 교환
 - 양인은 동 협약의 발효를 통해 양국관계가 통상, 기술협력, 투자 등 모든 면에서 크게 증진될 것임을 확신한다는 견해 표명
- 동 협약안 발효(1982.9.9.)
 - 동 협약 제27조에 의거, 서명년도인 1981.1.1.부터 소급적용

한·튀니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8.9.27. Tunis에서 서명:
1989.11.25. 발효(조약 제992호) (V.1 1985)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9-56 / 3 / 1-153

한국과 튀니지 간의 1985년 중 조세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추진경과임.

1. 한·튀니지 양국은 1984.10월 음잘리 튀니지 수상 방한 시 제기된 '한·튀니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추진하기로 함.
2. 양국은 1985년 중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준비하면서 아래 입장을 조율함.
 - 튀니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모델과 과세원천 모델이 혼용된 불어본을 제시하고, 협상도 불어로 진행할 것을 희망함.
 - 한국은 OECD 모델의 영어본을 제시하고, 영어로 협상을 진행할 것을 희망함.
 - 튀니지 측의 영어구사 교섭인이 없음을 감안하여 통역을 통한 협상을 준비함.
3. 실무회담 일정은 양측의 준비기간 및 국내일정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1986.3월 튀니지 튀니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한·튀니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8.9.27. Tunis에서 서명: 1989.11.25. 발효(조약 제992호) (V.2 1986)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9-56 / 4 / 1-251

한국과 튀니지 간의 1986년 중 조세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추진경과임.

1. 제1차 실무회의(1986.3.10.~14. 튀니스(튀니지))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용진 재무부 세제국장
 - 튀니지 측: Kalai 재무성 세제국장
- 한국은 한국기업 진출을 감안한 '원천지국 과세축소' 입장 유지
- 한국(안)을 기초로 협의하여 대부분 조항에서 합의함.
- 국제운수 소득, 이중과세방지 조항 등 미합의된 사항은 추후 제2차 회의에서 재토의
- 제2차 회의를 1988.9월 중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2. 제2차 실무회의(1986.9.16.~20.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용진 재무부 세제국장
 - 튀니지 측: Trabelsi Mohamed Mokhtar 기획재무성 조세부국장
- 미합의 사항이 합의되어 수석대표 간 가서명(1986.9.20.)
- 한국은 원천지국 과세권 축소에 주력함.
- 주요 내용
 - 대상조세, 대상소득 및 동 과세원칙 규정
 - 외국세액공제, 간주외국세액 공제 등 이중과세회피 방법
 - 투자소득 중 배당 및 사용료 15%, 이자는 12%의 제한세율 적용

한·튀니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8.9.27. Tunis에서 서명:
1989.11.25. 발효(조약 제992호) (V.3 1987)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9-56 / 5 / 1-225

한국과 튀니지 간의 1987년 중 조세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추진경과임.

1. 한·튀니지 양측은 1986.9.20. 가서명된 문안(영문본, 불문본)에 대한 오류를 협의하여 수정함.
 - 한국은 영문본을 기준으로 한글본을 작성하고, 튀니지는 불문본을 기초로 아랍본을 작성
2. 한국은 외무부장관 튀니지 방문 계기에 동 협정 서명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 등 국내절차를 추진함.
3. 한글본에 포함된 용어와 관련 재무부와 외무부 간 이견이 있었으나 조율됨.

한·튀니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8.9.27. Tunis에서 서명: 1989.11.25. 발효(조약 제992호) (V.4 1988-89)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과

MF번호 2019-56 / 6 / 1-233

한국과 튀니지 간의 1988~89년 중 조세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추진 경과임.

1. 한·튀니지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1988.9.27. 변정현 주튀니지대사와 Habib Ben Yahia 외무담당 국무상 간에 서명됨.
2. 양국은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조치를 완료하고, 1989.10.25. 서울에서 외무부장관 명의 비준서를 교환한바, 1989.11.25.자로 동 조약이 발효됨(조약 제992호).
 - 한국은 1988.12.16. 국회 비준 동의, 튀니지는 1989.2.1. 국회 통과

한·일본 간의 제6차 연도(1987)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1989.6.16. 서울에서 각서교환: 발효(조약 제979호)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조약과

MF번호 2019-56 / 7 / 1-411

1. '한·일본 간의 제6차 연도(1987)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도입에 관한 각서교환'이 1989.6.16. 서울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야나이 신이치 주한 일본대사 간의 각서교환을 통하여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979호).
2. 동 교환각서는 일본이 한국에 76억 3천 4백만 엔 차관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 사업별 차관액
 - 대전시 상수도 확장사업: 14억 3천 4백만 엔
 - 중소기업 현대화사업: 62억 엔
 - 차관조건
 - 상환조건: 7년 거치 18년 분할상환(대전시 상수도), 7년 거치 13년 분할상환(중소기업 현대화)
 - 금리: 연이율 4%

한·나이지리아 간의 대나이지리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2권. 1988.12.9. Lagos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65호) (V.1 교섭, 1987)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2과

MF번호 2019-56 / 8 / 1-258

1. 나이지리아 정부는 1987.5월 한국으로부터의 철도차량 구매비용의 일부를 총당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에 2천만 달러의 공공차관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87.12월 주나이지리아대사에게 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에 대한 대외협력기금 지원방침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음을 알려주면서 이를 주재국 정부에 통보할 것을 지시함.
 - 외무부는 주나이지리아대사에게 동 기금 지원을 위한 향후 절차가 아래와 같음을 참고로 알려줌.
 - 정부간 협정 체결: 나이지리아 정부가 한국의 지원 방침을 수락할 경우 정부간 협정 체결
 - 차관공여계약 체결: 양국 정부간 협정 체결 후, 한국 수출입은행장과 차주인 나이지리아 정부 간 차관공여계약 체결

한·나이지리아 간의 대나이지리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전2권. 1988.12.9. Lagos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65호) (V.2 체결, 1988-89)

생산연도	1987-1989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2과
MF번호	2019-56 / 9 / 1-394

1. '한·나이지리아 간의 대나이지리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각서교환'이 1988.12.9. 라고스에서 오채기 주나이지리아대사와 Ike Nwachukwu(이케 은와추쿠) 나이지리아 외무장관 간에 서명·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965호).
2. 각서 주요내용
 - 한국은 나이지리아에 80억 5천 1백만 원(약 1,170만 달러) 한도 내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을 제공함.
 - 동 차관의 공여조건은 연이율 5%, 거치기간 5년을 포함한 상환기간 20년임.
3. 상기 차관공여계약이 1989.5.29. 서울에서 한국 수출입은행장과 주한 나이지리아대사 간에 체결됨.

한·헝가리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1988.12.28. Budapest에서 서명: 1989.1.1. 발효 (조약 제967호)

생산연도 1988-1989

생 산 과 조약과/경제협력1과

MF번호 2019-57 / 1 / 1-310

1. 한·헝가리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이 1988.12.28. 부다페스트에서 신동원 외무부차관과 파트코 헝가리 재무차관 간에 서명되어 양국 정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함으로써 1989.1.1.자로 발효됨(조약 제967호).

2. 동 협정 주요내용

- 상대국의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부여
- 투자 및 수익에 대한 부당한 제한없는 송금보장
- 투자에 대한 수용조치 시 정당한 시장가액 보상
- 대위변제 인정

3. 동 협정 교섭경위

- 1988.9월 한국 측 초안제시
- 1988.11.28.~30. 실무교섭회의 및 가서명

**한·말레이시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4.11. 서울에서 서명: 1989.3.31. 발효(조약 제971호)
(V.1 교섭, 1981-87)**

생산연도	1981-1989
생 산 과	경제협력1과/조약과
MF번호	2019-57 / 2 / 1-429

한·말레이시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을 교섭함.

1. 협정 체결경위

- 1981.6월 전두환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 시 협정 체결 원칙 합의
- 1981.10~85.10월 한국 측 안 제시 및 말레이시아 측 대안 제시
- 1986.2월 한국 측 대안(제3수정안) 작성
- 1986.12월 제1차 실무회의 개최

2. 1986.12.1.~2.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차 실무회의 시 아래 사항에 관해서는 합의하지 못함.

- 투자 및 수익에 대한 내국민, 최혜국 대우
- 투자관련 부과된 의무준수
- 수용 시 이자지급 계산시점

3. 제2차 한·말레이시아 투자보장협정 실무회의가 1987.10.13. 서울에서 개최된바, 동 회의는 제1차 회의 시 미결조항을 중심으로 토의, 협정문안을 확정하고 양측 수석대표가 가서명함.

한·말레이시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88.4.11. 서울에서 서명: 1989.3.31. 발효(조약 제971호) (V.2 체결, 1987-89)

생산연도 1981-1989

생 산 과 경제협력1과/조약과

MF번호 2019-57 / 3 / 1-276

1. 한·말레이시아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1988.4.11. 서울에서 신동원 외무부차관 (장관대리)과 라피다 말레이시아 상공장관 간에 서명됨.
2. 동 협정은 1989.3.31.자로 발효됨(조약 제971호).
 - 동 협정은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일자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되도록 되어 있는바, 양국 정부는 1989.2.28.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함.
- 828 3. 동 협정은 전문 및 본문 1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상대국 영역 내에서 행한 투자는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향유
 - 국유화 또는 수용 시 신속·적절·유효한 보상
 - 투자분쟁 시 조정·중재 및 중재재판소 이용

한·태국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89.3.24. Bangkok에서 서명: 1989.9.30. 발효
(조약 제986호) (V.1 1979-85)

생산연도 1979-1989

생 산 과 경제협력1과/조약과

MF번호 2019-57 / 4 / 1-242

1. 주태국대사는 1978.10월 금후 태국에서 한국업체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임에 비추어 한·태국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을 외무부에 건의함.
2. 한국 측은 1981.6월 동 협정 초안을 태국 측에 제시한바, 동 협정안에 관한 협의경과는 아래와 같음.
 - 1984.6월 태국 측 대안 제시
 - 1985.1월 한국 측 수정안 제시
 - 1985.8월 태국 측 수정안 제시

**한·태국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89.3.24. Bangkok에서 서명: 1989.9.30. 발효
(조약 제986호) (V.2 1986-88)**

생산연도 1979-1989

생 산 과 경제협력1과/조약과

MF번호 2019-57 / 5 / 1-293

1. 제1차 한·태국 투자보장협정 체결 교섭을 위한 실무회담이 1986.11.27.~28. 방콕에서 개최된바, 동 회담 시 미합의 사항은 아래와 같음.
 - 투자허가 시 자유로운 조건 부과
 - 국유화 또는 수용 시 보상액 산정 기준

2. 한국과 태국 양측은 제1차 실무회담 이후 상호협의를 거쳐 협정문안 전체에 관해 합의하고 1988.10월 서울에서 동 협정 가서명을 추진하였으나, 태국 측이 다시 수정안을 제시함으로써 가서명이 이루어지지 못함.

한·태국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89.3.24. Bangkok에서 서명: 1989.9.30. 발효
(조약 제986호) (V.3 1989)

생산연도	1989
생 산 과	경제협력1과/조약과
MF번호	2019-57 / 6 / 1-209

1. 한·태국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1989.3.24. 방콕에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시티 사웨쌀라 태국 외무장관 간에 서명됨.
2. 동 협정은 1989.9.30. 발효됨(조약 제986호).
 - 1989.8.30.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과 주한 태국대사 간 양국 외무장관 명의 비준서가 상호 교환됨.
3. 동 협정은 전문 및 본문 12개조로 구성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체약당사국 간 투자 촉진·장려
 - 체약당사국 간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부여
 -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중재재판소 이용
4. 한국과 태국은 1989.3월 상기 협정문안에 최종 합의한 바 있음.

한국전기통신공사 관련 기관 간 약정

생산연도 1985-1989

생 산 과 조약과/중동과/동구2과/경협1과

MF번호 2019-57 / 7 / 1-55

1. 외무부 중동국은 1985.9월 체신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쿠웨이트 체신부 간에 기술협력각서 체결을 추진하고자 이에 대한 외무부 관련국의 의견을 문의함.
 - 국제기구조약국은 상기 기술협력각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쿠웨이트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시행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 간 약정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보함.
2. 체신부는 1989.11월 전기통신분야의 기술협력교류증진을 위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헝가리PTT 간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자 이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12월 상기 양해각서 체결에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으며, 다만 전기통신분야 협력이 국제적으로 민감한 첨단기술분야인 점에 비추어 동 각서에 따른 협력이 한·헝가리 기술협력협정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보함.

한·캐나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1989.9.20.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5호) (V.1 교섭철 I, 1973-85.10)

생산연도 1973-1989

생산과 조약과/통상1과

MF번호 2019-57 / 8 / 1-279

1973~85년 중 한국과 캐나다 간의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교섭 경위

- 한국 교통부는 1973.5.23. 외무부에 보낸 공문을 통하여 한국과 캐나다 간의 항공 수요 확보와 미주노선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1974년 중 민간항공이 캐나다 취항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캐나다노선 확보를 위한 항공협정 체결 교섭을 요청함.
- 주캐나다대사관은 외무부의 교섭 지시에 대하여 1973.6.11.~20. 본부에 보낸 전문에서 캐나다 정부는 협정 체결에 대하여 원칙적인 동의를 하나 캐나다 2개 항공사 간의 경합문제 해결과 20여 개국으로부터 제안 받은 협정 체결 교섭문제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함.

2. 협정문안 교섭

- 외무부는 1973.6.27. 협정문안을 주캐나다대사관에 송부하면서 캐나다 정부와 교섭할 것을 지시함(총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노선구조는 협상진전 시에 제시).
- 캐나다 정부는 7.16. 주캐나다대사관을 통하여 송부한 답신에서 캐나다 항공정책 및 타국과의 교섭문제로 한국과의 교섭은 다소 시일이 경과한 후에 개시할 의사임을 통보함.
- 캐나다 측의 무관심으로 시간이 흘러 1976.9.11. 외무부는 주캐나다대사관에 캐나다 정부와의 교섭을 다시 지시한데 대하여 대사관은 1977.1.29. 외무부에 보낸 전문을 통하여 항공사간 사전협의를 통하여 캐나다항공사가 정부에 항공협정 체결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는 한, 캐나다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 견지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항공사 간 예비교섭을 건의함.
 - 대한항공은 캐나다 항공사인 CPA사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무산
- 주밴쿠버총영사는 1978.1.27. CPA 본사를 방문하여 사장과 면담하였는바, CPA 측은 외국 항공사의 캐나다 진출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총영사의 설득에 대한항공 측과 실무접촉 개최에 동의함.
 - 양사 대표는 1978.10.26.~27. 밴쿠버에서 개최되었던 대한항공과 CPA 간의 합의사항에 의거하여 1979.1.24.~26.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하여 양자협정 체결과 양국간 항공협정 체결 추진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합의
- 양사의 합의에 의거하여 외무부는 1979.2.16. 주캐나다대사관에 양국간 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캐나다 측은 먼저 양사간 상업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1985년 대한항공은 Air Canada 및 CPA와 접촉



- 1985.2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캐나다 통상장관회담에서 캐나다 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서울 주재 캐나다대사관은 4.11. 외무부에 보낸 공한을 통하여 한국 정부가 항공회담 개최를 정식 요청할 경우에는 캐나다 정부가 이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함에 따라 외무부는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보낸 공한으로 10월 서울 개최를 제의함.
 - 양측 협의로 1985.11.19.~22 서울 개최 합의
- 캐나다는 주한 캐나다대사관을 통하여 10.10. 캐나다 측 협정문안을 제시함.

한·캐나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1989.9.20.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5호) (V.2 교섭철 II, 1985.11-87.11)

생산연도 1973-1989

생 산 과 조약과/통상1과

MF번호 2019-57 / 9 / 1-397

1985~87년 중 한국과 캐나다 간의 항공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제1차 항공회담(1985.11.19.~22.,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박련 외무부 경제국장
 - 캐나다 측: Elliot Geoffrey 외무성 항공협상 수석담당관
- 한국대표단 훈령
 - 지정항공사는 단수제로 하며, 노선구조는 상호간의 운수권의 균형을 갖는 범위 내에서 지점의 명시를 대표단에 일임.
 - 사용 기종은 무제한으로 하며 운항회수는 주3회 이내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국 항공사 간 합의사항을 항공당국이 승인하는 조건으로 할 것
- 회담 결과
 - 한국 측 협정안을 기초로 하여 캐나다 측 안을 일부 수정하여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협정문안 합의
 - 노선구조 및 부대조건을 포함한 부속서는 차기 회담 시 협상한다는 합의의사록 채택
 - 한국 측이 토론토노선을 주장한데 대하여 캐나다 측은 불수용

2. 제2차 항공회담(1987.12.7.~9., 오타와)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동익 외무부 경제국장
 - 캐나다 측: Randolph Gherson 외무성 항공협상 수석담당관
- 논의사항
 - 캐나다 측은 대한항공의 토론토 취항을 허가하는 대신 한국 측은 한국 취항 Air Canada에 대하여 충분한 실질적 가치가 있는 제5자유운수권을 부여할 것과 싱가포르 국적항공기에 대하여서도 제5자유운수권을 부여할 것 등을 요구
- 훈령
 - 노선도는 한국 내 제지점-밴쿠버-토론토-중남미 제지점
 - 주7회의 범위 내로 정하되 불합의 시에는 항공사간 협의 후에 항공당국이 승인
 - 싱가포르항공사에 대한 서울이원 밴쿠버 운항허용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되, 캐나다 측이 강력하게 주장할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대처

한·캐나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1989.9.20.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5호) (V.3 교섭철 III, 1987.12)

생산연도 1973-1989

생산과 조약과/통상1과

MF번호 2019-58 / 1 / 1-383

1987.12.7.~9.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2차 한국과 캐나다 간의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 결과임.

1. 캐나다 측은 싱가포르항공에 대하여 부여한 서울-밴쿠버 간 운수권을 캐나다 측에 비밀문서로 보장해 주는 방안을 제의한데 대하여 한국 측은 싱가포르항공과의 이원지점 협의가 교착상태임을 고려하여 반대함.
- 836 2. 외무부는 캐나다 측 제안에 대한 대표단의 청훈에 대하여 1987.12.11. 훈령을 보내어 협정 본문에는 합의 가서명하되, 노선구조에 관한 부속서에는 차기 회담에서 재협의를 것을 지시함.
3. 양측은 협정문안에 가서명하고 부속서에 관한 협상은 1988.1월 서울에서 후속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
4. 캐나다 측은 협정발효 이전이라도 서울-밴쿠버-토론토노선에 대한항공이 잠정조치로 취항이 가능하다고 언급함.

한·캐나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4권. 1989.9.20. 서울에서 서명: 발효(조약 제985호) (V.4 체결철, 1988-89)

생산연도 1973-1989

생산과 조약과/통상1과

MF번호 2019-58 / 2 / 1-441

한국과 캐나다 간의 항공협정이 1989.9.20.자로 서명, 발효됨.

1. 싱가포르항공에 대한 이원권 허용 및 한·캐나다 항공협정에 명기하는 문제

- 대한항공과 싱가포르항공은 1988.1.6.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개최하고 싱가포르항공의 주3편까지 서울이원 밴쿠버 운항허용과 대한항공의 서울-싱가포르 구간 운항회수를 주2편 증편하는데 합의함.
- 싱가포르항공의 이원권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1988.1.11. 주캐나다대사관을 통하여 싱가포르항공에 대한 서울이원 밴쿠버 운항권을 허용하며, 싱가포르 문제는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협의로 해결되었으므로 한·캐나다 협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통보함.

2. 한·캐나다 항공협정 타결 및 발효

- 항공협정 체결 경위
 - 한국 정부는 1989.3.15.까지 싱가포르항공의 밴쿠버이원 운항을 허용함.
 - 항공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는 1989.3.27. 이전까지 완료함.
 - 부속서는 캐나다 수석대표의 방한 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가서명함.
 - 수석대표 간 교환서한 및 합의록(노선구조 및 공급에 관한 양해각서) 내용에 합의함.
- 양측 수석대표는 1988.2.1. 서울에서 합의록에 서명하고 첨부물 3건에 가서명하였으며, 싱가포르 항공에 관한 서한을 교환함.
- 한국 정부는 1989.8월 국내절차를 완료함.
- 1989.9.20. John Carnell Crosbie 캐나다 통상장관이 방한 시 최호중 외무부장관과 항공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동 협정은 당일 발효됨(조약 제985호).

한·프랑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부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89.3.23. 및 3.30. 서울에서 각서교환: 1989.3.30. 발효(외무부고시 제166호)

생산연도 1989

생산과 조약과/통상2과

MF번호 2019-58 / 3 / 1-87

1. 한·프랑스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부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이 1989.3.30.자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166호).
 - 1989.3.23. 주한 프랑스대사관 명의 제안각서에 대하여 1989.3.30. 외무부 명의 회답각서 송부로 동 약정이 체결됨.
2. 동 협정부표의 개정으로 파리-서울 간 운항노선상 중간지점이 2곳씩 추가되었으며 일부구간에 제5자유운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중간지점 추가
 - 한국 측: 방콕 또는 항공당국 간 합의되는 1지점/한국 항공당국이 결정할 1지점
 - 프랑스 측: 방콕/프랑스 항공당국이 지정할 1지점
 - 제5자유운수권 신설
 - 한국 측: 파리-방콕 혹은 항공당국 간 상호 합의로 결정되는 다른지점간 양방향
 - 프랑스 측: 서울-방콕 양방향
3. 외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상기 협정부속서의 개정을 통하여 한·프랑스 양국 항공사가 방콕을 경유(사정에 따라 방콕 대신 다른지점 경유 가능)하여 상대국에 취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울-동남아 및 유럽-동남아 간 항공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함.

대한민국
외교사료해제집
- 해설·요약 -

1989년(I)

인 쇄 | 2020년 3월 15일

발 행 | 2020년 3월 31일

발 행 처 외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기 획 외교부 기획조정실 외교사료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편찬위원 박재현, 이태로, 이휘진, 최석인, 하태윤, 한재영

감수위원 박상훈

인 쇄 제일기획
Tel. 02) 2269-8900~2